

목포시사

무 · 켜 · 무 · 연

4 터전 목포

목포는 항구다
목포 아리랑
목포의 눈물
목포의 희망
마을 유래
주요 인물



목포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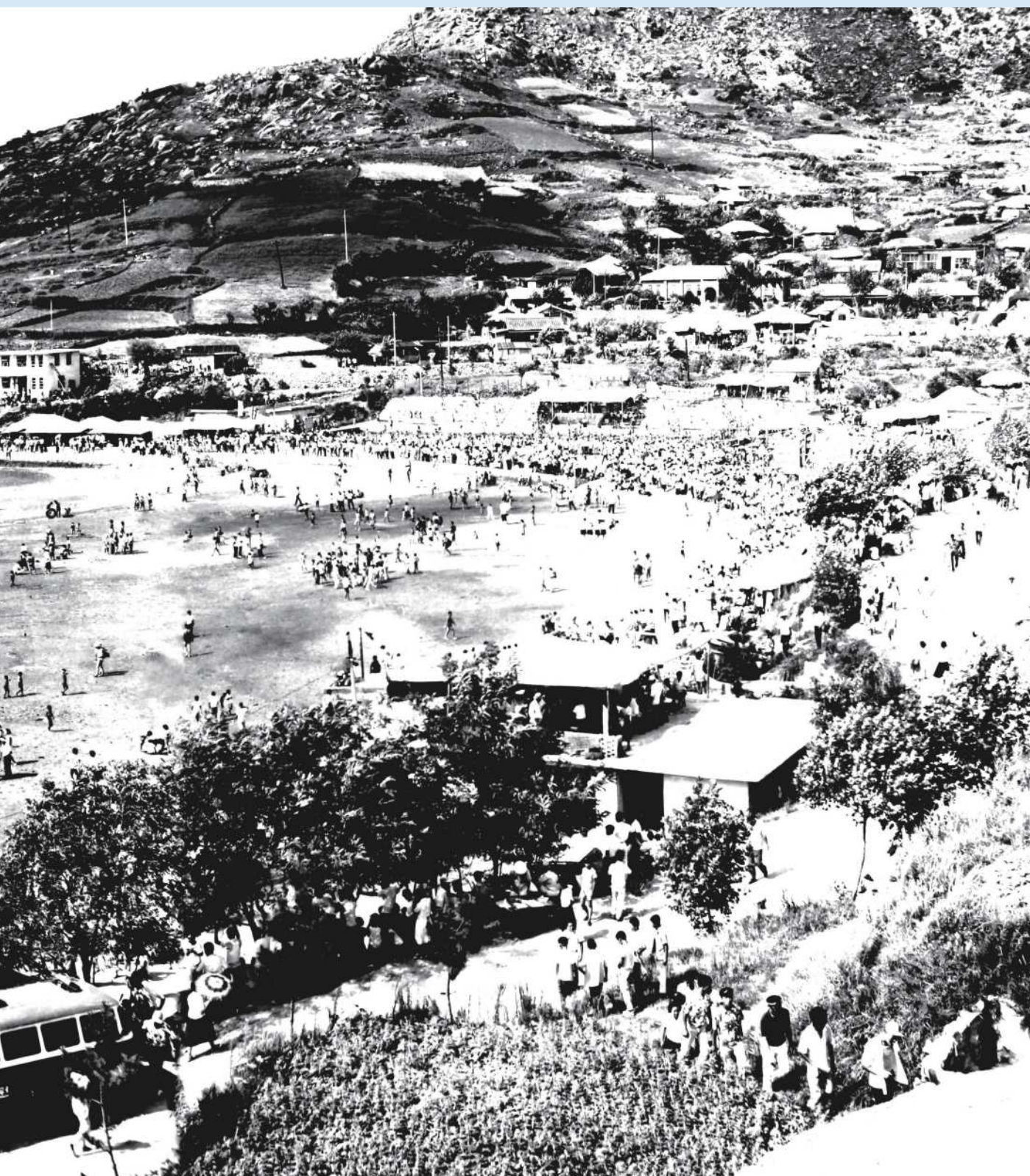
다 · 첫 · 마 · 양

4 터전 목포

목포는 항구다
목포 아리랑
목포의 눈물
목포의 희망
마을 유래
주요 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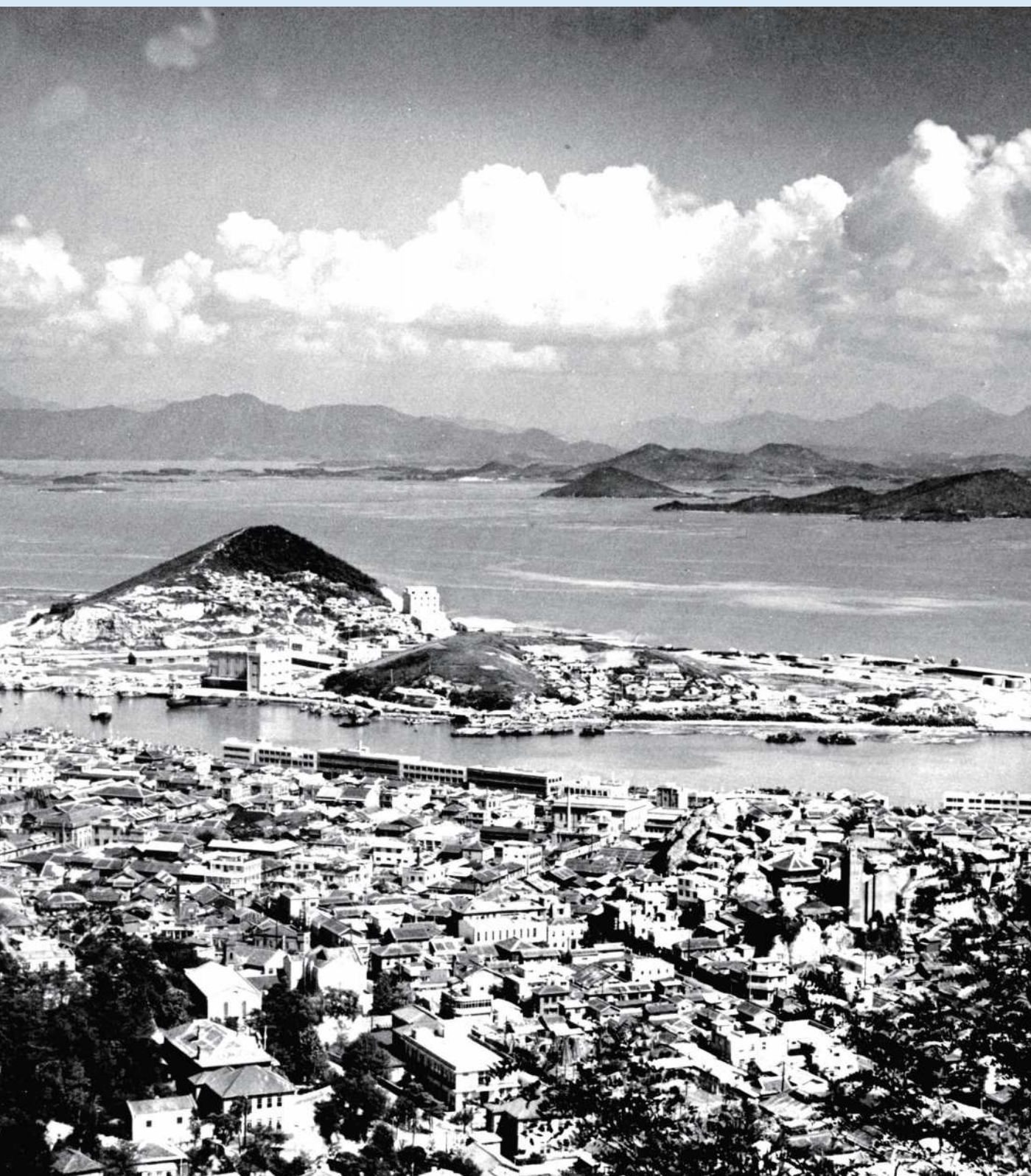


대반동 해수욕장(1967, 박종길 소장)





남해개발 시기의 목포(1969, 박종길 소장)





달성동 초가지붕 개량 사업 현장(1970, 박종길 소장)





온금동·서산동 방면(1975, 박종길 소장)





목포고등학교 방면(1977, 박종길 소장)





왕자회사 주변(1975, 박종길 소장)



갯바위 해수욕장(1986, 박종길 소장)

| 일러두기 |

다섯 마당 『목포시사』의 구성

- 제1권 「항도 목포」는 자연환경부터 시작하여 도시형성과정, 해운항만산업, 그리고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목포 역사 및 문화유산을 정리하였다. 목포의 공간적 특징과 그 안에서 전개된 역사·문화의 배경, 주요한 역사적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 제2권 「예향 목포」는 문학을 필두로, 음악·연극·무용·국악·대중가요·마당극 등의 공연예술, 미술·조각·서예·사진 등의 시각예술과 관광·체육, 민속, 종교, 교육 등으로 구성하였다. 분야별 흐름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목포 정신문화의 전개 과정과 고유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 제3권 「일등 목포」는 목포의 정치, 행정, 산업 및 경제, 기업, 사회, 복지 및 의료 등으로 구성하였다. 목포 지역 사회와의 관련 속에서 분야별 형성·발전·변화 과정을 밝힘으로써 현재 목포의 사회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 제4권 「터전 목포」는 목포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온 평범한 토박이들의 이야기와 마을 유래, 그리고 목포의 주요 인물을 다루었다. 목포시민의 생활문화와 삶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고, 목포가 기억해야 할 인물들을 처음으로 한 데 모아 정리했다.
- 제5권 「기록 목포」는 1~3권의 부록에 해당하는 현황 자료와 목포 관련 문헌·사진·물증자료 등의 역사 자료로 구성하였다. 역사 자료는 사료적 가치가 높은 자료를 알리고,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여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어 훗날의 사료가 되도록 했다.

서술 범위

- 시간적 범위 : 선사시대부터 목포시사 편찬을 시작한 2015년 12월 31일까지를 하한 범위로 하되, 주제별로 필요한 경우 2017년 자료까지 반영하였다.
- 공간적 범위 : 행정구역상 목포시를 대상으로 하되, 필요시 역사적 연원을 공유하고 문화적 동질성을 지닌 인근 지역을 포함하여 서술하였다.

자료 이용 시 주의 사항

- 다섯 마당 『목포시사』의 저작권은 목포시에 있다. 이 책에 수록된 내용과 도표·사진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밝히야 하며,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 개인 및 기관·단체가 제작·소장한 사진 등 원 저작자가 있는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해 사용해야 한다.

목차

contents



개관

개관	25
1. 터전 목포	25
2. 목포 사람이 기억하는 역사를 만나다	31

제1편 목포는 항구다

제1장 부둣가 사람들	39
제1절 목포항과 바다를 개척한 선장 이야기	39
제2절 항운노조에서 잔뼈 굵은 노동자	54
제3절 목포항과 선구점	67
제4절 목포가 낳은 최고의 목수	76
제5절 한국 최초의 육지면 재배지 고하도	84
제2장 목포를 대표하는 기업	99
제1절 보해 이야기	99
제2절 행남자기와 함께한 내 청춘	109
제3절 목포 육상운수업의 역사	123
제4절 인근 섬주민의 발이 되어 준 목포 해상교통의 길잡이	135

제2편 목포 아리랑

제1장 문화와 예술을 꽃피우다	153
제1절 목포 문화예술계의 산증인	153
제2절 목포 최초의 서예학원을 설립한 서예가	175
제3절 목포가 낳은 최고의 배우	190

제2장 문학을 노래하다.....	207
제1절 목포 수필 문학의 산증인.....	207
제2절 목포의 선비 시인.....	220
제3절 추억의 서점 문화당을 말한다.....	228

제3편 목포의 눈물

제1장 오거리 이야기	245
제2장 목포의 맛과 멋	261
제1절 동부시장을 대표하는 억척이, 학산상회 김삼덕.....	264
제2절 목포의 수산물 전문시장, 청호시장의 청호수산.....	271
제3절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만든 사람이 모두 이익이 되는 곳.....	278
제4절 서울의 양복기술을 목포에 전파하다	282
제5절 남교동을 지켜온 양화점의 역사	289
제6절 목포를 대표하는 맛집, 영란횃집.....	295
제7절 콩물 하나로 목포의 맛집이 된 유달콩물.....	301
제8절 남교동을 지켜온 유일한 죽집, 67년 전통의 역사	308
제9절 목포 유일의 이북식 만둣국집	315



목차

contents



제4편 목포의 희망

제1장 어둠을 밝게 개척한 사람들	323
제1절 전남 지역 최초의 아동복지시설, 목포공생원	323
제2절 목포 지역 영유아 보육에 힘쓴 동민복지재단	330
제3절 목포 평생교육의 선구자	341
제4절 여성숙의 결핵요양소 운영과 의료선교	355
제5절 한국디아코니아자매회의 섬김 활동	364
제2장 목포의 희망을 이야기하다	379
제1절 영산강을 지켜낸 환경운동가	379
제2절 삼학소주의 흥망성쇠를 지켜본 향토사학자	394
제3절 국어교사에서 방언 연구자로	407
제4절 유달산 자락에서 태어나 자란 목포 토박이	421
제5절 목포 구도심을 누비던 청년들	438
제6절 목포의 역사와 시간을 전하는 사람들	448
제7절 유달산에서 3호광장까지, 그리고 신도심 주민으로 살아가기	463

제5편 목포의 마을과 땅이름

1. 목원동	480
2. 동명동	489
3. 유달동	490
4. 만호동	495
5. 대성동	498
6. 용당1동	500
7. 용당2동	503
8. 연동	503

9. 산정동	505
10. 연산동	506
11. 원산동	508
12. 삼학동	509
13. 죽교동	509
14. 북향동	510
15. 용해동	511
16. 이로동	511
17. 상동	513
18. 하당동	514
19. 신흥동	515
20. 삼향동	515
21. 옥암동	516
22. 부흥동	517
23. 부주동	518

제6편 목포의 주요 인물

강대진(姜大振, 1935~1987)	523
강상철(姜相喆, 1963~1986)	524
강석봉(姜錫奉, 1890~1956)	525
강세철(康世哲, 1926~2007)	526
고연우(高蓮宇, 1897~?)	527
곽종선(郭鍾善, 1910~1950)	527
김대중(金大中, 1924~2009)	528
김면수(金冕秀, 1855~?)	530



목차

contents



김문옥(金文玉, 1897~1966)	531
김방한(金芳漢, 1925~2001)	532
김상두(金相斗, 1911~?)	534
김상섭(金商燮, 1876~1945)	535
김상육(金相六, 1917~1977)	536
김성규(金星圭, 1863~1936)	536
김암기(金岩基, 1932~2013)	538
김영재(金英子, 1922~2015)	539
김영해(金永廈, 1903~1959)	540
김용구(金容九, 1933~2015)	541
김우진(金祐鎭, 1897~1926)	541
김익진(金益鎭, 1906~1970)	543
김정수(金正洙, 1910~?)	544
김정재(金正財, 1932~1998)	545
김준형(金浚炯, 1914~2008)	545
김진섭(金晉燮, 1903~ 6·25 때 납북)	546
김철진(金哲鎭, 1905~1971)	547
김현(金炫, 1942~1990)	548
나달수(羅達洙, 1917~2010)	549
문일석(文一石, 생몰년 미상)	550
문재철(文在喆, 1883~1955)	551
박길수(朴吉洙, 1928~1994)	552
박상렬(朴相烈, 1897~1981)	554
박승희(朴勝熙, 1971~1991)	555
박애순(朴愛順, 1896~1969)	557
박연세(朴淵世, 1883~1944)	557

박태영(朴泰泳, 1967~1987)	558
박화성(朴花城, 1904~1988)	560
배치문(裵致文, 1890~1942)	562
법정(法頂, 1932~2010)	563
서병인(徐炳寅, 1896~1948)	564
서상봉(徐相鳳, 1870~1927)	565
서화일(徐化壹 徐化一, 1881~1936)	565
서희환(徐喜煥, 1934~1995)	566
손수겸(孫守兼, 생몰년 미상)	567
손양동(孫良銅, 1916~2015)	567
손용기(孫容基, 1898~?)	568
손재형(孫在馨, 1903~1981)	568
안철(安哲, 1946~2003)	569
안향련(安香蓮, 1944~1981)	571
유진 벨(Eugene Bell, 1868~1925)	572
윤기현(尹基鉉, 1900~?)	572
윤치호(尹致浩, 1909~1951 실종)	573
윤학자(尹鶴子, 1912~1968)	573
이기동(李琪同, 1906~?)	574
이난영(李蘭影, 1916~1965)	575
이남규(李南圭, 1901~1976)	577
이매방(李梅芳, 1926~2015)	577
이방호(李方浩, 1914~1993)	579
이복주(李福柱, 1919~1997)	580
이생연(李生淵, 1938~2005)	580
이승모(李承模, 생몰년 미상)	581



목차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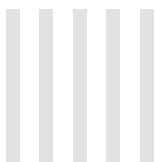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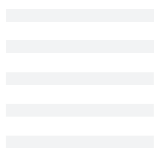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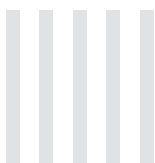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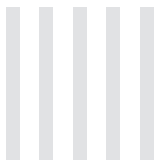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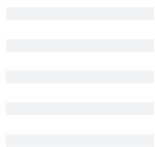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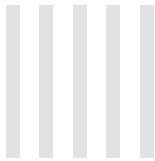
이영원(李永院, 1919~2011)	581
이인형(李麟炯, 1914~1934)	582
이훈동(李勳東, 1917~2010)	583
임광행(林廣幸, 1919~2002)	584
임기봉(林基奉, 1905~1982)	584
임종기(林鍾基, 1926~2007)	585
장덕(張德, 1910~1976)	586
장병준(張炳俊, 1893~1972)	587
장월중선(張月重先, 1925~1998)	587
장종기(張宗基, 1924~2010)	588
전태홍(全泰洪, 1937~2005)	589
정병조(鄭炳朝, 1879~1970)	590
정인영(鄭仁永, 1920~2006)	592
정재현(鄭宰賢, 1906~1998)	592
조극환(趙克煥, 1887~1966)	593
조미미(曹美美, 1947~2012)	594
조점환(趙點煥·趙占煥·趙松熙, 1907~1940)	595
조효석(趙孝錫, 1922~1998)	596
조희관(曹喜灌, 1905~1958)	596
차남수(車南守, 1903~1990)	597
차남진(車南鎭, 1893~1970)	599
차범석(車凡錫, 1924~2006)	599
차재석(車載錫, 1925~1983)	600
천귀례(千貴禮, 1903~?)	601
천독근(千篤根, 1905~1959)	602
최병우(崔秉宇, 1924~1958)	602

최섭(崔燮, 1905~2000).....	603
최진열(崔振烈, 1926~2012).....	604
최찬열(崔燦悅, 1906~2006).....	605
최하림(崔夏林, 1939~2010).....	605
하동현(河東鉉, 1903~1969).....	607
허건(許健, 1908~1987).....	608
현준호(玄俊鎬, 1889~1950).....	610
홍순기(洪舜基, 1929~2012).....	610
홍정희(洪禎禧, 1934~1997).....	611





개관



1. 티전 목포

곽유석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연구위원

2. 목포 사람이 기억하는 역사를 만나다

이경아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연구위원

1. 터전 목포

제4권 터전 목포는 목포라는 공간에서, 시간적으로 일제 강점기 말 이후 살아왔던 목포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서술한 책이다. 개항기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부산, 경남 지역 사람들과 인근 지역 농어촌 사람들이 개항장 목포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일터를 찾아 모여들었다. 해방 후에는 목포, 신안, 진도, 완도 등 인근 다도해 섬 지역과 영암, 무안, 강진 등 이웃하는 농촌 지역 주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도시 목포로 밀려들었다.

항구라는 특성상 새로운 일자리는 부두 노동과 어업관련 직업이 대부분이었다. 초창기 정착민들은 부두에서 하역노동자로서, 또한 어선의 선원으로서 자리를 잡아나갔고, 그들의 주거지는 자연스럽게 선창과 가까운 유달산 자락에 형성되어 갔다.

목포는 개항 도시로서 근대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으나, 유달산 기슭의 워낙 좁은 땅덩어리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땅을 넓혀가는 문제가 도시 성장과 맞물려 있었다. 따라서 먼저 도시를 형성하고, 터전을 넓혀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 다음 일상의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개괄해 본다. 글의 전반부 터전을 넓혀가는 과정은 고석규의 『근대도시 목포의 역사·공간·문화』에서 요약하였다.

목포의 뿌리는 목포진이다. 이 지역은 영산강과 바다가 만나는 위치이고, 서해와 남해를 이어주는 해상교통로 상에 위치해 있다. 또한 곡창지대인 영산강 유역으로 들어가는 길목이기도 하다. 이처럼 지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를 방어하기 위해 조선 시대 1439년(세종 21)에 수군진이 설치되었고, 종 4품 무관인 만호가 파견되었다. 이때부터 지명과 장소가 일치하는 목포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1895년 폐진 할 때까지 456년간 목포진으로 존재했고, 1897년 개항과 함께 도시가 형성되었으며, 일제 강점기를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개항 직전 목포진 중심으로 150여 호에 600여 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고,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무안현 이로촌면까지 합한다면 800여 호에 2,000여 명 이상이 살고 있었다. 개항 당시 목포 터전 형성은 유달산 남쪽의 목포진 중심으로 매립한 일본인 거류지 1㎢와 유달산 기슭 북동쪽의 조선인 거주지 1.33㎢의 면적이 그 시작이었다. 이렇듯 목포는 땅이 좁았다. 유달산과 양을산으로 이어진 굴곡진 산록 주변이 전부였다. 그래서 개항 후 주변 바다를 계속적으로 매립하면서 터전을 넓혀갔다. 어찌 보면 목포는 물 위에 세운 도시라 하겠다.

개항 후 1900년까지 유달동 구 일본영사관 앞 시가지가 매립되었고, 1909년에는 현재의 선창을 형성했던 서산동, 목포진, 송도, 목포역 예정지 부근까지 잇는 매축공사가 완료되었다. 1913년까지는 현재 목포역 뒤편쪽이 매축되었다. 1914년부터 1924년까지는 남교동, 북교동이 매립되고, 1925년부터 1932년까지 지금의 제일중학교 부근에서 목포역 뒤편까지 연결해서 독을 막고 넓은 간척지를 확보해 매립을 했다. 이때 지금의 이로동, 용당동, 연동, 산정동에 이르는 광활한 영역을 확보했다. 그 전까지 매립했던 면적보다 훨씬 많은 땅을 조성했다.

목포의 전성기는 1930년대라고 볼 수 있는데, 영역을 넓혔던 1932년 호수는 11,726호, 인구는 52,511명, 총 면적은 2,531,815평으로 그 전보다 인구는 15%, 면적은 72%가 늘어났다. 또한 1926~1935년 두 번째로 큰 면적을 조성한 뒷개 매립이 완공되어 이제 비로소 지금의 목포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목포는 해방 후 인구가 급증하였다. 해방 전 72,981명의 인구가 1946년 103,000명으로 10만을 돌파하여 인구 급증의 시기를 맞이했다. 이들은 목포 인근 지역 등 타 지역과 일본에서 돌아온 귀국자 등이었다. 도시의 땅덩어리는 작는데 인구는 급증하여 도심은 과밀화되어 갔다. 따라서 늘어난 사람들은 유달산 기슭, 대성동, 산정동의 산기슭까지 땅만 있으면 집을 짓고 터전을 마련해 나갔다.

6·25전쟁 후 삼학도와 갯바위 간 제방을 쌓아 현재의 남해개발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1962~1973년에 매립하여 약 60만 평에 달하는 땅을 확보하였다. 그 땅에 1976~1977년에 걸쳐 IBRD 주택단지가 조성되어 733동의 주택지가 분양되었다. 1980년대 초는 북항개발이 대규모로 진행되면서 뒷개가 매립되었고, 1990년대에는 그전 1969~1972년에 갯바위와 하구둑 사이를 연결한 방조제 안쪽, 하당 신도심이 빠르게 개발되어 목포의 터전을 확장했다. 2005년 전남도청의 무안군 남악리 이전과 함께 옥암지구 개발로 부흥산과 부주산을 넘어 동쪽으로 땅을 넓혀갔다. 목포의 영역은 반도 서쪽에서 시작하여 북쪽과 동쪽으로 확장하여 나간 셈이다.

이처럼 목포 사람들은 땅이 협소한 근본적인 도시 환경으로 인해 일찍부터 주변 바다를 매립하면서 삶의 터전을 마련해 나갔다. 바다를 매립한 토지라 밀물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폭우 등이 겹칠 때면 저지대는 물에 잠기기 일쑤였다. 연동, 용당동, 용해동, 산정동 일대 저지대는 상습 피해 지역이었

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땅만 협소한 게 아니라 물을 머금고 내려줄 큰 산이 없고, 대부분 바다를 메운 지역이라 목포 시민들은 항상 물 부족에 시달렸다. 그래서 샘을 파고, 수원지를 개발하고, 상수도를 놓는 등 물 확보가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였다. 물 한 지게 얻기 위해 싸움은 다반사였고, 수돗물을 받기 위해 새벽부터 수십 미터 줄을 서서 몇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일상사였다. 이런 배경에서 물 길어다주는 ‘옥단이’, 수돗물이 조금씩 줄줄 나온다 해서 ‘줄줄이 수도’ 등의 이야기가 회자되기도 한다.

목포가 항구도시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대외적으로 알려준 대중가요는 「목포는 항구다」라는 노래이다. 개항과 함께 대일 수출, 수입 등 물류와 사람들이 이동하는 통로로서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거점 항구도시로서 목포는 호황을 누렸다.

목포항 선창에는 선구점과 해산물 가게, 술집, 밥집이 즐비했고, 해운업에 종사하는 선원, 부두노동자, 인근 섬에서 새로운 삶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목포와 일본 오사카·고베·시모노세키, 중국 상하이·칭다오 등이 기선으로 연결되어 여객과 화물이 오고 갔다. 국내에는 군산, 흑산도, 진도, 비금도, 부산, 여수, 제주도, 영산포 등 연안 항로에 여객선이 투입되면서 목포는 바닷길을 통해 주변 도시와 섬들과 활발한 연결이 이루어졌다.

항구의 번성에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극복해야 하는 부두노동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숨어있었다. 그들은 이러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노조를 결성하고 동맹파업 등 노조운동과 항일노동운동을 왕성하게 이끌어 가기도 했다.

해방 후 일본과 중국으로 연결되는 항로는 폐쇄되었지만, 목포는 연안 여객선 항로의 출발기점으로 많은 섬사람들이 도시와 육지로 오고가는 다도해의 관문항구가 되었다. 또한 안강망어업으로 대표되는 어선의 모항으로 많은 선원들이 어업을 통해 생을 꾸려나갔다. 그들이 주로 모여 살던 서산동, 온금동에는 주로 진도 조도, 완도 노화도, 신안 암태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아왔고, 북항 뒷개 쪽은 신안군 사람들이 자리를 잡아 살아오고 있다. 그 외 진도, 해남, 영암, 무안 사람들은 목포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다.

가장 먼저 형성된 부둣가 사람들의 삶은 부두 하역노동자와 어선 선원이 대표적이다. 인근 섬에서 온 젊은이는 조기를 잡는 안강망어선에 초보들이 거치는 화장으로 승선한다. 화장은 밥 짓고 허드렛일을 하는 선원 중의 맨 끝이다. 이렇게 경력을 쌓아 갑판장, 또 선장 등을 거쳐 성공한 사람은 자기 배를 갖기도 한다. 부두 하역은 항운노조에 들어가야 할 수 있다. 항운노조 전성기에는 일자리가 없어 그만두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주고 그 권리를 사기도 했다. 노조원은 자기가 나른 짐의 개수만큼 계산하여 임금을 받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나르기 위해서는 신체가 건강해야 했다. 일을 마치면 선창 대폿집에서 술 한 잔 기울이며 고달픔을 달랬다. 항구를 통해 들어오는 물품은 봄에는 보리, 가을에

는 벼가 주종을 이루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는 겨울에 제주에서 굴이 대량으로 목포항에 들어왔다. 1980년대 자동차를 바로 배에 싣고 항해할 수 있는 철부선이 들어오고, 하역 장비들이 기계화, 자동화되면서 부두하역업은 사양길에 접어들고 많은 부두노동자들이 생업을 잃었다.

목포에는 인근 섬이나 연안지역에서 목포로 배를 지으러 오기 때문에, 또는 목포에서 어업에 필요로 하는 선주들이 있어 예전부터 목선을 건조하는 소규모 조선소가 많았다. 조선소는 주로 삼학도 일대, 선창에서 대만동 가는 해변, 북항 일대에 자리 잡았다. 지금은 목선 조선소들은 사라지고 그 배목수들은 대부분 집짓는 목수일이나 다른 일을 하고, 어떤 이는 FRP 조선의 목형 틀 짜는 일을 하기도 한다. 어선, 여객선 등 배들이 물리는 항구에는 선구점이 필수적인 상점이다. 선구점은 밧줄, 부표(부이, buoy), 배 부속품 등 각종선구, 그물 등 각종 어구 등을 갖추어놓고 물품을 공급한다. 배의 추진 프로펠러를 깎아주는 철공소도 존재한다.

목포를 대표하는 기업으로는 삼학소주, 한국제분, 보해, 행남사, 조선내화 등이 있었다. 삼학소주는 해방 직후 설립되어 1960년대 전국적인 소주 회사로 성장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1973년 최종 문을 닫았다. 당시 술꾼들은 지금도 삼학소주 이야기를 하며 추억에 잠기곤 한다. 보해양조는 임광행 회장이 1950년 설립하였고, 호남을 대표하는 술로서 보해소주는 이 고장 사람들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받아왔다. 그러나 2011년 자회사인 보해상호저축은행 부도와 퇴출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금전적인 손실을 보고 지역민을 실망시키기도 했다. 이는 보해소주가 전만큼 팔리지 않는 한 이유가 되기도 했다. 행남사는 1942년 김준형이 설립하여 목포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자기 회사로 성장하였다. 2016년에는 행남생활건강으로 회사이름을 바꾸고 커피세트, 식기, 주방기구 등을 전 세계 50여 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운수업으로는 택시가 먼저 도입되어 지역 유지급들이 자주 이용하였고, 1970년대 들어 시내버스가 운행되면서 대중교통의 시대를 열었다. 이와 함께 화물차업도 발전하여 섬을 포함한 목포 인근 지역의 농산물 유통에 한몫을 했다. 남해고속은 1955년 합자회사인 대흥상사로 출발하여 1977년 남해고속으로 성장하였으며, 현 대표인 성기순은 사원으로 입사하여 50여 년간을 해운업에 종사하고 있다. 1978년 쾌속여객선 남해호가 목포-흑산-홍도 항로에 취항하여 원거리 섬사람들의 목포 나들이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목포의 상징 오거리는 목포 문화의 중심지였다. 주변에 목포역, 목포항, 죽동 차 없는 거리를 끼고 있고, 오거리를 중심으로 극장, 다방, 제과점, 레코드가게, 서점, 음악다방, 술집 등 문화와 유흥을 즐길만한 거리가 많았다. 이런 연유로 문인, 예술가, 음악인, 사진작가들이 이곳에서 만나 교류하고 문화예술의 꽃을 피웠다. 특히 1960~1980년대 다방에서 개최하는 서화 전시회는 인기였고, 그 시절 웬만한 목포 사람이면 한 번씩은 다방 전시회에 안 가본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국제서점, 문화당서

점 등 서점은 지식정보를 얻는 자리였고 데이트 약속장소이기도 했다. 오거리는 그야말로 소통과 교류의 장이었고 예향 목포의 토대가 되었다.

오거리를 중심으로 선창 쪽으로는 건어물상회가 많아 다도해의 해산물을 공급하면서 번성했고, 1924년에 설립된 갑자옥 모자점이 아직도 건재하다. 목포는 인근 섬이나 농어촌 사람들에게는 기회의 땅이기도 했다. 맨몸으로 들어와 성실과 근면으로 가게를 일으키고 성공하여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영암 학산에서 목포로 와 동부시장 노점좌판 장사부터 시작해서 그 시장에 자리 잡은 학산 상회 김삼덕, 강진 병영에서 나와 1962년 삼익모직을 설립해 목포 양복점, 양장점에 원단을 공급한 김규백, 고모가 문을 연 죽집을 이어받아 67년의 전통을 잇고 있는 가락지의 이사일, 피난민 2세대로 이북식 만둣국을 파는 대청의 박창세 부부, 영란횃집, 유달콩물 등 수많은 상인들이 목포의 생활문화를 만들어내며 맛의 목포다움을 만들어가고 있다.

목포의 문화예술을 가꾸어 온 현대 인물들도 목포라는 터전에서 예향 목포의 맥을 잇고 있다. 독특한 목포 사투리와 지명 유래 연구의 오홍일, 『목포지』와 『목포부사』를 번역한 김정섭이 향토사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유달산 자락에서 태어나 평생 목포에 살면서 목포의 애환을 다 겪은 정기조, 목포를 소개하는데 유달리 열성적인 문화관광해설사 조대형의 삶도 목포의 다양한 모습 중 하나이다. 교편을 잡으며 미술 대중화에 선구자였던 김병고, 역시 교편을 잡으며 글을 써오는 올해의 수필인상의 김학래, 교편을 잡으며 시를 썼던 예총회장 출신의 최재환, 교과서와 전문서적을 공급하며 목포 사람들 지식의 갈증을 풀어주었던 문화당서점 주인이자 시인인 박준상, 고향으로 돌아와 연극계 후배들을 지도하는 연극인 김성옥, 서예가 유천 서종건 등도 목포의 현대 문화예술을 끌고 온 분들이다.

목포에는 또한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산 인물들도 많다. 목포의 희망을 보게 하고 어둠을 밝게 해준 이들 중 대표적인 인물이 윤치호와 일본인 아내 윤학자 여사이다. 함께 살자는 의미에서 공생원을 설립해 고아들을 돌보아온 윤치호와, 윤치호가 실종되기도 한국에 남아 많은 전쟁고아를 돌보고 국경을 초월하여 사랑을 실천한 윤학자 여사의 삶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소중한 가치를 남겨놓았다. 또한 제일정보중고등학교를 운영하며 학습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평생교육의 선구자 김성복과 목포 지역 보육시설의 기반을 닦은 동명영아원의 김명관 등은 목포 교육 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을 해왔다. 빈민과 결핵 환자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아온 여성숙과 디아코니아자매회는 목포 의료사회복지의 시초였다고 할 수 있다. 자연과 환경에 대한 보존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행동했던 목포 환경운동의 대부인 서한태 박사도 목포를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

근현대 목포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고도 목포 사람들 입에서 널리 회자되는 기인들도 많았다. 기인이라 하지만 모두 그 당시 목포의 생활문화를 반영하는 사람들이었다. 항상 물 부족에 시달린 목

포에서 물장수라는 직업군이 생겨나기도 했다. 당시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기억되는 대표적인 물장수로 ‘옥단이’라는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약간 정신박약한 사람으로 가족도 없고 혼자 살면서 이 집 저 집 물을 길어다주고 생계를 이어나갔다. 치마, 저고리를 어색하게 입고 다녔는데, 지나가다가도 사람들이 하모니카 춤 잘 춘다고 부추기면, 가락도 없는 하모니카를 불면서 궁둥이 춤을 추며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었다.

동명동·보광동·수강동·상락동 등 선창 사람들이 목포역이나 역 옆에 서는 도깨비시장에 가려면 그 앞에 놓여 있는 하수로 때문에 지름길을 놔두고 빙 돌아가는 실정이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목포역에서 수하물을 운반하던 박길수가 자비와 성금을 모아 1964년 4월 20일 그 하수로에 다리를 놓았다. 그의 특이한 외모 때문에 붙여진 멜라콩이라는 별명을 따서 그 다리를 ‘멜라콩다리’라고 불렀다. 그 후로도 그는 평생 가출청소년들을 돌보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온전치 않은 몸을 이끌고도 시민들을 위한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

목포 권투의 대부 김성린은 권투도장을 차리고 가난하고 피 끓는 청년들을 모아 권투를 가르쳤다. 당시 모두가 가난하게 살던 때라 많은 젊은이들이 권투로 챔피언이 되어 잘살아보자고 꿈을 품던 시기였다. 그래서 많은 지망생들이 그 밑에서 권투를 시작했고, 그의 제자로서 동양 챔피언을 지낸 강세철과 역시 동양챔피언을 지낸 그의 아들 허버트 강이 유명했다. 키가 작아 붙여진 ‘따또’라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졌다.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목포의 명물 ‘쥐약장수’가 재미있는 유행어를 만들어 내어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웃음을 주기도 했다. 그는 한쪽 팔과 한쪽 발이 퍼지지 않아 구부정하게 걷고 입도 틀어진 장애인이었다. 그는 가방을 메고 리듬을 주어 “이약, 쥐약 사시오,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마시오, 누가 답답한가 봅시다.” 하고 외치고 다녔다. 나중에는 이 구호가 시장 상인들의 유행어가 되어 손님들에게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마시오.”하고 외치고는 손님들과 함께 한바탕 웃어 제쳤다.

목포 사람들이 개척해 최근까지도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간 마을에는 모두가 사연이 있고 특징이 있다. 이 책의 제5편 「목포의 마을과 땅이름」에서는 목포의 마을지명과 주요한 공간 등의 흥미로운 유래와 특징을 옛날 이야기하듯 술술 풀어준다. 마지막으로 목포를 무대로 활동한 주요 인물들을 정리해 수록하였다.

이처럼 4권에서는 목포의 주요 공간과 함께 이 땅에서 펼쳐진 다양하고 역동적인 목포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다.

2. 목포 사람이 기억하는 역사를 만나다

-목포의 역사를 바라보는 미시적 접근-

1) 기획 의도

개인은 집단 혹은 사회 성원으로서 기억하기 때문에 개인적 기억들은 집단 기억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집단 기억은 특정한 집단과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주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개인은 생애동안 직면하게 되는 사회적 실재를 자신의 행위를 통해 나를 해석하고 대응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이력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개인의 구술(口述) 생애사는 사회·역사적 산물이다.

사람은 공간 속에서 시간을 구성하며 산다. 한 사람의 일생은 그가 살았던 시대의 역사이지만 그동안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로 남겨지지 못했다. 남겨지지 않은 역사는 시간과 함께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잊혀지고 만다. 더 늦기 전에 『목포시사』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았던 목포의 역사를 담고 싶었다. 거기에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한다. 담겨진 역사로 기록된 것 말고, 그동안 기록되지 않았던 목포를 무대로 살아온 사람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터전 목포’의 작업이 시작되었다.

역사는 과거를 통해 미래를 보는 것으로, 목포의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의 목포의 모습을 기록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여기 목포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그들이 목포에서 살아온 이야기이다.

『목포시사』 4권은 ‘목포’를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그들이 경험했던 목포에 대한 기억들’을 담아냈다. 목포를 이루는 터전은 실은 간척으로 인해 만들어진 곳이 대부분이다. 개항 이후 도시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6·25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몰려들었고, 땅덩이가 좁았던 목포는 간척으로 매립하게 되면서 그 위에 판자촌들이 세워졌다.

목포에서 나고 자라 살아온 사람을 우리는 ‘목포 토박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곳 목포는 고향은 아니지만 토박이로 눌러앉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다. 목포가 ‘제2의 고향’이 된 사람들이다. 당시 일자리를 찾아 목포로 들어온 인근 무안, 영암, 해남, 진도, 완도 사람들이 정착한 경우와 신안 출신 사람들이 정착한 경우이다. 특히 목포에 터전을 두고 사는 사람 중에 ‘신안 출신’이 유독 많은 이유는 바로 교육을 위해 목포로 유학을 왔거나 태풍으로 발이 묶여 섬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육지에 체류하는 경우를 대비해 집을 소유하게 되면서이다.

바닷물이 드나들던 목포 주변의 갯벌은 단단한 땅이 되었고, 그 위에 집과 도로와 공장이 들어섰다. 항구도시답게 배를 타고 고기를 잡거나, 농사짓고 자식 키우고 살아온 세월, 장사로 잔뼈가 굵은 시장 사람들 이야기까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겼다. 20세

기를 살아온 세대의 이야기이며, 지금 기록되지 않으면 영원히 묻히고 사라질 이야기에 초점을 두었다. 여기에 선정되어 기록된 구술자들이 목포를 대표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목포에 발을 딛고 등을 기대어 살아온 사람들임은 분명하다. 또한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목포의 역사를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권의 기획 의도는 목포에 터전을 두고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데 있다. 「터전 목포」는 목포에서 나고 자랐거나 혹은 목포로 이주해 와 터전을 일구고 살아온 평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목포를 무대로 살아온 사람들을 토대로 그들의 구술을 기록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술 기록은 단순한 기억의 기록이 아닌, 20세기의 역사의 마지막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목포의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목포에서 정착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양한 경험을 중심으로 기록했다. 물론 개인 생애의 특성상 본인의 성장과정과 환경에 따라 다양한 삶의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경험의 무대가 다를 테지만, 오히려 극히 사적인 공간에서 드러나는 목포 사람들의 사회상과 시대상이 담겨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목포의 모습과 목포 사람들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기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활용의 내용과 방법, 가치가 변화한다. 지금 이 기록이 20세기 목포 사람들을 기록하는 마지막 작업일 수 있으며, 후대에 귀중한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⁰¹⁾

2) 조사 및 집필방식

본권의 기획의도를 제대로 담기 위해서는 기획자(편찬위원회)와 각 항목의 집필자가 조사방법과 시각을 공유하는 것이 그 출발점일 것이다. 가능하면 기획의도를 반영하여 집필을 의뢰하였고 논의 하였지만, 집필자에 의해 혹은 주제 및 구술대상자의 성격에 의해 기획의도에서 벗어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아우르기에는 어려움도 있었기에 가능하면 기획의도에서 크게 벗어나 지 않는 선에서 구술자의 성향과 집필자의 의견도 존중하였다.

개인별 구술이지만 가능하면 개인, 가족, 단체, 사건, 특정 장소 등을 선정하여 서로 유기적인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삶의 형식과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하였다. 따라서 본권에 서술된 내용 중 일부가 다른 권에 중복 서술된 사례도 있을 것이다. 또한 구술자 개인의 정치적 견해와 성향이 드러나기도 하고, 역사적 사실의 후면을 바라보거나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다. 다만, 구술생애사

01) 『목포시사』의 기획 의도 및 집필 방식의 전개에 있어서 기존에 출간된 시사(市史)들을 참고하였다(시흥시사편찬위원회, 『시흥사람들의 구술생애사』, 『시흥시사』9, 2006; 의왕시사편찬위원회, 『마을이야기』, 『의왕시사』5, 2007; 광주시사편찬위원회, 『광주시사』, 2010; 의정부시사편찬위원회, 『의정부 주민의 삶과 생활』, 『의정부시사』5, 2014;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 토박이의 생애경험과 정체성(『수원시사』11)』, 2014).

의 특성상 주관적인 생각임을 밝혀둔다. 서술 내용은 개인의 삶과 밀접한 내용에 중점을 두고 ‘지역민의 시각과 삶’이라는 일관된 관점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정치·사회적 변화나 사건·사고가 일어난 현장, 생업 현장 및 일터 등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하고자 했다.

여기서는 현대 문화 및 생활에도 주목하겠지만 그보다는 목포의 대표 사건과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과거의 기억들을 많이 추려냈다. 목포를 터전으로 삼고 있는 토박이들의 삶과 구술 내용에 보다 큰 방점을 찍고 ‘지역문화상’을 그리고자 했다. 그 이유는 현대의 목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건과 이야기를 간직한 과거라는 시간과 공간에 보다 밀착해서 설명해야 누적되어온 지역문화상을 보다 풍부하게 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기초조사를 거쳐 편찬위원회와 4권 집필진의 회의를 통해 기본적인 구술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선정자를 대상으로 구술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였다. 각 집필자들은 개별적인 현지 조사, 그리고 구술 조사인터뷰를 하였고, 집필자와 예비 선정자와의 면담을 통해 최종 구술 대상자를 확정하였다. 각 집필자는 기획의도에 맞춰 집필 항목과 관련된 내용 및 자료를 수집하여 참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인터뷰 항목을 사전에 설정하여 개별 필자 당 약 3~5회에 걸쳐 조사대상자의 거주지나 별도의 장소에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구술자와 집필자 간의 일정과 시간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았다. 개인사에 치우친 구술이 아닌 목포를 담아내는 기억을 끄집어내야 했기에 시간에 많이 소요되었다. 녹취를 풀고 정리하고 개인의 기억에 의존한 구술이기에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도 거쳐야 했다. 그리고 녹취된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집필자의 분석이 추가되어 원고가 완성되었다.

이러한 시각과 조사과정을 바탕으로 전체 목차를 구성하고 주제별로 장과 절을 나누어 집필자가 따로 개별 목차를 구성하였다. 4권의 서술 방법은 필자별로 편차는 있지만, 목포 사람들의 개인의 구술에 중점을 두었다. 집필을 맡은 필자의 성향에 따라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접근하면서 서술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주제별 전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객관적이지 못하고 다소 부정확한 부분이 발견될 수도 있겠지만, 구술자 개인의 기억에 의존해야 하는 구술사의 특성상 한계가 있음을 미리 알려둔다. 짧은 시간에 구술 및 정리함으로 인한 부족한 부분들은 있겠지만, 현재적 시점에서의 구술 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본다. 다음 차수에 발간될 시사에서는 더 다양한 목포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목포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내줄 것을 기대해본다.

3) 목차와 주요 내용

목포시 거주지의 변화의 폭이 커서 한 곳에 누대에 걸쳐 그 터전을 지키고 살아온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전통을 계승한 대로 혹은 현대의 문화를 받아들인 대로 목포 사람들이 삶을 영위한 방식을 그대로 답았다.

구술을 통한 목포사람들의 이야기는 크게 4개의 편으로 구성된다. 1편은 ‘목포는 항구다’로 목포항을 주 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그 중 1장에서는 ‘부둣가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선장, 항운노조원, 선구점, 그리고 배를 만드는 배무이의 삶을 담았다. 2장에서는 목포를 대표하는 향토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모았다. 보해와 행남사, 목포대흥상사와 한국택시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던 이들이 당시의 목포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기업의 발전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다. 그러나 기업 이야기가 아닌, 그 기업을 통해 목포의 이야기를 담아내려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직접 면담과 인터뷰를 여러 번 거쳐야 했기에 여건이 허락지 않거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누락된 경우도 있다.

2편은 ‘목포 아리랑’이라는 주제로 1장은 ‘문화와 예술을 꽃피우다’로, 2장은 ‘문학을 노래하다’로 정했다. 목포출신의 화가, 서예가, 연극배우 등을 통해 목포의 문화와 예술에 관하여 들을 수 있었다. 2장은 수필가와 시인을 통해 목포의 문학인으로서 삶을 엿보았고, 전남 지역 최초의 현대식 서점이었던 문화당서점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3편은 ‘목포의 눈물’을 주제로 목포의 대표 거리와 시장, 대표 먹거리 등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다. 1장은 오거리사람들, 2장은 목포의 맛과 멋을 주제로 하였다. 1장 ‘오거리 이야기’는 목포의 대표 중심지인 오거리 이야기와 오거리를 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2장 ‘목포의 맛과 멋’은 시장사람들과 오래된 상점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작성하였다. 그리고 민어와 콩물, 죽, 만두 등 목포를 대표하는 음식과 거기에 얹힌 이야기를 담았다.

마지막 4편은 ‘목포의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했다. 1장은 ‘어둠을 밝게 개척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목포 교육에 앞장섰던 분들을 소개하였다. 목포공생재단과 공생원의 이야기, 전쟁고아들을 돌보았던 동민탁아소,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학업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교육을 펼쳤던 목포 성심학원, 선교의료를 펼쳤던 결핵요양소, 선교와 복지활동을 펼친 디아코니아자매회를 다루었다. 2장은 ‘목포의 희망을 이야기하다’로 목포 토박이와 향토사 연구가, 환경운동가, 젊은 기업가 등 각양각색의 다양한 목포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목포의 희망을 노래하고 싶었다. 목포시의 현재 모습은 최근 하당 신도시가 생겨나면서 급증한 아파트 건립과 인근 남악리에 들어선 전라남도 청사 이전으로 급격한 이주민 변동이 있었다. 구도심과 신도심이라는 과거와 현대의 시간과 공간이 공존하는 곳이 목포라고 할 수 있다.

4권의 집필 방식은 개인 생애사를 중심으로 목포의 사회문화상을 담아냈지만, 1편의 ‘목포항과 바다를 개척한 선장이야기’와 3편의 ‘오거리 이야기’는 개인 생애라기보다는 목포항과 오거리의 전체적인 역사와 문화를 소개한 차이가 있다. 또한 이번에 생애사를 구술한 사람들은 가능하면 60세 이

상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나마 목포에서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살아오면서 목포의 변화상을 어느 정도 지켜보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령의 구술자들에게는 장시간의 인터뷰가 쉽지 않았을 터이지만 목포의 역사를 기록한다는 의미에서 기꺼이 협조해주셨다. 하지만 신도시 주민으로 살아온 최경원(남, 1973년생)의 삶은 예외로 하였다. 지천명(知天命)이 되지 않은 나이이지만 불혹을 넘기는 동안 거주지 이동 이력을 통해 목포의 터전이 확장됨에 따라 신도시로 이주하는 삶의 내용을 참고할 만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4권의 기획 의도가 개인 구술사를 통해 목포의 역사와 문화를 마주하고자 했기 때문에 각각의 동네 이야기가 빠지게 되었다. 구술 내용에 자연스럽게 마을과 동네 이야기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목포의 23개 동 전체를 소개하거나 마을사를 다루지는 않았다. 목포의 동네 구석구석에 대한 이야기, 후미진 뒷골목 이야기, 목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까지 모두 소개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구술사의 뒷부분에 '목포의 마을과 땅이름'이 소개되어 있으니 기본적인 터전 이야기에 참고되리라 본다.

4) 「터전 목포」의 구술 작업을 마치며

방대한 작업이기도 하고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해 4권 '터전 목포'에서 목포를 대표하는 역사적 현장과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모두 담아내고 있지는 못하다. 짧은 조사기간과 집필기간으로 인해 처음 의도와 달리 명쾌한 목포의 사회문화상을 다루지 못한 점도 있다. 한 개인의 삶에서 다양한 사회상의 역동적인 모습을 담기에는 부족할 수도 있으며, 세월이 유수와 같이 변해가면서 기억의 일부분만 구술하거나 흐릿해진 점도 없지 않다. 그러나 구술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와 독자의 수용방식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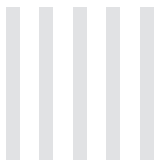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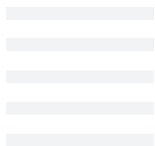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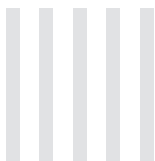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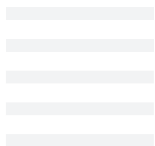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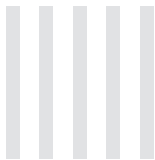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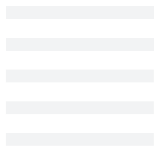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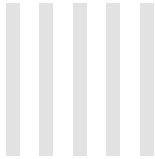
지금 기록하지 않으면 20세기 말 목포 민중들의 삶은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신념하에 개인 생애에 집중하였다.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더 많은 목포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지면의 제약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원고로 작성하지 못한 채 작업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음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비하지만 이렇게라도 그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담을 수 있었다는 것에 의미를 둔다.

집필자들의 한계로 인해 개인의 삶을 허심탄회하게 구술해 준 구술자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 또한 잘못 기억되었거나 사실에 대한 오류 등은 바로잡아 다음번 『목포시사』 구술편에서는 탄탄한 내용으로 거듭나기를 바래본다.



제1편

목포는 항구다



제1절 목포항과 바다를 개척한 선장 이야기

정경진 | KBS 목포방송국 작가

제2절 항운노조에서 잔뼈 굵은 노동자

김경완 | 신안문화원 사무국장

제3절 목포항과 선구점

이경아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연구위원

제4절 목포가 낳은 최고의 목수

정태진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연구원

제5절 한국 최초의 육지면 재배지 고향도

권 효 | 목포장학재단 이사

제1장 부둣가 사람들

제1절 목포항과 바다를 개척한 선장 이야기

1. 개항의 역사 품은 목포항

호남 제일의 항구도시인 목포는 개항과 함께 만들어진 도시이다. 개항일은 1897년 10월 1일로, 목포가 개항장으로 선정된 이유는 영산강의 하구와 가까워 내륙 소비 시장까지 기선으로 직접 운항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목포의 역사는 1897년 각국공동거류지가 설치되면서 새롭게 시작되었다. 목포는 나주, 광주 등 인근 배후지역에 큰 시장이 있어 화물의 집적 및 분산이 용이하며, 전라도 지방에서 생산된 쌀을 운반하는 데 편리하다는 이점도 있었다. 원래 목포는 지리적으로 광활한 곡창지대인 나주평야를 끼고 도는 영산강이 서해안과 만나는 곳이다. 다도해를 아우르는 위치에 있는 목포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조선 시대에는 전남과 영남 일부지방의 세곡을 운반하는 조운로의 길목이었다. 개항 이전의 목포는 만호진이 설치돼 남해안을 방어하는 군사기지로서의 역할을 제외하고는 한적한 포구에 불과했다.

일제가 목포를 부산-원산-인천에 이어 네 번째 개항장으로 낙점하면서 근대화의 물결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목포항은 일제의 식민지 경영전략의 일환인 여타의 개항장과는 달리 대한제국이 자주성을 갖고 직접 문을 연 최초의 개항장이라는 차별성이 있다. 당시 주한 일본공사관 기록에는 “한국이 일본 측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개항 날짜도 상의 없이 결정했다.”고 나와 있다. 외세의 강압이나 불평등 조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종 칙령에 따라 문호를 개방한 곳 중 첫 번째 항구라는 방증이다. 목포의 개항은 호남 지방 전체의 판도를 바꾸기에 충분했다. 완도를 통해 이어지던 뱃길에는 항상 목포가 끼게 되면서 목포-제주 사이를 정기적으로 항해하는 기선이 생겨났다. 1921년 설립된 순항선조

합의 선박을 비롯해 인천, 부산, 여수를 오가던 배들은 목포를 중간 기착지로 삼아 항해를 이어갔다. 일제의 입장에서선 집중적인 수탈의 통로로 활용하기에 최적의 조건이다. 예부터 전남 서부권은 신안, 무안, 영암, 해남, 강진, 완도, 진도를 아우르는 목포가 교역의 중심이자 육지로 접하는 첫 관문으로 이미 목포항의 기능을 곡물 수탈로 설정한 일제는 1920년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을 설치했다.

이 건물은 지금까지 남아 목포근대역사관으로 쓰이고 있다. 개항과 동시에 목포에는 일본인들의 거류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자치기관이 설치되었다. 당시 일본인들의 거류지는 항구와 지근거리인 현재의 유달동 일대였으며 일본 영사관이 인근에 있었다.

개항 이후 일거리를 찾는 각지의 조선인들이 목포로 몰려들었다. 일본인은 개항 직후 목포에 마련한 ‘각국공동거류지’에 터를 잡았다. 그리고 1910년 한일 강제 병합 후에는 총독부 토지조사국이 시가지 조사를 한 뒤 도로를 만들고 도시 계획을 세워 시가지를 조성했다. 그곳이 지금의 만호동이다. 반면 조선인은 유달산 기슭의 무덤 150여 기를 이장한 터에 오두막을 짓고 살았다. 가뜩이나 바위와 늪지대로 덮인 고장인 목포에서, 살 만한 땅은 모두 일본인이 차지했다. 현재의 행정구획 상으로 죽교동, 대성동인 조선인 마을은 처음부터 경계도 없이 빈 터만 있으면 움막을 지었다.

2. 조선내화와 온금동 조금새끼

1925년 3월 1일자 한 신문은 당시 조선인 마을의 상황을 “조금만 비가 오면 다닐 수가 없게 되며 수통이 적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십여 명의 사람이 물을 길으려고 둘러서게 된다.”면서 “일본인의 화장터가 옆에 있어 날마다 송장 타는 뉘새가 코를 찌르고 어린아이들의 눈앞으로 시체를 실어 나른다.”고 기록하고 있다. 특히 유달산 자락에 자리한 온금동은 진도 조도와 완도 노화도, 신안 암태도 출신 뱃사람들이 주로 살던 곳으로 남자들은 고기잡이를, 여자들은 그물을 짜며 생계를 이어나갔다. 온금동은 한자로 ‘溫錦洞’, ‘따뜻한 햇볕으로 비단같이 아름다운 동네’라는 의미로, 순 우리말로로는 ‘다순구미’라는 뜻도 지니고 있다. ‘다순’은 ‘따스다’란 사투리가 어원이며 ‘구미’는 바닷가 곳곳에 뒤덮인 후미진 곳을 일컫는다. 옛 꾀보선창 뒤편 유달산 자락에 자리한 온금동은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과 비좁은 골목길 외에 조금새끼로 유명하다. 고기잡이가 시원찮은 ‘조금(밀물과 썰물의 조차가 적을 때를 말함)’ 때가 되면 남자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때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다.

가난한 선원들이 모여 사는 목포 온금동에는 조금새끼라는 말이 있지요. 조금 물때에 뱃 새끼라는 뜻이지요. 조금은 바닷물이 조금밖에 나지 않아 선원들이 출어를 포기하는 때이지요. 모처럼 집



그림 1 온금동 골목 (사진: 유현호)

에 돌아와 쉬면서 할 일이 무엇이겠는지요? 그래서 조금은 집집마다 애를 갖는 물때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해서 뱃속에 들어선 녀석들이 열 달 후 밖으로 나오니 다들 조금새끼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한꺼번에 태어난 녀석들은 훗날 아버지의 업을 이어 풍랑과 싸우다 다시 한꺼번에 바다에 묻힙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함께인 셈이지요. 하여, 지금도 이 언덕배기 달동네에는 생일도 함께 쇠고 제사도 함께 지내는 집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새끼, 조금새끼 하고 발음하면 웃음이 나오다가도 금세 눈물이 나는 건 왜일까요? 도대체 이 께죄죄하고 소금기 묻은 말이 자꾸만 서럽도록 아름다워지는 건 왜일까요? 아무래도 그건 예나 지금이나 이 한 마디 속에 온금동 사람들의 삶과 운명이 죄다 들어있기 때문이 아니겠는지요.⁰¹⁾

개항의 역사를 품은 목포 앞바다에는 부두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이 녹아있다. 개항 이듬해인 1898년 목포부두노동자 동맹파업이 일어난다. 전국 최초의 동맹파업으로, 이들은 일본 자본가들에게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렸음에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을 수

01) 김선태, 「조금새끼」, 『살구꽃이 돌아왔다』, 창비, 2009.

없었던 것에 대한 항의였다. 1913년에 간행된 『목포지』는 당시 부두노동자의 파업투쟁에 대해 “목포항에서 최초의 동맹파업은 개항 후 5개월째인 1898년 2월 일본인 등이 매일 사역하는 한국인 인부의 임전(임금)에 대해 임금 지불 및 청구 방법을 통일하려는 일본인 자본가의 협정에 반대하는 조선인 노동자들의 노동투쟁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점심을 물로 채웠던 노동자들이 주민들과 함께 항거한 동맹파업은 1903년 12월에 끝난다. 하지만 일본 상선의 하역 작업을 하던 조선인 부두노동자들은 여전히 저임금에 시달려야 했다. 일본 영사관은 일방적으로 낙패(烙牌)를 발행해, 이를 소지하지 않는 자는 일본 조계 내에서 하역 작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낙패는 일종의 신분증이다. 일제는 이것을 지닌 사람만 하역노동에 종사하도록 했으며, 그들을 감독하는 십장에는 일본에 협조적인 사람만 임명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결속을 와해시키려 하였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역경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이들의 고단한 눈물을 받아주는 곳은 바다였고, 빈곤의 땀을 식혀준 것은 꾀보선창 선술집의 막걸리였다. 유달산 아래, 목포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 살았던 온금동 사람들은 동네 앞 갯벌을 울력으로 매립한 후 땅 한가운데를 디근자로 파내고 배를 댈 수 있는 조그마한 만(灣)을 만들었다. 이때 삼면만 막고 한 면을 열어놓아, 일직선으로 뚫린 길은 선창에서 마을 쪽까지 갔다가 90도로 꺾어져 다시 나왔다. 그로 인해 바닷물이 들고 날 때 음푹 들어가는 모습이 언청이랑 비슷하다 하여 꾀보선창이라 불렸으며, 그 앞에 있는 폐공장이 구 조선내화 건물이다. 조선내화공업 주식회사는 1938년 7월 20일, 자본금 40만 엔으로 일본인 사토 등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해방 후 미군정의 관재처로 넘어갔다가 6·25전쟁을 거치며 해남 출신 이훈동이 인수하여 대표적인 향토기업으로 성장시킨다. 1947년 5월, 제철, 제강, 유리, 시멘트 및 기타 공업로용 내화물 제품을 생산, 판매할 목적으로 온금동 122번지에 설립된 조선내화화학공업(주)이 현 조선내화의 전신이다. 1986년, 광양공장을 준공한 고 이훈동 회장은 1989년 3월 철강산업훈장을 수상하고, 1993년 4월 조선내화(주)로 상호를 변경한다. 그러나 업계 최고를 달리며 전국적인 명성을 떨치던 시대는 가고 쇠퇴를 거듭한 목포 조선내화는 1990년대 중반, 아예 문을 닫아버린다. 온금동과 서산동 사람들의 일자리도 그렇게 사라지고 이훈동 회장은 2010년 별세한다. 2016년 3월 말 기준 조선내화의 최대주주는 이인옥 외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유 지분은 61.15%다. 꾀보선창도 1981년 소년체전 때 매립되어 도로만 그대로 남아 있다.

3. 파시와 목포 어시장

파시란 고기잡이철 항구에 한시적으로 형성되는 어시장이다. 철따라 수백 척의 고깃배가 들어와 어부와 상인들 간에 거래가 이루어졌다. 워낙 거래량이 많다 보니 중개인과 온갖 잡상인들까지 몰려



그림 2 조선내화가 보이는 온금동 골목 (사진: 유현호)

들어 호황을 누렸다. 시즌이 되면 음식점과 선물집도 준비해 불야성을 이루었다. 1897년 국제항이 된 목포는 신안, 영암, 해남 등 주변의 황금어장에서 잡아온 해산물들로 사철 파시가 열렸다. 삼학도 앞으로 매일 수백 척의 어선이 모여들어 배 위에서 각자가 잡아 올린 생선을 거래했다. 생선의 보관 운송을 위해 1929년 1월 목포제빙냉장 주식회사가 창립된 후 당시 하루 15t의 얼음을 생산했다. 전국에서 가장 컸다는 목포 파시의 규모를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포구를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목포는 1930년대에 전국 6대 도시 안에 들었고, 3대 항구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현 목포시 동명동에 위치한 종합수산시장은 전국 최대의 홍어시장으로 유명하다. 1908년 수협 공판장이 들어서면서부터 어시장이 형성돼 100여 년의 역사를 지녔다. 개항 후 바닷가 근처 백사장에서 수산물 노점상을 하던 상인들이 물으로 올라와 장사를 시작한 것이 시초다. 1924년에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조선의 시장』을 보면 당시 이미 목포에는 큰 시장들이 여럿 존재했다. 목포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위한 시장과 수탈을 위해 물자를 집산하기 위한 어시장과 곡물시장이 그것이다. 이 중 어시장의 이름은 육(旭) 어시장으로, 그때 현 서산동의 일본식 지명은 육정(旭町)이었다. 빛날 ‘육(旭)’은 일본인들이 좋아하고 상서롭게 여기는 글자다. 사설시장이자 건물에 있는 상설시장인 어시장은 도매시장으로 9월 16일에서 4월 30일까지는 매일 한 번 열렸고, 5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는 하루에 두 번 열렸다. 어시장에서 취급한 물품은 어류였으며 1923년에 기록한 연 거래액은 279,429원이었다. 1908년 동명동

어시장으로 출발한 목포종합수산시장은 2004년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각종 수산물과 건어물 도매시장으로 주요 거래 품목은 홍어와 젓갈, 선어, 건어물이다. 특히 전체 130여 개 점포 중 100곳에서 홍어를 취급하고 있다. 그 이유는 1992년 목포에 수입산 홍어가 들어오고,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면서이다. 목포종합수산시장이 가장 활기를 띠는 때는 바다에 나갔던 배들이 돌아오는 새벽이다. 경매가 이루어지면 시장은 작은 바다가 펼쳐진다. 특히 홍어는 흑산도산이나 칠레, 아르헨티나 같은 남미 수입산 등 모든 것이 이곳을 거쳐 전국 각지로 팔려나간다.

4. 영원한 바다 사나이 송만호 선장의 추억

대불산업단지와 삼호조선소가 들어오기 전까지 목포 경제는 목포항(어부)으로 인해 움직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목포항에 정박한 수백의 어선들과 떠들썩한 경매현장, 어시장에 북적이는 사람들.

“그때는 배 한번 타려면 선장 양복도 맞춰주고 구두도 사주고 그래야했제…….”

목포에서 40여 년 동안 어부로 살아온 송만호(66) 선장은 1951년 10월 20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사도에서 태어났다.

“내가 세살 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열두 살 때 아버지마저 돌아가셔서 기댈 데가 없었제. 그래서 일찌감치 고향을 떴어.”

먹고살기 위해 광주로 온 송 선장은 누나와 함께 과일 행상을 하다가 군 입대를 한다.

“제대 후에 목포로 왔제. 배를 타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뱃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다행히 육촌 매형(김맹규)이 호영15호 선장으로 있어서, 그 양반이 화장으로 심어 주드라고.”

화장(火匠)은 배에서 선원들의 밥을 해주는 이로 선원이 되기 전 단계, 요즘 말로는 인턴이라고 볼 수 있다. 조실부모하고 어린나이에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송만호 선장은 스스로 야물고 눈치가 빠른 데다 부지런했다고 말한다.

“일꾼으로서는 어딜 가도 환영받을 만 했제.”

그는 안강망어선인 ‘호영15호’에서 한 달 만에 선원으로 승급했다. 안강망어선은 흔히 중선배라고도 한다. 안강망은 대상물을 함정 속으로 들어가도록 한 후 다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잡는 함정어구이다. 안강망이 우리나라에 처음 보급될 때는 ‘일중선(日中船)’으로 불렸다.

“어장에 배를 대고 그물을 내린 후 기다리든 돼. 고기가 들어올 때까지...”

송 선장은 그물을 들어 올릴 때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지면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고 했다. 서해안의 자연적인 조건에 적합한 안강망은 구조가 간단하고 취급이 간편할 뿐만 아니라 소자본으로도 착업(着業)이 가능해 급속도로 보급되었다.

“유자망과 안강망의 차이는?”

“유자망? 안강망이랑은 물때가 달라!”

송만호 선장의 설명에 따르면 안강망어선은 음력 15~23일, 30~8일 주로 사리 물때에 조업을 하고 유자망어선은 음력 8~15일, 23~30일 주로 조금 물때에 조업을 한다고 한다. 흔히 흘림걸그물이라고도 하는 유자망(流刺網)은 물에 떠다니는 고기를 잡는다. 유자망은 연한 낚싯줄처럼 서로 엮여 있는 그물을 수면에 펼쳐 조류에 흘러보내면서 그물코에 생선의 아가미가 꽂히게 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전라남도 여수 해안을 비롯한 남해안 등 연근해에서 사용되고 있다.

“유자망은 참조기를 주로 잡는데, 사리 물때는 위낙 물살이 강하고 조석간만의 차이가 심해서 조업이 어렵제.”

안강망 배만 탔다는 송만호 선장은 1975년 첫 배에 승선한 후 한 달 만에 ‘동한호’로 옮겨 거기서 본격적으로 일을 배우게 된다.



그림 3 송만호 선장



그림 4 전성기 때의 송만호 선장



그림 5 송만호 선장과 낙지배

“77년도에 운영3호 갑판장으로 반년을 일했지. 그 후 삼성호로 옮겨서 A급 갑판장으로 인정받으면서 잘 나갔제!”

4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해 내는 송만호 선장에게 ‘동영호’ 갑판장 시절은 잊을 수 없는 일이다.

“당시 우리가 만선으로 들어왔는데 항구에 어선이 2백여 척이나 몰리다보니 빨리 배를 댄 사람이 유리하제. 그래서 내가 급한 김에 150마력으로 몰아서 툅하니 좋은 자리를 잡아부렸어!”

그 때 일로 자신감이 생긴 데다, 같이 일했던 선주들의 권유도 있고 해서 선장면허증을 딴 송 선장은 뱃사람이 된 지 4년 만에 ‘호영15호’의 선장이 된다. 그 후 그는 봄, 여름으로 일이 없을 때는 과일 행상을 하다가 성수기 때는 배를 타는 식으로 바닷가 사람으로 살아왔다.

송 선장은 1980년대 들어서는 조카인 송양식이 선주인 ‘99세영호’의 선장을 시작으로 1년, 1년 반 3년 간격으로 ‘55대룡호’, ‘운영22호’, ‘17금강호’의 선장을 했다.

“그 후 낙지배를 한 3년 했나? 워낙 안강망 선장으로는 돈벌이가 안 되는 시기였는데, 마침 주변에서 낙지 값도 괜찮다 하고, 또 누구 눈치 볼 것 없이 속 편할 것 같아서 뛰어 들었지.”

마음은 편했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낙지잡이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한다. 조업 시 누군가의 보조를 받아야 하는 일이었고, 경매위탁에... 결국 낙지배 운영을 포기한 송만호 선장은 현재 대진수 중에서 작업선을 몬다. 이 배는 목포 신외항에서 북항조선소까지 바지선을 예인하여 하역 작업을 하는 배다. 그는 10여 년 전 항해사 4급 면허를 땀으며 슬하에 영섭(45), 영철(42), 양화(39) 2남 1녀를 두고 있다.

5. 선장의 가족들

현재 목포수협에 근무하는 송만호 선장의 장남 송영섭 씨는 부친이 어부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한다.

“다른 선장들보다 만선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항상 당당하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전성기가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 현역에서 건강하게 일하시며 몇몇하게 살고 계셔서, 참 고맙고 자랑스롭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는 남보다 더 열심히 살아온 부친이 선주와의 불화로 일을 그만 두게 될 때가 가장 안타까웠다고 한다.

“내가 성격이 앓쌀해서 부딪치는 경우가 많았지. 아, 속이야 많이 상하지! 그래도 후회는 안해. 오죽 했으면 그랬을까? 뭐 뭇보여서 어판장 출입이 금지되던 때도 있었는데, 다 지난 일이야.”

속상할 때면 소리 한 대목 하며 훌훌 털어버렸다는 송 선장은 선뜻 목청을 가다듬는다.

“사랑이 무엇인지 잠들기 전엔 못 잊겠네~ 잊으리 잊으리라 베개 안고 누웠으니 얼굴이 눈에 삼삼하여 잊을 수가 없구나.”

홍타령이 구성지다. 어쩌면 9년 전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뜬 부인생각을 하는 것일까. 송만호 선장의 아내인 고 김광단 씨는 진도군 조도면 대마도 태생으로 지병으로 별세했다. 선장의 아내로 일생

남편 뒷바라지에 열성이었던 모친을 생각하면 자식들의 마음도 애통하다.

“선주가 따로 있지만 어머니 정말 우리 배인 것처럼 정성을 다해 아버지 내조를 잘 하셨어요. 배가 출항하면 그때부터 어머니 마음도 그 배에 타신 거죠.”

모든 어부의 아내가 그렇듯이 김광단 씨도 남편의 배가 돌아올 때까지 노심초사, 포구를 서성이며 만선을 기대했다. 돈보다는 고된 노동 후 밝은 얼굴로 돌아오는 남편의 웃음을 보고 싶어서이리라. 뱃사람의 생업이 달의 주기에 달려 있다면 그의 아내는 생명의 주기와 상관없이 바다를 지키는 달이다. 이미 남편의 분신이 된 선장의 아내는 배가 입항하면서부터 분주해 진다. 위판장에서 하역작업을 하거나 그물 손질을 하는 선원들에게 손수 만든 음식으로 극진히 대접해 주는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음 출항의 무사 귀환을 희구하는 간절함이 담겨있었을 것이다. 송만호 선장에게도 표류의 기록이 있다. 1995년 3월 16일, 제주 지역신문 기사에 당일 “오전 6시께 북제주군 죽도 남서쪽 12마일 해상에서 선원 9명을 태우고 조업 중이던 목포 선적 안강망어선 제17급강호(67t, 선장 송만호)도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고 있다며 구조를 요청했다.”고 나와 있다.

“우리 집사람이 고생 많이 했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살았던 시절, 송 선장 일가는 서산동 보리마당에 살았다.

“서산동에는 유독 조도사람들이 많이 살았제. 그래서 이웃사람들이 곧 고향사람이여. 조도사람들이 많은 것은 목포뿐만 아니제. 전국 어느 바다나 뱃사람 중에는 조도사람들이 꼭 타고 있었은께.”

송만호 선장의 태생지인 조도는 옛날부터 ‘고기 반, 물 반’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어종이 풍부한 지역이다. 물 좋았던 시절, 전국 항·포구 어디에서나 “조도 갈 이! 조도 갈 이!” 하고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조도에 갈 인력은 내 배에 같이 타고 가자’는 뜻이다.

“‘조도 갈 이’라는 말을 모르든 진짜 뱃사람이 아니제.”

지금은 아랫동네로 내려갔지만 송 선장은 가끔 보리마당을 둘러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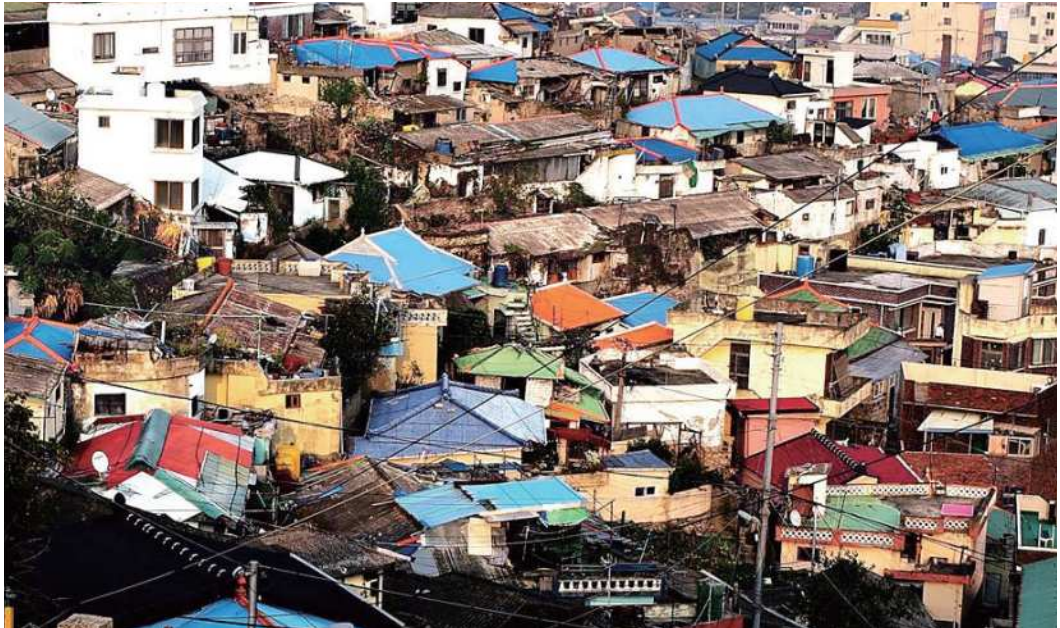


그림 6 서산동 보리마당에서 내려다 본 전경 (사진: 유현호)

“보리마당에서 내려다보면 목포 시내가 한 눈에 들어 와! 내가 볼 땐 그렇게 멋진 전망이 없어!”

보리마당은 목포시 서산동 가장 윗자락의 너른 공터를 말한다. 말 그대로 보리를 털어 말리던 곳이다. 오래 전 목포 인근 섬 주민들은 보리나 벼 등 곡식을 수확한 뒤 목선에 바리바리 실어 목포까지 날라야 했다. 섬엔 변변한 도정 시설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보리는 정미소에 가기 전과 도정을 마친 뒤 각각 별에 말려야 한다. 보리마당은 바로 그 작업을 벌이던 공간이다.

“영원한 바다 사나이!”

“다시 태어나도 선장을 할 거냐고? 당연하지!”

주저 없이 대답하는 송만호 선장의 바람은 소박하다. 죽는 날까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어업환경도 많이 달라졌어. 지금은 그때에 비해 뭐든 훨씬 투명해졌지!”

안강망어선 승선 시 선주와 선원들 사이에는 어획물을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 약정, 이른바 조합제라는 것을 체결하게 된다. 어획물의 판매대금 중 출어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일정 부분을 선주의 이익금으로 빼고 나머지를 선원들의 보수로 하는 것이다.

“실제 출어비나 경비가 얼마나 나온 지 모르는 일이잖여? 부풀려질 수도 있고, 그래서 마찰이 많이 생겼지.”

지금은 선주가 애초에 10%만 가져가는 식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월급제 등 근무여건이 한결 나아졌다. 하지만 보수체계는 나아졌을지 모르지만 연근해에서 조기 등을 잡는 안강망어선의 경우 한 번 승선하면 15일 이상 바다에서 생활해야 하는데다 작업 강도도 높은 편이라 인력이 딸리는 편이다.

“요즘 사람들은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지. 우리 때에 비해서 일자리도 많은디…….”

힘든 일을 힘든 줄 모르고 해 온 송만호 선장에게 목포항구축제는 어떤 의미일까.

“겁나게 좋습니다! 옛날 생각도 나고!”

축제 이야기를 하자 금세 화색이 도는 송 선장은 특히 옛 어로체험과 해상파시가 좋았다고 한다.

“예전 한창 때는 배가 항구에 들어오면 장관이었제……. 고기를 한 번씩 풀면 진짜 산처럼 쌓이네…….”

그때의 영화가 그리운 부친의 곁에서 아들 송영섭 씨가 거든다.

“지금도 경매현장은 긴장감이 감돌아요. 그래서 항구축제 프로그램에 경매 실습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네요.”

현재 목포수협(선어어판장)은 동부어판장과 서부어판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보통 경매는 동부어판장에서 진행되는데 생선물량이 많을 때는 서부어판장에서도 생선 경매를 이어간다. 서부어판장은 주



그림 7 목포항구축제 해상파시
출처: 목포시

1회 젓갈위판도 같이 한다. 경매 순서를 보면 하루 전 목포수협에 예약을 하면 순서대로 위판접수를 받는다. 안강망과 유자망 접수처가 따로 있으며, ‘안강망 생선 경매’를 마친 후 ‘유자망 생선 경매’를 진행한다. 경매는 매일 새벽 5시에 시작하며,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은 어판장이 쉬는 날이다. 어판장은 생생한 삶의 현장이다. 선주와 경매인, 생선궤짝 포장하는 사람, 배달하는 사람, 생선 선별하는 사람, 낙찰 받으러 온 사람. 어판장에 생선을 진열하면 순서대로 경매가 진행되는데, 생선박스 위에는 일명 ‘후다 짹’(순서 진행, 수량스티커)이라 하여, 한문과 숫자가 적힌 흰 종이가 놓여있다.

“따로 적는 이유가 있제. 한자는 경매순서이고, 숫자는 생선수량이여.”

경매방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송 선장은 집도 위판장 근처다. 경매는 숫자로 시작해서 숫자로 끝난다. 만일 고등어는 숫자 5로, 다른 생선은 숫자 1로 적혀있다면 고등어는 5상자를 한 번에 경매 보는 것이고, 다른 생선은 1상자를 따로 따로 경매를 보는 것이다. 안강망어선은 조업 생선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유자망어선보다는 경매가 상당히 더디게 진행된다. 배에서 생선을 어판장에 하역하면 선별자가 크기와 수량을 분류해 수협직원이 ‘후다 짹’을 작성해 놓는다. 이 ‘후다 짹’을 토대로 샘플로 생선을 뒤집는 사람, 경매를 진행하는 사람, 낙찰가를 적는 사람 등 3명의 경매진행자가 투입된다.



그림 8 목포어민동산
출처: 전라남도

예전에는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힘든 말과 손짓이 난무했지만 요즘은 버튼을 누르는 최신식 전자입찰이며, ‘경매사’는 최고 금액을 제시한 중매인에게 생선을 낙찰시켜 준다.

“예전 같은 낭만은 없지만 그래도 목포는 항구여. 바다를 끼고 사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한은…….”

송만호 선장의 표정에 아련한 그리움이 묻어난다. 옛 생각이 날 때마다 그는 어민동산에 가곤 한다.

홀로 노를 젓는 어부의 조형물……. 어민동산은 목포 지역경제의 중추 산업인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들의 풍어만선을 기원하고 그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조성한 상징적인 공간이다. 바다와 더불어 살다간 어민들의 망혼을 위로하고, 해양을 개척해 나가는 어업인들의 기상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97년 개장했다. 다도해와 유달산이 한데 어우러진 이곳은 이미 관광의 명소로 각광 받고 있다. 어민동산에는 어민의 애환을 표현한 어민상과 김지하 시인의 시 「바다」가 새겨진 시비가 있다.

바다가 소리 질러
나를 부르는 소리 소리, 소리의 이슬
이슬 가득 찬 한 아침에
그 아침에
문득 일어서
우리 그 날 함께 가겠다
살아서 가겠다
아아
삶이 들끓는 바다, 바다 너머
저 가없이 넓고 깊은, 떠나온 생명의 고향
저 까마득한 미지의 바다...

정경진 | KBS 목포방송국 작가

제2절 향운노조에서 잔뼈 굵은 노동자

김진수는 1945년 신안군 장산도 출생으로 1973년 목포향운노조에 조합원으로 입사해 중앙분회, 1분회, 6분회 등에서 근무했다. 노조원들은 화물을 직접 어깨에 메고 나르는 일에 종사했다. 1994년 허리디스크로 퇴직할 때까지 오로지 가족만을 위해 일해 온 그의 삶을 통해 당시 노조원의 생활사와 애환을 엿볼 수 있다.

1. 장산도에서 목포로 이주



그림 1 김진수 전 향운노조 조합원

김진수는 1945년 신안군 장산도 팽진리에서 5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위로 누나가 한 명 있었지만 본인이 장남이었다. 아버지 김창순은 섬에서도 농사를 주업으로 삼았다. 반면, 작은아버지는 농사를 지으면서 어선도 운영했다. 그 덕분에 김진수는 작은아버지의 풍선을 타고 어업에 종사하기도 했다. 어머니는 천영심으로 외가는 장산도의 동쪽 바다 건너 해남군 화원면이었다. 화원에도 천씨들이 거주하는 집성촌이 있었다.

그가 어렸을 적 장산도에는 국민학교가 유일하게 하나 있었다. 그는 고향 팽진리에서 장산국민학교가 있는 대리까지 6km를 매일 걸어 다녔다.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 아버지를 따라 목포에 몇 차례 나온 적이 있었다. 당시 진도와 목포를 왕복 운행하던 여객선인 '진도호'가 장산도의 팽진리를 경유했다. 팽진리 선창은 늘 북적거렸다. 장산도의 남쪽에 위치한 하의도 주민들은 '진경호'를 타고 팽진리까지 와야만 진도호를 타고 목포에 나갈 수 있었다.

목포에 도착하면 선창은 뒤죽박죽 복잡하기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일단,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김진수가 8살 때 기억이지만 당시에도 목포 선창에는 각 섬에서 온 배들이 넘쳐났고, 그 배에 실린 보리가마니를 메고 내리는 하역노동자들이 있었다. 그때는 자신이 성인이 되어 그와 같은 노동자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다. 복잡한 목포 선창에는 갯가에 말뚝을 박고 그 위에 나무나 판자를 걸쳐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따로 거처가 없었던지 장사하던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잠을 자던 것을 기억한다. 목포는 장산도와는 판판인 별천지 같은 세상이었다. 오죽했으면 목포에 가는 것을 '홍콩 가는 기분'이라고 표현했을까.

“목포에 구경한다고 나왔지. 선창은 말도 못하게 형편없었어. 선창에 말뚝을 박아서 우에다가 거

치대 걸치고 판자를 붙여서 장사를 하고 잠도 자고 그랬지……. 지금 주차장 자리가 다 그랬어. 장사 한 데서 자고 그렇게 생활했다니까. 선창가로 다 그랬어. 우리는 부모네하고 나와서 친척집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여관에서 잠자고, 친척집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잤제. 선창에 여관이 겁나게 많았제. 풍선에다가 곡물을 싣고 오는 사람들은 곡물 팔고 그 배에서 잔 사람도 있고. 그 때 당시에 목포에 한 번씩 오면 뭐 홍콩 가는 기분이었제. 자동차 굴글러 다닌 것 보고. 촌에서는 아무것도 구경 못하잖아.”

김진수는 장산중학교를 졸업하고 작은아버지의 풍선인 어선을 타고 돈벌이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장산도와 해남 일대의 바다에서 이각망을 이용한 조업을 했다. 그물에는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잡혔다. 한때는 전북 부안까지 올라가 백합조개를 잡기도 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직접 배를 구입해 운영하기도 했다. 집안이 넉넉해서 배를 구입한 것은 아니었고 배가 없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어렵게 마련한 것이었다.

“돌아다니면서 안 해 본 것이 없으니까. 어장도 해 보고, 저기 부안까지 가 봤어. 부안 막 들어갔을 때 오른쪽 중간에 댐 공사를 하든만. 생합잡이라고 그런 것도 해 봤어. 우리 작은아버지 풍선 배를 타고 가서 거기서. 물 들 때는 작업할 수가 없어. 부안에서 흐르는 강이 하나 있어. 그 위쪽으로 가면 간만의 차가 썰 가지고, 물이 많이 흘러가면 배에서 내려서 걸어가 골창에서 손으로 긁으면 돼. 생합을 가마니로 10개, 20개씩 잡아. 목선이 가라앉을 지경이야. 그런데 당시에는 판로가 안 돼서……. 여름에 가서 했는데, 조개류라서 쉽게 상해 부러. 얼음도 없으니까. 그때는 쥔 가마니로 해서 몇 가마니씩 잡아도 안 팔리니까 처리할 방법이 없어. 상인들이 조금 나와서 처리는 하는데 많이 안 사. 처분이 안 되니까……. 잡기는 많이 잡았어도 돈이 안됐어. 그때 두어 달 하다가 내려와 부렸제. 지금 같으면 황금이제.”

그는 이렇게 어업에 종사하다가 스물한 살이 되던 1965년 군에 입대했다. 논산훈련소를 거쳐 경북 안동의 포병사령부에 근무했고, 서울 수색에서도 근무했다. 그때 북악산에서 3개월간 근무했는데, 그곳이 이후 1968년 1월 김신조 일행이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침투한 경로였다. 군생활의 마지막에는 영천3사관학교에서 조교로 근무하다 1968년 제대했다.

제대 후 장산도에 돌아와 양가 부모님의 주선으로 김해덕과 결혼했다. 신부는 팽진리의 한동네 아가씨였는데, 해남 임하도에서 살다가 열세 살에 장산으로 이사와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어울린 사이였다. 김진수의 키가 176cm인데 아내 키도 171cm로 상당히 컸다. 그는 장산도에서 두 아들을 낳은 뒤 1973년 고향을 떠나 목포로 나왔다.

2. 향운노조 조합원이 되다

목포에 나온 김진수는 선창 가까운 곳에 셋방을 얻어 곧바로 목포향운노조에 입사했다. 당시 노조에는 5천 여 명의 조합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대부분이 짐을 나르는 노동자(조합원)들이었다. 이 일은 육체노동이라 힘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향운노조에서 일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원한다고 모두 다 입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만두는 노조원이 있어야 그 자리에 돈을 내고 입사할 수 있었다. 그만둔 사람과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의 명의를 바꾸는 방식이었다. 여기에는 큰돈이 거래되었다.

“노조에 아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연결해서 들어갔지. 인천으로 간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샀어. 노조에는 그 사람하고 명의를 바꾸지. 노조에 새로 가입을 하는 것이제. 돈 주고 들어갔제. 직장을 사고 판 거야. 자네가 근무했으면 그만 두고 나올라고 하면 나한테 팔고 나오는 거야. 그런 권리를 뭐라고 부르는 이름은 없었어. 그냥 직장을 돈 주고 들어갔다고 했어. ‘자릿세’라고 하면 되제. 상당히 비쌌제. 그때 당시에 700만 원인가 800만 원 주고 들어갔으니까. 촌에 있을 때 그 돈을 가지고 나왔제. 그 때 당시에는 몸만 건강하면 돈 걱정은 안했어. 나가기만 하면 고정적인 수입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선호했지. 1973년도에 겁나게 사람이 많았제. 목포에 한 5천 명 되었을 것이여. 여기 전체가. 향운노조 짐 자리는 사람이 겹도 안 났어.”

향운노조에 들어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때 그의 나이가 29세였으니, 왕성한 힘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었다. 워낙 힘든 일을 하는 곳이라 노조원들도 거칠게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처음 입사할 때는 낯설었지만 곧 친한 관계를 유지하며 형님, 동생 하는 친한 사이가 돼 동료로서 서로 의지하며 일할 수 있었다. 노조 일은 대부분 물건을 메고 나르는 일이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힘들었다. 그럴 때면 실 때 술도 한 잔 하면서 이겨내는 요령을 하나씩 습득했다. 일하는 방식은 자유노동이라고 불렸다. 출근하지 않으면 일당이 없고, 출근해 일하다가도 일하기 싫다고 들어가면 그 이후 짐을 나르는 인건비는 없는 방식이었다. 그는 가능하면 쉬지 않고 악착같이 일에 매달렸다.

“그 당시 1973년에는 총각이나 마찬가지로인데 날라다녔제. 그란디, 배에 오르고 내릴 때 나무 발판이 있잖아. 보통 소나무로 만들고, 수입한 미송으로도 만들어. 무거우면 안 되니까. 가벼워야 사람이 운반하기 좋잖아. 길이는 다 다르제. 그란디, 휘청휘청 한게 처음에 발발발 떨어졌제. 짐은 무거운데다가 휘청거리니까. 고정도 없어. 그냥 올려놓기만 해. 발판에서 사람들이 나올 때 입구에서 종이쪽지 같은 것을 나눠 주는데, 갯수를 셀라고 주는 거야. 창고로 들어가는 총 물동량을 계산해야 하니까. 남

이 하나 나를 때 나도 하나 나르면 되제. 개수로 확인해 일당을 줄 때도 있어. 힘센 사람은 더 벌라고 두 개씩 나르기도 했제……. 하루 일당이제. 보통은 그날 나가서 나이 많거나 적거나 똑같이 배당을 받아. 가령 100만 원 벌었다고 하면 10명이면 10만 원씩 받제. 물동량이 많아야 일당이 많은 거야.”

목포항은 계절에 따라 들어오고 나가는 화물의 종류가 달랐다. 섬에서 목포항으로 들어오는 화물은 농산물이 주를 이뤘다. 봄에 보리, 가을에는 쌀이 주요 화물이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제주도에 서 굴 재배가 대규모로 성공하면서 굴이 주요 화물이 되었다. 12월과 1월은 제주도 물동량이 많았다. 제주도에서 나오는 것 중 굴이 대부분이었고, 일부 조, 콩 같은 잡곡 등도 목포를 통해 육지로 나왔다.

섬으로 들어가는 것은 섬에 필요한 생필품이 대부분이었다. 각종 생활도구, 식료품, 건축장비, 선박장비, 공산품 등이 들어갔다. 지금처럼 작은 소포장 박스가 없어 큰 박스에 포장해 실어 날랐다. 농산물 외에 수산물도 목포항의 주요한 품목이었다. 수산물은 전적으로 어업분회가 맡았다. 어업분회 조합원들은 어선에서 막 퍼온 것을 정리하는 것과 위판장에 실어 놓으면 그것을 정리해 경매를 볼 수 있게 상자째 날라 진열만 해 주는 역할을 했다. 뜻밖에 어업분회 조합원들의 돈벌이가 가장 좋아 제일 인기가 있었다. 지금도 어업분회는 존재한다.

그는 향운노조에 근무하면서 초기 5년 남짓은 셋방살이를 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주인의 눈치도 보게 되고, 셋방살이의 설움을 느끼기 마련이었다. 그는 목포로 이주해 나와서 막내딸을 낳아 2남 1녀를 키우면서 안정적인 집을 마련하고 싶었다.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 편히 쉬 수 있는 집이 간절하게 필요했다. 직장이 가까운 선창에서 평지의 적당한 집들은 감당할 수 없이 비쌌다. 하는 수 없이 돈에 맞춰 집을 찾다보니 고지대에 위치한 집을 살 수 밖에 없었다. 지금의 ‘목포진 유적’ 비석이 있는 그 골목안의 집을 구입했다. 당시 이곳은 통상 ‘목포대’라고 불렸다. 목포대는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걸어서 올라 다니는 것이 힘들었다. 이곳 집들은 대체적으로 좁은 골목들 사이에 배치되어 있었고, 골목에서 현관문을 열면 바로 마루와 안방으로 연결되는, 마당이 없는 집들이 대부분이었다. 다행히 그가 구입한 집은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어엿하게 대문도 있고, 마당이 넓고 큰 집이라 한쪽은 셋방을 내 줄 정도로 여유가 있었다.

“판사집 자리라고 판사가 살다 갔어. 1977년도에 샀을 거야. 그때까지 놈의 셋집에 5년 정도 있다가 번 돈으로 산거지. 그때 당시에는 큰돈을 벌어서 성공한 것이제. 그것도 못한 사람들이 꼭 샀으니까. 그 당시 집이 750만 원 줬으니까……. 밑으로 내려올 돈이 없으니까 거기다 자리를 잡은 것이제. 애기들은 있지, 우선 등 붙이고 잠잘 자리를 얻어야 한디 적당한데가 없은게 그런거제. 경치가 좋거나 바다가 보인다고 해서 산 것이 아니여. 밑에(저지대, 평지) 내려오고 싶었지. 그런데 돈이 안 맞으니까

까. 저지대 집은 엄청나게 비쌌어. 그 돈으로 겨우 전셋집이나 얻을 수 있는 돈이었지. 그때 당시 저지대 집은 애경간하면 쳐다보지도 못했어. 목포대는 싼게 샀지.”

김진수는 현재 만호동 아래 평지에서 8년째 살고 있다. 2008년 목포 만호진 복원과 관련해 마지막 보상을 받고 집을 판 후 그렇게 원하던 평지에 집을 구했다. 하지만 과거 목포대 위에서 살던 때가 그립다고 했다. 새벽에 일을 나가면 저녁 늦게 들어와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몰랐지만, 목포대 일대는 공기 좋고, 인심 좋아 살기 좋은 곳이었다는 느낌을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다.

3. 향운노조원으로 힘든 삶

삼학도에서부터 대반동에 이르기까지 목포항 연안은 모두 하역장이었다. 1980년대 자동화 기기가 들어오고 철부선이 들어오기 전까지 오로지 사람들의 힘으로 모든 짐을 날랐다. 삼학도에서 대반동 방향으로 1분회, 2분회, 중앙분회, 3분회, 4분회까지 순서대로 위치해 있었다. 1분회는 삼학도에서 동명동까지였다. 각 분회에는 그 밑으로 또 산하 반조직이 있었다. 중앙분회 소작반, 1분회 소작반, 2분회 운반반 등이었다.

“분회만 따지면 제주, 객선, 중앙, 선창으로만 5개 그만. 5개 분회. 크게 나눠서 5개 분회 운반이나 소작이니 그 밑으로 많았제. 대반동하고 삼학도 빼고. 선창분회라고 하면 대반동에서 동명동까지. 1분회는 동명동. 이쪽으로 오면서 2분회. 중앙분회가 있고, 객선분회가 있었고, 또 연안분회가 있었고, 제주도 삼바시, 어업분회도 있고, 저기 가면 6분회 그렇게 많해 논께. 거기서 운반분회 있제. 소작분회 있제…….”

당시 목포향운노조 노조원의 하루를 일반화하면 다음과 같았다.

아침 7시까지 각 분회가 속한 공간인 ‘옷장’으로 출근한다.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꼭 아침밥을 챙겨 먹어야 하니 서둘러야 한다. 옷장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으면 바로 현장에 투입된다. 작업복이라고 하지만 정해진 유니폼은 없었다. 각자 편한 옷을 입으면 그것이 작업복이었다.

현장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가대기보’와 ‘갈구리’를 챙겨 나간다. 갈구리는 ‘주먹갈구리’라고 손잡이가 짧은 것이 있고, 여럿이 공동작업 할 때 사용하는 ‘긴갈구리’로 구분되어 있었다. 가대기보는 흰색 광목천을 사각형으로 재단한 것으로 어깨 위에 짐을 올릴 때 밑에 까는 용도로 사용했다. 광목이기 때문에 어깨 위에 올린 짐이 미끄러지지 않고, 화물이 피부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아 상처를



그림 2 '가대기 보' 사용하는 모습을 재현하는 김진수



그림 3 왜광목으로 만든 가대기 보. 두 번 접은 상태의 길이 (47cm×58cm)

예방할 수도 있었다. 또, 땀을 흘릴 때 자연스럽게 수건으로도 사용할 수 있었다. 광목은 나중에 왜광목이 나오면서 모두 바뀌었는데, 두꺼운 광목보다 왜광목은 얇고 가벼웠다. 갈구리와 가대기보는 조합에서 제공하지 않아 각자가 구입해 사용했다. 심지어 간식이나 물도 개인이 준비해야 했다. 조합은 어떤 것도 공급해 주지 않았다.

“가대기가 민다(맨다)는 말이며. 광목으로 해야 안 미끄러지제. 화학섬유로 하면 미끄러져부러. 가대기는 떨어지면 새로 만들고 떨어지면 새로 만들제. 포목점에 가서 크게 할 사람은 크게 하고, 정사 각형이나 길게 할 사람은 길게 해서 접어서 쓰기도 하고. 끝나고 나올 때 다 버려 부렸제. 그것이 된 좋은 것이라고, 보기도 싫은데…….”

점심식사도 동료들끼리 원하는 식당을 찾아가 먹는데, 각자 자기 돈을 내고 먹었다. 힘든 노동에 고생하는 조합원들은 점심 때 반주 삼아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게 같은 분회 구성원들은 스스로 ‘노가대’라고 부르며, 노가대들끼리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로에 대한 호칭은 형님, 동생이 대부분이었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만 아저씨라고 불렀다.

“낮에는 술을 한 잔씩 하제.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낮에 술 먹고 저녁에도 술 먹고 그랬제. 밥은 아무데나 먹고 싶은 식당에 가서 먹었제. 중화요리나 고기 구워 먹을 사람들은 구워먹고……. 우리가 막 들어갔을 때인 1973년도에는 선창이 싹 고래고기가 천지였어. 술 먹으로 가면 고래고기를 쭉쭉 찢라 쥐 부러. 사먹는 것이 아니라 술안주로 공짜로 그냥 줬어. 고래고기 안판 데가 없었어. 맛있지. 고래고기가 그것이 열 가지, 열다섯 가지 맛이라던데 겁나게 맛있어. 그라고 고래고기 기름이 이렇게 두꺼워도 그렇게 먹어도 설사는 안 해.”

노조원들은 대부분 각자 개개인이 짐을 메고 나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무거운 짐이 있을 경우 두 명 또는 그 이상의 조합원들이 협력해 들어야 했다. 두 사람이 양쪽에서 나무를 이용해 메기도 하는데 이것을 ‘목도’, 또는 ‘목도질’이라고 불렀다. 목도는 물체의 무게에 따라 20명의 노조원들이 동원되기도 했다. 외국에서 수입한 대형원목을 운반할 경우 나무 길이가 길고 무거워 그렇게 운반할 수밖에 없었다. 또 대형 엔진이나 선반기계들도 무게가 무겁고 잡을만한 곳이 마땅치 않아 목도질을 이용해 옮겼다. 이때 조합원들끼리 호흡이 잘 맞아야 일이 안전하고 쉽게 진행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발만 잘 못 맞춰도 흔들거리거나 무거워 제대로 나를 수가 없게 되거나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조합원들 간의 관계는 이렇게 돈독하고 긴밀해야 힘든 일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고구마를 말려 가지고 삼향사 주정 만드는 데 거기에 저장을 했어. 지금 자리로 따지면 제주여객선 터미널 있는가? 그 자리여. 고구마는 신안 섬에서 말려서 온 것이여. 우리가 하역해서 쌓지. 그러면 삼향사에서 가져가 주정을 만들어. 그 때 당시는 차도 귀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 세 번 일을 안했지. 산더미 같은 것이 유달산 노적봉보다 더 컸어. 발판을 타고 거기까지 올라갈라면 죽어 부러. 배에서 발판 타고 나와서 도로를 건너서 그 높은 데까지 올라가야 한다니까. 그 터미가 3개, 4개가 돼야. 가을에서 겨울, 설 설 때까지 들어오거든. 진도, 조도, 완도, 보길도, 청산도 어디고 전부다 목포로와. 지금은 광주권이지만 그때는 다 목포권이었어.”

당시 목포항은 지금처럼 신안군과 제주에 한정된 항로만 가지고 있지 않았다. 영광에서 신안, 진도, 완도까지 목포항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 규모는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각 섬에는 그 때까지만 해도 인구도 많았을 때였다. 목포항은 노조는 일도 많았고, 노조원도 많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자랑스러운 직장이었다. 하지만, 조직 내부는 불합리하고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 조합간부들은 노조원들의 수고로 먹고 살지만, 노조원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고충이나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노조원들의 불만은 묵살되기만 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분회장은 노조분회원들을 관리하며 행정업무를 맡는데, 조합에서 간부들이 일방적으로 선임했다. 분회원들은 서로를 잘 알기에 ‘이 사람이 분회장이 돼야 한다’고 밀어도 소용없는 일이었다.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선임하기 때문에 불만은 있었지만, 관례라는 이유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조합원들은 조합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 늘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조합 간부들의 노예라고 표현했지.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마라고 하면 못하고. 심했어.

조합이라는 틀에 들어가면 그그네들이 전체적인 것을 휘어 감고 독재하다시피 했으니까. 잇속도 자기들이 챙기고. 강제로 뺏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중앙분회에다가 판공비를 얼마씩 바쳐라 그래. 전에는 10만 원씩 올렸는데, 다음 달부터는 20만 원으로 올려라 그러면 올려야 돼. 그것을 안 하면 간부들이 그 분회에 불이익을 줘 부러. 음으로 양으로……. 묘하게 눈에 안 보이게. 그러면 분회장이 난리제. 조합은 명칭만 가지고 있었지. 우리가 벌어서 상납한 것으로 먹고 살았지. 조합은 노조원들한테 분회원들한테 우리한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 아이고, 징한 꼴을 많이 봤제.”

분회장은 근무하는 사무공간이 별도로 있지만 여직원은 없고 남자 총무를 한 명 뒀다. 총무가 분회의 회계와 자산을 관리했다. 총무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수금을 하는 일이다. 하주(荷主, 하물의 주인)들이 일을 맡기지만 비용을 바로 주지 못하고 미루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럴 때 총무는 하주를 찾아가 독촉하거나 약속한 날에 돈을 받아와야 했다. 물론, 돈을 떼이는 경우는 없었다. 항운 노조의 기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미루기는 하지만 떼이지는 않았다. 급여는 10일이나 15일 단위로 받았다. 수금이 잘 되면 제대로 급여를 받았지만, 하주들이 결재를 미루는 경우가 있으면 급여도 그 만큼 늦어졌다.

선주가 짐을 싣고 오면 일반적으로 하주가 노조사무실과 계약을 맺었다. 보통 선주와 하주가 각각 다른 경우가 많았다. 계약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밀고 당기며 치밀하게 진행된다. 가령, 고구마 자루가 100개인데, 중앙기준의 요금표에 의하면 개당 300원이 책정되어 있다. 하지만 하주는 그것에 개의치 않고 300원 이하로 값을 깎으려고 노력하고, 조합은 기준표를 제시하며 제값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결국 협상이 끝나고 계약이 성사되어야만 조합노조원들이 물건을 나르게 된다. 하주가 원하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한밤 중에도 작업을 해야 했다.

“제주도에서 밀감이 처음 나올 때는 날 새서 했어. 하주가 배를 대고 해주라는데 안 할 수가 없어. 교대로 내리고 그랬지. 하주가 비가 와도 해주쇼 하면 해주는 거야. 하주가 해주라면 해줘야 돼. 서비스 정신이 강했다기보다는 하주에 대한 노예 같았어. 우리는 하주한테 댕구를 못했제. 하주가 왕이니까. 노조 결성은 잘되어 있었지만, 하주 말이라면 다 들어줬어. 하주가 조합원한테 빈정 상하면 ‘너 오늘 일하지 말어’. 그래 불면 (일하다가 중단하고) 들어가야 돼. 하주는 왕이란 소리는 거기서 나오는 거야. 지금은 하주가 껍 소리 못하제. 지금은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제. 고개 굽신거리고. 지금은 일한 사람한테 그렇게 못해. 그러면 디져 불제. 지금은 하주가 뭐라고 하면 일하는 사람들이 욕하면서 하주한테 짐 가지고 다른데 가라고 해부러.”

하주들은 가능하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짐을 내리기 위해 애쓰기도 했다. 고래가 많던 때가 있었다고 위에서 언급했는데, 물양장에 고래가 거래되어 올라오면 상인들이 직접 고래를 해체하고 운반하기도 했다. 노조원들의 힘을 빌리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역전되었다. 하주들이 짐을 가지고 와 노조에 반드시 의뢰를 했다. 과거에는 조합에서 그렇게 막아도 본인들이 운반할 여력이 되면 나르기도 했는데, 정반대 상황이 된 것이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여력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김진수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가 노조 일을 그만 둔 1990년대 초반에 이미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힘든 일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거나 다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예전에는 그 부담을 개인이 맡아서 해결해야 했다. 하지만, 1990년 경 홍일운수라는 회사가 설립되면서 노조원들이 의무적으로 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홍일운수는 노조원들에게 필요한 장비를 제공해주고, 다치면 병원치료비도 내주기 시작했다. 산업재해에 대한 업무를 처리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관리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김진수는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 회사 설립 전에는 개인이 치료를 받았지. 홍일운수라는 것이 항운노조의 회사가 된지가 1990년인가 1988년도인가부터 운수사업이 생겼지. 다른 지역은 다 운수회사가 있었는데, 모하계 운수가 목포만 없었지. 부산이나 이런 데는 다 있었어. 사람들이 못하는 것은 그것들이 기계로 하고 그랬어. 그래서 거기다 의뢰를 했지. 홍일운수가 장비 대주고 그렇게 하고 하면서 우리 임금에서 10%론가 떨어져 나갔을 것이여. 홍일에서 15%, 조합에서 15% 가져가 부렸어. 우리 입장에서 나 빠진 거지. 정부차원에서 운수 인가가 나볼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여.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어. 그 뒤로는 홍일운수에서 치료해 주든만. 물건 사준다는 것은 큰 장비만 가져와서 해주는 것이여. 가대기보나 갈퀴를 주는 것은 아니고. 산재적용도 그 전에는 없었어.”

4. 자동화와 철부선으로 위기를 맞은 항운노조

1897년 개항한 목포항은 그만큼 항운노조의 역사도 뿌리 깊다. 개항 이듬해인 1898년 2월 한국역사상 최초의 근대적 노사분쟁인 목포부두노동자들의 노동쟁의가 발생했다. 개항을 맞아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한 목포에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노동자들도 인근에서 대거 유입되기 시작했다. 목포의 인구는 1906년 한국인과 일본인을 합하여 모두 3,532명이었다. 이 중 2,364명이 일본인이었으므로 한국인은 1,100여 명에 불과했는데, 노동자들을 의미하는 용인(傭人)이 657명이나 되었다. 당시 ‘각

개항장에 모여든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부두노동자'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⁰¹⁾

이들은 1924년 해륙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했는데 사실상 항만하역노동자들을 주축으로 한 운반노동자의 직업별 노조였다. 1925년 무목노동연맹을 꾸려 활동했으며, 운송노동자를 주축으로 목포자유노동조합을 설립하기도 했다. 이것이 현재 전남서부항운노조의 전신이 되었다. 1961년 전국부두노동조합이 결성되었고, 목포부두노동조합의 기관지 『목포노동』이 발간되기 시작했다.

1958년 부산부두에 지게차, 기중기, 윈치가 투입되고 부산부두노동조합원 중 절반 이상이 작업장을 떠나게 될 상황이 벌어지자 조합원들이 분노하여 지게차를 바다에 밀어 넣기도 했고, 1969년 장항 풍농비료공장이 컨베이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노사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목포는 그 때까지 기계화에 의한 큰 변화는 없었다. 1979년 이전의 전국부두노동조합이 전국항만노동조합으로 변경되었고, 이듬해인 1980년 9월 전국항운노동조합이 탄생했다. 목포도 전남서부항만지부와 목포운수지부를 통합 목포지부를 결성했다. 이렇듯, 다른 대도시의 항만에 자동화 기계와 괴물 같은 크레인들이 들어섰지만, 목포는 1970년대까지 특별한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1980년대에 접어들고 철부선⁰²⁾이 등장하면서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났다.

“여기는 기계화가 전혀 없었어. 부산, 인천이나 기계화 됐었지, 목포 같은 소도시는 아무것도 없었어. 크레인이 동원된 지가 얼마 안 돼……. 목포 선창에 들어선 것이 1980년대나 돼야. 구경도 못했어. 1979년도에 박정희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1980년도에 장비가 들어왔어. 그 전에는 전부다 인력으로 메고 다녔어. 철부선이 나와 분께 자동화물이 왔다 갔다 해분께 물동량이 없어서 부렸제. 짐이 10t이라고 해도 우리 인력으로 다 옮겼는데, 이제는 1, 2t 밖에 못하제. 목포는 기계화가 늦어. 철부선이 제일 큰 타격이었지. 우리가 손덜 수가 없잖아. 어쩔 수 없었지. 용댕이로 다니는 배가 철부선이잖아. 그 전에는 목선이었어. 용댕이(현재 영암군 삼호면 용당리) 철부선은 저기 영산강하구언이 생기면서 영암으로 연결되고 차가 댕겨 부니까 자연스럽게 없어져 부렸어. 그 전에는 두 대가 다녔다가 한 대 다니다가 손님이 무장무장 없어져 부니까. 태원여객이 삼호까지 들어가 부니까 없어져 부렸어.”

1981년 목포에서 영암으로 이어지는 영산강하굿둑이 완공되어 배를 이용하지 않고 곧장 차들이 화물을 실어 나르게 됐다. 이것도 항운노조의 일감을 줄이는데 일조한 셈이다. 동시에 목포에 처음

01)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하역노동운동사』1, 2009, 33쪽.

02) 쇠로 만든 선박으로, 승객은 물론 자동차나 화물차량을 싣고 이동할 수 있는 배.

철부선이 등장한 것이 1983년이었다. 차량에 화물을 실은 채 곧장 배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되자, 차에서 짐을 내리거나, 배의 짐을 차에 싣는 일이 없어져버렸다. 그에 앞서 1975년 이후, 삼학도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삼학도에 소재한 호남제분이 정기적으로 밀을 수입하기 때문에 향운노조원들의 도움이 필요했다. 수입선박에서 바지선에 밀을 내리면 여성들이 밀을 자루에 담고, 노조원들이 그 봉하지 않은 자루를 메고 호남제분 안으로 날랐다. 호남제분에도 운반노조가 있었지만 몇 사람 되지 않아 이렇게 선박이 들어올 때마다 향운노조 내에서 지원을 나갔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자동화가 진행되면서 PNT라 불리는 직경 30cm 내외의 관을 바지선에 직접 연결해 팬(fan)으로 밀을 빨아 들여 직접 사이로(저장창고)에 보내는 시설이 도입되었다. 조합원 인력이 직접 메다 나르는 일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당시 상황을 김진수는 이렇게 기억했다.

“그때 호남제분은 통밀을 본선에서 기계가 없는 배, 명텅구리배라고 바지선 거기다 싣고 오면은 우리가 미어서 찢지. 미어다가 후앙(Fan의 일본식 발음)이라고 호남제분 거기다 하면 후앙으로 불어서 공장안으로 들어간단게. 아주머니들이 자루에 통밀을 담어, 미어 날리는 것은 우리가 나르고, 자루는 봉하지도 않고 그대로 날랐어. 통밀, 겉보리여. 그것이 사이로에 올라가서 가루가 돼서 나오제. 거기 는 호남제분 노조가 있어도 충당이 안 돼. 사람이 몇 안돼서. 호남제분 노조는 공장 내에서만 일하고, 향운노조 내에 예하분회에서 지원식으로 나가서 한 거야. 그 후로 후앙이 바지선 안으로 들어가게 됐어. 우리가 삼학도 간지는 그것이 술찬하게 됐을 것이야. 1975년 정도 되었을 것이야. 그때가 마지막이었어. 호앙은 기계로 바람으로 빨아들인다는 것이여. 전기로 움직이제. 그 뒤로도 오며 가며 구경을 했지. 그것이 생기면서 호남제분에서 관리했어. 우리가 정부에다 건의를 한다든지, 생계가 위협받으니 대책을 세우라는 말도 못했어. 그러니까 향운노조 직원들이 노조원들을 줄여 부렸제. 돈벌이가 없으니까 그만두고 가고, 돈을 내고 왔는데, 포기하고 간 사람이 많았제. 들어올 사람도 없고, 돈이 아깝다고 남으면 굶어 죽제.”

목포도 뒤늦게 기계화, 자동화, 철부선 그리고 영산강하굿둑까지 건설되면서 차량이 화물을 싣고 직접 배에 오르거나 멀리 이동하게 되어 일감이 줄어들게 된다. 그만큼 향운노조원들도 대거 감축되었지만, 소수 중앙분회와 1분회 등 규모가 있는 분회의 조합원들은 여전히 일거리가 있었다. 단, 중앙분회에 속한 작은 반, 즉, 소작반, 운반반에 소속된 조합원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일을 그만두어야 했다. 그들도 원분회 조합원만큼 많은 돈을 내지는 않았지만, 일정한 금액을 내고 들어왔음에도 그만두고 나갈 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 돈이 아까워 남으려고 해도 일이 없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 떠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중앙분회, 1분회, 제주도분회 같이 큰 분회들은 타격을 덜 받았제. 조그만 분회, 소작분회 같은 작은 분회들은 타격을 많이 받았제. 중앙분회가 있으면 그 밑에 운반분회, 소작분회가 있어. 중앙분회에 딸린 분회들이제. 그런 분회들은 자연스럽게 없어져 부렸제. 돈벌이가 없으니까 전부 나가 불고……. 나이는 적고 많고가 필요 없이 그냥 나갔어. 우리 같은 원분회 사람들은 붙어 있었고……. 원분회 들어간 사람들은 돈을 많이 내고 들어가고, 소작분회, 운반분회 사람들은 적게 내고 들어가고, 그런 차이가 있었어. 그 사람들은 돈벌이가 안됐지. 보상이고 뺏기고, 보상 기다리다가는 다 굶어 죽을성 싶으니까 가부렀다니까.”

인력으로 작업하다가 크레인, 철부선이 등장하면서 점점 일자리가 줄어들자 조합도 저항을 못하고, 조합원들도 아무런 실업대책이나 보상도 없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상황이 어렵게 되자 남은 항운노조 조합원들은 악착같이 화물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여객선을 타면서 개인이 들고 다니는 화물까지 간섭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

“우리 노조가 할머니 보파리까지 가져간 것은 사실이며. 그것 때문에 많이 욕먹었지. 사실 손에 든 것은 어쩔 수 없제. 그런데 할머니들이 힘으로 가져갈 수 없는 것을 가져간다 이 말이며. 우리들 힘을 써야 할 것은 못 가져가게 제지하지. 그거는 안 된다 이 말이며. 여기는 항운노조 관할이니까 우리한테 의뢰를 해야 합니다 하고. 그래서 트러블이 생기는 것이여. 이런 물건은 우리한테 맡기고 옮겨야 합니다. 해서 싸운 경우가 많아. 싸운 것이 아니라 법정분쟁까지 가고 경찰서까지 가고 한 두 번이 아니며, 그런 것이. 그러니까 욕을 먹는 것이지. 직접 대 놓고 욕을 하는디, 항운노조 이 도둑놈들 하고, 그런디 그럴 때마다 싸울 것인가? 어쩔 수 없지. 싸우거나 소송이 걸리면 항운노조 전체적인 책임이지. 항운노조가 책임지고 경찰 문제를 해결해주지. 간부들이 있지 않은가. 그런 일 하라고 겁난 돈을 간부들한테 주는 것이제. 우리 돈 갖다가 그들 월급 먹으면서. 말하자면 택시회사에 가면 해결사를 있잖아. 경찰관들이 퇴직해 들어간 것하고 똑같애. 그 식하고 똑같애. 항운노조도.”

5. 골병만 남은 인생, 풍요롭지는 않았지

젊은 시절 ‘노가대’를 했다고 표현하는 김진수 전 항운노조 조합원은 일을 그만 둔 지금도 가끔 선창을 산책하며 옛날 일들을 되돌아본다. 급여를 받으면 곧장 집에 가져와 아내에게 안겨주며,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꼈다는 그는 여느 아버지와 다를 바가 없었다. 그는 목포항의 현대화 현장에서 한 축을 담당했고, 그 결과인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으로 또 현장에서 물러나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했다.

인터뷰 중 과거 사용하던 가대기보나 갈구리가 있는지 확인했지만, ‘그 징그러운 것을 뭐하러 지금 까지 갖고 있겠냐?’고 깜짝 놀라는 것을 보면 정말 지긋지긋하게 많은 고생을 한 것이 틀림없다. 삼복더위 높은 습도와 더위에서 현장 일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인지도 모른다. 얼굴에서부터 상의 전체가 젖는 것은 물론, 하얀 소금이 덩어리가 될 정도로 땀을 흘렸으니 어느 장정인들 견뎌낼 수 있었을까 싶다.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한 탓일까. 함께 일했던 동료들 중 지금까지 남아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했다.

“같이 일하던 사람들 다 죽어 부렸어. 골병 원 없이 들었제. 지금은 어깨에다가 짐 하나 안 미고(메고)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안 그랬거든. 그때 그 사람들 한나도 오래 못살아. 술병에 죽는 사람은 없어. 골병으로 죽제. 사람 몸에 고된 일을 하면 뺏다구 속의 진이 다 빠져 분다네. 대체로 그래. 병원에 가면 뼈가 푸석푸석하다고 그러던가. 내가 생각할 때도 삼복더위에 그렇게 땀을 흘리니, 사람 몸속에 있는 영양소가 한 번 빠져 나가면 그것을 보충하는데 어렵다는 거야. 쉽게 회복이 안 되네, 그렇게 알고 있어. 동료 중에 젊은 나이에 죽어버리면 한심스럽지.”

김진수는 55세가 되던 해인 1994년 퇴직을 신청하고, 입사 당시 냈던 보증금조의 금액에 그동안 상승된 액수를 포함해 2400만 원을 받았다. 퇴직 나이는 62세로 한참 더 남았지만 오랜 노동으로 허리 디스크가 생기면서 몸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입사할 때 낸 돈을 퇴직 때 돌려받는 이 제도는 그 후 4년 정도 유지되다가 사라지고 말았다. 이제는 조합원이 그만두게 될 경우 친족들이 무상으로 대신 취업할 수 있을 뿐, 그 외에는 어떠한 금전적인 대가도 받지 못하고 퇴사해야 한다. 그는 향운노조원으로 힘든 일을 돈 버는 재미로 이겨냈다고 했다. 하지만 ‘결코 풍요롭게 잘 살지는 않았지. 잘 살았다는 것은 안 맞는 말이야.’라는 말을 남기고 인터뷰를 마쳤다.

김경완 | 신안문화원 사무국장

제3절 목포항과 선구점

-‘평화선구점’대표 김동윤(남, 1948년생)-

1. 완도에서 목포로 상경하여 낚시점원이 되다

진도와 완도가 연륙이 되기 전, 그러니까 육지와 다리로 연결되기 전에 섬이었던 진도·완도 사람들은 육지로 나가기 위해서는 목포를 들러야 했다. 광주 혹은 서울로 가기 위해서는 육지의 관문인 목포를 반드시 거쳐야 했기 때문이다. 진도, 완도뿐만이 아니라, 인근의 영암, 해남, 신안, 그리고 멀리 제주도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배가 들어오는 새벽이면 목포항 인근은 그야말로 불야성을 이루었다.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목포를 처음 왔어요. 제가 고향이 완도입니다. 1965년 3월 15일날 완도중학교를 졸업했어요. 16살에 졸업하고 가정환경상 더 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서 중단하고 목포로 무작정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목포가 배들이 객선이 있었는데 나는 객선을 안타고 육지로 돌아서 버스로 왔어. 무작정 출발해서 목포에 도착하니 목포역 앞에서 옷을 놓고 있더라고. 어른들이 옷 노는 것을 보고 구경하고 있으니깐 어떤 사장님이 옆에 와서 ‘아가 너는 어디서 왔냐?’ 하고 물어서, ‘밥 먹을 데도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니까 나를 집으로 오라고 하더라고. 자기 집에 와서 점원생활 하라고 하더라고. 재워주고 밥 먹여주고 월급 준다고. 그래서 따라갔죠. 낚시점이었어. 목포항 바로 앞이었어요. 그 당시에 월급 5만 원씩 주더라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일을 금방 익혔죠. 그니까 주인이 일 잘하고 착한 사람 들어왔다고 엄청 좋아했어요. 그리고 니 일처럼 열심히 하면 나중에 가게를 물려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놀 참도 없이 진짜 열심히 했어요.

내가 중학교는 나왔지만 한문을 몰랐고 그래서 인자 공부를 시작했어요. 다시 영어도 알파벳 연습하고 신문 보면서 내가 밤에 글씨를 쓰고 일본말도 공부하고 내 나름대로 고학을 했어요. 그 때 한문도 다 띠고 위인전 책도 다 읽었었어, 원래 국민학교 때 읽어야 할 위인전집을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생 때 읽은거제. 내가 중학교 때도 공부는 잘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고학을 하면서 딱 버텼어요.

내가 근무했던 데가 목포낚시점이었는데 점원생활을 하는 동안 일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가게에 손님 오면 내가 손님한테 항상 ‘선생님, 사모님’하면서 손님들 기분을 좋게 해줬어. 그러면 사람들이 물건도 깎도 않고 까칠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내 일처럼 열심히 일했제. 사람들이 다 내가 친자식인지 알았을 정도여. 그렇게 열심히 했다니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김동윤(남, 1948년생, 평화선구점 대표)은 중학교를 마치자마자 홀로 일 자리를 찾아 완도에서 목포로 상경한다. 당시 완도는 섬이었지만 목포는 큰 도시였고 목포를 가면 일 자리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무작정 상경한 목포에서 다행히 낚시점 주인을 만나 점원생활을 시작한다. 숙식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낚시 점원이 된 김동윤은 적극적으로 일을 배우고 자기 일처럼 성실하게 가게를 꾸려간다.

“근디 10년 3개월 일하고 내가 자립했어요. 처음 가게에 들어갔을 때 주인이 10년만 여기서 일하면 이 사업을 물려준다고 했거든요. 10년 후에 나한테 줘야 될 것 아냐. 내가 부자로 만들어 줘야 겠. 근데 10년이 지나도 물려줄 생각도 않고 월급도 안 올려주고 해서 10년 딱 살고, 3개월 동안은 그 집 밀린 수금을 다해주고 그만뒀어요. 그 3개월은 내가 그동안 남의 집에서 살면서 신세진 것 갚는다는 생각으로 마지막으로 수금 다 해주고 끝냈어요. 근데 딱 그만두고 나올라 할 때 자전거 14만원짜리 한대 사주고 15만 원을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15만 원은 안 받고 자전거만 받는다 해도 기어코 돈을 호주머니에 넣어 주더라고. 그것도 감사해야제. 그 뒤로 낚시점 사장은 가게 팔아버리고 서울로 가버렸어.”

그러나 열심히 일하면 가게를 물려주겠다고 약속했던 낚시점 주인이 좀처럼 가게를 인계해주지 않아, 김동윤은 독립하기로 마음먹는다.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점원생활을 통해 많은 일을 배웠고, 시골의 부모님께 월급을 보낼 수 있었고, 틈틈이 공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당시 5만 원이면 시골에 밭 100평자리 한 마지기를 사요. 그럼 나는 돈 받은 족족 시골에 돈을 보내서 논밭을 샀제. 논 한마지기 15만 원, 소양치 한 마리에 15만 원 그래가꼬 10년 동안 계속 전답 사고 소 사고 동네 방앗간 사고 우리 형님 집 지어주고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 살게 되면 시골에서 짬이라도 갖다 먹는다는 생각으로 시골에 투자를 했어. 근디 소가 3년 되니까 애미되고 또 소양치를 넣고 그렇게 급속도로 발전하더라고. 그리고 동네 방앗간도 사서 운영하고 해서 부모네가 좋아했고. 시골에서 내가 인기도 상당히 많았어. 스물다섯에 중신도 들어오고 그러더라고. 누구네 집 아들 누구는 목포에 가서 잘되가지고 집에 다 도와준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가꼬. 시골에서는 내가 평이 좋았제. 성공했다고.”

2. 선구점을 차리고, 성공과 실패를 맞보다

목포항은 서해 어장으로의 출어를 준비하는 어업전진기지로서 어선들이 번창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산물이 집산되고 유통되는 목포수산업협동조합의 어판장이 소재하여 이곳 앞 선창 주변은 선구점⁰¹⁾들이 밀집되어 있었다.

김동윤은 처음 목포에서 일하게 된 낚시점 점원을 그만두고 독립하여 선구점을 차리게 된다. 다행히 낚시점 점원에서 일한 경력과 성실하게 일한 덕분으로 어느 정도 단골이 형성되어 있어 사업은 어렵지 않았다. 손님을 잘 기억하고 무조건 친절하게 하는 등 남다른 장사수완으로 단박에 선구점 가운데서도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그래서 인자 내가 그만두고 직접 선구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1975년 7월 15일이예요. 내가 혼자 장사를 시작해서 선구점을 차렸죠. 낚시점 하면서 일 배운 것도 있고, 또 사람 상대를 잘하니 까 나를 찾아오는 단골도 있고 그랬어요. 선구점이란 데가 없는 물건 없이 오만가지를 다 하거든요. 그니까 주인이 일일이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손님이 어디서 왔고, 어떤 어장을 하고, 무슨 그물이 필요한지, 무슨 어구가 필요한지를 알고 얼른 물건을 줘야 돼요. 그래야 장사를 잘하제. 손님이 묻는 것만 팔아서는 안돼요. 주라는 것만 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여. 뭐를 달라고 하면 다른 것까지 연결해서 더 필요한 것 없냐고 알려줘야죠. 그래야 손님들이 더 좋아하제. 여기는 다들 섬에서 오는 손님이 많으니까 안 잊어볼고 물건을 사가야 두 번 걸음 안하죠. 물건을 부쳐주기도 하지만.”

당시 목포항 주변의 골목 안 상가에는 섬사람들로 북적거렸다. 도서민들이 목포와 섬을 왔다 갔다 하며 어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어구, 고기잡이에 필요한 선구는 물론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였다. 어업이 주업이었던 섬 주민들이 선용품이나 선구 및 어구 등을 구입하거나 제조, 수리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들러야 하는 곳이 바로 선구점이었다. 김동윤도 낚시점에서 점원으로 일한 경험을 살려 목포와 인근 도서 지역 어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구점을 운영하게 되었다.

김동윤의 선구점은 목포항과 가까우며, 각 섬을 잇는 여객선들이 사람들을 내리고 짐을 부리는 영해잔교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매우 좋은 자리였다. 특히 영해잔교는 항동시

01) 목포 선구협회 소속 선구점을 비롯 기타 선구 및 어구제조 공급업체로는 남양 목포공장, 남양교역, 영신산업, 성창산업, 신한산업, 삼정, 한일공업사, 석유선구상사, 수호선구상사, 한양선구상사, 고려선구점, 남양선구점, 남해선구, 대산실업, 대중선구, 대일선구, 대양선구상사, 덕유선구상사, 동양선구점, 동진선구점, 바다선구점, 수웅선구점, 신흥선구, 신안선구, 우리선구, 유명선구, 유진선구, 영광선구, 영화철물, 완도선구점, 중앙선구점, 진도선구, 평화선구, 창신선구점, 화신선구점, 해성선구점, 해안선구, 해창선구, 흑산선구점, 유성상사, 인천선구점, 광성상회, 부림산업 등이 해당된다.

장 건너편에 위치한 부두로 새벽부터 섬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과 섬에서 나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곳이었다. 이처럼 섬으로 오고가는 사람은 물론, 섬에서 나는 각종 해산물을 나르고 육지의 식량을 팔아가는 등 영해잔교 위에는 사람과 각종 짐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또한 이 영해잔교 주변은 진도와 완도, 신안 등으로 가는 선박이 정박한 장소였는데, 여객선이 출발할 시간이 되면 이 부잔교 위에서 손님들을 불렀다. 여기서 바로 ‘조도가리’라는 우스갯말이 나온다. 즉 본래는 ‘조도 갈 이’라는 용어로 진도 조도에 갈 사람은 빨리 이곳으로 와서 배를 타라는 의미에서 부르는 것이다.

“여기 앞 선창에는 목포항 말고, 잔교가 두 갠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여기가 영해동이어서 영해잔교라고 불렀는데, 저기 항동시장 바로 앞에, 광주약국 건너편으로 지금 해변주차장 있는 바깥쪽으로 물 위에 떠있는 부두가 있었어요. 그것보고 잔교라고 하는데 거기다 배들을 정박하거든요. 진도로 가는데 있고, 신안으로 가는데 있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헛갈려서 배를 잘 못타는 경우도 있고, 배 출발시간인데 늑장부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선원들이 시간되면 부르죠. 지금 어디 가는 배 출발한다고 얼른 타라고. 그때 여기에 진도 조도사람들이 많이 멩겼거든요. 목포로 여러 가지 물건 사러 다니는 사람도 많았고 조도에서 이사 와서 사는 사람도 많았고. 그래서 ‘조도가리(조도 갈 이)’하고 외치면 조도 갈 사람들이 듣고 그쪽 배를 타는 거죠. 그 옆으로 가면 나락마당이 있고요. 풍선 다닐 때 섬에서 나락이나 보리를 싣고 와서 여기다 부렸다고 해서 나락마당이라고 했어요.”

선구점을 시작하자마자 사업수완이 좋아 금세 자리를 잡은 김동윤은 그 해 어선업에도 투자하게 된다. 대부분이 목선으로 고기 잡던 시절, 김동윤은 철선으로 된 백 t 규모의 어선 두 척을 구입해 근해어업을 나서 그야말로 대박을 터트린다. 대형 어선을 건조하여 조업하면서 배에 문제가 생기자 직접 조선소 회장을 만나 선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A/S를 요청하기도 했다.⁰²⁾

“나는 과거에 이 선구점 사업을 하면서 내가 바다에 사업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시작했어요. 그 당시 목선이 있을 때 나는 철선을 구입했어요. 75년도에 1억7천 주고 배를 지어서 사업을 시작했지. 사업할 때 허허벌판의 제주도나 동지나해까지 가서 작업을 했어요. 나는 선구점을 해봐나서 아 그물은 어떻게 해야된다 하는 것을 잘 알았제.

02) 김동윤은 1973년 거제도에 설립된 조선공업 목포조선소(대우중공업의 전신)를 찾아가 선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리를 요구하기 위해 김우중 회장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

그래가지고 돈을 굴렸어. 5~6년 동안 내가 목포에서 최고였어. 그때 선원이 스물네 명. 한 배당 12명씩 선원이 있었어. 배 두 척으로 한 척당 100t이었어. 16노트 20노트 나갔지. 주로 조기, 갈치잡이를 하고. 한번 돈을 버니까 머리가 트이더라고. 그때 내가 대우 김우중 회장도 만나고 했어. 배에 이상 있어서 이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작업하다가 직접 찾아갔어. 그러니까 일본 견품을 가지고 와서 달아줬어. 배를 막 지어서 문제가 생기면 하자가 있는 거니까 바로 와서 복구를 해줬어, 작업하다가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하자가 나면 바로 수리해줘야지. 나는 중학교 밖에 안 나왔지만 대학교 나온 놈들 뺏쳐부러. 그렇게 6년을 해가지고 돈을 굴렸어. 내가 그 돈을 땅에다 묻었지. 그리고 어망 공장도 했어. 해남 계곡면에 기계를 17대 들여와서. 지금도 계곡면에 그 터가 있어.

그런디 내가 돈을 벼락같이 벌었다가 돈을 한방에 날려부렸어. 그때는 내가 장사도 잘돼서 돈도 많이 있었는데 내가 아는 분한테 백지 수표를 스물일곱 장을 줬다가 몇 십억을 해 먹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잘 알고 있던 사람이네 믿고 있던 사람한테 당한거제. 그 일이 생기니 내가 심장이 맥히고 숨도 헉헉 거리더니 눈이 나가불더라고. 그러다가 눈이 한쪽이 안보여 부러. 그런 일을 겪으니 자다가도 ‘내 돈 내 돈’ 하면서 벌떡 일어나고 그랬어. 다행히 시간이 지나고 내가 믿음으로 다시 복구했는데 그 당시에 눈물을 한 말은 흘렸어. 그래도 이렇게 일을 하니까 다 잊어져 버리더라고. 그때가 84년도여.”

3. 다시 선구점으로 일어서다

선구점으로 자리를 잡자마자 연이어 어선사업에 투자하여 성공했던 김동윤은 믿었던 지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큰 규모의 사업비를 날리게 된다. 한쪽 눈의 시력도 잃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지만 믿음으로 극복해내고 다시 부지런하고 성실한 성품으로 재기에 성공하였다.

“내가 그때 목포를 뜰려고 했거든. 내가 만약에 다른 곳에 가서 고물장사를 할까도 생각도 해봤어. 그런디 아는 것은 이것밖에 없는데 타향 가서 무엇을 하겠냐 하고 다시 주저앉았어. 70년도에 내가 각 그랜저 타고 다녔어. 그때 당시 은행에 몇 억씩 돈 넣어놓고 살았었는데 돈 뜯기고 몸 망가졌는데 다 필요없제. 내 의지대로 살아야제. 내 인생사에서 내가 빈털터리가 되었다가 다시 일어났어. 그래도 20년 해오던 일이고 내 단골들이 있으니 여기서 다시 시작했제.

큰 그물을 손질할 때는 밖에서 작업해야 하는데, 겨울에 눈이 와도 안 쉬고 해요. 눈이 와도 마스크 쓰고 눈 두 개만 내놓고 작업하면 추운 줄도 몰라요. 일에 미치니까 배 고파지도 모르고 그렇게 미치도록 일을 했어요. 일할 때는 모르지만 일 안하고 그냥 있으면 막 아퍼오기 시작해요. 사장이라고 깨

꽃한 양복에 넥타이 매고 있으면 안 되지요. 내가 직접 이 그물에 대해서 다 알아야하고 그래서 손이 다 닳아져버렸지요. 처음에 손에 피가 나다가 이제 제 손에 핏기가 저버렸지요.

이런 그물을 즈그가 가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우리한테 땀겨. 일손이 부족한게. 내가 그물을 만들면서 이것에 대해 공부를 엄청 많이 한 사람이며. 나는 이 물건을 사가지고 간 사람들의 주소를 다 적어. 그러든 누가 물건 사러 오면 어디서 왔냐고 물어봐. 그러든 내 단골 중에 이름을 대면서 누구 잘 아냐고 하고, 그 사람도 물건을 여기서 사갔다고 먼저 말하면 믿음이 가제. 그분 핸드폰 적어놨다가 전화 연결도 하고 서로 통화해서 나한테 일을 맡기제. 손님이 없으면 일하고 손님이 있으면 손님맞이하고.”

목포의 앞 선창은 물론 뒷 선창이 있는 북향에도 각종 선구 및 어구제조 공급업체, 선용품업체, 선박용 기계용품 및 제조수리업체 등이 위치한다. 이들 가게들은 선주, 선장, 선원들이 모두 이용한다. 선원들에게는 담배와 작업복(토시, 물옷, 비옷, 장화, 장갑 등)이 필수품에 속하며, 이것은 단골 선구 점이나 피복(선원들 의류), 잡화가게에서 구입한다. 배에서 먹고 자야 하는 선원들에게 필요한 시설 및 도구들을 제공하기 위해 선·어구점과 잡화점들은 목포항과 북향 일대에 밀집되어 있다. 주로 목포항은 대형어선들이 정박하고, 북향은 중소형 어선들이 정박한다. 따라서 선·어구도 주류를 이루는 선박에 맞게 구색을 갖추고 있으며 점점 기계화되는 추세이다.

“우리 가게에서부터 쪽 옆으로 그물집, 철물점, 염업사, 김발발장 만드는 공장까지 다 있어요. 어선, 선박 관련해서 필요한 것들은 일체가 여기가 다 있제. 안강망, 유자망 등 큰 배들은 주로 앞 선창으로 들어오니까 앞 선창의 어구는 안강망과 유자망이 많고. 낚시배, 주낙배 등 작은 배들은 뒷 선창에 많고.

지금 만들고 있는 어망은 갑오징어, 돔, 우럭 이런 걸 잡는 그물이에요. 이게 땅그물, 띠망이라고 해요. 땅에 가라앉은 그물이라고 해서 땅그물이라 하고, 띠가 둘러져 있어서 띠망이라고도 하지요. 어종에 맞는 그물을 사야되니까 다 틀려요. 지역마다 어종마다 틀리죠. 배 소모품은 많제. 전에는 풍선 다닐 때는 닻이 중요하고, 지금은 엔진 달고 FRP 배 나오고부터는 부속품이 바뀌었제. 그때그때마다 다르제. 시대에 따라서. 엔진이나 기계 손 볼 사람은 조선소로 가고. 그물 꾸미고 어구 살 사람은 우리 집으로 오고 그러제. 그물 공장에서 따로 그물 만들어 팔고. 우리는 그물을 손님들이 주문한 대로 짜고 맞춰주제.

지금은 물건이 좋아요. 그전에는 물건이 안 질렸지만 지금은 나이론 실이라 찢기고 좋아요. 그 당시 물건 자체는 고기 잡은 낚시도 바다 잔물에 녹이 스는데 지금은 코팅이 되어 녹이 안 쓸어. 차도



그림 1 목포항 인근에 위치한 평화선구점

코팅을 해서 오래 쓰잖아요. 옛날에 비해 지금 물건은 너무나 완고하지요. 전에 그물은 기계화 되지 않을 때는 사람이 수공업으로 제작을 했지요. 기계로 하면 한 코가 짝 나와불잖아요. 예를 들면 사람이 백 명이 땅을 파는 것과 포크레인이 땅을 파는 것과 일의 능률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기계가 더 능률이 훨씬 좋지요. 요즘은 기계화시대죠, 요즘은 그물도 기계화 한다고 보면 되고, 과거보다 재질도 짙기고 오래가지요. 전에는 사람의 손으로 그물을 끌어 올렸지만 지금은 자동화되어 기계 모터로 끌어올리고 로라가 자동으로 끌어올려주죠.”

4. 목포항이 있기에 선구점이 있다

목포항은 어선과 바다로부터 들어온 어획물들을 대부분 수협어판장을 통해 도시의 곳곳으로 혹은 전국으로 운송되기 때문에 항구 주변은 어선과 어민들을 위한 각종 선구점과 잡화점은 물론 여관, 식당, 술집, 다방 등이 즐비하게 포진되어 있다.



그림 2 그물 손질 중인 김동운 평화선구점 대표

“손님들이 대개 섬에서 와요. 고기잡이 하는 어선들은 다 목포로 물건 하러 들어온다고 봐도 되요. 그래서 여기 앞 선창은 선구점이 많죠. 그 배를 다 상대하니까. 어선이 목포 선창으로 들어와서 그물하고 어구를 제일 많이 사가죠. 그리고 인자 선원들이 들어오니까 여관, 여인숙, 다방, 그리고 선술집하고 직업소개소도 다 있고. 식구미 대주던 곳도 있었고. 여기에 다 모여있제. 배 들어올 때는 시끌벅적해요.

그래도 연륙되고 다리 놔지면서 저기 완도, 진도, 해남 이런데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니까 손님이 줄어들긴 했죠. 지금은 옛날 같지 않지만요. 그래도 단골들이 있어서 물건 주문하면 배에 실어주고 그래요.”

최근 어업인구가 줄고 인터넷 제품들이 늘어나면서 선구점과 목포항 주변의 경기가 다소 위축되긴 했지만 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가게들이나 평화선구점처럼 50여 년 가까이 장사를 해왔던 곳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한다. 그래서 목포항 주변에는 오래된 가게들과 일제 강점기부터 있었던 건물들과 뒷골목 등이 그대로 남아있다.

“여기 그물은 천 가지가 넘어요. 우리는 사시사철 그물이 나가요. 겨울에도 바빠요. 봄에 어장 준비하는 물건을 겨울에 대비하거든요. 근게 추울 때 대비 해놓고 날씨가 풀리는 봄에 바다에 나가서 바로 어장을 하지요.

그리고 지금은 그물이 바다에서 보다 육지에서 더 많이 나가요. 발작물을 생산할 때 약간 뿌리면 그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오리나 까치 이런 새들하고 멧돼지들이 와 불면 삼시간이여. 그니까 예방 할라고 거기에 그물을 덮어야 돼. 블루베리, 감, 배 발도 다 마찬가지이여. 밭에다 그물을 쳐서 못 들어오게 할라고 육지에서도 그물을 사러 오는 사람이 많아요.

물건이 인터넷으로 나와 가지고 나한테는 손해지요. 그리고 아무래도 중국산 물건이 훨씬 싸. 만드는 인건비가 적게 드니까. 옛날에는 물건이 엄청나게 나뻐었는데 지금은 여기서 만든 것보다 더 좋아

부러. 그래도 중국산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교도소에서도 어망을 만들거든요. 인건비는 만사천원 줘.

손님이 어망을 해갔는데 이 그물로 물 조수가 세게 가는 태풍이 온다든가 중국어선이 몰래 끌어 가 분다든가 하면 하루아침에 끝이에요. 그러면 어망 채비를 다시 돈 들여서 해야 되요. 어장일이 자본이 많이 들지요. 바다에 있는 물건이라 질기고 오래가야 되지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오래 쓰고 못쓰고 하지요. 바다에가 어떤 고기가 있다는 것을 레이다가 찍어주잖아요. 어군탐지기라고 그만큼 기계화시대여. 예전에 비하면 종류도 많아졌고, 어구장비도 많이 발달했죠. 계속 잡는 어종이 바뀌고 새로운 조업이 나오니까. 그래도 어민들이 있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일하고, 목포가 항구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지요.”

한때 김동윤은 선구점을 통해 많은 돈을 벌기도 했고 잃기도 했지만, 목포항을 무대로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한다. 목포는 물론, 인근 신안, 해남, 완도, 진도 등 오랫동안 거래하는 단골이 있다. 그는 각 도서마다 특유의 어장환경과 어종을 기억해 그 지역에 맞는 어망과 어구 등을 추천해주고 이웃들의 이름을 기억해두어 높은 신뢰감을 쌓아왔다. 무엇보다 선구점의 특성상 성실함은 기본이고, 다양한 어구를 보유하고 변화하는 어종을 빨리 따라가야 하며 각종 어구 지식들을 갖추고 있을 때 단골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목포항에 물때에 맞춰 조업을 끝낸 어선이 들어오고 나갈 채비를 하며 선구점을 들르는 선원들과 어민들에게 김동윤은 오늘도 필요한 부자재나 튼튼하고 좋은 어구를 소개하고, 그들이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 목포항의 변성했던 상업시설들이 쇠퇴하여 옛 명성을 찾아보긴 어렵지만, 김동윤은 다시 부활을 기다리며 선구점의 문을 열고 목포항을 지키고 있다.

이경아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연구위원

제4절 목포가 낳은 최고의 목수

-신영FRP조선 대표 신영수(남, 1947년생)-

목포는 무안반도 서남쪽 끝에 위치하여, 육지부와 도서부를 연결하는 관문에 해당한다. 북동쪽은 무안군과 접하고, 북서쪽은 신안군과 접하며, 남동쪽은 영암군과 접하고, 남서쪽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해남군과 접해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북동부 무안군과의 접경지를 제외하고는 시 경계가 모두 바다로 이루어져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 환경은 배를 이용해 여러 지역을 오고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케 해주었다. 또한 목포라는 지명의 유래에서 목포는 목포 부근 해안의 도서지방에 수목(樹木)이 울창하여 신시(薪柴)⁰¹⁾를 운반하였기 때문에 ‘나무의 고장’, ‘나무의 포구’에서 목포라는 지명이 유래하였다는 견해, 서해로부터 깊게 만입되어 들어온 영산강의 어구, 즉 목(?)·목덜미에 해당되는 곳이어서 ‘목덜미의 포구’라는 의미로 목포 또는 목개로 불려진 것이 한자어로 목포(木浦)로 표기되었다는 주장 등이 있다.⁰²⁾ 이러한 주장은 목포 자체가 항구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나무가 많은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항구와 나무, 두 가지를 합쳐보면 예전부터 배를 통해 이동을 하거나 혹은 다른 생산 활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건 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이다. 배는 아무나 만들 수 없다. 단순히 나무를 연결시켜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먼 바다를 항해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물품을 싣고 가려면 가려는 곳에 맞게 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배를 만들기 위해 어렸을 때부터 배 짓는 일을 해온 신영수 목수를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현재 신영수 목수는 ‘신영FRP⁰³⁾조선’ 대표를 맡고 있으며, 목포조선중공업협의회 회장을 겸직하고 있다. 현재까지 배를 짓고 있다.

1. 목포 소년, 목수가 되다

어렸을 적 납부금이 없어 문태중학교를 중퇴하고 삼학도 근처 제재소에서 나무 켜는 목수를 하던 아버지에 이끌려 간 곳은 바로 배를 짓는 곳이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신영수 목수는 일찌감치 경제적 여건의 어려움을 알았기에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을 찾았다.

당시의 목포는 어업이 발달하였고, 어업 활동을 위해 배를 만들거나 수리를 하는 조선공업도 꽤나

01) 장작과 쉼나무를 아울러 이르는 말.

02) 목포개항백년사(http://100.mokpo.go.kr/former_mokpo/history) 발췌.

03) FRP(fiber reinforced plastics): 유리 및 카본 섬유로 강화된 플라스틱계 복합재료로, 경량·내식성·형형성(成型性) 등이 뛰어난 고성능·고기능성 재료이다.

발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한 일이 바로 목수였다.

아버지를 따라 처음 들어간 곳은 전부 피난민들이 거주하였던 곳이었다. 전쟁통을 피해 남쪽으로 피난 온 목수들이 모여 살던 곳에 찾아가 기술을 배우고자 했다.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하자면 학교 못 다니고. 아버지가 제재소 선박 쪽에 목재를 켜는 기술사로

계셨어. 부모들은 그러잖아. 부모들이 공부 못하면 기술이라도 배워갖고 살라고.

그때 선목들은 아주 좋은 입장이었어. 그만큼 호황이었다는 이야기제. 그런 것들을 부모들이 알기 때문에 그 길을 하면은 자식은 나중에 먹고 살만은 하겠다는 거겠지. 그게 부모의 생각이었지. 그래서 그렇게 이 일을 시작했지.

그때 당시에 들어간 곳이 전부 피난민들만 있었던 곳이었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뭐하니까 이북사람들 있는 데 우리 오야봉이 주호섭 씨 그때 공장장이었는데 그 분 밑에서 처음으로 일을 했지. 처음에는 말도 못 알아먹어서 많이 힘들었제. 근데 배울라면 어쩔 수 없이 또 열심히 했제. 결눈질안하고 일만했제. 놀틈도 없이. 또 그때는 3년 동안 돈도 안 받고 했제. 3년 후에나 연장이나 좀 사주고 돈 좀 쥐어줬제. 그렇게 여름에는 런닝구 한 벌. 겨울에는 내의 한번 그렇게만 받고 일을 했지. 15살인가? 17살인가? 그때부터 했을거야 아마. 그런 거 같아.”

어렸을 적 배운 목수일은 비록 가난한 생활에서 탈피하기 위해 선택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그에게 꼭 맞는 천직이 되었다.

2. 목포 조선의 흥망을 기억하다

당시의 목포 조선은 나름대로 호황의 시간을 갖고 있었다. 전라남도 여러 곳에서 배를 만들거나 수리하러 찾아오고, 또 이 일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조선업이 호황이 되었기에 사람들이 몰렸지만, 처음 신영수 목수가 일을 하게 된 계기처럼 금전적



그림 1 십대 후반의 신영수 목수(첫 번째 줄 왼쪽 두 번째)

인 요인 또한 빠질 수 없다. 그때에 일당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웠지만 여타 다른 일보다 많은 일당을 줬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의 말에 따르면 이 부분이 매우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

“배무이를 맨 처음에 하면은 지금은 없지만, 그때 당시는 많았어. 목수일이 다른 일보다 단가가 제법 있었지.”

목포의 조선업은 당시 목포 지역 내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서남해안에 걸쳐 배를 만들고자 하면 목포로 찾아와서 부락을 했다고 한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배들은 바다로 나가기 전 출항을 알리는 진수식을 행했는데 당시 선주들은 작은 배라 할지라도 크게 거행했다. 그 이유는 바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이 있어야 배가 안전하고 고기가 많이 잡힌다는 믿음 하나 때문이었다.

“배를 바다에 내리면서 돈도 뿌리고 떡도 뿌리고, 옛날엔 10원짜리가 동전이 아니고 지폐였는데 그 때는 좋아서 돈을 줌고 다녔는데, 그때는 선주는 많은 사람들의 호응이 있어야 고기가 잘 잡힌다고 해서 그런 믿음이 있었어. 배는 서낭을 가지고 다니는데 지금은 10만 원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 당시 10만 원이면 엄청 크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서낭에 글을 써서 걸어놓지. 선장실에다가 걸어 놓고, 뒤편때마다 이제 기도를 하지. 만선을 위해서 그 시절에는 많이 했지. 무당 불러서 굿한 사람도 있고, 돈만 뿌린 사람도 있고”

이러한 관습은 조금 변형되고 사라진 것도 있지만 현재까지도 잘 남아 있다.

그가 약 3년여동안 수습기간을 거쳐서 정식으로 목수가 돼서 만든 배는 지도의 ‘증동호’ 라는 배이다. 이 배는 재래식으로 만든 화물선이다. 증동호는 그 지역에 있던 소나무를 사용하여 만들었는데 당시에 목포의 제재소에서 지도까지 나무를 켜서 가지고 오기에는 운송환경이 매우 열악하였다. 따라서 증동호를 만들었던 뒤쪽의 산에서 나무를 모두 공급하여 만들었다. 증동호를 만든 후에는 경남에 있는 포항 구룡포에서도 찾아와 배를 만들어 달라고 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목선의 호황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그가 군대를 다녀온 후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 목재로 만든 배보다 가볍고 빠른 배들의 등장으로 서서히 목선을 중심으로 한 조선업은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예전에 목재로 만들 때는 목수만 200여 명이 넘었는데, FRP로 바뀌고 요새는 또 알루미늄으로 대

체되어 가지고 이런 것들은 관선, 어업지도 선, 이런 거에 많이 쓰지. 아무래도 목선 아니다 보니까 배 짓는 인구가 많이 줄었어. 그때도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더 없지. 다들 나이 들고, 배우는 사람도 없고.”

배 짓는 법을 배우고 군대에 다녀온 그에게 기술의 발전은 큰 시련을 주었다. 오로지 목재로 만든 배만 생각했던 그이기에 철로 만든 배, FRP로 만든 배의 등장은 큰 충격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었다. 거기에는 그가 배워온 목선에 있었다.

FRP를 사용한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나무로 만든 목형이 필요한데 이러한 목형의 제작이 큰 기회가 되었다. 나무로 만드는 배틀, 그것이 돌파구가 되었다.

이미 알려진 이름을 따라 사방에서 신영수 목수에게 몰려들었다. 제주도에서부터 인천까지 찾아오지 않은 지역이 없었다고 한다.

“목형을 만들어 주는 것은 목포조선소 대부분에 켜 만들었고, 해남, 강진 이런 곳, 제주도, 강원도, 지금 창남조선소 시초에서도 만들었고, 충남서도 만들었고, 전국적으로 다 만들어주고 다녔지.”

이렇게 만들어 준 목형들은 그 곳에서 새로운 배로 태어났고 그 배들을 본 사람들은 또 다시 몰려들었다. 따로 소문을 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목포 신영수에게 주문이 몰려들었다.

3. 대학 교수가 된 신영수

1) 기본 중의 기본 현도법(現圖法)

목형을 전국적으로 만들어 주던 신영수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 준 것은 바로 현도법이었다.

현도법은 그가 목수를 처음 시작할 때 자신과 함께 일을 배우던 친구를 통해 얻게 되었다. 당시만 해도 일본어로 된 책은 대부분 읽을 수가 없었고, 읽더라도 숫자 혹은 그림만 간신히 이해할 정도였



그림 2 목선의 현도법(現圖法)을 알려주는 신영수 목수

다. 현도법에 대한 책을 얻은 그는 밤을 세워가며 책을 읽고 그림을 봤다. 일본어는 알 수 없었지만 그림과 숫자를 통해 그 의미를 파악했다.

“그분이 나이가 들어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 옆집이 내 친구가 살았어. 그 친구는 그분이랑 친했거든. 그래서 내가 가져다 달라고 했어. 아무도 안 쓰니까. 근데 일본말을 몰라서 힘들었는데 책에 숫자가 하나하나 전부다 있어. 매우 기초적인 것부터 다 있더라고.”

책에 적혀져 있는 숫자와 그림을 통해 파악한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본이라는 것을 파악했다. 배를 처음 만들기 시작 할 때 나무를 선정하는 것부터 바닥재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순서까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일찌감치 이러한 점을 파악한 것이 바로 목형의 선두주자가 된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대학 강단에서 현도법을 가르치다

현도법을 통해 여러 가지 목형을 제작하고, 따로 조선소를 운영하면서 알려진 이름은 결국 목포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그 노하우를 알려달라는 강의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다. 중학교를 중퇴한 목수가 강단에까지 서게 된 것이다. 그가 강단에 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목형의 제작이었겠지만 그 중심엔 결국 현도법이 있었다.

강단에 서면서 목포대학교와 함께 한 일은 바로 일본어로 된 현도법을 우리나라의 말로 바꾸는 번역 작업이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현도법에 대한 책은 우리나라는 없으며, 이 책이 아마 유일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은 더 없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림 3 목선의 현도법 (신영수 소장)

“이걸 처음에 보고 나 혼자 알아야 되겠다 했었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쪽 동네에서는 배우거나 알려줄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 지금에서야 목포대학교 혹은 중소기업연구소 등이 있지만 이 책만 있으면 더 쉽게 알려 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 같아서 목포대학교에 맡긴거지.”

그렇게 번역된 현도법은 목포대학교와 여러 곳에 배포되었다. 비로소 최근에 되어서야 비법이 공개된 것이다.

책 속에는 그가 지금까지 지켜온 기본이 담겨 있다.

2002년 월드컵이 열렸던 해에 강사일을 시작했다. 그는 대학교 강사 시절에 번역한 현도법을 기초로 해양공학과 학생들에게 모형 배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그가 강의 때 꼭 빼놓지 않고 말하는 것이 있다.

“내가 그 때 애들한테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지금 기본을 지키면서 만드는 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기본을 지키지 못하고 응용부터 하게 되면 결국 좋은 배를 만들 수 없고 설령 배를 만들더라도 금방 부서져 버린다. 때문에 기본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고. 안 그러면 최고의 배를 만들 수 없다. 그렇게 말했지.”

강의 속 내용도 여전히 그는 기본과 정석을 강조한다.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애들 대학교 가르칠 때도 먼저 생각을 하라고 해. 글 같으면 머하나. 생각이 있어야해. 기본을 배워야 무엇이랄도 알지. 그거 기본도 모르면 써먹겠어? 내가 배를 만들어보겠다 하는 해양공학과니까. 기본을 먼저 생각해야 배를 만들지. 그리고 나서 난 어떤 배를 만들 것인가를 생각해야해.”

자부심이 가득한 그의 강의는 모두 배를 모형으로 만드는 실습으로 진행되었고, 강의는 약 7년 정도 졸업생만 약 300여 명에 달한다. 아직도 그를 찾아오는 제자들이 있다.

“배워가지고 사회에 나간 애들 중에 여기 검사원도 됐더라고. 지그 애인이랑 가끔 차타고 와서 보면 보람을 느끼지. 잊을 수가 없지. 내가 강의하고 나서 그제 가장 기뻐. 가끔 잘되서 잊지 않고 찾아오면.”

4. ‘자랑스러운 전남인’



그림 4 상패-신영수 소장

대학교 강의를 진행하면서 지역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한 신영수 목수는 그 당시 목포소형선박협의회가 구성되면서 회장직을 맡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었다. 현재 대불 클러스터의 위치 선정과 대한조선소 위치 선정 등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 활동을 지속했다. 또한 전라남도에서 조선업과 관련하여 전남전략산업기획단으로도 활동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또한 적지 않아 2009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된 ‘자랑스러운 전남인’ 1호로 상을 받기도 했다.

“내가 대한조선 저기 땅을 정해줬어. 추천같은 것들 해줬어. 지역적으로 뿔이 많지 않고, 경사가 깊고, 기반이 모래하고 자갈하고 뿔이 되어있어서 매우 단단한 지반이었는데, 거기를 알려줬지. 나승수 교수한테. 물론 선정은 거기에서 했는데 추천은 해줬지”

5. 새로운 꿈

최고의 목수로서 일생을 보내온 그에게도 최근 새로운 꿈이 생겼다. 바로 자신의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그곳에서 후진양성에 이르는 것이다.

“선배들은 다 가져가버리고 남겨둔 게 없잖아. 뭐가 남기고 가야하지 않느냐. 가지고 가면 머하겠어. 예전엔 기술전수를 정상적으로 해준 곳이 없었어. 다 어깨너머로 했지. 우리들은 운 좋게 정통으로 선배를 잘 만나서 도면도 받고, 그랬지. 내가 기술전수는 대학교에도 하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여기가 내 땅이라고 한다면. 뭐 지금은 내 땅도 없고 돈도 없지만. 내 땅이라면 한쪽에 애들을 가르치고 싶어. 애들이 아니라 이 기술을 필요로 해서 앞으로 생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아무래도 이 일은 먼지도 많이 나오니 잘 안 할테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한쪽에 현장 실습할 수 있게 놔두고, 이론은 현도법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알려주고 싶어.”

“오랫동안 일을 하면 거기에 애착이 생겨. 배는 다른 거하고 달라서. 배를 짓는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하나의 결정체를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건축은 아니지만 선박은 심장

이라고 하는 엔진까지 넣어서 속력, 안전까지 다 감응할 수 있어야 해. 100%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려면 애착이 있어야하고, 좋은 배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의무가 있어야해.

우리는 일을 하니까 먹고는 사는데, 그러나 좋은 배를 어떻게 하면 만들까? 선형연구개발부터 어민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간파를 해가지고 또 거기에 맞춰서 개발을 하지. 그래가지고 그게 좋다고 하면 엄청나게 들어오는거야 주문이. 좋았을 때 쓰기 좋고, 속력 잘나오고 복원력 좋고. 말하자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배를 좋아하게 되고 그걸 만들게 되고 더 좋은 걸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야.”

정태진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연구원

제5절 한국 최초의 육지면 재배지 고하도

1. 목포 고하도의 육지면 시험재배

한국에서의 육지면재배는 1904년에 목포주재 일본영사 와카마쓰 도사부로[若松兎三郎]가 목포의 고하도에서 시험 재배한 것이 효시이다. 그 이전에는 아시아면, 즉 재래면이 널리 재배되고 있었다. 와카마쓰 영사는 목포영사관에 부임하자마자 목포 지방의 면화재배 상황에 관해서 조사했다. 목포 지방은 오래 전부터 재래면을 재배하고 있었다.

사코 농무국장이 목포에 도착하자 와카마쓰 영사는 사코 국장과 함께 목포 맞은편 고하도의 면작지를 시찰했다. 두 사람은 전라남도의 기후 풍토가 육지면 재배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정계, 관계, 방적업체가 면작 장려에 나섰다. 그리하여 미국 육지면이 한반도 전역에 퍼지는 ‘목화 혁명’이 불붙었다.

와카마쓰는 목포 지방의 기후와 풍토가 중국의 목화 산지로 유명한 사스 지방과 유사한 점에 주목했다. 목포에서 육지면 재배에 성공할 거라고 확신한 그는 목포 앞바다의 고하도에 육지면 씨를 뿌렸다. 6개월 정도 자란 육지면은 성공리에 수확기에 접어들었다.

처음 재배에 성공한 현장인 고하도에 세운 육지면 발상비가 현존하고 있다. 비의 앞면에는 ‘조선육지면발상지 지(朝鮮陸地綿發祥之地)’라 새겨져 있다. 비석의 뒷면에 ‘명치 37년(1904)에 목포주재 대일본 제국 영사 와카마쓰 도사부로[若松兎三郎] 고하도에서 처음으로 육지면 재배를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비의 규모는 높이 187cm, 너비 62cm, 두께 33cm로 이 비석은 해방 이후 쓰러진 채 발두렁에 방치되어 오다가 2008년 목포시에서



그림 1 목화꽃



그림 2 고하도가육지면 발상지임을 알리는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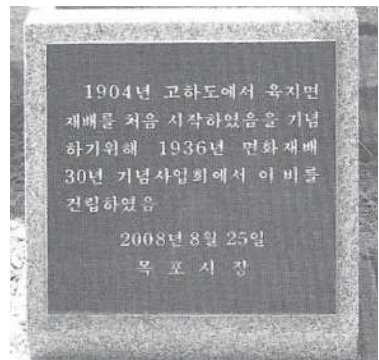


그림 3 목포시가 2008년 비석을 다시 세우고, 주변에 관광객을 위한 목화밭을 일군 뒤 그 동안의 경과를 적은 표지문

문화적 가치를 인정해 제자리에 초석을 놓아 세웠다. 2013년에는 비석 주변에 기념으로 목화밭을 조성하였다. 목포시는 이 비석과 목화밭을 관광코스로 지정했다.

2. 육지면 시험재배 성공, 도쿄를 움직이다

와카마쓰 영사는 고하도에서 육지면 시험재배가 성공하자 1904년 11월 24일 고무라 외무장관에게 미국종 면화 시험재배 보고를 보냈다.

목포에서 시험재배한 면이 미국면 이상의 결과가 나타난 것은 전적으로 토질과 기후가 적합한 덕분으로, 향후 기대할 만합니다. 이것으로 농가가 직접 재배했을 때 평균 수확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지만, 결과가 매우 양호합니다.



그림 4 외교관 시절의 와카마쓰

목포에서 보고한 내용이 도쿄에 전달되자 농상무성을 비롯한 관계 관청과 방적업체는 물론 정계 유력자들도 환영일색이었다. 그들은 한국에서 육지면을 재배하면 한국의 산업 증진에 기여할 뿐 아니라 미국이나 인도에서 수입하던 방적원료를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에서 일부 충당하는 대신 한국에 필요한 면사나 면포 등을 일본이 공급하면 면화산업이 선순환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판단했다.

3. 재배협회가 설립되어 대량보급으로

목포 고하도에서 육지면 시험 재배가 성공했다는 소식은 방적원료 생산지를 찾느라 고생한 일본 정부와 면방적업체에 무척 흥미로운 뉴스였다. 농상무성에서 나온 사코 농무국장, 모리타 상공국장, 쓰키다 기사가 한국의 면화 재배 현황, 특히 목포 고하도에서 육지면을 재배해 본 성과를 보고했다. 그들은 면화재배협회 창립에 합의하고, 설립 취지문 작성, 방법, 절차 등을 협의했다. 또 협회를 조직한 뒤 한국에서 육지면 재배지를 넓혀갈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기후와 풍토가 육지면에 적합한 전라남도 지역을 주 재배지로 삼기로 했다.

1905년 7월 25일, 도쿄의 제국호텔에서 면화재배협회 창립총회가 열렸다. 이 총회에는 귀족원 의원, 중의원 의원, 농상무성 당국자, 방적연합회 임원, 사업가 등 수십 명이 참석하였다. 일본면화재배 협회는 한국에서 개량면화를 확대 생산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창립되었다.

스키다 기사가 쓴 육지면 시험재배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도 있다.

1. 육지면은 한국 풍토에 적당하다.
2. 육지면은 한국 재래면종에 비해 수확량이 현저히 많다.
3. 육지면은 재래면과 같은 방법으로 경작을 해도 수확량은 훨씬 많다.
4. 육지면은 비료가 그다지 많이 들지 않는다.
5. 육지면은 재래면보다 조면율이 훨씬 높고 섬유가 길어 경제성도 높다.

표 1

종별	조면율(%)	섬유의 길이(cm)	섬유의 폭(cm)
육지면	3.26	3.35	0.02302
재래면	2.34	3.04	0.02343

*출처: 김충식, 『목화꽃과 그 일본인 -외교관 와카마쓰의 한국 26년-』, 메디치미디어, 2015, 120쪽.

목포 시험재배로 얻은 실면 조사 결과는 <표 1>과 같다. 육지면은 재래면보다 조면율에서 탁월하고 섬유 길이도 더 길었다. 육지면의 생산성이 우월하다는 증거이다.

재배협회의 주선으로 육지면이 전라남도 지역에서 대대적으로 재배되어 그 성적이 양호하다는 것이 판명되었고, 면작은 유망산업으로 발전할 것이 확실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다. 재배협회는 재배지를 더 넓혀 많은 한국 농민에게 위탁 재배할 계획을 세웠다.

4. 권업모범장과 시험재배지

1906년 4월, 개량 목화를 재배하기 위한 통감부 권업모범장(농사시험장)이 경기도 수원에 설치되었고 6월에는 목포출장소가 개설되었다. 육지면 재배 장려 사업을 통감부 권업모범장이 주도하면서 시험재배지를 목포 시외 용당리(지금의 목포시청 자리)로 정했다. 이에 따라 목화 재배 사업은 모두 이 목포출장소가 담당하게 되었다.

목포출장소의 초기사업은 재배면적의 확대와 적극적인 장려를 위해 채종포를 경영하였고 육지면의 적응성 검증, 그리고 표준재배법을 확립하는 데 힘썼다. 당초 권업모범장 출장소는 목포 한 군데 뿐이었는데 1908년 1월에 전라북도 군산과 평안남도 평양에도 생겼다. 군산 책임자로는 미우라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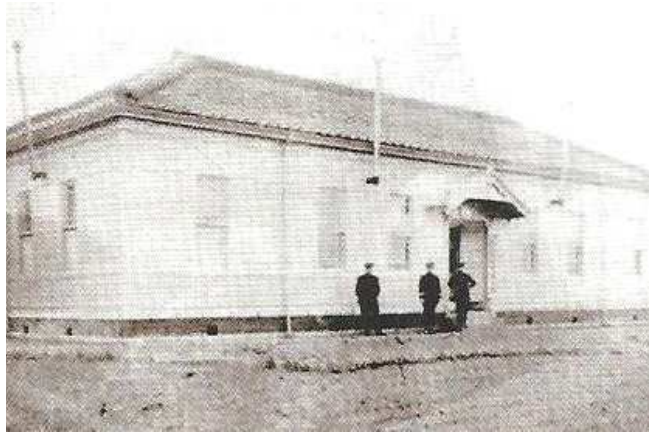


그림 5 권업모범장 목포출장소(1915)

오지로 기사, 평양 책임자로는 하나이 도이치로 기사가 임명됐다. 다음 해 4월에는 대구에도 출장소가 설치되어 헤라이 히데지로 기사가 부임했다. 이렇게 한국 주요 지역에 권업모범장 사업소가 설치되었다.

한일병합이 강행된 후인 1910년 9월 30일에는 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 관제가 공포되었다. 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은 수원에 본장을 두고 대구, 평양, 용산, 목포 등에 지장을 두어 저마다 사무를 분장했다. 면작 장려는 모두 그 기로를 면작지장의 시험 조사에 두었다. 1917년 6월에는 총독부령에 따라 권업모범장 목포면작지장으로 개칭되었다. 1929년 9월 권업모범장이라는 명칭이 폐지되면서 조선총독부 농사시험장이 되어 목포면작지장은 농사시험장 소속으로 바뀌었다. 와카마쓰의 창의력과 열정으로 한반도에 마침내 육지면이 뿌리내리게 된 것이다.

5. 육지면 보급과 면 산업의 발달

초대 조선 총독으로 부임한 테라우치는 면작 장려에 관한 훈령을 발표하면서 ‘육지면 장려 방침’으로 다섯 가지 항목을 제시했다.

1. 육지면 재배 장려
2. 육지면 종자 보존
3. 육지면 재배 지도
4. 육지면 재배지 확장
5. 재래면 재배 개량

육지면 재배 면적이 확장되면서 농가 소득이 늘어나자 면작 농가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전국의 육지면 경작 농가는 1912년에 77,793가구였으나 1935년에는 860,261가구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재래면 경작 농가 291,743가구까지 포함하면 면작 농가는 총 1,152,014가구에 이르렀다. 당시 밭 경작 농가 2,735,604가구 가운데 42%가 면작 농가였다.

특히 전라남도는 육지면 발상지인 목포를 포함해 밭 경작면적의 25.48%가 목화를 재배했고, 농업 가구 가운데 64.46%가 면작을 했다. 이 시기에는 모두 육지면만 재배했다. 면작지의 규모와 면작 농가의 수도 1942년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면 관련 산업도 발달했다. 생산량이 늘고 상품 가치가 인식되자 면작은 자급자족하는 수준에서 농가의 유력한 수입원이 되었다. 면작 농가가 늘어나자 생산량도 급속히 증대하는 선순환궤도에 진입했다.

육지면 발상지인 전라남도 지방은 기후와 풍토 조건이 육지면 재배에 꼭 맞는 ‘천혜의 땅’이었으므로 한반도 면작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목포항은 면화 집산지로 수출항 역할을 했으며, 이러한 입지 조건 아래에서 면 관련 산업도 목포를 중심으로 발전했다.

1913년부터 1919년까지 면화 가공과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면업회사 여섯 개가 전국 주요 도시에 설립되었다. 조선면화 주식회사(목포), 조선제면 주식회사(서울), 조선방적 주식회사(부산), 남북면업 주식회사(목포), 서양조면 주식회사(진남포), 경성방적 주식회사(서울)가 그것이다. 이들 회사가 각 도에 분산되어 조면공장, 방적공장 등을 설립하면서 면 산업을 주도했다.

1924년에는 전국 각지에 조면공장이 50여 군데 설립되었다. 그 중 28개소가 목포에 설립되었고, 그 주변인 나주에 3개소, 무안에 1개소, 함평에 1개소 등이 집중되었다. 목포의 11개소를 비롯해 전국 17개소는 한국인이 경영했다.

결국 목포는 면화를 수탈해 가는 대표적인 항구로 이용되면서 큰 발전을 이룩하게 된다. 일제 강점기 목포항을 담은 사진에는 면화가 항구 주변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장면들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 목포는 일제 강점기 ‘1흑 3백’의 고장으로 알려졌는데, ‘1흑 3백’이란 김·쌀·소금·면화의 물동량이 많았음을 뜻한다. 특히, 면화의 물동량이 워낙 많아서 목포의 지명이 면화의 포구라는 의미에서 유래되었다는 왜곡된 이야기까지 생겨날 정도였다.

병합 직후 총독부 산하 목포면작지장(후일 농사시험장)이 설치 돼 본격적인 면화 재배가 시작됐다. 목포농사시험장은 전국 각지에 설치된 면종표를 관찰했다. 이후 총독부의 면화장려사업은 함경북도를 제외한 한반도 전 지역에서 추진됐다.

1939년 전국 면화재배 면적 250,186정보(2,511km²) 중 약 80%가 남한 쪽 7개도에 몰려 있을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7개도의 밭 경작지 89만 정보(8,826km²) 중 22%가 육지면 경작지였으니 전국에서 면화 재배가 이뤄진 셈이다. 이같이 면화 재배가 왕성했으며 농촌 경제 향상에도 사실상 크게 기여했다.



그림 6 목포의 조면 공장지대(1917)

면화 재배뿐 아니라 관련 산업도 발달했다. 당시 목포에는 조면공장, 제유공장, 직포공장, 제면공장 등 31개 공장이 가동됐고 면화공업이 발달했으며 이들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호남평야를 중심으로 수집된 쌀, 다도해 섬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된 소금과 더불어 이곳 목포에서 일본으로 수출돼 그때부터 구백항이라고 불리었다.

일제 강점기였지만 사실상 일본인의 연구조사 덕분에 한반도 남부지역이 육지면재배에 가장 적합한 ‘천혜의 면작지’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목포농사시험장(현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센터)에는 당시의 면작관련 자료가 남아있다. 이러한 자료를 검증하고 연구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면제품은 최근 들어 인기가 높다. 고급의류품과 특히 피부미용 등 건강에 좋고 약용화장품, 식품, 관상용 등의 가치가 크다. 향후 이런 자료를 토대로 농촌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적극 검토해 볼 시점이다.

6. 목포와 목화

목포가 목화 반출항구로서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1901년 가을, 목포의 한 지주가 진도군과 해남군에서 소작료로 받은 목화 400포대를 마침 목포에 와 있던 일본상인에게 팔았고, 이 상인이 이것을 다시 오사카로 가져가 되팔면서 시작됐다. 이 해에 목포항에서 일본으로 팔려간 목화는 모



그림 7 중앙농업기술원 목포면작지원 청사와 시험포장(1949)



그림 8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두 50여 t의 실면(實綿)이었다.

초창기에는 가공시설이 없어 목포항에서 반출되는 목화는 모두 씨와 솜이 함께 든 실면이었다. 그 뒤에 1903년부터 조면공장이 생겨나면서 솜에서 씨를 따로 제거한 상태인 조면(繰綿)으로 반출하기 시작했고 1915년부터는 오로지 조면 상태로만 반출됐다.

일제 강점기에 목포항은 목화의 최대 반출항이었다. 1900년대에 한국 내 목화반출량의 거의 전부, 1910년에는 80%를 담당했고, 1901년 목포항을 거쳐 빠져나간 목화는 600여 t이었는데 1928년에는 이미 5,400여 t이나 됐다. 1920년대 국내에서 빠져나간 목화의 70~80%가 목포항을 거쳐 갔다. 이후 목화의 반출항은 부산과 마산, 군산, 진남포 등으로 다변화되면서 목포항의 비중은 조금 줄었다. 하지만 1930년대 중반까지도 반출량의 50% 정도가 목포항을 통해 나갔다. 1935년에 목포항에서 나간 목화는 63,000여 t(조면 기준)이었다. 오늘날 티셔츠로 환산하자면 3억 5천만 장을 만들 수 있는 양이었으니 당시 목포항을 거쳐 나간 목화의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가늠할 수 있다. 대략 1930년대 이후 광복 때까지 목포항을 통해 나간 목화는 국내 전체 반출량의 50% 가량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흥미롭게도 1930년대 중반 이후로 목포항을 통해 인도 목화도 다량 반입되기도 했다. 이는 그 무렵부터 일본 굴지의 면방기업인 중연방직이 광주에 새로 설립한 면직물공장에 필요한 원료로서 인도 목화가 수입된 까닭이었다. 하지만 당시 목화 반입 항으로서 목포의 역할은 인천이나 부산과 비교해 그리 크지 않았다. 당시 인천은 일본기업인 동양방직의 공장에, 부산은 미쓰이[三井] 계열인 조선방직의 공장에 각각 공급할 외국산 목화를 하역하는 항구 기능을 했다.

광복 후 목화 반출이 전면 중단되면서 목화와 관련한 목포항의 비중은 크게 줄어들었다. 더욱이 1960년대부터 미국의 이른바 PL 480 목화, 즉 무상 원조로 들어온 미국산 목화가 인천과 부산항으로 수입되면서 목포는 목화 무역항구라는 기능을 아예 잃게 됐다.

7. 1945년 이후 목포 시험장에서의 신품종 육성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새로운 장려품종이 보급되었는데 이후 교배 육종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 목포 3호

보다 더 우량한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인공교잡에 의하여 육성된 품종이 ‘목포 3호’이다. 1930년에 ‘Half and Half’ × ‘113-4호’를 인공 교배하여 계통 육성 중 1934년에 F₄ 계통 중의 ‘K 2호’에 다시 ‘I 1호’를 교배하여 각종 검정단계를 거친 결과, 남부지방에 긴히 보급되고 있던 ‘380호’에 비하여 개화기가 빠른 조숙성이고 섬유장도 긴 편이고 특히 조면비율이 39.3%로 월등히 높아 조면수량이 12% 증수인 다수성 품종으로 인정되어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새로운 장려품종으로 확대 보급되었다.

2) 목포 4호

대삭, 고조면, 다수성인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기 위하여 1940년에 ‘Sun Shine’을 모본으로, ‘목포 3호’를 부분으로 인공 교배하여 계통육성과 특성 및 수량성을 검정하였던바 성숙기와 다른 특성들은 ‘목포 3호’와 비슷하나 1삭 실면중이 무겁고 조면 수량이 21% 증수되는 우량품종으로 인정되어 1953년부터 남부지방의 새로운 장려품종으로 보급되었다.

3) 목포 5호

숙기가 빠르고 조면비율이 높으며 다수성인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숙·고조면성 ‘I 28호’를 모본으로 하고 같은 계열이면서 다수성인 ‘I 10호’를 부분으로 하여 1934년에 인공 교배하여 계통선발과 특성 및 수량성을 검정하였던바 ‘목포 4호’에 비하여 개서기(開絮期)가 근 1주일 빠르고 조면비율이 2% 정도 높고 조면수량도 약간 증수되는 우량품종으로 인정되어 기상조건이 취약한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의 내륙지방의 장려품종으로 보급하게 되었다.

4) 목포 6호

섬유의 특성이 좋고 다수성인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기 위하여 1954년에 삭(다래)이 크고 장섬유성인 새로운 도입 품종 ‘Coker100w’를 모본으로 하고 조숙·고조면성 ‘목포 4호’를 부분으로 인공 교배하여 1961년에 육성목표에 가까운 고정계통을 선발하여 특성 및 수량성을 검정한 결과 ‘목포 5호’에 비하여 숙기는 약간 늦으나 1삭 실면중이 5.2g의 대삭성이고 섬유장이 28mm에 가까운 장섬유성이며 조면비율도 40%에 가까운 고조면성이며 조면 수량도 16% 증수되는 대삭·장섬유·다수성의 새로운 우량품종을 1969년에 육성하여 전라남도, 경상남도의 남부지방 장려 품종으로 보급하였다.

5) 목포 7호

국산면의 일반적 특성인 단섬유성을 개량하기 위하여 1965년에 숙기가 빠르고 수량이 많은 ‘목포 5호’를 모본, 삭(다래)이 크고 섬유장이 긴 ‘Arizona’를 부분으로 인공 교배하고 그 후 1968년까지 3년간 계속 여교잡(戾交雜)하여 1973년에 육성 목표에 가까운 고정계통을 선발하여 특성 및 수량성을 검정하였던바 ‘목포 6호’에 비하여 숙기가 4일쯤 빠르고 섬유장이 29mm에 가깝고 조면비율이 38%로 높으며 조면 수량이 15% 증수되는 우량 품종으로 인정되어 1979년부터 남부 지방의 장려품종으로 보급되었다.

6) 목포 8호

국내에서의 목화재배가 쇠퇴하고 섬유의 탄력성과 흡수성이 약한 도입원면에 의하여 모든 수요가 충족되고 있는 실정에서 솜(이불솜, 약솜)용으로는 그 용도가치가 낮으므로 제면용에 적합한 조숙·다수·고 탄력성 우량 품종을 육성하고자 1990년에 과거의 목화 주산지였던 목포 및 무안지방의 재래 품종을 수집하여 1991~1992년에 순계분리를 하여 유망계통에 대한 특성 및 수량성을 검정하였던바 ‘목포 7호’에 비하여 경장이 짧고 섬유장이 짧으며 개서(開絮) 기간이 짧아 적채면 수량비율이 월등히 높고 조면 수량이 21% 증수되는 우량 품종을 육성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농가실증시험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목포 시험장에서는 이외에도 중간 잡종 육성과 재배법 개선을 위해 목화 비닐 피복 재배의 파종시기, 적정재식밀도, 적정 시비량, 기상조건 등의 연구도 계속하고 있다.

표 2 목포 시험장의 주요 육성 품종

육성 연도	육성 방법	품종명	주요 특성
1909	도입육종	King's improved	조숙
1923	계통분리	113의 4호	조숙, 다수
1926	계통분리	380호	고조면율, 다수
1945	교배육종	목포 3호	고조면율, 다수
1953	교배육종	목포 4호	대식, 고조면율, 다수
1953	교배육종	목포 5호	조숙, 고조면율, 다수
1969	교배육종	목포 6호	조숙, 장섬유, 다수
1979	교배육종	목포 7호	조숙, 장섬유, 다수
1996	순계분리	목포 8호	조숙, 고탄력성, 다수

*출처: 목포대 임해지역개발연구소, 『육지면 재배의 역사와 면화의 신 성장산업 가능성』(한일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13, 21쪽.

8. 목화 재배지의 기상조건

목화 재배에는 180~200일 이상의 무상기간이 필요한데 한국에서는 서해안과 남부해안 지방의 무상기간은 200일 이상이지만 중부 이남의 평야지대 대부분은 180~200일이고, 중북부 및 산간 고랭지대는 대체로 180일 미만이다. 따라서 과거 한국에서 재배했던 재래면(아시아면)은 생육기간이 육지면보다 짧아 한반도 전 지역에서 재배할 수 있었지만 육지면에 비해 섬유길이가 짧고 섬유수량이 적은 점이 단점이었다. 따라서 육지면 재배는 남해안 지방이 기상조건으로서는 알맞다. 그렇지만 중부 이북 또는 북한 지역에서도 품종개량으로 인해 육지면 재배가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앞으로 남북경협차원에서 또는 통일을 대비해서 면화의 산업화는 연구해 볼 만한 과제이다.

〈표 3〉은 5년간의 5~10월의 목포 지방의 기온, 강수량, 일조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이 기간은 목화종자의 파종으로부터 수확할 때까지의 기간이다. 육지면의 파종기인 5월에는 약간 비가 내리는 것이 좋다. 생육기인 6월에서 8월 사이에는 상당한 강수량이 필요하다. 그러나 성숙기인 9월 하순 이후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부적절하다. 기온은 높은 기온의 유지가 좋다. 기후의 변동에 따라서 다소 변화는 있지만 현재도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최근 목포 지방의 기온·강수량 일조시간(2008~2012년)

	연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5~10월
기온 (°C)	2008	17.2	20.7	25.9	25.5	23.1	17.9	21.7
	2009	17.6	21.4	23.6	24.9	21.9	17.2	21.1
	2010	16.5	21.4	24.8	27.1	23.0	15.6	21.4
	2011	17.0	21.0	25.3	24.6	21.7	15.2	20.8
	2012	17.6	21.9	25.1	27.0	20.9	16.0	21.4
강수량	2008	150.5	294.8	112.2	95.6	30.4	19.1	702.6
	2009	97.2	122.8	465.8	74.0	46.1	54.0	859.9

*출처: 목포대 임해지역개발연구소, 『육지면 재배의 역사와 면화의 신 성장산업 가능성』(한일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13, 18쪽.

9. 목화의 다양한 용도

목화를 부위별로 보면 종자, 열매, 뿌리, 줄기, 잎, 꽃 등으로 나뉜다. 목화의 주성분은 주로 방직용 섬유로 사용되지만 그 외에도 종이용 섬유 또는 탈지면, 베개용, 방석용, 타올 등 특수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목화씨의 면실유는 식용유, 버터, 마가린 등에 사용되고 면실박은 가축의 사료 및 비료로 사용되며 목화줄기는 제지용으로 사용된다. 목화는 두 번 꽃이 핀다고 한다. 처음에는 꽃으로 피고 다음에는 하얀 솜으로 핀다. 목화꽃은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꽃밭에서는 꽃축제와 꽃놀이도 할 수 있다. 또한 뿌리 열매 씨알은 한약의 귀중한 약재이다.

목화는 화장품 및 건강식품으로도 인기가 좋으며 목화의 다래를 따먹었던 세대들은 그 달콤한 맛에 향수를 느낀다. 특히 한의학분야에서는 목화추출물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항암제로서의 효능이 인정받아 수건의 특허도 나와 있다. 더욱이 목화재배는 다른 농산물과 달리 농약과 비료를 적게 사용하기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로 자원 절약 및 에너지 절약형 섬유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목화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으며 특히 목화 부위 중에는 항암제로써의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어 더욱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9 목화솜

10. 신 성장산업 육성을 위하여

한국은 원래 농업 국가였지만 공업위주로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농촌 인구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대도시 또는 신생산업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현재 인구의 절반가량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수도권에 대기업이 몰리고 비즈니스가 활발해지자 자연현상으로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하게 된 것이다. 수도권면적은 전체 면적의 12% 밖에 안 되는데 수도권에 절반의 인구가 집중해 있다는 것은 기현상이다. 그 결과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격차, 지역 간의 격차, 빈부의 격차가 격심해진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아무리 외치고 정책적으로 시정하려고 해도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 간의 대립은 필연적으로 있기 마련이다. 방법은 찾으면 있다. 농촌을 살리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는 신산업의 창출이다.

새로운 산업으로써의 가치가 있고 비즈니스의 매력에 있다면 기업이 모이게 된다. 또한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 자연히 노동력도 모인다.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농촌에서 재배했던 목화를 다시 재배해서 관련 산업을 일으켜보자는 것이다. 면화산업이 미래지향적인 신 성장산업으로 육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과거의 경험을 검증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가능성을 확인한 후 다각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뒷받침이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지역적인 역사적 배경을 가진 전라남도도와 같은 지방행정기관이 추진기관이 되어 중앙정부와 협의하면서 연구기관 및 민간 기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목포시험장과 같은 연구센터를 설치해서 면화 재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재배



그림 10 베짜는 모습

방법과 면종자 보급 등을 담당하게 한다. 많은 연구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하에 수행해야 하고, 재배에 이르기까지의 인프라 정비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재배 이후의 생산 과정 및 상품화 과정은 재배농가와 관련 산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 중심으로 추진한다.

전남 지역은 면화재배에 적합한 기후 풍토를 가지고 있으며 재배농지로서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다가 세계적인 상품을 개발하여 이 지역에 생산라인을 만들면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중국 또는 동남아시아에 수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비즈니스의 가능성이 있다면 국내자본 뿐만 아니라 일본, 자본 중국 자본을 비롯해서 해외 자본의 유치도 가능하다. 새로운 산업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연구발전에 더욱 힘써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현재의 목포시시험장은 무안군 청계면에 위치하며 목화, 모시, 대마 등 우리 국민의 생활에 큰 도움을 주었던 섬유작물연구에 많은 업적을 낸 연구기관으로 섬유작물 외에도 유지작물(유채, 참깨 등), 전작물(고구마, 콩 등) 및 원예작물(양파, 마늘, 대파 등)의 시험 연구를 통하여 국민들의 식생활개선에에도 크게 기여해 온 특색 있는 농업연구기관으로 각광받고 있다.

광주 전남 최초의 육지면 재배 시험지는 1906년 권업모범장 목포출장소의 창설과 함께 무안군 이로면 용당리에 설치됐다. 이곳은 또한 한국 최초로 육지면 연구가 시작된 곳이기도 하다. 이를 알리는 표석이 현재 목포시청 구내에 있다. 이후 오랫동안 목화 연구의 산실로 운영되다 1980년 무안군 청계면 청천리로 이설됐다.

우리의 생활 속에 큰 구실을 했던 목화는 1963년부터 유상 원조 형태로 미국 목화가 대량 반입되었고 여기에 캐시미어, 나일론 등 합성섬유가 늘면서 국내의 목화 재배가 현저히 위축되어 1988년부터는 우리나라 농업 통계에 목화 항목이 사라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 여기저기에서 다양한 면제품과 식품, 공업원료 등으로 목화를 만나고 있으므로 목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1. 육지면 발상지, 고하도 목화섬 여행

고하도는 길게 늘어선 모양으로 목포 앞바다를 감싸 안은 천연 방파제로 웅기종기 모여 있는 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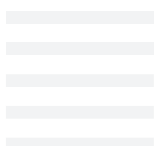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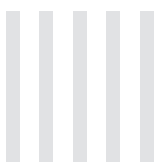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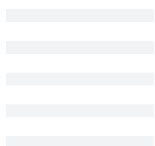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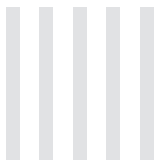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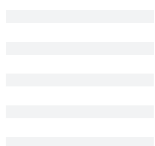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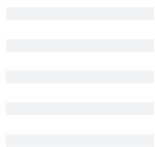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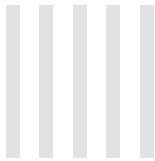
그림 11 육지면 연구 발상지 표석

과 목포대교와 함께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는 보배와 같은 섬이다. 역사적인 장소로도 가치가 높아 정유재란 때 이순신 장군이 108일 동안 머무르며 전력을 재정비했으며,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방공호 2개소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 육지 면화의 시험재배에 성공한 곳이기도 하다. 목포시는 자연과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 고하도를 관광명소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특히 고하도는 목포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해상케이블카의 주요 거점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상케이블카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당초 남향에 건립할 예정이었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위치가 고하도로 변경되었으며 2018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목포시는 고하도에 목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육지면 발상지, 고하도 목화섬 여행’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로부터 창조지역사업에 선정돼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목화체험장을 운영하고, 목화 관련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는 등 목화 활용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한 빼어난 경관을 이용한 높이 20m의 전망대를 조성할 계획이다.⁰¹⁾

권 호 | 목포장학재단 이사

01) 본고를 작성하는 데 여러분의 도움을 받았다. 나카노 신이치로(한국명 안동필, 대동문화대학 명예교수, 목포 출신), 이경보(농촌진흥청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소장), 배상목(농촌진흥청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유전자원실, 농촌진흥청 50년 근무), 이치홍(목포시청 기획예산과장, 2016년), 박호빈(목포시청 자치행정과 서무 담당, 2016년)



제1절 보해 이야기

권 효 | 목포장학재단 이사

제2절 행남자기와 함께한 내 청춘

김경완 | 신안문화원 사무국장

제3절 목포 육상운수업의 역사

이경아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연구위원

제4절 인근 섬주민의 발이 되어 준 목포 해상교통의 길잡이

이경아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연구위원

제2장 목포를 대표하는 기업

제1절 보해 이야기

보해양조는 1950년 임광행(1919~2002) 회장이 설립한 주류 전문회사로 목포를 대표하는 기업이다. 목포시 호남로 68번길 36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주, 막걸리, 과실주, 와인 외에도 김삿갓 소주를 유행시키는 등 다양한 상품 개발로 자리 잡았다.

1. 임광행 회장의 출생과 성장

창업자 임광행은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당호리 452번지에서 1919년 2월 15일에 본관이 나주인 부친 임병래(林炳來)와 모친 이함평(李咸平) 사이에서 태어났다. 임광행은 가난하고 어려운 생활이었지만 유교적 가풍으로 대범하게 자식을 기르고자 했던 아버지와 민주적이고 가난한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다. 특히 부친은 어려운 때였지만 배우는 것을 중시하여 임광행을 일로보통학교에 입학시켰다. 1932년에 일로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고향을 떠나 목포로 유학했다. 1935년부터 2년간 목포상업전수학교에서 수학했다. 그 후 야마모토상사에 취업하였고, 1950년에 광림주조장을 창업하였다. 1956년 광림주조장을 법인으로 변경하고, 대안동 15번지에 지금의 보해양조 본사를 세웠다. 그리고 ‘바다처럼 넓고



그림 1 창업자 임광행



그림 2 목포 시민과 함께 한 보해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의미에서 회사명을 ‘보해’로 바꾸었다.

2. 목포 지역 양조업의 역사

목포는 양조의 원료 공급은 물론이고 기후, 수질 등이 적합하여 일찍부터 일본인들에 의해 양조업이 발전했다.

일제하의 양조업은 일본인에 의해 소주와 청주, 맥주, 기타 고급주 등이 생산되어 독점 경영되었고, 한국인에 대해 특수 주류의 제조 면허 제약과 더불어 생산을 통제했다.

목포에서 일본주 양조의 원조는 본정(本町)의 석산(石山)양조장으로 알려져 있다. 유달초등학교 앞에 수질이 뛰어난 우물을 발견하고 공동으로 양조장을 설립했다. 1922년 일본인들에 의해 설립된 전남소주 주식회사가 있었고 1923년 일본인 가와가미 양조장에서 생산된 청주가 있었다. 법인체로는 1929년 남교동 소재의 목포양조 주식회사가 있었다.

일본이 패망한 후 일본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갔고, 그들의 재산은 미군정의 귀속재산에 포함되었다. 마침내 1952년 11월 11일 임광행 사장을 비롯한 목포 지역의 주류 유통업자들은 공동으로 가와가미 공장을 인수하고 새로운 주조업체인 ‘유천(儒泉)양조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이 회사를 모체로 1956년 보해양조가 거듭나게 된다.

3. 보해양조 주식회사로 사명 변경

1957년 7월 1일 보해양조를 인수한 임광행은 인화단결(人和團結), 책임완수(責任完遂), 업적양양(業績昂揚)을 사훈으로 제정하여 기업 내의 기강을 확립하고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펼치도록 임직원 및 생산직 사원을 독려했다. 이후 사훈은 보해양조의 기업 문화를 형성하는 근간이 되었다.

보해양조는 1963년 8월 22일부터 증류식 소주공장을 주정공장으로 전환해 그 명분으로 주정 제조 면허를 취득하고 기존 공장에 증류식 시설을 도입하여 병설(주정 제조업) 운영하였다. 공장이 고구마의 원산지인 호남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점 때문에 운송비 절감과 계절적으로 생산되는 생고구마를 원료로 사용, 주정을 생산함으로써 인한 농산물 가공의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었다. 또 계절적

으로 생고구마 가격의 하락을 다소 막아
농가 수입의 증대를 꾀하여 지역사회 발
전에 기여하는 효과도 가져 왔다.

4. 경영 악화 그리고 법정 관리

청주 공장의 확장을 위한 시설 개선 등
으로 인한 자금의 고정(固定)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1966년 보해양조에서 생산된

청주가 변질과 부패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앞친 데 덮친 격으로 1967년에 발생한 호남지방의
극심한 가뭄 때문에 제품 판매와 외상 대금의 회수가 부진하여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또한 업자 간의 과다한 경쟁, 무모한 광고 선전 등으로 인해 좌초된 보해양조는 1968년 1월 1일부
터 1976년까지 법정 관리 정리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경영 정상화를 이루게 되었다.

보해양조가 경영 정상화를 이루는데 있어 목포 시민을 중심으로 한 전남 도민의 뜨거운 성원과 애
정은 남달라 보해소주 팔아주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그 결과 1973년 임광행이 대표이
사에 다시 취임하여 1986년 까지 경영 일선에서 활동하였다.



그림 3 저장고가 즐비하게 보이는 1970년대 초의 보해양조

5. 창업 2세대 경영체제 출범

1986년 3월 임건우 사장이 취임함으로써 보해
는 창업 2세대에 의한 경영체제가 확립되었다.

보해는 주류업계에서 비교적 폴리에스터 보틀
(PET병)에 술을 담아 시판한 것이 늦은 편인데 그
럴만한 속사정이 있었다. 오직 맛있고 품질 좋은
술로 승부하겠다는 임광행 회장의 소신 때문이었
다. 그는 플라스틱 병에 술을 담아두면 술맛이 없
어진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림 4 심볼마크

그러나 경영을 책임진 임건우 사장은 이미 시
장에서 보편화되어 있고, 제품 단가를 낮출 수 있는 PET병 판매를 안 할 수 없는 처지였다. 그는 임
광행 회장을 설득하여 늦게나마 PET병 소주 시판에 동참할 수 있었다.



그림 5 보해 골드

2011년 임건우 회장이 보해저축은행 파동으로 구속되면서 동생인 임성우 창해에탄을 회장이 보해양조를 인수하였다. 이를 계기로 보해양조는 부채비율을 줄이고 경영 정상화를 기하게 되었다.

6. 영업력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1) 희석식 소주 시판 및 판매

광림주조장에서 주원료는 쉐미(碎米)가 쓰였고 용기는 4홉들이 병(640ml)과 4홉들이 목통 그리고 1.5두(斗)들이 용기를 주로 사용했다. 소주에는 주정이 필수 요건이지만 이 밖에도 설탕, 포도당, 구연산, 글리신, 글루타민산 소다, 무기염류 등 6가지에 달하는 첨가물이 들어가야 하고 이 6가지를 어떻게 배합하느냐에 따라 그 독특한 맛을 낼 수 있다.

당시의 생산방식은 주정 93°를 30°로 희석하는 희석식 소주와 재래식 순곡소주(증류식 소주)로 대별되었다. 서울 이북 지방의 소비자 음주 경향은 재래식 소주를 선호하는 편이어서 상대적으로 전남·목포 지방은 희석식 소주가 대량 소비되고 있었다.

소비자들의 증류식 소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기 때문에 증류식 소주에 희석식 소주를 혼합하여 순곡소주로 판매하는 등 유통질서가 문란했다. 또한 정부 당국이 주정 제조업자들에게도 희석식 소주 면허를 주어 증류식 방식으로 제조하는 업체의 존립을 어렵게 했다.

1962년 11월에 이르러 국산 고구마를 원료로 제조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 감면조치를 하여 고구마류로 만든 주정을 사용하는 희석식 소주는 더욱 발달했고 반면에 곡류를 사용하는 증류식 소주는 위축되었다. 그러던 것이 1964년 12월 8일 정부에서는 식량 사정을 감안하여 증류식 소주의 제조에 곡류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1965년을 고비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희석식 소주 시대가 개막되었다.

2) 업계 최초 무 사카린 소주 개발 착수

보해연구소가 발족되자마자 임광행 회장은 술은 사람이 먹는 것이니 몸에 해롭지 않은 무 사카린 소주의 개발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그로부터 2년여의 연구 끝에 보해연구소는 무 사카린 소주를

개발하였다. 하지만 보해양조는 당시 제품 개발에 인색한 소주 업체의 자세와 견제 때문에 이를 제품화할 수 없었다.

사카린 논쟁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FDA에서 사카린이 암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임광행 회장은 우리나라 여건상 사카린을 안 쓸 수 없으니 천연 감미료와 섞어 적게 쓰라고 지시했다.

추후 소주업체가 사카린 논쟁에 휘말렸을 때 보해는 의연할 수 있었고, 무 사카린 제품을 출시하여 업체를 선도하는 위상을 확립할 수 있었다.

3) 보해연구소 설립

1981년 11월 1일, 보해양조는 당시 생산하고 있는 소주와 매실주의 주질을 개선하여 품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주류 개발과 식품 개발을 위하여 전문연구원을 확보한 후 연구소를 개설했다.

품질 향상을 위한 보해의 노력은 1984년 4월 1일 보해연구소를 설립하고 연구에 매진하면서 꽃을 피웠다. 초대 연구소장에는 정수길 씨가 선임되었으며 연구 활동은 신제품 개발과 기존 기술·제품의 개량 등이 주요 업무였다. 보해연구소는 1984년 12월 21일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해 과학기술처 장관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정식 인가를 획득했다.

이후 보해연구소는 연구소장을 정점으로 업무의 활성화와 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하였다. 신제품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 회사의 경쟁력을 제고시켰으며, 주류 생산 공정에 대한 기술, 정보 등을 연구하였다. 또한 정밀 여과공정의 개선, 원액 숙성법의 개량 등으로 작업시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불량요인을 제거하였다. 이외에도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을 위한 공정 개선 분야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장성공장 건설 시에는 지하수의 수질 검사 및 설비 레이아웃 변경에 참여하기도 했다.

7. 국내 최대 규모의 소주 공장 건설

1) 좋은 물 찾아 장성으로

현재 보해양조 장성공장이 들어선 영천리 일대는 호남 제일의 약수로 평가받고 있는 ‘오동충 방울샘(아무리 가물어도 방울물이 솟아나는 샘)’과 황룡면 ‘옥정약수’, ‘남천감로’ 등이 있다.



그림 6 현대식 대단위 소주공장의 위용을 갖춘 장성공장

소주공장은 수질이 좋고 풍부한 수량을 공급 받아야 한다. 따라서 임광행 회장은 제조 지향형 공장을 건설할 것을 계획하였다. 즉 상이한 제품이나 제조 라인은 분리시키고 각각의 공장에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 제조 지향형 공장 전략은 각 공장이 대체로 극히 명확한 시장에 대하여 한정된 제품의 생산에 전념하도록 하였지만 생산기술, 설비, 노동력, 공정계획, 조직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동시에 어떤 원료도 가까운 지역에서 공급받을 수 있다.

임광행 회장이 신 공장 건설을 구상할 즈음 목포시 소재의 소주공장은 시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원·부재료와 제품 수송에 문제가 있었다. 공업용수의 확보, 도외 시장의 개척 등 제반 여건이 미흡하여 전국적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렇게 하여 시작된 장성 공장 이전 계획은 좋은 물을 찾아 이루어졌다. 임광행 회장이 서울을 오가면서 후보지를 물색했다.

보해양조는 곳곳에 약수가 솟아나는 장성의 영천리를 공장 신축 예정지로 지정했다.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노동력과 사용 물자의 조달, 유통망 형성에 유리함, 세제 혜택, 본사와의 거리, 넓은 대지 등 입주에 필요한 여러 문제가 고려되어야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술을 빚는 데 사용할 좋은 물이었다.

거대 수맥을 찾기 위해 전문가들이 동원되었고 노력 끝에 여러 수맥을 발견했다. 그러나 양질의 물이 아니거나 수량의 절대량 부족으로 원하는 수맥을 찾는 데는 실패하였다. 임광행 회장은 수맥탐사자들을 독려하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맥을 찾기 위한 작업을 전개하도록 했다. 예기치 않은 곳(제3호정)에서 물이 올라왔다.

보해양연구소에서 조사를 한 결과, 수맥이 크고 수질이 좋아 3,000t 쯤이 될 것이 예상되었다. 뒤끝이 깨끗하고 담백한 소주를 만들기 위한 첫째 조건이 갖추어진 셈이었다. 이사회는 장성에 소주 제조를 위한 신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의하였고 1985년 11월 3일 지신제를 시작으로 공사를 착공하였다. 지하 253m 암반에서 솟아나는 물은 생수뿐만 아니라 술을 빚기에도 최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2) 신 공장 건설 본부 설치

1984년 11월 22일 보해양조는 풍부한 용수 확보 이후 소주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부지 조성 공사를 결의하였다. 부지의 확보 및 소유권 이전 등 공장 건설에 따르는 제반 업무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처리를 위해 건설 본부를 설치했다.

건설 본부는 오완교 부사장을 건설 본부장으로, 임현우 이사를 실무 총책으로 임명하고 10여 명의 직원을 전담 요원으로 편성해 건설 담당, 설계 담당으로 조직했다.

3) 장성 공장의 활발한 환경 보호 활동

장성 공장은 지하 253m에서 뽑아 올린 석간수를 전 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만큼 환경 관리 팀을 중심으로 환경 보호 및 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등 맑은 물을 지키고자 노력했다. 우선, 토양 오염의 방지와 지하수 보호를 위해 공정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은 철저히 분리수거한 후 원거리에 위치한 자체 폐기물 처리장과 소각장에



그림 7 보해양조의 환경보호 활동

서 처리하였다. 제품의 내용물로 쓰이는 물 외에는 주변의 하천수를 최대한 활용하고 최종 행굼물은 1차 세척 시에 재활용하여 폐수 발류량을 감소시켰다. 혹시라도 이상이 발생해 법적 기준치의 1/10 이상이 방류될 경우에는 생산 라인을 즉각 중단시키는 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가동했다. 1996년에는 방류하는 곳에 센서를 설치해 데이터를 자동 측정하고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는 오염도자동측정망(TMS)을 도입해 보다 철저한 환경 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한편, 환경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설비 투자 외에 사회참여의 일환으로 1사 1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립공원 백양사 지구 백암산을 가꾸었다. 1사 1하천 가꾸기의 일환으로 황룡강 살리기에 도 열심이었다.

이렇듯 장성 공장의 폐수 처리 및 환경시설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가뭄이 있을 때에는 공장에서 사용된 폐수가 인근 농업용수로 사용되기도 했다. 1997년 4월 3일 제품 생산 공정상에서 폐수 방지 시설을 철저히 운영하고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 소규모 중소기업체 폐수 처리 기술 지원을 하는 등 수질 환경 보전에 기여한 공로로 환경부가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실시한 유공자 포상에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또한 장성 공장은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고 효과적인 열 효율 증대에도 앞장서 1995년 11월에 여천에 위치한 한국화학종합공장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장성 공장장이 전남도지사로부터 우수표창장을 수여 받았다.

8. 매실주 제조 면허권 취득

1) 임광행 회장의 매실 사랑

매실은 알칼리성 과실이라 건강, 특히 위장에 좋다는 점을 알고 있던 임광행 회장은 일제 때 먹어 본 ‘우메보시’라는 매실 반찬을 기억해내고 매실주를 개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미 일본에서는 오래

전부터 가정에서 매실주를 담가 마셨으며 수십 종의 우수한 매실주가 생산된 바 있는데 매실주가 질적인 면이나 양적인 면에서 대중화되지 못했다. 임광행 회장은 평소 우리의 전통주를 개발, 세계적인 명주로 키워보고 싶은 야망을 지니고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77년 1월에 청주 제조 면허를 반납한 후인 같은 해 10월 18일에 서울시 소재 도라지 주조 주식회사 소유분인 기타 재제주 면허권을 양수했다. 1977년 12월 1일에 당국으로부터 기타 재제주 제조 면허권을 취득한 보해양조는 본격적인 매실주 개발에 착수했다.

임광행 회장은 1976년에 입사한 큰아들에게 이 일을 맡겼다. 양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전통주를 개발해 보라고 지시했다. 또 광고를 하지 않아도 팔 수 있는 술을 만들어 보자고 임 회장은 당부했다. 입사 직후 보일러실 등에서 일하던 그는 팀장이 되어 공장 실험실에서 연구를 진행하며 2년 동안 국내에서 담글 수 있는 재제주 40여 종을 개발했다. 연구 결과, 포도주와 매실주만이 사업적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임광행 회장은 매실주가 우리의 전통술로서 집에서 담가 먹고, 일본 사람들은 매실주가 장에 좋다고 해서 반주로 마시고, 혹시 배탈이 났을 경우에는 상비 술로 사용한다는 점을 들어 매실주를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소주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포도주 시장에 도전하는 것은 무리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었다.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후 성공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한 임광행 회장은 과감하게 매실주의 제품화를 추진했다.

2) 매실공장 증설

매실주는 50% 주정에 청매를 일정기간 담가 침투작용에 의하여 매실 액즙에서 산미(酸味, 주로 구연산)의 향기가 스며나온 것을 제조한 것이다. 임광행 회장을 비롯한 매실주 연구 개발 관련자들은 새로 개발하기로 한 매실주가 매실 특유의 향기와 감미를 가지고 다른 종류의 술에 비하여 마실 때 역겹거나 톡 쏘는 알코올 냄새가 난다든지 하는 저항감이 전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우리의 전통이 서린 매실주를 영국의 위스키나 프랑스의 코냑처럼 세계의 명주로 개발하는 것이 꿈’이라고 밝힐 만큼 좋은 술 만들기에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

그러나 주류 컨설팅 전문가들은 매실주 원액의 재고가 계속 부채 부담이 늘어가는 마당에 자금 회전이 늦은 매실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반대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임광행 회장은 기다렸고 절망하지 않았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연간 7,500kℓ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 투자를 계획하고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매실주 개발에 필요한 원료인 매실수 단지의 조성, 생산 공장의 부족한 설비의 일부 보충을 위한 제조 기계 설비 확충, 기타 필요한 시설과 자기 소유 영업소를 확충했다.

마침내 1978년 3월 4일 연간 7,500kℓ 생산 규모의 매실 공장을 설립하였고 원료의 적기 공급으로



그림 8 매취와 매취장승

‘매취(梅翠)’를 개발, 생산 첫해인 1982년에 1,800ℓ를 판매했다. 1986년 현재 보해양조는 매실주 ‘매취’를 1일 8만본(500ml)정도 생산할 수 있다. 한편, 매실주공장 설립으로 재무 부문은 유동비율이 1978년 124.61%에서 1979년에는 82.35%로 저하되었고 고정 자산 투자율이 1978년 28.86%에서 46.65%로 상승하였다.

3) 매취순 개발 및 시판

임광행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주류시장의 추세가 저도화(低度化), 소량화, 고급화되어간다는 판단에 따라 낮은 도수의 고급주를 찾는 소비자 기호에 맞춰 매실 원료를 5년 숙성한 14도 매실주 ‘매취순’을 개발했다. 해남군 산이면에 대규모(14만 평) 매실 재배 단지를 개발하고 1990년 5월부터 시판에 들어간 매취순은 처음 시판되면서부터 인기를 끌기 시작해 판매량이 늘어갔다. 1992년 2월 28일에는 매실주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여 공급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 이르게 되자 장성 공장 내에 새로이 매실주 원액 저장 시설을 건립했다.

매취순은 1998년 6월 KMA히트상품상을 수상하였으며 프랑스에 수출 공식 만찬주로 각광받았다.



그림 9 1998년 KMA히트상품상을 수상한 보해의 매취순

한편 보해 복분자주는 2005년 세계 와인 경영대회에서 3,000여 개의 출품작 중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은메달을 수상하였다.

9. 새로운 비전을 꿈꾸는 보해



그림 10 앞새주부라더

현재 대표 제품으로는 ‘앞새주’, ‘부라더#소다’, 17.5°의 ‘앞새주 부라더’, ‘보해 복분자주’, ‘매취순’ 등이 있다. 오래전부터 보해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남도의 맛을 알리고 전파하고자 글로벌 마케팅과 다국적인 판매 네트워크를 구성해 시장을 넓혀가는 노력을 해왔다. 2015년 임성우 회장의 장년인 임지선이 대표이사 부사장에 취임한 후 현재 해외사업부문을 총괄하여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보해는 항상 사회의 일원임을 기억하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장학 사업, 환경 정화 활동, 지역 축제 지원 등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크게 힘쓰고 있다.



그림 11 장학금(학비보조금)을 지급하는 임광행 회장

권 효 | 목포장학재단 이사

제2절 행남자기와 함께한 내 청춘

노희웅은 1944년 강진에서 태어났다. 군청 행정직 공무원인 아버지를 따라 유년 시절을 영광, 목포에서 보내다가 초등학교 시절은 진도, 완도, 영광, 고흥에서 보냈다. 1974년 행남자기에 입사한 후 2005년 행남자기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했고, 이후 부회장까지 역임한 전문경영인이다. 현재 교회 장로로서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맡고 있다.

1. 코스모폴리탄을 경험한 어린 시절

노희웅은 1944년 강진에서 아버지 노성율(1923년생)과 어머니 손보물(1924년생) 사이에서 2남 3녀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당시 강진군청 공무원이었다. 노희웅은 아버지의 발령 때마다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야 했다. 2살에 영광으로, 4살에 목포로, 6살에 진도로 이주, 7살에 초등학교 입학, 초등 3학년에 완도, 다시 영광(초등 4년), 그리고 5학년에 고흥으로 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 뒤로는 광주에서 광주서중을 거쳐 일고에 다녔다. 이런 경험 때문에 그는 어디를 고향이라고 말해야 할지 늘 고민이었다. 아니, 자신이 거쳐 간 모든 지역이 고향으로 느껴지는 감성을 갖게 된 것은 큰 장점이 됐다. 지역주의에 얽매이지 않는 코스모폴리탄(범지역 시민)을 경험한 셈이다. 간혹 사람들이 그에게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면 이렇게 반문한다.



그림 1 노희웅(2006)

“아버지의 고향은 목포(무안), 내 출생지는 강진, 주 성장지는 광주, 직장과 사회활동은 목포에서 보냈는데, 어디가 내 고향이냐?”

그러면 ‘본적이 어디냐? 아버지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며, 그곳이 고향이라고 했다. 그것에 따르면 그의 고향은 목포가 된다. 본적이 무안군 이라면 용당리 용해마을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노희웅의 기독교 신앙의 첫 뿌리가 목포인 것이 중요했다.

노희웅의 외가도 목포다. 외삼촌 손우현은 외과의사로 불란서병원의 원장을 거쳐 남교동에서 대동

병원을 운영했고, 작은 할아버지도 내과 의사였다. 그의 아들은 손주현 장군으로 공군사관학교 1기생으로 전투기 조종사였다. 6·25 때 평양 폭격 후 되돌아오다가 추락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것으로 유명했다. 나중에 손주현은 소설가 박화성의 큰사위가 되었다. 어머니는 장남인 노희웅을 낳은 직후부터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며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겪었다. 심지어 상여를 준비하고 유언까지 남길 정도였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외삼촌의 친구인 조영규 의사(나중에 영광에서 국회의원도 역임함)가 어머니를 수술하기는 했지만, 회복된 것은 신앙생활 때문이었다. 어머니가 사경에 헤맬 때 당시 목포연동교회의 최명길 목사(6·25때 순교) 내외가 집을 방문해 성경 말씀을 전해 주었다. 그때부터 믿음의 씨앗이 심어진 어머니는 점차 달라졌다. 최 목사의 방문이 노희웅 가정의 믿음생활의 시작이었고, 어린 노희웅도 처음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고 목포용당리교회(지금 동부교회)에 나갔다. 어머니는 주님의 은혜로 병이 치유되었다고 확신하고 이름을 ‘보물’에서 ‘은혜’로 바꿔 손은혜가 되었다. 어머니가 기적같이 건강이 회복되고, 둘째 아들인 노희권까지 낳게 되니 큰 축복이었다. 노희웅은 신앙생활에 전념하며, 종교는 물론 인류의 역사와 동서양사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노희웅은 조선 사회가 유교를 숭배한 봉건사회였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유교가 충과 효도를 강조한 것은 인정했지만, 국가 이념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봉건적 잔재는 근대에 들어서도 큰 변화가 없었다. 특히 여성, 어머니의 역할이 늘 제한되어 있었고, 그들은 죽도록 고생만 하는 것을 운명으로 알고 견뎌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늘 안타까웠다. 이 때문에 여성을 평등하게 대하고 인간으로 대접하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평생 기독교에 귀의해 살게 된다.

그에게 사회활동의 가치기준은 기독교 이념이었다. 그는 믿음으로 맺어지는 은혜의 혜택을 여러 차례 맛보고 살아왔다. 심지어 6·25 때 부산으로 피난 가는 도중 거제도에서 믿는 가정의 도움으로 그 집에서 편히 기거한 적도 있었다. 군대 생활도 마찬가지였다.

노희웅은 대학을 졸업하고 스물일곱 살에 입대했다. 논산훈련소를 거쳐 김해공병학교에서 8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배정받은 부대가 다시 논산훈련소였다. 뜻밖에 그곳에서 연대 피엑스에서 근무하게 됐다. 당시 사병들도 피엑스에 근무하면 큰돈을 번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관리가 허술했고, 그만큼 비리도 많았다. 하지만 전임자가 횡령 혐의로 특별 감찰에 걸려 영창에 들어간 탓에 노희웅은 회계와 재고정리에 철저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차라리 그에게는 잘 된 일이었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후임에게 정확하게 인계하는 것이 기독교적 신앙인의 삶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나중에 군종병으로 자리를 옮겨 군대 내 교회에서 생활하기도 했다.

2. 서른아홉 노총각의 늦은 결혼

제대한 노희웅은 순천에서 잠깐 지낸 후 1974년 『조선일보』에서 행남사 신입사원 공개채용 광고를 보고 지원해 입사했다. 지역기업이지만 전국적인 인정을 받고 우리 역사가 사랑하는 자기를 생산하는 회사, 많은 학생들의 견학대상이던 공장에 입사한다는 것은 당시 매우 큰 기쁨이었다.

그는 목포의 향토기업인 행남사에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지속했지만, 결혼이 늦어져 부모님의 애를 오랫동안 태웠다. 선을 본 것만 100번이 넘었는데, 인연이 닿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노총각으로 여러 가지 고충을 겪기도 했다. 여동생은 둘이나 이미 결혼을 했고, 남동생마저도 자신을 기다리고 기다리다 서른네 살에 결혼을 하게 됐다. 이때 노희웅은 서른아홉이었다. 보다 못한 어머니가 노희웅에게 한마디 하셨다.

“너는 동생 결혼하는데 오지마라. 니가 오면은 내가 창피한게……. 다들 와서 ‘큰 놈은 어떻게 됐어요?’ 하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성가신게 말이다.”

그런 연유로 그는 동생 결혼식장에 가보지도 못했다. 다행인 것은 동생 결혼식이 3월이었는데, 바로 5개월 후인 8월에 드디어 자신이 결혼을 하게 된 것. 동생은 ‘형님 그럴 줄 알았으면 말 좀 해주지 그랬소. 그랬으면 기다렸을 텐데……’라고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하나님이 내 짝은 정해 놓은 것 같애. 만난 지 석 달 만에 결혼해 부렸어요. 신부는 나하고 일곱 살 차이가 났어. 거기서도 서른둘이니 많은 편이제. 와이프는 선 볼 때 조그마한 것 때문에 내가 훌쩍 빠졌지. 다방에서 차를 마시는데, 긴장이 될 것 아니라고? 대화 중에 찻잔을 들어 마시려는데 이미 마셔 불고 없는 찻잔을, 찻잔이 비었는데도 또 마신거야. 그때 앞에 앉아있던 여자가 종업원을 불러 ‘물을 채워 달라’고 부탁하드라고. 이것을 보고 ‘아, 남을 배려해주는 여자구나’ 그 하나가 시작이여. 어머니한테 이야기했더니 어머니가 맘에 들었어. 우리 어머니가 결혼하기 전에 시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한 사람이야. 모처럼 ‘핀포’가 맞았는데, 나이 들은 맞선대상자들에게는 주변의 잡음이 많다는 거야. 빨리 해 부러야지 하는 마음으로 서두르신 거야. 그랬더니 주위에서 소문이 났어. 속도위반했는가 부다 하고.”

1982년 서른아홉의 노희웅이 결혼하고 5년 후에 딸을 낳았다. 자연스럽게 속도위반했다는 오해는 풀 수 있었다. 그는 형제나 자매가 없는 외동딸에게 늘 미안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예술분야를 체

험할 기회를 주었고, 어릴 때부터 외국여행을 통해 세계문화에 익숙해지도록 배려했다. 그 결과 딸은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도 쉽게 친해지고, 다문화적인 정서도 스스로 없이 받아들이는 코스모폴리탄적인 시민이 됐다. 무엇보다 그가 바라는 신앙생활에 전념하며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버지로서는 고맙고 대견하다.

3. 행남사 직원에서 대표까지

노희웅은 1974년 행남사에 입사해 처음 경리부에서 근무했다. 그 후 생산관리부, 기획실, 품질관리부, 새마을담당, 수출과장을

거쳐 2004년 행남자기 대표이사 부사장에 오르게 된다. 그리고 2005~2012년 행남자기 대표이사 사장과 모디 대표이사를 겸직했다. 그리고 2014년까지 부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임했다.

평직원에서 시작해 회사 대표까지 맡는 과정은 성실과 인내의 결과였다. 그리고 그는 경영철학인 ‘기독교적 사랑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회사 일에 전념했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의거하여 진정으로 회사 구성원을 아끼고 사랑했다. 그가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남겼지만 한 가지만 소개한다면 행남자기 접시와 찻잔, 식기가 ‘노벨상 공식 만찬 식기’로 선정된 일이다. 세계적으로 유럽산 자기가 가장 화려하고, 고급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그 때문에 노벨상 시상식 공식만찬장에서도 유럽산 본차이나 제품이 식기로 사용되고 있었다. 행남자기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 그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 받아 드디어 2007년 노벨상 시상식 공식만찬 테이블에 오르게 됐다. 세계적으로 행남자기의 위상을 높인 큰 성과였다.

평직원이던 노희웅은 공장 새마을운동을 담당하면서 1975년 첫 해외출장으로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에 다녀왔는데, 이때 새마을운동에 대한 비전을 배우게 됐다. 이 경험으로 새마을운동에 대해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 1979년에는 수출과장을 맡았는데 외국 바이어들과 교류하고, 여러 차례 해외출장을 다니면서 역사와 문화를 바라보는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됐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그는 우리 문화를 맹목적으로만 바라보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동·서양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게 됐다.



그림 2 행남사가 제작한 노벨상 시상식 만찬장 공식 식기

“입사 후 3개월 동안의 수습기간에 있었던 일을 정리하는 보고서를 쓰는데, 보통 다른 직원들은 한 30~40페이지로 쓰는 글이지. 그런데 내가 무슨 욕심인지 110페이지를 썼어. 그래서 회사에서 깜짝 놀란거지. 그 당시에 임원들이 회람을 하시고는 ‘특이한 놈 들어왔다’ 그것이야. 내가 생산내용에 대한 분석을 잘한 것 같애. 그래서 전무이사가 ‘이 친구는 생산부로 보내야 한다’ 그것이야. 그래서 경리부서에서 생산관리부로 갔어. 그리고 다시 회사 규칙, 규정 같은 것을 정리하는데 누가 나를 지목했어. ‘그때 리포트 한 것 보니까 잘 하겠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기획실로 옮겨. 그 후 마침 정부에서 품질관리(QC: quality control)를 하라고 촉구한 적이 있어. 품질관리를 하는데 나보고 서울 가서 교육받고 품질관리기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오래. 품질관리기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니까. 그래 할 수 없이 공부하면서 특히 통계학 때문에 찢절 땀으나, 결국은 따가지고 왔어. 그랬더니 품질관리 연구를 했으니까 기획실에 있지 말고 품질관리부에 가서 일해라 그것이야. 그 후 또 정부에서 새마을운동 하라고 공문이 와, 그러면서 새마을운동 회사 관리책임자로 갔고, 전국공장새마을운동경진대회에서 행남이 최고상을 받기도 했어. 과장으로 승진하면서는 수출과장을 해. 그때부터 해외경험을 좀 하게 된 것이지. 바이어도 만나고, 외국도 가고.”

행남사에서 그가 맡은 업무를 보면 당시 한국 사회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단계별로 어디에 방점을 두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알 수 있다. 품질관리라는 새로운 관리기술은 1961년 「공업표준화법」이 제정된 이후 시작됐다. 하지만 본격적인 품질관리가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75년부터이다. 정부는 1975년을 ‘품질관리의 해’, 1976년을 ‘품질관리 확대의 해’, 1977년을 ‘품질관리 정착의 해’로 정하고 고도성장 추세에 맞춰 의욕적으로 품질관리 정착화에 노력했다. 이런 노력은 해외시장에 수출된 상품이 품질불량으로 반품되어 오거나 생산공정의 불량률이 너무 높아 고심하고 있는 기업체가 많았기 때문에 시작되었다. 또한 국내 소비자들도 한층 까다로워진 이유도 있었다. 실제 행남사는 1975년 공장새마을운동을 도입,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무엇보다 분임활동과 제안제도의 성과가 컸다. 분임토의를 통해 품질관리활동을 평가하고 시상했으며, 제안 제도를 통해 에너지절감, 원가절감, 품질향상의 효과를 보았다. 이처럼 공장새마을운동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노회웅은 새마을운동을 통해 생산단위의 분임토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가 상향식으로 전달되면서 공장이 혁신적으로 발전했다고 인정했다.

“촛불집회에서 과거 역사를 비판하는데, 내가 새마을운동하면서 농촌새마을운동 현장도 가서 보고, 정부에서 요청하는 운동들, 구체적으로 지붕을 개량한다든지,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마을길을 낸다든지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실질적으로 봤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보지 않아. 그때 워낙 가난했으니

까. 새마을운동을 했을 때 너무 비참했잖아. 1975년도에 공장새마을운동을 할 때 상공부에서 사람을 선택해서 아시아권에서 잘사는 나라를 견학시켰어. 싱가포르에 갔더니 별천지 같애. 도로가에 나무를 많이 심어 놓고, 케이블카로 넘어가는 센토사 섬에 갔더니 해수욕장이 있고, 동물원이 있고, 식물원이 있고, 사진 찍느라고 정신이 없으면서도 우리나라는 언제 저렇게 될란고 했어. 그러다가 귀국할 때 김포에 내리면서 보니까 쓰러져가는 집들이 보이고 막막하든만…….”

행남사가 본격적인 수출을 하는 1970년대 중반 수출을 담당하던 그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삼학도에 목포세관이 있는데, 그곳을 이용하는 공산품수출업체는 행남특수도기가 유일했다. 수출물량은 먼저 삼학도 세관에서 통관이 되고 부산까지 보세운송 후 컨테이너에 넣어서 선적해 수출되던 때였다. 그런데 목포세관이 늘 까다로웠다. 수입품은 엄격하게 검사하고, 수출품은 좀 융통성 있게 대해주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되는데 말이다.

1980년 5월 어느 날이었다. 광주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전해오고, 곧 군인들이 지역 간 이동을 통제하려고 할 때였다. 자칫 수출해야 할 제품들이 발에 묶일 상황이 우려되었다. 노희웅은 직감적으로 수출물품을 먼저 부산에 보내야한다고 판단했다. 급하게 트럭에 실어 보낸 뒤 곧 교통이 두절되고 말았다. 그는 어떻게든 부산에 들어가 품질관리 검사를 마치고, 선적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하늘은 그와 행남사를 도왔다. 노희웅은 기적적으로 부산에 갈 수 있었고,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 행남사는 새로운 물류체계를 도입하게 된다.

“1974년도에 본격적인 수출을 하게 됐어. 목포 삼학도에 세관이 있잖아. 세관 사람들이 까탈스럽게 했어. 수입하는 것에는 통제가 있을 수 있지만, 수출은 장려해야지. 그런데 1980년 5.18 때였어. 수출할 제품들도 막힐 것 같아 내가 서둘러서 트럭에 수출품을 실어 부산으로 보냈어. 목포세관 통관을 안 하고 부산세관에서 통관을 할라고 한 거제. 근데 통관 전에 품질관리기사의 사인이 들어가야 돼. 내가 품질관리기사니까 부산에 가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육지로 걸어서 갈 각오까지 할 때였어. 송정리만 통과하면 되니까. 나뿐만 아니었어. 외부에서 흑산도, 홍도까지 여행 간 사람들도 차가 없으니까 서울을 못가잖아. 근데 마침 목포에서 제주 가는 배인 동양고속페리가 수리를 한다고 제주 운행을 휴업하고 1년에 한 번씩 해왔던 수리를 당겨서 목포에서 바로 부산에 간다는 소식을 들었어. 서울 갈 사람들은 부산을 통해서 가라고 다 타라고 한게 급하게 갔제. 부산가는 배는 원래 없어. 그렇게 부산에 갔더니 아침 9시나 돼서 들어가는데 부산해양대학교 앞에서 경비정들이 와서 우리 배를 호위하여 인도하는 것을 봤는데, 총 들고 올라와서 ‘이 배를 불순세력들이 납치해 가지고 온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한사람씩 검색을 받고 부산 부두에 상륙을 한 적이 있어. 난 수출업무를 보러 갔지. 판

사람들은 집에 갈라고 간 것이고.”

노희용이 부산에 도착해 수출물품을 선적하면서 보니까 트럭에 실려 온 제품이 하역되어 통관절차를 거친 후 다시 컨테이너에 담기고 있었다. 순간, 목포공장에서 직접 컨테이너에 담아 나르면 이중으로 고생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는 다음 수출 건부터 부산에서 트레일러를 직접 불러들였다.



그림 3 행남자기 산정동 공장

“목포에 와서 컨테이너에 실어 세관으로 바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목포로 바로 오라고 했지. 그런데 산정공장에 컨테이너를 실은 트레일러가 들어갈 수 없어. 전봇대와 전기줄에 걸려 불고, 진입로가 직각이 아니라 안 돼. 어려웠어. 트레일러 기사가 신경질을 내고 난리야. 공장 앞 전기줄이 낮으니까 안 돼. 결국 목포시에서 해결해 줬어. 도로는 안 넓혀주고, 전기줄만 높여줬어. 그때 컨테이너가 시청 앞으로 해서 쪽 왔지. 5·18을 계기로 그때부터 직접 컨테이너 수출이 시작된 것이지. 그랬더니 부산에서 불만이 많았어. 짐 옮겨 싣는 하역인부들이 일이 줄어들잖아. 그 전에 트럭은 목포 트럭이었는데, 목포 트럭도 기분이 안좋지……. 컨테이너는 20피트와 40피트짜리가 있어. 목포 시내 다니는 것이 겨우 20피트짜리여.”

그는 5·18과 관련해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당시 미국에서 온 일본인 디자이너가 행남특수도가 공장에서 수출품 디자인 자문 일을 했는데, 갑자기 그에게 일본영사관에서 전화가 왔다. ‘내일 아침 대호호텔로 모이라’는 연락이었다. 당시 목포의 신발공장인 호남고무에 근무하는 일본인들도 여럿 있었는데 그들도 모두 모였다. 일본영사관은 차량을 준비해 그들을 부산으로 이동시켰다.

노희용이 부산에 갔다가 영도다리 근처 한 호텔에서 그 디자이너를 만났는데, 당시 언론에 나오는 내용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일본 디자이너는 일본신문을 보여주면서 ‘군인들이 시민들을 무고하게 살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준 것이다. 그때 노희용은 광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생한 현실을 잠시나마 본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일본인들은 저렇게 자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구나’라고 느끼며, 일본외교관들이 한국외교관들 보다 낫다고 생각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일은 미국인들이 더

철저하다는 것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 1997년 즈음 그동안 잘 알고 지내던 주한미국대사의 대리 대사인 리처드 크리스텐슨의 전화를 받았다. 크리스텐슨은 1967년부터 2년 동안 목포상고, 제일중, 목포중학교에서 평화봉사단 일원으로 영어를 가르쳐 목포와 인연이 있는 인물이었다. 그런데 그가 정명여고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미국인 여교사를 언급하며, 잘 챙겨달라고 했다. 국내의 미국인들이 한 두 명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놀랄 지경이었다. 그 영어 교사는 노희웅이 봉사하는 교회에 출석하여 영어예배를 드리며 오랫동안 인연을 맺기도 했다.

4. 향토기업 행남사 목포를 지키다

목포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인 행남사는 자기 제조회사로 1942년 5월 16일 산정동에 최초로 설립 되었다. 당시 국내에는 일본인이 경영하는 부산의 대한도자기, 그리고 정미소를 소유했던 목포 사람이 투자한 경상도 밀양에서 운영되는 밀양도자기만 있었다. 지금의 한국도자기는 행남사 보다 1년 늦은 1943년에 설립된 도자기 도매상으로 행남사 제품도 취급하였다. 일본인 회사들의 횡포가 대단 할 때 민족자본으로 새로운 시장에 뛰어든 행남사는 자기만 제조하고 도기 생산은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설립 허가를 받았다. 당시 목포와 인근에는 수공으로 도기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행남사의 사명(社名)은 설립자 ‘행원(杏院)’ 김창훈(1896~1967)과 아들 ‘남강(南岡)’ 김준형(1914~2008)의 호에서 각각 첫 자인 은행 ‘행’과 남녘 ‘남’을 따 지은 이름이다. 특히 행남의 행(杏)자는 우연히도 목포[木]의 입[口]을 나타내어 목포의 경제를 상징하는 글자가 되었다.

김창훈 회장이 자기회사를 설립하는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다. 김창훈은 남선전기에 근무한 적이 있었다. 남선전기는 경성전기, 조선전업과 더불어 3대 전기회사였고, 이 세 회사가 1961년 통합 되어 한국전력주식회사를 발족하게 된다. 현재의 한국전력이다. 김창훈은 남선전기에서 구매담당을 하면서 ‘애자’⁰¹⁾를 일본에서 수입해 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이 컸다. 도자기의 본고장이 한국인데, 한국도공들을 끌고 가 이제는 일본이 종주국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 억울하기까지 했다.

“김창훈 씨가 남선전기에서도 근무했어. 거기서 구매담당을 하면서 애자를 구입하는 거야. 전기줄의 애자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해. 일반 도자기하고 달라. 애자 안에 철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엄청난 고압에 터져 부러. 우리나라에서는 공급 못하니까 일본에서 수입을 했어. 그러느라고 일본에 자주

01) 전선로나 전기 기기의 나선부분을 절연하고 동시에 기계적으로 유지 또는 지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절연체로 주재료는 경질자기임.

갔는데, 결론은 도자기는 원래 한국 것인데, 일본 놈들이 우리기술자 데려가서 만들 것 아니냐. 우리가 한 번 만들어보자 하고 시작한 것이제. 그래서 아들(김준형)을 일본에 보냈지. 마침 큐슈 쪽에 가 보면 이삼평 씨라고 정유재란 때 잡혀간 사람이 일본 도자기를 제대로 만들어줬어. 도자기 신(神)이라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면서 큰 전시회를 해. 김준형 회장이 거기에서 도자기를 배웠지.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인데, 그때는 한 가지 유리한 것이 일제 시대라 일본 놈들이 우리 눈그릇을 다 뺏어갔잖아. 그러니까 자기 시장은 괜찮았어. 그 이면에는 서글픔이 있지.”

도자기 사업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고려청자와 조선백자로 일찍이 도자기 문화를 꽃피워왔던 우리나라 아닌가. 도자기는 하루아침에 급조될 수 있는 상품도 아니다. 우리 민족 핏속에 면면히 흐르는 예인의 기질과 뛰어난 손재주, 풍부한 고령토자원을 가진 나라로서 도자기는 도전해 볼만한 사업이었다. 무엇보다 인간의 생활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산업이기도 했다.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우리나라 전통성을 나타내는 가치 있는 사업이었다.

행남사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들에게 회사가 넘어갈 위기를 거친 뒤에도, 6·25 전쟁을 맞아 위기에 처했다. 이때 연료난과 경영수지 악화로 어려움을 당했지만, 1953년도에 커피세트와 양식기를 판매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도 했다. 이후 1957년 본차이나를 순수 자체기술로 개발하여, 전라남도 물산공진회에 출품하여 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리고 1963년에는 도자기 식기로는 국내 최초로 홍콩에 수출하는 개가를 올리기도 했다.



그림 4 행남자기 디자이너들과 함께한 노희웅 사장

“1953년도에 국내 처음으로 커피세트를 생산했어요. 6·25 전에는 커피세트 개념이 없었지요. 해방 후와 6·25 때에 미국인들이 가져온 식기 가운데 커피 담는 컵이 있어서 소개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1960년대 들어 홍콩으로 도자기 식기세트를 수출해보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이 생각하는 세트하고 다르고, 품질이 안 맞아. 그리고 바이어와 상대한 것이 아니라 중개상을 통해 가지고 보낸 거지. 지금은 신용장 제도가 있잖아. 신용장이라는 것이 상품이 갈 때 보증하는 보증서지. 내가 보기에는 배에 실으면 우리가 돈 주께 그랬다가, 돈도 못 받지 않았나 싶어. 한국도 전쟁 직후 뭐가 있겠어. 대개 보면 돈을 안 줄라면 화물에 하자가 있단든지, 선적기간이 늦었다든지 트집을 잡지. 돈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도자기를 수출했으니까. 그래서 당분간 수출을 스톱하기도 했다고 들었어. 입사 당시에도 10년 전 이야기였지. 내가 보기에 그랬을 것이여. 무역업무도 내가 좀 봤으니까.”

노희용의 입사 1년 전인 1973년 행남특수도기(주)의 상동공장이 설립되었는데 부지문제로 우여곡절이 있었다. 간부들은 새 공장을 경기도로 이전하자고 했다. 인구가 많은 곳에 공장을 설립하면 운송비 절감으로 수익률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 공장부지가 크기 때문에 나중에 부동산 가치도 높아질 것이란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김준형 회장은 그 의견을 무시하고 상동에 공장을 설립했다. 상동과 석현동에 목포공업단지가 막 조성되었는데, 당시 목포공업단지 추진위원장을 맡은 이가 김준형 대표이기도 했고, 목포를 연고로 사업을 시작하였기에 향토기업으로서 목포를 떠날 수 없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기도 했다.

“우리 회사에서 시작해서 저쪽 끝 그러니까 현재 새목포제일교회가 있는 땅까지 목포공업단지였어. 1974년 추진위원장이 김준형 회장이었어. 상동 공장을 짓는데 전부다 서울 부근으로 잡시다. 땅장사만 해도, 간부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 하지만 김준형 회장이 ‘어떻게 내가 서울로 가겠냐? 내가 추진위원장인데…….’ 그래 가지고 상동에다 공장을 지었어요. 김준형 그 분은 내가 봤을 때는 훌륭해. 상동에다 공장을 짓고 스톤웨어를 생산했어. 옛날에는 공장은 달아내고(기존 공장에 증축을 했다는 뜻) 그랬는데 상동 스톤웨어 공장은 제대로 지었어. 스톤웨어는 일본사람들이 만들었는데 미국에서 재미를 보고 있었어. 도자기는 생산방식이 비슷하지만 재질이 틀려. 도기가 있고 자기가 있어. 자기는 비싸. 미국 수출하더라도 가격이 높아. 세금도 많아. 관세가 있어. 그런데 도기는 싸구려야. 저질이고. 그것은 관세가 없어. 미국 서민들이 쓰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 애들이 도기와 자기의 중간인 스톤웨어를 만들었어. 도기라고 수출한 후 세금은 안내고 나서 미국시장에서는 자기 행세를 했어.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만들었지.”

1978년에는 석현공장이 설립되었다. 이때는 사상 최대의 호황을 이룬 때였다. 이후 5공장(1985), 행남사 미국사무소(1989), 자카르타사무소(1991)가 설립되었다. 하지만 회사가 어려움에 빠진 적도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플라스틱의 대량생산과 대중화 때문이었다. 플라스틱과 양은, 스테인레스 등은 도자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산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으로 대나무 제품이 사라진 것을 들 수 있다. 다행히 다양한 제품이 후속 출시되지는 않아, 그러한 어려움은 오래가지 않았다.

도자기를 제작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내화벽돌을 이용한 가마가 있기 마련이었다. 다행히 목포에 조선내화 공장이 있어 편리하게 내화벽돌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가마도 처음에는 일본 가마, 나중에는 독일 가마를 수입해 쓰기도 했다. 가마가 길게 설치되어 있다면 입구 쪽과 출구 쪽을 제외한 중간 가운데 부분은 직접 불이 닿는 곳인데, 이곳의 벽돌은 내화벽돌로 질적으로 다른 벽돌이 사용되었다. 초기 가마의 형태에서는 도자기 제품마다 내화갑을 씌워 가마에 넣어 불을 때기도 했다. 하지만 석현 공장을 지을 때는 내화갑 없이 바로 터널에서 지나가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불을 때는 시간이 보통 하루 반이나 이를 걸렸는데, 새로운 방식에서는 몇 시간이면 충분했다. 쾌속 가마인 터널킬른 방식이었다. 독일 기술자들이 만든 것이었다. 하지만 내화벽돌들은 거의 조선내화에서 가져와 사용했다. 이렇듯 조선내화와 행남사는 같은 지역에서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회사였다. 초기 한때는 조선내화가 행남사 보다 규모가 작을 때도 있었다. 조선내화 직원 몇 사람들이 사표를 내고 행남사로 옮겨온 적도 있었다. 하지만 나중에 포항제철이 설립되면서 조선내화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다. 제철 가마는 고열에 견딜 수 있는 터널이 필요한데, 모두 내화벽돌이었고, 그 안의 벽돌들은 매일 매일 새 벽돌로 교체되었다. 그러다가 광양제철이 준공되면서 조선내화공장이 광양으로 이전하게 된다. 목포에서 내화벽돌을 운송하기에는 너무 멀었기 때문이다.

김준형 회장은 직원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여러 가지 복지사업도 진행했는데, 그중 하나가 행남학원을 운영한 것이다. 공장 직원들 중에는 중학교만 졸업한 경우가 많았는데,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도록 배려해 주었다. 비용은 물론 무료였다. 행남학원은 1965년부터 1983년까지 운영되면서 5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노회웅은 행남학원이 새 학기를 시작할 때마다 방문해 학생들을 격려해 주거나 회사의 기본 정신을 특강 형식으로 강의한 경험이 있다. 그 외에도 목포여상고에 특별 학급을 개설해 회사에서 퇴근하는 직원들을 회사버스로 태워주며 못다 한 학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었다.

행남사 공장이 목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김준형 회장의 확고한 애향심과 달리, 모디(MODIH) 공장도 회사가 경기도 여주에 설립된 일화도 있다. 행남자기의 도자기 공장만 해도 목포시내에 5개가 되고, 사원들만 2,200명이 되었다. 이렇게 5개의 공장을 따로따로 관리하다 보니 관리비와 간접비 등에 낭비가 많았다. 그래서 이를 한 데 모아 대불공단으로 이전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난관에 봉착했다. 대불공단에서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품고급화를 추진하기 위

해서는 가마연료가 순수해야 하므로 당시 목포에 있는 공장들도 가스 가마로 점진적인 교체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인데, 공단에서는 행남사 스스로 도시가스 배관 공급설비를 갖춰 가스를 사용하라고 했다. 회사는 하구연을 넘어가는 가스배관설비 비용이 공장 이전 비용에 못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주저했다. 이때 경기도 여주군에서 모든 부대설비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해 왔다. 이런 이유로 모디공장이 여주군 점동면 소재의 여주지방공단으로 독점 입주하게 됐다.

한편, 행남사를 행남자기로 명칭을 바꾸게 된 이유도 재미있다. 1994년 사명 행남사를 행남자기로 바꾸었다. 당시 목포를 방문하는 타 지역 사람들이 공장견학을 하는데, 간혹 깜짝 놀라면서 ‘절인 줄 알았는데 웬 공장이나’고 놀라는 경우가 있었다. ‘유달산 등반, 행남사 방문’이라는 여행 스케줄을 보고 분명 유달산 기슭의 절로 착각한 탓이다. 이외에도 출판사인 줄 알았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기업이 회사명을 통해 홍보가치를 높이는데, 거꾸로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아 1994년 회사명을 ‘행남사’에서 ‘행남자기’로 바꿨다.

또 본차이나만 전문 생산하는 세계 최대, 최고인 ‘주식회사 모디’는 행남이 탈바꿈하는 혁신의 모습을 보이자는 뜻으로 ‘MODIFIED HAENGNAM’의 약어인 MODIH 즉 ‘모디’로 작명하여 국내외에서 활용하고 있다.

5. 신앙생활로 행복한 삶

노희웅은 1989년부터 장로직분을 맡아 목포제일교회에서 봉직해 왔으며 2014년부터는 원로장로로 봉사하고 있다. 2013년에는 『목포제일교회 창립60년사』 편찬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회사의 중책을 맡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흐트러짐 없이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도자기 회사는 가마를 잘 만들어 질 좋은 도자기를 생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도공의 정성어린 마음이 중요하기 마련인데, 이것이 민속의례의 하나인 제의(祭儀)로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었다. 현대식 공장이지만, 옛 도공들이 정성을 모아 제사를 지내듯 행남사도 공장을 지을 때면 상량식을 거행하고, 가마를 짓고 첫 번째 불을 붙이는 ‘화입식(火入式)’에 대규모의 제의를 지내는 일이 자연스러웠다. 이처럼 전통적인 도공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각자의 정성을 모으는 일이기도 하고, 사업이 번창하게 되는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물론 기독교도인 그도 이런 일련의 의례들을 미신이라고 치부만 하지는 않았다. 큰 틀 안에서 인정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을 뿐이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들이 정성을 모으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나는 내 방식대로 하면서 정성을 모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스스로 자위하기도 했다. 종교학자인 엘리아데의 말대로 ‘종교적 경험을 가진 인간에게는 모든 자연이 우주적 신성성으로 계시 된다’는 것을 이미 깨달은 것이다. 회사



그림 5 행남사 창립 58주년 기념식에 김준형 회장과 함께 참석한 노희웅

일을 하다보면 바이어를 접대하거나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술도 마시기 마련인데, 그는 현명하게 잘 대처해 왔다. 무엇보다 술을 좋아하고, ‘말술’을 마시는 김준형 회장을 보필하면서도 술 강요를 받지 않고 지낸 것은 고마운 일이었다.

“하루는 기관장들 법원장과 판사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나와 총무부장이 김준형 회장님을 모시고 참석했어. 그런데 김 회장님이 갑자기 ‘며칠 후~, 며칠 후~’ 라는 찬송가를 부르시더라고. 주위에서 된 일인가 했지. 그런데 이렇게 말하시더라고. ‘나는 이 술을 좋아하는데 이 친구(노희웅)는 저쪽 주님을 좋아한다’고. 이해하시라는 말이지. 또, 내가 건배 시늉만 하느라고 입을 대고 1/4정도 홀짝 마시니까 ‘어, 이 친구가 술을 하네?’ 그러시기도 했지. 평소 김준형 회장은 대접으로 소주를 가득 채워 가지고 꿀떡꿀떡 냉수 마시듯이 마시는데, 그것을 상대한테 주고, 그 옆 사람한테도 주면서 10명 정도는 쉽게 상대해 부러. 엄청나게 술을 드셨어. 옛날에 시장들이 장관이 내려오잖아. 그럼 식사 자리에 ‘회장님 오셔서 같이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 그러면 김 회장님이 장관하고 마시면서 술잔을 돌려 부러. 그러면 다 기절하듯이 돼 부러. 그러면 시장이 해방되는 거야. 언젠가 전두환 대통령

때 국회 사무총장인가 누가 와서 광주까지 가서 마셨는데, 술을 어찌나 먹었는지 다음날 광주에 있는 신문사들 기자회견이 취소된 적도 있었어.”

그는 이렇게 배려를 받으면서 김준형 회장과 후임 김용주 회장에게도 믿음을 얻었다. 김용주 회장은 미국에서 유학 중에 크리스천으로 교회에 다닌 경험이 있어 충분히 이해해 주었기 때문이다. 뒷간에 있는 공장 준공식을 할 때였다. 이때도 가마가 중요하니까 제사를 지내는데, 김용주 회장이 그 의례와 별도로 그를 불러 ‘먼저 가서 기도 좀 하고 오라’고 할 정도였다. 그 외에도 1986년 행남사기술 연구소를 준공할 때는 김용주 회장 지시로 회사 차원에서 공식적인 준공기념예배를 드리기도 했다. 회사 책임자가 직원들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해 준 것은 당시 특별하고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는 지금도 그 사실에 대해 깊은 고마움을 갖고 있다. 노희웅은 2014년 부회장직을 퇴임했다.

노희웅의 퇴임 후인 2015년 행남자기는 10여개의 계열사 중 주력기업의 하나인 (주)행남자기의 상장주식 200억 원 어치를 매각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2000년대에 들어 도자기 수요가 대폭 준데다 중국산 저가 제품 때문에 시장에서 수요가 줄면서 나타난 고육지책이었다. 이로써 73년의 역사를 가진 국내 도자기업체의 선도기업인 행남자기 일부는 주인이 바뀌게 된다. ‘행남자기’의 상호도 ‘행남 생활건강’으로 바뀌었다. 물론 여타 계열사는 그대로 남아있다.

김경완 | 신안문화원 사무국장

제3절 목포 육상운수업의 역사

-목포 택시업의 산증인, 정해술(남, 1934년생)-

지정학상으로 목포는 국도 1, 2호선의 기점⁰¹⁾으로 호남선의 마지막 종착역인 목포역이 1913년 준공됨과 동시에 목포-학교 간이 개통된다. 이후 목포-대전 간 호남선 철도가 1914년 개통되면서 일로·몽탄·함평·나주·광주에 이르기까지 사람과 화물을 실어 나르는 주요 교통수단이 되었다.

동목포역⁰²⁾은 1970~1980년대 몽탄역과 일로역에서 기차를 타고 목포로 통학했던 학생들의 발이 되어 주었던 ‘통학열차’가 운행되면서 절정기인 1980년대에는 한때 목포역보다 하루 이용객수가 훨씬 많았다.

열차가 시외지역으로의 운송을 담당하였다면, 택시는 시내권의 운송을 담당하였던 대표적인 교통수단이다. 아직 버스가 대중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주로 택시가 육상 운송을 담당했고, 비싼 요금 때문에 일반인이 이용하기 보다는 지역의 유지급들의 이용이 많은 편이었다.

우리나라 택시는 1912년 서울에서 시간제로 임대 영업을 시작한 것이 시초이며, 이때가 우리나라 운송사업의 출발점이다. 최초의 택시회사는 1919년 일본인 노무라 겐조의 ‘경성택시회사’이며 1921년에는 한국인 조봉승이 최초로 ‘종로택시회사’를 설립하였다. 본격적인 승용차 택시운송업이 시작된 것은 1962년 일본에서 ‘새나라’ 자동차를 수입하고, 이어 부평에 새나라자동차공장을 가동하면서 부터이다.

목포에 택시운송회사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이다. 목포항을 통하여 들어온 여객 및 물자 운송은 대부분 기차로 이루어졌으나, 1966년 신의주-목포 구간인 현재의 1번국도가 들어서면서 육로의 운송이 활발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목포에서도 대중교통인 버스가 들어오기 전인 1960년 말 택시가 먼저 운행되었고, 당시 택시요금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따라서 버스가 운행되기 전까지 일반시민들은 대부분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하고, 등짐이나 리어카를 이용하여 물건을 운반하였다. 1970년대 들어서 버스가 운행되면서 시민의 발이 되었다.

목포에 소재한 ‘한국택시’의 관리자로 일했던 정해술을 통해 목포의 대중교통의 역사를 알아본다.

01) 국도 1호선은 2013년 목포대교 개통으로 총무동 고하도로 기점을 옮기면서 939.1km에서 943.37km로 4.27km가 연장되었고, 목포에서 부산을 연결하는 국도2호선의 기점도 2001년 신안군의 장산면 오음리로 변경되면서 97.65km가 늘어난 475.08km이 되었다. 현재는 국도 1, 2호선의 기점이 아니어서 기점표지석은 철거되었고, 기념석만 남아있다.

02) 동목포역은 목포시 용당동에 위치하였으며, 역 출입구의 폭(50cm 가량)이 가장 좁은 역으로도 유명하였으나, 2003년 임성리-목포 구간 선로 이설로 폐역되었다.

1934년생인 정해술은 1940년 사업을 하던 아버지를 따라 일본 오사카로 갔다가 해방이 되자 한국으로 돌아왔다. 신문지국 사무를 거쳐 1965년 목포 한국택시의 경리부에 취직하여 1976년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정해술을 통해 당시 택시이용객들의 특징과 교통수단이 발달하기 전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1. 일본 오사카의 유년시절과 목포상업중학교 시절

“실제 나이는 여든네 살인데, 호적상으로는 37년생으로 되어 있어요. 태어난 곳은 무안 청계면 구로리에서 태어났어요. 청계면 구로리에서 살다가 일곱 살에 일본에 갔다가 해방되서 한국왔어요. 아버님이 그 때 일본에 먼저 가서 사업하고 계셨고 엄마하고 누나하고 같이 나중에 들어갔어요. 1940년에 일본 오사카를 가서 거기서 4학년까지 다니다가 45년 해방이 돼서 전 부 한국으로 나왔죠. 일본에서는 뚜렷한 기억은 없지만 부족한 것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니다가 해방되니까 아버지와 식구들이 모두 한국으로 돌아왔지요.



그림 1 목포공립상업중학교 동창이었던 인간문화재 박병천의 전주공연 후 기념사진(뒷줄 왼쪽 두 번째가 정해술, 여섯 번째가 박병천)

그때 목포 왔던 기억이 나요. 해방되서 일본에서 나왔을 때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와서 목포역에 내렸어요. 그때 목포역전 앞에 현대여관이라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같이 현대여관에서 자고 다음날 청계 구로리로 왔죠. 다시 구로리에서 청계중앙국민학교 5학년에 편입해서 다녔죠. 졸업하고 목포공립상업중학교에 들어갔어요. 나중에 제일고로 바뀌고 다시 목포상고로 되고 여러 번 변경되었죠. 처음엔 중학교만 있었는데 학제 개편되면서 바뀌었제. 목포공립상업중학교 우리가 32회 졸업생이여. 박병천⁰³⁾도 목상중 동기여. 인간문화재인데 우리 중학교 동기거든. 전주에서 공연할 때 오라고 해서 전주까지도 갔었어요. 3학년 내내 같이 다녔어.”

목포공립상업중학교 재학 시절 6·25전쟁이 발발했으며, 좌파성향을 갖고 있던 상급생들을 쫓아

03) 박병천(1933~2007)은 전남 진도출생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72호 '진도씻김굿' 기능 보유자였다.

학교 안까지 경찰들이 잡으러 오는 등 어수선했던 상황에서 학교 휴교로 인해 정해술은 본가인 청계에 머물러 있었다. 당시 학교 건물이 전쟁 통에 불이 나서 타버렸다고 한다. 이후 1951년 학제 개편으로 상업중학교 1·2·3학년은 목포제일중학교로 분리되었고, 4·5·6학년은 목포공립상업학교로 존속하게 되었는데, 정해술은 상업중학교만 마치고 서울로 상경했다.

“누나가 목포에 계셔서 누나집에서 학교를 다녔제. 대성동.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던 데가 주로 대성동 이쪽이었제. 그쪽이 변화했으니까. 그리고 6·25를 목포에서 겪었죠. 상업중학교 다닐 때. 그 때 상업 중학교가 이북 머리 쓴 사람들이 많았어요. 좌파가 많았다 그말이에요. 아니 학생들이 그런 공부를 많이 했죠. 상업중학교가 6학년제였으니까 주로 상급생들이 그쪽에 머리를 많이 썼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전투경찰들이 학생들 잡으러 추적하고 학교 내로 들어오고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 용당동에 기름탱크가 있었는데, 말하자면 용당동 건너편에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고향도 쪽에 그쪽으로 연료저장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6·25 때 폭격을 했어요. 저도 목격했어요. 6·25때 학교도 휴교 됐었어요. 그 때는 목포에 안 있고 시골에 가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목포상업학교에 불이 나고 그랬죠. 6·25때. 학교가 타버렸는디 건물 뼈대는 왜놈들이 지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 후로 실내만 수리했지.

그러다가 목포공립상업중학교 3학년까지만 졸업하고 서울로 갔죠. 서울로 가게 된 동기가 전쟁 후라 목포가 불안하고 그러니까, 큰 도시로 가야겠다고 해서 갔어요. 고등학교는 진학안하고. 사촌들이 서울에서 학교 다닌 사람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서울 가서 장사를 이것저것 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신문지국에 들어갔어요. 신문보급소에서 일을 했죠. 그 당시에는 신문 발행을 많이 하고 많이 볼 때니까. 시골에서 올라온 애들은 마땅한 기술이나 일이 없으니 거의 신문배달을 많이 했죠. 신문보급소 관리를 하고 서울에서 7~8년 있었을까. 그리고 군대 가서 제대하고 다시 목포로 내려왔어요.”

2. 1965년, 목포 한국택시에 취업하다

서울로 상경했던 정해술은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신문사 지국에서 근무하였고, 당시 서울 시내에서 영업하는 택시를 보게 된다. 1950년대에 미군의 지프차를 개조해 만든 시발자동차를 영업용 택시로 이용한 ‘시발택시’가 인기몰이를 하였고, 목포에서 기차로 상경했던 정해술 역시 시발택시가 서울 한복판을 운행하던 것을 지켜보았다. 이후 1962년 새나라자동차 공장이 가동되면서 본격적인 승용차 택시운송업이 시작되었다. 이때 운송업계의 경영 방식은 지입제라는 변칙적인 방식이 주로 이뤄져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되었고, 당국은 이를 막기 위해 1960년 차주신고제를

공고했으며 기업화를 유도하였다. 그리고 1965년엔 운수사업체의 기업화 촉진과 부실업체의 정비를 단행해 기업화의 기틀을 잡았다. 목포도 이 시기를 전후해 택시운수사업체가 생겨났으며, 목포·삼학·한국택시 등 세 군데의 회사가 영업을 시작하였다.

정해술은 요금이 비싸서 택시를 직접 타보지는 못했지만, 자전거보다 빠른 시간 안에 목적지에 실어다 주는 택시를 동경하게 되었다.

“제가 군 제대하고 목포 왔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특별한 교통수단이 없었어요. 리어카나 구루마가 전부였제. 섬에서 나올 때는 배타고 큰 도시로 갈라면 기차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걸어 탔고 그랬죠. 짐은 우마차에 싣고 다니던 우마차 시대였고. 보통 자전거 뒤에 짐 싣고 탔죠. 짐 자전거로 화물 실어 날랐거든. 거기다 쌀도 싣고, 사람도 싣고 탔죠. 자전거로 주로 이동했어요. 그때만 해도 지게꾼이 있던 그런 시대라.

그리고 내가 1965년도에 목포 한국택시에 입사했어요. 그 당시에 목포에 택시회사가 세 군데 있었거든요. 그때 한국택시 말고 삼학택시, 목포택시가 있었어요. 그 당시 한국택시는 사장이 김남순 씨였어요. 한국택시는 그 전에 마성철 씨라고 그 분이 원조였어요. 그분이 목포에서 택시업을 처음하신 분이었죠. 마성철 씨가 한국택시를 운영하다가 김남순 씨에게 팔았어요. 명의는 김남순씨가 대표로 되어 있었지만, 원 명의자는 박경남 씨예요. 형제금속공업사라고 사장이었죠. 그 당시 한국택시 주주들이 말하자면 형제금속 사장인 박경남 씨하고 광병문 변호사, 전남석유라고 있었는데 거기 김흥기 씨도 주주고, 대창석유 대표도 주주였죠. 한국택시 주주들이 짹짹했죠.”

군 제대 후 목포로 다시 내려온 정해술은 신문보급소 관리 경험을 살려 유한회사인 한국택시에 지원하여 입사한다. 그때가 1965년이다. 서울에서 택시를 목격하고 동경했던 정해술은 목포에 택시회사가 문을 열자 바로 관리직으로 들어가게 된다. 당시 한국택시는 형제금속과 전남석유, 대창석유회사 등 경영진들이 주주로 참여하여 만들어진 유한회사였으며, 정해술은 택시기사들의 사납금을 관리하는 경리부에 입사한다.

정해술이 한국택시에 입사할 당시, 목포에 택시운수업을 하던 회사는 삼학택시와 목포택시가 있었다. 당시의 통행수단은 기차를 중심으로 리어카와 자전거로 이루어지거나, 대부분 도보로 다니던 시절이었다. 택시를 이용하는 고객층은 주로 목포의 거물급 인사들이었다. 택시요금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어쨌든 당시의 대중교통수단은 택시였으며, 목포에서 시내버스가 본격적으로 운행되기 시작한 것은 태원여객이 설립(1966년)되고도 한참 뒤였다.

“제가 한국택시에 경리로 들어갔을 때, 그 당시 택시는 맨 처음 기종이 주로 미제 시보레하고 포니였어요. 그때 우리 회사에 ‘0703, 0610, 0766, 0809, 0450, 1320, 1207, 1281번’이 있었어요. 이게 택시 넘버거든요. 택시도 번호가 있었는데 한국택시는 ‘703’하면 ‘1호차’, ‘610’하면 ‘2호차’ 그랬죠. 우리 회사에 택시가 열두 대 정도 있었어요. 기사들이 한국택시에 고용된 거죠. 그때 한국택시는 유한회사였거든요.

한국·삼학·목포택시 중에서 우리 한국택시가 잘됐어요. 목포택시는 차 한 대인가 두 대밖에 없었고, 삼학택시가 향도일보⁰⁴⁾라고 김충신 씨가 삼학택시 사장을 같이 했거든요. 삼학택시 거기도 일곱, 여덟 대 밖에 없었어요. 목포에 택시가 총 스무 대 정도 있었는데 절반 이상이 우리 택시였죠. 그 때는 버스가 없었으니까요. 택시가 먼저 들어왔었죠.

60년대 중반에 목포에 차가 20~30대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가용은 있지도 않았어요. 있다는 것이 삼남운수에서 화물차가 두 대 있었어요. 삼남운수는 개인회사였고 그 당시에는 운수회사가 있지도 않았어요. 버스도 나중에 들어왔으니까.”

무엇보다 자가용 승용차 소유자가 현저하게 적었기 때문에 1960년대에는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이었다. 택시회사의 고유 전화번호를 통해 이용객이 택시를 부르면 이용객 집 앞으로 태우러 와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방식이었다. 한국택시는 타 회사보다 더 많은 택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목포 시내에 전용전화를 비치해서 이용객들이 택시를 쉽게 이용하도록 했다.

“그 당시의 택시기사들은 월급제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했죠. 그 때는 지금이랑 달라서 손님이 부르면 가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전화가 오면 가요. 쉬고 있다가 뒷개 동광고등학교⁰⁵⁾에서 부른다 하면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 당시는 택시를 전화로 불렀거든. 한국택시 전화번호가 15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를 ‘15번 택시’ 회사라고도 했어. 사무실로 전화가 걸려오면 가는 거예요. 삼학택시는 700번, 목포택시는 14번. 손님이 택시회사에 전화를 하면 택시가 그리 가는 거죠.

집집마다 전화기도 없던 시절이라 택시회사에서 전용전화를 놔주는 거요.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택시는 주주들이 재력이 많으니까 시내 군데군데에다가 전용전화를 한 대씩 놔줬어요. 손님이 와서

04) 1956년 조희관이 발행한 『주간향도』를 인수한 김충신은 제호를 『향도주보』로 바꾸었다가 1961년 폐간했고, 3년 후 『신한경제신보』를 창간·폐간하였고, 다시 1989년 『호남신문』을 창간하였다.

05) 1947년 동광학원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동광고등학교는 1976년 권이담 이사장이 동광학원을 인수 후 학교법인 흥일학원을 설립하고 흥일고등학교로 개명하였다.

쓰게끔 그 전화를 쓰게끔 운영을 했어요. 서산동 약국에다가 택시 전용 전화를 놓고 쓰게끔 했죠. 우리 회사가 역전파출소 옆에 있었는데, 이 역전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으로는 명신상회라고 옛날 철도 건널목 그 근방. 뒷개 쪽으로 가서는 행남사에서 쪽 가서 삼거리였어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고, 한약 방이었어. 이 세 군데에 한국택시에서 전화기를 설치해놔서, 손님이 전화로 부르는거여. 15번 눌러서 택시를 부르면 택시기사가 거기까지 가서 사람을 태우고 목적지에다 데려다 주죠.”

3. 택시의 주요 고객층이었던 목포 유지들

당시 목포의 교통수단으로는 자가용 한 대, 화물차 두 대가 운행되었고, 운송회사에서 보유한 택시 20대 정도가 운행되는 게 전부였다. 택시요금이 비쌌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이용할 엄두를 못 냈고, 목포 지역의 유지로 통하던 상공업 대표 임원들이 주 고객층이었다.

“주로 많이 택시 이용하셨던 분들이 내화공장, 행남사, 보해양조 사장들, 이분들이 주로 시내에 나올 때 이용을 많이 했어요. 택시 타는 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아무나 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택시를 타는 사람들은 주로 말하자면 남양어망, 행남사, 보해라든지 시내에서 이름 꽤나 알려진 사람들이 났죠. 그 때 목포에 자가용은 김문옥 씨라고 『목포일보』⁰⁶⁾ 사장, 국회의원도 하고 남진 씨 아버지인 그 양반 자가용이 딱 한 대 있었어요. 나머지는 주로 택시를 이용을 했지요. 행남사 김준형, 조선내화 이훈동, 보해 임광행, 남양 홍순기 이런 분이 주요 고객이었죠. 그리고 현재 우체국자리에 있던 평화성냥공장 김행기 씨, 남일극장 김 사장이었죠.”

1960년대 말 목포는 중심시가지가 확대된 시기였지만 상동·옥암동·연산동 일대는 개발 전이었기 때문에 생활공간은 죽교동·대성동·산정동·용당동 일대에 한정되어 있었다. 목포 시내는 그리 넓지 않았으므로 택시 운행도 주로 구도심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신호등도 없었다. 주유소도 따로 없었는데, 당시 택시의 연료는 가솔린으로 운전자가 직접 주유할 수 없었고 석유회사에서 사다가 공급을 해야 했다.

도로운송이 발달되지 않은 시절이라 시외지역을 다닐 때는 대중교통 수단인 기차를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목포역전 주변으로 발전되었다. 목포역 주변에는 늘 짐꾼들과 행인들로 북적였다. 기차 도착

06) 1945년 10월 19일 일제 강점기 당시의 『목포신보』를 『목포일보』로 개제, 속간하였다. 발행인으로 손수검·문재철·김진철·김문옥 등을 거쳐 1965년 1월 1일 『호남매일』로 개제하였지만, 1973년에 경영난으로 폐간되었다.

시간에 맞춰 광주, 나주 등 시외로 가는 버스가 목포역 앞에 대기하였다가 손님을 이송하였다.

“예전에는 내비같은 것이 필요가 없었지요. 택시기사들이 지금같은 내비게이션을 볼 필요가 없지요. 목포 길은 뻔하니까 다 알지요. 목포시내는 작았으니까. 한두 군데만 알면 되죠. 그 당시에는 목포에 거의 지금의 신도시나 하당 이쪽들은 생기기 전이니까. 명절 때 산소 가잖아요. 그때는 거기 석현동이 공동묘지였어요. 옥암동 공동묘지하고. 지금 상동터미널 있는데 호반리젠시빌 그 일대가 전부 석현동 공동묘지였어요. 옥암동 공동묘지는 동부레미콘 있고, 동양공업사 있는 곳 거기가 옥암동 공동묘지였죠. 산소가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아파트 자리가 다 묘지였던거지. 그만큼 목포가 좁았던 거지. 시내 밖으로는 다 개발되기 전이라. 예전에는 터미널도 MBC자리에 있었죠. 그러다가 상동으로 터미널이 옮기고 MBC가 들어선 거죠.”⁰⁷⁾

목포에는 그 당시에 도로가 많이 발달 안했으니까 목포역을 기준으로 해서 서산동 내화공장 있는데, 지금 어민동산 있는 곳까지가 한 구간이었고. 제수당약국이라고 해서 연동, 옛날 건널목 산정국 민학교 못 가서 건널목 거기까지가 한 구간. 그러고 옛날 보해양조장까지. 거기까지가 목포 끝으로 보면 되제.

그 당시에는 주유소가 따로 없었어요. 택시회사에서 드럼통으로 기름을 사와서 보관해놓고 펌프로 뽑아서 택시에 넣고 그랬죠. 그 때는 주유소가 따로 있지도 않았어. 그것도 한국택시나 되니까 주주들이 짹짹해서 드럼통에다 사다놓고 쓰고 그랬죠. 나머지 회사는 점포에서 그때그때 사다 넣고 그랬어요. 기름 파는 석유회사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조금씩 사다가 넣는 거예요. 지금 같은 LPG가 아니라 그때는 택시도 깨소린(가솔린)을 넣었거든.



그림 2 2017 목포항구축제에 전시되었던 포니택시



그림 3 최초의 택시인 시발 택시(1961년)

07) 목포종합버스터미널은 1983년 지금의 MBC 부근에서 상동으로 이전하여 완공(4,466㎡)되었다.

택시는 중간에 기름이 떨어질 일은 별로 없었죠. 그때만 해도 택시가 계속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번 손님 싣고 갔다가 내려주고 다시 돌아와서 회사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이동거리를 봐서 사무실에서 적당히 더 넣고 그랬죠.

60~70년대만 해도 기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았죠. 그 때는 기차밖에는 없었으니까 교통수단이. 그 당시 광주여객하고 금성여객이 역전 건너편에 있었어요. 지금 별다방 자리가 광주여객하고 금성여객하고 두 시외버스 회사가 있었어요. 그게 무안, 나주, 광주로 가는 시외버스였어요. 그 당시엔 광주로 가는 사람이 별로 없었으니까. 버스 한두 대 놓고 운행했으니까.”

4. 택시회사의 위기

당시 법인택시 구조는 월급제형식이었다. 택시회사의 기사는 그 수익을 모두 회사에 납부하고 월급 형식으로 임금을 받았는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기사들이 수익금을 제대로 회사에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적자구조를 면치 못했다고 한다. 합승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기 때문에 택시회사에서는 고가의 유류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보통 택시를 부르면 본사 사무실에 있다가 손님을 태우러 가거든요. 그러든 가는 방향에 손님이 있으면 태워갖고 가는 거예요. 본래는 빈차로 거기까지 가서 손님을 태워다 내려줘야 되는데, 빈차로 가다가 중간에 다른 손님이 있으면 태우게 되는 거라. 뒷개 다리에서 차를 부른다면, 여기서 빈차로 거기까지 가다가 중간에 손님이 타기도 하니까, 그러든 가는 요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원칙은 거기서 불렀던 손님께 입금하고, 여기서 가다가 중간에 번 돈을 또 입금을 해야 되는데 안 해버리는 거여. 중간에 태운 것은 입금을 안 해. 사무실 전화로 부른 것이 아니라 그냥 가는 길에 태운 거라 그 돈을 사무실에 안내요. 누가 본 사람이 없고 호출 안하고 그냥 태운 거니까.

나중에 그런 게 너무 심해지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사람을 사가지고 중간에 세워나요. 그래서 그 손님을 태우고 택시기사가 돈을 입금을 하는지를 보는 거여. 일종의 시험을 하는 거지. 거짓말을 하는지 안하는지. 예를 들면 조선내화공장에서 부른다고 하면 한 200~300m 가서 우리가 손님을 사서 택시를 타보게 하는 거예요. 내화공장에서는 손님이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가는 손님을 일부러 세워놔다가 태우게 해요. 그래서 거기서 내리고 내화공장에 가서 진짜 손님 태우고 와서 얼마를 입금하는지를 보는 거여. 가능하면 해고는 안 시킬려고 유도심문을 해봐요. 입금을 받을 때도 중 있었는지 물어보는 거여. 도중 손님 있었으면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보통들은 얘기를 안 하니까 그 돈이 개인 호주머니에 다 들어가 버리니까 적자가 나는 거여.

택시업이 한참 잘 될 때는 회사가 운영이 잘 됐죠. 회사에서 월급을 줘야 되는데 차츰 임금에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차츰 제도가 생긴 거죠. 기사들이 워낙 현금을 많이 만지는 일이다보니까 이걸 개인들 본인이 할 사업이다라고 본 거죠. 회사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적자다. 그래서 지입제도가 생긴 거죠. 택시기사들이 요금을 제대로 회사에 납부를 안 하니까 회사가 어려워진 거야.”

본격적인 택시운송업이 시작되었지만 당시 경영 방식은 기사를 고용하여 월급을 주는 월급제였기 때문에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차츰 지입제⁰⁸⁾라는 변칙적인 방식이 주로 이뤄지게 되었다.⁰⁹⁾ 급여를 받는 택시기사들이 수익금(택시요금)을 제대로 회사에 입금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자 택시업계는 지입제 형식으로 바꾸고 사납금을 납부토록 했다.

“한국택시에 입사를 65년에 했는데 70년대부터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택시업이 안 되니까 지금의 개인택시처럼 차를 한국택시 기사들한테 명의를 줘버렸어요. 이 택시업은 본인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택시는 전부 현금을 다루니까 관리가 어려워요. 그 당시 말하자면 기사들이 얼마씩을 챙겨버리니까 회사 운영이 안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개인택시가 생긴거예요.



그림 4 인터뷰 중 앨범을 보며 한국택시 근무 시절을 회상하는 정해술

08) 「여객운송사업법」에서 지입제한 택시기사가 법인 택시를 구입해 등록한 뒤 회사에 소정의 금액을 입금하고 임금은 받지 않는 형태를 일컫는다. 지입제는 택시운행 허가를 얻은 회사가 법인명의로 면허를 팔아 개인차주를 받아들이는 제도로 현행 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09) 당국은 이를 막기 위해 1960년 차주신고제를 통해 기업화를 유도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1975년 택시의 현행 지입회사제를 개인택시제와 같이 개인면허제로 바꾸었다.

그 때는 차출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명의를 줘버렸죠. 명의 줘버린지는 73년도 쯤일 거예요. 한 10년 남짓 유한회사를 운영하다가 나중에 명의를 택시기사들한테 넘겨버렸어요.

저도 한국택시 사장인 박경남 씨가 손 떴 이후로 같이 그만뒀죠. 75~76년 되었을까. 73년도부터 택시업이 안되기 시작해서 76년도쯤에 박경남 씨가 그만두면서 같이 그만둔 거죠. 한국택시회사 자리가 지금 코오롱스포츠, 역전파출소 그 옆 자리였어요. 한국택시 사무소 그걸 허물고 나중에 지금 그 건물을 지은 거죠. 그때 그 건물 지을 때 내가 감독을 맡았어요. 원명의자였던 박경남 씨가 건축주였죠. 나는 한국택시 직원이었으니까 건물 짓는 동안 감독한 거고. 한국택시는 그게 마지막이었죠. 한국택시 그 자리 밀어버리고 건물 짓고 끝난 거여.”

전반적으로 택시운수업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유한회사였던 한국택시도 택시의 명의를 기사들에게 넘기고 문을 닫게 된다. 정해술도 한국택시 사무실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상가건물이 건축되는 것까지를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택시운송업계를 떠나게 된다.

5. 버스의 시대

-버스가 대중의 발이 되다-

교통수단은 고속도로의 개통 및 연륙 등을 통해 육로가 발달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다. 1980년대 들어 소득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은 대중교통보다 개인교통을 더 선호하게 되었다. 특히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자가용과 택시가 급증했다. 그러나 시민의 발이 되어주었던 것은 역시 이용료가 저렴한 버스이다.

대한통운 목포지사와 동아운수 목포지사 등이 있었지만, 목포 시민의 발이 되었던 본격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가 운행된 것은 1966년 태원여객이 설립되고부터이다. 1970년을 전후하여 버스의 시대가 도래 하게 된 것이다. 태원여객은 이장용 씨가 설립한 목포버스운송회사로 계열사로는 유진운수와 무안교통을 두고 있다. 태원여객(현 대표이사 이한철)은 유진운수 소속차량을 포함하여 총 170여 대의 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차고지는 석현동 공단과 삼학도 배차소, 대반동 배차소가 있다. 유진운수는 1988년 설립되었으며, 무안군의 농어촌버스와 좌석버스를 운행하는 무안교통¹⁰⁾과 공동 배차하는 노선이 있다.

10) 현재 무안교통(대표이사 정옥재)의 경영 실권은 태원여객에 있고, 자본 100%를 태원여객 경영진이 소유하고 있다. 과거 태원여객으로부터 분리된 회사다.



그림 5 목포시민의 대중교통수단인 태원여객과 유진운수



그림 6 1994년도의 유진운수



그림 7 태원여객 계열사인 무안교통

“태원여객¹¹⁾은 한참 뒤에 생겼죠. 유진운수하고 태원여객은 한 회사예요. 원래는 아버지가 했고 아들 이한철이가 이어받았죠. 이장용 씨가 창설자예요. 부산에서 버스 구입해서 시작한 것이, 부산에서 버스 한 대 사가지고 와서 처음에 운행을 시작했어요. 버스 한 대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크게 돼서 버스를 여러 대 구입해다가 넣었죠. 목포버스는 태원이 장악했죠.

태원여객이 마이크로버스라고, 현재 상공회의소 자리가 그 때 마이크로버스 회사 자리예요. 70년대 넘어서 버스가 들어왔어요. 우리 택시회사 문 닫기 전에 막 버스 운행이 시작됐어요. 그 때 버스가 상당히 여러 대가 있어서, 노선이 세 개로 분류 되가지고 있었어요. 목포여객도 노선이 세 군데 있었어요. 목포에서 일로로, 뒷개 쪽으로 운행하는 노선이 있었고, 신안비치 쪽으로 가는 노선이 있었고 그래요.

11) 태원여객은 1966년 설립되었고 무안교통과 계열사 관계이고, 유진운수는 같은 회사이다.

처음 버스 나와서는 버스안내양이 있었죠. 안내양이 요금을 받았으니까. 지금처럼 현금 넣는 기계가 있던 게 아니라서 안내양들이 직접 받았죠. 안내양 없어지고 승차권이 나왔을걸요. 지금은 버스카드로 찍고 타기도 하대요. 그때는 학생들이고 누구고 버스밖에 탈 것이 없으니까.

버스가 대중화되면서 사람들이 버스를 더 많이 탔죠. 일단 요금이 싸니까. 택시도 그 뒤로 일반화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버스보다는 요금이 비싸니까. 버스는 노선만 알면 정류소에서 기다리면 오니까 바로 타죠. 택시는 인자 지금도 콜택시가 생겨서 부르면 집 앞까지 오드만요. 그때 한국택시 경리부에 근무했던 사람은 세 명 있었는데 다 죽고 나 혼자만 살아있어요.”

버스의 대중화로 대부분의 시민들은 버스를 이용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제도의 도입으로 서비스가 개선되었다. 또한 도시가 확장되면서 버스 노선도 증설·변경되었고, 좌석버스 제도가 도입되었다. 목포 태원여객은 2000년대 들어서 간선버스, 순환버스, 지선버스가 도입되면서, 현재는 지선버스와 외곽으로 연계되는 버스,¹²⁾ 그리고 5개 구간의 좌석버스¹³⁾가 운행되고 있다. 또한 택시운수업¹⁴⁾의 발전과 함께 현재 목포는 9개의 택시운송 법인이사가 등록되어 있으며, 2016년 카카오택시 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1970년대 버스 전용시대가 도래하였고, 본격적인 자동차 시대를 맞이하였다. 1980년대 소득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은 대중교통보다 개인 교통을 더욱 선호하게 되었는데, 특히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자가용이 급증했다. 1985년을 전후하여 전기는 버스전용시대, 후기는 자가용시대라 불리었다. 당시 마이카 붐 세대로 대중교통보다 개인 교통을 더욱 선호하게 되었던 이유는 개인 저택과 자가용이 새로운 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민들에게는 역시 자가용보다는 버스와 택시가 친근한 대중교통수단이 되어주었다.

이경아 | 목포대학교 도서관화연구원 연구위원

12) 108번(일로읍), 119번(해남 화원면), 130번(압해 송공항)

13) 200번(무안읍), 300번(영암 삼호읍), 500번(영암 독천터미널), 800번(일로읍), 900번(대불역) 등 대략 12분에서 45분 배차 간격으로 운행 중이다.

14) 1960년에 전국 택시가 3,000대였으며, 경제개발의 성공 등으로 영업용 택시가 증가하여 1966년에는 전체 승용차의 47%가 택시였으며, 1970년 이후 국산차가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1976년에는 택시가 전체 승용차의 1/3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1980년대 이후 관광레저의 붐으로 택시의 수가 증가하였다.

제4절 인근 섬주민의 발이 되어 준 목포 해상교통의 길잡이

-목포대흥상사 성기순(남, 1941년생)-

우리나라의 경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는 입지적 여건상 해운과 관련된 산업은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어왔으며 발전해왔다. 목포는 1897년 개항한 도시이며 해방 이전까지 부산, 인천 등과 더불어 한국을 대표하는 3대 항구였다. 목포는 인근 다도해 도서 지역의 모항으로서 여객 및 화물 수송의 역할을 담당해 온 중요한 위치에 서있다. 한국해운조합 목포지부에 소속된 여객회사로는 (주)국제해운, (주)남해고속, (합)목포대흥상사, (유)신안해운, (유)신진해운, (유)정우해운, (주)조양운수, 씨월드고속훼리(주), (유)해진해운, 남신안농업협동조합, 도초농업협동조합, 비금농업협동조합, 그리고 서울 본부에 속한 (주)동양고속훼리 등이 있다. 지역별 선박 보유 현황은 목포·완도지부가 21개 업체 83척(67,510t)으로 인천(8개 업체, 21척, 90,886t)에 이어 두 번째의 규모이다. 목포대흥상사의 성기순을 통해 해방 이후 목포의 해운업에 대해 들어본다.

1. 큰아버지를 따라 자은도에서 목포로

성기순은 1941년 9월 25일 생으로, 신안군 자은면 송산리 출신이다. 부모를 일찍 여윈 그는 큰아버지 밑에서 배우고 자랐다. 일곱 살 즈음에 큰아버지 가족들이 모두 목포로 이주하면서 성기순도 자은을 떠나 목포유달국민학교에 입학한다.

“우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저를 키우셨죠. 큰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하셨고요. 저는 독자죠. 주로 큰집 식구들 속에 묻어서 컸죠. 유달국민학교를 다닐 때 큰아버지 집이 수강동이라고 옛날 유달호텔 부근이에요. 그때 처음으로 섬에서 목포로 나왔죠. 배로 오는데 4시간 걸렸어요. 당시에 남일호가 다녔고, 등청호가 있었어요. 목포에서 비금, 도초, 암태, 자은 이런 데를 다녔죠. 전부 옛날에는 섬 인구가 많지 않아서 남일호라는 배가 30t이었어요. 여객 정원이 100명 정도 인가. 그 배가 목포에서 출발해서 안좌, 팔금, 비금, 도초, 자은, 암태를 경유해서 와요. 그러니까 손님이 많이 없었죠. 하루에 한번 다녔을까. 차를 싣는 것도 아니었고 그 때는 손님만 실었으니까요.”

당시에는 교통이 불편해 육지 나들이가 쉽지 않았다. 대부분 목포 인근의 섬에 거주한 아이들은 육지에 발을 디을 일이 많지 않았으며, 혹여 부모를 따라 나오게 되는 경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선표를 끊지 않고 타는 경우가 흔했다. 성기순도 섬에서 처음으로 배를 타고 육지로 나오게 되는데 당시 어

린 나이에 느낀 목포 선창의 분위기는 다소 엄격했다고 기억한다.

“저도 목포로 이사 오면서 처음 섬에서 육지로 나온거예요. 그 때는 아주 예닐곱 살이니까 세상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다들 생활이 좀 어려웠잖아요. 목포 부두에 내리면 문지기들이 서 있어요. 그거를 ‘지도 본다’고 하거든요. 그 문지기들이 표 검사를 하면서 표 없는 애들을 잡아내죠. 돈이 없으니까 주로 애기들은 표를 안사고 배를 타거든요. 배에서 나올려면 문지기 눈을 피해서 나가야죠. 어떻게 보면 무임인 거죠. 그 사람 문지기가 봐가지고 어쩔 때는 통과되고 어쩔 때는 잡고 그래요. 대충 눈대중으로 어려보이면 통과하고, 나이 들어 보이면 잡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어떤 때는 잡고, 통과되는 식이었죠. 그러니까 무임승차하고 문지기한테 안 들키고 내리면 운이 좋은거죠. 들키면 어쩔 수 없이 표 값을 물어야 되고요. 물론 저도 그랬죠. 대부분 국민학생들은 부모네들이 표를 안 끊고 태웠죠.”

당시의 선박들은 지금처럼 디젤엔진이 나오기 전에는 소구기관(燒球機關)⁰¹⁾이라고 하는 ‘야끼다마(やきだま, 焼[き]玉機関의 준말)’를 단 발동선들이 주종을 이루었다. 이 배들은 엔진 시동을 걸때 화약을 써서 엔진을 가열하여 시동을 걸어야 하는 등 비효율적인 이유로 1970년대 중반부터 디젤엔진이 보급되어 선박에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소구엔진을 사용하던 초기의 선박들은 조류가 센 지점을 향해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여객선이 발동기가 디젤엔진이 아니고 소구발동기라고 하기도 하고 야끼다마라고도 하는 발동기로 다니고 그랬는데. 이 기관 상태가 좋지 않아서 4시간 만에 올 것이 5~6시간 걸려서 도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그리고 물때나 바람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목포 입구 등대 있는 데에 거기가 조류가 굉장히 세요. 그러면 배 속도가 안 나가기 때문에 조류가 8노트 정도 나가는데 배 속도가 6~7노트라고 하면 올라올 수가 없어요. 쇼우 마츠(待つ)라고 기다렸다가 물이 들물에 따라 올라오고 그래서 시간이 5~6시간 걸릴 때가 있죠. 지금은 힘쎈 동력기선이고, 또 영산강, 영암만, 산이만이 방조제로 막혀 있어서 옛날처럼 물살이 세지는 않지만, 당시 목포에서 시아바다로 나가는 길목이 수심이 깊고 폭이 좁아 급물살이었거든요. 좌초 사고가 빈번했죠. 물살이 세서 물때를 맞춰야만 항해에 무리가 없어요. 지금 배들은 그런 영향을 안 받죠. 지금은 그렇게 참 격세지감이죠. 요

01) 소구기관(燒球機關, hot bulb engine)은 선박이 동력화 되면서부터 정착된 초기 선박용 기관으로 화약에 불을 붙여 엔진헤드를 가열시킨 후 시동용 휠을 좌우로 돌려 시동을 걸었으며, 디젤기관이 보급되면서 점차 쇠퇴하였다.

즘 젊은이나 요즘 세대 사람들은 느끼지를 못하죠. 요즘은 속도 위주의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되서 접근성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목포항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위치한 목포구등대(木浦口燈臺)⁰²⁾는 인근해역이 협수로에 조류가 강해서 시아해(時牙海)를 거쳐 목포방면으로 진입하는 어선 및 여객선 등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목포항의 관문인 해남군 화원반도와 마주 보는 목포시 달리도(達里島) 사이의 수로 폭은 약 620m의 협수로이며, 수심은 약 30m 내외로 조속 평균 8노트로서 통항선박의 위험성이 있어 선박안전을 위하여 등대를 설치하였고, 목포항의 선박 통항량 증가와 선박대형화에 따라 1964년 유인등대로 변경되었다. 목포항을 이용하는 여객선이나 어선들이 이 항로를 통해 여러 섬으로 운항하기 때문에 이 협수로를 비추는 불빛은 이 지역의 뱃사람, 섬사람들에게 육지로 통하는 이정표 역할을 해주었다.

특히 시아해는 목포를 벗어나 외해로 나가는 큰 바다의 물살이 세지는 곳으로, 바다 물살이 세기 때문에 이곳을 통과하기 위해선 썰물 때나 밀물 때를 기다려야 했으며, 그래서 물때를 기다리는 섬이 바로 ‘시하도(時下島)’⁰³⁾였다. 시하도는 과거 흑산도와 제주도를 오가던 뱃단배들이 한 숨 쉬어가거나 거센 물살을 피해 잠시 머물던 곳으로 그 당시에는 시하도와 달도, 주광리 선창에 짚불을 놓고 불빛을 따라 노를 저어 육지를 오갔다고 한다. 이렇듯 시아바다는 완도나 진도, 조도, 제주도를 오가는 배들이 해남과 진도 사이의 바다인 울돌목을 지나 목포로 들어오다가 한숨 쉬어가거나 목적지로 향하는 조류를 기다리며 머무른 곳이다.

“유달국민학교를 다니고 목포중학교로 진학했어요. 그때 당시는 중학교를 진학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전부 시험을 쳤어요. 목포중학교에서 360명을 뽑았거든요. 전교생이 보통 730명 정도 됐어요. 상당히 많죠. 목중에서 목고로 들어가는 것은 같은 계열이니까 캠퍼스도 같고 거기서 그대로 올라갔죠. 그때까지는 전부 시험을 봤고 평준화 이것은 거론되지도 않을 때니까요. 우리가 목고를 다닐 때 목중하고 목고를 현재 자리로 옮긴다는 설이 있었죠. 60년대에 목고를 졸업했어요.

02) 목포구등대(木浦口燈臺)는 일본이 본격적인 대륙 진출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1908년 목포항의 관문인 화원반도 끝자락에 축조했다(해남군 화원면 매월리). 건립 당시 높이는 7.2m의 콘크리트로 세운 흰색 원형 무인등대로 운영되다가 1964년 등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유인등대로 바뀌었다. 목포구등대는 섬광주기가 가장 빠른 등대이며, 우리나라 최초로 모터사이렌(6kw)을 설치 운영하였다. 2003년 새로운 목포구등대가 설치된 이후 사용되지 않으며, 2008년 7월 14일 등록문화재 제379호로 지정되었다.

03) 전남 해남군의 화원면 주광리 앞바다에 있는 섬으로, ‘씨아섬’이라고도 한다. 『도서지』에 따르면 “1520년경 진도에서 정씨와 박씨 두 사람이 고기잡이를 하다가 심한 풍랑을 만나 이곳에 처음 정착하였다. 후손들은 선조들이 살았던 곳이라 하여 이 섬에서 밤에 육지와 섬에 불을 밝혀주니 뱃사람들은 조석간만의 차를 이용하여 시각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육지의 마을을 주광리(周光里), 이 섬을 시하도(時下島)라 불렀다고 한다.”는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이처럼 시하도는 ‘섬에 불을 밝혀 시각을 알 수 있게 해준 것’에서 유래하였으며, 관련 지명으로 ‘시하바다’는 여기서 파생된 명칭이다(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 전라·제주편, 2010). 시하도에도 등대가 있다.

그때는 졸업하면 대부분 다 서울로 갔죠. 제가 9회인데 1회 빠른 선배들 중에 정종득씨가 있고 그 래요. 목고 교복 입고 모자 채양 짧게 해서 뺏뺏하게 해가지고 다니면 멋있었죠. 그 때가 낭만적이 었죠.”

2. 군 보충역으로 시작된 목포대흥상사 근무

성기순은 목포중학교와 목포고등학교를 졸업 후 1960년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섬에서 태어나 지방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상경한지 얼마 되지 않아 맞게 된 3·15부정선거와 4·19혁명 (1960), 그리고 5·16군사정변(1961) 등은 성기순을 혼란스럽게 하였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60년에 대학을 갔죠. 동국대학교 상학과로 진학했어요. 요즘의 회계학과죠. 60년대에 올라가서 3·15부정선거, 4·19혁명, 5·16 군사정변을 다 겪었죠. 촌놈이 서울 가서 출세라 기보다는 황당한 일이 많았죠. 격정의 세대를 보냈죠. 졸업하고 군대를 가려고 했어요. 그 때 당시에 는 대학 재학 중에는 입영연기를 하면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영장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졸업시기에 병력인구가 많아가지고 영장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대기자가 많아서. 그래가지고 2년 후부터 제1보 충역이라고 생겼어요. 제가 보충역 1기예요. 군대를 안 갔지만 보충역으로 2,920시간 이수를 마치고 이등병 제대를 했죠. 3년 걸렸죠. 하루에 4시간씩 근무를 했으니까. 보충역 기간요원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똑같이 근무를 하는데, 취업을 하면서 저녁시간에 4시간씩 근무를 하니까 3년간 2,920시간 을 근무를 했죠.”

대학 졸업 후 군 입대를 지원하지만 당시 병력이 남아돌아 바로 입대가 안 되고 보충역⁰⁴⁾으로 빠지 게 된 성기순은 1964년 대학 졸업 후 바로 목포 선박회사에 취직하게 된다. 보충역 신세였기 때문에 직장생활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들 보충역 세대들은 징병종결처분을 받고 제1보충역으로 편입되어 1~2년간 제1보충역 복무를 한 자들로서 이들은 각 지역 예비사단에 입소, 육군신병교육과정과 똑같 은 훈련을 6주간 받고 나와 거주지 예비군지역 중대에서 기간요원으로 3년 안에 2,920시간의 방위 소집에 복무하면 되었다. 교육소집을 마치고 방위소집에 복무하는 동안은 자기 집에서 숙식하며 하 루 약 4시간씩 복무하게 되므로 직장생활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04)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뜻함.

“64년 2월에 졸업을 하고 바로 목포대흥상사에 취직을 했죠. 보충역이라 4시간 복무서고 나머지는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나형빈⁰⁶⁾ 씨라고 돌아가신 회장님이 우리 고모부였어요. 옛날에 남일운수로 시작해서 대흥상사까지 해운업을 계속 해오고 계셨었죠. 남일운수를 인수해서 이 대흥상사까지 하게 된 거죠. 그 때 당시에는 고학력자가 사회에 얼마 없었잖아요. 그래서 고모부님이 내려와야 되겠다. 니가 이것을 맡아줘야 쓰겠다 해서 내려오게 됐죠. 큰아버님도 대흥상사에 같이 근무하셨고. 가족회사였죠. 윗사람들의 명을 거역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포에 눌러 앉게 된 게 지금까지 53년 됐네요.

처음에는 평사원이었죠. 그 당시에 대흥상사는 해안동에 있었어요. 남양수산 뒤에 삼흥정미소 자리에 있었어요. 방조회사인데 사무실이 있었죠. 대흥상사는 주로 여객운송을 중심으로 했어요. 신안 전체요. 안좌, 팔금, 도초, 비금, 자은, 암태, 지도, 흑산 이렇게 8개 면을 돌았죠. 하의·장산 쪽은 안 했어요. 같은 신안인데 항로가 다르니까 회사 자체가 다르죠. 그때는 해상교통이 각 섬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없는 섬은 없고. 그때는 풍선이 주로 다녔고, 교통수단이 빈약했죠. 개별적으로 풍선을 운행하기도 했어요. 그 때 당시는 소득이 낮았잖아요. 그래서 여객선을 탈 수 없는 경우, 자기 부락에서 가까운 데를 풍선이 짐을 싣고 목포에 오거든요. 짐하고 같이 풍선을 타고 오면 10시간도 걸리고 15시간도 걸리고 그랬죠.”

3. 기선과 강선의 등장으로 인한 해상교통의 비약적인 발전

동력을 가진 선박형태로서 기선⁰⁶⁾이 등장하면서 해상교통이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풍선 운행 시 물때와 바람에 의해 돛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위험성은 기선이 등장하면서 다소 해소되었고 육지로의 이동이 훨씬 수월해졌다. 1955년 목포한양기선회사에서 운행한 목포-제주 간 ‘황영호’⁰⁷⁾가 기계식 여객선의 시초라 볼 수 있다. 목포-제주 간 항로는 종래의 격일제 운항에서 1958년부터 한양회사의 ‘황영호’와 ‘한려호’ 여객선이 매일 취항하게 됨으로써

05) 나씨 집안은 목포시에서 신안군이나 완도군 등을 오가며 사람과 짐을 실어 나르는 여객선을 운영하던 선박회사 대흥상사와 남해고속을 경영하였으며, 평화극장도 운영하였다. 합자회사인 목포대흥상사는 1955년 설립되었으며, 여기서 다시 여객선 정기항로 사업면허를 취득하여 1977년 남해고속이 설립되었다. 1980년대까지는 나형빈 회장 뒤로 나광수·나광연이 남해고속 대표를 맡았고, 목포대흥상사는 성용산이 대표를 맡았다.

06) 돛을 가진 작은 범선(帆船)을 돛단배 또는 돛배라고 하고, 기선(汽船)은 증기, 기계력 등을 동력으로 하여 추진하는 배를 통틀어 이르는 말. 돛과 보조용 동력기관을 함께 갖춘 배를 기범선이라 함.

07) 목포-제주 간 정기여객선은 목포한양기선 소속 ‘황영호’와 제주기선 소속 ‘황룡호’(2백 t), 오대양기선회사 소속 ‘경주호’(331t)가 있었다. ‘황영호’는 초창기인 1954년에는 격일제로 운항되었으며 1958년부터 매일 운항하였다. 특히 제주-목포 간 정기여객선 경주호가 침몰 직전에 있을 때 현장 출동하여 승객 전원을 구조했던 일(『동아일보』 1961. 06. 12.)도 있다.



그림 1 부산 영도대교를 지나고 있는 목포대흥상사 소속의 광진호(목포-부산)

교통난이 완화되었고, 섬과 육지의 출입이 자유로워졌다. 뒤이어 1961년부터는 대흑산도에도 하루 한 번 여객선이 왕래하게 되었고, 1963년에는 목포-진도로 가던 정기여객선인 '목포호'가 취항하게 되어 해상교통이 한층 편리해진 셈이다.

“진도 조도는 목선이었던 한일기선 소속 ‘한성호’(68t)가 운항했고, 뒤이어 ‘영진호’와 ‘문화호’가 교대로 다녔어요. 처음에는 목포에서 종착지인 서거차도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무려 9시간 이상 걸렸거든요. 이 한성호가 73년도엔가 침몰했던 사고가 있어요. 당시에 정원 초과에다가 폭풍주의보가 내렸는데 무시하고 무리하게 운항하면서 사고가 났지요. 그러다가 목선에서 강선으로 대체됐죠.

그 당시 대흥상사 초기에는 배 5대를 보유했었죠. 목선이었죠. 30t에서 96t까지 주로 100t 미만이었어요. 이런 배들은 목재로 배를 건조했기 때문에 조선소에서 배를 건조시켜서 가져왔죠. 당시 호남조선소, 목포조선소, 해운조선소, 삼녕조선소 등이 대표적인 조선소들이예요. 이런데서 배를 건조시켜 가지고 와서 목선에 야끼다마를 장착을 한거죠. 이런 배들이 65년도에 디젤엔진으로 바뀝니다. 디젤엔진은 주로 일본에서 수입을 했죠. 야끼다마는 전문용어로 2사이클, 디젤은 4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야끼다마는 회전수가 느리죠. 통통거리니까 진동이 있을 거 아니예요. 디젤은 회전수가 빠르니까 진동이 없고 그래서 더 조용하죠. 멀미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아무래도 디젤이 더 깨끗하죠. 안정성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은 1960년대의 제1·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기간 중에 활기를 띠기 시작하여 목선 건조방식으로부터 강선(鋼船) 건조방식으로 전환했다. 1962년 정부의 제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 아래 선질 개량 3개년계획⁰⁸⁾이 세워져 주로 어선에 사용되던 비효율적인 선박용 소구기관 역시 디젤기관(diesel engine)으로 대체하게 되었다.

당시 성기순도 여객선 안전을 위해 목선에서 강선으로 대체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앞장섰으며, 운항시간을 단축하는데도 노력하였다.

“60년대 말에 정부지원을 받아서 디젤화로 바뀌죠. 정부에서 선질 개량 사업을 지원받아서 대체를 했죠. 그리고 60년대 말부터 70년대에 들어오면서 강선(철선)으로 대체되기 시작했어요. 목선에서 강선으로 선박이 대체가 된거죠. 강선은 주로 부산에서 건조를 했죠. 부산에서 직접 배를 건조해서 가지고 오고. 그리고 중고선도 경비정으로 사용했던 낡은 배들을 사다가 다시 사용하고요. 중고선 박은 서너 배 정도는 싸니까요.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우리나라가 공업화 초기 단계에 있잖아요. 목포 조선소에서도 강선을 만들기 시작해서 여기서 배를 직접 건조하고 그랬죠. 그 당시 목선을 만들던 회사들이 강선을 만들기 시작했죠. 70년 말부터 80년 초까지 전부 강선으로 대체가 됐죠.

그러면서 차도선으로 자동차도 실을 수 있는 선박이 한두 척씩 건조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차도선 건조를 해가지고 입자에서 지도 다니는 곳에 빌려줬었죠. 그때는 차가 많이 없었으니까 서너 대 정도 실었죠. 80년대 중반 이후에 항만청에서 여객선 1차 현대화 사업을 추진을 했어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아주 낮잖아요. 70~80년대 초까지 여객선을 우수한 여객선을 확보하는 데, 사업자들을 어렵게 한 것이 뭐냐면 투자에 따른 수입이 증가가 되어야 될 것인데 운임이 낮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운임보다도 3배를 더 받을 수 있게 특혜를 줬어요. 운임이 시원스러웠죠. 그래서 여객선 현대화, 다시 말해서 속도가 빠른 쾌속선, 대형 카훼리 이렇게 선박이 교체가 되기 시작한거죠. 차도선도 있지만 카훼리호가 들어섰어요. 차도선은 80년도만 해도 규모가 작았어요. 지금은 차가 많으니까 엄청 크잖아요. 그때는 승용차보다는 화물차 위주였죠.”

기선이 등장하면서 해상교통은 비약적인 발전을 했으며, 이어서 목선에서 강선으로 대체되면서 본격적인 여객선 현대화사업이 진행되었다. 쾌속선과 차도선이 도입되면서 관광객과 도서 지역 주민의

08) 1964년에 정부는 자금 사정이 극히 곤란한 상황에서도 수산 개발, 선질 개량, 선박 도입에 대한 3개년 계획을 수립했으며, 선질 개량 3개년 계획을 통해 국내 선박의 70% 이상이 노후화하여 경영적자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비효율적인 소구기관을 디젤기관으로 교체하는 한편 노후 선체의 보수를 추진하였다(김효철 외, 『한국의 배』, 지성사, 2006).

생활이 편리해졌다. 특히 여객회사는 경제항로를 개발해야 수익이 나기 때문에 신규항로 발굴은 중요했다. 대홍상사는 홍도와 제주도 등의 관광수요가 높아지자 남해고속을 인수해 특화를 시켰다. 도서민을 위한 정기 여객수송은 대홍상사가 맡고, 주요 관광지의 승객 수송은 남해고속이 맡는 것으로 분리하였다.

“여객선 현대화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70년대 말에 우리 남해고속이 그레가지고 강선으로 목포에서 비금, 도초, 홍도까지 다니는데 홍도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가지고 관광지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쾌속선을 수입하려고 하고 있고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니까 발 빠르게 서울에 있는 동아일보 김성수씨 계열을 통해서 쾌속선 한척을 도입해서 항로를 들여왔죠. 그때 경제항로가 됐죠. 우리도 쾌속선을 수중익선이라고 하이드로포일이라고 하는데, 옛날 엔젤호죠. 당시 여수-제주는 한 70명은 정원이었었는데 남해고속이 가져온 것은 150명 정원이예요. 좀 큰 것이었죠. 그렇게 경쟁을 하는데 남해고속이 부실이 된거예요. 남해고속은 처음에 우리가 설립한 게 아니고, 동아일보사 주주가 설립한 거예요. 그 뒤로 우리가 남해고속을 인수를 했죠. 그래서 특화를 시킨거죠.

대홍상사는 도서주민들을 위한 서남권 항로로 섬 주민이라던지 자동차를 수송하는 것을 하고, 남해고속은 쾌속선으로 승객을 빨리 수송하는 걸 담당하도록 나뉘었어요. 그 때가 80년대였죠. 대홍상사가 74년도부터 80년도까지 부산에서 제주 다니는 큰 선박을 운행했었어요. 950t 되는데, 도라지호하고 아리랑호가 있었어요. 남해고속을 인수하면서 대홍상사가 운영을 하던 부산-제주 항로를 접었어요. 남해고속하고 대홍상사를 같이 하게 됐죠. 고모부님이 78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레가지고 그 뒤로 나광수 회장이 맡고 제가 대홍상사하고 남해고속 대표를 맡았죠.”

육지를 떠나 섬을 찾는 관광객들이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던 1970년대 말, 성기순은 ‘동신호’(2백 t)를 투입하여 목포-홍도를 직접 운항하도록 하였다. 동신호는 여름철에 피서객 하루 2백여 명을 곧바로 홍도로 싣고 들어가도록 해 기존의 흑산도를 거쳐서 갈 때 걸리던 시간을 8시간에서 4시간 반으로 단축시켰다. 또한 1980년대에는 전국 최초로 일반선을 시속 30노트 쾌속선으로 대체하여 목포-홍도 항로에 투입하였다.⁰⁹⁾ 홍도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¹⁰⁾으로 지정된 후 관광객의 방문이 늘어나면서 해상선박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증가하게 되었는데 성기순은 이를 놓치지 않고 여객수송시간을

09) 연차적인 연안여객선 근대화계획에 따라 남해고속은 1978년 목포-홍도 간에 31노트의 속력을 유지하는 쾌속선(130t급, 남해호) 1척을 일본에서 도입, 운항케 되며 소요시간이 6시간대에서 2시간 30분대로 단축되었다. 쾌속 쌍동선 남해7호, 초쾌속선 남해스타호가 1990년 첫 취항하고 뒤이어 대홍페리호를 진수하게 된다.

10) 홍도는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제170호)로 지정(1965년)된 이후 1981년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단축시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노력하였다.¹¹⁾ 또한 대흥상사에서 민자 방식으로 흑산도항 여객터미널을 건설하여 이용승객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그 때 홍도로 가는 쾌속선을 들여왔어요. 우리나라가 88올림픽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경제가 나아지기 시작하면서 해양관광이 붐을 맞았죠. 그래서 여객수송시간을 단축하고 여객인원을 늘리기 시작했죠. 그때 당시에 일반 여객선은 12~13노트고, 쾌속선은 35노트였어요. 일반선을 타고 홍도를 가면 6~7시간이 걸리고, 쾌속선을 타고 가면 2시간 반이 걸려요. 처음 80년대 초에는 엔젤호였는데 승객을 많이 못 실었어요. 수중익선 같은 배는 속도를 빨리 낼 땐 떠서 가는 배거든요. 호일이 있어서 비행기 구조와 같아요. 그런데 뜰려면 손님을 많이 실으면 힘드니까 정원이 13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수송하는데 수송인원이 적으면 경비가 적자나잖아요. 그래서 10년은 그 배로 운영하고 89년도에 카타마란이라고 쌍동선을 들여왔어요. 쌍동선은 동체가 둘이에요. 그래서 쌍동선이예요. 대량수송을 하면서 빨리 가는 게 뭐냐면 쌍동선이예요. 양쪽에 동체가 있으니까 중간이 넓잖아요. 단동선은 정원이 130명이었는데, 노르웨이에서 배를 건조해온 쌍동선 이 배는 정원이 350명이예요. 약 3배 아니예요. 그래서 경제성이 있는 거죠. 이 배도 하루에 2번 다니는데. 보통 3배 수요창출이 되면 성공한 걸로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흑산도에 여객터미널을 처음으로 세웠죠. 이용승객이 많아지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도서 지역에도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수요가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우리나라 경제개발이 70년대 중반부터 이뤄졌잖아요. 경제개발이 되면은 많은 노동자가 근로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섬에 엄청난 사람이 살았어요. 신안군의 인구가 20만에 육박했어요. 근데 육지로 다 나가고 지금 현재는 4만. 신안군에 있는 젊은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고 대한민국 산간벽지에 도서에 사는 사람은 다 공장으로 왔잖아요. 대표적으로 마산에 한일합섬 유명했잖아요. 젊은 아가씨들 학교 세워가지고 거기서 전부 교육시키고. 또 그 뒤로 부산에 신발공장 생기고. 이렇게 해서 80~90년대에 도서에 사는 사람이 점점 육지로 나온 거예요.”

4. 연륙으로 인한 목포항 쇠퇴

신규 항로 등의 개발로 여객회사의 수익창출이 이루어지며 선박산업이 발전되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잠시,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구 유출이 이루어지면서 도서 지역의 인구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도

11) 1985년 6월 흑산도 항에 여객선터미널이 최초로 건설되었다. 이 여객선터미널은 목포-흑산도 항로에 여객선을 취항시키고 있는 대흥상사(대표 나광수)가 1억 원을 들여 세운 민자 터미널로 대지 2백 평에 건평 148평의 현대식 2층 건물이다. 목포-흑산도 항로에는 고속여객선 인 남해7호(정원 186명, 속력 223노트)가 취항했다.

시로의 취업과 교육을 위해 섬을 떠난 젊은이들로 인해 신안군 인구의 절반이상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도로시설의 확충과 육상교통의 발달로 다리가 놓아지기 시작하면서 도서 지역의 인구 감소를 초래하였고, 이는 해상교통의 중심지였던 목포항의 쇠퇴를 가져오게 된다. 당시 완도, 진도, 해남 등의 지역에서 더 이상 목포항이 아닌 육로를 이용하게 되었고, 목포는 물산의 집산지이자 교역의 중심지로서의 특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진도와 완도 등이 연륙되면서 목포 부두 주변의 경기가 침체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육상 도로가 접근성이 좋아지고 하니까 옛날에는 목포가 중심이 돼서 목포 선창이 전성기를 누렸는데. 이제는 광주로 다 가버린 거죠. 옛날에는 광주하고 목포하고 비슷했어요. 지금은 목포로 유학 오는 게 아니고 다 광주로 가버리니까 도서 지역에 공동화현상이 발생한 거죠. 그러다보니 까 아까 도서민 위주의 항로는 자연히 쇠퇴하는 거죠.

그때는 목포가 중심지였죠. 멀리는 완도에서부터 진도, 신안, 지도, 임자까지 다녔고, 육상으로는 거의 무안, 나주까지도 목포로 학교를 많이 다녔으니까요. 그러니까 다리 놔지기 전에는 거의 배를 많이 이용했죠. 대흥상사말고 다른 해운회사도 많이 있었죠. 완도해운하고 신진해운은 목포에서 완도 다녔고, 조양운수(주)는 하의·장산·지도·임자 쪽 운행했고. 진도 다니는 옥소해운(주)이 있었고. 영진해운도 진도·조도 다녔고요. 목포에 살고 계신 분들 중에 진도, 조도 출신들이 꽤 많아요. 주로 그 당시 진도를 배로 많이 운행하면서 조업을 이쪽으로 와서 정착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신안, 완도, 진도군이 그 때는 전부 섬이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목포가 일제 때부터 중심지였지 않습니까. 목화나 면화 같은 거라던가 농산물, 그때는 수산물이 별로 없었으니까. 농수산물이 전부 목포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졌죠. 대흥상사도 여객말고 화물도 운반했지요. 목포에서 영산포로. 그때는 전부 영산포까지 배가 들어갔으니까. 영산포에 주정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화물선으로 영산포를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산강이 막아지면서 수심이 낮아지고 물류의 변화가 온 거죠. 영산강하굿둑이 생기면서 육상으로 다니기 시작했죠. 목포에서 용당 가는 도선도 유명했는데, 하굿둑이 개설되니까 그쪽이 사라져가는 거죠. 목포에서 용당 가는 해운회사는 목포통운이라고 하굿둑 준공되고도 좀 더 운행했죠. 사람이 습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로 안다니고 용당으로 많이 다녔죠. 개인차량이 없는 사람들은, 버스가 용당까지 오니까 오히려 그곳으로 가면 빨리 도착하니까 버스 노선 따라 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용당나루가 없어진거죠.”

5. 영산강하굿둑의 건설에 따른 육상교통의 발전

영산강하굿둑은 목포시 옥암동과 영암군 삼호읍을 연결하고 영산강과 서해를 막는 제방으로 1981년 완공되었다.¹²⁾ 작은 기선이 소항하여 조기·멸치·소금·젓갈 등의 화물 수송에 큰 몫을 담당했던 영산강 수운은 현대식 도로 교통 발달과 영산강하굿둑 건설로 쇠퇴하였다. 이로써 목포시와 영암군이 도로로 연결돼 교통이 편리해졌으며, 1994년 금호방조제가 들어서면서 인근 해남, 완도, 진도 지역도 육상교통을 이용하게 되었다.

또한 용당리 포구¹³⁾ 역시 영산강하굿둑이 만들어지고 하굿둑 도로가 개통되면서 이용이 중단되었다. 용당리 포구는 조선 후기에 영암과 목포진으로 통하는 방법 중 가장 편리한 나루였으며, 강풍이 불어 해남군 화원반도나 산이반도의 뱃길이 중단되면 해남 사람들이 용당리 포구를 이용하여 독천을 돌아 해남으로 가던 비상용 뱃길이기도 했다. 목포로 들어오기 위해서 영암과 강진 등지의 사람들은 이곳을 반드시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용당 포구는 항상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이 역시 영산강하굿둑이 완공되면서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¹⁴⁾ 결과적으로 영산강하굿둑이 완공되면서 육로로 이동시간 단축을 가져왔지만 목포와 영암지역의 지형을 바꾸었고 목포 항구의 쇠퇴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영산호 준공식
출처: 『대한뉴스』 1981. 12. 11.



그림 3 방조제 공사 중인 영산강 하구

12) 영산강유역 개발 사업 1단계인 장성·담양·나주·광주호의 완공에 이어, 제2단계 핵심 사업으로 1978년에 착공, 1981년에 완공되었다. 길이 4,350m, 최대높이 20m의 토석제(土石堤)방식으로 축조된 영산강하굿둑은 배후 호수인 영산호의 저수량은 2억 5천만 t이다. 당시 영암군 삼호면 삼호리와 무안군 삼향면 옥암리를 잇는 4.35km 하굿둑이 막아짐으로써 영암의 지형, 나아가 목포, 나주, 함평 등 영산강을 끼고 있는 영산강유역 지역의 역사를 바꾸었다.

13) 용당리 포구는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에 있던 포구이다. 조선 후기에 지금의 목포시 만호동에 있었던 목포진과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를 연결하던 포구였다. 용당진(龍塘津), 용당 나루, 용당이 나리, 용당부두 라고도 불리웠으나, 현재는 인근에 해군 제3함대 사령부가 들어서 있다.

14) 용당 포구에서 건너편 목포항까지는 1.5km정도로 배로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당시 '삼학호'란 배가 1호부터 7호까지 있었으며, 첫배 5시부터 밤 9시 30분까지 막배가 있어 인근지역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했었다.

6. 평사원에서 대표이사를 맡기까지

-목포항과 여객선의 미래-

연안여객은 도서민의 발이며 생활물자를 공급하는 생명선으로 기능하였으나 점차 해양관광을 뒷받침하는 운송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수요 변화는 국민소득의 상승에 따라 여행의 행태와 관광지 선택에서 다양한 수요가 발생하는 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국민소득과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주 5일제가 시행된 데다가 연안여객선 운임 현실화로 영업수지가 개선되면서 초쾌속선 취향이 증가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여객선의 현대화와 더불어 연안교통 고속화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목포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증가하였고, 노후화된 연안여객터미널이 2005년 새로 완공(12,900㎡)되었다. 또한 1990년대부터 해상관광시대가 열리면서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목포항국제여객터미널을 찾는 이용객들도 늘어났다.¹⁵⁾

“70년대 말부터 목포-제주 간 카페리호가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남해고속이 제주항로 시간을 단축하는 데도 일조했지요. 작년 하계 휴가철 기간 중 서남권 연안여객선의 여객 수송실적은 49만6천 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서 제주가 6만 명을 넘었어요. 작년 11월부터 주·야간 2왕복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목포-제주 항로 이용객 증가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리고 대신 쾌속선, 소득의 증가와 관광지 개발, 교통수단의 선진화로 새로운 수요창출이 된거죠. 또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해서 관광 붐이 일어났죠. 그래서 저희도 제주도 다니는 카페리를 공략했죠. 처음에 여수에서 제주 간 항로가 없었어요. 여수-제주 다니는 카페리를 1990년대부터 했었죠. 거리가 멀어서 고흥 녹동으로 왔어요. 여수-제주는 120마일인데, 고흥 녹동-제주는 70마일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서 하고 있죠.

카페리는 어떻게 보면 선박의 꽃이라고 봐야 되요. 대형선박들은 짐 같은 것만 싣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선원들만 있으면 간단한데. 이것은 손님들을 실어야 되니까. 특히 우리나라도 소득순위가 상당히 향상이 되고 손님들의 의식이 옛날하고 수준이 다르잖아요. 카페리를 건조하면 기간도 오래 걸리고, 기간이 오래 걸리면 이익이 얼마 안 남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여객선이나 안전의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이용하는 사람들도 이용을 잘해줘야 되요. 그래야 깨끗하고 안전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내 것이 아니면 옛날에는 화장지, 전구까지

15) 여객수요가 늘고 있는 목포-제주 간 이용객들을 위해 3천 t급 이상의 카페리호를 투입, 운항을 시작함으로써 목포-제주 간의 교통편의와 관광객의 교통원활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어 2000년에는 여수-제주 간에 남해고속 카페리호(4,065t), 2002년에는 녹동-제주 간에 대흥고속 카페리호(2,005t)를 투입하여 제주항로 운항시간을 단축시켰다.

도 다 빼가버렸어요. 집에 없으니까. 본래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은 깨끗하게 이용해야 하는데,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것이 문제예요. 선사에서는 안전하게 운항하는데 집중해야 되구요.”

해양관광의 붐이 일어나면서 제주 관광객의 수요가 증가하였고 선박이용객들이 늘어나면서 목포항을 찾는 관광객이 많아진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항구가 잘 갖춰진 경우는 문제가 안 되지만, 목포항과 연결된 인근의 도서 지역 가운데 항·포구 등 접안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선박은 대형화되고 있는데 항·포구의 시설이 개선되지 않아 접안에 어려움이 따른다. 직접 여객선이 접안하지 못하는 경우 도서민들이 종선을 이용해 중간에서 여객선으로 옮겨 타야만 한다. 대둔도·다물도·만재도·상태도 등이 종선으로 중간 접안을 해야 하고, 하태도·가거도 등은 선착장 완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 성기순은 부두시설이 제대로 갖춰져야 주민들이 도서를 떠나지 않고 지킬 뿐 아니라 관광객 유입으로 섬이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지금은 태풍주의보 내리면 출항을 못해요. 손님 수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증선을 할 수 있는데, 수요가 없어서 못하죠. 흥도 다니는 배가 동양이 4척, 우리가 5척해서 총 9척이에요. 보통 때는 손님이 없으니까 한척씩 다녀요. 4~5월 주말 때는 봄비니까 증선을 해서 다니죠. 경제성이 없어요.

해상에서는 섬의 경우 배가 들어 갈려면 항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포항이 과거에는 입지적 여건이 좋았죠. 그런데 배가 대형화 되고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군산, 광양보다 더 밀렸잖아요. 섬도 배가 접안하려면 항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대로 된 선착장이 하나도 없어요. 해운사업 60년 정도 되는데, 지금 가거도나 태도나 선착장이 없어요. 여기서 흑산도를 경유해서 상태, 하태, 만재 경유해서 가거도 가거든요. 가거도는 그냥 암벽에다 대죠. 그건 부두가 아니에요. 그냥 배가 대게끔 암벽이 있으니까 댄 거예요. 아직도 부두가 없는 데가 많아요. 거기 조그마한 종선으로 해서 옮겨 타야 되요. 세계적으로 여객선이 종선으로 타고 내리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접안시설을 만들어줘야 돼요. 날씨가 나쁘면 종선이 엄청 위험하잖아요. 섬에 접안시설을 제대로 만들어줘야 좋은 배도 들어가지. 좋은 배가 들어 갈 수가 없어요.

우수한 배를 투입하고 싶어도 못해요. 우리나라의 도서를 발전시키려면 부두를 제대로 만들어 줘야 하고 부두를 제대로 만듦으로 해서 좋은 교통수단들이 왕래가 잦으면 그 섬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돼요. 가까운 일본만 해도 섬들은 아주 특성이 있어가지고 관광객들도 많고 특성을 살리는데, 우리나라 섬들은 다 주민이 떠나버리고 농토만 남았잖아요. 가까운 근교에 대도시가 없기 때문에 특용작물을 해도 운송수단, 물류비용이 많이 드니까 어렵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 다시 말해서, 도서개발 도서를 발전시키고 이용객의 안전을 담보로 할려면 접안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해상은 채취선에서부터 어선, 소형 화물선, 양식장 이리다보니까 배가 안전 항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항로를 제대로 확보를 해줘야 해요. 장애물들이 많다보니 위험요소가 많아요.”

성기순은 현재 대부분의 여객운송업체들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아쉬워한다. 연안여객선업은 석유파동 이후 운항비가 오른 데다 연륙·연도 및 고속도로 등의 개통 등으로 이용승객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해운업자에게 선박의 운항을 지정하는 항로인 명령항로는 보조금과 면세 등의 특전을 주면서 해운업자에게 경영을 명령하는 경우인데 이 역시 이용객이 적어 운항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현재 우리 선사 전체 직원이 선원까지 포함해서 60여 명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 연안 여객운송사업자가 40개 정도 돼요. 지금 다 영세성을 면치 못해요. 여객선의 역사는 1945년도부터, 해방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요. 대흥상사가 50년이에요. 왜 영세성을 면치 못하냐. 사업자들이 잘못해서 그런거 아니냐 그러지만, 사업체가 성장하려면 외형이 살아야 되잖아요. 운임 인상 요인이 60%가 발생했는데 6%로 외형을 딱 제한해버리니까 어려운 거예요.

항로 개발하는 것은 수익성이 있어야 되요. 처음에 수요와 공급이 적정 수준을 이루어야 되는데, 큰 배가 들어갔는데 수요가 없다면 계속 뜰 수가 없잖아요. 항로는 신규로 개발할 곳이 없어요. 도서가 아주 낙후되고 섬에 무인도가 얼마 없잖아요. 십여 가구 사는 곳도 우리도 배를 대주라. 그러면서 왜 배가 늦냐. 쾌속선이 여기저기 다 대면 쾌속선이 아니에요. 일반선하고 똑같아요. 사실 접안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다들 손님이 적은 낙도운항을 기피하고 있어요. 낙도는 국가에서 보조를 주면서 별도 선박을 유지 하는데, 그 선박을 주 항로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보조항로로 와서 거기서 빨리 오는 주 항로로 갈아타고 오면 되는데, 우리도 목포까지 실어다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싣고 와야 되는 거예요. 운송비용을 따지면 1인당 이십에서 삼십만 원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유리하게 쓰겠다. 그게 악순환인거예요.

그래도 신안 쪽은 선박비를 보조해주고 있거든요. 7~8년 정도 됐을거요. 복지 정책의 일환이에요. 도서민이 소득수준이 낮지 않습니까. 먼 데는 운임이 없어서 왕래하기가 어려우니까 장거리는 5천원만 내면 나머지를 지원하고, 단거리는 2~3천원만 내면 지원을 해요. 그러면서 양면효과를 노린다 그러는데, 도서민에게 지원을 해서 부담을 줄이고 여객선 입장에서는 수요가 늘어날 것 아닌가 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김대중 선생도 여객선사업으로 발판을 마련했죠.¹⁶⁾ 옛날에는 여객운송사업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은 손을 못 대게 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 돈이 아니니까 적자가 봐도 괜찮아요. 보전이 되니까. 그런데 농협이 처음엔 한정면허인 농산물 차량만 운송한다고 발을 들여 넣었어요. 그러다가 일반면허까지 해버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대흥상사는 곧 얼마 안가서 폐업해야 되요. 상대가 안돼요. 농협은 조합원이 많잖아요. 조합원이 다른 회사 배를 탈려고 안하죠. 생활권 항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하루에 여러 번 다닐 수 없고. 외지인이 주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지방 생활권이라 조합원들은 조합 배를 많이 타죠. 그러니 우리가 밀릴 수밖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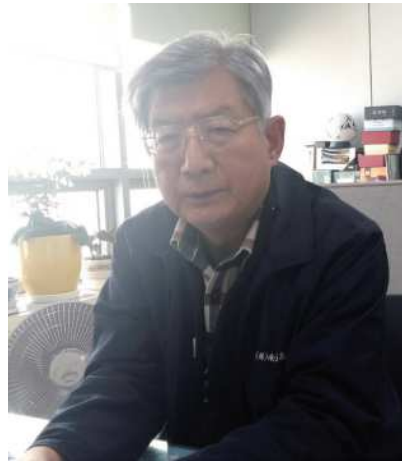


그림 4 목포대흥상사 대표이사 성기순

그리고 여객운송사업이 세월호 이전까지는 면허제였어요. 여객선 요금은 8년 전부터 명목상 신고제로 전환됐지만 신고해도 어차피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으니까 인가제랑 똑같죠. 신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힘들어요. 여러 가지 규제가 많죠. 대형여객선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세를 못 면해요.”

목포는 1973년부터 현재까지 17개의 낙도를 여객선 기항지로 개발, 161개의 섬 주민들이 여객선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낙도 주민들을 위한 명령항로 운항의 어려움, 농업협동조합의 여객운송업으로의 진출 등은 연안여객 선사들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한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 운항 선정기준을 2015년 7월부터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시켜 대부분의 해운업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주민과 관광객들을 안전하게 수송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목포대흥상사는 1955년 12월 합자회사로 출발하였고, 1977년 (주)남해고속을 설립한 여객운송업체이다. 1964년 목포대흥상사의 평사원으로 시작한 성기순은 여객선 현대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16) 김대중 전 대통령은 목포상업학교를 졸업하고 1944년 중반기에 목포상선회사(전남기선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 취직한다. 해방 후 귀족재산(적산)이 된 목포상선회사의 관리인에 선정됨으로써 해운사업가로 입신하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1945년 대표를 맡는다. 이후 전남기선공사를 그만두고 상선회사인 목포해운공사를 설립했다. 이 해운회사는 처음에 연근해를 무대로 여객선과 화물선을 띄웠는데 당시 육송 수단이 좋지 않아 해운의 수요가 급증해 꽤 호황을 누렸다. 몇 년 후에는 해운영역을 부산 등지까지 확대하는 등 성장을 거듭했고 김대중은 약관의 나이에 목포의 유력사업가로 부상했다. 1946년 흥국해운 사장, 1948년 전남선박 목포조합장, 1951년 3월 목포상선 사장 및 목포운수 주식회사 사장, 같은 해 5월 대양조선 사장을 거치며 10월에는 『목포일보』를 인수, 언론사 사장까지 역임하기도 했다.

1970년 전무이사를 거쳐 대표이사(현)까지 맡게 된다. 선대 회장의 뒤를 이어 대흥상사와 남해고속의 대표를 맡은 것이다. 성기순은 목선에서 강선으로 여객선을 대체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여객선 안전에 앞장서왔으며, 여객선 안전 운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매일 여객선 출항 전에 직접 점검하는 등 철저한 안전점검과 예방을 통해 큰 사고 없이 현재까지 이끌고 있다.¹⁷⁾ 또한 도서 지방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1990년대부터 차도선형 여객선을 건조 투입함으로써 도서 지방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차량 직송체계 도입으로 농수산물의 적기 유통판매를 가능케 함으로서 도서민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특히 목포항 여객선 운항사업 관련 종사자들에게 대 여객 친절봉사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선원근무복 착용 및 명찰 패용 등 친절 봉사운동 실명화제도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선내 급수대 설치 등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은 물론 대 여객 친절봉사운동을 몸소 실천하여 자사 소속 종사자는 물론 목포권 여객선 사업자들에게 친절봉사운동을 파급, 확산시킴으로서 여객선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도 했다.¹⁸⁾

50여 년 동안 남다른 사명감으로 연안운수업에 몸담아 온 성기순은 앞으로 도서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을 위한 안전한 여객 수송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대표이사직을 맡는 동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수송하는 해상교통수단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말한다.

이경아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연구위원

17) 여객선 도입부터 선박 운영, 출항 전 검사, 항로별로 부여되는 면허제도, 선장과 선사 처벌 규정 강화, 사고 직후의 초기 대응 체계 확립 등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종합대책'을 따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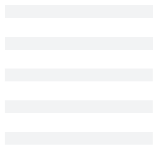
18) 성기순은 2003년 제8회 바다의 날을 기념하여 연안여객 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인정받아 산업포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제2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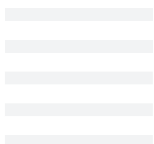
목포 아리랑





제1절 목포 문화예술계의 산증인

정미영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연구보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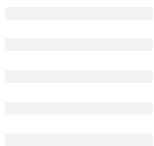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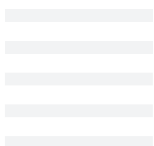
제2절 목포 최초의 서예학원을 설립한 서예가

김경완 | 신안문화원 사무국장



제3절 목포가 낳은 최고의 배우

김경완 | 신안문화원 사무국장



제1장 문화와 예술을 꽃피우다

제1절 목포 문화예술계의 산증인

김병고는 1938년 일본 오사카에서 한의사인 아버지 김상옥과 어머니 송순옥 사이에서 9남매(5남 4녀)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4살 무렵 귀국하여 광주 광산구 송정리에 정착 후 광주 서석초등학교·광주사범병설중학교·광주사범학교·광주사범대 미술과를 졸업한다. 초임지인 강진도암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안좌·일로·임자남·목포동·목포중앙초등학교 교사를 지낸다. 강진도암초등학교 근무 당시 아내 선금자와 결혼하고 슬하에 1녀를 둔다. 중등교육계로 이동하여 해남 영명·몽탄·무안·목포여자·청호·유달중학교 교사를 지내고 유달중학교에서 명예퇴임을 끝으로 교직생활을 마무리하며 완전한 화가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그는 한국미술협회 목포지부(이하 목미협) 지부장,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목포지부(이하 목포예총)지부장, 목포미술협회 이사, 목우회(木友會) 전남지회장 등을 역임한다. 그는 국전 입선 2회(1979, 1980), 목우회 전국공모전 특선 3회(1979, 1981, 1982), 한국예총예술문화대상(2005), 송암창작대상 미술부문 수상(목포, 1983), 남농예술문화대상(목포, 1993), 전라남도문화상(2015)의 영광을 얻기도 하였다. 중년에 접어들면서는 예술단체의 고문 및 자문위원과 심사위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제24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양화부문 심사위원장과 전라남도미술대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남농미술대전 수채화부문 심사위원을 역임하였다. 한때 목포의 문화예술을 논하는 문주회의 일원이자 현재의 수장이기도 한 김병고는 목포 지역의 문화예술계의 산증인으로 목포 예술사와 비화까지도 속속들이 알고 있어 『목포예술인들의 빛과 그림자』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한다. 그는 화가이자 문인으로 젊어서는 만능 스포츠맨이자 교육자로 살아오면서 캔버스에 낭만과 멋을 담아내며 자신의 화풍에 작품을 확대 변형하는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그는 현재 목포예총고문 및 목포미술협회 고문

과 한국미술협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⁰¹⁾

1. 어린 시절

김병고는 부모님을 따라 태평양전쟁 말기 무렵 4살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국하였으며 광주 광산구 송정리에 정착하게 된다. 송정리 서초등학교를 다니다 교육 문제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4학년 때 광주서석초등학교로 전학하여 1950년에 졸업한다. 5학년 미술 수업 시간에 그린 수채 사생화를 담임선생이 교실 뒤 작품 게시판에 붙여 놓은 것을 계기로 스스로도 그림에 소질이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저는요 태어난 곳은 일본 오사카에서 1938년에, 우리 부모님이 일본에 살 때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한의사였거든요. 내가 4살 때 송정리 광산 쪽에 그 쪽이 고향이라 해서 세계대전 난리를 피해서 와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송정리 서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교육 때문에 광주로 옮겨야겠다고 해서 광주서석초등학교를 4학년 때 전학을 해서 거기서 졸업했어요. 광주서석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이 박병중 선생이라고 그분이 미술시간에 오늘은 야외에서 수업한다. 그래갔고 데리고 간 곳이 광주에 가보면 경양방죽이라고 있어요. 큰 방죽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경양방죽가에 가서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라 했는데. 거기서 그렸던 그림을 선생님이 뽑아갔고 뒤에 작품 게시판에다 내 것을 딱 붙여 뒀어요. 그래서 아! 내가 그림에 좀 소질이 있는가보다 거기서 느꼈어요. 경양방죽에서 처음으로 수채 사생화를 그린 거예요.”

그는 1953년 광주사범학교병설중학교를 졸업하고, 1956년 광주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당시 2년제였던 광주사범대학 미술과를 1956년에 진학하여 1958년에 졸업한다. 광주사범학교병설중학교시절 미술부 활동 당시 사생대회 우수상을 받으면서 화가로서의 길에 소질이 있음을 인정받았지만 재주가 많았던 그는 광주사범학교에 들어가서는 미술부를 들어가지 않고 악대에 들어가 악대장을 한다. 광주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을 받을 수 있었으나 광주사범대학교가 생겨나자 광주사범대학 미술과를 진학하면서 미술교사이자 화가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이야기 한다.

“초등학교 졸업 후 광주사범학교 병설중학교 때는 미술부를 하게 되었는데 공모전에서 내가 우수

01) 김병고는 2018년 1월 타계하였다.

상을 받았어요. 선생님이 ‘넌 미술에 소질이 있고 화가가 되도 쓰겠다.’ 라는 말을 해주었어요. 광주 사범학교 올라가니까 악대를 6·25 때 없어진 것을 다시 재건했는데 나는 악대에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미술부에서 살짝 빠져서 악대에 들어갔는데 학생의 날 같은 작은 행사에 나가게 되었는데 콘닥을 뽑는데 나를 뽑은 거예요. 제가 악대장이 된 거예요. 충장로에 행사만 있으면 광주사범학교가 실력이 좋으니 맨 앞에서 가는데 시민들이 나와서 박수치고 했어요. 볼거리가 없을 때이니까요. 내가 졸업하고도 충장로에 내가 나타나면 제임스 딘 닮았다며 인기스타가 된 거예요. 쿵 짹 쿵 짹하고 행진할 때 내가 맨 앞에서 오면 시민들이 전부 나와서 양쪽에서 막 박수치고 하니까 광주 충장로에서 내가 스타가 되어 버린 거죠. 악대장 시절을 그렇게 보내고 미술부활동은 못했어요.”

2. 초등교육계 교직생활의 시작

1950~1980년대 사이에는 목포 지역의 문인과 화가들 중에는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당시 활동했던 대표적인 문인으로서는 박 화성, 최일환, 김학래, 최재환, 박순범 등이 있으며, 화가로는 양인옥, 김암기 등을 들 수 있다. 김 병고 또한 교직생활을 하면서 예술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는 1958~1994년에 목포 및 인근지역인 강진, 무안, 임자 등의 지역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로 활동한다. 교사



그림 1 첫 발령지 강진도암초등학교 소풍 때
(정면 가운데 김병고)

초임지는 강진도암초등학교로 1958~1960년 근무했다. 강진 도암초등학교 근무 시 아내 선금자와 결혼한다. 당시 보통의 성인 남자들이 군복무를 3년간 하는 반면, 교직원들은 군대를 단기복무라고 해서 1년간 근무할 수 있었기에 교직에 있던 그도 1960~1961년 1년간 군복무를 한다.

“1958년 그 당시에는 군(郡)에 고등학교나 하나 있을 정도예요. 졸업했어도 한참 있으면 발령 날까 말까해요. 강진도암초등학교 첫 발령 그때가 20살이었을까? 1958년 졸업하고 두어 달 놓고 있는데 아버지가 발령 신청 냈는데 바로 발령을 받았어요. 나는 광주사범 나왔는데 목포 사범학교 나온 여선생이 나보다 2달 먼저 발령을 받아서 거기에 도암초등학교에 있네요. 선금자 선생이라고 있어요. 한 교실을 쓰게 되었어요. 그때만해도 오전반 오후반 나눠서 썼어요. 자연히 친해질 수밖에 없고……. 원래가 목포사범대학 탁구선수였나 봐요. 탁구 잘하지, 연식정구 잘하지 늘 같이 운동도 하다보니까.

어떻게 해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임자에서 소화라는 딸을 낳았습니다. 강진도 암초등학교 근무 당시에 군대를 간 거예요. 거기서 2~3년 근무하다가 군대를 갔는데요. 그때는 단기 복무라고해서 선생님들은 1년 교보라 했지요. 이 사람들은 단기니까. 무조건 일선 배치해요 최전방 배치해요. 너희는 1년만 하고 가니까 경험하라 해서 배치해요. 대학생들은 학보라 해서 1년 6개월을 해요. 대학생들이나 학교 선생들은 최전방 수색중대로 배치해요. 딱 1년 되니까 여지없이 제대가 되는 거예요.”

그는 군복무 후 1961~1970년 안좌초등학교, 일로초등학교, 임자남초등학교, 목포동초등학교, 목포중앙초등학교에 근무한다. 복직하고 첫 발령지인 안좌초등학교를 1961년에 부임했으나 안좌도 섬 지역의 젊은이의 시비로 인해 몸매 크게 상처를 입고 1년도 되지 않아 일로초등학교로 재 발령을 받는다. 일로초등학교 근무 당시 김병고의 아내인 선금자는 유달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당시 부부교사를 섬의 분교장으로 보낸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이를 알고 극구 마다하여 한 섬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교로 배정을 받는다. 김병고는 임자남초등학교에 아내는 임자중앙초등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한다. 섬에서의 교직생활을 접고 목포로 들어와 목포동초등학교를 거쳐 목포중앙초등학교에서 초등교육계 마지막 교직생활을 한다.

“일로초등학교 있다가 임자남교 섬에서 근무를 했지요. 임자남교하고, 임자중앙교가 제일 가까우니 양쪽에다 아내와 나를 발령을 냈지요. 그래서 내가 자전거로 염전 지나서 임자남교로 갔지요. 1960년대 중반 스물여섯의 나이로 임자남교에 근무할 때 애창곡은 풍금도 치면서 불렀지요. 음악수업 할 때 애창곡으로 초생달을 불렀어요. 그때는 김일로 시인과 인연이 없었으나 책만 보고 했다가 목포 예총을 들어왔을 때 김일로 시인이 예총회장을 잠깐 해서 알았지요. 풍금은 내가 광주사범학교 다닐 때 의무적으로 쳤어요. 아이들을 가르쳐야하니까요. 그리고 사범학교 때 나는 악대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악보도 잘 본대다가 풍금도 잘 치고 하니까 학교 간 데마다 풍금 못 치고 하는 선생들은 나한테 와서 교환 수업을 하자고 했지요. 1969년 즈음에 목포동초등학교에서 3년 있고, 목포중앙초등학교로 발령을 받고 초등교육계 마지막 근무처가 되었지요.”

3. 중등교육계 교사를 시작으로 미술학생들을 선도하다

1970년대에는 교육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이 더욱 높아져 국가의 교육을 위한 지원도 강화되었다. 1971년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중학교 무시험진학제는 중학교의 수용능력 확대와 평균

화를 이루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특히 중학교 취학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구실을 하였다.

이 시기 김병고는 초등교육계에 근무하다 의무교육 실시로 인한 도서 및 면 지역의 중학교 의무교육 시범사업으로 인하여 중등학교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1970~1994년에 해남영명중학교, 몽탄중학교, 무안중학교, 목포여자중학교, 청호중학교에 근무한다. 정부에서는 1980년대에는 과밀학급 완화, 과대 규모 학교 분리,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1984년 8월 2일에 교육법을 개정하고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1985년 2월 21일에 중학교 의무교육을 도서·벽지 중학교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한다. 김병고는 중학교 교사로 근무 당시 정서교육 및 각 학교에 미술부를 신설한다. 자비를 털어가면서까지 미술 공모전에 출전을 시키고 입상의 영예를 안겨주기도 하면서 학생들을 미술학도로 가르친다.

“초등교육계에 있다가 중등계로 옮겼어요. 초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義務教育)⁰²⁾이라 들어가기 쉬웠지만 중학교는 들어가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면(面)마다 중학교가 다 세워지면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니까 각 면마다 중학교를 하나씩 세워서 학교는 늘어났는데 선생님 수는 적어서 발령을 기다리다가 미술교사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만 있으면 신청을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1970년에 해남군 문내면에 위치한 해남 영명중학교를 갔지요. 영명중학교에 있다가 군마다 학교가 새로 생기니 무안몽탄중학교에 1학년만 있었는데 새로 생긴 학교라 1학년만 모집 한 거죠. 학생 수에 비해서 1학년이 5개 학급이 있었는데 5개 학급에 맞는 선생님만 배치하다보니까 도에서 과목마다 선생님을 줄 수가 없어요. 도에 가서 교장이 미술과 장학사에게 사정을 야기하고, 나를 몽탄중학교에 모셔간 셈이죠. 내가 몽탄중학교 딱 1년만 있다가 옮겼어요. 일로에 있는 무안중학교라고 아주 큰 학교가 있었어요. 남녀공학인데. 학생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미술선생이 나뿐만 아니라 한 명 더 있었어요. 거서 미술부를 내가 키웠어요. 무안



그림 2 무안중학교 미술부 작품전

02) 6·25전쟁으로 초등학교 의무교육 실행이 지연되었다가 1953년 7월에 의무교육 완성 6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의무 교육의 추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계획은 1954~1959학년도 6개년에 걸쳐 6~11세 학령아동의 96%를 취학시킬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었는데, 그 결과 취학률 96%를 웃도는 데 성공하였다. 이 계획의 추진을 위해 정부는 문교예산의 75~81%를 의무교육에 충당하였고, 임시토지소득세환부금제도, 교육세, 의무교육 재정 교부금법 등의 제정을 비롯하여 교육정책의 최우선 과제로서 의무교육의 완성에 역점을 두었다(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1991).

중 미술부가 전국학생미술대회에 나가면 언제나 금상, 최고상 다 쓸어가지고, 무안중학교 미술부는 전국적으로 유명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홍대 같은 데 다 졸업해가지고 신촌 부근에서 미술학원도 하고 유명했죠.

내가 1973년에 목포여자중학교로 와서 5년을 근무하면서 미술부를 또 조직해서 키웠어요. 조직해서 키운 사람들이 미술협회 화가 서술래, 이미경 이런 화가들이죠. 그때 다녔던 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도 좋았고 정서교육을 해가지고 미술부도 키워냈고, 목포여자중학교 전통으로 중앙극장을 빌려서 어버이날 행사로 어머니들 다 모셔가지고 연극, 무용 할 것 없이 공연도 하면서 정서지도를 참 잘 했어요. 목포여자중학교 뒤에 목포청호중학교로 갔지요. 5년 이상 한 학교에서 근무를 못해요. 청호중학교에서 5년 근무하니까 목포에서 10년이 된 거예요.”

4. 교원생활을 접다

-『광야(廣野)의 아침』발간-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목포도 민주화 열풍이 강하였다. 청호중학교에 근무하던 김병고는 김암기, 자운당 유택수 등과 함께 시위대에게 격려문을 보내기도 하고 시가행진에 동참하기도 한다.

“청호중학교 있을 때인 1980년에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나요. 날마다 목포역전에서 청중들, 군중들 쫓기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동아약국 그 누군가가 주로 주도를 했는데 우리는 그때 역 앞에 천지다방이라는 다방이 있었어요. 그 주인과 우리들이 친했어요.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내가 돈을 줄게 김정 천을 좀 사다주라.’ 그래서 ‘김정 천을 사가지고 와서 리본으로 좀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온 사람마다 채워주라. 광주서는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계엄군한테 죽어가고 있다.’ 어떤 다방에서 일하는 아가씨는 길 앞에까지 가서 채워주고 그랬어요. 그만큼 역전에서 열기가 막 돌았어요. 나하고 김암기선생님하고 자운당 유택수 사장하고 막 글을 써요. 그럼 본부에서는 방금 시민들이 격려문이 왔다고 낭독해주고, 시가행진을 막 따라 다니고 그랬어요. 그때 김암기 선생이 마리아회교에 있었어요. 나하고 같이 격려문을 썼던 김희웅 이라는 시인이 있었는데 그 시인이 청호중학교 앞에 교문에서 나를 찾아요. ‘지금 그때 주동자를 물색하고 있으니 나한테 전부 다 뒤집어주고 내가 어디로 피난 떠날 거니까 돈 좀 주쇼.’ 해서 뒤져보니 돈이 2만 원에서 3만 원 밖에 없었어요. 학교 앞에 학용품 사는 데 가서 빌려서 지금 돈으로 같으면 한 20만 원 돈 될까 하는 돈을 봉투에 넣어서 쥐어주며 ‘잘 숨어있으라’고 하고 보내고 그랬어요. 그때 데모에 열렬했던 사람들은 다 잡아간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내가 다 조용해져 버렸어요. 몇 일간 조용해지더니 경찰들 다 다시 오고 그렇게 목포도 시

끄러웠어요. 목포 시민의식이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김병고는 1983년부터 1988년까지 무안중학교에서 근무하며 미술부를 창설하고 전국미술대회에 자비를 털어가면서까지 출전시키고 전시회를 열어주기도 하면서 그의 열정을 쏟아붓는다. 그는 5년의 무안중학교 근무를 마치고 청호중학교로 옮긴 뒤 중등교육계 마지막 학교인 목포유달중학교에서 명예퇴직을 끝으로 교원생활을 끝내고 본격적인 화가의 생을 살아가기 시작한다. 1994년 퇴직 당시 『광야의 아침』이라는 본인이 쓴 글과 지인들이 써준 글을 엮은 자서전이 나온다.

“목포에서 교직생활을 10년 이상 못하니 시골에 갔다 와야 해요. 그래서 또 무안중학교로 1983년에 가서 1988년까지 근무하는데 암만해도 그 정도 되니까 도 장학사도 인정하고 하니까 원하면 가까운 통근거리로 해주죠. 이곳에서도 미술부를 창설하고 전국미술대회에도 박봉을 털어가며 출전시키기도 하고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했지요. 난 학교에 있으면서 화가로서 활동 할 테니까 가까운 통근거리로 내주라고 했죠. 무안중학교에서 다시 청호중학교로 갔는데 5년이 되니까 유달중학교로 옮겨갔어요. 그때 내가 기념 문고로 광야의 아침이라고 1994년에 자서전⁰³⁾을 냅니다.”

5. 김암기를 만나 미술에 빠지다

그가 초등교육계에 근무할 당시에는 학생들을 보내놓고 방과 후에 조금씩 혼자 그림을 그렸으나 중등교육계에 미술선생으로 발령을 받아 들어오면서부터는 목포미술협회 회원전도 나가야 하고 작품도 하기 위해 그림을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한다. 목포에서 직접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한 것은 목포여자중학교 근무시절인 1973년 즈음에 김암기를 만나 현장스케치를 다니면서 부터라고 한다. 삼학도에서의 만남을 계기로 그를 미술에 빠지게 만든 김암기는 제일 친한 사이가 되어 전국 방방곡곡 현장스케치를 함께 다니게 된다.

“1973년 즈음에 목포여자중학교에 근무했을 당시에요. 삼학도에서 바라보는 유달산 쪽으로 제분공장 있는 그쪽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 앞에 대놓고 그리기가 참 좋았어요. 나 혼자 나가서 그렸죠. 점심시간쯤 되었는데 누가 뒤에 와서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더라구요. ‘선생님 실례지만 테레

03) 김병고의 저서로는 『광야의 아침』, 『목포예술인들의 빛과 그림자』, 『문주회(文酒會)이야기』가 있다(『2016 전라남도 문화상 수상기념 고야 김병고전 카탈로그』, 2016).

핀을 조금 더 섞으시는 것이 부드럽게 더 잘나갈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보시라고 이야기 해 주더라고요. 베레모 쓴 화가 선생이요. 제가 일어서서 ‘감사합니다.’ 했죠. 좀 있다가 ‘술이나 한잔 합시다.’ 하고 권유하더라고요. 그 양반도 내 뒤쪽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문태고등학교에 근무하던 양기탁 선생님이 놀러오니까 주막이 많았던 삼학도 쪽에서 술 한 잔 마시려고 가면서 내가 있으니까 기왕이면 술 한 잔 하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해서 점심 때 되니까 같이 갔지요. 첫 만남인데. 그런 거예요. 선술 집에서 인사를 드렸지요. 그 사람이 목포 서양화를 끝내 지킨 김암기 선생이예요. 동양화는 남농 선생이 지켰다고 하면 서양화는 김암기 선생이 지켰어요. 주막에서 술을 먹었는데 여간 통하더라고요. 나하고 여섯 살 차이이니까 내가 형님이라고 불렀고. 그 뒤로 친해져서 양인옥, 김암기, 김병고, 전국 스케치를 많이 다녔어요. 전국 방방곡곡 김암기 선생님하고 제일 많이 다녔어요. 안 가본 데 없이 설악산이고……. 정말 김암기 선생이 나를 미술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김병고는 김암기와 함께 다녔던 현장스케치 여행 중 대흥사 스케치 여행을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당시 대흥사는 목포에서 배를 타고 내려서 다시 버스를 타야만 갈 수 있는 곳이었다. 교직에 있던 두 사람은 대흥사 현장스케치를 다닐 때 방학기간을 기점으로 자주 다녔다.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선창주변을 돌면서 삼학도에서 유달산을 주로 그랬다고 한다.

“목포여자중학교 근무 당시에는 내가 어디서 살았냐 하면은 죽동 올라가면 고갯길이 있는데 죽동 육골에서 좀 올라가는 곳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 윗 골목길에 김암기 선생이 살았어요. 그렇게 알게 된 뒤로 내가 시골인 몽탄중학교에 근무 할 때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에 목욕이나 가고 좀 쉬려고 하면 우리집 대문에서 여지없이 문을 두드려요. 제가 작은방 살이 할 때인데요. 딱 화구 쬔어지고서 ‘어이 동생 김선생, 김선생 얼른 화구 가지고 나와. 스케치 가게.’ 그럼 난 쉬려고 했다가도 김암기 선생님이 재촉을 하니까 얼른 화구 챙겨가지고 나와서 대흥사를 갈라고 하면요. 그때는 배타고 다녔어요. 배타갔고 용댕에서 내려서 막 사람들은 달려요 버스 타려구요. 무거운 것 들고 놀 데도 없고 공중에 뜨다싶게 끔끔거리고 서서 한참가면 고생 고생해서 해남읍에 가서 버스를 갈아타요. 중간에서 내리는 장이 있으면 사람들이 내리더라고요. 사람들이 산정장 같은 데서 내리면 자리가 좀 있구요. 해남읍에 가면 대흥사 가는 버스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그걸 타고 대흥사 도착했죠. 그때는 참 한가하고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때가 40전후해서 다녔죠. 김암기 선생하고 나하고는 형제간보다도 더 친한 형제가 되가지고 함께 많이 다녔지요. 대흥사 스케치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김암기 선생하고 추억이 제일 많죠.”

그는 1971년 목포미술협회 가입 후 1986년 3월부터 1989년 3월까지 3년간 목포미술협회(이하 목포미협) 지부장을 지낸다. 목포미협 지부장 활동 당시인 1988년 3월 20일 봉황예식장에서 지난 8년간 꿈꿨던 목포미술인의 밤을 재개했고, 목포미술인상도 제정하였으며,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야외 연수회를 만들기도 한다.

“내가 1986년부터 목포미협 지부장을 하던 시절에 만든 것이 목포미술인의 송년의 밤⁰⁴⁾을 만들었어요. 연말 되면 목포미술인상을 만들어서 그 해에 가장 활동이 왕성했던 사람에게 주는 상, 신인상 등 상을 몇 개 만들어서 신안비치 호텔에서 하기도 했어요. 목포미협 지부장 할 때 첫 목포미술인 상을 탄 사람이 홍순모라고 목대 조각가가 됐어요. 그리고 야유회인 단합대회를 만들었어요. 반드시 일년에 한번은 버스 대절 해가지고 목포미협 회원들이 순천 정원박람회를 간다든지 그렇게 여행을 일년에 한번은 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잘 해나가고 있어요. 야외 연수회는 김정재 지부장이 할 때 한 번 했었어요. 그건 한번 했는데 가까운데 갔다 왔고 대흥사 쪽인가…… 정례적으로 해마다 하는 것은 나부터 했죠.”

그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국전(대한민국미술전람회)이나 도전(전라남도미술대전)에 입선을 해야 들어올 수 있었던 목포미술협회(이하 미협) 회원이 최근에는 누구나 미협 회원이 되고자 하면 활동과 함께 되는 것을 보고 미협 회원이라는 자부심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1970년대만 해도 목포미협 회원수가 몇 몇 없었어요. 그리고 회원 되기가 어려웠어요. 목포미협 회원 되려면 국전이나 도전이나 그렇게 입선을 3회 이상 한다거나 해야 들어왔어요. 목포미협 회의에서 인성이 안 좋은 사람이나 말다툼이나 하고 들여놓으면 시끄럽다 하는 사람은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데. 언제부터 풀려버렸는가 하면 지금 전국 예총 회장하는 임농 하철경 씨가 전국 미술협회 이사장으로 나갈 때 아무라도 그림만 그리면 미술협회에 들어오게 자기가 당선 되기 위해서 몽땅 풀어놔 버렸더니 미술협회 이사장도 되었어요. 그 전에는 전문가하고 프로하고 아마추어가 일요화가회를 거쳤어도 미협 회원이 되기 어려웠었죠. 지금은 조금만 그림 그린다 하면 모두 미협 회원이에요. 장점과 단점은 있죠. 질이 떨어지는 그림들이 같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마추어

04) 목포미술인의 밤은 1979년 12월 27일 오거리에 있던 YMCA회관에서 김암기 지부장에 의해 송년의 밤이 열렸었다. 그러나 그 이후 8년 동안 자금난으로 열지 못하다가 1988년 3월 20일 봉황예식장에서 김병고 지부장에 의해 재개되었다. 이때에 목포미술인상이 제정되었다. 목포미술인 중에서 당 해 년도에 가장 활발히 작품 활동을 한 작가에게 목포미술인 전체의 이름으로 지어주는 상이다. 1988년 제 1회 수상자는 조각가 홍순모였다(김병고, 『제5장 미술』, 『목포시사(1980~1994)』 III, 1997, 512쪽).

이제 시작한 사람도 미협 회원이 되버린 거예요. 지금은 구별이 없어요. 전시장 가보면 확 차이가 나버려요. 아무나 미협 회원이 되버리니까.”

1988년 목포 3호광장 분수대 위에 세워졌던 목포상징 조형물은 홍순모, 김창세, 김광진의 합동작으로 똑같은 시민상 4개를 만들어 동서남북에 설치해 놓은 것이다. 서구식 시민상이 아닌 서민의 모습을 한 시민상을 못마땅하게 여긴 시민들의 항의로 향토문화관 한 쪽에 세워지게 된다.

“1988년 3호광장 분수대 위에 세워졌던 목포 상징 조형물은 조선내화 이훈동 회장이 1억을 칠순 기념으로 1억 원 정도를 시정에 줬는데 그 돈으로 3호광장에 목포시민상 조각상을 거기다 세우자 했어요. 당시 3호광장에는 분수대가 있었어요. 목포대학교에 있던 홍순모 조각가, 목포 출신 김창세, 부산에 있던 김광진 이 세 분이 합동작으로 해서 똑같은 시민상 4개를 뽑아서 동서남북에 세웠어요. 그걸 세웠더니 목포시민들의 불만이 아주 컸어요. 그 조각상을 보고, 로텔이나 그런 서구식 조각상이 아닌 키도 작고 아주 촌스럽게 생기고, 음…… 서민 그야말로 서민상으로 세웠어요. 시민들의 불만은 이제 목포도 서해안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가난한 목포에서 이제는 좀 밝은 도시의 이미지를 줘야 할 텐데 어디 노름판에서 돈 다 잃어버리고 아침에 후줄근하게 나온 사람 마냥 그것도 한손은 호주머니에 손도 넣고 있고…… 어떻게 불만이 컸었는지 그렇게 어렵게 세운 조각상을 철수하고 분수대도 없 어지고, 오늘날과 같은 3호광장이 되었어요. 그것을 저기 저 갯바위에 향토문화관 한쪽 구석으로 옮겼어요. 작품으로서는 내가 보기엔 아주 훌륭한 작품이었어요. 시민들이 그렇게 반발을 해서 치우라 해서 치웠는데 서양에서도 ‘칼레의 시민상’ 같은 조각품을 보면 굉장히 후줄근하게 생긴 군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것도 작품이라 인정하는데, 그 당시 목포 시민들의 수준이 그 정도 밖에 안 되어 조각상을 옮긴 그런 에피소드가 있지요. 지금도 목포시민상은 그쪽 한쪽 구석에 보존되어 있죠.”

6. 목포예총과 예총회관, 예술제 이야기

전국문화단체연합회 목포지부가 1951년 1월 27일에 결성된다. 1958년 9월 15일 목포방송국 공보관에서 재목 예술동인 50여 명이 참석하여 목포문화협회(현 목포예총)가 창립되고, 초대 회장에 남농 허건을 추대한다. 이후 1962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목포지회(이하 목포예총)로 개명하게 된다. 김병고는 1971년 목포미술협회에 가입 후 목포예총에 자연스럽게 가입하게 된다.

“목포문화협회를 토대로 해서 목포예총이 생겼죠. 그러니까 한국예총이 생기기 전에 먼저 목포에

서 만든 것이예요. 목포예총이 먼저 생겼지요. 그러니 목포가 예향 일번지라고 하지요. 목포예총은 남농 허건 선생이 초대회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차범석 선생의 친동생 차재석 선생이 오거리의 아주 터줏대감이에요. 차재석 선생이 남농 선생 밑에서 예총 사무국장을 했지요. 그때 나는 목포예총에 안 들어왔지요. 내가 목포미협에 1971년도에 가입되니까 목포예총에 자동으로 가입이 된 거죠. 목포예총은 8개 협회가 있지요.”

목포예총은 1959년 6월 22일 무안동 오두막 2층에 예총회관을 마련한 뒤 1964년 9월 5일 무안동 1번지 남교동 공설시장 2층으로 회관을 이전한다. 다시 1970년 8월에 남교동에 위치한 목포교육청이 사용하던 건물인 목포시 무안동 5번지로 회관을 이전하였다가 1977년 8월 13일 무안동 10-15번지를 매입하여 1977년 10월 17일 예총회관을 이전한다. 이후 예총회장이었던 김암기가 송재구 시장에게 전시실을 제안하고 이를 받아들여 목포시로부터 남교동 111-9(공무원매점)의 공간 90평을 전시장용으로 예총에 사용 승인을 해준다. 1989년 3월 20일 남교동 111-9 시민회관 자리에 목포예총회관이 이전한다. 1997년 목포문화예술회관 개관과 함께 목포예총도 예술회관 1층에 자리를 잡아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다.

“차재석씨가 예총회장 할 때 전시회 다 뭐다 할 때 남교동에 가면 목포교육청이 있었어요. 그가 있었을 때 이사를 갔는데 목포예총에서 그 건물을 샀어요. 당시 비도 새고 할 때인데 목포교육청은 좋은 곳으로 옮겨 갔고 헌 낡은 목조건물을 산거예요. 나중에 서울 가서 활동했던 연극협회 김길호라는 사람이 사무실을 지키고 살았는데 회의가 있어서 가보면 비가 올 땐 바케스에다 물을 받고 할 정도였어요. 거기서 사무보고 회의하고 그랬어요. 거기에 피아노가 한 대 있어서 내가 여럿이 놀러 가면 「목포의 눈물」 피아노로 치고 술 한 잔씩 먹고 그랬어요. 차재석 씨가 그 사무실을 팔아가지고 저기 저 중등포 가는데 쪽에 집을 지어서 이사를 갔는데 그 돈을 우선 썼어요. 예총이 있던 교육청 자리 그 판 돈을 개인적으로 잠깐 썼어요. 그것을 누가 고발을 했어요. 공금을 가지고 자기 집을 지었다고 그래서 차재석씨가 목포 교도소를 가서 그때 김암기 선생님하고 면회도 가고 했는데 결국 나왔죠. 그건 아니다 라고 판결은 났어요. 차재석씨도 지금은 돌아가셨고 초창기에 그분이 목포예총 행사를 하는데 아주 굉장히 노력하셨던 분이예요. 내가 첫 개인전 할 때도 날마다 와서 ‘김병고 선생 그림 좋아요, 그림 좋아요’ 하며 차도 사주고 하면서까지 활동 많이 하셨죠.”

목포예술제는 목포문화협회 창립과 더불어 1959년 11월 1일 제1회 목포예술제가 열린 뒤 현재는 목포시민의 날인 10월 1일 전날에 목포예술제 전야제를 하고 있다. 한국예총 목포지부는 국악협회,



그림 3 37회 목포예술제 미술실기대회 시상식



그림 4 목포개항 100주년기념 목포예술제 백일장

무용협회, 문인협회, 미술협회, 연극협회, 사진협회, 연예협회, 음악협회 이렇게 8개의 협회가 소속되어 있었다. 2013년부터는 한국예총 목포·신안지회로 활동하고 있으며, 소속 협회로는 국악, 무용, 문인, 미술, 연극, 사진, 연예, 음악, 수석, 평양예술단, 신안문인, 신안사진 12개 협회이다. 목포예술제는 이러한 협회 단체 회원들의 창작 예술 활동과 청소년 및 지역민들의 예능적 재질을 발굴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차재석 선생은 남농 선생 밑에 있으면서 목포예술제를 만들었어요. 1959년 그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예술제는 목포예총 소속 8개 협회 사람들이 다 준비를 하지요. 10월 1일이 목포시민의 날인데 전날에 목포예술제 전야제를 하지요. 지금은 목포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하는데 그때만 해도 장소가 없으니까 선창에 가면 노동회관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그런 곳을 빌려서 전야제 및 예술제를 했지요. 노동회관에서 했을 때는 1970년대죠. 지금 임점오는 수석협회 그런 것도 예술제에 넣는데 그것이 어떻게 예술입니까. 창작이 아닌 있는 그대로인데 그런 것까지 세워놓고 예술제가 보면…… 딱 8개 협회만 하면 되는 것을 말이에요. 목포예술제 전야제를 치루기 위한 시화전 같은 것도 해마다 했고, 송년의 밤이라 해서 거기에서 공로상도 주고 하지요. 또 10월 1일 앞에 9월 30일 날은 목포예술제 전야제를 하면 남농 예술상, 우하 예술상 등의 상을 주지요. 그럴 때 비용이 필요한데 그림을 몇 점 내놔 가지고 그 부상으로 주기도 하고 또 예총회장이 목포미협 회원들에게 부탁해서 한 점씩 기증해라 그래갖고 부상을 주기도하지요.”

목포 지역의 문학 발전에 기여한 소청 조희관을 기려 제정한 소청문학상 운영위원을 비롯하여 목포교단문학회 창립회장, 한국문인협회와 목포예총 지부장 등을 지낸 박순범은 1978년 목포예총 지

부장을 역임하고 있었다. 당시 목포미협 지부장이었던 김암기와의 예술제 운영관련 말다툼으로 인하여 목포미술협회와 연극협회는 1978년 목포예술제에 참여를 하지 않게 된다. 이후 미술협회는 수문당 2층에서 목포미협전을 따로 가진다.

“박순범 선생이 예총회장 할 당시인 1978년 즈음에 김암기 선생하고 엄청 대립이 있었죠. 그때 역전파출소 앞에 항실 다방이 있었는데 김암기 선생하고 나하고 들어가니까 박순범 선생하고 그때 음협 지부장하고 음악협회 발표회인 음악행사에 헤인여고 학생들을 많이 넣어 뒀어요. 예술제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김암기 선생이 ‘아니 프로들이 하는데 자기학교 학생들을 넣어서 하면 뭘 예술제냐’ 이야기 했지요. 김암기 선생이 ‘그럼 나 미협전 때 우리학교 미술부 마리아회고 미술부 학생들 막 같이 하면 쓰겠냐.’하고 말했지요. ‘당신들 학생들은 콩쿨하고 우린 학생 사생대회 따로 하고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 아니겠냐고.’ 그랬지요. 그러자 아산 박순범 선생이 ‘목포미협은 어쩔 예총행사를 그냥 트집 잡고 그러냐.’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김암기선생과 다투어요. 나중에는 어떤 기자가 목포 예술제에 대해서 썼는데 그때의 이야기를 기사화 해버렸어. 그러니까 짐작으로 박순범 선생이 김암기 선생이 다음 예총지부장을 하려고 그랬다는 식으로 그냥 기사를 쥐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김암기 선생이 마리아회고에 있을 때인데 ‘내가 정년퇴임 해갖고 그때 하면 하지 지금은 지부장 안한다.’ 그러면서 둘이 입 다툼이 있었어요. 결국은 목포미협 이사회에서 ‘박순범 선생이 회장에 있는 한 우리 목포미협은 예술제에 참가하지 않는다.’ 그렇게 결의를 해갖고 우리하고 연극협회하고 예술제에 빠졌어요. 그래서 여섯 개 협회에서만 했어요. 우리는 따로 수문당 2층에선가 목포미협전을 따로 가졌어요. 그 뒤로는 언제나 8개 협회가 행사를 했어요.”

7. 목포예총 회장 당선 일화 및 비화

김병고는 프로 화가의 길을 걸으면서 목포예총을 이끌어 가는 일에 전념하기 위하여 교원 명예퇴직을 하고,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제11대 목포예총 회장을 한다. 그는 완전한 화가로서의 길을 걷고자 했던 결단의 결과 현재 지역의 최고 미술계 원로로서 인정받고 있다.

“내가 1995년 목포예총 지부장 당선될 때 이야기를 하자면 그 당시에는 무용을 하셨던 최진열 선생이 예총회장



그림 5 김병고 한국예총 목포지부장 취임식

을 내 앞에 했어요. 최진열 선생이 두 번 하려고 했어요. 선배들 애기인즉 현직에 있으면서는 하지 말고 반드시 사표를 내야 하고 학교에 있으면 교육청 산하에 들어가니 예총회장은 교육장하고 같이 행사를 할 때 테이프를 끊고 다니는데 수백 명 예술계의 제일 어른이 교육장한테 굽신 하고 다니면 예술인들이 뭐가 되겠느냐 해서 명예퇴임으로 사표를 던졌어요. 그래서 출마해서 최진열 선생에게 이긴 거예요. 미술 선생님 하면서 화가 노릇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프로가 아니에요. 나는 완전한 화가가 되려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드니 스스럼없이 내려놓고 화가의 길을 걸었죠. 그러니까 오늘날 목포를 대표하는 원로 화가가 되었죠. 원로 화가라 해서 실력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목포에서는 미술협회 행사나, 목포예총 행사를 가면 내가 언제나 최고 원로예요. 목포예술제를 한 다든지, 송년의 밤 전야제를 한 다든지 하면 내가 언제나 맨 앞에 가서 격려사를 하거나 축사를 하는 그런 정도로는 되었어요.”

김병고는 완전한 화가가 되고자하는 신념과 우하 김정재의 예총 회장 자리 양보가 있어서 예총 회장에 선출될 수 있었다. 그의 임기가 끝나고 다시 제12대 예총 회장 선거날이 돌아오고 김정재가 후임으로 당선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으나 12대 예총 회장은 최일환 시인이 당선된다. 이후 김정재는 교육위원에 나가 당선 되었으나 당선의 기쁨을 뒤로 하고 추락사로 운명하게 된다.

“예총회장으로 나갈 때 조건이 있었어요. 김정재 시인이 산정초등학교 교장인데 ‘삼년 후에 내가 퇴임을 하게 되면 내가 하려니까 자네 한번만 하게.’ 하셨어요. 김정재 시인이 광주사범학교 선배거든요. ‘그럼시다. 형님 나 딱 3년만 할라요. 그 다음은 형님이 하쇼.’ 그랬죠. 그래서 전 3년을 지켰어요. 근데 우하 선생의 불행한 일로 연결되지요. 1998년 즈음에 최일환 시인하고 김정재 시인 둘이 내 후임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딱 한 표차로 우하선생이 떨어졌어요.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교육위원으로 나갔어요. 당시 나는 목포서부초등학교 운영위원장으로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투표권이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운영위원장에게만 선거권이 한 표씩 있었어요. 지금 시청 옆에 있는 KBS가 투표장소가 되었죠. 나도 김정재 우하 선생을 뽑았죠. 당선 돼가지고 축하 전화도 하고 방문도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하 선생 집 지붕이 조금 새었던가 봐요. 지붕을 수리하려고 올라갔는데 사다리가 흔들려서 떨어져 버렸지요. 문병을 갔는데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예총회장에 당선이 되셨으면 교육위원도 안 나갔을 것이고 돌아가시지도 않았을 텐데……. 운명이란 것이 그런 것이에요.”

김병고는 1995년 예총회장에 당선되고, 예총회장의 역할로서 김현문학비 제막식이나 목포개항

100주년 기념 문화예술회관 개관식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면서 연설 및 기념사를 낭독한다. 김현문학비 제막식은 1990년 48세라는 짧은 나이로 타계한 불세출의 목포 출신 평론가 김현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문학과지성사 김병익 대표를 비롯한 김현문학비 건립위원회 주최로 1995년 4월 15일 향토문화관 트랙에서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지하, 최하림 시인의 문학 강연과 황동규, 황지우, 김혜순 시인 그리고 목포 거주 시인들의 시 낭송회가 있었다. 아울러 제막식이 끝난 후 김병익 대표는 목포문학 증흥을 위해 창작기금 1천만 원을 목포문인협회에 전달한다.

“1995년 예총회장으로 있을 때쯤에 김현문학비 제막식에도 참여했는데 김현 선생이 문학평론가로서는 유명하신 분이죠. 그 분이 돌아가셨을 때, ‘난 목포에 묻히고 싶다.’ 그랬거든요. 그분의 문인 친구들이 목포시청에 요구했어요. 목포 출신인데 ‘목포에 묻히고 싶다. 묘지를 좀 주라.’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 생긴 것이 향토문화관이었는데 향토문화관 뒤쪽으로 돌아가면 언덕이 하나 있었어요. 그곳에 묻혀 났죠. 서울에서 상당한 문인들이 버스 대절해서 참석하려고 내려왔어요. 그때 제막식에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이 목포문화협회에 천만 원을 주었어요. 최재환 시인이 문협지부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 이것을 ‘목포 문학발전에 쓰시오.’하고 줬어요. 이에 보답한다고 최재환 시인이 나를 조른 거예요. ‘인사를 해야겠는데 예총회장이 그림 한 점 내 놓소.’해서 내가 그림 한 점을 드렸더니 서울에서 고맙다고 1천만 원 주신 분이 편지를 보내고 그랬어요.”

1997년 목포문화예술회관 개관식 행사 때 김병고 예총회장의 연설을 듣고 감동받은 보해양조 창업주 임광행 회장이 500만 원을 기부한다. 기부 받은 돈으로 시화전을 열고 시화집 『목포의 고향시』를 발간하여 시청에 기증한다.

“목포개항 100주년 기념 목포문화예술회관 개관식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때 권이담 시장, 김홍일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그리고 나 이렇게 네 사람만 축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맨 나중에 올라가서 상당히 열을 올렸죠. ‘이 건물 하나만 있으면 뭐하냐. 여기서 전시도 앞으로 해야 하고 무대에선 공연도 해야 하고 하니까 길 확장도 하고 버스도 다니게 해라 시청에서 그렇게 한다고 약속해라.’라고 말해서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냈어요. 임광행 회장이 내



그림 6 보해양조 임광행회장으로부터 500만원과 감사패 전달 장면

가 축하하는 것을 본부석에서 다 지켜봤어요. 임광행 회장이 ‘아, 연설 잘 들었다’고 악수를 하면서 내게 500만 원을 드리겠소, 했어요. 그 당시 김홍조 시인이 예총 사무국장 하고 있을 때인데 내가 김홍조 사무국장을 보냈더니 500만 원을 타गत고 왔어요. 내가 생각하기를 지금 에어컨도 너무 오래되어서 못 쓰겠고, 컴퓨터도 그렇고 시설을 할까 하는데 사무국장이 ‘그렇게 써 봤자 나중에 없어져버려요. 우리가 뭐하나 책자로 남긴다던지 그림을 남긴다던지 그렇게 씁시다.’ 하데요. 그래서 우리가 목포 출신 시인들을 열 몇 명을 선정하고 화가도 김암기 선생을 비롯해서 엄격한 기준을 정해서 시화전을 냈어요. 그래서 나도 그때 황의돈 선생님하고 세 작품을 했었어요.”

목포는 전시공간이 부족하여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중반에는 주로 다방을 전시공간으로 이용하였다. 전시공간으로 주로 애용했던 다방은 미네르바, 밀물, 돌, 용, 미로, 새마을 다방이 있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말까지는 미술협회 회원전을 비롯한 단체전이나 전시에 이용했던 전시공간으로는 황실, 세종, 목우, 해태 다방, 중소기업은행 목포지점 3층, 1980년 세워진 보광당 3층의 목포 현대화랑과 해목화랑, 예총화랑 등이 있다. 1970년대 다방이 전시공간으로 사랑을 받았음을 증명하듯 김병고의 첫 개인전도 1977년 5월 오거리 청예다방에서 열린다.

“전시회는 오거리에 있는 다방에서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많이 애용된 것이 목포역 전파출소 건너편에 있는 황실다방이에요. 그때는 다방 아니면 할 데가 없었다니까요. 황실다방은 최마담이 경영을 했었는데 미리 몇 달 전에 이야기를 해놔야지 다 차례가 있어가지고 아무 때나 전람회 한다고 하면 자리가 없어요. 벽이 괜찮은 데는 한 40점 그러 안 하면 한 30점 걸어요. 너무 가깝게 붙이면 안 되니까. 벽을 잘해놔요. 다방에서 전시장으로 이용하면은 대관료도 내고, 또 찾값도 매상도 오르고 하니까 벽 도배를 잘하죠. 전시장 벽지처럼 좋게 해주고 조명도 딱 좋게 해놔야 해요. 그림은 빛이 생명이라서 빛이 딱 거기다 때려줘야 살지요. 전시회를 하면 미술부 학생들이 들어 올 때도 있어요. 학교 미술선생님이 한다고 하면 학생들이 들어와서 쪽 감상하고 나가더라도 손님들도 다 이해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평화극장 앞에 세종다방이라고 있었는데 그 곳에서도 했어요. 큰 작품이 있을 때는 중소기업은행 목포지점 3층에서 했고, 보통 소품전 할 때는 다방에서 했어요. 시민회관 생기고 나선 시민회관에서도 했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데 그것두 먼저 선약을 해놔야 할 수 있어요.

목포 현대화랑은 최대양이라는 사람이 목포MBC에 근무했어요. 근데 그 부인이 초등학교 선생님 이었는데 그 선생님 퇴직금을 받아서 세웠어요. 해목화랑은 콜롬방 돌아가는 데서 최영일이라고 운영했어요. 주로 그룹전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목포쪽 사람보다 광주 화가들이나 이런 그룹들을 초대

해 가지고 초대전을 많이 했지요.”

목포는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까지 주로 다방이나 화랑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1983년 세워진 향토문화관 전시장은 개관 당시에는 시내에서 떨어진 위치에 있어서 교통이 불편한 편이었고 대관 절차도 복잡해서 개인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룹전이나 단체전이 가끔 개최되었었다. 1988년까지는 갯바위 향토문화관 전시실에서 전시회가 열렸으나 관람자 수가 많지 못하였고 전시 공간마저도 몇 년 후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1992년 미술협회는 전시 공간 확장을 위한 남도작가 초대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작품 수집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1993년 5월 6일 서울공평아트센터에서 향토문화관 미술 전시 공간 마련을 위한 남도작가 초대전을 1주일간 개최하여 1억 5천만원의 기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돈도 시청 통장에 보관되어 있을 뿐이다.⁰⁵⁾ 전시공간의 부족 부분을 메꿔줄길 기대했으나 기대에 못 미치는 곳이 되어버렸다.

“목포향토문화관은 1983년 7월 1일에 개관했지요. 지금은 예술의 거리가 되었지만 갯바위가 그때는 뭐 아주 촌이었어요. 시골이었는데 제일 먼저 생긴 공공건물이 향토문화관이네요. 거길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화가들이 그림을 한 점씩 기증 했어요. 나도 그때 30호 짜린가를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포 출신 재경 화가들도 몇 사람 참여해서 한 30점에서 40점 정도해서 서예까지 하면 더 될 거예요. 그 작품을 기증해서 향토문화관이 생겼는데 그것이 나중에 무엇으로 바뀌었냐하면 돌, 조개 그런 걸로 바뀌어버렸어요. 전시실에 있던 작품들이 말이예요. 우리들이 기증한 작품들이 시청 창고 어디로 들어가 버렸어요. 향토문화관을 뒤로 쓰고 있는가 몰라요.”

8. 김암기 예총 회장과 송재구 시장

김병고는 미협지부장 시절에 만난 송재구 전 목포시장을 1990년을 전후해서 목포시에 재임했던 관선시장으로서 예술계 대표들을 시장실에 초대하여 환담을 나누거나 자문을 구하는 자세와 예의를 갖추었던 시장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김암기 예총지부장이 목포예총을 이끌고 있을 당시인 1989년 2월 송재구 시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전시회장이 없어 다방에서 작품 전시회를 가질 수밖에 없는 실정을 이야기한다. 이에 송재구 시장은 시민회관 내에 있던 공무원연금매장을 회관 밖으로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90평 규모의 전시장과 예총사무실을 마련해준다. 1989년 3월 24일 ‘목포예총회관 및

05) 김병고, 앞의 글, 500쪽.

예총화랑 개관식'이 이루어진다.

“예총화랑은 1989년 송재구 시장 때인데 남교동 중앙공설시장 2층에 시민회관이 있었어요. 시민회관이 여간 컸지요. 송재구 시장한테 김암기 선생이 예총회장 할 때 우리 예총 사무실도 주고, 전시장도 좀 주쇼. 거가 커갖고 많이 비어 있었거든요. 베니어판으로 막아버리면 방 하나씩 생겼으니까. 예총사무실도 거기에 처음으로 생겼고 아래에는 장사하는 곳이고 2층은 시민회관이었어요. 연극 발표며 전시회랑 시화전, 목포미협전, 사진작가들 전람회 등 거기서 많이 했어요. 거기서 상당기간 있었지요.”

1989년 말 노태우 대통령의 목포방문이 있을 당시 송재구 시장은 김암기 예총지부장에게 목포에 문화예술회관을 세울 수 있도록 건립비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달라는 건의 말을 제안하고 이에 수긍한 김암기 예총지부장은 노태우 대통령에게 건의 말을 전한다. 노태우 대통령은 목포에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도록 3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한다. 약속 이후 건립을 추진하여 1997년 9월 29일 목포문화예술회관이 개관하게 된다.

“노태우 대통령이 목포를 오게 되었어요. 김암기 예총회장한테 송재구 시장이 당신이 목포시민 한 사람으로서, 예술인의 한사람으로서 일어서서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해 달라. 목포에 유력인사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맞이하는 그런 자리에서 김암기 선생이 ‘대통령각하’라 한 것 같아요. ‘건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오.’ 그러니까 ‘그리스 아테네를 가면 예술전당이 있어서 그리스 문화를 꽃피웠는데 우리나라 목포에 그런 큰 전시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국비를 좀 지원해주십시오.’ 하는 내용의 말을 했어요. 즉석에서는 대통령이 대답 안했어요. 인사 끝난 다음에 참모들 불러서 의논을 하더니 가면서 30억을 지원한다고 해요. 그때 30억 컸어요. 송재구 시장하고 김암기 예총회장하고 열싸안고 뛰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문화예술회관이었는데, 어떻게나 공사하는 동안에 30억 갖고 안돼요. 그래갖고 완공하기까지 7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목포예술회관이 탄생하기까지요. 시에서도 그 뒤에도 돈을 많이 투자하고 예총에서도 기금을 마련해서 돕는다고 전람회도 해서 그림 판 돈을 거기다 넣고 그렇게 해서 목포문화예술회관이 생긴 거예요.”

9. 목포 미술동호회

목포 지역에서 활동하는 미술 동호인 조직은 일요화가회, 목포사생회, 지금은 없어진 동양화가 모임인 탐진회, 삼목회(森木會), 청유회 등이 있다. 김병고는 일요화가회의 지도교수와 삼목회의 초창기 멤버이자 회장으로 활동한다.

“1978년경 만들어진 목포 일요화가회는 김암기 선생이 조직했어요. 김암기 선생이 회장이고, 그때 나보고는 지도교수라고 해서 했고, 아마추어들이 다니거든요. 대개 전문 화가들이 지도교수라 해서 들어가 같이 사생화를 그리러 야외에 나가요. 일요일에만 만나서 그리러 간다 해서 일요화가회가 조직되었는데. 지금은 일요화가회에서 거의 목포미협으로 들어와 버려서 전문 화가들하고 이제 시작한 사람하고 구별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일요화가회는 지금도 그렇게 해 나가고 있어요. 몇 번 나도 현장에 나갔는데 야외 사생을 내가 점점 줄이면서 화실 중심으로 하면서 잘 안 나가요. 2000년 정도에 만들어진 청유회라는 단체는 처음에는 삼목회 안에서 활동했지요. 목포와 연고가 있는, 목포 출신 서울 작가들이에요. 목포에서 10년 이상 활동했거나 서울로 옮겼거나 목포가 고향이거나 목포에서 미술대학을 나왔거나 이런 사람들이 서울회원으로 해서 처음에는 같이 했어요. 그런데 작품 보내기도 어렵고, 복잡하니 우리가 청유회라고 따로 만들어 나갈란다 해갖고, 서울사람들은 청유회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삼목회는 1980년 12월 김암기, 김용구, 김병고, 최낙경의 겨울 사생 여행에서 잉태되었다. 이들은 목포파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지역 미술의 토착을 위해 개척자의 고뇌를 감수해가며 후배들을 육성해 나가자는 열망으로 발기되었다. 1981년 2월 목포 황실다방에서 창립총회를 가졌으며 회장 양인옥, 부회장 김암기, 총무 김병고 등 14명의 서양화가와 평론회원 최하림, 원동석 2명을 포함해 모두 16명이 참가했다.⁰⁶⁾ 삼목회는 목포에서 활동하는 서양화 부분만해서 회원이 30명이 넘는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1981년 만들어진 삼목회는 김암기 선생하고 나하고 돌아가신 김용구 선생이랑 충청도 마곡사 쪽에 그림을 그리러 갔을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김암기 선생이 제의를 했어요. 파리에 가면 전원파라고 있었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을 보고 바르미종파라 하는데 밀레나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 목

06) 김병고, 앞의 글, 512~513쪽.



그림 7 28회 국전 입선 작품 앞에서

포도 바르미종파 같은 목포 같은 그림을 그리는 전국적으로 목포 파 같은 회를 만들자. 목포가 얼마나 그림 그리기 좋은 곳이나 바다도 있고, 배도 있고 유달산도 있고, 삼학도도 있고 엄청 그림 그리기 좋은 곳인데. 우리도 그런 목포다운 그림을, 특색 있는 그림을 그리는 서양화가들의 모임을 갖자. 내가 그랬어요. ‘목자만 모아서 하자. 나무 목자 네게 가지고 만들면 삼목이 된다. 삼(森)자는 나무 목 세 개가 삼이고, 수풀 삼자다. 거기다 또 목(木)자를 붙이면 목자가 네 개가 되니까 얼마나 목포를 강조한 것이냐. 삼목회라 하면 좋겠다. 우리는 목포를 세 번, 네 번 사랑하는 서양화가 모임입니다.’ 라고 그랬더니 김암기 선생이랑 모두다 무릎을 딱 치면서 ‘그게 맞네. 자네 말이 맞네.’ 그때부터 삼목회를 했어요. 내가 활동을 쫓하다가 삼목회 회장하면서 그랬어요. 입회 순으로 회장을 하자. 3년 임기가 끝나면 그 다음 입회한 사람이 회장을 하자. 그래가지고 쪽쪽 내려온 것이 최영배 씨도 하고 지금은 문충길 씨가 삼목회 회장을 하고 있는 거죠. 삼목회는 상당히 오래되어서 삼목회 회원전도 많이 했어요. 보통 가을에 회원전을 많이 합니다. 지금 목포뿐만 아니라 호남 쪽에서 제일 실력 있는 서양화가들의 모임입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까지 목포화단의 상당수의 화가들이 공모전에 많이 나가는데 서양화가에는 김암기를 비롯한 김병고, 김용구, 정청용, 최성훈 등이 있다. 이들이 주로 활동한 공모전은 국전, 목우회공모전, 전남도전이였다. 1965년에 생겨난 전남도전은 이 지방 작가 지망생의 유일한 등용문으로 작용하였다. 김병고는 국전 28회, 29회 두 번을 입선하고, 국전이 미술대전으로 바뀌자 더 이상 공모전에 작품을 내지 않고 목우회공모전에 도전한다.

1960년대 양인옥이 목포여자중학교를 거쳐 목포상업고등학교에 재직할 무렵 국전과 목우회전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1965년에 제14회 국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다음해인 1966년에 제15회 국전에서 문교부장관상을 수상한다. 그보다 먼저 1963년에 양인옥은 제1회 목우회공모전에서 최고상 및 문교부장관상을 받아 목우회원이 되었다. 김암기는 1977년 제14회 목우회공모전에 출품하여 최고상을 수상하고 목우회 회원이 되었다. 이후 김병고는 목우회공모전에 특선 3회 획득(1979·1981·1982, 국립현대미술관)으로 1982년에 목우회원이 되고, 목우회 전남지회장을 지낸다.

“목우회(木友會)는 우리나라의 서양화의 원로들이 덕수궁 나무 밑에서 우리가 후배들을 위해서 미술단체를 만들자 해서 나무 밑에서 그림 그리는 화우들이 만들었다 해서 목우회라는 설도 있고, 십

팔명 열십자에 팔자를 합하면 나무목이 되고 열여덟 명의 선배 화우들이 만들었다 해서 창립이 되었다는 설이 있어요. 목우회 공모전⁰⁷⁾이 아주 세거든요. 목우전 제1회 때인 1963년에 최고상을 양인옥 선생이 받았고, 1977년 14회 때 최고상 받은 사람이 사양이라는 고기를 머리에 얹은 그림을 그린 김암기 선생이에요. 목우회 회원이 되려면 최고상을 받으면 한 번에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특선을 3번하거나 열 번 입선하면 목우회 회원이 되었어요. 목우회 회원 되었다 하면 실력을 알아주죠. 그렇게 쪽 내려오다가 처음엔 서양화만 하다가 동양화도 회원으로 넣자 그래서 동양화도 공모전에 넣어요.”

문주회(文酒會)는 1980년대 초 술도 마시고 시도 읊으면서 풍류를 즐기기를 원했던 문인들을 필두로 해서 만들어진 동호회이다. 문인들만으로 이루어진 동호회였다가 김병고, 김암기가 들어가서 화가도 포함된 문주회가 되었다. 목포 문화를 논하고 인생을 즐기는 목포 문화계를 주름잡던 문주회의 주령을 김암기가 하다가 작고한 뒤 현재 김병고 주령이 문주회를 이끌고 있다.

“목포에는 또 유명한 동호회가 있어요. 문주회라고 하는데 해양대학교 뒤에 언덕 있는 데에서 시인들이 자기가 먹을 술은 자기가 갖고 와야 되고요. 막걸리가 되었던 정종이 되었던, 소주가 되었던 요렇게 병으로 가져와요. 안주는 총무가 만들어 가지고 오면 거기서 시 발표회도 해요.

지금 차 없는 거리에 대안주점에서 나하고 김암기 선생하고 자주 갔었는데 거기서 술을 먹고 있을 때 문인들이 와서 저희한테 제안을 했어요. 우리 문인들끼리 모임이 있는데 화가들도 있으면 더 좋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김암기 선생하고 나하고 들어가갖고 화가들도 낀 문주회가 된 거죠. 술 좋아하는 선비정신을 가진 자. 뭐 이런 자격이 회칙에 있어요. 그래서 문주회가 계절에 한 번씩 모이죠.

처음엔 황의돈 선생이라고 MBC 있던 그 분이 초대 주령을 했어요. 문주회는 회장이라 안 하고 술주(酒)자를 써서 주령(酒令)이라고 해요.

문주회에서 2002년에 『뉘라서 이 술잔 마다 하리』문집도 냈어요. 문집은 조그만 책으로 나왔는데. 김상범이란 사람이 총무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월매출판사를 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각자 글들을 내라고 해서 나도 두 편을 냈던가 해서 만든 책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말할 때 오히려 당신은 그림보다 글을 써야 빛난다고 말하는데 그 내 사주팔자를 봐준 사람도 글을 써야하는데 할 정도로 청탁이 많이 들어와요.”

07) 목우회 공모전은 비록 민전이기는 하지만 사실주의 화가들에게는 국전에 버금가는 전국 규모의 큰 공모전이다. 이 공모전에서 최고상을 받거나, 특선 3회, 또는 입선 10회를 한 자는 목우회 회원으로 영입되므로 관심과 열기가 높았다(김병고, 앞의 글, 502쪽).

김병고는 목포는 예향 일번지로서 지역의 어느 곳을 가나 그림 한 두 폭, 붓글씨가 꼭 걸려 있을 정도로 예술과 멋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많으며, 목포가 목포예술제를 통하여 많은 예술 인재들을 키워낼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교원생활을 시작하면서 목포와 인근에서 50여년을 살아온 그는 목포 및 인근 지역이 그림 그리기에 최적의 조건이기에 화가로 목포에서 커나가는 사람들에게겐 참 예향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그는 자신의 화폭에 작품을 확대 변형하면서 삶의 이야기를 넣는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마지막 인터뷰 당시 78세를 막 넘기고 있던 그는 희망하기를 팔순(八旬)이 되면 본인의 그림을 모은 화집을 내고 기념전을 가지고자 했다. 그의 희망은 이루어져 현재 화폭에 담긴 팔순의 흔적을 모은 화집을 발간하고 기념전을 열었다.

정미영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연구보조원

제2절 목포 최초의 서예학원을 설립한 서예가

유천(儒泉) 서종견은 1936년 곡성 출신으로 1962년 목포와 인연을 맺으며 유달서예원과 유천서예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4차례의 개인전을 가졌고, 목포에서 서예협회를 조직해 운영하는 등 서예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지금까지도 현역으로 지역 서예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의 여러 기념물과 현판에 그의 글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유달산의 ‘대학루’, ‘초의선사 추원비’, 그리고 목포진의 ‘목포지관’ 등이 있다.



그림 1 유천 서종견

1. 어릴 때부터 두드러진 글씨 솜씨

서종견은 1936년에 곡성읍 신기리에서 아버지 서해규와 어머니 김초연 사이에서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위로는 누나와 형이 있었다. 그의 프로필에는 ‘동락헌 주인’이란 명칭이 등장한다. ‘동락’은 고향 곡성에 있는 ‘동락산(動樂山)’에서 따왔다. 목포에서 50년 넘게 살면서도 늘 고향 곡성을 그리워한 탓이다. 곡성은 산악이 많고 농경지가 적은 곳이지만, 집안은 비교적 여유 있는 중농 규모의 농사를 짓고 있었다. 더군다나 잡업기사로 곡성군청에서 근무한 아버지는 새로운 기술과 사상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였다. 아버지는 나중에 곡성군 초대 면의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조부는 지역에서는 유명한 한학자인 만송(晩松) 선생이였다. 외조부도 한학에 조예가 깊으신 분으로 곡성 구월리에 사셨다. 곡성군은 비록 작고 가난한 군이지만 유교와 한학의 맥이 잘 전승되는 지역이였다. 서종견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곡성중앙공립초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서당에서 고전을 공부할 수 있었다. 그는 일찍이 글씨와 서예에도 남다른 소질이 있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전람회에 낸 습자가 우수’하여 받은 상장과, 서예를 잘해 받은 상장이 지금도 남아 있다. 이처럼 평소 글씨를 예쁘게 쓴다는 평가를 받았고, 실제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친구들의 연애편지를 대필해주고 빵을 얻어먹은 경우도 많았다.

“내가 글씨 쓰는 재능은 있었다고 생각해요. 안호상 박사⁰¹⁾가 문교부 장관 때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습작 우수작이라고 서예 붓글씨를 잘 썼다고 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남보다 글을 좋아하고 잘 쓰는구나 생각을 하게 됐제.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겨울방학이면

01) 초대 문교부장관을 역임했으며 재임기간은 1948~1950년이다.

시골 서당을 다녔어요. 나는 조부님이 엄하셔서 거역을 못하고……, 엄한 가훈을 많이 받고 살았지. 방학 때면 그렇게 서당에 가서 손 킴킴한 밤에 암송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야 다음 페이지를 가르쳐 주니까. 순전히 스파르타식으로 외우는 거야. 그렇게 구학문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동몽선습』을 배웠고, 그 다음에 『사자소학』, 『추구』, 『명심보감』, 『소학』, 『논어』 뭐 그런 과정을 배웠어. 『논어』 중간까지 하다가 그만뒀어. 외할아버지도 한학자 집안이었어. 그걸 보면 곡성이 한학 분위기가 진했던 것 같아요.”

서종견은 중학교 2학년 때 6·25전쟁을 맞았다. 이때, 집안에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 누님이 1950년 경기도 양주로 시집을 갔는데, 얼마 후 전쟁이 난 것이다. 마침 사돈 집안이 군인 가족이었다. 전쟁 와중에도 아버지는 양주에 올라가 딸의 행방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군인가족이라고 이북사람들이 후퇴 할 때 전부 데리고 올라갔다’는 말만 들었다. 결국 하나 밖에 없는 누나는 그렇게 헤어진 후 지금까지도 행방불명이다. 그가 30년 넘게 대한적십자사에 평생 후원회원으로 활동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혹시 살아있다면 88세(2017년 현재)가 될 누나를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찾아달라고 신청하지만 성과가 없다. 전쟁을 치른 나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안타까운 사연이 아닐 수 없다.

그가 곡성농고 2학년에 다닐 때였다. 아버지가 친구의 사업에 보증을 섰다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날리고 말았다. 아버지는 술을 마시며 괴로움을 달래다가 결국 환갑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말았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그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무렵인가 아버님 친구 분이 곡성읍에서 아이스크림 빙과류 제작회사라고 할까, 얼음공장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설립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보증을 서고 전답을 다 담보로 빌려줬어. 그런데 사업이 망해 부렸어. 그러니까 우리 집도 쫓딱 하루아침에 가세가 기울어져 분 것이지. 그래서 대학 갈 엄두를 못 냈지. 그래서 대학을 포기해 부렸지. 그 뒤로 아버지는 거의 술로 생활을 하셨지.”

서종견은 학창시절 성적이 늘 최상위권이었기에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것이 평생의 원망으로 남았다. 열정적인 청년인 그는 대학 진학 대신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1957년 국회의원이자 자유당 부총재인 이기붕이 원장을 맡고 있는 중앙정치훈련원에서 정식교육을 받기도 했다. 또, 당시 군대에 늦게 가기 위해 초등학교 임시교사를 잠시 맡기도 했다. 이렇게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몸부림을 치던 그는 결국 군대에 다녀온 후 25세가 되던

1960년 곡성을 떠나 광주로 이주했다.

2. 펜글씨로 맺은 인연, 목포

광주에서 직장을 찾던 서종견은 학원 강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았다. 중앙펜글씨학원 강사 자리였다. 그는 평소 글씨를 잘 쓴다고 자신하던 터라 학원 문을 열고 들어갔다. 당시 학원장은 정연상이었다. 그는 대뜸 글을 써보라고 했다. 그리고 서종견의 글을 본 원장은 두 말 없이 함께 일할 것을 제안했다. 단, 한 달간 자신에게 특강을 받으면 강사로 발령을 내겠다고 했다. 서종견이 평생 글씨를 쓰면서 살게 된 인연은 이렇게 시작됐다.

정연상 원장은 서종견을 비롯한 7명을 사범과로 선발해 집중 교육시킨 후 한 달 후 모두 강사로 발령냈다. 동료들은 목포, 순천, 여수에 있는 중앙펜글씨학원 분원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서종견은 대인동 광주 본원에 남아 강의를 시작했다. 이렇게 1961년 광주에서 첫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광주 본원에서 즐겁게 생활하는 그 사이 목포 분원을 맡은 강사가 사정이 있었는지 그만 두었다. 그 빈자리를 정연상 원장이 직접 목포까지 다니며 강의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정 원장이 서종견을 목포 분원으로 발령을 냈다. 그는 갑작스럽게 아무런 연고도 없는 목포로 내려가라고 하니 막막했다. 더군다나 목포는 대도시가 아닌가. 그는 똑똑한 사람도 많고, 캉패도 많다는 곳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목포에 첫 발을 내딛었다.

“목포에 대한 선입관이 있었는데 뭐냐면, 군대 생활할 때 목포출신들이 참 억세드라고. 같은 내무반에서도 상당한 헤게모니를 잡고 있고, 쉽게 말해 계급에 관계없이 좀 깡다구도 있고, 인상이 좋지 않아요. 목포 출신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중학교 때……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거든요. 한문을 아니까 이해가 빨라서, 자화자찬 같지만 내가 항상 1등, 2등을 했지. 그래서 학생운영위원장을 했어. 지금 말하자면 학생회장이여. 근데 전남 각 학교 운영위원장들이 모여서 토론한 적이 있어. 교장이 임명장 주고 여비까지 줘서 대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때 문태중학교, 목포사범학교 대표가 그렇게 말을 잘하드라고, 그 때 생각했지. 아, 목포에 똑똑한 사람들이 다 있구나. 그때로서는 목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 큰 도시였지. 또, 나쁜 말로 캉패도 목포에 젤로 많고. 겁먹었지. 그러나 한학에 ‘인자는 덕’이라고 ‘인자위덕(仁者爲德)’이라고 있는데, 어질고 착하면 적은 없다. 인자무적이다. 그래서 나는 착하게 살면 된다는 그 신념만 갖고 남한테 폐 안 끼치고 살자. 여기서 남한테 잘못하면 거털나 불 것 아니냐. 그때 내 심정이었지. 목포에 와서 막 느낀 것도 그것이고.”

이때가 1962년으로 서종견은 27살 청년이었다. 펜글씨학원은 중앙시장 앞 2층 건물의 위층이었는데, 그 전에는 코주부당구장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중앙펜글씨학원 목포 분원장 겸 강사였다. 당시 펜글씨학원은 학생들로 만원을 이뤘다. 학원생이 100명 이상, 150명에 달한 적도 있었다. 그는 혼자서 새벽반,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으로 나눠 학생들을 지도했다. 펜글씨 교본이 필요해 그때 직접 만든 교재도 있었다.

그렇게 1년 동안 월급을 받는 강사로 학원을 운영하는데, 광주의 정연상 원장이 ‘직접 학원을 운영하는 것이 어때냐?’고 제의해 왔다. 좋은 기회였다. 그는 임대보증금과 학원 시설비 등을 지불하고 학원을 인수했다. 자신이 책임을 지고 펜글씨학원을 운영한지 몇 년이 지나면서 학원생 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도 변화되었던 것이다. 고용주들은 단순히 글씨만 잘 쓰는 것을 떠나 경리 분야까지 능력을 갖춘 사람을 찾기 시작했다. 이것을 파악한 서종견은 1967년 호남극장 앞으로 학원을 옮기면서 새로운 인가를 냈다. 학원명을 ‘중앙글씨경리학원’으로 바꾸고, 과목도 펜글씨, 붓글씨를 비롯해 주산, 부기를 추가했다.

“내가 호남극장 앞으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 글씨를 배운 사람들이 취직을 하기 위해서 글씨만 가지고는 안돼. 경리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경리를 가르쳐야겠다. 주산, 부기를. 그래서 글씨 경리학원으로 인가를 다시 냈어요. 경리는 내가 전문이 아니니까 강사채용을 했지. 경리 쪽으로 치우치다가 운영을 해 보니까 역시 어려워. 그래가지고 서예 붓이 날 것 같은 생각도 있고 차원 있는 글씨를 쓰자 해서 1976년도에 교육청에 인가를 낸 것이 서예전문학원으로 내가 최초야. 『내가 목포 최고』라는 책에도 소개됐어. 목포시에서 발행했는데…… 1976년도에는 유달서예원으로 정식으로 독립해서 인가를 낸 거야.”

목포시 최초의 인가를 받은 유달서예원이 개원했지만, 그 이전에도 무인가로 서예를 가르치는 곳은 있었다. 강진 출신의 조경석이 운영하던 ‘청호서도원’이었다. 청호서도원은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 운영되었다. 당시 전북 이리에서 서예가 최정균⁰²⁾을 매주 1~2회 초대해 지도를 받았는데, 인가를 받지 않은 시설이라 여러 가지가 열악한 조건이었다. 결국 최정균이 더 이상 목포에 내려올 수 없는 상황이 된 후로는 지역의 서예가인 월파 김은섭(1924~1985)이 지도하기도 했다. 이때는 ‘무구회(無垢會)’라는 이름으로 수도약국 2층이 공부하는 장소로 이용되었다. 무구회도 무인가로 운영되다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말았다.

02) 최정균(1924~2001): 소전 손재형을 사사했으며, 원광대 서예과를 창설하고 교수를 역임함.



그림 2 유달서예원이 1984년 현재의 자리인 대안동으로 옮기면서 남농 허건과 함께 기념촬영



그림 3 2차 유묵회전

서종전은 1963년에 결혼했다. 아내 김금자는 당시 한창 유행이던 양재학원 강사였다. 아내는 결혼 후 ‘라사라양장점’을 운영하며 가정 경제에 큰 보탬을 주었다. 당시 목포에는 양장점 외에도 ‘양복점’, ‘라사’가 많았다. ‘라사(羅紗)’는 비단이라는 한자말이다. 라사는 보통 양복점과 양장점의 기능을 모두 맡았다. 양복점은 남성 의복, 양장점은 주로 여성의 현대 의복을 수공으로 만드는 곳이었다. 이제는 공장의 대규모 생산으로 그런 정겨운 장소가 대부분 사라진 것이 아쉽다. 아내는 양장점을 17년 정도 운영한 후 시댁 조카에게 넘기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았다.

3. 목포 최초의 서예학과 서예협회 출범

1976년 창평동에 유달서예원을 개원하면서 서종견과 김은섭이 수강생들을 직접 지도했다. 당시 학생과 일반인 수강생은 최대 60명까지 있었으며, 남녀노소 어린 학생들까지 정말 열심히 서예에 매달렸다. 모든 수강생들이 선생님들에게 체본을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악착같이 노력했다고 한다.

문제는 김은섭과 서종견의 글은 정통서예가 아닌 일명, 서당글씨인 아류형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 사회적으로 서당글씨는 아무리 잘 써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처지였다. 이제 정통서예가 필요했다. 하지만 정통서예를 배우고자 해도 목포에는 법첩에 의거해 지도해 줄 선생이 없었다.

“월파 선생을 우리 서예원 강사로 모시고 있었어. 내 선배니까. 강사로 2년인가 모셨어. 당시 목포 서예가 가르치는 체계가 서당글씨를 주로 가르쳤어요. 서예계 전문용어로 말하면 아류형.. 속된 말로 하면 서당글씨.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 그러니까 그 반대가 법첩이라고 정통서예를 할라면 법첩을 많이 공부해야 돼요. 기존 글씨 쓴 것들을 보고 하는 것을 입서라고 하죠. 처음에는 입서를 해야 하거든요. 서예가 중국에서는 ‘서법’이라고 해요. 한국은 ‘서예’, 일본은 ‘서도’라고 그래. 모든 서예에 관한 책이 중국서 나온 것이 법첩이라고 그래요. 서법첩이지. 그 법첩을 해야 정통서예가 되고, 당시 국전이나 도전에서는 법첩에서 나온 글씨를 인정했지. 서당글씨는 법첩을 보지 않고 선생님 체본만 보고 한 것이여. 월파 선생이 그 대표자여.”

서종견이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고민하던 중 서울에서 한지와 서예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제공해주는 ‘운림방’ 사장에게 도움을 받게 된다. 운림방 박 사장이 평소 잘 알던 소전 선생의 제자인 학남 정환섭(1926~2010)을 추천해 주었다. 서종견은 그날 이후로 매월 한 두 차례 서울에 올라가 정환섭에게 지도를 받았다. 이때가 1977년이였다.

“나도 그전까지는 월파 선생님 하는 식으로 가르쳤지. 그런데 이것은 안 되겠구나 하고 정통서예를 배워야겠다 하고 서울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와 물품을 공급해주는 박 사장에게 고민을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그 분이 학남 선생님을 소개해주는 거야. 그래서 서울에 갔지. 서울미대 교수도 하시고, 이화여대 교수도 하시고, 원래 미술이 전공인데 서예를 잘하신 유명한 분이야. 소전 손재형 선생 수제자여. 그런데 여기 학원을 운영하면서 서울에 기거를 하면서 있을 수가 없어. 토요일이면 오전까지 학원 수업을 했거든. 그래서 토요일 야간열차를 타고 서울에 가. 일요일 날 아침에 몇 시에 방문할 테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하고 연락을 해 놓고, 생선이나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올라갔제. 매주 그렇

게 공부를 했어. 시간도 많이 걸리제. 그렇게 왕희지 필법, 구양순 필법, 전서, 예서 같은 것을 그분한테 배웠지. 그 선생님의 제자들의 모임이 ‘동연회(東硯會)’여. 서울서 전시도 하고 그랬어. 학남의 제자들 모임이지. 1977년부터 1990년까지 공부했지.”

서종견은 14년간 선생님을 모시고 정통서예를 사사받았다. 처음에는 매주 서울을 방문해 선생님의 지도를 받았지만,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 다음에는 출품할 때 사전에 선생님을 뵙고 승인을 받은 후 출품하곤 했다. 처음에는 열심히 써간 작품을 ‘이것도 글씨냐. 차라리 쓰레기통에나 넣어라’고 눈물나게 만든 적도 있었다. 하지만, 한번 스승은 영원한 스승이라고 참고 견디며 묵묵히 체본을 받아쓰고, 법첩이 닳도록 글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진전해 나갔다.

그렇게 쌓인 실력은 드디어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⁰³⁾에서 입선을 함으로서 빛을 발하게 됐다. 서종견은 지금도 가장 인상적인 수상을 1979년 국전 입선이라고 말한다. 물론, 그 이전에도 전국대회인 한국미술대회에 입선한 적이 있었지만, 관전(官展)이 아닌 민전(民展)일 뿐이었다. 국전의 상훈은 특선과 입선 두 가지 뿐이다.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모두 탈락인 셈이다. 국전은 동양화, 서양화, 조각, 공예, 서예 등으로 공모하였으며 심사위원들이 입선작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특선작을 뽑고, 그 안에서 다시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문교부장관상을 선정해 수여했다. 서종견은 그 후로도 국전과 대한민국 서예대전에서 입선과 특선을 모두 7회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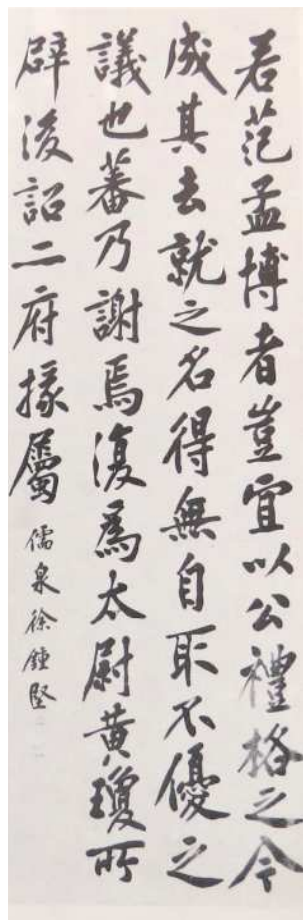


그림 4 서종견의 국전 입선작(1979년)

“지금은 국전이 없어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국전 단 하나 있을 때였어요. 지금은 공모전이 수 십 개 있어요. 그때는 서예 분야에 딱 하나가 있었어요. 처음 입선할 때가 1979년도일거야. 그때는 입선 하나까 도지사가 축전을 보내고 직원 시켜서 우리 집으로 꽃다발도 보냈어. 그때는 입선이 목포에서

03) 대한민국미술전람회는 1949년부터 시작되어 한국의 미술 진작에 기여하였으나, 심사위원 선정 및 특선작품 선정 등에 미술계 제도와 권위가 지나치게 작용하는 부작용이 있어 1981년 제30회를 끝으로 막을 내리고 민전으로 이양되었다.

하나. 나 할 때는 전라남도에서 두 명에서 세 명, 그 정도 밖에 안 돼. 인원이 그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인상적이지. 지금은 족자로 해서 작품을 출품하기가 편하고, 또 족자도 않고 써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보내서 출품하기가 좋지만, 우리가 할 때는 액자로 만들었지. 액자를 만들어서 들고는 못가니까 화물차에 싣고 소화물로 위탁을 해. 그라고 밤에 올라가. 칭칭 포장을 해가지고. 그리고 나는 야간기차를 타고 가. 그 물건도 같은 기차 화물칸에 있어. 서울역에서 내려 그것을 찾아. 그러면 용달차를 빌려, 그것을 싣고 접수부로 들어가서 접수해. 그런 고생을 했어요.”

당시 표구는 시내의 여러 표구사에 의뢰했는데, 1970년대 초 동명동 4차 개발지에 새로 생긴 표구점을 주로 이용했다. 아무래도 장소가 넓어 큰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곳이 그 정도뿐이었기 때문이다. 종종 서울 인사동에 맡기기도 했지만, 목포에 비해 값이 비싸 자주 맡기지는 못했다. 당시 표구를 맡긴 곳 중의 한곳이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유선당이다.

서종견은 목포에서 활동했던 선배 서예가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수도여자사범대학(현 세종대) 교수로 있던 목포 출신 평보 서희환(1934~1998)도 소진 손재형(1903~1981)의 제자로 특히 같은 성씨라 친하게 지냈다. 1960년대 국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서희환이 목포에 올 때 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서예 이론에 대해 토론하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우하 김정재(1930~1998)도 함께 정통서예를 공부했기에 각별한 관계를 맺으며 지냈다. 김정재는 최정균의 제자로 익산까지 다니면서 사사한 인연이 있다.

현재 목포에는 서예학원이나 서예연구원 등이 15개소 정도 있지만, 교육기관끼리의 협회나 모임은 없다. 대신 한국미술협회 서예분과나 한국서예협회 목포지부처럼 각각의 모임이 독자적으로 운영되며 모임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서종견은 학원을 운영하는 상당수 원장, 강사들의 열악한 처지를 볼 때마다 안타깝기만 하다. 자체 학원을 통한 수입이 적다 보니 공공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서예반에서 강사비를 받으며 강사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 복지관, 자치센터, 문화센터에서 비정기적이고 소규모 서예반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체능 분야의 프로그램이 신설되고 늘면서 그나마 있던 서예반도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서예인구가 줄면서 그도 2007년경 유달서예원 등록을 취소하고 유천서예연구원 명의로만 몇몇 제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나도 미협 부회장도 하고 그랬어. 미술협회 내에 서양화분과, 한국화분과, 조소분과, 서예분과가 있어. 그런데 서예 인구가 제일 많아. 많은데 분과로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서예협회를 만들자는 논의가 있었지. 모두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런데 서울의 여초 선생(김응현,

1927~2007) 계열에서 중앙 중진들이 미술협회에서 안 빠져 나온 거야. 미술협회에 계속 있을란다 그런 거야. 그래서 두 갈래로 갈라져버렸지. 나는 서예협회로 독립하자는 측에 속했지. 그래서 내가 미협에서 나와서 서예협회를 만들었지. 전국의 학남 계열은 다 그랬어. 또 한 단체가 여기저기도 안 들어간 파가 있었어. 그 팀이 중개를 하다가 양쪽 다 안 듣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국서가협회를 만들었어. 내가 알기로만 해도 서예조직이 네 갠가 다섯 개가 있어. 그것이 목포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

서종견은 목포미협 서예분과에서 독립해 나와 한국서예협회 목포지부를 설립하고 초대 목포회장을 맡았다. 그리고 한국서예협회 2대 전남회장도 역임했다. 이미 전국적으로 미술협회에 속해 있던 서예인들이 별도의 조직을 꾸리자고 결의한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가 1989년이다. 그 후 회원들은 열성적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작품들을 출품하고 왕성한 활동을 펼쳐나갔다. 다만, 이로 인해 목포미술협회는 서예협회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는 목포에서 가장 오래 서예학원을 운영하다 보니 제자들이 많고 그 제자들도 훌륭한 평가를 받으며 작가활동을 하고 있다. 교학상장(敎學相長)이라고 할까, 이제 제자들과는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는 처지이기도 하다. 제자인 죽전 송홍범은 김대중 대통령의 명정(銘旌) 글씨를 쓴 것으로 유명하고, 장성연, 오효탁, 주은일, 김성준, 원주에서 활동하는 김송전 등도 자신들의 영역에서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고 있다.

“장성연은 한글로서 책도 많이 낸 친구였지. 삼학도가 집이었고, 목포해양고등학교를 나왔잖아. 해양대 정문에 목포해양대학교라고 쓴 돌이 있는데 그 친구가 쓴 것이야. 오효탁은 목포에서 서협 활동하면서 살지. 야일서예원도 하고 있잖아. 호가 야일이야. 죽전은 나한테 일찍 배워서 학원을 차려 나갔지. 원광대에서 정식으로 서예를 배운 서거라, 박영도 여기 둘이는 죽전의 제자야. 그러니까 내가 할아버지여. 나한테는 손자들인 셈이여. 김성준, 그 친구도 내 제자고. 지금은 오전에만 다섯 명이 나와서 연습하고 있어. 지도도 오전에만 해. 오후에는 건강 때문에 운동 나가고. 가끔 한 달에 한번 와서 ‘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하는 제자들도 몇 명 있지. 열심히 안하는 제자를 보면 안타깝기는 하지. 한자라도 함께 연구하면 좋지. 제자들도 잘 쓰니까 같이 연구해야 돼.”

4. 헌신적인 사회활동과 창의적인 예술활동

서종견은 예술 활동에 전념하면서도 사회봉사에 늘 관심을 가졌다. 혼자 힘으로는 힘들지만 단체에 소속되면 미력하게나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그림 5 복원된 목포진에 걸린 서종견의 글씨 '목포지관'(2014)

그러던 중 피플투피플(People to people: PTP) 단체를 소개받았다. PTP는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2차 대전을 종전하면서 설립한 민간단체이다. 사소한 일로 국가 간의 감정이 대립돼 드디어는 엄청난 전쟁을 일으켜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인류가 만들어낸 재산이 파괴되는 피해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시작된 민간단체다. 각국의 시민들이 서로 교류하고 대화를 나눈다면 오히려 풀리고, 평화가 올 것이란 믿음을 전제로 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사회의 혜택을 받은 것이다. 나도 크게 자선을 못 베풀망정 뭔가 봉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었고, 각종 서적에서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 힘은 어렵고, 단체에 들어가야겠다. 일반 라이온스나 와이즈맨, 로터리클럽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 PTP는 그렇게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순수한 봉사단체이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달산에 올라가면 PTP 동산도 있어요. 김동석 시장이라고 군 출신인데 5·16 혁명 나가지고 목포시장으로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김동석 시장이 PTP 목포 회장이었을 거야. 아무튼, 목포 유지들이 많이 참여했지. 가입해 가지고 꾸준히 있으면서 중앙국제본부에서 내가 30년 근속 표창도 받고 그랬지.”

목포PTP 봉사활동은 주로 광주 송정리와 함평에 주둔하는 미군들을 위로하고 서로 문화와 예술분야에서 교류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서종견은 1980년대부터 10여 년간 목포교도소에서 교화위원으

로 활동하면서 재소자들에게 서예를 가르치기도 했다. 서예 수강생들은 주로 장기수 중에서도 모범 수들이었다. 매주 교화운동의 하나로 진행됐는데, 모두 열성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서예를 통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점을 인식시켜주고 싶었다.

“서예는 먼저 먹을 갈면서 심신을 간다고 여겨야 돼. 심전이라고 내 마음의 밭을 간다는 뜻이지. 이 붓을 잡을 때는 정신을 일도 한다. 또 글귀를 쓸 때 좋은 글귀를 선택해서 쓴다. 그러면 잡념이 없어지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얀 화선지에다가 좋은 글씨를 써. 예를 들어 권선징악을 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착한 것은 권하고, 악한 것은 징계를 받는다. 그러면 읽으면서 교화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좋은 글귀를 그 시간에 전달해서 외우게 만들고 쓰게 만들제. 10년 동안 배운 사람도 있제. 김 모 씨라고, 순창사람이야. 착하기는 엄청 착해. 글도 잘 써. 교도소에 있을 때 출품도 시켰지. 그래갖고 입선도 하고 그랬어. 출소해가지고 여기를 한 번 왔드라고, ‘앞으로 열심히 살랍니다. 선생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하고 갔어. 또 한 놈은 여비 주라고 온 놈도 있었어. 글 쓴 사람이 먼 돈이 있데야? 그러니까 ‘그러면 선생님 작품 2점만 주세요.’ 그런 놈도 있어. 허허.”

서종견은 유달서예원에서 1년 이상 서예를 공부한 수강생들과 학원 출신자들을 모아 전시회를 개최하는 ‘유묵회(儒墨會)’를 조직했다. 전시회장에는 유명 인사들을 많이 초대했다. 남농은 늘 전시장을 방문해 격려해주는 단골 후원자였다. 1980년대 목포에는 변변한 전시장이 없어 교통이 편한 시내의 다방을 많이 이용했다. 자주 이용되던 다방은 황실다방, 밀물다방, 세종다방 등이었다.

서종견은 목포서예협회에서 주관하는 전국학생회화대회에 개인으로는 처음으로 장학금을 출연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회에서 한 작품을 선정해 ‘유천서예상’과 함께 부상으로 30만원을 지급했다. 그는 원로로서 뭔가 기여하고 싶은 마음에 이런 결심을 했다. 실제, 대회에서 개인이 비용을 내 별도의 상금을 주는 경우가 목포에서는 처음이었다.

서종견은 창의적인 예술 활동에도 전념하면서 목포의 공공장소에 많은 작품들을 남겼다. 대표적으로 유달산의 대학루 현판, 목포진의 목포지관 현판을 비롯해 금석문으로 유달산공원조성기념비, 남농기념관비, 국도1호선 기점비, 초의선사 추원비 등이 있다. 특히, 금석문의 경우 한 번 기록하면 천 년을 남기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 작성할 수밖에 없었고, 그 때문에도 이들 작품들은 목포와 인근 지역을 대표할만한 작품들로 평가받고 있다.

“현판 글씨를 의뢰하는 것은 연고가 깊다든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글씨체는 누가 쓰더라 그런 것들을 고려한 거지. 대개 이 계통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겠지. 나는 차를 즐겨 마시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초의선사 추원비를 쓸 때 이재현 무안군수가 직접 찾아 왔드라고요. 그래서 점심을 먹는데 써주실 수 있겠냐고 이야기를 하드라고. 비문 글자 수가 많았어요. 그리고 한글하고 섞어서 써야 해요. 서예는 한글만 쓰거나 한자만 쓰는 것은 좋지만 섞어서 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이 난제였어. 한자하고 한글하고 섞어서 쓰는 것이. 육각형 병 둘러서 비문이며. 그래 가지고 썼어. 목포진의 목포지관 글씨도 내가 그걸 맘대로 쓴 것이 아니고 원고가 왔지. 대개 현판 같은 것은 주무관서에서 의뢰할 때가 있고, 주무관서의 지시를 받아서 시공자, 건축시공자가 의뢰할 때가 있고 그래요.”

한글서예와 한자서예는 기본적으로 붓으로 쓰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한글서예는 한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획이 단조롭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글 ‘다’는 세 획인데, 차 다(茶)는 한문으로 열 획이다. 한글로 ‘대한민국’은 획수가 몇 획이 안 되고 단조로운 반면, 한문은 획수가 많다. 어떤 것은 마흔 획이 넘는 것도 있다. 그런 탓에 한자서예는 전체적인 조화를 맞추기가 어렵다. 또한, 한자는 전서체, 예서체, 행서체, 해서체, 초서체가 주로 쓰이고, 더 세분화하면 갑골문자도 있고, 같은 전서라도 금문체 전서가 따로 있다. 이렇게 한자의 서체가 너무나 다양한 반면, 한글 서체는 판본체와 궁체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해도 무방하다. 결국 획수와 서체의 종류에 중요한 차이가 나는 것이다.

서예인들은 동양의 고전에서 좋은 글귀를 선택해 작품으로 남긴다. 대표적인 고전들로 『논어』, 『맹자』, 『노자』 등이 있지만, 모든 서예인들이 고전 공부에 전념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한편으로는 좋은 글귀들만 담은 모음집을 보기도 한다. 서예에 20년 동안 전념해도 자신의 창의적인 작품을 하나 선포 써내기 어려운 조건에서, 동양고전의 한 분야를 그만큼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은 탓이다. 그에게 서예와 고전을 공부하고 자신의 작품을 하나 창작해 낸다는 것은 뼈를 깎는 듯한 과정의 결과물이었다.

“서예 하나만도 20년 꾸준하게 해도 얼른 작품 하나 못써내요. 그런데 한학도 할라면은 한 20년 공부해야 될 텐데, 어렵지요. 한학을 전문으로 하고 서예도 전문으로 하면 좋지요. 깊은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인물들은 드물지요. 양손에 다 떡을 쥔 수가 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한 가지에 치우치면 또 한 가지가 약해져요. 능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어렵지 않나 싶어요. 작품을 하나 낸다는 말은 총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창의적 작품을 만드는 거지요. 자기 머리에서 세상에 아직 안 나타난 것을 새롭게 창안한 것이 작품인데, 모방 작품도 많잖아요. 모방도 예술이니까 임시만 해가지고 전시를 하는 것도 있어요. 처음에는 다 임시지요. 그러다가 나중에 창작을 하는 거지요. 임시에서 많은 능력을 갖춰내야, 우리나라와야 창작이 나오는 거죠.”

서종견의 예술적 기질은 그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난다. 제자들 중에서 서예대전의 초대작가가 되고, 큰 대회 심사위원이 된 인물들이 많다. 일반적으로 각종 대회에 입선을 할 경우 1점, 특선의 경우에는 3점을 받아 그 점수가 각 대회의 내규에 따라 다르지만 일정한 점수에 다다르면 초대작가가 된다. 서협(서예협회)의 경우에는 10점을 받으면 초대작가가 된다. 하지만 입선 성적만으로 10점을 따더라도 특선이 한 번 이상 없으면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규정은 추천작가 심사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검토하고 심사를 하게 된다. 이때 또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품까지 평가하는 점이다.

“초대작가에 관한 협회 내규가 있어요. 그리고 초대작가 선정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규정에 맞는가 검토하고, 실적 보고, 또 그 사람 인품도 보고. 왜냐하면 그 지역사회에서 ‘저 나쁜 놈’이라고 지탄 받은 놈이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글만 써서 점수를 따내고 초대작가가 되는 것은 아니여. 그래서 매년 초대작가 선정 심사가 있제. 그런데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것이 굉장히 엄했어.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너무 남발을 해요, 많은 사람을 초대작가로 만들어부러. 다량생산을 해 분다는 말이여. 그 대회를 운영하려면 출품수가 많아야 할 것 아니여. 연고를 만들라고 그런 수법을 쓰고 있어.”

초대작가가 됐다는 것은 오랜 경력과 실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로 초대작가가 양성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마음이 바르면 글씨가 바르다[心正則筆正]’고 하는 말이 있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 실제로 서격(書格)을 갖추었지만, 인격을 갖추지 못해 인정받지 못한 현실을 보면 그렇다. 그는 인격과 서격을 겸비한 사람들을 제자로 양성하는 데 그만큼 중요한 방점을 두었다.

5. 필생의 마지막 전시회 계획

서종견은 한중일 국제초대전에 참가하면서 중국과 일본을 몇 차례 방문했다. 일본 작품들은 대체적으로 ‘히라가나’를 흘림체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 읽을 수도 없고, 소품 위주의 작품이라 별로 관심이 가지 않았다. 하지만 한자 서예의 종주국인 중국작품들은 문화적인 충격을 받기에 충분했다. 일단, 규모 면에서 상상할 수 없는 대형작품들이 많았다. 작품 수준도 높아 ‘한국인들이 그들 수준을 따라가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작품도 ‘간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번자체’라 직접 읽을 수 있다는 것도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중국도 곧 간자체로 서예를 한다면 지금처럼 커뮤니케이션이 쉽지는 않을 것이란 생각도 해 본다. 당장 시내에 걸린 간판만 보더라도 간자체가 아니던가. 그래서 그는 틈만 나면 중국어 간자체를 익히며 공부하고 있다. 그의 책상 잘 보이

는 곳에 간자체가 펼쳐져 있다. 늘 보면서 익히기 위해서다. 이처럼 끊임없이 공부하는 자세를 갖추고 있었다. 그가 대학에서 공부하지 못한 한을 1975년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공부하며 경영진단사 자격증을 딴 것으로 풀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열정의 결과였다.

서종견은 개인전을 모두 4회 개최했다. 공교롭게도 세 번의 전시회가 모두 나이와 관계된 전시회였다. 60세 회갑전, 70세 고희전, 그리고 77세 희수전, 나머지 한번은 2013년 전남문화예술상을 수상한 기념으로 고향 곡성문화원 초청으로 진행된 개인전이였다. 그는 자신의 개인전을 소개하며 겸손하게 자신을 낮췄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부담을 주지 않았나 늘 경계하는 마음을 나타냈다.

“내가 소문난 것만큼 글을 잘 쓰지 못해요. 필력이 없어요. 전시는 일종의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런 창안을 했다 하고 세상에 내보낼 때는 자랑삼아서 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랑할 만큼 글이 안 나와, 자신이 없어. 그래서 명분을 찾는 거지. 회갑 하면 모두 잔치하잖아요. 그래서 됐다. 그동안에 글만 써 왔으니까 전시를 하자. 그래서 목포문화방송 전시실에서 첫 전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고희전을 하고 또 희수전을 했지. 고희전, 희수전도 핑계여. 그러면 오픈하는 날 지인들을 불러다가 오픈식도 하고 같이 음식도 나누고. 따로 가족끼리 고희라든지 그런 행사를 갖지 않고, 전시장에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좋아하는 분들도 많지만, 목포는 지역사회가 좁다 보니까 세 번, 네 번 하면 많이 하는 거야. 왜냐하면 전시를 하면 인사치레로 사주는 것도 있고, 또 예의 갖춘다고 하는 것이 부담이 되지요. 그러니까 일체 희수전부터는 내가 그런 것을 안 받기로 사양해 버렸어요. 그런 것이 폐가 돼요.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이걸 있어요. 언젠가는 내가 나이가 더 많아지고 건강이 나빠지면 글씨하고 좀 멀어지겠구나, 기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오면 회고전을 한 번 해볼까 해요. 그 동안에 내 때 묻은 글씨들……. 작품들을 연도별로 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것이 성스럽게 잘 되련지 몰라도. 그런데 그것만 하면 심심하니까 사자성어를 365일 매일 한 글귀씩 읽어보자는 뜻으로 사자성어 365 글귀를 모아서 한번 그때 전시를 해 볼라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의 말대로 회고전이 열린다면 지역의 원로 서예가의 모범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다. 당나라 손과정의 『서보(書譜)』에 ‘인서구노(人書俱老)’라는 문장이 등장한다. 글씨도 쓰다보면 나이와 함께 늙는다는 말이지만, 어느 정도 글씨를 쓰면 서예가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참다운 경지에 이른다는 뜻이다. ‘소년 문장은 있어도 소년 명필은 없다’고 하지 않은가. 그의 글은 인생을 오래 산만큼, 더욱 깊어진 삶의 무게가 글을 통해 나타날 터이니 그의 마지막 전시회는 기대해 볼만 하겠다.

서종견은 목포 서예계에 희망을 갖고 있다. 급격히 현대화되는 시대에 젊은이들이 서예에 관심을 갖지 않은 가운데도 서예를 지도하는 곳이 15곳이 있다. 특히 젊은 작가들이 서예를 전공하고 현대



그림 6 작품에 전념 중인 서종견



그림 7 제56회 전남문화상 수상기념 고향전
(2013년 6월 곡성문화센터)

서예의 한 장르를 선도적으로 개척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했다.

“서예가 중요한 문화 예술적 장르인데 안타깝게도 서예가 급격히 쇠퇴해 가고 있어요. 소위 컴퓨터 문화가 도래하면서부터인데 모든 역사는 수레바퀴처럼 돌잖아요. 앞으로의 목표 서예는 전문서예... 젊은 작가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잘 하리라고 봐요. 안목이 있고, 대학 석사과정을 통해 깊이 있는 그런 교육도 받고, 역량을 충분히 갖춘 젊은 작가들이 있으니깐 대범하게 잘 하리라고 보고, 또 해야만 되고요. 우리시대의 서예는 진짜 조용했어요. 정중동(靜中動)⁰⁴⁾이라고 할까, 오로지 서예에 소문내지 않고 공부하면서 후배들 양성하면서 이것이 정도였다고 판단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단만. 좀 더 활동적이고, 좀 더 적극적이고, 그래야만 될 것 같아요. 현대서예라고 해서 기상천외한 작품들을 만드는 것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나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명칭이 현대서예보다는 조형서예라고 말을 하고 싶거든요.

조형서예는 볼거리를 좀 더 자극하는 서예다라고 생각해요. 정통서예만 고집한 사람들은 그렇게 쓰는 글씨를 저것도 글씨냐 라고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만 현대서예나 조형서예는 전통서예처럼 어설피게 하다가는 망신당해요. 그만큼 철저하게 고민하고 머리를 쓰고 노력해야 발전하는 분야지요.”

원로 서예가의 기대대로 예향 목포에 묵향의 향기가 진하게 남아 오랫동안 전해지길 기대해 본다. 그는 1남 3녀를 모두 출가시키고 아내와 대안동 3층 자택에 기거하며, 2층 서예연구원에서 아직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경완 | 신안문화원 사무국장

04) 정 가운데 동을 감추고 있는 것이 참된 정이요, 정 가운데의 정은 참된 정이 아니라는 설. 고요한 가운데 움직임이 있다는 뜻(『채근담』).

제3절 목포가 낳은 최고의 배우

김성옥은 1935년생으로 목포 죽동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천주교의 영향 아래 성장했다. 그는 고려대학을 졸업하고 국립극단 배우로 시작해 1960~1970년대 대한민국 최고의 인기를 누렸는데, 배우로 성공한 것이 목포중고 시절 선생님들의 교육 덕택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는 극단 대표, 무역업, 교수 등 다양한 직업을 전전하다 현재는 목포에서 연극계 후배들을 지도하며, 목포의 문화적 자존감을 되살리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다.

1. 천주교의 그늘 속에서 보낸 어린 시절

김성옥의 아버지 김금룡은 1914년 무안군 망운면 태생으로 무안보통학교 졸업 후 목포에서 장사를 하다가 20세가 되던 해인 1934년 박기남을 만나 결혼했다. 김금룡은 장사를 잠깐 했을 뿐 평생을 천주교 신앙생활과 봉사활동으로 보냈다. 연고가 없던 압해도에 들어가 천주교신장공소를 직접 짓고 운영하며 성도들을 보살피는가 하면, 레지오마리아⁰¹⁾라는 천주교에서 아주 활성화된 모임을 대한민국 최초로 조직하기도 했다.

6·25 때 목포의 유일한 성당인 산정동성당이 인민군의 주둔지로 이용될 때였다. 본관 정면 벽에 설치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상을 인민군이 철거해 팽개쳐 둔 것을 김금룡이 직접 어깨에 메고 집에 가져와 몰래 숨겨두었다. 어린 김성옥이 우연히 다락방 문을 열고 어두운 방에 세워진 십자가상을 보고 ‘사람이 죽어 있는 것으로 알고’ 깜짝 놀라기도 했다. 김금룡의 신앙심은 인민군의 탄압에도 전혀 굴하지 않았다. 그때 온전히 보존된 십자가 예수상은 현재까지 산정동성당 본관 정면에 그대로 걸려 있다.

김성옥의 어머니 박기남은 경남 하동출신으로 아버지는 독립운동가인 박내홍이다. 박내홍은 1897년 하동군 양보면에서 한약국 아들로 태어나 3·1 운동 직후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박중례란 가명으로 활동하기도 한 박내홍은 1920년 일제에 검거된 후 1921년 수감되었다가 1922년 출옥 후 하의도와 목포 등지에서 투쟁을 계속했다. 1935년 다시 검거되어 혹독한 고문에 시달린 뒤 징역생활을 하다가 출옥한 다음해인 1937년 세상을 떠났다. 사위인 김금룡은 장인 박내홍을 목포시 공동묘지에 모셨다가 본인이 천주교 신자가 된 뒤에 산정동성당 본당묘지로 이장했다. 외손자 김성옥은 1995년

01) 가톨릭교회의 평신도 신앙공동체로 '마리아의 군단'이란 의미를 갖고 있음.

박내홍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자 외조부모를 2000년 10월 19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했다.⁰²⁾

“나는 우리 아버지가 싫었어. 왜냐하면 서울로 대학 가서 하숙도 하고 그러는데, 아버지라는 사람이 아무런 벌어도 안하고 성당에서 봉사만 하니까 속상했지. 사실. 지나고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겠는걸 싶었어. 그렇게 따지면 우리 집안은 모두 그렇지. 외할아버지가 하동의 부잣집으로 박영감님 아들 덕이라면 유명한 곳인데, 독립운동 할 때 다 팔아먹어서 할머니 시집 올 때 가져왔던 은제 요강까지 다 팔아먹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사실 나는 잘 몰라요. 우리 집안에서 암도 이야기를 안 해 주니까. 아버지가 압해도 공소에서 고생했을 것이라는 것만 짐작하지 알 수 없어요. 내가 아버지 환갑 때 공소 앞에 이렇게 굵은 벚나무를 보고 ‘누가 심었냐?’고 하니까 ‘내가 와서 심었다’고 그 한마디를 하시든만. 내가 그리(신장공소) 지나갈 때는 꽃다발을 사가지고 가서 성모동상 앞에 놓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환갑잔치를 여기에서 했는데, 왜냐하면 그런 것을 법으로 못하게 할 때여. 호화결혼식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인데 우리 아버지가 고생해서 짓고 해서 성당 개소식을 우리 아버지 환갑잔치에 맞춘 거야. 그래서 내가 압해도 출신이라고 소문이 나기도 했어요. 그 시절에 우리 아버지가 압해도 전 지역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불편하고 병원에 갈 일이 있는 사람들이면 다 챙기셨어요.”



그림 1 연극을 처음 시작했던 산정동 성당 그림 2 일본인들이 다니던 명조유치원에 김성옥도 2년간 다녔다.
앞에 선 김성옥



02)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불꽃이 향기가 되어』2, 으뜸사랑, 2017.

김성옥은 1935년 목포시 죽동에서 태어났다. 성옥이라는 이름은 할아버지가 짓고, 한자는 독립운동가인 외할아버지가 붙여주었다. 김성옥이 4살 때부터 유치원에 다닌 것을 보면 집안이 그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외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셨는데도 손자를 일본유치원에 보낸 것은 지금까지 의문으로 남는다.

산정초등학교에 입학한 김성옥은 어머니를 졸라 학교 옆 철길 근처의 책방에서 삼학도 전설에 관한 소설책을 사서 읽은 기억이 있다. 유달산과 삼학도 선녀의 이야기는 재미있었지만, 활에 맞아 죽는 처녀들 이야기는 너무 슬펐다. 이렇게 감수성을 키워온 김성옥에게 유달산은 알프스 산보다 더 높고 멋진 곳으로 가슴에 남았다.

김성옥은 초등학교에 다닐 때 처음으로 외할머니를 따라 성당에 나갔다. 당시 젊은 외삼촌이 돌아가시자 충격을 받은 외할머니가 성당에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후 아버지와 어머니도 외할머니의 영향으로 천주교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열 살 때 ‘도비아’란 세례명을 당시 성당의 신부님에게 받았다. 성당에서 복사⁰³⁾를 맡기도 했는데, 당시에도 라틴어로 기도문을 외우고 도와주는 역할이었다. 복사를 한 경험 때문에 이후 복사를 맡는 모든 아이들을 김성옥이 직접 지도하기도 했다. 겨울에 눈이 쌓여 나가기 어려울 때도 새벽에 일어나 기쁜 마음으로 성당에 나갔다. 무엇보다 성당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연극을 접하고, 시작한 것은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다.

“저는 35년생이고요. 죽동에서 태어났어요. 지금 생가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내가 하여튼 일찍부터 조숙해 가지고 4살 때부터 유치원에 다녔어. 일본어 히라가나를 4살 때 다 배웠어요. 그 시절에, 희성유치원이라고 남교동 신안군청 있지요? 그 밑에가 있었어요. 그 유치원을 다녔어요. 거기는 한국인이 운영하는데 곳인데 네 살부터 여섯 살까지 다녔어요. 일본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오거리에서 유달산으로 올라가는데, 바로 위 사거리. 왼편으로 교회자리에 있었어요. 이름은 명조(明照)유치원이었어요. 2년 동안 다녔지. 우리 할아버지가 애국자였는데도 나는 일본 유치원 다녔어요.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여덟 살에 산정국민학교에 들어갔지. 내가 산정동성당에서 유명했어요. 복사라고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라틴어로 다 했어. 내가 오랫동안 성당에서 복사를 맡은 아이들을 다 갈쳤어. 겨울에 눈이 여기까지 빠져도 새벽에 가. 신부님들이 일어날 때 까지 기다렸다가 복사하고 오고 그랬어. 재수 좋은 날 초코렛을 하나 받으면 가져와서 할머니 드리고 그랬어. 내가 국민학교 4학년 때 해방이 됐는데, 그때 우리나라도 글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할머니한테 한 번 써 주라고 해서 내가 3시간 동안에 다 한글을 배웠어. 옛날에는 교회에서 12시가 돼야 성탄미사를 하는데, 통행

03) 가톨릭교회에서 사제의 예식집전을 보조하는 평신도, 어린이들이 주로 맡음.

금지가 있으니까 미리 오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성극을 준비한 거야.”

당시 성당의 성극 대본은 김동건 성도가 썼고, 주연과 연출은 학생인 김성옥이 맡아서 진행했다. 연극에 반드시 필요한 음악도 그가 선곡을 했는데, 클래식 곡을 상당 부분 가져다 배치했다. 어린 학생이 음악감독까지 한 셈인데, 아무래도 신부님들과 오랫동안 교류하면서 정서적으로 많이 배운 탓이 아닐까라고 그는 회상했다.

2. 김성옥을 만든 목포의 중고등학교 교육

김성옥은 산정초등학교를 졸업하고 6년제 목포중학교에 입학했다. 당시에는 고등학교가 없었는데, 중학교 3학년을 마칠 때 고등학교 제도가 생겨 시험을 치르고 목포고등학교에 진학했다. 목포중학교는 5회 졸업생이고, 목포고등학교는 3회 졸업생이 된다.

목포고 동기는 모두 250명이었는데, 그 중 정시채(전 농림부장관), 최영철(전 국회의원), 전석홍(전 전남지사) 등 장관이 3명이나 배출되었다. 그는 중고 시절 철학에 심취해 인간과 신의 존재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책을 읽기도 했다. 이런 관심은 목포중고 선생님들에게도 영향을 받았다. 당시 목포중 교장은 조정두 선생이었다. 조교장은 교토제국대학을 졸업하고 고시에 합격해 24살에 완도군수를 역임했다. 교장선생으로 올 때는 40대 초반 정도로 기억되는데, 교장선생님이 전국에서 훌륭한 선생님들을 많이 모셔와 학생들을 가르치게 했다.

김성옥이 목포고를 막 졸업하고 명동성당에서 열린 한 달 일정의 강습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과정을 마치고 시험이 있었는데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하나님이 계시는 5가지 증명을 논하라.’ 그는 이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었다. 오랜 신앙생활과 철학적인 사고를 한 경험이 있어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당히 1등을 했다. 그때 상으로 받은 성모상을 지금도 집에 보관하고 있다.

“기본은 내가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선생 밑에서 공부한 거야. 좋은 교장 선생님이 계셨고. 서울에서 보면 광주일고니 경기고니 자랑 많이 하지만, 나는 속으로 웃어요. 나에게 계는 목포중학교, 고등학교라는 엄청난 학교가 있었다. 나는 목포의 그런 큰 덕을 보고 큰 사람이야. 나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굳게 믿어요. 목포가 나에게 준 위대한 선물이야. 지금은 목포중학교가 이름도 없어졌지만, 그런 것을 잃어버린 것이 너무 가슴 아파요. 최고의 배우가 되는 자양분을 난 그때 얻었어.”



그림 3 김성옥은 목포고등학교 3회 졸업생이다.



그림 4 「고도를 기다리며」 중

김성옥은 1956년 고려대 사학과에 진학하면서 서울로 올라갔다. 종교생활에 심취한 탓에 역사 중에서도 유럽의 중세사에 관심이 많았다. 낯선 서울생활이었지만 종교와 르네상스에 집중해 공부하는 시간은 행복했다. 그는 사학과 교수 중 김성식 교수의 강의를 가장 좋아했다. 김성식 교수는 『대학사』, 『독일학생운동사』 등을 집필한 분이었다. 그의 주장이 김성옥의 삶에 큰 지표가 됐다. 문화는 하나님의 것도 아니고, 악마의 것도 아닌 인간의 것이다. 이 세 가지 삼각형이 밸런스를 유지할 때 세상이 가장 안정적이다. 이런 개념에 전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대학에 가서 역사학을 하면서 보니까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문제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역사를 그런 눈으로 보게 됐어요. 괴테의 작품을 보면 왜 자기를 마귀 메피스트팔레스한테 팔아가고 맘대로 돌아다니게 해주면 언제까지 목숨을 주겠다는 소설 『파우스트』 있잖아요. 내가 연극공연도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하느님하고 악마하고 두 개의 뿌리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또 하나 있는 삼각형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밑변이 넓어야 ‘꼭지점이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을 자꾸 갖게 된 거예요. 밑변이 넓다는 것은 인간이 인간다워야 하는 것이예요. 내 모든 생각은 거기에 근거를 둔거예요.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을 보면 샤일록이 등장하면서 처음으로 대사하는 것이 ‘3천 냥’이라고 말해요. 자산가의 딸 포샤가 구름처럼 몰린 구혼자들을 시험할 때도 금, 은, 동 세 개의 상자를 고르라고 해요. 30일 후에 안 값으면 살을 3파운드를 떼내겠다고 ‘3’이 자꾸 걸려있어요. 바사니오와 그의 친구 안토니오는 포샤를 두고 삼각관계를 이루고. 그렇게 삼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을 안정시킨다고 학생 때부터 느꼈어요.”

김성옥은 대학에 입학해 '고려대 극예술연구회'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연극을 해석하는 데 철학적인 사유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때 깨달았다. 대학 2학년 때 허무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 연구발표를 한 적이 있다. 학과 동아리에서 공부할 때인데 '허무주의에 관한 사적 고찰' 같은 것이 연극을 이해하고 배역을 맡는데 큰 도움이 됐다. 가령, 부조리에 대한 고민과 사유가 있어야만, 부조리에 맞는 연극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김성옥이 1969년 한국 연극계의 대표작인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블라디미르 역을 맡았을 때, 그는 이미 부조리에 대한 상당한 검토가 되어 있었기에 그 작품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알았던 것이다. 이처럼 연기자는 상당한 사상을 갖기까지의 철학적인 바탕이 있어야 연기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이 없이 기능적인 대사만 하는 것을 '드라마적인 사실주의'라고 하는데 그것은 '연기'가 아니다. 그는 연극의 배우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고 대사를 한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것은 예술이 아니고 그냥 탤런트일 뿐이다.

3. 대한민국 대표 배우로 성공

김성옥은 1962년 대학을 졸업한 후 마침 천주교를 통해 오스트리아로 유학 갈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그 기회를 포기하고 곧바로 남산 드라마센터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연극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때 「세일즈맨의 죽음」에서 주인공 역을 맡았다. 1961년부터 텔레비전 송출을 한 KBS에도 출연을 시작했다. 1964년 초에는 국립극단의 단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때에는 「베니스의 상인」과 「만선」의 주연을 맡아 열연하였다.

“그때 우리나라 각 도마다 한사람씩 뽑아서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보냈어요. 가난한 나라의 인재들을 교육시켜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내가 천주교에서 유명하니까 전남의 대표로 그때 날 보고 가보겠냐고 해서 가겠다고 하고 준비를 했지요. 그때가 록펠러재단의 지원으로 드라마센터가 막 지어졌을 때예요. 연극계의 원로이신 유치진 선생님이 나한테 와서 연극을 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오스트리아에 가려고 한다.’ 했더니, ‘여기 있으면 록펠러재단의 지원으로 미국에 갈 기회가 있으니 그때 보내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드라고. 그때만 해도 유럽보다는 미국으로 가는 것이 훨씬 좋으니까 남아서 연극을 했지. 근데 2년이 지나도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못하는 사람들 보내면서 말이야. 그러는 사이에 돈벌이도 안 되고, 먹고 살길도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국립극단에서 내 연극을 보고 단원으로 오겠냐고 제안이 왔어요. 거긴 월급도 꽤 줬어요. 12,000원인가 받았는데, 문공부 직원들이 7천원쯤 받았나. 그때 그렇게 받았으니까 꽤 받았지요.”

김성옥은 국립극단에서 최고의 인기를 얻으면서 방송계에도 전속으로 진출하게 됐다. 1964년 TBC⁰⁴⁾가 개국하면서 유명한 배우들을 전속으로 계약해 고용할 때였다. 결혼을 앞둔 그는 목돈이 필요해 TBC와 전속계약을 하게 된다. TBC 방송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방송 송출지역이 서울에 한정되었다는 점이었다. 나중에 부산까지 확대되었지만 고향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채널이었다. 이 때문에 김성옥의 인기가 아무리 높아도 목포를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그의 활약상을 볼 수 없었다. 김성옥은 2년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 재계약을 원치 않았다. 한 방송사에 얽매이지 않고 경쟁사인 KBS나 MBC에도 자연스럽게 출연하면 더 많은 영향력과 더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TBC의 소유사인 삼성과 소송을 하기도 했다.

1970년대 이후에는 배우보다 사업가로 변신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가 하면, 우석레파토리 대표, 극단 신헌 대표 등을 맡으며 연극경영에도 관여하였다. 전주우석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겸임교수도 역임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 김대중 씨하고 선거하고 붙어 있을 때인데, 사람들이 KBS를 안 보거든. 그래서 당시 인기 있는 배우들을 전속계약해서 드라마를 만들어서 보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 남자가 나야. TBC와 전속계약 문제는 서로 양보하면서 없었던 일로 하기로 결정됐어. 그리고 나서 내가 KBS에 다시 출연하게 됐지. 그 전까지 목포 사람들은 나를 안 봤으니까 모르지. 텔레비전에서도 못 보고, 연극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내가 방송계를 떠난 것이 컬러텔레비가 나오기 전이야. 그 후로 조금 한 것은 나중에 와서 1990년 이후 2000년 이때 몇 작품 해보자고 해서 용돈도 필요하고 해서 「왕진」이나 몇 작품 한 거지. 그때서야 목포 사람들이 몇 사람이 보고 안거야. 「고도를 기다리며」, 「만선」 이런 한국 연극사에 남는 작품들이 있었지만, 목포 사람들은 안 봤으니까 모르지. 그 이야기가 나오면 ‘김성옥’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이야.”

「만선」은 목포 출신 천승세 작가의 작품으로 목포의 선창, 조기 잡는 배와 어민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연극이다. 1964년 명동의 옛 국립극장에서 김성옥 주연으로 초연을 한 후 현재까지도 무대에 올려지는 50년 이상 된 희곡의 교과서적인 작품이다. 「고도를 기다리며」 또한 극단 산울림이 1969년 사뮈엘 베케트의 원작을 처음 무대에 올릴 때 김성옥이 블라디미르역을 맡았다. 이 연극은 부조리의 고전이자 노벨문학상 작품으로 현재도 무대에 올려 질 정도로 인기가 있는 작품이다.

04) 동양방송. 1964년 서울에서 개국한 방송국으로 삼성이 경영한 국내 최초 민간상업방송국이다. 1980년 언론통폐합 이후 동양방송은 2011년 12월 1일 종합편성채널 JTBC로 부활하였다.

“우리 부모님들은 나를 텔레비전에서 본 일이 없어요. 1997년 10월 목포문화예술회관이 생겼을 때 김영자 화백의 초청으로 우리가 「만선」이라는 연극을 개관축하 공연으로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공연할 때 우리 어머니가 내 연극이라는 것을 처음 봤어요. 하여튼 개관할 때 마이크 장치도 제대로 안 돼 있을 때인데 MBC 중개차를 갖다 놓고 조명장치를 했어요. 최고의 배우들인데, 커튼콜을 할 때 내가 나와서 인사하면서 객석에다 대고 우리 어머니가 와 계시는데, 우리 부모님은 평생 내 작품을 본적이 없다고 그랬어. 우리 어머니를 소개할 때 박수 한번 쳐달라고 한 것이 전부예요.”

1963년 이후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고 세상은 무서웠다. 표현의 자유가 극히 제약 받을 때였다. MBC에서 「임꺽정」이란 작품을 촬영할 때였다. 김성옥이 임꺽정 역을 맡았다. 의협심이 강한 내용이라 시청자들은 재미있게 보는데 곧 방송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주제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내용이었고, 이것을 정부가 위험한 내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또 김성옥이 「대원군」을 맡아 KBS에서 방영하는데 「화무십일홍」이요 「달도 차면 기우나니 권불십년이라」 이런 대사를 사용할 수 없었다. 중앙정보부에서 늘 내용을 검열하고 불순한 내용이 있으면 삭제했기 때문이다. 박정희 정권에게 권불십년이나 혁명은 절대 공존할 수 없는 대상이었으리라.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이 전 국민의 애창곡인 적이 있었다. 이 노래가 만들어진 때는 공교롭게도 김성옥이 태어나던 1935년이였다.

“「목포의 눈물」은 1935년 작입니다. 내가 태어나던 해에 생긴 노래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이난영 씨가 일본에 취업하러 갈 때 돈 낼 때 나도 좀 내놔.’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포 청년들이 돈 모아서 보내줬어요. 일본에 갈 때, 1965년 이난영 씨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흑산도 아가씨」를 작곡했던 박춘석 씨네 이 양반들이 상여를 메고 광화문으로 나갈라고 했어요. 그때 「목포의 눈물」을 부를려고. 그런데 이 시절 박정희 대통령은 데모는 제일 질색을 할 때여. 절대로 허락을 안 하지. 그래서 가요계 원로들이 가서 하게 해 달라. 그렇지 않게 분위기를 잡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허락을 받고 「목포의 눈물」을 부르면서 동아일보사 앞을 지나갔다고. 그러니까 예향 목포의 정서라는 생명이 잠깐 움튼거야. 그러다가 광주 야구가 해태타이거즈 이 때는 이겼다고 하면 「목포의 눈물」을 불렀다고. 그때는 유난히 많이 이겼어. 그러니까 「목포의 눈물」이 다시 살아난 거야. 그런데 이제는 「목포의 눈물」을 안 부르잖아. 그때는 호남사람들이 다 불렀고. 음으로 양으로 전국의 사람들이 동조를 했지. 이제는 그것도 아니야. 지금 노래를 부르는 것은 목포 사람들 뿐이여. 전국 사람들이 「목포의 눈물」을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목포 사람들의 착각이야.”

그는 연극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1969년 노벨상을 받은 작품인 「고도를 기다리며」를 연극무대에 올려, 이 작품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만나 친해졌다. 연극이 3개월 전에 매진이 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 당시 김대중이 국회의원에 갓 당선되어 연극을 보러 왔다. 그때 인연이 되어 부부간 모임도 갖고 깊은 교류를 갖게 되었다.

4. 결혼과 사업, 그리고 귀향

김성옥은 30세인 1965년 9살 연하인 대학생 손숙과 명동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손숙은 결혼 후 연극배우이자 방송인으로 활약했고, 1999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환경부장관을 맡기도 했다.

김성옥이 손숙을 처음 만난 것은 연극 때문이었다. 1962년도에 설립된 남산의 드라마센터(현 남산예술센터)는 설립 첫해부터 연극의 부흥을 위해 '전국남여중고등학교 연극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연극지도와 연출은 드라마센터에서 한명씩 파견하는 방식이었다. 김성옥이 배치된 곳은 풍문여고였다. 바로 손숙이 재학 중인 학교였다.

“당시 남산 드라마센터에서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교 연극경연대회를 해. 근데, 극단에서 돈을 십원도 안줘. 날 보고 고등학교에 가서 연극 연출을 하나 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배정받은 것이 풍문여고야. 손숙이 있는 데 엮어. 가수 김상희도 거기 나왔어. 가서 보니 연극을 한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모였어. 내가 스물일곱 살이었어. 쪽 리딩을 시키면서 발음은 어떤지. 능력은 어떤지, 무슨 역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는데 손숙은 경상도 사투리가 조금 있어. 밀양에서 초등학교를 나와서 서울로 와서 돈암동 초등학교 다니고 풍문여고에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경상도 사투리가 있을 수밖에. 인물은 춘향이 감인데 발음이 안 돼. 시킬 수도 있었는데. 안 되겠다 너는 배우는 못하고 조연출을 해라. 그리고 2학년에 박인희라고 있어요. 「모닥불」, 「목마와 숙녀」, 「세월이 가면」을 부른 예쁘장한 가수예요. 연극을 하고 싶었는데 결국 가수가 됐더라고. 그때 박인희가 춘향이를 했어. 그러고는 국회의원을 한 김을동은 방자를 시켰어. 모두 친구들이여. 다 잘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탤런트가 됐지.”

김성옥은 풍문여고 연극 연출을 마친 후 다시 방송 일에 전념하면서 해가 바뀌었다. 김성옥은 방송출연의 바쁜 와중에도 10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고려대 동문들의 합동연극공연에 참여하게 됐다. 그 연습에 자주 나가지는 못했지만, 어느 날 그 자리에서 손숙을 다시 만나게 된다.

“손숙은 당시 글을 많이 썼어. 고려대에 입학할 때 신입생 총 대표로 신문에 글을 썼어요. 나는 고

대에 있다가 여석기 교수라고 있는데 그분이 합동공연을 해라 그거야. 10년마다 한 번씩 해. 내가 50주년부터 110주년까지 한 거야. 하지만 나는 바쁘니까 연습에 못나가요. 연출자가 학생들을 데리고 나 일하는 데까지 데려왔어. 보니까 손숙이가 있어. 고려대에 들어 왔다는 거야. 너 의과대학 간다고 안했냐? 그랬어. 개도 고려대 사학과에 들어왔어. 나랑 같은 과지. 그래서 연극을 같이 하게 됐어. 그러니까 밤낮 붙어 다니게 됐어. 그러다가 결혼까지 하게 된 거지. 손숙이 2학년 때 결혼했어. 그래가지고 3학년 때 복학을 했어.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 공부를 열심히 안하게 돼. 결혼하니까.”

결혼할 즈음 김성옥은 ‘저건 100년에 하나 나올만한 배우’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뛰어난 기량을 자랑할 때였다. 국립극단에 처음 들어갔을 때 홍보 간판에 사실적인 그림을 못 그릴 때였는데, 거기에 김성옥이 주연하는 사일록의 「베니스의 상인」 간판은 예외일 정도였다.

손숙은 결혼 이후 적극적으로 연극을 하지는 않았지만, 김성옥과 몇 편의 작품에 함께 출연한 적은 있었다. 손숙은 단역을 맡았고, 그는 단연 주인공 역할을 했다. 시간이 흘러 손숙이 국립극단에 단원으로 들어갈 때에는 김성옥은 연극계를 떠난다.

“장민호 선생이 국립극단 단장으로 계실 때인데, 문 모라고 유명한 배우가 있었어. 근데, 국립극단에서 연극을 하는데 과학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 배우가 힘들어해. 결국 하다가 안하겠다고 나갔어. 그니까 공연은 보름인가 얼마 앞두고 큰일 난거지. 손숙은 아직 연기는 어린데 총명하기는 하거든. 그래서 장민호 선생이 와 가지고 ‘니 마누라 손숙을 연극 좀 시키자.’ 그래서 손숙이 국립극단에 들어가서 연극을 한 거야. 그래서 단원이 된 거야. 난 관두고 난 뒤였는데. 그 무대는 같이 안 썼지. 손숙이 하고 나하고는 연극을 서너 편 했나? 차범석 선생의 지리산에서 「산불」 가지고 했고, 대학교에서 합동공연 할 때 했고. 극단에서도 몇 작품 했구나. 그때는 손숙은 단역을 할 때고, 나는 주인공을 맡고, 손숙이가 국립극단 들어갈 때 난 이미 연극계를 떠났죠.”

1970년 이후 더 이상 배우 안하겠다고 선언한 김성옥은 사업을 시작했다. 마침 정부에서 새마을공장을 짓는 경우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었다. 9천만 원을 융자 받아 ‘삼진전자’라는 공장을 짓고, 운영하기 시작했다. 당시 목포의 친구들이 많이 올라와 관리자로 취업하기도 했다. 삼진전자는 카세트테이프를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당시 카세트테이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한국에 근무하는 미군들이 간단히 자신들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는 용도 정도였다. 그러다보니 시장이 미국과 일본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뉴욕지사와 일본지사를 운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이 잘 되지 않았다. 그 후에도 가게를 운영하거나, 완구공장을 새로 시작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1970년대 후반에는 사우디와 영국에서 7년간 ‘유원건설’ 회사의 런던지사를 지내기도 했다.

“배우를 하면서 매니지먼트(경영)에 눈을 뗐어요. 미국에는 시어터매니지먼트과가 있어요. 연극경영학이라는 과. 우리는 지금도 없어요. 내가 군대에서 2군단 부관부에 있었는데 내가 가서 보니까 소위 매니지먼트는 군대가 제일 발달 됐드라고. 경영이, 기업이 그 다음이라. 군대 다음이야. 그래서 한국연극계는 경영에 대한 고민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 기업으로 가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업적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고생문이 흰했지. 그 대신 인생에 대해 많이 배웠지. 독립기념관의 임정정부의 밀납상을 다 내가 만들었잖아. ‘사라문화’라고 해서 역사라는 사(史)와 신라의 라(羅)를 써서 역사를 아름답게 한다고 해서. 1970년대 말에는 사우디를 거쳐 영국에서 건설회사에 있었어요. 1억불 정도를 만졌어요. 굉장한 사업을 했어요. 내가 82년 말에 들어왔으니까. 한 7년 정도 외국에서 살았어요.”

결국 사업의 실패와 오랜 외국 생활로 인해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빚만 늘어 가정은 여러 가지로 힘든 처지에 빠졌다. 아내 손숙이 김대중 대통령의 배려로 국회의원 비례대표 제안을 받았을 때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포기해야 할 정도였다. 그때 가족투표를 했다고 한다. 김성옥과 손숙 사이에 딸이 셋 있는데 딸 셋 모두 엄마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반대했다. 정치는 돈이 있어야 하는데 돈도 없고, 만들 만한 능력도 없고, 투자 받을만한 처지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복잡한 상황에 있을 때 당시 목포시장인 김성옥에게 목포시립극단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김성옥이 20년 전에 고향 목포에 내려와 다시 연극계에 발을 디디게 된 계기였다. 그는 6년간 단장을 맡으며 단원들을 고전극 연습을 통해 기초실력을 탄탄하게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한 성과는 곧 전국연극페스티벌에서 두드러진 실력으로 나타났다. 김성옥은 이후에도 시립극단의 여러 작품의 연출을 맡았다.

“영국에서 돌아와서 서울에 있다가 목포에 온 것이 한 20년 되나? 그 무렵이 김대중 씨 출마 직전인 1997년이니까 딱 20년 전이네. 목포시장 전태홍이가 날 보고 ‘아, 선배님 목포시립극단을 맡아 달라’고 해서 내려와 6년인가를 했어. 당시 어머니가 혼자 목포에 계셨기 때문이야. 명칭은 단장이었는데, 단장이란 말을 쓰기 싫어서 예술감독이라고 그랬어. 시에서는 단장이라고 불렀는데 단장이 될 만한 구비가 안 되어 있는데 단장이라고 하면 말이 안 맞지. 구성이 잘 안되어 있었어.”

김성옥은 2005년 목포의 문화적 품격을 높이는 데 작은 역할을 하고자 ‘작은문화모임’을 구성해 초대 회장을 맡으며 각계 인사들과 문화 활동을 재기했다. 그런데 시작부터 목포의 분위기에 적응하기 힘들었다. 구성원들이 ‘작은’이라는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이다. 왜 ‘작은’이라는 단어를 쓰냐는 거였다. 크고 거대한 것이 위대하고 멋진다고 생각한 탓이었을까? 그는 결국 ‘작은 것이 아름답다(Small is beautiful)’라는 격언을 인용하고 설득하면서 이름을 확정지을 수 있었다. 그는 또한 문화모임 ‘소리꽃세상’에서 ‘시낭송’ 문화를 보급하는 데도 큰 기여를 했다. 2001년 서정주 시인 1주기 기념행사에서 ‘자화상’을 낭송한 김성옥은 이미 시낭송의 교과서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는 ‘소리꽃세상’ 회원들에게 ‘힘 있게 끊고, 감정을 절제하며, 감동을 줄 수 있는’ 시 낭송을 지도하기도 했다.

“목포의 문화 수준은요 걱정이 됐어요. 내가 ‘작은문화모임’이라고 10년 조금 더 됐구나. 내가 만들었어요. 그때 ‘작은’이라고 말이 많았어요. 하지만 성과도 많았죠.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과 「돌아가는 배」를 공연도 하고 그랬어요. 「돌아가는 배」는 김성우 씨라는 한국일보의 유명한 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의 책이에요. 그것을 1시간 10분짜리로 줄여서 혼자서 외워서 낭송을 했어. 사흘 동안 공연을 하는데 MBC 공개홀이 300석 되거든. 바닥에 앉고 문 잠그고 난리가 났어. 노래하는 사람, 무용하는 사람들 중간에 넣어가지고, 시 낭송은 나 혼자 하고……. ‘소리꽃세상’도 애정을 가지고 지도하는 모임이지요. 이제는 다들 시 낭송의 전문가가 다 됐어요. 참 시를 통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이지요.”

5. 문화의 향기, 목포

목포는 정말 아름다운 해안 항구도시다. 김성옥이 목포에 내려와 생활한지 얼마 안됐을 때인 1990년대 말 신안비치호텔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마침 비가 내렸다. 해질녘인데 마주보이는 바다와 고하도 섬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김성옥은 났을 잃을 지경이었다.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로비에서 엽서를 요청해 딸에게 글을 띄웠다.

‘목포의 바다가 정말 아름답다. 이곳이 아빠가 태어난 목포다’라고. 그는 이때의 감동을 오래 간직하며, 목포를 찾는 이들에게 그 경험을 나눠주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의 힘이 가장 효과적인데, 과연 누가 이런 감수성을 공감할 수 있을까 궁금했다. 아니, 문화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있을까? 김성옥은 긍정적인 답을 내기 어려웠다. 왜냐하면, 목포를 비롯한 남도는 예향의 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구호만 그럴 뿐이지 현실은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다. 조금만 돌아보면 그런 명성에 걸맞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 부끄러울 지경이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광주비엔날레 행사장에서 받

은 충격을 다음과 같이 꺼냈다.

“내가 미안한 이야기지만 광주비엔날레에 최근에 가 본 적이 없어요. 가서 볼수록 볼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요즘 설치미술이 많습시다. 거기 가면. 난해한 것도 아니고 심심하니까 하는 것도 많아요. 난해하면 차라리 낫겠어요. 또 웃기는 얘기로 차범석(1924~2006) 선생이 광주비엔날레 이사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국무총리가 행사장에 참석을 했어요. 공무원들이 단 위에 앉아야 하니까 이사장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단 밑에 내려와 앉았어. 이사장이 테이프도 끊고, 시상도 해야 하는데 설 자리가 없어. 그날 저녁에 차범석 선생이랑 광주 친구들과 몇이서 술을 마셨어. 이게 뭐냐 도대체. 차 선생이 ‘뭐 어때야…….’ 그러시는데 이게 참 망신스러운 일이었어. 중앙에서 내려온 무슨 국장이다 뭐다 따라 내려온 것들 때문에 정작 이사장을 단 밑으로 내려야겠어요?”

김성옥은 이런 분위기를 견디기 어려워했다. 광주는 그렇다 치더라도 목포는 다른가? 그렇지 않았다. 목포가 더한 경우가 많았다. 목포의 문화가 앞으로 사회를 이끄는 힘이라는 사상에 공감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목포시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자문했을 때 ‘전혀 안되어 있다’는 답을 얻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목포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모르니까 그런다고 생각되었다. 정말 예향을 아는 사람은 사관이 확실해야 하고, 그 사관이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는데, 예향이라고 떠드는 경우는 선거꾼들이 출마할 때만 이야기하는 예향뿐이라는 독설도 서슴지 않았다. 목포의 여러 사회, 문화단체들도 아쉬운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목포에서의 문화 활동이 더 중요하고 소중한다고 믿고 목포의 문화 르네상스를 되찾고 싶었다. 문화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목포의 내일을 설계하는 데 다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내가 슬픈 것이 이런 분위기가 다 어디 갔냐 이 말이야. 이 문화단체의 목표가 뭐냐고 물을 때 문화의 보급이라고? 목포 문화가 있기는 있는 거냐? 오거리 축제한다고 하면서 가설무대 만들어 놓고, 소주 먹고 막걸리 마시면 그게 문화냐? 목포문화가 그렇게 싸구려 문화가 아니다 이거야. 무엇을 보급해야 하는지 알아야지. 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슬펐어요. 슬프단 말도 못한다는 것이 더 슬퍼. 어찌다가 목포가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지만 목포시의 이야기를 하려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부터 먼저 시작해야 돼.”

문화가 앞으로의 사회를 이끄는 힘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믿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야 함을 김성옥은 강조했다. 김성옥은 서당에 다녀 본 적은 없지만, 붓을 들어 현판글씨를 쓴 적이 있다. ‘洗

心亭(세심정)', 마음을 닦는 집. 스스로 잘 썼다고 자부하지 않지만 우리가 가진 문화적인 자부심의 눈으로 보니 멋진 작품으로 느껴졌다. 이 작품을 호주에 있는 딸에게 보내주며 집 앞에 걸어두라고 했다. 김성옥은 이것이 새로운 문화의 창조라고 생각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목포 문화가 찬란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소전 선생의 시절이라든지, 남농 시절이라든지. 광주에서 유명한 허백련 선생도 목포에 계셨잖아. 남농 집에 와서. 그 양반이 광주에 가면 어른이잖아. 차밭도 만들고. 그 후로도 광주의 유명한 사람도 여기 와서 있었어. 도촌이라고 내 친구 화가도 있어요. 그 제자가 많아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남농의 할아버지 소치가 돌아가실 때 미산에게 도회지에 나가서 살아라 그랬단 말이여. 그래서 미산이 이 동네 왔고, 남농이 태어난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 후로 글씨 쓰는 사람들이 목포에 살았어. 근데 퇴계는 어땠어요? 의관을 정제하고 옷 다 입고 사랑채에 앉아서 제자들한테 저 매화나무에 물을 줘라.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을 해보자. 우리는 지금도 먹고사니즘 타령이야. 예전에 비하면 훨씬 먹고 살기 좋은데. 이렇게 가면 100년 후에도 먹고사는 문제에서 한발자국도 못 벗어나요. 무엇이 목포를 발전시키는 것인지 고민해야 돼.”

8·15 해방 직후 목포에 항도여중이 개교했다. 조희관 교장선생은 각지에서 훌륭한 분들을 교사로 모셔와 학생들에게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었다. 선생님 댁에는 당시 아주 귀한 피아노가 한 대 있었다. 항도여중 음악선생인 안성현 선생도 그 피아노로 여러 곡을 작곡했다고 들었다. 조희관 선생님의 아들이 김성옥의 친구라 종종 그 집을 방문해 들은 이야기였다. 김성옥은 그때의 기억으로 목포에서 시작한 노래, 그러나 빨치산이 부른다는 이유로 금지곡이 된 ‘부용산’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한 적이 있다. 김성옥은 호주에서 박기동을 만나 부용산 2절을 받아오고, 소프라노 송광선(한국 예술종합학교 교수)을 초대해 목포에서 음악회를 가졌다. 1999년 5월 29일이었다. 당시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한때 ‘빨치산의 노래’로 잘못 알려졌던 가요 ‘부용산’이 부활하고 있다. 29일 오후 6시30분 전남 목포 대안동의 대형 레스토랑 ‘뉴프린스’에서 ‘부용산’을 주제로 한 이색 음악회가 열린다. …… 이 노래가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은 2년여 전부터. ‘부용산’의 진가가 이데올로기에 희생된 것을 안타까워한 일부 뜻있는 예술·언론인들에 의해서였다. 이에 목포출신 연극인 김성옥씨 등이 수소문 끝에 가사의 주인공 학생과 같은 반이었던 경기대 김효자(67세, 일본어과) 교수로부터 유래, 악보 등을 찾아냈다. 또 호주로 이민 간 작사자 박기동(83세)씨에게 부탁, 원래 없던 2절 가사까지 완

성시켰다. 이번 음악회를 기획한 연극인 김씨는 ‘부용산은 남도의 전설 같은 노래로 목포에 노래비를 세우고 전국 순회공연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⁰⁵⁾

“해방이 되자마자 조희관 선생님이 향도여중을 만들었어. 내 친구 아버지인데 그 덕에 현 피아노가 있었어. 음악선생들이 그 집에 가서 피아노를 치고 만든 것이 「부용산」이야. ‘부용산 오릿길에 잔디만 푸르러 푸르러 솔밭사이 사이로’ 향도여중 교사로 시를 쓴 박기동 선생이 호주에서 살았어. 내가 호주에 가서 만났잖아요. 박 선생이 별교사람이고, 내가 박 선생한테 물었어. 선생이 학생을 사랑했다고 쓴 거라고 하던데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 여동생이 일찍 시집을 갔어, 근데 일찍 죽었어. 아주 미인이었는데,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 지은 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드라고. 그런데, 6·25 이후 빨치산들이 지리산에 숨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밤이면 울면서 부른 노래야. 그래서 「부용산」 노래가 빨갱이 노래라고 못 부르게 됐어. 순천 사람들은 자기들 노래라고 그래. 우리는 무슨 소리냐, 목포에서 작곡한 것인데. 그러다가 결국 별교에는 「부용산」 ‘시비’를 세우고, 목포에는 「부용산」 ‘노래비’를 세우기로 타협했어.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서 있고. 내가 이걸 찾아야겠다. 왜 이 노래가 빨갱이 노래로 묻혀야 되느냐 그래서. 한국일보의 김성우 씨와 소프라노 송광선이 하고 나하고 셋이서 이것을 찾고, 그 음악회를 목포에서 준비를 한 거야. 그 「부용산」 노래를 발표하는 날 내 부인이 환경부장관 임명장을 받는 날이야. 내가 차를 타고 전주쯤 오는데 마누라한테 전화가 왔어. 장관 취임식 하는데 부부가 꼭 같이 와야 한다는 거야. 그래야 대통령이 임명장 주는 거래. 이미 12시가 다 됐는데 어떻게 서울까지 가. 그래서 거진 못 갔지.”

이렇게 애잔한 음의 국민 애창곡 부용산의 논란은 결국 목포와 별교 두 지역이 사이 좋게 별도의 비를 세우면서 종료되었다. 그 ‘「부용산」노래비’는 지금도 목포여고 교정 안에 남아 있다. 논란이 많은 「부용산」에 얽힌 내용을 김성옥이 수집한 자료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박기동(1917~2004) 시인은 한의사였던 아버지 덕에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내다 만주까지 올라가 고생한 경험이 있었다. 1943년 별교초등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해 별교중과 목포향도여중(이후 목포여고에 합병)에서 국어를 가르쳤다. 부용산 시는 별교로 시집간 누이와 애제자 김정희의 잇따른 죽음으로 만들어졌다. 박기동은 1993년 호주로 이민을 갔다가 그곳에서 삶을 마감했다.

작곡가 안성현(1920~2006)은 목포향도여중에서 근무하던 중 박기동 책상 서랍에 있던 시를 읽고

05) 『중앙일보』 1999. 05.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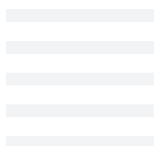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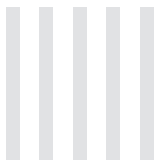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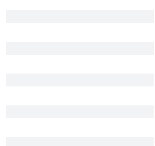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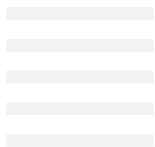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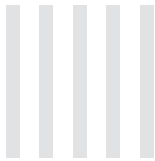
곡을 만들었다. 한국전쟁 이후 지리산에 숨어 활동하던 빨치산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결국 빨치산 노래로 알려지게 됐다. 무용가 최승희의 시댁 조카인 안성현은 아내를 홀로 두고 월북하게 된다. 안성현은 85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북한에서 공훈예술가로 활동하다 세상을 떴다. 안성현의 월북과 빨치산에 의해 금지곡이 된 부용산은 이렇게 김성옥과 몇 사람들의 노력으로 다시 태어났다.

“문화가 앞으로의 사회를 이끄는 힘이라는 사상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문화는 다른 도시와의 차별의 에너지라고 합니다. 문화의 힘이 없이는 그 도시는 죽은 도시나 같아요. 목포는 남도예향의 중심지입니다. 그렇게 알고 믿으며 컸어요. 그것이 목포의 자부심이에요 미래란 말입니다. 뱃고동 소리와 더불어 청호(靑湖)라는 호를 가진 도시로서 영원하길 바랍니다. 봄날처럼 아름다운 계절도 있었고 혹독한 추위속의 겨울도 있었지요. 그러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삶은 항상 아름다운 것이니까요.”

이렇게 말을 남긴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소리꽃세상 문화학교’가 준비하고 있는 김성우가 쓴 「돌아가는 배」공연 준비를 위해서라고 했다.

빈 배에 내 생애의 그림자를 달빛처럼 싣고 돌아가리라.

김경완 | 신안문화원 사무국장



제1절 목포 수필 문학의 산증인

정미영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연구보조원

제2절 목포의 선비 시인

고정서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연구보조원

제3절 추억의 서점 문화당을 말하다

정미영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연구보조원

제2장 문학을 노래하다

제1절 목포 수필 문학의 산증인

목포는 개항 이래 현재까지 예향의 도시로 많은 문인들을 배출해 냈다. 그 중 목포를 중심으로 교육 활동과 문학 활동을 50년 넘게 펼쳐 온 김학래는 목포 수필 문단을 조성하고 이끌어온 산 증인이다. 김학래는 진도군 군내면 월가리에서 1934년에 태어났다. 진도 군내초등학교와 진도중학교를 졸업 후 교원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1954년부터 1966년까지 진도군 관내 초등학교 교사를 지낸다. 산정초등학교 근무 당시 덕인고등학교 야간부를 졸업하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초등교육학과 5학년을 졸업한다.

1961년 아내 김윤자와 결혼하여 슬하에 3남 1녀를 둔다. 1963년부터 1966년 사이에 수필 3회 입선하고 박화성의 최종 추천으로 추천 완료되어 문단에 등단한다.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목포시내 초등학교 교사를 지내고, 1977년부터 1983년까지 신안군 관내 초등학교 교감을 지낸다. 1983년부터 1990년까지 신안·영암·목포교육청 장학사를 지낸다. 도 연구사를 지낸 후 1993년부터 1998년까지 무안초등학교 교장을 지내고 1998년부터 1999년까지 목포대연초등학교 교장을 끝으로 정년 퇴직한다.

문단경력으로는 1987년부터 1990년까지 한국문인협회 목포지부 지부장을 지냈고, 전남수필문학회 회장을 1990년부터 1992년까지 하였다. 한국문인협회 전남지회장을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영호남수필문학회 회장을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지낸다.

그의 저서(수필집)로는 『겨울밤』(1976), 『다도해의 낭만』(1981), 『초가집』(1983), 『구름처럼 강물처럼』(1994), 『동창이 밝았느냐』(2006) 등 10권을 출간했으며 평생 세 번의(회갑기념, 교회기념)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그의 수필은 토속적이고 전원적인 소재와 농어민 생활의 애환과 서민 세계의 일

화가 중심이다. 그는 수필가이지만 전남수필문학사, 목포수필문학사 등 논문도 썼다.

수상(문학 관계)으로는 남교예술문화상(1986), 전남문학상(1989), 한국수필문학상(1993), 제9회 한국예총예술문학상(1995), 제2회 전남예총예술상(문학, 1997), 40회 전라남도문화상(문학, 1997), 한림문학상(광주, 2005), 2회 원종린수필문학대상(2006), 영호남수필문학대상(2010), 2013년 올해의 수필인상, 목포문화상(2015)이 있으며, 교원정년으로 받은 국민훈장모란장(1999)이 있다. 문학 심사위원으로도 1998년 전라남도문화상 심사, 2003년 광주문학상 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그는 교원, 문인, 사회인을 대상으로 강의와 강연을 통해 문학 및 도덕 등을 알려주는 데에도 힘썼다.

어린 나이에 교단에 입문하여 45년 2개월간 교단생활을 하다 정년하기까지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며 일상에서 담아 낼 수 있는 교훈이 담긴 많은 수필 작품을 만들어냈다. 문학의 뿌리가 가르치는 일과 스스로 가르침을 받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는 ‘정년이 없는’ 수필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목포의 대표적인 수필가이다.

1. 어린 시절과 교원자격 검정고시

김학래는 진도군 군내면 월가리에서 1934년 아버지 김종신과 어머니 이읍단 사이에서 3남 중 맏이로 태어났다. 진도군 군내초등학교와 진도중학교를 졸업하고 가정 형편상의 문제로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교원검정고시를 치루고 어린나이임에도 수석으로 합격한다.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고 집이 가난해서 고향에서 중학교를 수석졸업을 했으나 진학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담임교사가 넌 집이 가난하니 국립고등학교를 가라고 했는데 당시 국립고등학교가 부산에 있는 체신고등학교 하고 교통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체신고등학교 시험을 봤는데 등록금 등 전부가 무료라 해서 합격한 후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등록비도 내고 입사비도 내라고 해서 부산체신고등학교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교원 시험을 준비하게 된 거예요. 문교부에서 실시하는 교원자격검정고시가 고등학교 학력 수준으로 시험이 출제가 되었는데 제가 전라남도에서 수석으로 합격했어요. 중학교졸업생이 고교학력 수준의 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했으니 좀 놀랐지요. 당시 800명 넘게 응시했는데 21명이 합격을 했어요. 시험은 3일 동안 열 과목을 광주서석초등학교에서 봤어요. 지원자가 800명이 넘었던 것은 해방 직후 학교가 막 늘어났는데 사범학교 졸업생만 가지고는 교원 수가 부족하니까 중학교만 졸업해도 임시교사라고 발령을 줬던 시절이라 그래요. 옛날에는 학교에 들어가기만 하면 강사가 되고 나중에 준교사 되고 2급 정교사가 되고 교장 된 사람도 많았어요.”

그는 1961년 진도에서 아내 김운자를 만나 3남 1녀를 낳는다. 산정초등학교 근무 당시 덕인고등학교 야간반을 진학하여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고 졸업한다. 학력이 미흡함을 느껴 교원생활을 하면서 다닐 수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초등교육학과 5학년을 졸업한다. 그는 가난과 천학이 한이라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공부했다.

“내가 결혼은 진도에서 하고 왔어요. 1월에 구혼식으로 마당에 멍석 깔고 덕석치고 했지요. 아내가 내게 올 때 눈이 왔고 동네 사람들이 서설이다 라고 하며 잘 살 것이라고 하데요. 2015년 1월 24일에 집사람이 승천하는데 눈이 엄청 내렸어요. 내게 올 때도 갈 때도 눈이 내렸네요. 55년 해로했지요. 집사람은 진도읍에 살았고 중매로 만났지요. 고향에서 결혼해서 첫째, 둘째 아들을 낳고 셋째 딸과 막내아들을 목포에서 낳았어요. 내가 교원이라 군대생활을 1년을 했어요. 결혼하고 바로 군대를 갔고 묘하게 결혼식 날 영장이 나왔고 면서기가 차마 입영통지서를 전하지 못하고 있다 알려줘서 갔어요.”

2. 수필로 등단하다

진도에서 교원검정고시 합격 후 그는 1954년 첫 발령지인 진도석교초등학교에서의 근무를 시작으로 진도군 관내 초등학교에서 13년간을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1966년도에 목포 산정초등학교 교사로 발령을 받는다.

“진도석교초등학교에 봄에 발령을 받았는데 그때 너무 어려서 아기 교사로 불리었지요. 호적나이에는 만 17세 전에 들어 간 거지요. 민법상 20세가 되어야 권리를 주는데 17세가 되지 않은 사람을 발령해 준 것은 그 당시에는 사범학교를 나와야 교사자격증을 주는데 사범학교를 못나온 임시교사가 많았으며 난 자격증이 있으니까 어리지만 발령해 준 것이예요. 그러곤 쭉 진도에서 초등학교 교원생활을 했지요.”

김학래는 1963~1966년 사이 수필 3회 천료로 등단하였다. 조연현 2회 추천 「새교실」(‘진도개’, ‘동명유죄’)과 박화성의 최종 추천 「월급날」로 등단하였다. 아호는 서예가 김정재가 호를 지어 주어 월제(月齊)라고 썼으나 현재 글을 집필할 때는 고향마을 이름을 따서 월강(月江)이라는 호를 많이 쓰고 있다.

“학교 다닐 때부터 독서와 글쓰기를 좋아했고 초등학교 때부터 책임기를 좋아 했어요. 학교에 도서

관도 없고, 학급 문고도 없고 해서 읽고 싶은데 책이 없어서 아버지의 책상에 놓인 통속소설 ‘여학생의 정조’라는 책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다 읽었어요.

등단은 빨리 했어요. 진도에서 초등교사 때 원고를 서울에 올리고 3번 입선해서 등단한 것이지요. 나는 박화성 씨와 인연이 있는 것이 바로 제가 1966년에 잡지에서 수필 「월급날」로 등단을 할 때 추천해 주었어요. 1회, 2회, 3회 입선해서 천료를 해야 그때는 작가가 되거든요. 요즘 잡지에서는 입선 한 번하면 기성작가로 인정을 하는데……. 제가 할 때는 문학잡지도 별로 없었고 전국에 『현대문학』, 『자유문학』 밖에 없었고 서울잡지사에 200자 원고지로 수필을 써서 보낸 것이에요. 촌놈이 200자 원고지 써서 수필을 보내고, 보내고 한 것이 3번 입선됐죠. 1963년, 1965년, 1966년 한 3~4년에 걸쳐 천료가 되었어요.”

김학래는 진도에서의 교원생활과 목포에서의 교원생활 자체의 활동은 거의 비슷하였다고 기억한다. 1960년 당시의 아이들의 용모나 놀이문화는 도서 지역 아이들과 목포 시내 아이들 모두 힘든 사회상을 반영하는 듯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고 한다.

“진도에서 교원생활을 하고 산정초등학교에 와서 보니까 아이들의 모습은 별로 다름이 없고 그냥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고 느꼈지요. 진도에서 담임 할 때나 산정에서 담임 할 때나 아이들의 수가 많아서 교실 안이 꽉 찼어요. 아이들이 장난을 하고자 해도 장난할 자리도 없을 정도였지요. 요즘 아이들은 깨끗하고 좋은 옷 입고 그러는데 그때 아이들은 천덕꾸러기였어요. 세수 할 줄도 모르지요. 매주 수요일에 용의 검사를 합니다. 그땐 손수건도 종이도 없어서 코가 나오면 소매에 묻어서 옷이 뽕뽕 뽕뽕해서 볼 수가 없을 정도였지요. 여름방학이 약 40일 정도 되었는데 여름방학이 지나고 9월에 개학을 해서 보면 아이들이 훨씬 약해져서 옵니다. 거의 모든 아이들이 살이 빠져서 오고 시커매져서 오지요. 가정에서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데요. 사회가 다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냥 살도록 놔두지요. 굴러다니면서 살도록. 아이들에게 신경쓸만한 여유가 없었지요. 정말 모두가 가난했어요. 이 시기 목포·산정·유달·서부초등학교는 한 학급에 60명 이상 70명이 넘기도 했어요.”

3. 문학서클 목요회와 동인지 창간

1966~1976년 목포 시내 초등학교 교사를 지낸 그의 목포에서의 첫 발령지는 1966년에 근무한 산정초등학교이다. 당시 한 학급에는 70명이 넘을 정도로 학생 수가 많았으며 전교생의 수가 4천 명이 넘었다고 한다.

“진도에서 산정초 발령받을 당시 진도에서 손재형 씨가 만든 옥소호를 타고 왔어요. 옥소호와 진도호가 있었는데 읍에서 타면 옥소호가 있고 벽파진에서는 완도, 제주에서 오는 그 배를 타고 목포로 오기도 했지요. 옥소호를 타고 아내랑 함께 오는데 보통 촌에서 발령을 받으면 가족과 함께 오는 것이 드물어요. 왜냐하면 목포에 방을 얻어야 하는데 돈이 별로 없어서 우선 혼자 와서 하숙을 하거나 해서 1년 정도 뒤에나 이사를 했는데 내가 바로 올 수 있었던 것은 처형이 북교동에 방 2개짜리 전셋집을 얻어 주어서 그럴 수 있었지요. 산정초등학교에 1966년 봄에 왔지요. 2시간 수업 끝나면 중간놀이를 체조를 했는데 운동장이 딱 차가지고 게으른 담임선생들은 자리를 못 잡을 정도였어요. 산정초등학교 근무 할 때 이사를 일곱 여덟 번은 했어요. 북교동에서 양동으로 마지막으로 산정 2동에서 살았지요.”

김학래는 목포의 초등학교원들을 모아 목요회라는 문학서클을 만들어 초대회장을 지낸다. 그는 동인지 『목요회』의 창간호 서문에서 목요회의 특색을 첫째, 한결같이 젊다는 것, 둘째, 여자 회원이 많은 것, 셋째, 학생시절 영특한 사람들이라 모두 영재 교사들이라는 점을 들어 매주 목요일 문학의 꽃을 피운다고 말했다. 당시 동인으로선 김학래, 최두호, 김관석, 임차량, 이태웅, 김봉식, 김은정, 이요한, 박옥진, 김윤희, 신덕순, 해정미, 윤덕, 박공자, 주민자, 천원주, 김화자, 김순녀, 정성심, 박춘자, 박성천 등이 있었다.⁰¹⁾

“목포는 문인이나 화가가 거의 초·중·고등학교 교사예요. 거의가 그뎨 교사였어요. 그때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초까지는 그랬어요. 목요회를 하면서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목요회』 문학을 만들었지요. 당시에는 출판시설이 좋지 않아 향도출판사에서 어렵게 만들었어요. 목포 시내 초등학교원 문학을 좋아하는 문예교사들이 글을 썼고, 모임은 한 달에 한 번 국어과 교사들이 모여 협의를 하는데 그 중에서 문학하는 사람들은 내가 별도로 골라서 문학서클을 직접 만든 거지요. 목요일에 만나니까 목요회라고 지었지요. 목요회는 여교사들이 많았고 그때 만해도 좋아하는 것이 음악과 문학이었지요. 요즘 여교사들은 문학을 하지 않아요. 낭만이 예전에 비해 없어요. 1967년 만들어진 목요회는 한 2년 지속되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모였고 내가 제일 나이가 많았어요. 33살에서 34살 정도에 만들었으니까요. 편집하고 교정보고 인쇄하고 하던 때가 가장 즐거웠어요.”

01) 허형만, 「현대 목포의 문학」, 『목포개항백년사』, 목포백년회, 1997, 475쪽.

4. 『목포교육』·『목문학』·『어린이 목포』발간에 힘쓰다

1969년 1월 15일에는 『목포교육』⁰²⁾ 창간호가 1969년 5월 10일에는 새로운 동인지 『목문학』이 김학래의 편집, 교정 등의 공으로 창간된다. 1971년 12월 24일 『어린이 목포』⁰³⁾ 창간에도 함께 하는데 이 시기 거의 모든 인쇄물은 향도출판사를 통하여 출판되었으며 당시의 조판기술이 활자판이었음도 짐작할 수 있다.

“『목포교육』은 초등·중등교원들이 쓴 것이고 교육청에서 만들고 신안 교육청 앞 향도출판사에서 했어요. 활판인쇄를 하며 저녁도 인쇄소에서 먹고 바둑도 두고 10시 넘어서까지 했지요. 향도출판사 사장이 술도 밥도 사주면서 돈 얼마 남나 그런 것 생각안하고 문인들이 오면 대접해 주었어요. 남이 시켜서 했으면 못 했을 거예요. 내가 문학을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니까 했지요. 목포교육청 연구사로 산정초등학교에 적을 두고 파견근무로 활동하며 『목포교육』 세 권을 3년간 만들었거든요. 차범석 선생 동생인 차재석 씨로 부터 대 찬사를 받았지요. 『목포교육』으로 출판기념회도 했습니다. 1969년 그 시절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교정은 누가 수당 주거나 하는 게 아니지만 즐거워서 했고 문선작업을 하는데 7~8명이 해요. 첫판을 짜내면 교정을 해서 다시 뽑으려면 1시간 이상 걸리죠. 혼자 교정을 다했어요. 교사들이 본인의 글이 실리고 하나까 아주 이 책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책을 만듦으로 해서 내가 인기가 좀 있었지요.

그 시절 목문학이 동인회로 있었고 내가 총무를 했어요. 『목포교육』이 만들어지던 해 5월에 『목문학』이 만들어 졌지요. 목문학 동인회할 때는 거의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내가 그들이 결혼식을 할 때 기념품을 사서 줬어요. 밥상에 올리는 식기가 다 들어 있는 반상기를 사주면서 빚을 좀 졌지요. 문학해서 돈 번적은 없으나 친구는 많이 사귀고 나를 좋아하는 후배들이 많지요. 『목문학』은 한 4집까지 만들었으니 4년 정도 했지요 1년에 책 1권을 출판했으니까요. 회장은 박순범 씨 이었어요. 박순범 씨는 문태중학교 교사였는데 회원 중에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많았지요. 『목문학』에는 회원들의 작품이 실려 있고 그 당시에는 책 한 권을 만드는 것이 힘들었지요. 활판인쇄로 힘들었지요. 오자나 잘못된 글도 있지만 활자가 나와서 글을 보면 제일 희열을 느끼지요. 내용은 시, 수필이 많고 소설도 있었어요.

02) 1969년 1월 15일 『목포교육』 창간호가 목포시 교육연구소 간행으로 선보임으로써 목포문학의 작품 활동지가 되었는데 김학래의 계속적인 편집의 공이 컸고, 5월 10일에는 새로운 동인지 『목문학』이 창간되었다. 『목포교육』, 『목문학』의 발간은 박순범, 김학래, 김재희 등이 주축이 되었다(허형만, 앞의 글, 475~476쪽).

03) 1971년 12월 24일 목포시교육장 박찬대가 발행하고 김학래, 김관재, 손수남, 박성천, 김정신 등이 편집한 『어린이 목포』는 동요 동시를 '노래 글', 산문을 '줄글'이라는 순수 우리말로 이름지었다. 목포 시내 어린이들의 글 42편을 실어서 목포문학의 새싹 키우기 운동으로 번졌다(허형만, 앞의 글, 476쪽).

내가 참여한 것이 또 1년에 하나씩 만들었던 『어린이 목포』도 있는데요. 『어린이 목포』는 아이들이 글을 쓴 것을 교육청에서 발행한 거예요. 이것도 항도출판사에서 했지요. 활자를 문선한다고 하지요. 원고 보고 뽑아내요. 그걸 또 조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판해서 판을 짜는데 나중에 찰카닥 찰카닥 하고 넘어가요. 아주 옛날 기계로 굉장히 속도가 느려요. 하루에 A4지나 그런 거 여러 장 못 만 들어요. 우리가 교정본다고 모여서 점심식사도 하고 모여서 또 교정을 보면 사장이 또 술도 사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그럴 기회가 없지요. 컴퓨터로 쳐서 기가 막히게 하니까. 옛날 같은 교정이란 것이 없어요. 책을 만드는 기쁨과 보람이 있었어요.”

5. 목포예총의 자부심, 목포예술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목포지회(이하 목포예총)에서 주최하는 목포예술제는 목포예총 회원이 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였다. 목포문인협회 회원이었던 김학래는 회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참석한 목포예술제를 ‘목포예총 회원임에 자부심을 느끼게 해준 행사’였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목포예술제는 지금도 9월 30일이면 항상 합니다. 왜냐하면 10월 1일이 목포시민의 날이잖아요. 그 전날 밤에 전야제라고 하는데,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각 부별로 행사를 하거든요. 미술이면 미술, 연극이면 연극, 전날 밤에 하는 행사가 컸어요. 옛날에 차재석씨가 회장 할 때는 전야제가 굉장히 풍성했어요. 목포예식장에서 하는 큰 행사입니다. 예술인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차재석씨가 덕이 있어요. 예술인들이 행사할 때 음식도 장만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요. 마치 교회신자들이 와서 봉사를 하듯 그렇게 도와줘요. 굉장히 먹을 것도 많이 장만하고요. 목포예식장이 1층, 2층이 있습니다. 1층에는 만찬을 준비해요. 2층에서 행사를 하고 내려옵니다. 1층에서 끼리끼리 모여서 술도 먹고 노래도 부르고 하는데 그때 내 기억으로 차재석씨가 전야제 할 때는 간혹 전국의 유명 인사를 초청을 하 데요. 그때는 예총회원들에게 금지를 갖도록 해 준거예요. 가슴에 예총마크가 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 언제부턴가 없어졌어요. 빨간 걸 예총회원들에게 입장할 때 가슴에다가 달아줬어요. 전부 달아요. 옛날엔 세상이 다양하지 않으니까 이 좁은 지역에서 예술인이란 말 듣는 것도 즐거웠거든요.

간단히 개회식을 하고 반드시 짧은 연극공연을 했어요. 연극협회에서요. 음악협회에서는 독창하는 사람이 가곡 같은 거 한사람이 나와서 부르고, 문인협회에서는 시낭송을 하고. 어떻게 되었던 한 보름 동안은 목포에 예술행사가 갖춰있었어요. 미협(목포미술인협회)은 사생대회를 한다던지, 문협(목포문인협회)은 백일장을 한다던지 동화대회를 해요. 1960~1970년대에는 고등학생 토론대회라

는 것이 있었어요. 예술제 안에요. 문인협회 주간으로 있었어요. 상당히 재미있었어요. 나는 목포에서 1966년부터 참여한 거죠. 그때는 8개 부서가 있거든요. 연극협회, 문인협회, 미술협회, 음악협회……. 상을 받을 사람도 8명밖에 없거든요. 상을 받는 사람은 아주 자랑스럽죠. 지금은 상 받는 사람이 많아요. 한 30명이 받아요.”

6.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목포

목포에는 명예로운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이 5명이 있다. 소설가 박화성, 극작가 차범석, 서양화가 김환기, 한국화가 허건, 현대무용가 최청자이다. 이 가운데 박화성은 목포의 근대문학을, 차범석은 목포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다. 목포문학은 바다가 품은 감수성과 항구도시의 문화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⁰⁴⁾ 광복 이후 문단 등단이 힘들었던 시기 목포문인들은 한국문단을 파고들었으며 이에 걸맞게 목포시민들 또한 문학의 감수성을 느낄 수 있었다. 이는 1952년 차재석이 중심이 되어 시 전 문지 『시정신』이 창간이 되는가 하면 1960년 목포의 문인들을 결집시킨 『목포문학』이 창간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1960~1980년대에도 목포 지역은 예향이란 이름에 걸맞게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목포 사람들이 1960년대에는 아무개 시인 간다 하면 사람들이 돌아볼 정도였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문학 애호사상이 컸어요. 요즘은 그런 사람 없지요. 그만큼 목포에는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유명한 작가들을 서울에서 초청했어요. 목포로 오면 강의를 하고 저녁대접, 재워 주고, 선물 주고 그랬어요. 많은 초청이 행해졌고 박동철이라고 내과원장 하는 사람이나 박순범, 명기환, 최덕원, 이런 사람들이 문학하면서 지원도 못 받아도 서울사람들을 많이 모시고 오고 그랬어요. 그러면 위에서 오신 그 분들에게 그림도 주고 선물도 주고 했지요. 1968년에서 1969년 정도에는 박경리 씨도 중앙극장에 모셨는데 여고생들이 가득 찼어요. 그땐 목포에 있는 극장 중 중앙극장이 가장 크고, 외화를 많이 틀었어요. 남일극장, 평화극장, 목포극장, 호남극장이 있었지요. 밤마다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외국 영화 왔다고 하면 꼭 가서 봤지요. 그 당시에는 연예인들이 쇼 단을 만들어서 쇼하면 더 인기가 많았고 목포극장이나 평화극장이나 가보면 사람들이 꼭 찼어요. 텔레비전이 나오면서부터 달라졌지요. 그 시절 문화공간이 별로 없어서 공연, 시화전 문화행사를 하면 거의 다방에서 했지요. 제일 많이 한 것이 새마을다방, 황실다방, 밀물다방이었어요.”

04)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항구도시 목포의 추억 1번지, 오거리』, 2013.

청호문학동인회는 1974년에 결성된 문학동인회로 목포 문인들이 향토를 지키면서 목포문학의 자존심을 회복하자는 기치를 내세우며 만들어졌다. 목포의 옛 이름을 표방하며 청호동인회 사람들의 작품을 모은 동인지인 『청호문학』제1집이 1976년 2월 20일 발간되었다. 최근까지 멤버는 바뀌어도 이어지고 있는 장수 동인회로 창간 동인으로는 김학래, 김신철, 김재희, 문성원, 양문열, 박순범, 이태웅, 최일환, 최재환 등이다.

“목문학, 해안선, 보름문학⁰⁵⁾이라는 동인이 있었는데 선의의 경쟁을 하느니 이 둘을 합해서 청호문학 동인회를 만들었지요. 청호문학 초대회장은 최덕원이며 해양대학교 교수했던 사람으로 시인이었어요. 나도 청호문학 단체에 들어갔고 청호문학이 상당히 오래도록 지속되었지요. 청호는 목포의 옛 이름을 입니다.”

김학래는 1977~1983년 신안군 관내 초등학교 교감을 지내면서 섬에서 문자 미해독자 교육도 실천하고 자료집을 만들어 교육자료 전시회 등을 하며 교원생활을 한다.

“내가 한 6년 동안은 신안에서 교감으로 세 학교를 다녔어요. 각 학교별로 낙도인 우이도는 1년 있었고, 장산에서 3년 지도에서 2년 있었죠. 그 후 서울대 사범대에서 2개월 교장 자격 강습을 받았죠. 요즘은 교원대에서 받아요. 우이도에서 교감을 할 때 교감은 원래 담임이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애국가를 부르는데 전혀 음정도, 박자도 안 맞고 그 정도로 후진된 데다 문자를 모르고 한글도 모르는 아이들이 3학년에도 4학년에도 있었죠. 한글 모르는 아이들을 뽑아서 내가 문자 교육을 했어요. 자료집을 만들어 교육자료 전시회도 했어요. 내가 학년 상관없이 한 교실에 모아서 한글교육을 한 거예요. 하루에 4시간 수업을 하는데 넷째 시간에는 시험을 봤어요. 시험 문제를 쉽게 내서 90점 100점을 받도록 합니다. 집에 가서 자랑을 하고 그러죠. 그 아이들이 3~4학년 되는 동안에 무슨 백점을 맞아 봤겠어요. 우이도 학생들은 수가 적었고 6학년 까지 해서 110명 정도였어요. 우이도는 첫 교감이었죠. 목포에서 출발하면 우이도는 멀어서 흑산가는 배를 아침 9시에 타면 도초도 가서 조그마한 배로 바꿔 탔어요. 민간인 배라 5시 되어야 도착했어요. 모두가 우이도를 가려고 하지 않는데 난 1년에 5점주니까 1977년에 1월 1일자 발령이 나서 간 것이예요. 1년간 근무 전화위복으로 우이도 덕에

05) 1967년에 생활 속에서 문학을 찾고, 문학의 길을 가면서 생활하는 생활문학의 시도로 보름문학 동인이 만들어졌고, 『보름문학』이 창간된다. 6호까지 발간되었으며, 의사였던 박동철을 중심으로 이태웅, 정영수, 김관재, 임차량, 박용주, 김봉식, 명기환, 이재용, 임중철, 최덕원, 김충근, 차원재 등이 참여하였다(최재환, 『근·현대 목포문학과 오거리』, 『항구도시 목포의 추억 1번지, 오거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61쪽).

교장강습을 쉽게 갔어요.”

7. 『목포문학』 출판 당시 일화와 수필문학회 회장

목포문학회(현 목포문협)는 1958년 9월 20일에 창립되어 초대회장에 차재석, 부회장에 백두성, 간사에 전승묵, 김영복, 정규남, 정태정 등이 선출됨으로써 명실공히 조직적인 문단활동을 펼치게 된다. 1960년 3월 20일 연간 문예지 『목포문학』 창간호가 발간되었으며, 발행인은 차재석, 편집위원은 목포문학회 소속 백두성, 전승묵, 김우정, 권일송, 정규남 등이 선임되었다. 향도출판사에서 총 181쪽의 분량으로 출간된 『목포문학』 창간호는 차범석, 박화성, 천승세, 천승걸, 김재희, 김일로 등의 필진이 눈에 띄며 1960년대 활동했던 문인들을 총 망라한 것으로 보인다. 『목포문학』은 1960년대부터 목포문인협회에서 매년 1권씩 제작하는 목포문협 기관지이다. 1962년 목포문화협회는 한국예총 목포지부로, 목포문학회도 한국문협 목포지부로 개편되어 현재에 이른다. 김학래는 1988년 목포문인협회 회장 당시 『목포문학』을 만들려고 하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으로는 국판 496페이지 책자를 발간하기 어려워 남양어망 홍순기 사장에게 출판 비용을 지원 받기도 한다.

“『목포문학』을 만드는데 일화가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크게 책을 만들 수 없는 것은 출판 비용 때문이에요. 목포교육청에 근무하면서 목포문협 회장 할 때인데 남양어망 홍순기 사장을 찾아 갔더니 안 계셔서 편지를 썼지요. ‘내가 책을 만들려고 하는데 출판비가 부족합니다. 사장님 좋은 일을 좀 해주세요.’하고 썼어요. 내 말을 얼른 그 양반이 알아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영흥고등학교 이 사장인데 내 둘째 아들이 영흥고를 나왔는데 그 당시 수능고사를 봤는데 목포에서 수능 1등을 했거든요. 영흥고등학교에서는 내 아들이 자랑이지요. 제가 그 아들 아버지입니다. ‘사장님 조금 봐 주십시오’했더니 출판비를 내주었어요. 책 내면서 둘째 아들 덕을 본 것이에요. 당시는 남양어망이 전국적인 어망 회사였지요. 세상이 발달되니까 남양어망식 어망을 만드는 곳이 없지요. 새로운 방법으로 새롭게 만드니 남양어망이 중지가 되어버렸지요.”

김학래는 1986년 한국문인협회에 가입하며 목포문인협회 회장을 1987~1990년까지 지낸다. 목포문협 회장 당시 목포문협 자체에서 수여하는 신인상을 만들어 상을 수여하기도 한다.

“내가 처음으로 목포문학 신인상도 주고 했어요. 목포문인협회에서 신인상을 결정하고 상패를 만들면 본인이 신인상 행사비는 부담했지요. 1988년부터 3년간 신인상을 한 명씩 줬어요. 문단 효력

발생은 아니고 시 지부 자체에서 문학의 시작을 했다, 라는 증명의 의미로 신인상을 주었지요. 신인상은 문인협회 이사가 추천을 하고 날짜를 잡아서 시상식을 했어요. 협회에 돈이 없으니 비용은 본인이 부담을 했어요.”

김학래는 1983년부터 1990년까지 신안·영암·목포교육청 장학사를 지낸다. 1989년 그가 문인협회 회장 할 당시인 그해 9월 문인장으로 박순범 시인 장례식이 치러졌다. 박순범 시인을 그는 거물 같은 인성과 성격을 가진 인물로 기억하고 있었다. 박순범 시인은 문인협회 핵심 멤버이기도 하였으며 그의 아내가 운영하는 세종서점은 문인들의 모임 장소 역할을 하였다.

“대략 1988~1989년 내가 장학사를 하면서 문인협회 회장할 때 박순범 시인이 타계(1989년 9월) 하셨어요. 박순범 시인을 내가 문인장으로 했어요. MBC 건너편에 천주교회당이 있어요. 거기서 했어요. 나보다 연상자인데 문태중학교 교사로 있었습니다. 굉장히 하는 일이 굶고 이북에서 내려와서 영흥중학교 교사, 문태중학교 교사 그전에는 공립학교 교사, 목포여중 교사였어요. 퇴직하고 사립학교 갔는데 그 양반이 굉장히 큰 그릇 같아요. 박순범 시인은 돈을 잘 써요. 그 양반이 북한에서 온 다른 사람하곤 틀려서 문인들이 모이면 차 값도 당신이 내려고 하고 하여튼 마음이 넓은 분이예요.

목포에도 문인들의 수는 많고 핵심 멤버들이 있어요. 목포에서 모여서 저녁 식사도 하고, 술도, 차도 마시고 그런 사람 중에 박순범 시인이 중심이지요. 아산 박순범 시인의 사모님이 세종서점 했는데 상고 옆에서 했는데 그 집에 문인들이 많이 모여요. 문인들이 모이면 술집이나 다방으로 가는 거죠. 심심하니까 안 온 사람은 전화로 불러내고 했어요. 돌아가신지 10주년 되었을 때 유고집이 나왔어요. 박순범 선생님이 글을 많이 쓰진 않았어요.”



그림 1 목포문협 지부장시절 신인상 증정 장면



그림 2 11회 한국수필문학상 기념사진(아랫줄 왼쪽에서 두 번째 김학래)

김학래는 1990~1991년에 전남수필문학회 회장, 1993~1995년에 한국문인협회 전남지회장, 1994~1999년에 영호남수필문학회 회장을 역임한다. 김학래는 한국수필문학상(1993) 등 수 없이 많은 상을 탔지만 그가 탄 상 중 수필가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해준 전국 규모의 ‘2013 올해의 수필인상’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목포수필가들이 전남수필 운동을 시작했고 내가 전남수필문학회 회장 할 때 『전남수필』을 1991년에 만들었어요. 원래 광주에서 전남수필문학이 있었고 나는 목포에서 광주까지 다녔지요. 광주가 행정적으로 떨어져 나가고 광주가 광주수필이라 바꾸니까 내가 전남에서 수필 하는 사람들은 다시 전남수필을 창립하자 해서 전남수필문학회로 창립해서 만들었어요.

영호남 수필은 전남, 광주, 전북, 울산, 부산, 대구 이렇게 6개 지역 수필가들이 조직을 하자 해서 영호남수필문학회를 만들었어요. 6개 지역인데 다섯 군데는 한 번씩 행사를 다 치르고 전남이 할 차례인데 돈이 많이 들어요. 다 모여 놓으면 식사비 등이 드니 내가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나는 무안초등학교 교장이라 배짱있게 했지요. 그때 까지만 해도 영호남 수필 회원들이 책을 만들어가지고 모여서 점심식사 하고 당일 책을 나누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문인들이 이러면 안 된다 싶어서 하룻밤 자면서 문인들이 이야기도 나누고 술도 먹고 그랬지요. 내가 교장 할 때 1박 2일로 확장을 한 것이지요.

나는 평생 문학상을 10개 넘게 탔고, 그 중 제일 큰 것이 2013년에 올해의 수필인상을 탔어요. 이것은 한국수필가들이 일 년에 한 번씩 모여서 행사를 하는데 전국적인 것이지요. 수필가로서 영광스러운 것이예요. 가장 영광스럽죠. 내가 목포에서 문단활동을 하면서 후배 10명에게 책을 나누어 주었어요.”

8. 정년 이후의 삶

“목포문화원에 가면 책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 내 글이 안 들어간 책이 거의 없어요. 『목포문화사랑』, 『목포문화』에도 제 글이 실려 있어요. 한 60권이 있는데 안 실린 것이 거의 없어요. 『목포문화』는 전국문화원으로 갑니다. 한 300개 넘는 문화원으로 배포가 되요. 그래서 문화원에서 특집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죠. 목포의 인물은 다 실었으니까요. 나는 수필집 10권 발행한 후 더 이상 책을 안 만들고 지금까지도 수필은 계속 130편 넘게 쓰고 있어요.

문단에는 정년이 없다고 했거든요. 원고료 받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까지 계속 쉬지 않고 쓰는 것이 중요해요. 수필은 편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하고, 제가 교육자라 그런지 교훈적인 부분의 글이 많아요. 문인도 중앙 중심이지요. 문단도 중앙 중심, 정치도 중앙 중심, 이래선 안 됩니다. 문학도 지방화 시

대가 되어야 하지요. 교육과 문학을 위해서 평생 살았어요. 평생 중요한 것을 모아둔 것을 우리 집 목사보고(첫째 아들) 가지고 있어라 하고 이름까지 써 놓았어요.

내가 고향에서는 30년을 살았지만 목포 와서 51년을 교육과 문학을 하면서 살았는데 목포는 바다도 있고, 낭만도 있고, 멋이 있는 곳이어서 우리에게 주는 정서라든지 안정감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것을 선사해 줍니다. 목포에서 살기에 목포를 끝까지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향 진도는 나를 낳아주었고 목포는 나를 키워주었습니다.”



그림 3 1999년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은 김학래

그는 1996~1998년 3년에 걸쳐 교원대학교 부설 초등교장자격강습반에 ‘교내 갈등관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출강하여 강의를 하였다. 1999년 목포대연초등학교에서 45년 2개월간의 초등교원 활동을 마무리하며 교장으로 정년했다.

정년 이후 2004년에 산정2동 주민자치위원장을 하였으며, 현재 목포문화관 자문위원, 목포문학상⁰⁶⁾ 운영위원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정년이 없는 수필가의 생을 살아가면서 진솔하고 재미있는 내용의 수필을 끊임없이 쓰고 있다. 좋은 문학은 삶에서 우러나온다는 말을 증명하듯이 그는 그의 인생을 통틀어 ‘교육과 문학’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미영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연구보조원

06) 목포문학상은 2009년 목포 문학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발전하고 한국 문단을 이끌어갈 참신한 신인 발굴을 목적으로 제정·시상했다. 목포는 단일 도시로서는 몇 안 되는 문학상을 보유하게 됐다. 목포시가 주최하고 목포문화관이 주관하는 이 문학상은 처음엔 총 6개 분야(시, 단편소설, 희곡, 문학평론, 동화 혹은 동시, 수필)로 나누어 전국의 미등단자 및 등단 5년 이내 신인을 대상으로 공모하였는데, 2015년부터 5개 분야(문학평론 제외)로 축소하고, 본상(전국 대상)과 남도작가상(전라남도 대상)으로 상을 구분하였다.

제2절 목포의 선비 시인

최재환은 1942년(호적상) 전남 신안군 지도에서 4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6·25전쟁이 일어나자 지도중앙공립국민학교를 5학년까지 마치고 목포로 이주하여 유달국민학교, 제일중학교, 목포상업고등학교와 서라벌예술대학 문예창작과를 졸업하였다. 1966년부터 해남, 목포, 신안, 장흥, 진도 내 중·고등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하였고, 2000년 교장으로 명예퇴직을 하였다. 그는 1976년 청호중학교 재직 당시 중앙일보 『소년중앙』에 동시 「고추잡자리」가 당선되었고, 1977년 『시문학』에 천료되었다. 1981년 한정동아동문학상, 2004년 한국현대시인상, 2008년 전남도문화상을 수상하였으며,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그는 한국문인협회 목포지부장, 한국현대시인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개인 창작활동을 하면서 문학 강의를 하고 있다. 시집으로 『표구속의 얼굴』, 『종이비행기』, 『귀거래 이후』, 『세월읽기』, 『청계리행』, 『바람에게 길을 묻다』 등 12권이 있다.

1. 책읽기를 좋아하던 소년, 문학 창작활동을 시작하다

최재환은 신안군 지도에서 태어나 지도중앙공립국민학교를 다니다가 아버지를 따라 식구가 모두 목포로 이주하게 되면서 유달국민학교에 6학년으로 입학하게 된다. 그의 아버지는 4형제 중 셋째로 일제 강점기 일본 해군으로 강제 징용을 당했다. 해방 후 귀국하였지만 고향에 일자리가 없자 목포로 와서 수산업에 종사하게 된다. 이때 일본인 가족을 구입해 서산동으로 이사를 왔지만 당시 이곳은 식수를 구하기 힘들 정도로 열악한 지역이었다.

“목포에서 처음 살았던 곳이 서산동이었어요. 지금은 흰길 터졌지요. 입구에 동사무소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막 층계로 다녔잖아요. 2단 즈음 되어 있는 데가, 우리 집이었어요. 그리 높은 곳은 아니었어요. 옛날 일본 사람이 살았다는 적산가옥이었는데, 우리 한국식 문은 열고 닫고 하는데, 미닫이도 달려 있고 이런 집이었어. 지붕은 초가지붕이고. 거기서 생활하는데 그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 말로 표현을 못 해요. 지금도 그 생각이 나거든. 간단히 말하면 가난을 둘러쓰고 사는 거지. 거기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물이여. 서산동이 목포시내에서 가장 험악한 것이 물이여. 수도 하나 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먹었기 때문에 불과 수돗물 나오는 시간은 두 시간 밖에 안 나와. 물 나올 때 그 물 바게쓰를 쭈욱 대놓으면 요즘 말해서 2백 미터 쯤 줄을 서요. 앞에 대놓으면 미리서 새치기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밤새 새치기 못하게 누가 지키는 거예요. 물 담으면 당겨가면서 물을 받는데 두 통 모두 받았을 때의 그 기쁨이란 것은 말할 수가 없지요. 지게 지고,

그때는 우리가 힘이 있었으니까. 고등학생이니까 들고도 다니고 그랬는데, 50년대 후반까지도 이어졌죠. 그렇게 힘들었어, 물이. 뭐 나 장가가서도 마누라가 물지게도 지고 그랬는다.”

그는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활동하는 것보다 독서하는 것을 좋아했다. 하지만 그의 집은 책을 살 정도로 넉넉하지 못했다. 그래서 목포 시내에 있는 서점에서 책을 읽던가, 아니면 일반 책방에서 빌려 읽었다. 그는 읽는 것 자체를 좋아해서 당시 학생 잡지는 물론 여러 종류의 책들을 물불 가리지 않고 읽었다.

“국민학교, 중학교 때부터 책을 많이 봤어요. 시골에 책이라는 게 없어. 교과서도 없어가지고 몇 대에 물려서 책장 편이 다 떨어져 버리고, 그거 몇 페이지 다 떨어진 다음에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기도 했는데. 목포에 오니까 옛날의 고전소설이 많았어요. 이런 것들을 읽어보니까 참 재밌어. 그러니까 책을 닦치는 대로 막 읽어버려. 대개 한번 읽으면 머릿속에 거의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책은 부지기수로 봤제. 책 빌려주는 책방들이 있었어요. 고학생들이 요즘 말하면 천 원짜이나 받고 빌려주죠. 다음날 다른 것을 바꿔 보려니까는 하루에 봐야할 것 아니요. 그러니까 학교공부 때려 치고 보는 거여. 날 새기를 해버리제. 그 당시에 ‘부활’이라든가 ‘죄와 벌’은 두껍잖아요. 그걸 하루 밤에 다 봐야 하니까. 그것은 슬렁슬렁 넘어가는 수밖에 없지. 날마다 그랬지. 이용했던 책방들이 간판이 있는 서점들이 아니고 그때 내가 알기로는 그런 고문서, 고서적을 취급하던 일부 서점들이 있어요. 그때 서점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당 정도. 문우서점, 대양서점, 국제서점, 그런 정도밖에 없었어요. 사범학교 다니던 우리 동창들도 그걸 했더라구요. 그런 사람들도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큰 지식들을 안겨준 은인들이죠. 안 그러면 책 볼 기회가 없잖아요. (이름 없는 책방들이) 갑자옥 부근에 하나 있고, 공설시장(현 중앙시장) 농협에서 목욕고 가는 양쪽 길에 대 여섯 개가 있었고 그랬어요. 중간 중간에 목욕고 앞에도, 그때는 목욕고가 아니라 목중, 목고였지. 요즘같이 2만원이나 3만원 주고 책을 산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힘들었어요. 하늘에 별 따는 것이지. 큰 서점이라는 것은 주로 교과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들락달락 하지.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월간잡지가 나오면은 거기에 다양한 내용이 실리잖아요. 그 책을 못 사 보니까 책방에 가면은 서서 보는 것은 공짜배기지. 거기서 두어 편은 읽고 다른 데로 옮겨 가고, 미안하니까.”

그는 유달국민학교, 제일중학교를 졸업하고, 집안 형편상 인문계가 아닌 목포상업고등학교를 선택하여 진학하였다. 그는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문학 활동을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학교 동인회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목포시내 고등학교 통합 동인지를 조직해 주도해 나가는 등 학생 문학 동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 시기 함께 활동했던 친구들 중에는 시인 이태웅과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평론가 박영호 등이 있다.

“『여울』이라 하는 동인을 만들었어. 『청도(靑濤)』라는 것을 만들고, 동인회를. 『여울』은 목상문에 동인지. 1956년도, 1957년도 우리가 만들었지.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동인지가 학교마다 생겨. 거기서 종합해서 만든 것이 『청도』여. 사범학교가 『별판』 하고 『해솔』. 목고가 『보리수』 하고 『밀꽃』이여. 그리고 목여고가 『송사리』. 문태가 『바위』. 동광고(현 홍일고)가 『호박』. 영흥학교가 『감람춘』, 공업학교가 『기건』이라고 있었어, 교지 겸해서. 그런 동인들이 있었는데, 서로 이렇게 동인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각 학교가 모여서 동인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것이 말하자면 『청도』 동인이여. 그때는 10대 말에서 20대 초였지. 인쇄는 못하니까 돈이 없어서. 프린트를 하는데 우리 책은 그때 사범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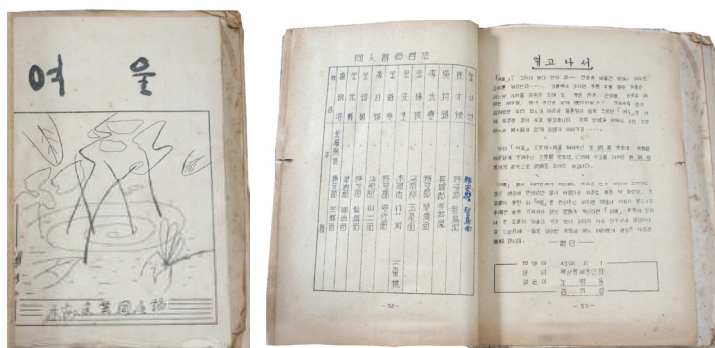


그림 1 목포상업고등학교 동인지 『여울』



그림 2 목포 지역 고등학교 통합 동인지 『청도』창간호

에 다니는 학생이, 지금 신안교육청 자리가 사범병설중학교였어. 거기 숙직실에서 숙직해주고 잠만 자고 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 그런데 그 친구가 글씨를 잘 썼어. 거기 부탁을 했지. 지 용돈도 별로 좋잖아. 그래 거기다 맡기고, 안 그러면 우리 『청도』같은 경우는 ‘신신프린트사’라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아버지가 프린트를, 글씨를 잘 썼어. 지금 말하자면 목포문화재단을 내려오면은 동본원사, 오거리 쪽 아니고 이쪽으로 내려오면 네거리에서 커브 도는데 오른쪽으로 ‘신신프린트’가 있었어. 다른 학교들은 잘 모르지.”

2. 신춘문에 당선, 시인이 되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 동인 활동을 하면서 문학 창작에 전념하게 되자 목포상업고등학교 내 진학반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서라벌예술대학 문예창작과 특기생으로 시험에 응시해 합격한다. 처음에는 대학 다닐 형편이 되지 않아 대학교 중퇴라는 학력만을 얻고자 하였으나 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를 열망하게 되어서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다.

대학 졸업하고 군대 제대 후 1966년 4월 1일자로 교사 발령이 나는데 첫 부임지는 전남 해남군 문내면 문내동국민학교였다. 그는 중등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당시 국민학교 교원이 부족하여 강습을 480시간을 받고 강사로 2년간 그곳에서 교직생활을 했다. 이후 목포제일중학교에 강사로 부임하였다가 정교사가 되었다. 이후 해남 황산중학교, 목포청호중학교, 목포유달중학교, 신안군 지도 지명중학교, 신안 임자중학교, 목포제일여자고등학교, 목포고등학교, 신안 비금종합고등학교, 장흥 안흥중학교에서 근무하고, 2000년에 진도관매중학교에서 교장으로 명예 퇴직하였다.

그는 국어과 교사로 능력이 뛰어났다. 전라남도 내 국어과 교사들을 모아 놓고 연구수업을 하었는데 일등급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목포제일여자고등학교와 목포고등학교 재직시절 학교 예술제와 교지 편찬에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며 참여하기도 하였다.

“벽지 점수 따러 임자도로 들어갔어. 2년 하니까 만기가 되었어, 지도 지명중학교까지 4년차이니까. 내가 나올 무렵이 되니까 제일여고에서 서무과장이 나를 잡으러 왔어. 낚시대 돌르고 낚시한 척 왔어. 내년 3월에 제일여고로 와야쓰겠네. 유달중학교 서무과장 때 내가 모셨거든. 써먹을 때가 많잖아요. 국어가 제일 복잡하거든. 현대, 고대 문법, 국문학사 할라면 복잡하니까. 그런게 안 할라고 그러제. 자네가 꼭 와야쓰겠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 그걸 갚아야지, 갑시다. 그럼 자네가 여기서 내신만 하소, 그래 제일여고로 온 것이 1986년이여. 제일여고 갔더니, 벌써 인문 여학교 아니에요. 국어과는 그중에서 꽃이여. 제일여고 가가지고 내가 ‘소영예술제’를 만들었지. 지금 제

일여고에 『산다화』라는 동인지가 있어요. 『산다화』를 내가 만들어놔. 그 동인지도 우리 집에 다 있지요. 그것도 목포 시내에서 하나의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연극부를 만들어 지도를 했어. ‘소영 예술제’도 내가 만들어놔다니까. 소영이 박화성 씨 호(號)여. 소영교지도 내가 만들어 놓은 거요. 그리고 연극부 전국대회에 출연해 가지고 최우수상 받아버렸고. 내가 교장하고 짬 하면서. 3학년 담임 하면서. 3학년이 하니까 담임들이 싫어하잖아. 3학년을 뽑아갖고 하는디. 근디 그놈들이 대학을 하 나도 안 떨어지고 다 들어갔어. 제일여고 다음으로 목고로 갔어요. 기왕 간 김에 전라남도 일반 학교를 가보자 해서 갔죠. 목포고등학교에 지명을 딱 해놓고 거기서 나 청호중학교에 같이 근무하던 국어 선생님이 나한테 왔어. 목고 국어선생님이 열두명인데, 다 잘하는데 교지 만드는데 미치겠다, 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거는 내가 전문 아니요. 그래 내가 목고를 와가지고 『미르』 지도를 했어요. 『삼룡』도 내가 만들고. 연극부도 내가 만들고.”

그는 대학시절부터 계속 신춘문예에 도전을 했지만 당선되지 못하다가 그 사이 1976년 1월 중앙일보 『소년중앙』에 동시 「고추잠자리」로 당선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시문학』에 문덕수 추천으로 「그림자」라는 시가 실리게 되고, 이듬해에 『시문학』에 천료되었다. 그리고 1977년에 그의 첫 시집인 『표구 속의 얼굴』이 출간되었다. 그가 1976년 신춘문예에 당선될 당시 목포에서 그를 비롯한 두 명이 한꺼번에 당선이 되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YMCA 강당에서 당선 기념식을 했다.

“목포가, 전국 문단에, 신춘문예가 어렵잖아요. 어렵고 거기에 나와야 제대로 행세를 하는, 그래서 거기에 매달린 것이 일이며. 목숨을 걸고 했는디. 한 해에, 내가 되던 해에, 76년도 한 해에 세 사람이 되어버렸어. 조승기, 문태중학교에 있던 조승기가 ‘돌을 던지는 여자’ 소설로 당선이 되었고, KBS에서 미국 특파원인가 하는 청년이, 이름은 김청원인데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당당히 당선되었습니다. 거기가 희곡으로 당선이 되어버렸는디, 그래서 경사 중에 경사지. 정식으로 세 사람이 딱 당선이 된 경우는 흔하지 않았어. 한 해에 되는 것은 되더라도 가작으로 모두 되고 그런 사람들 몇 사람씩 되고 그랬는디, 1976년도에 한꺼번에 세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때 합동 당선기념회를 하자 해가지고 조그마하게 했던가 그랬지. YMCA에서 했지. 다른 공간이 없어요.”

그는 1981년 제13회 한정동아동문학상을 수상한다. 당시 이 상을 위원회 만장일치로 수여하게 되었는데, 외부로 잘 움직이지 않는 그의 성격을 알고 있던 이 상의 위원회 위원장인 박경종 씨가 아예 상을 목포로 가지고 내려와서 시상식을 하게 되었다.

“한정동아동문학상 위원회에 위원장이 박경중 씨예요. 목포에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은 가끔 왔어요. 오는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는 전화가 힘들었지요. 전화가 오면은 바꿔줘야 전화를 받고, 그 전화 하나가지고 학교에서 돌려쓰니까요. 이번에 한정동아동문학상을 받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때 내 작품세계의 요걸 갖다가 이분이 넣던 것 같아요, 추천을 했던 것 같아요. 만장일치로 되어버리니까 그걸 받게 되었는데, 내가 움직이는 걸 싫어하는 걸 알아. 웬만하면 고집이 세어가지고 상을 준다고 해도 안 가. ‘여기서 번거로우면은 상을 어찌 내려갈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상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아 이거 참말로 큰일났네. 그때 YMCA, 지금은 평화극장 건너편에 있는데 그때는 지금 교보 건너편에 있었거든. 거기서 그 상을 받는데, 또 KBS 방송국에서 합창단을 내보내주고, 그래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그 상을 내 평생 문학상이라고는 그 상이 처음이에요. 특히 내가 아동문학을 해본 적도 없고. 시인이 되기 위해서 신춘문예에 18번을, 18년간 작품을 보냈지만 다른 길로는 내가 한 번도 보낸 적이 없거든. 그 뒤로 쓸 때마다 사람들이 좋게 보네. 그래 이것도 좋다. 그래 신문사에서는 동화를 써 달라 그러거든. 그래 동화도 쓰고, 그리고 중앙일보 『소년중앙』이란 게 있어. 거기에 동화도 쓰고. 그래 내 작품집에 보면 아동문학선집이라고 동화도 한 편 들어있고, 동시도 들어있고 그래.”

3. 목포 지역 문학 모임을 결성, 참여하다

1958년에 ‘목포문학회’가 조직되고, 1960년 『목포문학』창간호가 발간된다. 이후 1974년에 40대 문인들이 향토를 지키면서 문학하는 목포의 풍토를 회복하자는 뜻에서 동인회를 결성하였다. 이 동인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작품을 모아 1976년 2월 20일에 발간한 동인지가 『청호(靑湖)』이다. ‘청호’는 목포의 옛 이름을 표방한 것이다.

“목포 시내에 현재 ‘목포문인협회’(목포문학회) 창립멤버가 나 하나밖에 없어. 1958년도. 그러면 그때는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 학생이었기 때문에 정식 멤버가 아니었어. 나는 심부름이나 해주고 그 정도였지. 창립멤버는 차재석씨, 권일송 씨, 윤종석 씨, 백두성 씨 등이었지. 그리고 『청도』는 3, 4집인가 나오고 말았는데, 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대학을 가고 다 흩어지잖아. 군대 가고 고향으로 가고 이래가지고는 더 지속을 못 했어. 그리고 흩어졌는데, 『청호』를 만든 것은, 내가 해남 있다가 이쪽으로 나온 것이 내가 1968년에 제일중학교로 오게 되거든. 그 동안에는 내가 거의 공백이여. 왜 그러냐면 내가 군대를 가고 대학을 가고 이렇게 되니까는 자리가 공백이 되어버려. 그사이 목포 활동에서 내가 좀 빠져요. 그런데 ‘목포문학’ 창립을 1958년도에 하는데, 창간을 해놓고



그림 3 문주회 정기총회 기념(뒷줄 왼쪽에서 두 번째 최재환 시인, 2000년 10월 28일)

내가 대학을 가버렸잖아. 그래서 거기 내가 창간호에 가담을 못 해요. 그래서 목포 시내에 계신 문학 활동을 하는, 다 등단을 한 사람이 아니고, 그때는 등단한 사람이 많이 없잖아. 등단 안 했더라도 그 사람들이 모여서 동인지를 만들자 해가지고 시작한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여. 그래서 『청호』가 결성되었고 목포 문단의 주축이 되었지. 공께 다 들어간 것은 아니고 일부만 들어갔지. 주로 학교 있는 사람들이여. 김신철, 김재희, 문성원, 양문열, 박순범, 이태웅, 최일환, 김학래, 전부 다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여. 목포문단은 『청호』가 거의 이끌다시피 했고. 목포 문단에서 『청호』를 몰라보면 안 돼요.”

1980년에 시인들의 친목단체 조직인 ‘문주회(文酒會)’가 있었다. 황의돈 시인을 주령으로 술을 즐기는 시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창작의욕을 북돋우고자 만든 모임이었다. 이후 시인뿐만 아니라 목포 지역 예술 활동하는 사람들이 참여하였다.

“그 시절에 술 먹는 게 말하자면 전성기였어. 그런데 술을 먹으면은 술값을 항상 내는 사람이 내잖아. 내가 원 없이 내고 다녔지. 그런데 그때 황의돈 씨가 그러지 말고 우리가 내는 사람이 내는 날 내더라도 한번 모이면은 우리가 돌아가면서 같이 내는 게 좋지 않냐. 우리가 한번 자기 술은 자기가 차고 다니기로 모아자 그래가지고 해양대학교 뒷산에 등대 밑에서 모여서, 모일 때에는 자기가 술 한 병 하고 자기가 먹을 안주는 차고 가고. 문주회. 원래 창립 멤버는 김엄조, 최재환, 주정연, 최병두, 최건 이 정도여. 목포에서 술 먹는 사람 하면 내가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었지. 글월 문자 술 주자 문주회. 회장을 주령이라 하고 총무를 사령이라 했지.”

그는 목포 문학인들을 비롯해 예술인들이 오거리를 중심으로 한 다방과 선술집에 모여 열정적으로 서로의 작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밤을 새웠던 것을 기억했다.

“예술인들 나하고 술 안 먹은 사람들이 없지. 내가 술 먹고 어디 떨어져버린 적도 없고. 주로 오거리에서 먹었지. 선술집. 목로주점. 덕인주점도 있고, 동천주점도 있고. 같이 먹었던 사람들은 주정연이, 김엄조, 최병두. 옛날에 목포역 건너편에 황실다방이라고 있었어요. 황실을 주로 이용을 하는데, 저녁에 만나면은 선술집 가가지고 거기 앉으면은 옮기지도 않고 날 새고, 통행금지 되어가지고 못하고 집에. 목포마리아회고등학교에 교감으로 최승열씨라고 있었어요. 그분들 같이 가가지고 선배라와서 같이 어울려가지고 그런 데 가면 외지고 좋잖아요. 소리 질러도 허튼 소리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데도 좋고. 대개 외진 데를 많이 가요. 글 쓰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많이 떠들어요. 소설 쓰는 사람들은 더 떠들거든. 시 쓰는 사람들은 입을 다무는 편인데.”

최재환은 1951년 고향인 신안군 지도에서 목포로 이주하면서 지금까지 그의 활동무대는 오로지 목포였다. 그는 목포상업고등학교 재학시절 동인지 『여울』을 간행하였고, 목포 지역 고등학교 통합동인지인 『청도』를 만들어 활동하였다. 그는 대학 졸업 후 해남, 신안, 목포 등 교편생활을 하면서도 창작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국어과 능력이 뛰어나 목포제일여자고등학교, 목포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학교 예술제뿐만 아니라 학교 교지 편찬하는 데에 기여를 했다. 그는 목포 지역 고등학교 동인지 활동부터 목포문인협회 창립, 『목포문학』, 『청호』의 창간까지 참여한 인물로 목포 문단의 역사를 지켜본 산 증인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증명하듯 현재 그의 자택에는 그가 모아온 목포 문단의 방대한 자료가 소장되어 있다.

그럼에도 그는 어떠한 자리의 얽매임도 없이 본인 스스로가 한만큼만 돌아오면 그걸로 만족한다는 신념대로 창작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런 그의 대쪽 같은 신념 때문에 목포의 선비시인이라 말하는 것 일지도 모른다. 그는 목포 문단의 부흥을 기대하면서 바람이 있다면 예향의 도시인 목포가 표면적으로만 목포 문화의 증흥을 말하지 말고 내실 있게 목포 지역의 예술인들을 육성하고 아낌없이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제3절 추억의 서점 문화당을 말하다

오늘날의 세상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매체가 다채로워지고 있지만 책은 책대로 그 고유의 영역을 지켜나가고 있으며 그 영역은 어떤 다른 매체가 대신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책을 즐겨볼 수 있는 서점은 목포에도 시대를 달리하며 수많은 서점들이 개설되고 부침하였다. 그 중 1929년 오거리에 세워진 가토문성당서점(加藤文盛堂書店)은 광복 이후 서점 직원 박종석이 인수하여 문화당(文化堂)으로 이름을 바꾼 뒤 운영하였다. 전남 지역에서 최초로 전문서적을 취급한 문화당서점을 운영했던 아버지 박종석과 어머니 김복임 사이에서 박준상은 1942년 7월 7일 목포시 무안동 8번지에서 태어났으며, 3남 1녀 중 장남이다. 1969년에 아내 이순자와 결혼을 하고 슬하에 2남 1녀를 둔다. 목포 유달초등학교, 유달중학교, 목포고등학교를 졸업 후 성균관대학교 독문과를 진학하여 졸업한다. 대학 진학 중 1960년대 시대상을 반영한 시를 작성한 것을 빌미로 군 입대를 하게 되며 그 시기부터 글쓰기를 중단한다. 군 입대 3년과 대학시절을 제외하고는 목포에서 계속 거주하며 1969년부터 2000년에 문화당서점이 문을 닫을 때까지 서점 운영에 전념한다. 문화당서점의 상호는 서점의 문을 닫은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 2001년 박준상이 조직한 목포문화길잡이를 통해 목포의 잃어버린 사람 찾기와 우리문화 바로잡기 운동에 전념하고 있다. 2002년부터 다시 시를 쓰기 시작하면서 17권의 시집을 출판한다. 2002년부터 한국민족문화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회원이기도 하다. 2013년 도전한국인운동본부 대한민국예술문화인 대상(문학 부문)을 한국문인협회의 추천으로 받는다. 그는 자라나고 성장한 목포에서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목포 문화의 길라잡이를 추구하고 있다.

1. 어린 시절

박준상은 1942년 7월 7일 목포시 무안동 8번지에 자리한 문화당서점 안집에서 태어났다. 유달초등학교 2학년 당시 6·25전쟁이 일어났으며, 전쟁 당시에도 학생들이 칠판을 들고 유달산 언덕에 올라 수업을 받았다. 당시 중앙초등학교가 불이 나 유달초등학교에 와서 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한다. 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이 교실에서 수업을 하면, 유달초등학교 학생들이 유달산에 올라 수업을 했다. 당시 유달초등학교 졸업학생수가 453명으로 한반에 70명 정도의 학생들이 수업한다. 6·25전쟁 당시에는 피난을 가지 않고 목포에서 전쟁을 경험했으며, 1955년 유달초등학교를 졸업한다.



그림 1 유달중학교 졸업사진

“나는 문화당에서 태어났어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생겨난 서점이며, 내 집도 함께 있었고, 옛날 집으로 대지가 80평이 넘었어요. 나는 유달초등학교를 다녔는데 학생 수가 한 반에 70명 정도로 복도까지 나와서 수업을 했어.⁰¹⁾ 산에서 수업하는 것을 소풍간 것처럼 다들 좋아했어. 6·25전쟁 때는 피난 안 가고 집에 있었어. 내가 11살에서 12살 때인데 지금 용당리 해군 본부 있는 데에 UN군이 와서 비행기로 폭탄 터뜨릴 때 구경 가고 그랬어. 지금 여객선터미널까지 걸어 다니고 폭격 터지고 하는 곳을 구경 가고 그랬어. 미군들이 주는 과자 얻어먹고 그랬어. 미군들이 많이 던져 주었고, 오케이, 오케이 하면 미군들이 먹을 것을 막 던져줘요. 목포로 해서 인천상륙작전을 했으니까 미군들이 목포에 많이 있었지. 내가 최초로 흑인을 그때 봤어. 아버님이 전쟁이 났는데도 고향을 안간 이유는 인민군이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야. 종업원들이 주인들을 학살하고 그랬어. 그게 무서우니까 안 갔어. 고향에 가면 머슴들이 완장차고 다니면서 주인들 몰살하고 복수전을 하지. 6·25전쟁은 피난 안 가고 인민군이 5개월 정도 있었어.”

박준상은 고모부가 운영하는 대륙양복점에서 교복을 맞추어 입었으며, 1957년 현 세무서 옆에 자리했던 유달중학교를 졸업하고, 1961년에 목포고등학교를 10회로 졸업한다.

01) 1950년대 교육환경은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시작되어 취학률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학교 수가 부족해 한 학급의 학생수가 60~90명이나 되었는데, 이것을 콩나물 교실이라 불렀다(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항구도시 목포의 추억 1번지, 오거리』, 2013, 128쪽).



그림 2 유달중학교 졸업사진(서점 직원과 함께)

“유달중학교를 나온 사람으로 한화갑 씨도 거기를 나오고, 최태옥 외과 원장도 나오고 그랬지. 시험은 자기가 갈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봤지. 내가 거기를 간 이유는 목포중학교를 가면 상위권이 안 되는데 유달중학교를 가면 상위권이 될 것 같아서 거기를 지원한 거지. 그때는 우리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담임 선생님이 어딜 가라고 하면 간 거지. 떨어지면 갈 데가 없으니까. 유달중학교에서 실력이 되니 목포고등학교를 가라고 해서 목포고등학교는 갔지.”

박준상은 어린 시절 넉넉한 집안 살림 덕에 오거리 주변 상업·문화시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그는 집 앞에 자리한 쌍미사라는 사진관에서 그의 아버지가 경영하던 문화당서점의 점원들과도 함께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을 정도로 부유한 삶을 살았다.

“학교 다닐 때 사진도 많이 찍었지. 중 2때 우리 집 종업원하고도 찍었어. 아버지가 지금의 홍일고등학교가 그 당시는 동광고등학교인데, 동광고등학교 야간을 제주도 사람인 우리 집 점원을 보내줬지. 아버지가 밤에는 놀면 안 된다고 학교를 보내줬지. 우리 집 종업원들은 학교 다 나왔어. 아버지가 다 보내줬지. 봉급 외로 다 지원해 줬지. 김…… 뭐라 하는데 기억이 잘 안나. 지금 한 82살이나 아마 먹었을 거야. 교모에 고자를 붙였잖아 그러면 고등학생이야. 우리 집 종업원들과 사진을 많이 찍었어. 우리 집 앞애가 일제 때부터 있던 쌍미사라는 사진관이 있었어. 내가 어릴 때 찍은 사진은 모두 쌍미사에서 찍은 거지. 오거리가 내 집이었으니까. 바로 쌍미사가 내 집 앞 이니까. 그 사람 밑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박종길 교수라고 있어. 오거리에서 장사할 때 김상옥 사진작가가 사진협회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만 사진작가라고 나와.”

1940년대 말 박준상은 초등학생들은 입지 않는 양복을 유행양복점에서 아버지가 맞춰 줘서 입고 다닐 정도로 부유하였으며, 당시 목포에선 보기 힘든 승용차 1대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일제 때 한국에서 제일 큰 중화요리 상해식당이 있었어. 거기서 보릿고개 넘을 때 상해식당에서 짜장면도 먹고 탕수육도 먹었다는 나의 「오거리」 시에 적어져 있어. 그때 초등학생은 교복이 없는데

부잣집 아들이라고 특별히 옷을 맞춰주던 집이 유행양복점이며. 멋쟁이들이 유행양복점에서 양복을 맞춰서 입었어. 나도 아버지가 맞춰줬지. 그 당시에 아버지가 부자였을 때는 목포에는 자가용이 3대가 있었어. 우리 아버지, 김상길 씨라고 보해양조 양조장이 있었어, 그 다음에 남진이 아버지 이렇게 승용차가 40년대 해방될 때부터 있었어. 우리 집에도 해방될 때부터 차가 있었던 거야. 6·25전쟁 때 지휘관들에게 군직용으로 승용차를 헌납을 했지.”

목포에 생겨난 전문적인 영화극장은 1926년에 생긴 목포극장과 1927년에 생긴 평화관(평화극장)이었고 2군데 다 오거리와 가까운 곳에 개관하였다. 극장에서는 한국영화와 외국영화뿐만이 아닌 연극, 국극, 국악공연, 변사극 공연도 하였으며, 남진이나 이미자, 유명 영화배우들도 극장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그는 오거리 본인의 집과 가까웠던 목포극장과 평화극장을 자주 이용하였다고 한다.

“내가 중학교 2학년 그 당시에 임방울이라는 사람이 명창인데 그 사람이 「쑥대머리」를 평화극장에 불렀어. 목포극장에서 그때는 영화도 틀고 국악도 하고 이미자, 하춘화가 와서 노래도 하고 연희장 역할을 했어 두 극장 다. 영화도 봤지. 그때 남진이가 한참 나올 때 문희하고 목포에 오면 「미워도 다시 한 번」 3편을 했어. 임춘앵 여성국극단의 「마의태자」나 「화랑 관창」도 듣고 다 기억을 하지. 어른들 손잡고 가면 돈 내고 보고 우리는 공짜였지.”

그는 중학교시절 남녀 교우관계에서 만남의 장소로 단팔죽 집을 많이 이용했으며, 고등학교 시절에는 아이스크림을 즐겨 먹었다고 한다. 아버지로부터 용돈을 넉넉히 받아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풍족하게 쓰고 즐길 수 있었다고 한다.

“중학교 때 우리가 연애를 할 때는 한국은행자리에 거가 옛날에 단팔죽집이 있어. 거기에 그것을 보고 만든 것이 할머니가 보고 쑥꿀레 집을 만든 거야.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는 쑥꿀레가 없었고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정명여고 앞에서 쑥꿀레 집이 생겼어. 이쪽애가 단팔죽집이 한 다섯 개가 나란히 있었어. 초등학교 때는 남녀혼합이니까 중학교까지 친구관계가 이어지고 그러지. 단팔죽 집 말고는 다른 데는 갈 데가 없었지. 고등학교 때는 아이스끼끼를 얼음을 얼려서 먹었던 것을 많이 먹었지. 길거리 가면서 깡통 메고 다니는 아이들에게서 사서 먹었어. 그걸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 불우청소년들이 많이 팔았어. 그때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아주 가난한 시절이야 나처럼 돈 잘 쓰는 사람이 별로 없었지. 아버지가 용돈을 꼭 줬어. 아버지가 못 꿇던 꿈을 아들에게 다 한 거야.”

그는 자신의 집인 문화당에서 접한 전문서적이나 교과서뿐만이 아닌 목포에 있는 헌책방을 자주 이용하며 다양한 글을 접하였다고 한다. 목포여자고등학교 옆에 자리한 태백서점은 한국학자들이 읽고자 하는 고서를 취급했다. 문화당에서 취급하지 않던 국내서적이나 일어책, 사무라이 만화책을 접할 수 있는 그곳을 통해 문학 소년의 꿈을 키우며 자란다.

“태백서점이 우리 한국학자들의 창구역할을 했지. 거기에서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책을 그 집에서 볼 수 있었던 거야. 지금 말하면 학자들이 우리 집에 와서는 옛날 책을 못 구하니까. 그것이 1955년까지 있었을 거야. 헌책방으론 전국적이었어. 국내서적이나 일어 서적이 많았지. 그때 가서 많이 봤지. 많이 가서 봐도 되었고, 그때 가서 본 것이 일본 사무라이 만화책을 많이 보러 갔지.”

2. 대학시절과 비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박준상은 아버지가 서점을 운영했던 덕에 철학책과 거성들이 지은 시나 우리나라 원로들의 시를 많이 접하였고 그때부터 문학에 대한 생각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접한 책들이 학교에서 공부한 것보다 자신의 일생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대학 또한 괴테나 니체 등의 시를 접하면서 문학을 하는 독문과를 들어가려고 생각하여 1961년에 목포고등학교를 졸업 후 성균관대학교 독문과에 들어간다. 대학생활 중 그 시대를 반영한 시를 썼다는 이유로 1963년도에 군 입대를 하여 1966년에 제대를 하고 1967년에 대학교 졸업을 한 뒤 더 이상 글을 쓰지 않게 된다.

“박정희 정권 때 내가 대학교 1학년생이었어. 61년도이니까 내가 신춘문예에 글을 잘못 하나 써가지고 대학생활을 놔 버렸어. 군대는 신춘문예 시 때문에 1963년도에 갔어요. 그때 신춘문예 때에 냈던 작품 제목 이름이 「계급과 권력의 투쟁」이라는 시를 썼어. 박정희 대통령 때 그런 거지. 그러니까 1962년에 대학교 2학년 때 썼어. 그래가지고 너 감방에 갈래 뭇을 할래 해가지고 붙잡혀 안기부 가가지고 글을 안 쓴다는 조건으로 나를 풀어줬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설득한 거야. 그래가지고 1966년에 제대하고 바로 그 다음해에 졸업을 1967년에 했지. 졸업 후 바로 내려와서 아버지 밑에서 함께 문화당서점을 운영하기 시작해서 2000년까지 한 거지. 그러면서 1963년부터 글을 안 쓰기로 한 거지. 1963년에 글을 쓰지 말라고 스승도 말해 준 거야.”

3. 전남 지역 최초의 현대식 서점 문화당

문화당은 출판사에서 펴냈거나 각 대학출판부에서 나온 옹골찬 내용으로 학문적인 무게는 있으면서도 일반 대중성이 없어 별로 팔리지도 않고 따라서 채산성도 떨어지는 학술서, 특히 국학에 관한 서적들은 거의 공급하였다. 문화당이 아니었다면 목포에서는 수요가 몇 권에 불과한 책들은 좀체 얻어 보기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그 점에서 문화당은 독자들의 구미에만 이끌려 영업하는 서점은 아니었다. 전남지역 최초의 현대식 서점으로 전문서적을 위주로 출판, 판매하던 서점으로서의 긍지를 가졌으며 문화의 보급과 창달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진 서점이었다.

“우리 집의 특징이 학술서적만 팔았어. 전문서적만. 그건 유일하게 전남권 전체를 공급을 했어. 제주도까지 말이야. 또 목포대학교 교과서를 우리 집에서 전부 공급을 했어요. 그라고 대학교수들을 찾아다니면서 원고 모집해가지고 출판사에 주고 했지. 배종무 교수하고 이해준 교수하고도 다 우리 집에 맡겼어. 지중옥 씨 국어교과서라든지……. 우리 집에서 구할 수 있었던 전문서적은 다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던 책들인데 제일 처음은 국문학, 두 번째가 경제학, 세 번째가 정치학. 그라고 지방에서 유일하게 우리 집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의대 교과서를 다 취급했어. 그것을 영인본을 가지고 있었지. 우리나라에는 번역본이 없으니까 요즘 말하면 복사물이며. 그것을 전부 했는데 목포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어.”

문화당에서는 전문서적뿐만이 아닌 교과서를 출판, 판매하기도 하였다.

“내가 초등학교 때 교과서 가지고 수업을 했고 다 사서 썼지. 우리 집에서 공급을 했지. 교과서 판권을 공급권을 우리 집이 목포, 무안, 신안 전체를 가지고 있었지.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가 우리 아버지가 주주였어. 책들을 친구들은 다 사서 썼고 그때는 화폐개혁하기 전이라 다 원이며. 그때 책 자체가 나한테 있어. 왜 교과서를 만들었냐면 UN본부 유네스코에서 지원을 해서 만들었어. 일제 때 한국말로 된 책이 있어. 우리 집에 소장되어있는 책들이 많이 있어. 일제 때 쓰던 노트도 있어. 내가 실제 쓰던 교과서와 노트여. 우리 집에서 목포 사람들은 교과서만 한 줄 알아. 학생들은 교과서만 한 줄 알아.”

4. 아버지 박종석이 한 일

박준상의 아버지 박종석은 문화당 서점을 하면서 향도출판사를 직영, 주주활동을 하였다. 향도출

판사를 이끌어 간 사람은 차재석과 조희관으로 그 당시 목포뿐만이 아닌 한국문단에서도 길이 남을 『시정신』이 출판된다. 이후 조희관이 타계하자 향도출판사는 출판사의 기능보다 인쇄소 기능을 부각시켜 운영된다.

“향도출판사를 함께 이끈 사람이 누구냐 하면 차범석 씨 동생 차재석 씨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조희관 씨가 사장을 하고, 조희관 씨가 고등학교 교장을 했어. 향도출판사에서 나온 책 중에 제일 한국 문학사에 길이 남는 것이 최초로 시문학 잡지인 『시정신』이라는 것을 만들었어. 그게 3권까지 나오고 말았는데. 거기에 집필진이 서정주, 이동주, 박흡 이라고 한국 문학사에 한 획을 장식하는 사람들이야. 향도출판사는 지금 목포여자중학교 앞에 위치했었고, 조희관 씨가 돌아가신 뒤에는 출판사라기 보단 인쇄소만 했어. 향도출판사라고는 조희관 씨로 끝난 거여. 그 다음은 인쇄소이고. 향도출판사에 조판기가 있었어. 다 1950년대 이야기야. 아버지가 향도출판사 주주로 그 당시엔 목포에서 부자였어.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학생 수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교과서를 하고 나면 돈을 굶을 정도로 했지. 나의 생애 중에서 1960년대까지는 목포에선 제일 아름다운 생활을 했지.”

1949년 박준상의 아버지 박종석은 목포서적 주식회사를 만들어 교과서 및 도서 총판을 했다. 유네스코에서 초등학교 교과서를 원조하여 일부 학생들에게는 무상으로 주고, 일부 학생은 돈을 받고 팔았다고 한다.

“나의 아버지가 서점을 운영 할 때만 하더라도 광주에서나 제주까지 책을 목탄기차로 실어서 그 사람들이 가져가고, 여기서 발송을 안 해줬어. 발송 자체가 안 되니까. 우리 집이 크니까 서점을 놔두고 회사를 또 만들지. 목포서적 주식회사 그것이 제주도, 광주, 전주까지 총 공급을 했어. 우리나라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우리 아버지여. 국정교과서를 우리 회사에서 찍었고, 나 중에는 초등학교까지 그 회사가 가져오지. 얼마 전에 주주 이익금 찾아가라고 연락이 왔더라고, 일년에 한 번씩 주주 배당금을 주거든. 아버지 때로부터 내가 지금은 받지. 얼마 되지는 않아. 목포서적 주식회사도 1957년 즈음까지 유지가 된 거야. 그 당시에 문화당이 창평동으로 옮기고 했지. 내 시에도 그것에 관련된 것이 나와.”

그는 아버지 박종석이 전남대 상대 초대학장을 지낸 정중섭과 함께 6·25전쟁 당시 UN본부 한국 지부 목포지국을 1951년에 창립하여 한국의 자유, 독립, 해방을 외치는 행사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안타깝게도 그것을 증명할 만한 사진을 차재석이 빌려갔다가 얼마 뒤 타계

하면서 전달받지 못했다고 한다.

“목포에 유일하게 있는 것이 전남대 상대가 4년 있다가 광주로 갔어. 목포에가 전남대 상대 초대 학장이 정중섭 씨라고 있어. 그때는 UN본부 한국지부 목포지국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 회장을 정중섭 씨가 하고, 아버지가 총무를 하셨지. 그때 기억에 남는 사람이 여성으론 박화성 씨 하고 유호근 선생이라고 한 20명 정도 되요. 그분들이 창립할 때가 다들 40이 넘는 나이였어. 1951년이니까 내가 11살이고. 그분들이 목포의 원로들이야. 그 당시 목포가 크니까 UN본부 한국지국에서 목포의 원로들을 지명을 해서 만든 것이야. 목포 스스로 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위에서 하달 되어서 그래서 만든 거야. 그때 다 만든 것이 아니라 전국의 10대 도시들만 만든 거야. 목포는 일제 때부터 유명한 곳이니까 서울, 인천, 그 다음에 부산, 목포 등에서 만들어졌어. 우리가 6·25전쟁 중이니까 북진 통일을, 우리의 자주 독립을 외치면서 행사를 주관하고 한국의 힘으로 해방이 안 되니까 세계 우방국가에게 우리의 힘을 보여주는 행사를 한 거야. 목포역 광장에서 집회 같은 것을 할 때 선두 지휘를 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는 촛불시위 같은 것이지.”

5. 아버지를 이어 문화당을 이끈다

그의 아버지가 이끌던 목포서적주식회사 사업이 몰락한 후 아버지가 경영에서 손을 놓자 박준상은 그의 나이 28살이 되던 해인 1967년부터 문화당을 도맡아 이끌기 시작한다. 그는 문화당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던 시기인 1969년에 결혼을 하고 슬하에 2남 1녀를 둔다. 문화당은 1964년 오거리 옛 자리에서 창평동 우체국 맞은편 자리로 옮긴 뒤 2호광장에서 하당 등으로 옮겨 다녔다가 현재 자리인 목포시 하당로 60번길 4에 자리하여 2000년에 86년의 역사를 가진 추억의 서점으로 남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문화당이라는 서점의 상호는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다.

“아버지가 사업을 안 하시고 세상이 싫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시니까 내가 유학을 포기하고 꿈을 접었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부잣집 아들로 컸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1958년에 오거리 우리 집에서 쫓겨났어.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에 와보니까 우리 집 살림이 길에 나와 있어. 그래 가지고 할머니는 기절해가지고 계시고 했지. 목포서적 주식회사를 하다가 중간에 사기를 당해서 우리가 망하지. 그래 가지고 그냥 우리 상호만 가지고 이사를 한 여섯 번이나 다녔어. 그때 아버지가 정신을 한 10년 동안 힘들어 하셨다가 다시 재건을 해가지고 또 다시 사람 잘못 만나 가지고……. 인간사라는 것이. 서점 문을 닫지는 않았지. 집을 잃어버리고 전전긍긍 했지.

아버지가 서점에 대한 매력을 잃어버리시고 모든 것을 내가 했어. 1964년에 오거리에서 창평동 우체국 맞은편으로 옮긴 것은 아버님이 보증을 서가지고 옮긴 것이고, 내가 운영할 때 사서 2호광장으로 엄치과 자리로 다시 옮긴 것이지. 이곳을 거쳐 1990년경 하당으로 옮기면서 내가 장남이기 때문에 상호만 남긴 거야. 지금도 상호는 등록되어 있어. 하당으로 오면서는 책은 팔았으나 전국 도매만 했지. 하당에서는 노동부 앞에서 운영을 했고 매장은 거기에 있고 지금 이 자리 하당로 60번길 4 사무실에서 도매만 했지. 매장은 노동부 자리에 있었고, 이 자리에서 도매만 한 거야. 도매하기 전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지었고, 사무실은 폐쇄하고 2000년 이후에는 내 문학 활동을 하지. 상호는 내가 이 세상을 뜰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지.”

1955년부터는 대한통운이 생겨나서 대량의 책들이 개인한테는 운송이 되진 않았으나 지정 상호를 가진 곳은 배달이 되어 전국단위로도 배송을 할 수 있게 된다. 그 당시에는 문화당에 전화기 다섯 대를 배치하여 전국에서 들어오는 주문을 받기도 한다.

“책을 운송하는 것은 내가 운영할 때는 소화물이란 것이 대한통운에서 운영하는 것이 생겨. 소화물은 적은 화물이라는 것인데 화물을 인자 운송을 하면서 배달이 된 것이 1955년 정도부터는 목적지까지 배달이 되지. 소매상이 방문도 하고 그때는 백색전화라고 해서 전화를 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려야 해. 전화기 자체가 몇 백만 원씩 해요. 전화선이 없어요. 전화기를 배당을 받으면 매매를 할 때는 10배, 20배를 받고 팔았어. 전기도 특선이 있어서 꺼지지 않는 선 이라고 해서 돈을 더 주고 그랬지. 1960년대 초까지 그랬어요. 문화당에는 전화기가 다섯 대가 있었지. 전국을 다 받아야 하니까. 이 전화로 오고 저 전화로 오고 그러니까 담당 점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점원이고 서로 했지. 우리 집은 책을 광주에 가져가질 않았어. 서점에서 우리 집에 와서 도매로 가져 갔제. 전부 우리 집에서 거꾸로 갔어.”

박준상은 본격적으로 문화당 운영권을 맡게 된 20대 중반부터 30대에는 흥과 여유를 즐겨 다방을 자주 이용한다. 당시의 다방 위치와 다방문화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또한 문인활동을 하면서 교직에 몸담고 있는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 함께 즐겼던 선술집들에 대해서도 기억하고 있었다.

“문화당 있으면서 문인들인 친구가 많았지. 내가 20대 중반 때 나하고 친했던 사람들은 다 나보다 나이가 많았어. 나를 그때 부른 이유는 돈이 많다 보니까 문인들이 거의가 학교 선생이어서 돈이 별로 없고 내가 잘 사니까 그랬지. 목포에서 문인들이 제일 많이 다니던 밀양이라는 선술집이 있는데 11시 반

에 통금 사이렌이 울리면 거기 가서 술 마시고 했지. 그때 어울린 사람이 김이수, 권일송 이라고 있어. 내가 좋아서 부른 게 아니라 술 먹고 싶으면 나를 부른 거여. 그 사람들이 교과서를 나한테 꼭 부탁을 했지. 잘 가던 주점은 국제서점 밑에 동촌주점, 그 다음에 오거리는 지금도 있는 덕인주점, 영흥고 밑에 현 유달 아파트자리에 있는데 칠성주점이 있었고, 밀양주점은 없어진 호남극장 옆에 있었지.

서점을 운영하면서 즐겨가던 곳이 다방인데, 목포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목포역을 끼고 다방이 한 30여 개가 있어요. 역전애가 별 다방, 지금도 별 레코드사가 있잖아. 광주은행 있는데 나란히 세 군데가 별다방, 여정다방, 유달다방이 있었어. 그다음에 황실다방. 좀 가서 국민은행 앞에 흑다방. 그 옆애가 바다다방, 거기서 돌면 미로다방, 4·19다방이라고 있어. 그 앞애가 목포에 최초로 생긴 미네르바라는 다방이 있어. 쪽 올라가서 오거리 쪽애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쁜 여배우가 다방아가씨를 했어 거기가 새마을다방이야. 그 여배우가 너무 예쁘니까 해군 장교가 와서 권총을 쏘던 이야기가 있어. 새마을다방 옆애가 묵다방이 있고, 그 밑애가 서울다방, 그 밑애가 용다방이 있었지. 목포가 문화 도시다 보니 그런 곳이 많았지. 나는 그 시절 아침 한 10군데 다방을 돌아다니면서 돈 내는 재미로 즐겨 다닌 거여. 내가 20대일 때 재미있어서 다방도 다닌 거지.”

6. 전집류의 등장과 월부판매

1960년대 출판시장에서는 전집물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전집물은 일반 독자들의 독서용이나 장서용으로 많이 활용되어 큰 시장을 형성하면서 출판산업의 활로를 개척하는 데 기여했다. 이후 베스트셀러가 등장하면서 출판업계의 상황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판매방법에서 폐단과 물의도 있었다. 독서 인구는 증가하였지만 월부판매가 증가하면서 서점의 판로를 저해시키고 서점의 사기를 저하시키기도 하였다. 서점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도 월부판매를 시작한 계기가 된 것이다. 박준상도 이에 부응하듯 1967년부터 월부판매를 시작하여 처음에는 활로상의 문제도 없고 잘 진행되는 듯싶었으나 월부금을 받는 과정 속에서 수입금 가로채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월부판매를 1980년대 초에 접는다.

“내가 결혼하고는 아버지하고 4대가 모여 문화당에서 살았어. 우리 마누라가 열다섯 식구 아침, 점심, 저녁상을 차리는데 종업원들이 우리 집 한 집에서 같이 생활을 했어. 숙식을 다 우리 집에서 생활을 했어.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 종업원들이 10명 가까이 되었지. 그 당시가 우리나라 출판 전성기가 1960년 초쯤에 오기 시작해요. 그때 월부판매를 하기 시작했지. 그 당시에 전집류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지. 1964년에 우리나라 최고의 베스트셀러 책이 이어령 선생님의 ‘흙 속에 저 바람 속에’가 되고, 그 다음에 1965년까지 베스트셀러가 김일엽 여사가 쓴 ‘청춘을 불사르고’이지. 그

때 전집류 때문에 서점에 종업원들이 판매를 해 가지고 돈을 지금은 지로가 있지만 그 당시는 지로가 없었으니가 판매한 사람이 수급한 돈을 써버리고 했지. 우리만 까먹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서점을 했던 사람들이나 전집류를 월부 판매한 사람들은 다 망하고 그랬지. 내가 1967년부터 월부판매를 하는데 전부 배달은 직원들이 다 했고 직원이 아주 많을 때는 20명 가까이 되었지. 그때 우리나라가 출판 문화가 꽃을 피울 때여. 그때 이광수 전집 등이 나오고 마음의 샘터가 삼중당에서 나왔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백만 부가 팔린 것이여. 김소월 시집이 월부판매로 여덟 군데에서 나와 가지고 팔렸어. 그때는 사람들의 봉급이 적으니까 책값이 10만 원, 20만 원 주고 못 사니까 열 달 나눠서 내고 그랬지. 그것을 종업원들이 다 찾아서 써서 도망가 버리고, 우리 집이 흥망성세를……. 월부판매는 나는 1980년 초까지는 했지. 그때는 아버지가 직원들을 쓴 것이 아니라 내가 동창들을 많이 썼어. 동창들이 직장을 못 구하니까 썼는데 그놈들이 해 먹고 도망 가버리고……. 그때 내가 종업원을 채용할 때 보증인을 세워 본적도 없었어. 옛날사람들 중에도 상대를 나온 사람들은 보증을 세우고 하면서 보증한 사람이 다 물어야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나는 연고를 가지고 채용을 하다보니까 사업에 실패 한 거지.”

7. 청년시절 목포청년회의소(JCI) 활동

박준상은 문화당서점을 운영하면서 젊은 상공인들의 모임인 목포청년회의소 일명 JCI 활동을 27~35세 동안 한다. 목포청년회의소는 1967년에 만들어졌으며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지역민과 함께 조직의 발전과 지역 사회 개발에 동참하고 대외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목포청년회소에서 그는 사회봉사활동을 주로 하였으며 상인 부회장, 내무 부회장, 외무 부회장을 역임한다.

“문화당 맡으면서 내가 목포청년회의소 부회장을 했지. 보통 젊은 상공인들이 모여서 청년회의소 들어가는 거야. 25세에서 40대 까지가 청년회의소 가입 나이여. 결혼하기 전일부터 청년회의소 사회봉사를 나가는 거지. 사회봉사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거니까. 정관에 맞추어서 활동을 하는 거지. 난 뭐든지 회장은 안했어. 회장을 계속하라고 해도 안했어. 부회장을 세 번을 했는데 세 분류가 있어. 상인 부회장, 내무 부회장, 외무 부회장이. 난 각각 다 거쳤지. 40대가 되면 자동 탈퇴가 되고 모임에서 빠져. 특우회라고 나이가 많으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 명예롭지 못한 일을 하면 제명을 시킬 수도 있고, 본인이 탈퇴할 수도 있고 그래. JCI 활동하면서 5·18 당시에 내가 청년회 부회장을 했지. 난폭하게 데모한 사람들 총도 쏘고, 올바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악질들이 나와서 남의 상가 물품도 쏘고 그런 때라 꼭 순수한 것만은 아니야. 그것에 휩쓸려가지고 건달들이 생업으로 돈 벌



그림 3 JCI청년회 활동(왼쪽에서 세 번째 박준상)

어 먹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랬지. 내가 데모진압을 하면서 폭도로는 남지 말아라 그랬어. 서점이 창평동에 있을 때 내가 청년회 부회장을 할 때이고, 사업이 성공한 시기로 27세에서 35세까지 활동을 했어. 근데 내가 중간에 나와 버렸어. 정치바람이 부니까 회원 중에 국회의원 된 사람도 있고 시의원 된 사람도 있어. 그런 것이 싫고 해서 빠졌어. 청년회의소 활동할 때 문화사업도 많이 했지. 동백도 심고 했어. 오늘날 와서 실패한 것이 전통 동백이 아닌 접동백을 심은 거야. 식물학자들에게 자문도 받고 했어야 하는데 우리 마음대로 심다보니까 그렇게 못했어.”

8. 시인(詩人)으로 살아가기

박준상은 2000년 서점을 정리하고 2002년부터 공식적인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피천득 교수가 지어준 목심(木諷)이란 호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오거리」라는 시로 2002년에 등단하여 현재까지 17권의 시집을 낸다. 2002년 등단하는 시점에 전남문인협회, 전남시인협회, 목포문인협회를 들어가게 된다.

“내가 회갑 즈음이 되니까 서점은 치웠어. 책이 원체 무거워요. 그래도 이름은 명맥을 잇고 있어요. 지금도 문화당서점이라고 하면 전화가 되요. 지금은 문화당이 없지. 근데 내가 죽을 때까지 문화당이란 상호를 못 쓰게 하려고 등록은 되어 있어. 폐업신고는 안 되어 있고. 책장사를 안 한지는 17년이 되었어요. 2000년대 서점을 치우면서 동창들이 모여가지고 내가 뭘 하면 좋겠냐 하니 처음엔 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동창들이 돈 십 원을 못 벌어도 잠자다가도 일어나서 볼펜 글 쓸 수 있는 시를 써라 해서 쓰게 되었지. 목포에서는 문학활동을 안하고 서울 중앙에서만 활동을 했지. 허형만 교수 하고나 교류하지. 피천득 선생님은 나의 사사신거고. 아버지가 큰 서점을 하니까 교류가 있다 보니까 알게 된 거구. 내가 그분의 영향을 받은 거지. 내가 그분의 영향으로 가장 짧은 시를 쓴 거야. 내 호가 목심인데 내 호를 지어준 사람이 피천득 교수였어. 피천득 교수님이 너는 참 목포 사람이다 해서 대학교 생활 4년, 군대생활 3년을 제외하고는 목포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참 목포 사람이다 해서 호를 아주 예쁘게 지어주셨어요. 나는 「오거리」라는 시로 2002년에 등단을 했어. 오거리라는 시가 세계 최초로 쓴 시여. 오거리 하면 목포의 오거리를 생각해. 목포에 시인들이 그 오거리 시절에 많



그림 4 1985년 서재에서 아내와 함께

았기 때문에 오거리 하면 목포의 오거리를 떠올리지. 부산으로 보면 광복동을 건너 마찬가지로야.”

박준상은 2001~2005년에 목포문화길라잡이라는 자생단체를 만들어 운영하였으며, 2002년부터 현재까지 한국민족문학회 부회장을 하고 있다. 그는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회원 활동도 하고 있으며, 2009년에 강강술래가 유네스코에 등록

될 때에 시를 선사하기도 하고, 지역의 인사들에게 시를 선물해주면서 창작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목포를 바르게 알자 해서 목포문화길라잡이라는 자생단체를 만들어서 회장을 했지. 내가 자비 들어서 그때 한 달에 한번 씩 목포대학 총장을 한 김웅배 씨가 강의를 해 주고, 목포 연극인 김성옥 씨가 강의를 하고, 목포의 지명유래를 쓴 오홍일 선생이 강의하고, 국악이란 무엇인가 이런 강의를 열면서 운영을 했지. 계속하다가 총무가 돈 먹고 도망가 버렸어.

한국민족문학회 부회장은 회원들이 추천을 해서 된 거고, 내가 2002년 글을 쓰면서 들어갔지. 지금까지 부회장이라고 해. 다 전국 모임이여. 서울에가 친구들이 많아.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회원은 세계적인 작가를 말하는 거지. 한국에 전국적으로 3000명이 있는데 국제펜클럽 본부는 영국에가 있고 국제 회비를 내야 해. 나도 내지. 2009년에 유네스코에 강강술래 등록될 때 그 시를 쓴 게 바로 나야. 우리나라에서 강강술래를 그때 쓴 사람은 나 하나 뿐이여.”

그는 한국민족문학회 추천을 받아 2013년 도전한국인운동본부 대한민국예술문화인 대상(문학 부문)을 수상한다. 그 외에도 한국민족문학상과 성옥예술문화상을 수상한다.

“대한민국예술문화인 대상을 내가 2013년에 받았지. 그때 반기문 선생도 같이 받았어. 사진 속에 나는 제일 끝에 있어. 제일 끝에 옆에 있는 여성이 한국예총 회장이고, 가운데 최불암, 최수종, 이상용 씨가 있잖아. 한국민족문학상은 남북한 문학인들이 준 상인데 상을 탄지 한 10년 되었어. 한국민족문학회 모임에서 준 거야. 성옥예술문화상은 이훈동 씨가 한 3년 전에 주었어. 예술단체에서 추천해서 준 거야. 나는 목포에서 목포 사람으로 인생을 마치고 싶어. 끝까지 목포에서 살면서 목포 문화

에 길라잡이 역할을 할 거야”

박준상은 목포문화길라잡이 단체 활동을 통해 목포 사람이라도 잘 모르는 옛 이야기나 우리말 찾기, 목포에서 찾고 있지 인물들을 찾아내고 문화를 바로잡는 운동을 하고자 한다. 그는 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문화는 변화한다는 뜻을 품고 있는 ‘문화당’이라는 상호를 죽는 날까지 가지고 목포에 거주하면서 시인으로서, 목포 사람으로서 인생을 마치고 싶다고 이야기 한다.

정미영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연구보조원



그림 5 2013대한민국예술문화인대상 시상식 (사진 두 번째 줄 오른쪽 박준상)

4권_터전 목포



제3편

목포의 눈물





권 호 | 목포장학재단 이사



제1장 오거리 이야기⁰¹⁾

1950년대부터 목포 사람들은 무안동 중앙거리를 오거리라 불렀다. 오거리는 목포 문화예술의 산실이자 지역문화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 곳이었다. 목포 시내 문화군에 속한 하나의 구역이며 목포다운 모습이 가장 잘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다.

1897년 평화로웠던 목포항에 무안감리서가 설치되고 한 달 후 10월 1일에 개항되었다. 목포는 개항 전후만 해도 남교동 중앙 공설시장 근처까지 바닷물이 밀려 들어왔고 간척을 한 다음에도 수문을 만들어서 개폐하는 수문이 있었기에 ‘수문통 거리’라 불렸다. 이후 약 10년간 온금동 다순구미에서 만호진, 송도(동명동), 역전파출소에 이르는 해안가가 매립되어 시가지가 만들어졌다. 도시가 형성된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3대 항, 6대 도시에 들어갈 정도의 도시 규모를 갖추었다.

오거리는 이 때 조성된 무안통의 중앙거리이며 동, 서, 남, 북으로 이어지는 다섯 개의 길이 생겼다. 새로 매립된 땅에는 일본과 서구식 건물들이 들어섰다. 20세기 초의 도시계획은 오늘날 목포 오거리와 원도심의 토대가 되었다.

목포역과 국도 1호선, 목포항, 죽동과 차 없는 거리로 일컬어지는 상점타운이 직선거리에 있고 1960~1970년대에는 오거리 다방을 중심으로 갤러리와 주점들은 물론 문인, 예술가, 음악인, 사진 작가들이 활동하는 주 무대였다. 오거리는 사람과 문화와 정서의 신, 구가 교차하는 무대였던 것이다.

당시 전국에서도 빠지지 않는 탄탄한 문화적 자산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다. 오거리에 문화의 거리가 형성되어 서울의 작가들이 내려와 다방에서 전시회를 열기도 하였다. 문학인들은 시와 소설을 짓고 극장에서는 수준 높은 춤과 음악공연들이 큰 성황을 이루었다. 그림에 남농 허건, 문학에 김우

01) 본 장은 주로 『항구도시 목포의 추억 1번지, 오거리』(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3)의 내용을 새로운 목차에 맞춰 재구성하였음을 밝혀 둔다. 그 외 왕윤석·김숙현 부부(중화루 식당), 양기석(코름방제과점), 박종삼(목포약기점), 위영국(중국한의원), 조한범(미영스튜디오), 문제호(1960년대 오거리 다방 관련)등을 면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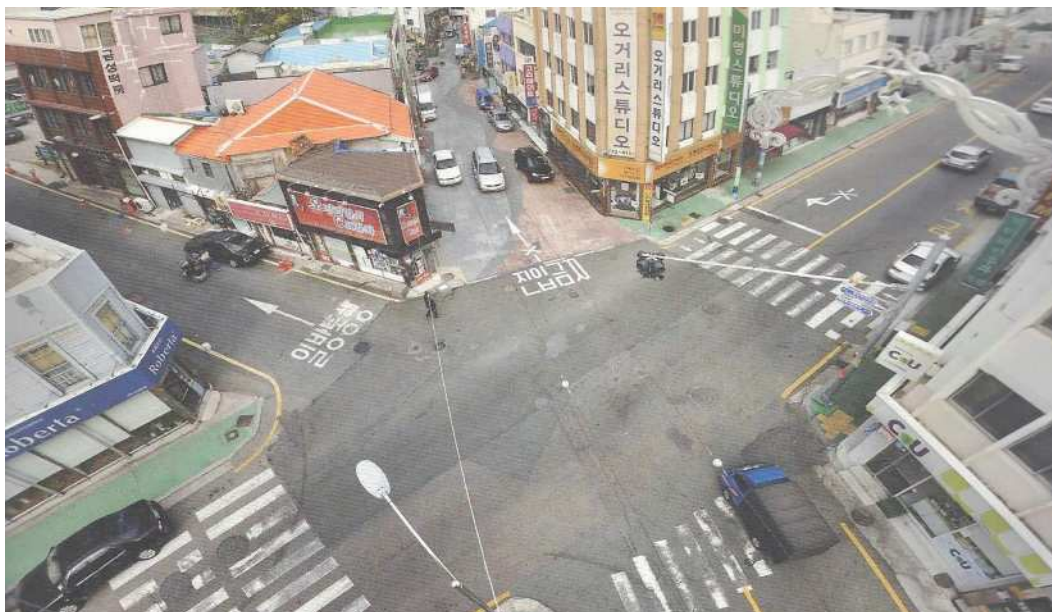


그림 1 2017년 목포 오거리

진·박화성·김현·차범석, 춤에는 이매방 등 전국적으로 빛나는 문화예술인을 배출한 문화와 예술의 도시였다.

목포시사(木浦詩社)와 더불어 원도심으로 구분되고 있는 목포의 본토는 유달산 자락과 오거리 문화를 배제할 수 없다.

1. 도시 성장기, 목포의 상징 ‘오거리’

개항과 함께 서양 문물이 목포에도 밀려오면서 목포의 경관은 크게 바뀌었다. 1899년부터 시작된 외국인 거류지 조성공사로 바다와 갯벌지역이 근대적 도시공간으로 변화하였다. 오거리는 이때 조성된 무안통의 중앙거리로서, 목포역-조선인 마을-목포항이 연결된 다섯 길의 교차점이었다.

초기 목포의 상권은 일본인 거류지의 본정통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도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상권은 차츰 본정통에서 무안통, 죽동, 남교동 등으로 퍼져나갔다. 무안통 오거리 일대는 문화 거리였다. 이 거리 주변에는 나라[奈良]라디오점, 상해식당, 천일사진관, 중천사진관, 목포무진회사, 목포악기점, 문화당서점, 대복사여관, 신탁은행, 평화관, 목본제면소, 정골원, 목포일보, 목포철도병원, 호남은행 목포지점 등이 문을 열었다. 죽동에서 공설시장(현 트윈스타)에 이르는 거리에도 목포극장, 병

원, 요리점, 여관, 카페, 정미소 등이 문을 열었다. 이 거리는 본정통과는 달리 조선인 상점들도 들어섰다. 한편, 일제 강점기 목포 시가지는 민족 저항의 중심지이기도 하였다.

광복 이후 ‘목포부’는 ‘목포시’로 변경되었다. 1950년대부터 목포 사람들은 무안통 중앙거리를 중심으로 행정구역상으로는 무안통(일제 강점기), 무안동(광복 이후), 목원동을 포함하여 목포의 상권은 오거리, 목포역 건너편 차 없는 거리 등 무안동과 죽동 일대를 중심으로 크게 부흥하였다. 목포역 맞은편에 시외고속버스터미널이 생기고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면서 서남권의 교통 중심지가 되었다.

오거리는 목포의 시내문화권에 속한 구역이며 1960~1980년대 문화예술인들과 지식인들은 ‘오거리’와 ‘차 없는 거리’의 서점, 다방, 선술집들을 전전하며 담론을 즐겼다. 연인들은 다방에서 고전음악을 듣고, 목포극장, 중앙극장 등에서 영화를 보았다. 수많은 젊은이들은 음악다방, 카페, 음악사, 제과점, 서점들을 다니며 현대적 대중문화를 만끽하였다. 그야말로 오거리는 문화의 중심지였다.

한편, 광복과 6·25전쟁을 겪은 목포는 시설을 복구하고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른 지역에서 온 이주민들로 인해 목포 인구는 1944년 65,000명에서 1956년 104,775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로 인해 주택난, 식수난, 위생문제, 환경문제 등이 발생하였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목포도시계획이 세워졌고, 새로운 해안지역 매립과 개발, 도로개통, 주거 공간 확장, 주택건설 사업들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21세기 오거리는 신도심 하당과 남악 등으로 상권과 주요 공공시설들이 옮겨감에 따라 문화의 중심지에서 점차 쇠락한 원도심이 되어 갔다.

2. 오거리에서 만난 새로운 문화

-목포의 극장문화-

대중매체의 발달로 새로운 유행, 정보의 전달 속도가 빨라졌다. 오거리 일대에는 새로 생긴 상점들이 즐비하였고 모던결과 모던보이들이 거리를 가득 채웠다. 특히, 1960년대 오거리 일대의 목포극장, 평화극장, 남일극장이 호황을 이루었다. 목포 거리에는 헬기에서 뿌린 영화 홍보 전단지 날렸고, 유명 영화배우들은 직접 목포의 극장을 방문하여 관객들에게 노래 한 자락을 선사하였다.

영화는 그 시대의 삶과 사회, 문화, 고뇌, 욕망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20세기 초, 극장 구경과 영화 매체 자체의 신기함, 경험할 수 없는 이야기,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배우와의 일체감 등은 특별한 경험이자 즐거움이었다.

목포에서 영화가 처음 상영된 것은 1904년 목포좌(木浦座)와 1908년 상반좌(常盤座)가 문을 열면서부터이다. 본격적인 전문 영화 극장은 1926년 목포극장과 1927년 평화관(평화극장)이었고, 모두 오거리와 가까운 곳에 개관하였다. 그리고 1927년에는 목포 사람 박동수가 한국 최초의 서커스 단체

인 동춘서커스단[東春演藝團]을 만들었다. 그 첫 공연은 목포역 옆 조선운수주식회사 야적장 터(광복 이후 도깨비시장)에서 열렸다. 목포극장과 평화극장은 광복과 6·25전쟁을 겪으면서도 커다란 피해 없이 운영되며 호황을 이루었다. 이러한 흥행으로, 1950년 말에는 원진극장이, 1960년대 초에는 남일극장·호남극장·중앙극장·시민극장 등이 연이어 문을 열었다. 1970년대에 극장가는 가장 큰 호황을 이뤘는데, 중앙극장과 목포극장의 경우 연 관람객수가 30여 만 명이나 되었다.

극장에서는 한국영화와 외국영화뿐만 아니라 변사극, 연극, 국극(國劇)이 공연되었고, 지역 예술제, 계몽운동과 반공교육 공간으로도 활용되었다.

1) 목포극장

목포극장은 근·현대에 개관한 목포 지역 극장 중 가장 오래되었고 현재까지 운영되는 유일한 극장이다. 1926년, 죽동거리의 조선인 약재상 류관오(柳官五)가 개관하였다. 당시 목포극장은 2층 건물에 총 183평, 정원 510명 규모였으며 1927년에는 목포극장에서 지역 유지들이 모여 오리엔탈프로덕션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해방 이전에는 소전 손재형이 소유하였다가 1950년대부터는 조카 손인석이 실질적인 운영을 맡았다. 1974년 조문수가 인수하였으나 2011년경 문을 닫았으며, 이듬해부터 롯데시네마 목포 센트럴극장으로 다시 운영되고 있다. 목포극장은 1950~1970년대까지 연 관람객이 20~30만 명이나 되는 목포의 대표적인 흥행관이었다.



그림 2 1970년대 목포극장과 현재 목포극장



그림 3 1970년대 평화극장

2) 평화극장

평화극장은 무안동 오거리에 위치한 극장이다. 1927년 평화관(平和館)으로 개관하였다. 일본 송죽영화사(松竹映畫社)의 개봉관으로 건물에 '일활송죽호남봉절장(日活松竹湖南封切場)'이라 적혀 있었다. 목조 양식 2층 건물이며 총 86평, 정원 353명 규모였다. 광복 이전에는 손재형이 소유하였고 광복 이후 광주극장이 인수하였으며 1950~1970년대까지 연 관람객이 20만 명이나 되는 흥행관이었다. 1980년경까지 운영되다가 폐관하였다.

3. 오거리와 추억의 상점들

1) 중화루

중화루는 근 70년의 전통을 가진 중화요리점으로 목포역에서 5분만 걸으면 그 땅의 옛 얼굴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목포 구도심 오거리에 닿는다. 19세기 말 중국의 산둥반도에서 귀화한 왕명강에서 유래된다. 왕명강은 해남 읍내리에 정착하여



그림 4 현재 중화루

포목상을 경영하였는데, 그의 장남 왕서은이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징용을 갔다 온 후 6·25전쟁 때 목포로 피난와 오거리에 정착하였다.

1947년부터 왕서은의 집안 친척 할아버지가 오거리에서 중화요리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왕서은에게 인계하고 장흥으로 이사갔다. 1950년부터 상호를 ‘중화루’로 하여 3대째 70년 가까이 운영해 오고 있는데 4남 1녀를 두는 다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장남 왕윤길과 4남 왕윤준은 건설업계에 종사하고 있고, 3남 왕윤호는 기업체에 근무, 2남 왕윤석이 지금의 중화루를 운영하고 있다.

‘중간’이라는 이름은 ‘중화루의 간짜장’을 줄인 말이라고 하는데 다른 곳에서도 중간이라는 이름으로 짜장을 팔고 있다. 짜장 양념은 채소를 곱게 다지고 돼지고기도 곱게 다져서 물을 넣지 않고 기름만으로 볶은 후 춘장에 볶아낸다. 면에 양념을 덜어내어 살살 비벼 한 입 먹으면 가느다란 면발 때문인지 양념 맛이 더 강하게 느껴진다. 짭조름하면서도 구수한데 면을 다 먹은 후에 따뜻한 쌀밥 한 그릇을 비벼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예전의 기억을 더듬어보면 어릴 적 먹었던 짜장의 맛이 아닐까?

짜장면은 1883년 인천항이 개항하면서 인천에 중국인들이 많이 유입되었고 이들이 정착한 후 춘장에 국수를 볶아 먹었다고 한다. 중국 상인들과 노동자들을 위해 산둥지방의 토속 면에 고기를 볶아 부둣가에서 직접 수타면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러다 광복 직후 우리 정부가 한국에 건너와 있던 중국 상인들에게 무역을 금지시키면서 수입원을 잃은 많은 중국인들이 청요리 음식점을 차렸다. 이때까지만 해도 청요리는 일부 부유층들의 음식이었다가 6·25전쟁 이후 미국이 한국에 밀을 원조하면서 값싼 밀가루와 짜장소스의 만남이 바로 옛날 짜장을 탄생시켰다고 한다.

이제 중화루의 특별메뉴 중간은 짜장면과 더불어 그 맛도 계속하여 건재하리라 믿으나 왕윤석의 다음 세대에 까지 이어갈지는 아직은 알 수 없다.

이외에도 화교들이 운영하는 봉래식당, 인의관, 상해식당 등이 있었다.

2) 코롬방제과점

빵은 19세기 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빵순이, 빵돌이라는 유행어가 있을 만큼 마니아들이 많았고, 쌀밥을 위협할 만큼의 폭넓은 사랑을 받았다. 코롬방제과점은 1949년경 문을 열어 70년이 다 되어가는 명가 빵집이다. 1963년까지는 정화균이 운영하였고 1964년부터는 정무웅, 김현숙 부부가 인수하여 운영하였다. 현재는 조카 양기석이 전통을 잇고 있다. 제과점 이름 코롬방은 Colombine(비둘기)에서 따온 것이다.



그림 5 코룸방제과점(2017)



그림 6 코룸방제과점 모형
(1970년대 모습,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복원)

3) 문화당서점

문화당서점은 원래 1920년대에 일본인이 운영하던 가토문성당 서점[加藤文盛堂書店]으로, 전남 지역 최초의 현대식 서점이었다.

광복 후에는 직원 박종석(朴鍾碩)이 인수하여 문화당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주로 대중서적보다는 학술·전문서적을 취급하였고, 우리 것과 고전을 보급하는 데 한몫을 담당하였다. 당시 목포에서는 문화당서점에서만 구할 수 있는 책들이 많았다. 1964년에는 오거리에서 창평동우체국 맞은편으로 옮겼다. 그 후 장남 박준상(朴準祥)이 경영하면서 2호광장을 거쳐 1990년경에 하당으로 이전하였다. 2000년 문화당서점이 문을 닫으면서, 70여 년 역사를 가진 추억의 서점으로 남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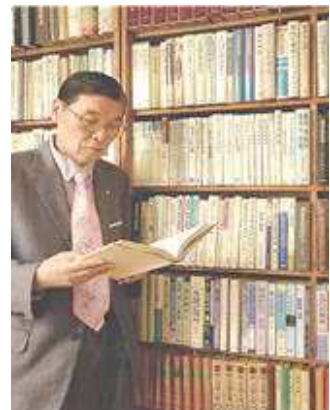


그림 7 박준상 시인

4) 목포악기점



그림 8 과거 목포악기점 외부 풍경



그림 9 목포악기점을 운영한 박오주·김정수 부부

박오주가 광복 이후부터 운영해온 악기점으로 목포에서 역사가 가장 깊다. 박오주는 1969년 개인의 사재로 유달산에 「목포의 눈물」 노래비를 세운 인물로도 유명하다. 이것은 대중가요 가수의 추모 비로는 전국에서 최초다.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은 1934년 일제의 탄압으로 억눌려있던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를 북돋우기 위한 문화사업의 하나로 조선일보사가 향토찬가를 공모했는데 목포 출신인 문일석의 가사가 당선되었고, 여기에 작곡가 손목인이 곡을 붙여 탄생하게 되었다.

그림 10 유달산의 「목포의 눈물」 노래비



특히 2절 가사 ‘삼백 년 원한 품은 노적봉 밑에’는 이순신 장군을 기린다하여 작사가 문일석이 일본경찰에게 시달림을 받았으나 그 때 오케레코드사 이철 사장의 기지로 ‘삼백 년’을 ‘삼백연(三白淵)’으로 ‘원한 품은’을 ‘원안풍(願安風)’으로, 즉 ‘삼백연 원안풍’으로 고쳐 무사히 풀려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오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지자 일제의 압제에 시달리던 당시 사람들에게 대히트를 기록하였으며 날개 돋힌듯 레코드판이 팔렸다고 한다. 일제 때 화순에서 목포로 이주하여 악기점 점원으로 출발한 박오주는 평생 악기와 레코드를 팔아오면서 제2의 고향 목포를 위해 보람있는 일을 하고자 기금을 모아 「목포의 눈물」 노래비를 세웠다고 한다.

문일석은 일본 와세다대학 문학부를 졸업한 엘리트였으나 일본경찰의 감시와 징용을 피해 함흥 어느 산골 발전소 공사장에 갔다가 1주일 만에 이질에 걸려 28세를 일기로 요절했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목포악기점의 위치는 오거리, 차 없는 거리, 목포극장 부근 등 여러 차례 옮겼으며 그 후 아들 박종삼이 운영하다가 폐업하였다.

5) 덕인주점



그림 11 덕인주점



그림 12 덕인주점의 막걸리와 안주들

오거리 중앙에 우리 고장의 대표적 음식점으로 손춘석이 1980년대 중반에 문을 열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홍어요리와 고래요리, 직접 만든 전통 막걸리가 일품이다.

6) 명문당

명문당은 오거리에 있는 대표적인 도장가게다. 1940년경 조철환이 오거리에 처음 문을 열었고, 직원이었던 김인술이 1969년부터 인수하여 오늘까지 운영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 이후 이 지역에는 도



그림 13 명문당

장집이 여러 곳 있었으나 지금은 명문당을 비롯해 몇 곳만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당시 북향에서까지 도장을 만들기 위해 왔으며 1980년대까지도 주문이 밀려 분주했던 시절이 많았다. 사장 김인술은 컴퓨터로 도장을 쉽게 새길 수 있지만, 여전히 손으로 새기는 도장을 고집하고 있다.

7) 미영스튜디오



그림 14 미영스튜디오

오거리 미영스튜디오는 50여 년의 전통을 가진 사진관이다. 김호중이 처음 문을 열었으며, 1980년대부터는 조한범이 운영하고 있다. 미영사는 목포뿐만 아니라 멀리 제주도까지 상권을 이루고 있었다. 오거리를 비롯한 목포 시내에는 사진관이나 사진 현상·인화점(DPE점)이 많았다. 목포사진관, 천연당사진관, 쌍미사, 모던사진관 등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미영사와 천연당사진관은 DPE점을 겸하였다.

4. 오거리와 학창시절

학창시절, 오거리와 차 없는 거리 일대의 목포시내권은 제과점, 서점, 만화방, 레코드가게, 오락실, 대형 문구점, 복합 쇼핑상가들이 즐비한 신세계였다. 목포 3대 제과점 또한 이 지역에 있었는데, 오거리의 석빙고와 코롬방, 그리고 공설시장 앞의 수문당이 다. 이국적인 슈크림빵, 바나나빵, 단팥빵 그리고 소보루빵은 추억의 빵들이었다. 당시 제과점은 미팅과 맞선 장소로도 애용되었다. 오거리와 차 없는 거리 일대에는 서점들도 밀집해 있었다.

서점은 아날로그시대 지식과 정보, 대중문화를 얻을 수 있는 곳이었으며, 1970~1980년대 젊은이들의 대표적인 약속 장소였다. 무안동의 문화당서점과 차 없는 거리에 평화서점, 문우사, 국제서점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지금은 국제서점만이 위치를 옮겨 운영하고 있다.

1) 오거리 골목

도심의 뒷골목은 사람들의 일상과 자유로운 삶이 있는 공간이었다. 현대사회의 주류는 아니지만 우리 근대사의 주역인 서민들이 사는 공간이며, 일상생활의 가치가 살아 숨 쉬는 길이었다. 오거리에선 도로 사이사이에 많은 골목길이 있다. 오거리 다섯 길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골목길은 마치 1960~1970년대 추억의 영화 속에서 본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그 시절, 오거리 골목은 구불구불한 길과 웅기종기 건물 담벼락을 지나면 단골 식당, 선물집, 호프집, 다방, 여관이 있거나, 건너편 큰 길이 바로 나오는 지름길이었다.

1950~1970년대 오거리 일대 골목길은 항구도시의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골목골목 상가마다 사람들이 북적거렸다. 한편 일제 강점기 일본인 상점에서 기술을 습득한 조선인 점원들은 광복 이후 자연스럽게 상점을 운영하게 되었다. 오거리의 상권은 보다 활기를 띠게 되었다.

2) 추억의 선물집

오거리문화권에는 여러 선물집들이 모여 있다. 단골손님은 학생, 서민, 직장인, 문화예술인, 정치인 등 다양하였다. 삼삼오오 술판을 벌이는 날이면, 오거리는 연애, 우정, 정치, 문화 등 여러 테마의 격론장이 되었다. 어느 순간 옆자리 낯선 사람들도 친구가 되어 술잔을 나누는 곳, 오거리는 소통과 교류의 장이었다.

여러 세대에 걸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추억하는 곳은 ‘동천주점’이었다. 동천주점의 대표 메뉴는 목포막걸리에 고래고기였다. 그리고 얼큰한 가오리찜으로 유명한 ‘대안주점’, 그 옆 골목길에는 오거리의 대표 맛집 ‘한남식당’이 있었다. 한남식당은 손님 대접이나 특별한 날에만 가는 맛집이었다.

그 아래 골목길에는 얼큰한 생선찜이 자랑인 ‘도미정’이 있었다. 이어 청주를 사서 마시는 대포집 ‘이학’, 짬뽕어탕과 추어탕이 일품인 ‘봉미집’, 흥어 요리로 이름난 ‘덕인주점’도 빼놓을 수 없었다.

지금은 대부분 문을 닫아 목포 사람들의 추억 속에만 남아 있다.

3) 오거리와 다방들

목포에는 1950~1980년에도 전시할 화랑이나 미술관이 없어 다방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다방은 유일한 문화공간이며 미술인의 미술관이며 문화예술인의 사랑방 구실을 하였다.

미술전이 자주 열리는 다방으로 1950년대에는 미네루바, 남가(南家), 아랑(雅廊), 봉선화, 수향, 새



그림 15 갑자옥 모자점. 1970년대만 해도 매일 이른 새벽 상인들이 이 가게에서 모자를 받아다가 오른쪽 골목 끝의 포구에서 배를 타고 호남 각지로 흩어졌다. 1965년 소실 후 신축할 때 가게 정면에 새겨 넣은 '갑(甲)'자가 선명하다.

마을, 상록수, 다원, 청호(靑湖), 여정(旅情), 가고파, 오거리(吾居里), 밀물, 귀거래다방이, 1960년대는 길다방, 카나리아, 양지다방, 만나리, 현대인, 베니스, 용다방, 돌다방, 흙, 모나리자다방 등에서, 1970년대에는 미로다방, Y홈다실, 황실다방, 청예다실, 세종다실에서, 1980년대에 와서는 세종다실, 목우다방 등에서 미술전시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50~1960년대의 다방에서는 자연스레 전시가 이루어지는 시기였다면 1970~1980년대의 다방에서는 전시하기 좋은 공간을 만들어 끌어들이는 적극적인 다방전시 문화로 변모되면서 미로다방, 황실다방, 세종다실은 전시를 위한 화랑 다방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새마을다방은 1950~1980년대까지 목포 다방의 터줏대감으로 예술인의 화랑과 사랑방으로 꾸준히 그 자리를 지켜왔다.

4) 갑자옥(甲子屋) 모자점

갑자옥 모자점은 개항과 더불어 목포를 지킨 대표적인 가게이다. 1920년대 가게 문을 연 이래로 그 자리에서 모자를 판매하고 있다.⁰²⁾

지금으로부터 90여 년 전 일이다. 첫 주인은 이태훈의 외종숙(外從叔, 어머니의 사촌오빠)이었다. 이 가게를 이씨 어머니 문금희(1999년 작고) 씨가 광복 직후 물려받아 1980년대 중반까지 운영했고, 이씨가 다시 물려받았다. 이씨 집안은 원래 제주도가 고향이다. 전남 무안군 ‘목포진’이었던 항구

02) 갑자옥은 갑자년인 1924년 개업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1927년 설도 있고 정확한 연대는 알기 어렵다.

를 일제가 정책적으로 개발하면서 목포에 사람과 돈이 몰리자 호남 전 지역은 물론 제주와 경상도에 서까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목포에 '제주'나 '서귀포'를 판 옥호(屋號)가 많은 것도 이런 이유다. 이 씨 집안이 목포에 정착하기 시작한 것도 이 때다. 이태훈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 당시에 앞으로의 유 망 업종을 궁리하다가 앞으로는 다들 모자를 쓸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목포 갑자옥이 잘 돼서 어머니는 제주에, 다른 형제들은 군산·순천·대전에 똑같이 갑자옥이란 이름으로 분점을 냈고, 모두 어머니 친척인 문씨가 경영했다고 한다. 그 본점 격인 목포 갑자옥을 이씨 어머니가 물려받으면서 이 씨네는 목포로 이사했고 1970년대까지만 해도 여름엔 오전 4시 30분, 겨울에는 오전 6시에 가게 문 을 열었다고 하며 육로가 험하던 시절, 섬 지역은 물론 호남 내륙 각지를 연결하는 첫 배가 매일 6시 에 목포를 떠났다. 그 배를 타고 5일장에 가서 모자 좌판 을 벌일 상인들이 해 뜨기 전부터 갑자옥에 찾아왔다. 지 금도 오전 7시 20분에는 문을 연다고 하는데 손님은 없 지만 생활해오는 동안 습관이 됐고 또 문을 늦게 열면 주 위에 보기 싫은 느낌을 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88올림픽 직전에 가게를 물려받았다는 주인 이씨보다 50년 가까이 직원으로 일해 온 임씨가 갑자옥의 산 증인 이라고 할 수 있다. 임씨는 갑자옥에 취직하기 전 학생모 만드는 기술을 배웠고 이 가게로 왔다. 그 당시 중절모 하 나 값이 쌀 한 가마니의 가격이었는데 중절모는 양털과 토끼털, 쥐털로 만든 제품이 있었으며 일본에서 만든 쥐 털 모자를 최고로 쳐준다고 했다.

그 당시 국산 양털모자가 4만원 할 때, 쥐털 중절모는 30만원도 넘었으며 쌀 10가마는 팔아야 살 수 있었다는 말이 있다. 모자를 전당포에 잡혀 돈을 빌려 쓰던 시절의 이야기다.

영암·강진·해남·완도·진도·무안·신안까지 모두 갑자 옥에서 모자를 조달하던 때였다. 지금도 여러 군(郡)에서 모자를 가져가지만 전성기에 비하면 보잘 것 없는 양이라 고 한다. 목포 원도심의 상권이 무너진 요즘에는 오후 7 시만 되면 상가 조명들이 다 꺼진다.

현재 갑자옥 건물은 1965년 화재로 소실된 일본식 2층



그림 16 '나락 한 가마 팔아야 살 수 있었다'던 중절모



그림 17 1965년 화재 때 유일하게 타지 않고 남은 무쇠 금고



그림 18 1960년대 갑자옥모자점에서 해안가 가는 길

목조건물을 부수고 다시 지은 3층 콘크리트 건물이다. 한창 때 2층은 전체를 모자 창고로 썼고 3층 옥상에서는 학생모와 밀짚모자를 만들었다.

일제 강점기 목포 혼마치[本町, 중심가]에서도 제일 중심이었던 이곳의 가게는 죄다 일본인들이 운영했는데 갑자옥이 유일하게 한국인이 운영한 가게였다고 한다. 이씨네 집안은 일제 강점기 때 ‘일흑삼백’(一黑三白, 김·면화·쌀·소금) 특산물밖에 없던 목포에서 ‘모자’라는 신상품으로 부자대열에 합류했다.

모자점을 물려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던 이씨는 어찌다가 눌러앉게 됐다고 말한다. 목포중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경복고등학교를 거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63학번)를 졸업한 이씨는 회사생활과 사업을 거쳐 결국 목포로 돌아왔다. 그는 “어머니가 물려주시면서 ‘너는 장사할 성격이 아닌데’ 하고 격정하셨다.”고 한다.

모자 팔아서 2남 2녀가 모두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다. 이씨는 대학을 졸업한 후 그 당시 삼화그룹 총재의 큰딸인 이화여자대학교 영문학과 출신 김소연과 결혼했는데 1995년 사별하였다. 또 그의 누나 이경운(1941년생)은 목포 출신 영화감독 강대진과 결혼(영화 「마부」의 감독)하였으나 사별하였다.

지금 모자를 만들어 파는 것은 유명 메이커 제품에 밀려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느낌이 있으나 그래도 일반 서민들은 메이커 제품에 비해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 즐겨 찾는 고객도 있다.

갑자옥 주변에는 일제 때 지어진 2층짜리 목조 건물이 즐비했다. 현재 목포근대역사관으로 쓰이는 ‘동양척식회사’ 건물도 그대로였다. 이씨는 ‘이 건물들을 보존하고 구도심을 살리자는 움직임이 있는데, 갑자옥도 시에서 보존해 주면 참 좋을 것’이라고 했다.

1950~1960년대만 해도 갑자옥 주변에는 목포시청, 경찰서, 소방서, 법원을 비롯한 시의 중심이 되는 관청과 한국은행 등 수 많은 은행, 상점이 즐비한 번화가였다. 말 그대로 이 지역은 목포는 물론 호남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의 역할을 했으며 현재 유달초등학교 앞에서 영란회집을 지나 갑자옥과 구 대한통운에 이르는 길이 전라남도에서는 최초로 아스팔트 포장에 이루어졌다는 것만 보아도 이 지역의 위상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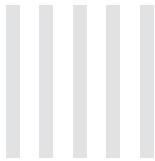
5. 문화의 꽃을 피운 오거리

반세기 이전 오거리에 가면 문화예술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목포는 예술적인 많은 잠재력을 지닌 도시로 흔히 ‘예향 목포’로 일컬어진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숨어 붓을 가다듬는 예비 문인이 많은 도시다. 언제 어디서 터질 줄 모르는 이들의 순발력, 목포는 과거가 화려했던 것처럼 미래 또한 탄탄하고 밝고 아름다우리라 믿는다.

목포의 정서와 혼을 얘기하자면 오거리권 문화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목포 사람들에게는 산업경제와 문화예술의 정신적 심장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거리는 목포 예술의 중심지로 응집됐다. 문인, 미술인, 음악인, 기타 여러 장르의 예술인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 거리를 누비기 때문에 오거리에 서서 한 시간만 버티면 목포 시민 다 만날 수 있다고 할 만큼 사람들이 붐비고 바빴었다. 극장이나 음식점, 다방을 빌려 전시회를 열고, 문학의 밤을 열고, 학교의 예술제, 각종 축하행사, 송년의 밤까지 몇 날이고 그칠 줄을 몰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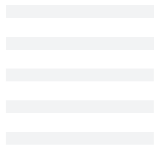
목포의 문화중심이었던 오거리는 수 없이 많은 애환과 추억을 심은 곳이다. 그러나 광복 후 많은 세월이 지났어도 정치적 소외와 산업사회의 따돌림 등 푸대접을 겪으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한(恨)만 쌓여가는 ‘불 꺼진 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역 사회가 침체되어 있다. 어찌되었건 예향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기에 아름답게 가꾸며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찬란함이 아닐지라도 이렇게 정신적 예술적 토양이 짙게 남아 있고 버려진 곳이 아닌 아껴놓은 곳이라는 자부심이 남아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자위할 수 있을 것 같다.

권 효 | 목포장학재단 이사



제1절 동부시장을 대표하는 억척이, 학산상회 김삼덕

이유리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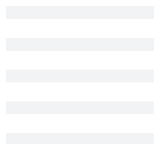
제2절 목포의 수산물 전문시장, 청호시장의 청호수산

이유리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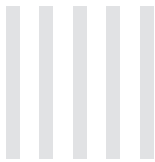
제3절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만든 사람이 모두 이익이 되는 곳

이유리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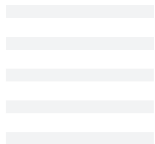
제4절 서울의 양복기술을 목포에 전파하다

이유리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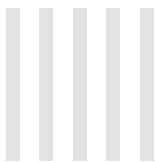
제5절 남교동을 지켜온 양화점의 역사

이유리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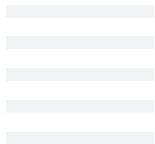
제6절 목포를 대표하는 맛집, 영란횃집

이유리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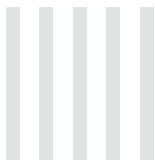
제7절 콩물 하나로 목포의 맛집이 된 유달콩물

이유리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제8절 남교동을 지켜온 유일한 죽집, 67년 전통의 역사

이유리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제9절 목포 유일의 이북식 만둣국집

이유리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제2장 목포의 맛과 멋

1897년 개항 이후 목포는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개항 직전 40여 호에 불과했던 목포는 성장을 거듭하여 1930년대 인구 6만, 전국 10대 도시에 들 정도였다. 경제가 발전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었으며, 1909년 이미 남교동시장이 개설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총독부의 기록에 따르면 1917년 목포에는 남교동시장, 대성동시장, 사설시장인 목포수산주식회사어시장이 개설되어 있었다. 일제 강점기 목포의 시장은 목포의 경제성장과 함께 증가하게 된다. 현재 목포에는 5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목포중앙식료시장을 비롯해 동부시장, 자유시장, 청호시장, 목포종합수산시장, 항동시장, 신중앙시장 등 7개의 종합시장이 있으며,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2015년 12월 11일 자유시장 내 남진야시장이 조성되어 있다.

오랜 기간 시장에서 장사를 해 왔던 사람들의 생애를 통해 목포와 시장의 발전을 조명하기 위해 조사 대상자 선정에 공력을 기울였다. 목포 토박이를 우선 선정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차선으로 목포 출신은 아니더라도 오랜 기간 장사를 한 사람을 선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장사로 인해 시간의 여유가 없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인터뷰를 허락하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어 마땅한 제보자를 찾기 어려웠다. 제보자를 찾더라도 실제 면담 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자신의 삶에 대해 서술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했다.

목포는 개항과 함께 발달한 물산의 집결지였다. 그 중에서도 교통의 요지에 있던 구도심의 남교동은 각종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이 모여 특별한 권역을 이루었다. 기성복이 많지 않고 신발 한 켤레라도 발에 꼭 맞추어 신었던 시절, 남교동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목포 사람들의 맛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곳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오랜 기간 남교동에서 의복과 신발을 만들어 왔던 사람들의 생애를 통해 오래된 목포의 맛을 조명하고자 조사 대상자 선정에 공력을 기울였다. 일단 목포 토박이들의 기억을 토대로 대상자를 좁히고 현재까지 가게를 운영하는 곳을 최우선에 두었다.

그리고 다시 동종 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다. 조사의 목적과 방향에 맞춰 동종 업계 종사자들이 ‘이 가게(사람)가 가장 오래되었으며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것이다’, ‘이 가게(사람)가 지금까지도 성업 중이며 대표할 만하다.’고 추천한 가게들을 누적 빈도수에 따라 선정하였다. 그러나 공장제 기성품의 홍수 속에서 경제적 이유로 문을 닫거나 건강 상태에 따라 외지로 이주 및 사망한 경우가 더러 있어 조건에 맞은 제보자를 찾기가 어려웠다. 제보자로 추천을 받더라도 실제 면담 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자신의 삶에 대해 구술이 가능한 사람이라야 했다. 정보를 가지고 가게를 방문한 경우에도 본인은 이미 사망하고 부인만 남아 가게 폐업 신고를 하기 직전이었다든가, 이미 망해버린 사업 이야기를 하기 싫다며 거절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나 의류업의 경우 남성양복과 여성양장이 나누어져 있고, 그 안에서도 교복과 작업복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까닭에 해당 분야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일이 까다로웠다.

결과적으로 양복에 있어서는 신동아양복점, 직물에는 삼익모직, 양화에는 모던양화점이 선정되었다. 조사 취지에 부합하고 동종업계에서 추천한 가게 중 본인의 구술의지 등을 종합한 결과다. 신동아양복점은 양복기술을 서울에서 배워 온 내력이 독특하고 현재까지도 꾸준히 단골을 확보하고 있다. 오래된 양복점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동종업계 종사자들이 조사의 취지에 타당할 것이라며 추천한 곳이다. 삼익모직은 현재 영업 중인 목포의 직물가게 중 가장 오래된 곳이며, 주인인 김규백은 남교동 일대에서 큰 어른으로 대접받고 있다. 1960년대 목포의 사정을 구술하는 등 귀중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모던양화점은 1950년대 당시 목포에서 유행을 선도하던 ‘활신양화점’에서 신발을 만드는 기술을 배운 기술자로 아직까지 직접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당시 목포 양화점들의 도제식 운영방식과 남교동 거리의 변성했던 과거를 생생하게 들려주었다.

목포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음식이다. ‘목포의 음식’ 하면 흔히 코끝 찡한 홍어와 막걸리, 뒷맛이 칼칼한 갈치조림, 가느다란 다리에 입에 착착 감기는 세발낙지, 두툼하게 썰어 즐기는 민어회, 매콤한 꽃게무침 등을 떠올린다. 목포를 대표하는 오미(五味)는 실제 목포 사람들이 즐겨먹으며, 즐거울 때나 힘들 때 목포 사람들의 곁에서 힘이 되었던 음식들이다. 목포 사람 중 위에 열거한 음식을 단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사람은 없다. 항구에서 갓 들어온 신선한 해산물로 조리한 음식의 유혹은 쉽게 뿌리치기가 어렵다. 찰진 ‘개미진 맛’은 목포를 대표하는 맛의 정체성이라도 해도 무방하다. 이처럼 맛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 목포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목포에서 잘 알려진 식당 주인들의 생애사를 조명하였다. 목포 토박이들의 기억을 토대로 오래도록 운영해왔으며 목포 사람들이 즐겨 찾던 식당을 위주로 우선 선정하였다. 이후 동종 업계 종사자들의 개별면담을 통해 목포 사람들과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겪으며 동고동락한 가게들을 추천에 의해 선정하였다.

목포의 유명 맛집을 소개하기 위한 글이 아니므로 목포의 서민들이 주로 찾았던 가게를 선정하고

자 했다. 특별식이 아닌 일상식으로, 주머니 가벼운 서민들의 벗이 되었으며 동시에 목포의 맛을 대표할 수 있는 곳을 고르기 위해 고심하였다. 현지 주민들이 즐겨 찾는 음식점을 찾다보니 오미를 제외한 가게들이 다수 포함되었고,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목포의 이미지와는 맞지 않는 가게들이 많았다. 어쩌면 당연할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 매 끼니 위와 같은 특별한 음식을 즐길 수도 없거니와 목포 서민들의 삶을 애환을 달래주던 음식들은 의외로 소박했기 때문이다. 자신이 살아온 삶의 내력이 공개되는 탓에 이에 부담을 느끼는 제보자들이 많은 것도 고민거리였다.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결과 영란횃집, 유달콩물, 가락지, 대청을 선정하였다. 영란횃집은 민어회를 파는 곳으로 목포 사람이면 누구나 알 정도로 유명한 횃집이다. 유달콩물과 가락지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가락지는 목포의 대표적인 노포(老鋪)로 목포 출신의 유명인사들도 주로 찾던 소박한 죽집이다. 대청은 목포에서 유일하게 이북식 만두를 파는 곳으로 목포의 젊은층이 주로 찾기 시작하면서 점차 외지까지 입소문을 타게 된 곳이다. 오랫동안 장사를 해 온 곳은 아니지만 이북출신이 목포로 피난을 오게 되면서 영위해온 삶의 과정이 독특하고 이북식 만두를 파는 목포의 맛집으로 성업 중인 까닭에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이상의 목포의 맛과 멋을 이야기해 줄 최종 제보자를 선정한 후에는 직접 대상자를 찾아가 신분과 조사의 목적을 밝히고 협조를 부탁하였다. 인터뷰를 승낙한 사람에 한해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를 캠코더와 녹음기, 카메라 등으로 기록하였다. 원고를 작성한 후에 다시 대상자를 찾아가 내용을 확인한 후 본 자료를 목포시사에 실어도 좋다는 서명을 받는 과정을 거쳤다.

제1절 동부시장을 대표하는 억척이, 학산상회 김삼덕

1. 동부시장의 연혁

동부시장은 지리적으로 목포시의 생활중심 지역인 2호광장에 위치하고 있다. 동부시장은 1950년대 목포 시내에 형성된 중앙시장(일명 큰시장, 현재 정식명칭은 목포중앙식료시장) 다음으로 역사가 깊은 시장이다. 1958년 노점상들이 하나 둘 모여들어 시장이 형성되었는데, 형성 당시를 보면 뜰(도랑)이라고 불리는 생활하천이 있었고, 그 하천 주변에 있는 기와집들 사이 담벼락에 노점상들이 하나 둘 모여들면서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하며, ‘목포의 동쪽에 있다’하여 동부시장으로 불렸다고 한다.⁰¹⁾ 현재는 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등 1차상품뿐만 아니라 의류 및 공산품도 입점해 있으며, 점포수 375개로 목포에서 가장 큰 시장이다.

2. 장사의 시작

김삼덕은 1954년 강진군 신전면 송천리에서 8남매의 막내로 태어났다. 마흔네 살의 늦은 나이에 얻은 곱고 귀한 딸이었다. ‘엄마뻘 되는 터울의’ 큰언니를 비롯하여 언니, 오빠들은 그녀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결혼하거나 도시로 떠나면서 언니, 오빠에 대한 기억을 자세히 떠올리지는 못했다. 4살 터울의 일곱째 오빠만이 그녀와 많은 이야기를 공유했을 것이다.

그녀의 부모님은 전형적인 농사꾼이었다. 송천리는 넓은 간척지를 끼고 있어 벼농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었다. 그녀는 그 곳에서 국민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후 부모님의 일을 도우며 살아갔다. 매일 이어지는 반복적인 일상에서 유일한 탈출은 매주 일요일에 가는 교회였다.

신전면에서 북쪽으로 12km 떨어진 만덕산에는 만덕산기도원이 있다. 1910년 설립된 만덕교회를 시작으로 전도의 역사가 이어졌으며 1966년 예배당이 지어졌고, 1969년에 만덕산기도원이 세워졌다. 이후 만덕산기도원에서는 매년 6차례의 부흥회가 열렸고, 이 행사에는 강진지역 신도들은 물론 해남, 완도, 영암 등에서도 많은 신도들이 몰려들었다.⁰²⁾ 1977년, 24살이던 그녀는 부흥회에 참여했고, 이곳에서 현재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

남편인 김성룡은 1953년생으로 영암군 학산면 사람이었다. 가족과 친지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한

01) 목포BIZ(<http://biz.mokpo.go.kr>, 2017. 09. 30.); THN통합뉴스, 2017. 04. 20. 「전남 대표 전통시장 ‘목포동부시장’」.

02) 『강진신문』 2009. 10. 01. 「[종교탐방] 농촌에 복음 씨앗 뿌린 100년 세월 만덕교회」.

둘은 영암 시부모님 댁에 신접살림을 차렸다. 남편은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공군 하사관으로 입대를 하였으며, 광주 송정리에 위치한 광주공항에서 비행정비공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시부모님을 모셔야 했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내가 모신 게 아니고, 시부모님이 나를 모셨제.”라며 “시부모님이 이빠해서 좀 편하게 살았어요.”라고 웃으며 말하였다. 그녀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시부모님에 관한 부분에서는 ‘이빠해 주셔서’, ‘좋아해 주셔서’라 말하며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남편이 전역과 동시에 대한항공에 합격하면서 뜻하지 않게 서울생활이 시작되었다. 직원전용 사택인 내발산동의 KAL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낯선 곳에서의 시작은 설레었다. 그러나 남편이 일신상의 이유로 정식 취직이 몇 개월 늦춰지면서 큰 고비가 찾아왔다. 서울로 이사할 당시 그녀는 만삭의 몸이었고 앞으로 아이의 기저귀값, 분유값 등 들어갈 게 한두 푼이 아니었다.

1979년 큰아들이 태어났다. 이름은 ‘현’으로 지었다. 그러나 급작스럽게 남편의 취직이 미뤄지면서 갓 태어난 아이에게 풍족하게 해줄 만한 것이 부족했다. 그녀 또한 영양상태가 부족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젖도 많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보채는 아이에게 먹일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물도 먹여보고 달래도 보았지만 소용은 없었다. 다행히 출산 후 두세 달 후에 남편이 정식으로 취직하면서 상황은 안정되었지만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고생 많이 했어요.”라고 말하면서 눈물이 나올 것 같다고 하였다. 큰아들의 키가 작은 것이 그 때 많이 못 먹여서 그런 것 같으면서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서울에서의 시간은 운택했다. 남편은 매월 넉넉한 생활을 할 만큼의 월급을 가져다주었고, 아이들 또한 별 탈 없이 자라났다. 모든 게 행복했다. 그러나 조금씩 부부 사이에 오해와 갈등이 쌓이면서 반목하는 시간이 잦아졌다. 낯선 곳에서의 생활이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에 제주도로 발령을 받았다. 그러나 제주도에서의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았다. 다시 생각을 해야 했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가기로 하였다. 중학생이던 큰아들은 여전히 제주도에 남겨져 있었다.

3. 리어카, 간이상가와 노점 단속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했다. 엄마이기에, 아이들을 굶게 해서는 안 되기에 그녀는 무엇이든 해야 했다. 그 때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 동부시장에서 가스, 싱크대 등을 파는 시동생이었다. 시동생이 장사를 해 볼 것을 권유했고, 당장의 생계가 절실했던 그녀는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시동생의 도움으로 동부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할 수 있었으나 사정은 여의치 않았다. 무허가 노점

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녀는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 대형마트가 없던 시절이고 사람들의 소비가 주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때라 노력 여하에 따라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었다.

처음에는 리어카에 채소나 과일을 싣고 파는 것이었다. 시부모님이 영암에서 농사를 짓고 있기에 채소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채소 외에도 여름에는 수박을 팔거나 하면서 계절에 따라 시기에 따라 품목은 조금씩 바뀌었으나 주된 것은 채소였다. 하지만 처음 장사를 한다는 것은 녹록치 않았다. 아는 사람이 지나가면 창피함에 고개를 숙였고, 기존 상인들의 텃세도 상당했다.

“처음에는 많이 창피했다. 리어카에 수박을 싣고 장사를 나왔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집으로 가려고 리어카를 끌고 가는데 아는 사람이 보였다. 나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 그때는 노점들 못하게 단속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은 안 나네요. 그 사람들이 리어카 타이에 구멍을 내고 장사도 못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힘들었어요.”

억척스럽게 장사를 하면서 그리고 장사하는 법을 알아가면서 매상이 올라갔다. 차츰 돈이 모이자 동부시장 중앙통로 부근에 간이상가를 만들었다. 혼자서 비닐을 씌워 비를 피할 공간을 마련하고 전기를 끌어오고 냉장고를 설치하는 간이상가지만 장사를 할 수 있을 곳으로 만들어 가는 재미가 있었다. 그러나 무허가 노점은 현행법상 불법이었고, 노점에게 손님을 뺏긴 상인들은 ‘자신의 손님을 뺏어간다면 분통해’ 했다.

분통한 상인들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도 했고, 행정적인 처분을 바라기도 했다. 시비를 걸기도 하고 물건을 던져버리거나 전기선을 다 잘라버리기도 했다. 또 파출소나 시청에 신고를 했고, 공무원들이 와서 노점을 헐도록 명령했다. 어쩔 수 없이 결국 자기 손으로 헐어야 했다. 가게를 헐 때 주변의 팔시도 묵묵히 참을 수밖에 없었다.

“나를 신고를 많이 했어요. 장사하는데 시비를 걸고 물건도 던지고, 전기도 못쓰게 잘라버리고 그랬어요. 냉장고 못쓰게 하고 가게 빼라고 하고. 저는 안 뺄라고 했는데 애기 아빠가 쫓아다니면서 빼라고 해서 결국은 뺏어요.

우산을 씌워서 비닐을 씌워서 가게를 만들어 났어요. 근데 막 파출소, 시청에 신고를 해가지고 가게를 헐라고 했어요. 내가 뜯지도 못하게 만들어 났는데 신고 해가지고 결국은 혼자서 뜯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가게에서 막 약 올리면서 왜 뜯냐고, 내가 뜯어주리 그러더라고요. 힘들게 하더라고요.”

공권력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은 시장에서 노점을 단속하고 치안을 맡은 사람들이었다. ‘상이균경’,

‘청호경찰’ 비슷한 사람들로 6·25전쟁 유공자 비슷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수박을 싣고 오는 그녀의 리어카 바퀴에 구멍을 내 장사를 못 하게 하는 등 시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하였다. 그러나 그 질서로 인해 장사하기가 어려워지자 ‘과일도 좀 사주’는 등 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이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는 ‘힘들게 했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되뇌었다.

4. 노점의 합법화를 위한 시위

언제까지나 팔시를 받고 단속을 피해 도망가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녀뿐만 아니라 동부시장의 노점 모두에게 생존권이 달린 문제였다. 어떻게든 타협을 통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공권력이면서 또한 그들이 가장 기댈 곳이 공권력이었다.

“권이담 시장이 있을 때 애기 아빠가 주선해가지고 만났어요. 애기 아빠랑 시장님은 조금 인연이 있어요. 가게 사람들을 장사 못하게 하니까 노점상인 전부와 함께 시청으로 갔어요. 30~40명 정도, 많이 갔어요. 가서 권이담 시장님을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시위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장사를 하게 되었어요.”

동부시장 내 노점들은 단체행동에 나섰다. 그녀의 남편을 중심으로 30~40명이 목포시장 권이담과의 면담을 위해 시청으로 몰려갔다. 이들 중 대표 몇 명을 선정해서 시장과의 면담이 추진되었다. 그녀의 남편이 권이담과의 인연이 있어 면담은 쉽게 추진되었다. 면담 이후 시장 내 노점의 상행위가 허용되었다고 한다. 아마도 몇 번의 면담과 행정처리가 있었을 것이나 그러한 기록이 없어서 찾아보는 어렵다. 이때가 언제인지 여쭙보았으나 정확히 기억을 해내지는 못 했으나, IMF 전이라는 것으로 보아 1997년 11월 전으로 보인다.

5. 학산상회 설립

힘들었던 이 시절을 생각하면 그녀는 자신을 ‘들고양이’라고 표현했다.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고, 그러기 위해 사람들을 경계해야 했던 시절이었다. 들고양이처럼 그녀는 동부시장에서 차츰차츰 정착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림 1 학산상회 앞에 선 김상덕

“시장 사람들이 나를 들고양이라고 해요. 들고양이가 사람이 오면 막 물라고 하잖아요. 나는 나에게 시비를 걸면 무조건 사납게 굴었어요. 그러니까 애기 아빠는 애기 아빠대로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내 편은 들어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나 혼자 이걸 지키느라 고생 무지하게 했어요.”

시장의 중앙통로는 사람들로 북적이기는 하지만 비좁았다. 다가오는 여름을 대비해 수박과 같은 큰 과일을 팔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래서 공간이 넓고 차를 주차하기도 가까운 쓰레기장, 현재의 동부시장 동문 앞으로 이동을 했다. 쓰레기장 근처라 아무래도 상인들이 기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넓은 공간을 선점할 수 있었다.

“노점에서 크게 남보다 더 자리가 앞에 있었는데, 수박장사를 하려고 뒤로 갔어요. 가니까 차 대 놓고 장사하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 놔뒀버리고 저리 가버렸어요. 비워놓고.”

“원래 이곳은 쓰레기장 옆이라 손님들이 안 왔어요. 근데 저 분이 여기에 상점을 차리고 개척을 했어요. 상가를 확장할 때 다 하나씩 하자고 했는데, 인자 우리 이사님은 내가 이 쓰레기장을 만들었는데, 내가 왜 하나씩 해야하나, 내가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내가 했으니까 확보할라고 한다. 그래서 두

간가를 확보했었어.”(동부시장 상인회 국장)

노점의 합법화로 상인들이 장사를 할 공간은 비좁았고 시장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그녀가 확보한 쓰레기장 부근도 상점으로 활용되었다. 다른 상인들은 공평하게 한 블록씩을 사용하자고 했지만, 그녀는 쓰레기장 부근을 먼저 선점했고 개척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넓은 공간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박도 팔아야 하고 야채도 팔아야 하기 때문에 넓은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으로 근처 상인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고 억척스럽고 ‘들고양이’ 같은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근처 상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설정하지는 못했고, 상인들은 그녀를 ‘대장’, ‘깡패’라고 불렀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다른 상인들에 비해 넓은 공간을 사용하게 되었다.

수박을 팔기 위해 옮겨왔지만 수박 등의 과일류는 계절과 날씨에 따라 변동이 심했다. 이제 마음 놓고 장사 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되었으니 안정적으로 팔 수 있는 물품을 선택해야 했다. 동부시장에 처음 발을 들일 때 팔았던 것이 채소였고, 여전히 시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계셨다. 돈도 적게 들고 과일보다도 쉬운 채소를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했다. 남편도 시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하면서 채소의 수급이 쉬워졌다. 상점의 이름도 남편의 고향인 영암 학산을 따라 ‘학산상회’라고 하였다.

6. 시장의 현대화, 시장의 침체

2000년대 들어서면서 시장은 침체를 겪기 시작했다. 신도심인 하당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주하면서 원도심의 정주민구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급격히 감소하였다. 설상가상으로 2002년 이마트, 2003년 롯데마트, 2008년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형마트로 분산되었다. 특히 10분 거리의 3호광장에 홈플러스가 들어서면서 주변 상인들은 상권 위축을 우려하는 상황이었다.⁰³⁾ 홈플러스 입점 한 달 만에 매출이 35% 급감했다.⁰⁴⁾ 동부시장의 큰 위기였다.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고자 동부시장은 2006년 총 23억 원을 들여 384m의 아케이드를 설치한 데 이어, 2008년 6월 18억 원의 사업비로 2차 아케이드를 추가로 설치하면서 동부시장은 낡은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시장으로 변모하였다.⁰⁵⁾ 같은 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이 가게 옆에 생기면서 손님들의 접근이 더욱 쉬워졌다.

03) 『한겨레』 2008. 01. 14. 「삼성홈플러스, 광주·목포 ‘위장입점’ 논란」.

04) 목포BIZ(<http://biz.mokpo.go.kr>, 2017. 09. 30.)

05) 동부시장 상인회 홈페이지(<http://www.mokpodongbu.com>, 2017. 06. 28.)

그럼에도 시장의 위기는 지속되었다. 채소류를 파는 학산상회의 매출도 이전과 달리 급감했다. 특히 1인, 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고, 매출의 감소로 이어졌다. 또 가을에 김장을 담그는 사람들이 감소하면서 대목이라 할 수 있는 김장철에 무, 배추, 알타리 등의 판매가 3분의 1 가까이 줄어들었다.

7. 지금의 삶과 목표

시장을 찾는 사람이 줄었고, 이로 인해 매상도 줄어들었지만 ‘학산상회’ 이후의 삶은 안정화되었다. 그녀는 시장상인으로서 소회를 말해 달라 했을 때 “나는 열심히 살았어, 나는 열심히 살았어요.”라며 자신의 삶을 반추했다.

“이 손을 봐 봐요. 내가 가끔 손발이 다 뭉도록 고생한다는 노래가 나와요. 그런데 조금 살만하니까 그런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나이도 드니 건강체질이지만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허리 수술도 하고 그랬어요. …… 나는 열심히 살았어. 나는 열심히 살았어요.”

어느덧 환갑을 넘긴 나이가 되고 자식들은 장성해서 자신들의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 건강체질이라 믿으며 치열하게 살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허리 수술과 협착증 수술도 받았다.

“일어나기는 4, 5시에 제대로 눈이 떠져요. 그러면은 5시에 쫄 넘으면 나와요, 밥을 안 먹고 나와요 항상. 그래가지고 팔 준비를 해요. 재고는 다듬어서 사람들 오기 전에 내놔요, 남들보다 빨리. 그리고 전화로 주문하고, 옛날에는 내가 직접 가서 떼 왔는데, 요즘에는 전화로 다 해요.”

몸이 고단함에도 그녀는 여전히 4, 5시에 일어나 하루의 시작을 준비한다. 지금은 직원을 한 명 두고 한 발 뒤로 물러났다. 이제는 동부시장상인회의 이사를 맡으면서 기존과는 다른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물었다. “목포는 어떤 곳일까요?”, “뭐라 할까? 고향이라고 할까? 여기서 터전을 다 닦고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여기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으니까.” 긴 대답이 이어질 것 같았으나, 짧고 명쾌하게 대답했다. 그녀가 지금의 삶을 이루게끔 만들어 준 목포는 그녀에게 강진만큼 소중한 ‘고향’이었을 것이다.

이유리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제2절 목포의 수산물 전문시장, 청호시장의 청호수산

1. ‘신’ 청호시장의 개장

이른 새벽 목포역 플랫폼에 기차가 들어서면 아낙들이 머리에 광주리를 이고 목포역을 나선다. 무안 일로, 몽탄 등지에서 직접 재배한 배추, 무 등을 목포에 팔기 위한 아낙들의 행렬이었다. 물건을 이고 온 아낙들이 자리 잡은 곳은 목포역 뒤편 도로가였다. 이내 농산물, 수산물을 팔기 위한 좌판이 형성되었고, 이를 사기 위해 몰려든 사람까지 모여 금세 시장이 형성되었다. 아침해가 밝아오면서 시장은 파장의 분위기가 되었고, 시장이 열리던 도로는 이내 사람이 텅 빈 공간이 되었다. 새벽에 열렸던 아침이 오기 전에 파장한다 해서 ‘도깨비시장’이라 불렸다.

도깨비시장을 이용하던 상인들이 도로 위에 좌판을 열면서 노점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 숫자는 빠르게 늘어갔다. 많은 노점상들이 도로를 점유하면서 지나는 사람과 차로 인해 일대 혼잡이 발생했다. 1989년 6월 전국적으로 노점상 일제 정비 계획에 목포시는 동명동에 비닐천막을 치고 시내에 산재해 있던 행상과 좌판 등 3백여 명을 집단 이주시켰다. 동명동 도로를 사이에 두고 상설시장이 형성되었으니, 우리가 알고 있는 청호시장과 자유시장의 시작이다. ‘청호(靑湖)’란 목포 앞 섬들로 둘러싸인 바다가 맑은 호수와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청호시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지만 도로를 점유하고 있기에 언젠가는 이전을 해야 하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다. 청호시장 상인들은 자발적으로 ‘1일 5,000원씩’ 적금운동을 했으며, 이 돈을 모아 새로운 이전장소를 물색하였다. 10년만인 1998년 청호시장 입점상인 100명은 11억 5천만 원을 출자해 (주)청호상인조합을 설립하고 대표로 김영기를 선출하였다. 조합은 신도청 이전과 하당신도심 중심상권으로의 부상이라는 미명 아래 석현동으로의 이전계획을 수립하였다. 또 공업단지로 묶여있는 석현동을 주거지구로 변경해 줄 것을 목포시에 요구하였다. 같은 해 12월 석현동 1171번지 8,265㎡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9,965㎡ 규모의 재래시장 건축에 들어갔다.⁰¹⁾ 공사 1년여 만인 1999년 10월 31일 오후 3시 청호시장 개장식이 성대하게 치러졌다. 1층은 기존의 청호시장 상인들과 일반 분양자들에게 분양하고, 2층은 대형마트로 운영할 계획이었다.⁰²⁾

순조로웠던 청호시장의 건설과 달리 청호시장으로의 입주와 관련하여 일부 상인들의 반발은 매우 거셌다. 100여 명은 청호시장으로의 이전을 계획했으나 나머지 상인들은 청호시장으로의 입점을

01) 연합뉴스, 1998. 12. 10. 「목포 청호, 자유시장 시 외곽 이전」.

02) 목포MBC, 1999. 10. 30. 「신축 청호시장 개장식 열려」.

거부하였다. 금전적 여력이 안 되거나 청호시장의 입지가 너무 외곽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청호시장으로 입주를 거부한 상인 100여 명은 1999년 11월 3일 목포시의 강압적인 철거에 집단시위를 벌였다.⁰³⁾ 목포시는 단전, 단수를 시행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으며, 상인들에게 9일 행정대집행을 단행하기로 결정하였다. 11월 11일 목포시는 공무원 200명과 경찰병력 2개 중대를 동원해 철거에 반대하는 상인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상가 40여 개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⁰⁴⁾ 하지만 상인들의 반발과 지속적인 노점으로 목포시의 행정력이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면서 청호시장은 ‘구’ 청호시장과 ‘신’ 청호시장으로 구분해 부르게 되었다.

새로 신축된 청호시장에는 156개의 점포가 마련되었다. (주)청호시장상인회 상인 100명이 하나씩의 점포를 가지게 되었으나, 57개의 점포가 공실이 되었다. 상인회 측은 일반상인들에게 분양을 하여 공실률을 낮추고자 노력했고, 이 때 한길주의 ‘청호수산’이 들어오게 되었다.

청호수산의 주인 한길주는 1955년 목포시 죽동에서 태어났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중학교를 중퇴한 후 먹고 살기 위해 이 일 저 일 안 해본 것이 없었다. 이 때 배운 것 중 하나가 수석을 감별하고 판매하는 것이었고, 이를 살려 1977년 수석 가게를 열게 되었다. 부동산 호황에 내부 장식품으로 수석이 잘 팔리던 시기도 있었으나 1980년대 후반 부동산이 침체되면서 수석의 판매가 급감했다. 경영난으로 결국 수석 가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생계유지를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할 때 수산물 관련 일을 하는 지인이 횃집을 추천하였다. 지인의 조언으로 한길주는 2호광장에 세를 얻어 횃집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상호는 청호수산으로 정했다. 1990년부터 시작한 청호수산은 장사가 초반에는 어려웠으나 점차 안정되었고, IMF의 위기 속에서도 굳건히 버티며 위기를 잘 헤쳐 나갔다. 1999년은 청호수산에 변화의 기점이었다. 석현동에 청호시장이 개장하면서 2호광장의 횃집을 닫고 청호시장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2. 한적한 풍경과 시장의 위기

우여곡절로 청호시장이 새롭게 출발하기는 했으나 극복해야 될 난관은 한 두 개가 아니었다. 가장 큰 애로사항은 청호시장의 위치였다. 이전 당시에는 하당 신도심이 한참 개발 중이었기에 석현동으로 이전할 경우 향후 시장이 크게 발전할 수 있다는 혜안이 있었다. 그러나 1999년 이전 당시는 유동인구가 거의 없는 곳이었다.

03) 목포MBC, 1999. 11. 03. 「청호시장 상인 목포시의 철거방침에 반발」.

04) 목포MBC, 1999. 11. 11. 「청호시장 점포 철거 단행」.

“그때만 해도 여기가 뽕밭, 허허벌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목포의 외곽으로 인적이 드문 곳이었는 데, 반대하는 상인들이 많았습니다.”(조명윤, 청호시장 상인회 사무장)

한길주는 청호시장에 처음 입주할 당시의 풍경에 대해 허허벌판이며, 방앗간, 정미소가 많았다고 기억했다. 아마도 시골같이 한적한 곳이었다는 뜻일 것이다. 청호시장 상인회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는 조명윤 또한 허허벌판이며 뽕밭이었다고 말했다. 그만큼 아무런 기반시설이 없었다는 것일 것이다. 당시 목포는 하당이 개발 중에 있었으나 석현동은 공업단지로서 말 그대로 허허벌판이었다. 또 당시 목포시민들의 심리적 경계선은 목포버스터미널이었고, 청호시장은 대중교통도 없는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외진 곳으로 이전하면서 사람들의 발걸음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입점한 상인들의 매출도 톱 떨어졌다. 첫 입주 당시 청호시장에는 구 청호시장부터 함께했던 50, 60대의 상인들이 많았다. 그러나 구 청호시장에 있을 때에 비해 매출이 줄어들면서 상인들은 청호시장을 이탈하기 시작했다.

청호시장의 위기는 청호수산에도 마찬가지였다. 2호광장에서 청호시장으로 옮길 적에 여유자금에 부족해 활어회와 술을 판매하는 매장을 갖추지 못했다. 오로지 수산물만을 팔고, 포장회만을 팔아야 했다. 매출이 줄어든 것은 당연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해야 했다. 이러한 위기에도 한길주는 꺾이지 버텼다. 좋은 수산물을 사다가 놓으면 손님들이 찾을 것이고, 발로 뛰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2호광장의 횡집 시절에 비해 이곳으로 이전한 초반에는 매출이 많이 급감했습니다. 전체가 장사가 안 되니 다들 힘들었습니다. …… 전에는 완도, 마량으로 직접 다니는데, 목포어판장 생선 이후로 그쪽을 통하고, 지금은 유통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그분들이 가져다줍니다. 전에는 제가 직접 다녔습니다. 보통 6시 반, 7시에 강진 마량어판장으로 갑니다. 50분에서 한 시간 정도 걸립니다. 거기서 사서 오지요. 처음에는 고기를 보는 안목이 없었습니다. 철에 따라 가을에는 전어, 등등을 철따라 떼다가 판매하고는 했습니다.”

한길주는 매일 새벽 5시경 상가 문을 열면 상가를 깨끗이 하고 수족관을 청소했다. 6시경이 되면 가게의 남은 일은 아내 고현자에게 맡기고 강진 마량어판장이나 완도어판장으로 생선을 사러 갔다. 초기에는 좋은 생선을 보는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제철생선을 위주로 샀으며,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강진이나 완도에서 생선을 사서 청호시장으로 돌아오면 점심 무렵이었다. 점심을 먹고 생선을 손질해 팔았으며, 8시경 문을 닫았다. 영암군 삼호면에서 출퇴근하던 시기였으니 고단한 하루가



그림 1 청호수산물(2017)

계속되었으나, 그럼에도 좋아질 날을 기약하며 버티고 버텼다.

3. 시장의 변화와 청호수산의 발전

청호시장이 성장하게 된 하나의 변곡점은 2001년이다. 2001년 목포시는 공업단지로 묶여 있던 석현동을 주거지구로 용도 변경했다. 해당 신도심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아파트단지가 속속 들어서기 시작했고, 아파트단지 건설 바람은 주거지구로 변경된 석현동으로 확대되었다. 광명주택이 청호시장의 동편에 아파트 건설을 시작했고 2002년 10월 총 360세대의 광명샤인빌 아파트가 들어섰다. 이어 청호시장의 서남편에 케이디건설이 아파트건설을 시작했고 2007년 7월 386세대의 KD빌리앙뜨가 세워졌다. 이밖에도 청호시장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10여 개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청호시장은 손님으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이 시기 청호시장은 대대적인 변화를 시도하였다. 1층은 수산물 전문시장으로 변화를 꾀하였다. 구 자유시장에서 이곳으로 이전할 당시에도 수산물 판매 점포가 많았다. 여기서 더 나아가 상인회를 중심으로 산지직송을 통해 수산물 시장으로 변모했고, 품질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했다. 한편 청호시장 2층은 애초에 대형마트를 분양할 계획이었으나 그 과정은 지지부진하였고, 결



그림 2 청호시장(2017)

국 대형마트 입점 계획은 철회되었다. 하당과 석현동에 아파트단지가 속속 건설되기 시작하고, 시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하자 이들을 겨냥해 2층은 2001년 전남에서 제일 큰 가구점인 장터가구백화점이 들어서면서 청호가구프라자·백화점으로 전환하였다.

‘허허벌판’이었던 청호시장 주변은 상전벽해가 이루어졌다. 청호수산물도 손님으로 북적였다. 청호시장의 입구에 위치한 덕에 청호수산은 손님들로 붐볐고, 매출도 청호시장 초기에 비해 오르기 시작했다. 한길주는 전과 다름없이 강진 마량, 완도어판장으로 생선을 사러 다녔으며, 힘은 들어도 콧소리가 절로 나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위기가 시작되었다. 현대화된 시설, 깨끗한 시설을 앞세워 대형마트들이 속속 세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2002년 청호시장의 10분 거리에 이마트가 건설되었고, 2003년 평화광장에 롯데마트, 2008년 3호광장에 홈플러스가 세워졌다. 편리한 시설과 다양한 상품에 매료된 목포 시민들은 대형마트로 향했다. 그나마 수산물 전문시장으로의 변화가 주효해 수산물 점포의 타격은 덜했으나, 다른 점포들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마트가 생기고 나서 타격은?] 타격은 있죠. 근데 수산물은 타격이 덜합니다. 전체적으로 매출은 한 30% 줄었으나, 수산물 상점이 많다보니 우리는 다른 시장에 비해 타격이 적은 편이지요. 대형



그림 3 청호시장 1층 전경



그림 4 청호시장 2층 전경

마트가 많이 생기면서 많이 힘들지요. 마트에서 파는 물건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업종을 바꿨지요. 예를 들어 채소 파시던 분들이 반찬집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해산물 파는 가게로 업종을 변경한 다던지. 해산물로 변경한 상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벤트 행사나 광고 등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가수를 부르기도 하고 호남방송 같은 데에 광고도 많이 실었습니다.”(조명운, 청호시장 상인회 사무장)

대형마트가 입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형마트로 향했고, 청호시장엔 위기였다. 시장의 매출은 전에 비해 30%나 급감했다.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시장 자체의 경쟁력을 키워야 했다. 2007년 시장건물 내 16개 출입문을 모두 자동문으로 바뀌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문을 여닫는 것이 불편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동시에 여름과 겨울철 적정한 실내온도를 유지해 시민들이 편하게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었다. 또 목포시 지원으로 18억 원을 투입하여 1층 27면, 2층 32면, 총 59면 규모의 주차장 시설을 완비해 손님들이 편히 올 수 있도록 했다.

외적인 변화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상인들 차원에서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먼저 이마트와는 차별화해야 했고, 시장이 가지는 장점을 적극 활용해야 했다. 상인들의 정확한 안목으로 직접 구입한 생선들은 손님들에게 안전하게 싸게 판매할 수 있었다. 안전하고 싸게 판매하는 생선은 이마트와는 차별화 된, 시장만의 장점을 적극 활용한 상품으로 목포의 대표적인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다.

더불어 상인들은 원산지 표기 잘하기, 통로 잘지키기 운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하였

다. 2008년부터는 매장마다 신용카드 단말기를 구비해 소액이라도 결제할 수 있도록 계도했고 상인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나 광고 등을 통해 청호시장의 이러한 이미지를 전남 전역으로 홍보하기 시작했다.

청호수산의 한길주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믿을 수 있는 수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원산지 표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2008년경 신용카드 단말기도 매입해 소액이라도 결제해 줬다. 이러한 노력으로 청호수산은 청호시장에서도 으뜸가는 매장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4. 상인회 회장에 취임

가장 호황이던 시기가 언제냐 물었을 때 한길주는 2008년을 꼽았다. 수산물은 청호시장이라는 인식이 정립되면서 시민들이 많이 몰렸다. 또 하당이 확대되고 발전하면서 늘어난 음식점에 수산물을 납품하면서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 그는 그 때를 회상하면 가장 바쁘게 움직였지만 웃음도 가장 많았던 시기라 회상했다.

오랫동안 상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유대감을 쌓은 한길주는 2013년 회장 선거에 도전했고 6월 3년 임기의 회장에 선출되었다. 청호시장이 있었기에 지금의 한길주가 있을 수 있었고, 다시 상인들에게 보답하는 것만이 봉사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상인회 회장으로서 열심히 활동했으며, 그 수고를 인정받아 2017년 6월에 다시 연임되었다.

상인회 회장으로서도 바쁘게 활동하지만 그렇다고 그의 본분을 저버리는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5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수족관을 청소한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2010년부터 중매인으로부터 수산물을 직접 받는다는 것이다. 직접 수산물을 사러가는 수고로움도 줄어들고, 아내와 하루 장사를 준비하며 고객들에게 좋은 물건을 값싸게 드릴 수 있어 행복하다고 했다.

이유리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제3절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만든 사람이 모두 이익이 되는 곳

-삼익모직-

1. 삼익모직의 주인 김규백



그림 1 김규백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말까지, 목포 남교동거리는 다양한 직물 가게와 양복점, 양장점으로 성황을 이뤘다. 기성복이 없던 시절이었다. 옷감을 끊어 옷을 맞춰 입는 일이 당연했고, 사람들은 좋은 소재와 저렴한 옷감을 고르기 위해 발품을 팔았다. 기성복의 홍수, 구도심의 쇠락 속에서 그 많던 직물 가게들은 모두들 어딘가로 자취를 감춰버렸다. 아직도 남교동거리를 곳곳하게 지키고 있는 단 하나의 직물 가게, 바로 삼익모직에 대한 이야기다.

삼익모직을 운영하고 있는 김규백은 1934년생으로 올해 84세다. 고향은 전남 강진군 병영면 상낙리이며 2남 2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김규백은 유년시절의 일제 통치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소학교에서는 동 기간에도 한국말을 쓰지 못하게 했고, 일본말로 수업을 했다. 그 기억 때문인지 아직도 ‘소테스까’, ‘하야꾸’ 등 간단한 일본말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5학년을 다니던 중에 해방이 되었다. 나라를 되찾은 기쁨과는 별개로 가정살림은 늘 팍팍하기만 했다. 어려운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17세 무렵부터는 5일장에 다니며 장사를 했다.

2. 목포의 양품점에서 직물을 배우다

김규백이 처음 목포에 온 때는 1962년이였다. 29세의 나이로 혼자 목포로 나왔다. 육촌 친척집에 머물며 비누를 만드는 원료를 납품하는 일을 잠깐 배웠다. 당시 목포에 비누공장이 2~3곳 있었다. 부산이나 대구 등지에서 유채기름이 오면 이를 비누공장에 납품하고 도매로 넘기는 일을 했다. 그러다가 남교동에 위치한 양품점에 취직하여 직물과 양장기술 등을 배웠다. 가게에는 김규백을 포함한 직공 두 명이 있었다. 그때의 배움이 지금까지 모직가게를 운영하게 한 동력이 되었다. 김규백이 처

음 취직한 양품점은 양장과 한복을 겸하여 운영하는 곳이었다.

“그때는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그 옷가게들이 양품점 하나가 있었지 없었다고. 그때 당시 60년 말까지는 옷가게가 없었어. 양품점 하나가 저 밑에 있었지. 옷하고 화장품하고 다 합해서 있는 곳. 의류부터 화장품, 소모품 다 취급해서 양품점. 그때는 남자, 여자옷 같은 것 섞여서 있었지. 그 가게에 초기였어, 60년 말에. 그때 나 목포 들와서 보니까 그 양품점 혼자 있고 옷가게들은 없었다고. 천가게도 없었는데 그때는 한복점이 한 서너 군데 있었을까? 한복이라는 것도 여성복인데.”

1960년대 초는 목포에 직물 가게나 양장점이 희귀했다. 1960년대 말~1970년대 초부터 우후죽순으로 원단 가게가 들어서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호황기를 맞았다. 양품점에서 1년 간 기술을 배운 후에는 남공동 끝자락에 작은 직물 가게를 냈다. 1년간의 경험에 의해 본인이 이 분야에 소질이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원단 장사를 하는 일이 비누 원료를 대는 일보다 훨씬 신선하게 보였고, 장사가 아주 잘 되었기에 빨리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목포에는 고급 일자리보다는 몸을 쓰는 고된 노동일자리가 많았다. 가난과 노동이 싫었던 청년은 그렇게 목포에 ‘삼익모직’이라는 가게를 열었다. ‘삼익모직’은 김규백이 고심하여 직접 지은 이름이다. 삼익(三益),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기른 사람 모두가 서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가게라는 뜻이다. 뒤에 직물이나 원단 등의 말보다 모직(毛織)이라는 글자를 붙인 데도 이유가 있다. 모직은 화학섬유나 혼방섬유보다 더 따뜻하고 고급에 속하는 원단이다. 가게는 임대료 문제로 38년 전에 현재의 자리로 옮겨 운영하고 있다.

“간판인 삼익은 내가 소관해서 한 것인데, 사는 사람, 파는 사람, 기른 사람 삼위일체가 되가지고 서로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런 뜻에서 내가 그때, 어디서 지어온 것이 아니라 내가 발판해가지고 지은 것이예요. 모직은 직물이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땐 직물이고 모직은 좀, 털 모(毛)를 써갖고 얼릉 얘기해서 물에 담그면은 오그라져버린 것은 모직이라 부르고. 화학섬유는 물에 담가도 안 오그라지고. 그랑게 모직이다 그라든 얼릉 칭호를 고급화해서 하는 말이제. 모직.”

3. 옷을 지어 입기 위해 가게를 찾던 사람들

김규백은 31세에 10살 연하의 부인을 만나 혼인했다. 혼인 후에는 부인과 함께 가게를 운영했지만, 가게에 손님의 발길이 끊어진 지금은 김규백 혼자 가게 문을 연다. 김규백이 현재의 위치에서 가게를 다시 열 당시에는 적게 잡아도 열두 곳이 넘는 직물 가게, 양장점, 양복점들이 있었다. 가게마

다 취급하는 원단이 다르기에 인근에 위치한 양복·양장점에서 물건을 사러 가게를 드나들었다. 가게를 찾는 주된 소비층은 일반 가정주부들이었다. 서민들과 중산층이 많았다. 남편과 자신의 옷을 만들기 위해 직접 원단을 사러 오곤 했다. 천을 직접 구입한 후 맞춤집에 가서 수공임비만 주고 옷을 맞추면 가격이 훨씬 저렴했다. 또한 일반 양장점이나 양복점에서는 원단 가게가 지닌 천보다 더 많은 종류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 직접 원단을 구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공임비를 포함한 옷의 가격이 10배 이상 차이나는 경우도 있었다. 당시 가장 많이 팔리던 원단은 혼방원단이었다. 비싼 모직보다는 8,000~15,000원 정도의 혼방원단이 가장 인기가 좋았다. 기성복에는 맞춤복보다 고급원단이 없었다. 맞춤복을 선호하는 사람은 원단 가게에서 재질을 살펴보고 그 원단을 가져다가 옷을 맞춰 입었다.

4. 남교동의 마지막 직물 가게, 목포에서 이룬 삶의 결실

직물 가게는 시작도 쉽지 않지만 정리는 더더욱 어려운 업이다. 수북이 쌓인 원단을 쉽게 정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삼익모직’은 과거의 명성만을 남긴 채 손님들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다. 더 이상 수요가 없기에 새로운 원단을 떼러 서울에 간지도 5년이 넘었다. 가게는 정리단계에 접어들었다. 50년이 넘게 남교동을 지켜 온 마지막 직물가게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 한때는 멋쟁이들의 발걸음이 멈추던 곳, 어느 누군가는 시집가는 딸에게 좋은 옷을 해 입히고자, 또 어느 누군가는 남편의 닳아진 소매 끝을 생각하며 들어서던 곳이다. 수십 년 간을 마주보는 자리에 위치해 있던 원단 가게는 남교시장이 정리되고 트윈스타빌딩이 들어서며 보상금을 받고 가게를 정리했다. 지금은 몇 남은 주단 가게들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김규백에게 목포는 성공의 땅이다. 강진 병영은 살기는 좋았지만 삶에 있어서는 실패한 곳이다. 새로운 인생을 찾아 도시로 떠나왔고, 낯선 도시에 정을 붙이며 살다보니 어느새 반 백년의 세월을 함께했다. 모두에게 이로운 가게가 되고자 호기롭게 시작했던 가게는 어느새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다. 남교동의 멋들어진 호황기를 품은 채 ‘삼익모직’은 오늘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이유리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그림 2 남교동에 위치한 삼익모직. 함께 장사했던 상인들은 대부분 이 곳을 떠나고 없다.

제4절 서울의 양복기술을 목포에 전파하다

-신동아양복점-

1. 신동아양복점의 주인 김종기



그림 1 김종기

트윈스타빌딩 앞 남교동 도로에는 유난히 직물점, 양복점, 주단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과거에 물산과 패션을 주도했던, 가장 잘 나갔던 길목임을 자랑하는 가게들이 혼잡처럼 세워져 있다. 남교시장(현 중앙식료시장) 앞에 있던 시민회관에 목포예총이 들어서며 수많은 예술인과 멋쟁이들이 다양한 예술 활동을 펼쳤던 곳이 바로 코앞이다. 항구와 가까워 인근 섬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와 직

접 옷을 맞추는 이들도 많았다. 기성복에 밀려 맞춤양복사업이 쇠락의 길을 걷고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을 즈음에도 남교동에는 여전히 성업 중인 곳이 몇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남교동 107-41번지에 위치한 '신동아양복점'이다.

신동아양복점을 운영하는 김종기는 1955년생으로 목포에서 태어났다. 모친은 신안군 압해도가 고향이고 부친은 무안군 망운면이 텃자리다. 각기 고향에서 나와 목포에서 살다가 중매로 결혼하였다고 들었다. 4남 2녀 중 김종기가 장남이다. 부친은 6·25 참전용사였다. 전쟁 중 허벅지에 총상을 입었고, 그 후유증으로 힘든 일은 어려웠다. 김종기는 장남으로서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이 되어 일찍이 학교를 다니기보다는 돈 버는 일을 택했다. 목포에서 얼마간 살다가 가족이 모두 압해도로 이주하여 농사를 지었다. 압해도에 있던 모친 뒤편의 작은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동생들 뒷바라지를 하였다.

2. 압해도에서 농사짓던 청년, 양복 기술을 배우다

김종기가 다시 목포로 온 것은 1970년대 초반이었다. 17세 무렵이 되자 농사를 동생들에게 맡기

고 목포로 기술을 배우러 왔다. 당시 목포에는 양복점이 많았다. 골목길 사이사이에도 양복점 혹은 양장점 간판을 건 가게들이 많았다. 당시에는 기성복이 많지도 않았거니와 맞춤보다 호응을 얻지 못했다. 김종기는 남교동에 위치한 양복점에서 맞춤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당시 그 양복점에 견습생은 5명 정도가 있었다. 당시 5명의 견습생을 둔 양복점은 흔했고, 오히려 견습생 수가 매우 적은 편에 속했다. 꿈과 기술을 좇아 무안이나 신안 등지에서 찾아든 청년들도 많았다. 그만큼 목포의 양복업체가 매우 활발했다는 뜻이다.

“저는 이것저것 기술을 배웠죠. 이 양복일을. 목포에서 잠깐 배우다가, 목포에선 배워서 별 기능을 발휘를 못해요. 그래서 서울서 다들 보면 배우고 와요. 당시에는 양복점이 많았죠. 실제로 골목까지도 다 있고 그랬죠. 옛날엔 다 그랬죠. 70년대죠. 초반이나 되겠네요. 목포에 직물과 양복이 흔할 때죠. 그때는 흔했죠. 그거는 기성복이 없어서. 기성복이 이렇게 잘 안됐제. 만들어 나와봤자 손님들의 호응을 못 얻고 맞춤을 많이 선호했죠.”

목포에서 양복기술을 1년 정도 배웠더니 서울에서 양복가게를 운영하는 외사촌형님이 서울에서 한번 일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해왔다. 똑같은 기술이라도 서울에서 배워 일하는 것이 다르다는 이유에서였다. 그 말을 믿고 김종기는 곧바로 서울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서울에서는 기술자 겸 견습생으로 일했다. 목포에서 배운 기술을 토대로 일을 하되 새로운 기술들을 보강하며 배우는 식이었다. 당시 김종기와 같은 신분의 직원이 한 명 더 있었다. 양복은 바지와 조끼, 상의(저고리), 코트 순으로 배운다. 재단은 이와 별개이다. 그 작업방식을 배우는 것이다. 과거에는 양복기술을 배우지 않고 재단만 배워 재단사로만 활동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다. 양복은 섬세하지만 단순하다. 시간을 비교해 보면 남자 상의를 하나 만들 시간에 여성 양장은 세 개 정도 끝낼 수 있다. 남성 양복은 모든 것을 손바느질로 진행한다. 일을 배우던 선배들이 하던 말 중 유명한 말이 있다. 저고리 하나 끝나면 바느질이 몇 만 번이라는 말이다. 미싱으로 폭을 박고 큰 틀을 짠 다음 손바느질로 옷을 하나하나 만든다. 그렇게 몇 년간 일을 하다보니 군대 영장이 발부되었다. 21세에 압해도로 내려와 군 복무를 마치고 서울로 다시 돌아왔다.

3. 호주로의 이민을 포기하고 다시 목포로

군 복무를 마치자 외사촌형이 자신의 가게에서 정식으로 일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서울의 중심지에 위치한 양복점이었다. 그리고 27세가 되던 해에 목포로 내려와 본인만의 가게를 열게 된

다. 서울에서 잘 지내던 김종기가 갑작스럽게 목포로 내려온 데는 계기가 있었다. 당시 서울양복협회 이사가 김종기에게 호주로의 이민을 추천하였다. 기술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해외로 초청받아 가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1980년대 호주는 해마다 많은 외국인들의 이민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평소 김종기를 눈여겨 보던 협회 이사가 보다 더 나은 조건에서의 작업을 위해 권유한 것이다. 양복기술업자로 이민을 가기 위해서는 3개월의 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미 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본인인 다시 무언가 교육을 받는다는 것에 거부감이 들었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사는 것이 힘이 들 것 같았다. 더욱이 집에는 부인과 아이도 있었다. 결국 김종기는 이민을 포기하고 목포로 내려와 남교동에 가게를 차렸다.

“그때 당시 내가 협회 이사가 외국(호주)을 가라고 추천하였는데, 간다고 하고 가지 않고, 에이 목포 가서 양복점하면 그것 못 별라디야 하고 내려왔죠. 간다고는 했는데 3개월 교육받으란게 그거 반기 싫은게 안 가브렸어. 젊은 마음에. 그 당시에 또 우리나라 일하고 그 나라 일은 수준이 틀리죠. 내가 신사복을 하면, 신사복 집을 가면 비슷하게 맞아가는데 신사복집이 아닌 맞춤집이 있잖소. 그런데서 불렀을 경우엔 우리가 일을 못하죠. 그니까 그 사람들 코드에 맞추기 위해서 일을 배워라 한 거 같아요. 근데 조금 두려움이 있었죠. 내가 예를 들어서 영어라도 잘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나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이민을 간다 하면 집사람하고 가야 하고.”

4. 서울 기술자, 남교동에 양복점을 차리다

남교동에 1981년 ‘동아양복점’을 개업했다. 당시에 큰 변화가이기도 했고 주변에 상권이 모여 있어 작업이 수월했다. 흔한 말로 상부상조가 가능했다. 당시 남교동 일대는 교통의 요지였다. 유동인구가 많고, 교통이 편리해 목포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안의 섬 주민들이나 무안, 강진 등지에서도 손님이 찾아왔다. 남교동은 목포의 심장이었다. 목포의 심장에 자리 잡은 동아양복점은 후일 임대료 문제로 가게를 몇 차례 옮기며 ‘신동아양복점’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별다른 시장 조사 없이 서울에서 막 내려와 가게를 냈기 때문에 같은 이름의 양복점이 있는 줄 몰랐다. 전화번호부를 보니 동아양복점이라는 가게가 버젓이 있었다. 이에 새로운 신(新)을 붙여 신동아양복점이라고 개칭하였다.

가게는 신안군에서 온 사람들이 주로 찾았다. 한 사람이 옷을 맞춰 섬으로 돌아가면 금방 입소문이 나 손님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왔다. 맞춤복의 편안함은 몸을 많이 쓰는 섬 사람들에게 널리 퍼졌다.

“사람을 알다보니까 연비 연비로 오고. 또 맞춤을 선호한 사람은 선호하고 그래요. 아무래도 뭐가



그림 2 신동아양복점의 작업장 1



그림 3 신동아양복점의 작업장 2

있냐면은 몸이 인자, 시골에서 일 한 사람들은 체형이 다양해요. 아무래도 일을 하다보면은 기성복이 덜 맞아요. 그럴 것 아니요. 어디가 틀어졌든 틀어지고 그리고 또 맞추면 옷이 편합니다. 기성복보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또 오래입고. 기성복은 거의 식으로만 붙여서 해버리고 우리는 손바느질을 하기 때문에 기성복은 드라이가 들어가면 덜렁덜렁 하는 막 힘이 없는데, 오히려 맞춤은 드라이가 들어가면 옷이 더 완곡하게 나옵니다. 더 부드럽게 나와요. 속에 심이 들어가니까, 손바느질로 다 뜨기 때문에. 우리는 또 사람이 적지만 우리가 더 섬세하게 하죠.”

5. 서울과 다른 목포 사람들의 양복 스타일

직접 양복점을 운영해보니, 서울과 목포는 옷을 맞추는 스타일이 달랐다. 세련된 고급 기술을 배웠

다고 생각했지만, 옷을 만드는 기술자가 아닌 실제 옷을 입는 고객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중요했다. 당시 목포 사람들은 질보다는 양을 선호했다. 타이트한 핏 보다는 활동하기에 편한 라인을 중요시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러한 현상이 뒤바뀌었다. 요즘에는 시골에서 오는 사람일수록 더 비싼 고급 원단을 추구한다. 옷을 맞추는 일에는 기술이 우선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눈치도 빨라야 한다. 손님이 어떤 스타일의 옷을 좋아하는지 어느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는지 빨리 캐치하여 다듬어 주어야 한다. 대화를 통해 스타일을 알아낼 때도 있고 가봉한 옷과 몸을 맞춰보며 찾아낼 때도 있다. 양복은 가봉 이후부터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한번 맞춤 때 완벽을 기하여 제품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기술자로서의 고뇌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슬하의 두 아들들에게도 직업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 직업이 쉽지 않습니다. 옷을 맞춰 놓으면은, 옷 맞춤 때는 사람이 진짜 기분 좋아요. 가봉까지는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다시 옷 제작하면 긴장 속에 삽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모르니까 무서움을 모르고 일을 해요.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것이 기술입니다. 알기 때문예요. 더 잘 맞아야 하니까 그 욕심이 있죠. 그래서 참 힘든 직업이 이 직업이다 생각하고. 손님들 기분 좋게 맞춰나가면 내 기분도 좋고. 찻찻하면 하루 종일 내 기분도 안 좋아요. 그래서 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남 보기에 깨끗할 것 같고 편할 것 같아도. 우리 신사복은 좀 예민해요.”

6. 성업했던 신동아양복점의 역사

흔히 알고 있는 양복점과 맞춤집은 확연히 다른 성격을 띤다. 신동아양복점처럼 양복을 전문으로 맞추는 곳은 신사복집으로 분류하고 단체복과 작업복, 유니폼 등을 맞추는 곳을 맞춤집이라고 한다. 양복점에서는 주로 남성 양복바지와 조끼, 자켓을 만든다. 맞춤양복점에는 주로 ‘멋 좀 부릴 줄 아는 사람들’이 찾아온다. 본인의 스타일이 확고하여 기성복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기성복보다 비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보다는 소위 상류층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다.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목포의 유명한 정치인이나 회장님 등이 주 단골이다. 상류층이 주된 손님이기 때문에 경기를 딱히 타지는 않는다. 양복점이 가장 활발했을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IMF 때였다. 모두들 살기가 힘들다고 했지만 양복점은 딱히 어려움을 몰랐다.

“오히려 IMF때 일을 우리는 더 했어요. 그거 이상하죠. 그렇게 그것이 뿔이나면은, 그것을 분석을 해보면 그때 당시 IMF때 카드가 생겼잖소. 그래서 장사한 사람들, 다 큰 도시는 지장을 봤다하는가



그림 4 신동아양복점의 오래된 마네킹. 한때는 이 마네킹에 걸쳐놓은 양복 상의가 수십 벌이었다.

몰라도 목포 같은 데는 여그나 저그나 IMF를 모르고 살았어요, 우리 상인들은. 오히려 우리는 더 잘 됐어요. 카드 갖고 쓰니까. 먼저 쓰고 그런 것이라. 나중엔 어떻게 될랑가 모르겠소만은. 상류층은 오히려 카드를 쓰지도 않으니까.”

4년 전까지만 해도 작은 양복점에서 네 사람이 함께 일했다. 기능공 2명을 두고 부인도 함께 나와 일했지만 물량이 너무 많아 늘 새벽까지 잔업을 해야 했다. 그마저도 시간이 부족하여 상의만 작업하고 하의는 다른 곳에 하청을 주었다. 부인은 양복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은 없으나 일할 때 가장 필요한 제자다. 작업의 순서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준비를 해 준다. 그러나 반드시 김종기의 손길을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소매 부분이다. 양복은 소매와 팔이 가장 중요하다. 서울에서 가장 마지막에 배운 기술도 바로 그것이다. 옷을 입었을 때 팔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바느질이 울지 않아야

한다. 앞부분과 뒷부분 모두 단정하게 떨어지는 작업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양복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소재보다는 기술이 더 중요하다. 같은 소재를 쓰더라도 신체의 부위에 따라서, 옷을 입는 사람의 습관에 의해 더 빨리 헤지거나 틀어지는 부분이 있다. 바느질을 할 때나 다리미질을 할 때, 당겨줄 부분은 당겨주고 적당한 느낌을 줄 곳은 풀어줄 필요가 있다. 아무리 좋은 소재의 옷도 바느질을 잘 못하면 버리는 옷이 된다. 고가의 소재일수록 기능장들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7. 남교동 거리를 지키는 양복점

가게를 찾는 손님들 중에는 대를 이어 오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 결혼예복을 전문으로 하기에 아버지가 주로 다니다가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예복을 맞춰주기 위해 찾는 경우다. 가게를 찾는 연령대는 주로 60대 이상이지만 최근에는 의외로 20대도 찾아온다. 오랜 시간동안 한 자리를 지켜왔지만, 신동아양복점을 제외한 동네의 다른 곳들은 너무도 많이 바뀌어버렸다. 남교시장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높은 빌딩이 들어섰다. 매일 정겹게 인사하던 맞은편 가게들은 시멘트가루가 되어버렸고 과거의 영광을 나누던 양복점들은 각자 저마다의 이유로 하나 둘씩 문을 닫고 있다. 트윈스타빌딩이 들어설 때 김종기도 가게 문을 닫으려 했지만 단골손님들의 만류로 아직까지 지속하고 있다.

압해도에서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농사를 짓던 소년은 세련된 기술을 지닌 47년 전통의 전문양복사가 되었다. 목포의 맞춤양복점들이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것과 반대로 신동아양복점은 여전히 많은 단골을 확보하여 건재함을 자랑한다. 양복점 쇼윈도 안의 마네킹 목에 걸려있는 낡은 출자만큼이나 세월은 쌓여 갔지만, 목포의 멋쟁이들과 함께 한 양복점의 역사는 가게 곳곳에 흔적을 남긴 채 지속되고 있다.

이유리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제5절 남교동을 지켜온 양화점의 역사

-모던양화점-

1. 모던양화점의 주인 이균의

목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길을 따라 쪽 걷다보면 엄청난 높이와 크기를 자랑하는 트윈스타빌딩을 마주하게 된다. 현대적이면서 세련된 위용의 빌딩과는 달리 주변의 건물들은 소박한 저층건물들이다. 건물을 지나쳐 직진으로 걷다보면 색이 바랜 듯 옅은 노란빛의 간판을 단 양화점이 하나 있다. 해가 짙어진 한낮에 가게를 들여다보노라면 내부가 온통 흰 천으로 둘러싸여 무엇을 파는 곳인지 판단이 잘 서지 않기도 한다. 행여 귀한 신발들이 햇빛에 제 색을 잃을까 염려한 주인의 비상조치다. 59년 경력의 주인이 직접 신발을 만드는 곳, 남교동의 모던양화점이다.

모던양화점을 운영하는 이균의는 1941년에 영암군 학산면 용산리의 작은 농가에서 6남 2녀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8세에 학산국민학교를 입학하였고 졸업 후에는 시골에서 집안 농사를 도왔다. 건강하고 숙련된 형님들에 비해 농사일이 서툴렀던 이균의는 산에서 나무를 베어오거나 소에게 풀을 먹이는 일을 주로 했다.

목포로 이주하게 된 것은 17세 때의 일이었다. 당시 목포를 왕래하던 친형님의 친구가 어린 나이에 시골에서 집안일을 돕고 있던 이균의의 젊음을 안타깝게 보고 목포행을 권유하였다. 친형님 또한 시골의 농사일은 자신이 담당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며 이균의를 안심시켰다. 한 살이라도 어린 동생이 도시에 나가 성공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이다. 이균의 역시 형님들의 말을 듣다보니 목포에만 가면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야간학교를 다니며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다른 친구들처럼 중학교에 가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한껏 마음이 부풀었다.

2. 영암 출신의 시골 청년, 양화기술을 배우다

그리하여 목포로 오게 된 이균의가 맨 처음 취직한 곳은 대성동에 위치한 한 우동집이었다. 우동집에서 일을 하면 먹는 것과 자는 것을 돈 들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별도의 뒷받침없이 타지에서 일을 병행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야간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당시 고급기술에 속하던 양화기술을 배우기 위해 양화점에 취업하였다.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 목포에서 가장 잘 나가는 고급기술로 5개를 꼽을 수 있었다. 바로 양복, 양장, 양화, 이발, 편물로 양화기술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기술이었다. 당시 이균의의 나이 19세였다.



그림 1 손님의 신발을 직접 수선하고 있는 이균의

“그 당시에 이런 게 있잖아. 나는 공부를 하러 왔는데, 공부는 도저히 할 수 없고 내가 기술을 배워가지고 뭇인가 내가 경제적인 뭇은 해야 쓰겠다 해서 그때 기술을 배웠는데. 당시에 와서 보든 뭇이 있어. 구두, 양복, 이발, 양장, 편물. 이런 게 주로 기술업이여, 우리 총각 때. 내가 어찌 이거를 봤나면은 그 당시에 5급 공무원 봉급에 비해서, 이원 기술자가 5급 공무원 3개월 월급을 벌여. 한 달에.”

이균의가 취직한 양화점은 ‘활신양화점’으로 현재 트윈스타 맞은편 점포 부근(현 아씨주단 자리)에 위치해 있던 곳이었다. 당시 목포에는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양화점의 수가 적었다. 남교동에는 활신양화점과 ‘금강양화점’이 나란히 위치해 있으면서 그

유행을 선도하였다. 목포에서 유명했던 모자상점인 ‘갑자옥모자점’ 부근에도 ‘경신양화점’이 있었다. 금강양화점의 주인은 만주에서 신발을 만드는 기술을 습득했고, 이균의가 일했던 활신양화점의 주인은 일본에서 그 기술을 배워 와 목포에 가게를 차렸다. 금강양화점과 활신양화점이 목포의 가장 원조 양화점이라 할 수 있는 곳이다. 1959년 활신양화점에는 이균의를 포함하여 4명 정도의 견습생이 있었다. 당시 시내의 양화점들은 대부분 4~5명의 견습생들을 거느리며 가게를 운영했다.

3. 도제식으로 운영되던 목포의 양화점들

기술을 배우는 과정은 녹록치 않았다. 전문 기술자가 되기까지는 3년의 수련과정이 필요했다. 기술자가 된 후 받는 보수는 다른 직업들에 비해 훨씬 높았지만, 기술을 배우는 3년 동안 스스로 밥 먹는 일을 해결해야 했다. 밝은 전망을 보고 뛰어난 젊은이 중 상당수가 스스로 식량을 가져다 먹는 일을 해결하지 못해 중도 포기를 했다. 우르르 들어왔다가 우르르 빠져나가기도 했다. 이균의 또한 고향에 손을 벌리지 못하는 처지에 수돗물로 배를 채우며 어렵게 생활을 이어나갔다. 양화점의 온갖 잡

일을 도맡아하며 일이 끝난 후에는 기술자의 아이들을 돌봐주거나 가정집의 물을 대신 길러다주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죽기 살기로 버틴 결과, 이균의를 기특하게 본 기술자의 배려로 1년이 채 되지 않아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신발을 만드는 기술을 습득하였다.

1960년대 초반 목포의 양화점은 도제식으로 운영되었다. 양화기술은 성별에 따라 각각 남화전문가와 여화전문가로 나뉘고 그 중에서도 다시 세부적으로 바닥전문가와 갑피전문가로 나뉜다. 때문에 한 사람의 기술로는 신발 한 켤레를 완성하지 못한다. 각 분야 전문가의 협업이 필요한 체제다. 그래서 바닥 기술을 가진 전문가가 양화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갑피전문가를 직원으로 들여야 했다. 기술자 밑에는 허드렛일을 하며 일을 배우는 견습생이 2~3명 있다. 이균의가 스승으로 삼은 이는 여화를 전문으로 신발의 바닥을 만드는 기술자였던 김기복이었다. 여화는 남화보다 더욱 더 섬세한 공정을 필요로 한다. 때문에 여화를 배운 사람은 남화를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처음부터 남화를 배운 사람들이 여화를 만들기는 어려웠다. 이균의는 배우는 과정은 까다롭지만 향후 전망이 더 밝은 여화기술을 배웠다.

당시 배웠던 기술을 쉽게 말하면 ‘①손빠빠→②창꼬매기→③창만들기→④골썩우기’ 순서로 언급할 수 있는데, 기술을 배울 때는 ①~④의 순서로 배우지만 실제로 신발을 만들 때는 기술자→견습생의 순서로 ④~①의 공정을 거친다. 기술의 습득만을 염두에 둘 경우에는 빠르면 1년만에도 배울 수 있지만, 신발을 만드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실습이다. 신발은 단순히 기술을 안다고 하여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손님의 발 모양을 보고 직접 치수를 잴 후 제 각각의 특성을 반영하여 발에 꼭 맞는 신발을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 과정이 익숙해지기까지 3년에서 많게는 5년까지도 걸린다. 기술을 배우는 시간보다 연수과정이 더 까다롭고 어려우며, 이 일을 익숙하게 해내지 않으면 기술자 취급을 받지 못한다.

“치수 맞추는 것이 정확해야 되잖아. 본 할 때 치수를 정확하게 맞춰야 돼. 가령 65에 볼이 양 사이즈가 있는디 뽕죽한 볼로 하면 아파서 못 신을 것 아니냐. 치수 맞추는 것이 쥔 어렵제. 볼 맞추는 과정이 어렵지. 아무리 돈 주고 맞춰도 신이 맞아야 신으지, 안 맞으면 못 신을 것 아니냐.”

4. 남교동에 가게를 내기까지, 그리고 결혼

이균의는 연수과정을 포함하여 3년 간 일을 배웠고, 이후 같은 가게에서 기술자로 3년을 일했다. 이후 실력 있는 기술자를 찾으러 목포에 온 해남 사람과 연이 닿아 해남 산이면으로 자리를 잠시 옮겼다. 그리고 다시 목포로 돌아와 서산동의 ‘금성양화점’에서 3년간 근무했다. 어느 정도 경력을 쌓



그림 2 가게 뒤편에 위치한 신발 작업장



그림 3 신발 작업장 내부

은 후에는 ‘내 가게를 차려 일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에 남교동에 셋집(현 트윈스타 버스정류장 부근)을 얻어 ‘모던양화점’이라는 간판을 걸고 장사를 시작했다. 때는 1969년, 이균의가 기술을 배운 지 꼭 10년만의 일이었다. ‘모던양화점’이라는 가게명은 당시 가게 내부 수리를 해주던 친한 동생의 추천으로 짓게 된 것이다. 새롭고 현대적이라는 의미로 ‘모던’이 좋겠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가게 이름을 지었다.

당시 남교동은 온갖 물산과 사람이 밀려드는 목포 최고의 변화가였고, 인근에 비슷한 부류의 가게들이 많아 입지조건이 좋았다. 옷을 맞추러 와서 더불어 신발을 맞추기도 했고, 물건을 사러 와 양화점 구경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남교동 변화가에 위치한 가게는 한편으로 이균의에게 실이 되기도 했다. 가게주인이 세를 올리거나 비워달라고 하면 어김없이 보따리를 싸야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다섯 번이나 가게를 옮기는 과정을 반복한 후에야 비로소 지금의 자리에 안착할 수 있었다.

“그때는 여기가 1위였당께 상권이. 그라고 지금 차 안 다니는 거리 있지? 거기는 내 양화점 할 때만 해도 전부 다 철물점, 전부 철물점이고 할머니들이 막걸리 파는 대포집이고 그래. 그라고 목공소고. 지금 차 안 다

니는 거리가. 나 양화점할 때 거기는 게임도 안 되었지. 양품점이나 하나나 있고는 지금 이 도로가 최고 변화가였지.”

지금의 부인과는 첫 가게를 내던 29세에 중매를 통해 만나 그 해에 결혼했다. 당시 부인의 나이 23세였다. 기술을 배우며 가게를 옮겨 다니는 바람에 결혼은 엄두가 나지 않아 비교적 늦은 나이에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 이균의가 가게 뒤편에 달린 작은 공장에서 신발을 만들고 있노라면 부인이 손님들을 응대하며 가게를 봐주었다. 슬하에는 1남 1녀를 두었으며 모두 결혼하여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다.

5. 목포 양화점 주인들의 모임, 화상회

이균의와 비슷한 시기에 기술을 배운 사람들은 1970년대에 들어서며 안정적으로 저마다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화상회’라는 모임을 결성하여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졌다. 양화를 취급한다 하여 ‘화상회’라는 이름을 지었다. 1974년부터 시작한 이 모임은 목포에서 양화점을 운영하는 주인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매달 14일에 모여 함께 점심식사를 하는 모임이다. 세월의 흐름과 시대의 변화로 양화점이 하나 둘씩 문을 닫고, 함께 알고 지낸 형님들이 돌아가시면서 모임에 나오는 수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화상회는 아직도 꾸준히 모임을 지속하고 있다. 비록 현업에서 은퇴하거나 양화점이 아닌 다른 일을 하더라도 오랜 기간 형제처럼 지낸 세월을 감히 끊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화상회 모임원 중 이균의와 비슷한 시기에 기술을 배워 아직까지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원로 양화점은 모던양화점을 포함하여 이제 단 두 곳뿐이다.

6. 목포 양화업계의 최번성기를 기억하다

이균의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약 15년간의 시간이 목포 양화점의 최번성기였다고 회고한다. 1980년대 중반에는 견습생을 포함하여 총 6~7명 정도의 직원들을 거느렸다. 모던양화점을 거쳐 간 견습생 중에는 직접 기술을 가르친 제자들도 3~4명 있다.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입만 해도 한 달에 300만 원을 훌쩍 넘었다. 그러나 이후 저렴한 값의 공산품이 화려한 디자인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점차 양화점에서 신발을 만들어 신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제자들은 밥벌이를 찾아 서울, 부산 등지로 떠나갔고 제 가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기술자들은 일반의 도시 노동자가 되기를 자처하며 직업을 바꾸었다. 그렇게 신는 사람과 만드는 사람이 모두 떠나며 내리막길을 걷게 된 양화점 사업은 2002년부터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는 업이 되었다.

요즈음 가게를 주로 찾는 사람들은 목포 사람들보다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더 많다. 목포 사람



그림 4 수선 중인 신발 너머로 이균의가 사용하는 작업도구들이 보인다.

들은 하당이나 남악 등 새롭게 조성된 상점거리에서 쇼핑을 즐기지만, 신안이나 영암, 해남, 무안 등 가까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오히려 익숙한 변화가인 구도심을 찾아온다. 가게를 찾는 손님들의 연령대를 짐작해보자면 이러한 손님의 편중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수십년 운영해 온 가게를 믿고 맞춤신발의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이다. 험하게 신어 망가진 신발도 이균의 손을 거치면 다시금 편안한 신발이 된다. 자신의 가게에서 파는 물건들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장사 철학 때문이다. 지금 가게에 전시된 물건들 중 30%정도만 직접 만든 것이고 나머지는 타지로 나가 일하고 있는 동료와 제자들에게 물건을 의뢰하여 받은 것들이다. 이제는 직접 신발을 만드는 일이 힘에 부치기 때문이다. 디자인과 치수 등을 고려하여 견본신발을 의뢰하고, 같은 디자인으로 맞춤신발을 요구하는 손님들은 직접 치수를 재서 본인의 발에 꼭 맞는 크기로 제작을 의뢰한다. 그러나 물건이 만들어져 내려온 이후에도 손님의 착화감에 따라 세부적인 부분을 수정하기까지는 이균의 손길이 꼭 필요하다. 견본 신발을 구입하고자 하는 손님들에게도 제각각 발의 모양에 따라 늘리고 줄이는 작업을 통해 편안한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 가게 뒤편에 위치한 작업장을 없앨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다. 얼마 전에는 300mm의 발을 가진 손님이 직접 맞춤신발을 의뢰하였는데, 이와 같이 특수한 작업은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않고 이균의가 직접 신발 밑창을 대는 작업부터 진행한다.

7. 앞으로 3년,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질 모던양화점

이균의는 앞으로 3년만 가게를 더 운영할 생각이다. 손님들이 점차 줄어들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본인의 체력으로 신발을 만드는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다. 이를 염두에 두고 얼마 전에는 아예 본가도 남교동으로 옮겨 이사를 왔다. 가게 문은 닫더라도 사람들과의 인연은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인생의 대부분을 남교동에서 보냈기에 이균의가 동네에 가지는 애착은 매우 특별하다. 목욕탕을 가거나 하다못해 국수 한 그릇을 사 먹더라도 내 동네, 내 아는 얼굴들이라야 마음이 편하다. 목포에서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많이 신발을 만들어 내던 모던양화점은 이제 곧 역사의 뒤편길로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다. 비록 가게의 흔적은 사라질지라도 오랜 시간 동안 목포 사람들의 발을 포근히 감싸주던 양화점의 기억은 계속될 것이다.

이유리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제6절 목포를 대표하는 맛집, 영란횃집

1. 목포의 대표음식, 민어

목포 하면 무엇이 떠오를까? 너무 많아 무엇 하나 쉽게 꼽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전국에서 단연코 최고라 할 수 있는 것은 목포의 해산물요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 목포의 해산물요리이며, 목포에서는 대표적인 먹거리 홍어삼합, 세발낙지, 민어회, 갈치조림, 꽃게무침을 목포 5미로 지정하여 홍보하고 있다. 최근에는 5미에 병어회, 준치무침, 아구탕(찜), 우럭간국을 더해 목포 9미로 확대해 목포의 해산물요리를 알리고 있다.

목포 9미 중 가장 으뜸을 꼽자면 민어회라 할 수 있다. 민어는 올라오면 바로 죽기 때문에 활어보다는 선어로 먹는 것이 맛있다. 잡은 즉시 피를 빼고 얼음에 저장한다. 생선이나 고기는 숙성하면 감칠맛을 내는 이노신산(Inosinic Acid)이 만들어지는데, 민어를 얼마나 숙성하느냐에 따라 민어회의 맛이 달라진다 할 수 있다. 민어의 숙성은 보통 이틀 정도를 하면 최고의 맛을 낸다고 하는데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숙성을 하느냐는 각각 음식점만의 노하우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숙성된 민어회는 고소한 지방과 단백질이 잘 어울리면서 멋진 맛을 내고, 부드럽게 씹히면서 깊은 여운을 남긴다.⁰¹⁾

민어가 목포의 대표음식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영란횃집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민어의 최대산지인 임자도에서 공수한 최상품의 민어를 회집만의 노하우로 숙성한다. 이렇게 숙성된 민어회는 목포 최고의 음식으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2. 영란횃집의 개업과 성장

영란횃집의 초대 사장인 김은초는 1930년 강진군 병영면에서 태어났으며, 해남 송지면의 박석규와 결혼했다. 박석규는 조기 등의 고기를 잡던 중선배 선주였다. 결혼 후 송지면에 살던 김은초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목포 동명동으로 이주하였다. 남편 박석규는 해남에 남아 중선배를 계속 몰았으며, 틈틈이 해남과 목포를 오갔다. 몸이 약했던 박석규는 이후 배에서 내려와 농사를 짓다가 4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목포로는 나왔으나 먹고 살 것이 부족했던 김은초는 1969년 동명동에 6평의 작고 허름한 가게 하나를 얻어 식당을 시작했다. 장사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 그녀는 세무서에 영업신고를 하러 갔고,

01) 『중앙일보』 2012. 08. 11. 「주영욱의 이야기가 있는 맛집〈1〉 민어회와 목포 '영란횃집」.

세무서 직원이 상호명은 무엇이나 물었을 때 생각해 놓은 이름이 없어 머뭇거렸다. 세무서 직원은 큰 딸인 박영란의 이름을 딴 영란횃집을 권유했고, 그녀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영란횃집이 시작되었다.

초창기 영란횃집에서 판매하던 것은 상어고기, 홍어고기, 동동주 등이었다. 흑산 홍어가 집산되는 목포에는 삭힌 홍어에 막걸리를 같이 먹는 홍탁이 목포의 대표 메뉴로 이미 유명세를 타고 있었다. 또 근처에 동명동어시장이 있어 상어나 홍어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여기에 그녀의 뛰어난 음식솜씨가 더해져 가게는 그러저럭 잘 운영되어 갔다. 이곳에서 4~5년 장사를 하다가 큰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인 1972~1973년경 만호동 1번지 골목으로 이사를 왔다.

만호동은 일제 강점기부터 목포의 중심지였으며, 해방 이후 1970년대에도 여전히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곳이었다. 또 구 일본영사관에 위치한 목포시청, 그 옆으로 목포우체국, 목포경찰서, 목포검찰청·법원이 자리잡고 있어 목포 행정의 중심적인 곳이었다. 유달초등학교 앞으로는 각 행정기관의 사택이 있어 공무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공간이었다.

“(처음 이사간 곳은) 조그만 6평 밖에는 안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6시, 7시만 되면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테이블은 방이 하나가 있고, 긴 간이의자 하나 있었어요. 많이 앉아야 방이나 홀이나 스무 명 정도, 사람은 많은데 자리가 적으니 손님들이 서로 무릎을 맞대고 쟁반을 무릎 위에 놓고 앉았어요.” (박영란)

가게는 방 하나에 간이의자 하나가 전부였지만 영란횃집은 언제나 손님으로 북적였다. 입소문이 나면서 당시 목포의 대표적인 기업인 행남사와 남양여망의 사장과 후에 목포시의료원장을 역임한 최태욱도 자주 찾는 단골이 되었고, 그들도 격 없이 무릎을 맞대고 쟁반을 무릎 위에 놓고 먹었다고 한다.

이렇게 입소문을 타면서 『한국일보』에서도 영란횃집을 소개하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우리 식당에 오면 세 번 놀라고 가는데 첫 번째가 집이 작고 허술해서 놀라고, 두 번째는 음식이 맛있어서 놀라고, 세 번째는 매운탕이 맛있어서 놀란다.”는 것이었다. 거기에 전어창젓과 송어 새끼인 모치젓도 독특한 젓갈로 소개가 되었다. 한국일보에 소개가 되면서 손님들은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늘어나는 손님을 감당할 수 없어 영란횃집은 이후 두 번의 이사를 더 하게 된다. 1975~1976년경 지금의 중앙횃집 옆에 있던 중국집으로 이사를 하였고, 이곳에서 몇 년간 장사를 계속하다 1982년 지금의 영란횃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상어, 홍어에 동동주, 막걸리를 팔면서 손님들은 많이 늘었다. 그러나 뜻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방 이후 식량난으로 밀주단속이 늘어났고, 1965년 양곡관리법이 제정 발표되면서 사사로이 막



그림 1 현재의 영란횃집

걸리를 빚는 밀주 행위가 금지되었다. 밀주행위가 전면 금지되었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몰래 빚는 것은 모두 단속할 수는 없었다. 김은초 역시 단속 속에서도 몰래 막걸리를 빚어 팔았다. 그러다 1980년 어느 날 밀주 단속에 걸려 경찰서에 잡혀 들어갔다. 꼬박 일주일을 유치장에서 보낸 후에야 풀려 나올 수 있었다. 1980년 5·18 이후였다고 한다.

경찰서에서 고초를 겪고 나온 그녀는 지금까지 장사해 온 메뉴를 과감히 접었다. 상어, 홍어고기와 막걸리를 파는 대신 민어를 팔기로 했다. 단골로 오던 수협 손님들의 조언 덕분에 메뉴의 전환은 빠를 수 있었다. 하지만 목포 통틀어 민어를 전문으로 파는 집은 하나도 없었기에 과감성도 필요했다. 당시에는 민어를 한 접시에 2천원에 팔았으며 매운탕은 공짜였다. 메뉴의 전환은 성공적이었다. 역시나 입소문이 빨리 나기 시작했고, 다시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가게가 잘 되고 민어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선창 근처의 '부두어물'에서 신선한 민어를 전문적으로 납품받기 시작했다.

3. 2대 사장 박영란의 운영

장사를 하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았던 김은초에게 시련이 닥친 것은 1980년이였다. 김은초는 젊은 시절부터 건강이 썩 좋지 않았다. 지병인 고혈압과 당뇨로 인해 집에서의 생활보다 병원에서의 생활이 더 많았다. 그녀가 병으로 가게에 신경을 쓰지 못하면서 가게의 전반적인 운영은 그녀의 장녀인

박영란에게로 넘어갔다.

2대 사장인 박영란은 1953년 해남 송지면에서 태어났다. 고등학교 졸업 후 산정초등학교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27살이 되던 무렵 어머니가 급속히 편찮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가게를 잇게 되었고, 강진에 있던 이모가 사별 후 목포로 오면서 함께 영란횃집을 운영하게 되었다. 김은초는 합병증으로 투병생활을 이어가다가 2014년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일본 분이 알려줬어요. 팔팔 끓인 물에 민어 껍질을 살짝 데쳐서 기름소금에 찍고, 부레도 그 전에는 매운탕에 넣었는데, 그 분이 말씀하셔서 생으로 해서 기름소금을 찍어 먹게끔 했어요. 그 분이 그 뒤로도 계속 오셨어요. 한국에 오시다가 건너가셔서 계시고, 이쪽으로 자주 오셨어요. 여기 출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영란횃집이 한 단계 발전하게 된 계기는 가게를 찾은 재일교포 손님의 조언 이후였다. 그의 조언에 따라 이후 민어회가 나오기 전 전채 요리로 민어 껍질과 민어 부레를 올리기 시작했고, 이를 맛 본 손님들은 매우 만족했다. 이후에도 이 재일교포 손님은 가끔씩 영란횃집에 들렀는데, 이름이나 하는 일은 알 수 없어 아쉬워했다.

영란횃집이 민어전문점으로 유명세를 타게 된 데에는 몇 가지 비결이 있다. 첫째는 민어를 싱싱하고 좋은 것만 쓴다는 것이다. 영란횃집은 민어를 해안로 271에 위치한 부두어물에서 받고 있다. 1대 사장인 김은초 때부터 함께 해 왔다고 하며, 임자도에서 최고의 민어만을 공수해 온다고 한다.

두 번째는 민어를 숙성시키는 방법이다. 부두어물에서는 산지인 신안 임자도에서 잡은 민어를 가져오며, 민어가 오는 즉시 비늘이랑 내장을 손질하고 24시간 얼음 속에서 숙성시킨다. 초기에는 영란횃집에서 직접 했으나, 손님이 늘고 민어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1차적인 손질 및 숙성을 위탁하고 있다. 부두어물에서 1차 숙성을 마친 민어는 새벽에 영란횃집으로 들어오며, 다시 영란횃집만의 방법으로 얼음 속에서 2차 숙성을 시킨 다음 손님들에게 내어놓는다. 2차 숙성 과정과 손님에게 민어를 올리는 미세한 과정에서 영란횃집만의 맛을 만들게 하였다.

세 번째는 특제 소스와 초장이다. 영란횃집의 명성을 한층 더한 것은 영란횃집만의 특제 소스와 초장으로 민어회의 감칠맛을 더하고 있다. 영란횃집은 된장, 고추장과 고춧가루 등의 양념을 사지 않고 직접 만들어 사용하며, 막걸리식초를 활용한 특제 소스와 초장은 그 누구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는 그들만의 비법이다. 1대 사장인 김은초에 이어 올해 82살인 그녀의 동생이 지금은 소스를 직접 만들고

있다. 또 직접 담근 된장으로 끓인 매운탕은 지금의 명성을 만든 주역 중 하나이다.⁰²⁾

영란횃집의 주 메뉴로는 민어회, 회무침, 전, 매운탕을 함께 먹을 수 있는 민어 코스요리가 있으며, 단품 메뉴로 민어회, 민어회무침, 민어전, 뽕낙지, 매운탕 등이 있다. 메뉴를 주문하면 주 메뉴에 앞서 전체 메뉴로 민어 껍질, 민어 부레, 다진 민어 뼈 등이 나온다.

목포의 대표적인 민어집으로 알려지면서 수많은 신문과 방송에서 소개되었다. 1970년대 한국일보에서 첫 기사가 소개된 이후로 KBS 「6시내고향」, 「생생정보통」, MBC 「맛대맛」 등 방송에 소개되었고, 『중앙일보』와 같은 일간지, 여행정보지에 수도 없이 소개되었다. 특히 민어가 대표적인 여름보양식으로 소개되면서 여름이면 많은 취재진이 찾아온다고 한다.

4. ‘민어의 거리’가 생겨난 이유, 영란횃집

1대 사장 김은초가 1980년 민어회를 시작하고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주변에 민어횃집이 속속 들어섰다. 중앙횃집, 유림횃집이 생기고, 유달횃집도 고깃집에서 민어 전문식당으로 업종을 바꿨다. 이 밖에도 삼화횃집, 청자횃집 등 만호동 1번지 골목에서 선창가까지 총 13개의 민어횃집이 성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어는 고가의 음식으로 어느 정도의 손님이 꾸준히 들어와야 수지타산이 맞는다. 결국 5개의 식당만을 남기고 모두 폐업을 하게 되었다. 현재는 영란횃집을 비롯해 만호유달횃집, 유림횃집, 포도원횃집, 중앙횃집만 남아 있다.⁰³⁾



그림 2 민어의 거리 입간판

“저희 엄마가 처음으로 하시고, 중앙횃집이 생겼어요. 그 분은 이사 가고 지금은 다른 분이 하시고, 유림횃집도 오래 됐고, 유달횃집은 고깃집을 하다가 횃집으로 바꾸고 여기가 옛날에는 민어 횃집이 13개가 있었어요. 2000년도 이전에 13집이 있었어요. 삼화횃집, 청자횃집, 유림, 유달, 중앙 등 선창가로 해서 13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6집 밖에 안 남았어요. 민어가 고가음식이라 손님이 어느 정도 있지 않으면 유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6개만 남고 다 문 닫았어요.”

02) 박영란과의 인터뷰, 2017. 09. 28. 영란횃집 2층.

03) 민어의 거리에는 현재 5개의 식당만 남아 있으며, 박영란 사장은 6개가 남아 있다고 했다. 기억의 오류이거나 그 후 하나가 폐점된 것으로 보인다.

영란횃집이 처음 생겼을 때만 해도 이곳은 목포에서 가장 변화한 곳 중 하나였다. 관공서가 몰려 있고, 유동인구가 상당했다. 그러나 목포가 확대되고 신도심이 개발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시청, 경찰서, 검찰청, 우체국이 원도심 밖으로 이전했다. 신도심이 개발되면서 많은 인구가 하당으로 빠져나갔다. 원도심이 공동화현상을 겪으면서 정체된 곳이 되었다.

하지만 영란횃집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굳건히 버텨내고 있다. IMF나 원도심 공동화 현상에도 큰 어려움은 없었다. 전국적인 명성을 얻으면서 현지인들도 많이 찾지만, 외국인들이 더욱 많이 찾고 있다. 특히 여름이 되면 평소의 몇 배나 많은 손님들이 찾는다. 더운 아침부터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여름에 한두 시간은 기본으로 줄을 선다고 한다. 하루에 많을 때는 600~700명이 찾는다고 한다. 그녀는 믿고 기다려주는 손님들이 항상 미안해서 손님들이 좀 더 편안히 기다릴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대기실을 만들기 위해 옆집을 구매했다고 한다.

영란횃집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목포시에 영란횃집의 위치를 문의하는 일이 많았다. 2000년대 초반 목포시도 관광객 유치와 목포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민어의 거리, 건어물의 거리, 아귀점의 거리 등을 세워 목포를 홍보하고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렇게 세워진 것이 현재 구 초원호텔 앞의 ‘민어의 거리’ 조형물이다. 원래 이 조형물은 영란횃집 앞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으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세워져 있어 관광객들의 눈에 띄지 못했다.

“목포시 만호동에 위치한 민어거리에 민어를 파는 식당들이 줄지어 있지만, 여기를 자주 찾는 사람들에겐 찾기가 여간 쉽지 않다. 목포시에서도 이 점을 참고하여 민어의 거리 간판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간판이 영란횃집 건너편 주차장 부근에 설치되어 그 길을 이용하지 않는 이상 그 간판을 볼 수가 없다. 목포시가 관광객 유치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이 시점에 민어를 먹기 위해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거리를 찾기란 쉽지 않음.

개선방안 :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목포에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민어의 거리 간판을 구 초원호텔 큰 도로에 설치,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또한 간판을 시각적으로 눈에 쉽게 뵈도록 업그레이드 하였으면 하는 게 바램임.”

이는 2009년 4월 목포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건의사항으로, 영란횃집 앞 주차장에 입간판이 세워져 있어 관광객들에게 홍보가 잘 안 된다는 지금의 위치로 옮기자는 건의였다. 목포시민들의 노력으로 민어의 거리 입간판은 지금의 위치로 이전되었다.

제7절 콩물 하나로 목포의 맛집이 된 유달콩물

1. 목포 상경과 결혼



그림 1 유달콩물

목포역 교차로에서 남교트윈스타 방향으로 걸어가다 세무서 방향으로 들어서면 4층으로 된 빨간 벽돌집을 만나게 된다. 구수하게 퍼지는 콩물 냄새에 가게 안으로 발을 옮기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콩물에 반해 단골이 된 사람들은 그 맛을 잊지 못해 다시 찾는 노포가 되었다. 42년 전통의 목포가 자랑하는 맛집, 호남로 58번길 21-1에 위치한 유달콩물이 그곳이다.

유달콩물은 1975년 조성철·김향자 부부에 의해 시작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조성철은 1949년 12월 11일 완도군 군외면에서 5남 5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10살이 되던 1959년에 완도 군외동국민학교에 입학했으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다. 그러나 가정형편으로 인해 중학교를 갈 형편이 못 되었고, 일거리를 찾아 떠나야 했다.

그가 목포에 정착한 것은 17, 18살의 어린 나이였다. 목포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친척 누나 밑에서 일하기 위해서였다. 1960년대 초반 목포에는 3파전을 벌이던 3개 약품 도매상이 있었다. 초당 김기운이 창업한 백제와 구세,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약국이 하나 있었다. 3파전 가운데 한 곳이 문을 닫았으며, 백제와 구세만이 남았다.⁰¹⁾ 2파전으로 고착화되는 그 틈을 수도약국이 비집고 들어갔다.

01) 『한국대학신문』 2013. 04. 07. 「[이 사람을 보라] 전국 대표 약방으로 성장한 백제약품」.

현재의 트윈스타 앞에 위치한 수도약국의 전신은 건강약업사였으며, 수도약국으로 간판을 바꾸고 나서 본격적으로 약재 도매업을 시작했다. 이 시기 수도약국에 들어간 조성철은 약국 안에서 먹고 자면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약국도, 목포에서의 생활도 적응이 되었다. 스무 살 무렵 하고 싶은 것이 많은 시절이었다. 성공하고자 하는 열망에 권투도 배워보고 태권도도 배워보았다. 그러나 가족들의 반대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인해 현재의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마음을 다잡던 때였다.

스무 살을 넘긴 시점에 영장이 나왔고 고향인 완도에서 방위로 근무하게 되었다. 방위로 출퇴근하던 곳이 집에서는 먼 거리였고, 이장 댁에 머물면서 군 생활을 하게 되었다. 고향에서의 군 생활은 큰 탈 없이 흘러갔으며, 그는 하루하루를 성실히 마무리하였다. 그의 성실함을 눈여겨 본 이장은 중매를 주선했고, 그렇게 나간 맞선자리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다. 그보다 2살 아래인 아내 김향자는 완도군 군외면 삼두리 출신이었으며, 맞선 이후 둘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방위 소집해제 직후인 1975년 1월 둘은 완도에서 결혼하였다. 막상 결혼은 했으나 둘이 함께하기는 빠듯했다. 신혼의 단꿈은 조금 뒤로 미뤄두고, 그는 아내를 완도에 두고 다시 목포로 올라왔다. 군대 가기 전에 그랬듯이 다시 약국에서 일을 시작했고, 그런 그를 누나와 매형은 전적으로 신뢰하였다. 약국 문을 열고 닫을 때까지 모두 그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2. 콩물 장사의 시작

약국의 생활도 다시 적응이 되었다. 하지만 완도에 있는 아내와 함께 하지 않는 한 안정된 것은 아니었다. 다행히 둘이 떨어져 있는 시간은 오래되지 않았다.

“누나와 매형이 방 하나 주면서 같이 생활을 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20미터 거리였어요. 창고를 방으로 수리하는데 도로가였기에 누나한테 문 한 짝만 내달라고 했어요. 평수로는 딱 1평이에요. 애기 엄마는 뽀빠이 같은 거 팔면서 애기 과자값 벌고 나는 약국 일하면서 월급을 저축하겠단 그랬어요. 그랬더니 매형이 생각을 바꿔서 기왕이면 크게 하자고 했어요. 의자를 4개 놓을 정도였어요.”

누나와 매형은 그에게 창고를 방으로 개조해 줄 것이니 완도에 있는 아내와 같이 살 것을 제안하였다. 그는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도로가로 문 하나만 내어달라고 부탁하였다. 나는 약국 일을 하고 아내는 ‘뽀빠이’ 같은 군것질거리를 팔아 아이들 간식거리라도 벌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누나와 매형은 차라리 더 크게 해보라며 큰 가게를 마련해 주었다. 1평짜리 공

간에서 ‘보빠이’나 팔려고 했던 것이 테이블 4개가 갖춰진 어엿한 가게가 되었다. 그는 당시 가게를 마련해 준 누나와 매형에 대한 고마움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장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되었고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팔 것인가였다. 그러나 그의 수중에는 고작 4만 원 밖에 없었다. 그나마 아내가 결혼 후 장롱 값으로 들고 온 7만 원에서 빚 3만 원을 갚고 남은 돈이었다.⁰²⁾ 4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았다. 한참을 고민하던 그 때 친한 형이 콩물 장사를 해볼 것을 권유했다. 가게를 창업할 당시는 무더운 여름이었고, 여름철 시원한 콩국은 대중적이고 서민적인 음식이었다. 1975년 기준으로 짜장면이 150원 정도였으나, 콩물 한 그릇은 60원, 콩국수는 80원으로 짜장면에 절반에 가까웠다.

더구나 재료는 쉽고 싸게 구할 수 있었다. 6·25전쟁 이후 죽동의 ‘콩나물동네 골목길’로 모여든 피난민들은 생계를 위해 재배한 콩나물을 남교동시장에 내다 팔았다. 콩나물동네 덕분에 콩은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서 시장 곳곳에서는 콩물을 내다팔았고, 콩국수를 전문적으로 파는 식당이 3곳이나 있었다.⁰³⁾ 콩물이면 돈이 되겠다고 생각한 부부는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콩물 장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1975년 여름, 부부는 창고를 개조한 작은 단칸방에서 밤마다 맷돌로 콩을 갈기 시작했다. 그러나 처음 하는 장사에 콩물 만드는 법도 몰랐던 만큼 모든 것이 막막했다. 어떻게 갈아야 하는지, 소금물은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도 전혀 모른 상태였기에 눈대중으로 만든 콩물은 두부가 되기 십상이었다. 몇 번을 시도해보아도 마찬가지였다. 콩물집을 돌아다니면서 먹어보는 수밖에 없었다.

당시 목포에는 콩물집이 3개 있었으며, 가장 유명한 곳은 제일극장 밑 할머니가 운영하는 콩물 집이었다. 할머니집에 가서 콩물도 먹어보고 다른 집에 가서 콩물도 먹어보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또 눈대중으로 콩물을 만드는 법을 익혔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콩물을 시도해 보았다. 그렇게 노력한 끝에 부부만의 콩물 만드는 법을 터득하였다. 그리고 1975년 7월, 콩물가게를 열었다. 평균 새벽 3시 반, 4시면 일어나 콩물을 갈고 12시까지 장사를 하고 식당을 마무리하면 새벽 1시, 2시였다. 육체적으로 힘든 시절이었다. 그러나 ‘좋다’, ‘안 좋다’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벌어야만 먹고 살던 시기였다.

가게의 첫 이름은 ‘오케콩물’이었다. 조성철이 결혼 전 목포에 ‘오케사진관’이라는 유명한 사진관이 있었다. 그 사장이 상호명은 상대방에 잘 기억되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렇게 첫 가게의 상호는 ‘오케콩물’이 되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외래어는 상호명으로 사용할

02) 채널A(<http://www.ichannela.com/>) 「서민갑부」130회, 2017. 06. 28. 방송.

03) 최성환, 『목포의 심장 목원동 이야기』, 목포시, 2016, 64~65쪽.

수 없다며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그래서 유달산의 유달을 따서 ‘유달콩물’이라 지었다.

그들의 정성이 통했는지 그들이 만든 콩물이 맛있다는 입소문이 목포 전역으로 퍼졌다. 부부가 직접 갈아 만든 콩물이 구수하고 진해 맛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갔다. 그러나 밀 어닥치는 손님에 테이블 4개짜리 가게는 비좁기 그지없었다. 보다 넓은 장소를 물색해야 했고, 그러면서도 값은 싼 곳이어야 했다. 그렇게 적당한 가게를 찾아 현 트윈스타 주변을 맴돌았다.

그들의 주요 손님은 관공서 공무원이었다. 1970년대 후반 원도심은 목포의 관공서가 모두 모여 있었다. 해방 전부터 세무서가 현재의 자리에 있었으며, 1977년 교육청이 현재의 LG빌딩으로 이전하였다. 현 한국은행 자리에는 목포공업고등학교가 이전한 후 목포시청이 들어와 있었다. 이 밖에도 가게 근처로는 신안군청, 목포경찰서, 목포역 등 주요 공공기관이 들어서 있어 점심 무렵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3. 가게의 성장 과정

가게의 성장만큼 그들의 삶도 치열하였다. 부부는 새벽부터 일어나 콩을 불리고 맷돌로 콩을 갈아 콩물을 만들었다. 그렇게 아침장사를 준비해 놓고 그는 여전히 약국으로 출근했고, 남겨진 아내는 하루 장사를 시작하였다. 그는 콩물 장사를 하면서도 식당만으로는 생계를 꾸리기에 불확실하다는 생각과 함께 지금의 터를 닦도록 도와준 누나와 매형에 대한 고마움, 의리 때문에 약국을 그만 둘 수 없었다. 그러나 쉽 없이 계속된 강행군으로 몸에 무리가 오기 시작했다. 더불어 혼자서 많은 손님을 감당해야 했던 아내 또한 지쳐가고 있었다. 가족과 상의 하에 약국을 그만두기로 하였다.

약국을 그만 둔 그는 콩물 장사에 적극적으로 매달렸다.

“그러면서 장사가 갑자기 잘 되었어요. 누가 배달을 해보라고, 콜라병에 콩물을 담아서 배달을 해보라고 해서 그때부터 배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전거로 배달도 내가 직접 했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는 이해가 안 가. 콩국수 10개를 배달하면서 한손으로 들고 무거우니까 자전거 핸들 안 잡고 다녔다니깐요. 대반동까지, 경찰서까지 안 가는 데 없이 다 다녔어요. …… 통금 해제 사이렌이 4시에 있었어요. 그 전에 콩물을 준비해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4시부터 배달을 했어요. 눈이 많이 오던 새벽 4시 배달을 가면 그 길에는 고양이 발자국, 개 발자국, 자전거 바퀴자국 밖에 없었어요.”

마침 지인이 배달도 함께 해보라고 조언을 해줬다. 당시 목포에서 콩물을 배달한다는 것은 드물었

고, 매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꽤 괜찮은 전략이었다. 가게 앞에 ‘배달 가능’이라 적어 두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였다. 새벽녘에 만든 콩물을 콜라병에 담아서 자전거로 배달을 다녔다. 자전거를 타고 대반동이든 어디든 손님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갔다. 콩물 10개를 시키면 한 손에는 콩물 10개가 든 쟁반을, 다른 한 손으로 핸들을 잡는 위험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전거를 타고 배달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특히 콩물이 든 콜라병은 무게가 상당했으며, 넘어지면 깨지기 십상이었다.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면서 콜라병이 깨져 콩물이 흘러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깨진 유리 파편에 몸이 다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콜라병을 대신할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했고 그 때 눈에 들어온 것이 페트병이었다.

1979년 삼양이 국내 최초로 페트병 생산을 시작하면서 페트병이 대중화되던 때였다. 페트병에 콩물을 담아 배달을 하면서 이제 넘어져도 병이 깨지거나 콩물이 썬 염려가 없고 다칠 위험도 없었다. 또 1985년부터는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면서 보다 빠르게 손님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었다. 힘겹게 자전거를 타고 목포 전역을 다니던 수고로움은 이제 줄어들었다. 이후에는 배달에 좀 더 만전을 기하기 위해 오토바이에 사각 지붕을 씌워 비바람을 피할 수 있게 하였다. 초록색 지붕이 있는 오토바이는 유달콩물을 대표하는 명물이 되었다.

영원할 것 같던 그들의 행복에 뜻하지 않은 불행이 닥쳤다. 장사가 잘 되고 돈이 모이면서 중앙시장 옆 골목에 12평짜리 건물을 구입할 수 있었다. 구입 후 세를 주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세입자가 나가면서 가게를 이 건물로 옮기게 되었다. 가게 위에는 다락을 만들어 가족이 지낼 수 있도록 하였고, 세간살이도 새로 하나들 준비해갔다.

깊은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사이 결국 큰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 어지러운 배선으로 인해 누전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큰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타는 냄새에 화들짝 일어난 그는 급히 몸을 움직였다. 아내를 깨우고 아이들을 들쳐 업고 지붕에서 지붕으로, 또 지붕을 타고 몸을 피했다. 그는 그때의 기억을 한 편의 영화 같았다고 기억했다. 화마로 인해 어렵게 장만한 가게는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그동안 고생해 온 것이 한 순간 무너진 것이었다.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갓 돌을 넘긴 막내가 연기를 들이마신 탓에 급성 폐렴으로 죽는 일이 생겼다. 화마로 전소된 가게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었으나, 죽은 아들은 가슴에 묻어야 했던 그 때의 슬픈 기억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먹고 살아야 했기에 그들은 다시 일어서야 했다. 다행히 지인의 성화에 못 이겨 들었던 화재보험이 만기가 되었고, 이 돈을 밑천 삼아 다시금 시작할 수 있었다. 불탄 가게를 정리하고 그곳에 다시 2층으로 된 건물을 올릴 계획을 세웠다. 이 때 아는 지인이 거기보다는 지금의 건물이 19평으로 더 넓으니 그 곳을 사라고 설득하였다.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했으나 기꺼이 도와준다는 말에 다시금

시작해보자는 의미로 지금의 건물을 계약하였다. 모은 돈과 빌린 돈을 합쳐 계약을 한 후 다시 콩물을 팔기 시작했다. 이 무렵이 1980년이였다.

다행히 그들의 콩물에 대한 목포 시민의 사랑은 그대로여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다. 이곳에서 장사를 하면서 빚도 다 갚을 수 있었고, 뒤의 건물을 사서 현재의 4층 건물을 새롭게 세웠다. 이 가게를 계약한지 10년 만인 1990년의 일이었다.

4. 유달콩물, 목포를 대표하다

1975년 이래 40여 년간 한 자리를 지켜온 유달콩물은 이제는 목포 시민이 사랑하는 노포가 되었다. 그는 목포에서 유달콩물을 모르면 간첩이라며, 우리 가게의 콩국수를 먹다가 다른 가게의 콩국수를 먹기 힘들다고 자부한다. 40여 년간 한결같이 콩물을 만들어 온 자부심이 깃들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가게가 오래된 만큼 이 곳을 찾은 단골들의 역사도 오래되었다. 오래된 단골들은 오랫동안 이 가게를 찾는 이유로 오랜 기간 변함없는 맛 때문이라고 추어올렸다. 이는 아마도 1975년 이래 오로지 맷돌로만 콩물을 만들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맷돌은 믹서에 비해 콩이 곱게 잘 갈려 구수한 맛을 더 해주기 때문에 그는 콩은 맷돌에 갈아야 한다는 신념을 고수하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맷돌도 변화를 거쳤다. 손수 맷돌을 돌리기에는 양도 많고 힘도 부치기 때문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지금은 자동식 맷돌이 콩을 갈고 있다. 자동으로 돌아가는 맷돌 위의 큰 통에는 불린 콩이 들어 있다. 콩이 맷돌에 들어갈 때는 수분을 공급하여 콩이 잘 갈리도록 한다. 또 맷돌 위의 작은 통에는 얼음을 놓아 온도가 올라간 맷돌에 의해 콩이 변질되는 것을 막아준다. 이들 부부에게 맷돌은 콩물의 맛을 유지하고 이 가게를 번성케 도와준 고마운 물건으로, 1975년 가게를 첫 오픈할 당시 사용하던 맷돌은 가보로서 여전히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맷돌에서 구수하게 갈린 콩에 정수된 얼음물을 넣어 농도를 맞춘다. 여기에 소금물로 간을 하여 콩물의 맛이 변하는 것을 방지한다. 마지막으로 찌꺼기를 거르는 공정을 거치면 비로소 시원한 콩물이 완성된다. 이 전 과정은 그가 혼자서 도맡아 하는데, 직원들이 콩물을 만들 경우 콩물을 ‘너무 묽게 한다든지, 간이 안 맞는다든지, 농도를 되게 한다든지’ 등의 실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⁰⁴⁾ 그가 직접 40여 년간 고집스럽게 지켜온 방식으로 인해 한결같은 맛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만든 콩물에 대한 자부심은 손님에게 내는 콩국수에서도 드러나는데 유달콩물의 콩국수는 다른 곳과 달리 고명이 들어가지 않는다. 콩국수에 오이 등의 고명을 넣으면 고명 맛이 강해 콩물 본연

04) 채널A(<http://www.ichannela.com/>) 「서민갑부」130회, 2017. 06. 28. 방송.

의 맛을 흐리기 때문이라 하였다. 여기에는 직접 만든 콩물에 대한 자부심이 진하게 배어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전라도 식으로 콩국수에 설탕을 듬뿍 넣으면 고소함을 극대화하고 달달하게 먹을 수 있다.

지금의 유달콩물은 목포시를 넘어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2L짜리 페트에 넣은 콩물은 택배를 통해 전국으로 배달된다. 점심식사 시간이 지난 후 그는 그날 주문받은 콩물을 정리하고, 택배로 보낼 수 있도록 아이스박스에 넣어 준비한다. 4시가 되면 택배회사 직원이 오고 이를 통해 ‘유달콩물’의 콩물은 전국적으로 배달되고 있다.



그림 2 주문받은 콩물을 기록하고 있는 조성철 사장

그렇다고 콩물과 콩국수만이 이 집의 전체는 아니다. 콩물이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음식이며, 콩물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기호도 보장하기 위해 비빔밥이나 돌솥비빔밥, 육회비빔밥, 콩나물해장국, 황태해장국, 김치찌개, 된장찌개, 청국장, 떡국, 매생이 떡국, 매생이 국밥 등 다양한 음식들도 먹을 수 있다.

이들의 삶은 개업 초기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었다. 여전히 새벽 4시경에 일어나서 콩을 삶는다. 그리고 콩을 갈아 콩물을 만들고 6시가 되면 가게를 연다. 하절기에는 오후 6시 넘어서 문을 닫고 동절기에는 3시경에 문을 닫는다. 그리고 가게 정리 후 저녁 9시 무렵 뉴스를 보다 자연스럽게 잠이 든다. 가게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비고 있으며, 배달 또한 목포 여기저기를 다니고 있다.

완도 출신의 부부에게 목포는 제2의 고향이었다. 그러나 그에게 목포보다는 원도심이 더 큰 의미로 다가왔다. 그가 목포로 처음 와 정착한 곳이 중앙시장 근처이며, 약국에서 일을 하고 결혼을 하고 가게를 두 세 차례 옮기면서 원도심을 떠나지 않았다. 그가 청춘이던 때 원도심도 청춘이었다. 목포의 중심이었으며,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장소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목포가 확대되면서 원도심은 그 기능을 잃어갔다. 그 세월만큼 그도 이제는 나이 들어 칠십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는 원도심을 75살 쯤 되었다고 말하였다. 원도심이 쇠락하였다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또 그가 원도심과 함께 늙어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제8절 남교동을 지켜온 유일한 죽집, 67년 전통의 역사

-가락지-

1. 67년 전통의 죽집을 이끄는 부부

목포역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즐비한 상점 앞 도로를 따라 걷다보면 어느새 각종 프랜차이즈 업체로 변화한 거리는 저물고 정겨운 모습의 간판들이 눈에 띈다. 전업사, 금은방, 유리점, 해장국집을 지나 다시 건물 사이로 빠지는 샛길을 못 미쳐 허름한 듯 깔끔하고 평범한 듯 특별한 죽집이 있다. 목포시 남교동 127번지에 위치한 신도불이 가락지 죽집이다.

가락지는 동지죽, 호박죽, 썩꿀레, 칼국수 등을 파는 작은 식당이다. ‘가락지’라는 간판을 걸고 장사를 시작한 지는 올해로 약 67년이 되었다. 6·25 전쟁 이후 문을 열어 1978년 도로정비사업으로 1년간 중단했던 때를 제외하고 늘 아침 일찍 팔 삶는 구수한 냄새로 남교동을 지켜왔다. 현재의 가락지는 이사일·배옥님 부부가 이사일의 고모인 이순덕 사장으로부터 이어받아 2대째 운영하고 있다.

이사일은 1949년생으로 전남 강진군 칠량면 명주리 출신이다. 8남매 중 셋째로 사구마을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사구마을은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고개를 들어 올라다보면 파란 하늘밖에 보이지 않는 시골 중의 시골이었다. 마을에서 최초로 도시로 떠난 케이스였다. 이사일 이후로 도시로 떠나는 사람이 하나둘씩 늘었다. 이사일은 동네 사람들의 기대를 받으며 목포행 버스에 올랐다.



그림 1 목포 남교동에 위치한 67년 전통의 가락지

2. 가락지의 1대 사장 이순덕

가락지의 1대 사장이었던 이순덕은 이사일의 고모였다. 목포로 시집 온 이순덕은 시골에 있는 큰오빠를 위해 금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석유기름이 귀하던 시절, 고모를 만나고 돌아오는 부친의 손에는 연통에 가득 담은 기름과 소꼬리, 소발목 등이 들려 있었다. 이사일의 부친은 그 기름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곤 했다. 모두가 힘든 시절이었지만 큰오빠를 위해 막내동생인 이순덕이 많은 배려를 했다.

“전혀 몰랐어. 그 전에 목포가 계신단건 알기는 알았어

요. 아버지가 왔다갔다, 저 여그를 왔다가 오면 뿔을 많이 가지고 와요. 주로 뿔을 가지고 오냐. 석유 기름을 가지고 와요. 그 네모로 된 연통. 철강. 그걸로 두 개들든 무건디, 여그서 거기까지 갖고 올라든 그때는 걸어서 오제.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 가지고 오면 또 우리 아버지가 동네사람들 그 맥주병에다 기름을 한나씩 따라갖고 동네 거 몇 가구 사는데 한 30가구가 못 되는데 그 전부 집집마다 나눠주고. 우리 동생이 사갖고 와서 줬다고. 그람 그 사람들 아주 큰 선물이제. 석유기름이.”

이순덕은 남편이 일본으로 떠난 뒤 홀로 목포에 남아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다. 이사일은 이순덕을 ‘전남 부자’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순덕은 죽집을 운영하기 전, 본래 목포 원도심 오거리의 구 평화극장 부근에서 서점을 운영했다. 그때는 학교에서 교과서를 나눠주지 않고 모두 서점에서 구입해야 했기에 장사가 잘 되었다.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돈 셀 시간이 없어 뒤주에 작대기로 돈을 밀어 넣고 필요한 만큼 꺼내 썼다고 했다. 1950년의 어느 날, 6·25전쟁이 발발하자 그 뒤주를 여러 개 짊어지고 목포 달리도로 피난을 갔다. 함께 피난을 가던 중 등에 얹힌 뒤주가 무겁고 거추장스러웠던 시동생들이 뽀빠에 뒤주를 던져버렸다. 결국 이순덕이 짊어진 뒤주 하나만을 가지고 외달도로 들어갔다. 섬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돈과 먹을 것을 나눠주며 인심을 쌓았다. 그리하여 서로를 죽고 죽이는 전쟁 속에서 다행히 살아남았다고 전해 들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다시 목포로 나올 때에는 집도 돈도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순덕이 택한 일은 바로 죽집 운영이었다. 그때의 죽집이 바로 가락지의 시초가 되었다. 서점 일을 하며 인맥을 쌓았던 사람들이 알음알음으로 찾아와 죽을 팔아주었고, 장사 목이 좋아 얼마 지나지 않아 손님들로 북적였다.

시간이 지나 죽집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자 이순덕이 이사일의 부친에게 연락을 하였다. 혼자서 가게 일을 하느라 힘이 드니, 사일이를 내게 보내면 죽집에서 일을 좀 돕게 하고 중학교도 여기서 보내주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그때 이순덕의 자식들은 모두 장성하여 대학에 다니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사일은 시골보다 도시가 더 나을 것이라 판단했던 부친의 결정에 의해 목포로 오게 되었다. 그때 이사일의 나이 16세였다.

때는 1965년이였다. 목포로 오게 된 이사일은 죽집에서 숙식을 하며 이순덕의 일을 도왔다. 솜씨가 좋았던 이순덕은 당시 떡과 죽, 한과 등을 만들어 팔았다. 이사일은 식재료를 사오는 잔심부름을 하다가 점차 음식을 만드는 일도 배워 이순덕과 함께 주방일까지 겸하게 되었다. 돈이 없어 식재료를 쟁여놓지는 못하고 인근의 큰시장으로 달음박질을 쳐 물건을 사다 나르곤 했다. 원하던 학교에는 진학하지 못했지만 죽집을 운영하는 것을 업으로 삼으며 열심히 일했다.

작은 죽집에서 사람이 많이 일할 때는 7명 정도가 가게 일을 보았다. 1960~1970년대는 누구나 힘든 시절이었다. 이순덕은 배가 고파 가게를 찾아온 사람을 그냥 보내지 않았다. 밥만 먹고 재워주기

만 하면 월급을 받지 않아도 되니 일을 시켜달라는 어린 아이들이 많았다. 인력이 딱히 필요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와서 사정을 하며 지내게 해달라고 하면 이순덕이 늘 허락해주었다. 그렇게 가게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일을 돌보아 준 아이들 모두 손수 시집·장가를 보내주었다. 죽집이 그 시대의 작은 고아원이었다. 이사일의 여동생도 후일에는 가게에서 데리고 있다가 이순덕이 직접 시집을 보내주었다.

“예전에도 일하는 사람 있었지. 7명. 이 작은 홀에서. 일꾼이가, 그 시절에 고모시절에. 어째서 있었냐하면 일이 많아서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어떻게 말하면 고아원이라고 봐야지. 기양 누가 있는 다하문 있으라고. 그냥 그 시대가 밥 먹고 살기가 어려운 시대잖아요. 갈 곳도 없고 그랑께 여기 와서 일하면은 돈을 주고 월급이 없어.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면 할 일도 없는데 그 사람들 먹여주고 있는거야. 그런 식으로 여기서 사람이 많았어. 고모 시대에 여기서 시집장가 보낸 사람이 일꾼이여. 놈의 식구를 우리 고모가 더 보내준거여. 우리 고모가 사람 좋으신 분이야. 꿈에 천국으로 가더라고.”

이사일은 30세가 되던 해 배옥님을 만나 결혼을 한다. 배옥님은 본래 전남 함평 출신이나 농사를 지었던 부친이 돌아가신 뒤로 서울로 온 가족이 이사하여 살았다. 5남매 중 셋째였다. 목포로 먼저 시집 온 친언니의 중매로 6살 연상의 이사일과 혼인하게 되었다. 배옥님의 친언니는 이순덕과 함께

그림 2 가락지를 운영하고 있는 배옥님(좌)과 이사일(우)



계모임을 하며 이사일을 알게 되었다. 인상이 서글서글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동생을 소개시켜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한다. 친언니가 살고 있다고 하나 배옥님에게 목포는 낯선 타지였고, 게다가 내려가면 이순덕과 함께 죽집을 운영해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앞섰다. 배옥님의 모친도 처음에는 결혼을 반대했다. 몸이 약한 배옥님이 식당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이사일은 배옥님에게 식당일은 하지 않아도 되며 계산대에서 돈만 받으면 된다고 배옥님을 설득했다. 이에 예정대로 결혼이 진행되었고, 1978년 이사일과 배옥님은 부부가 되었다.

결혼 후 이사일과 배옥님은 죽집에 마련된 작은 방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배옥님은 곧바로 이순덕에게 가게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무뚝뚝한 이순덕이 무섭기만 했다고 한다. 여자 혼자서 몸으로 장사를 하며 자식들을 키워내느라 조카며느리에게도 살갑게 대하지 못했던 것이다. 성격은 무서웠지만 솜씨가 좋아 모든 음식을 척척 만들어 내는 것이 신기했다. 이순덕의 옆에서 죽 끓이는 법, 떡 만드는 법 등을 배우며 함께 가게 일을 해 나갔다. 가게에 기계가 없어 불종대까지 쌀가루를 이고 가 떡을 찌어오곤 했지만 젊은 혈기에 힘든 줄 모르는 세월을 살았다.

부부의 맞은편 방에는 여전히 이순덕이 살고 있었다. 당시 죽집은 큰 기와집으로, 지금의 도로부분까지 튀어나와 있었다. 테이블을 8개까지 두고 운영하는 등 큰 규모였으나 결혼 3개월 만에 도로정비사업으로 신혼집과 일터를 모두 잃고, 의지하고 살았던 이순덕과도 떨어져 살게 되었다.

“여기가 원래는 이 도로가 차 안 다니는 거리였었지 여기가. 좁아서 차가 안 다니고 집이 저 앞에까지 크게 있어가지고 방이 이쪽애가(지금 오른편) 우리 내 방이었고 고모는 여기(안쪽) 이대로 방이 있어. 그래 인제 이렇게 살고 있는디 시집와서 같이 인자 살았지. 그래가지고 여기 이 길이 트이면서, 뚫리면서 집이 좁아져버렸지. …… 나 올 때는, 그때는 (테이블이) 여러 개 있었제. 지금 여기 길 나가 전인께 가게가 넓었어. 차 안 다니는 거리. 목포에서 최고의 큰 일류 도로였어.”

1978년 즈음 목포에는 새바람이 불고 있었다. 시에서 용당동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발표했고, 광주-목포 간 도로가 포장되고 있었다. 남교동에서는 도로확장공사를 시작했다. 이에 이사일·배옥님 부부는 집을 잃고 맨 몸으로 거리에 내몰렸다. 셋집에 사는 설움을 톡톡히 겪은 것이다. 신혼살림은 배옥님의 친언니 집에 맡겨두고 이사일은 공사판을 돌아다니며 일용직으로 돈을 벌었다. 돈을 준다는 곳이면 어디든 갔다. 인천, 강진 등지를 떠돌다가 다시 목포로 돌아와 죽교동 구름다리 부근에 5만 원짜리 사글세방을 얻어 생활했다. 철거되었던 집이 다시 만들어지자 이순덕이 먼저 돌아와 같은 자리에 세를 얻어 죽집을 열었다. 그러다 얼마 되지 않아 몸이 아파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이사일·배옥님 부부가 단돈 7만 원을 가지고 다시 죽집을 이어받았다. 때는 1979년, 이사일과

배옥님이 목포를 떠난 지 꼭 1년 만에 생긴 일이었다.

“그때 인자 고모하고 집 뜯겨갖고 잠시 헤어져서 살다가 고모님이 여그를 먼저 집 짓어갖고 들어와서 혼자 장사를 하셨어. 그대로 그 자리에다가. 우리는 고모하고 헤어졌으니까 안 하고 노가다 일도 하고 돌아다니다가 인자 고모가 편찮으신게 와서 우리가 여기를 왔어. 근디 인자 돈이 한나도 없었어. 없으니까 인자 고모가 이 집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브렸어. 금계 우리한테 돈 조금 있는 거는 권리금으로 다 쥐בל고 돈은 없으니까 돈 7만 원 친구한테 빌려갖고 한 되씩, 한 되씩 인자 뵈이든지 조금씩 사갖고 시작을 했어. 그래갖고 인자 집세도 빌려갖고 언니가 빚으로. 그때는 이자도 4부 이자 막 이랬거든. 그래갖고 집세 걸 돈도 없으니까 인자 언니가 뵈한테 빌려서 줘서 그놈 갖고 장사 시작했단게. 돈 7만 원 가지고 시꼬미하고. 무지헌 고상을 했어.”

배옥님의 친언니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대신 집세를 내 주었다. 다행히 죽집은 장사가 잘 되었다. 이사일이 이곳에 처음 왔을 때도 주변에 신발집, 양복점, 해장국집 등은 있었으나 이상하리만치 죽집, 떡집은 없었다. 당시에 목포시내의 유일한 죽집이었다. 지금도 남교동거리에 죽집은 가락지 한 곳뿐이다.

3. 가락지를 찾는 손님들

가게를 주로 찾는 손님층은 매우 다양하다. 밤늦게까지 영업하지만 술을 팔지 않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손님들도 부담 없이 들어설 수 있다. 죽교동 부근에서 현장 일을 하는 노동자들도 많이 찾았다. 낮에는 미팅과 데이트를 위해 죽집을 찾는 사람들도 종종 눈에 띄었다. 1970~1980년대 가장 잘 팔리는 메뉴는 깨죽, 녹두죽, 동지죽과 약식이었다. 당시 죽 한 그릇의 가격은 30원이었다. 잘 팔릴 때는 하루 매출이 3,000원에 달했다. 가장 장사가 잘 되던 때는 1990년대 후반 IMF때였다. 장사가 안 되어 다른 가게들이 가격을 내리고 도산할 때 죽집은 오히려 500원을 올려 팔았다. 배달도 이 때 시작했다. 아이러니하지만 지금도 그때만큼 죽이 잘 팔린 때는 없었다.

가락지는 목포의 유명 인사들도 자주 찾는 가게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에 죽집을 자주 찾았다. 목포를 찾을 때면 안에 따로 마련된 방에서 죽 한 그릇씩을 먹고 돌아갔다. 가수 남진, 화가 김영자 선생, 시인 김일로 선생 등 목포에서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두루 찾는 가게였다. 기억에 남는 손님들 중에는 죽을 먹고 돈이 없어 도망갔던 사람들이 많다. 객지에서 와 집에 돌아갈 여비를 달라는 손님, 배는 고픈데 돈이 없을 땐 이곳을 찾아가면 된다는 소문을 듣고 왔다는 손님, 화장실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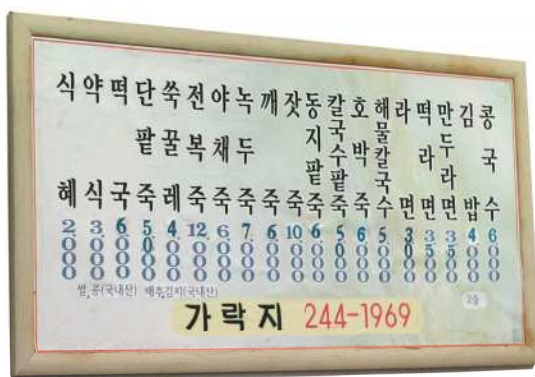


그림 3 가게 벽에 걸린 메뉴판. 부부는 평생을 죽을 끓이며 살았다.

는 척 하며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간 손님 등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이사일·배옥님 부부는 ‘오죽하면 저럴까’ 싶은 마음에 쫓아가지도 않고 그저 허허 웃고 넘겼다. 부부 역시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고, 1대 사장이었던 이순덕의 가르침이 그러했기 때문이다.

“오메 많이 줬지라. 아조 객지에서 온 사람들. 여비가 없다고 여비 좀 가서 주겠다고 달라하고. 많 아브리. 많에 그런 사람. 먹고 돈 없다하든 어쩔 것이여. 그냥 가분사람도 많고. 시장에서 누가 요리 가라하드라고. 요리 가서 묵으라하더라고. 그러면서 와서 그래서왔다고. 다 있어. 먹고 돈 없다는 사람은 요즘에도 있어. 여럿이 먹고 막 쏠살같이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어. 그냥 보고, ‘아따 저 병아리 떼 같이 나간다.’ 그라고 웃고. 꼭 병아리 떼 같이 쫓쫓쫓쫓 도망가고. 병아리가 뿔 하나물고 지 묵을 라고 도망가든 그 놈 뺏어묵을라고 따라가거든요. 꼭 그런 식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그리고 또 한나 씩 가만가만 화장실 가는 척 하고. 그것은 나쁘지요. 계획적이어서. 근데 막 묵고 내뺏 놈들은 아주 오죽함사 와서 저라고 가졌느냐 그라고 웃었고.”

가락지는 이순덕이 맨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부터 지어 부르던 이름이었다. ‘가락지’는 몇 가지의 중의적인 의미를 띤다. 첫째로 손가락에 끼는 반지이다. 둘째는 집 가(家), 즐거울 락(樂), 땅 지(地)다. 즐겁게 쉬어 놀다 가라는 의미의 가락지다. 이사일은 ‘가락지’를 이렇게 해석한다.

4. 목포의 세월을 품은 가락지

가락지가 생긴 지 67년, 이사일·배옥님 부부가 다시 문을 연 지 39년이 되었다. 시간이 흐르며 일에도 분업이 생겼다. 이사일은 주로 반죽과 면 뽑는 일, 배달을 맡는다. 배옥님은 주로 죽을 끓이고 간을 맞추는 일을 한다. 과거에는 부부만 일을 했지만 최근에는 서빙하는 직원을 한 명 두었다.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지만 그 중 가게를 물려받겠다는 자식은 없다. 그렇지만 본인이 하고 싶다고 나서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의향이 있다. 이사일 역시 2대에 걸쳐 가게를 운영한다는 자부심이 크기 때문이다.

가게는 보통 7시에 문을 연다. 2층 집에서 가게로 내려와 맨 처음 하는 일은 팔을 삶는 일이다. 그 다음 반죽하여 약식과 쭈꿀레 떡을 순차적으로 만든다. 지금은 하루에 밀가루 반 포 정도를 소비한다. 장사가 잘 되던 IMF 때는 하루에 한 포 반 정도의 밀가루가 순식간에 없어졌다. 과거에는 12시까지 영업하였으나 지금은 10시 정도에 마감한다. 주 메뉴가 팔죽이지만 계절을 타지는 않는다. 이사일은 팔죽은 본래 여름에 먹는 음식이라 말한다. 한낮 무더위에 땀을 뺀 후 먹는 음식이라는 것이다. 12월 동지가 되면 죽을 먹기 위해 찾아온 손님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줄을 선다.

이사일·배옥님 부부는 모두 목포가 고향이 아니다. 그러나 목포를 제1의 고향이라 생각한다. 30여 년이 넘는 세월을 목포, 바로 이 죽집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남교동에 자리 잡은 이 터가 각별하다. 한때는 목포 제1의 변화가였지만 세월의 흐름에 따라 이곳은 원도심, 구 시가지가 되었다. 오래된 시가지 거리의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죽집이지만, 목포의 세월과 남교동의 역사를 오롯이 품은 ‘가락지’는 오늘도 팔 삶는 냄새를 풍기며 거리를 깨끗하게 지키고 있다.

이유리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제9절 목포 유일의 이북식 만둣국집

-대청-

1. 피난길에 맺은 인연, 목포에서의 인생

목포 대의동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 거류지를 이룬 동네다. 인근에는 구 일본영사관과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건물 등이 있다. 길 따라 오르막길을 10여 분 정도 올라가면 목포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노적봉과 유달산에 닿는다. 목포역에서 구 초원관광호텔 방향으로 계속 걸어오다가 길을 건너 오른쪽으로 한 번, 길을 건다가 다시 왼쪽으로 꺾으면 단출한 2층 가옥에 ‘황해도 만둣국 전문점’이라는 간판을 내건 음식점이 보인다. 목포 유일의 이북식 만두를 만들어 파는 곳, 올해로 문을 연 지 17년이 된 ‘대청’이다.



그림 1 목포 유일의 이북식 만둣국 전문점 대청

대청은 박창세·김상례 부부가 운영하고 있다. 박창세는 1944년생으로 황해도 송화군 풍해면 성산리가 고향이다. 목포를 처음 방문한 때는 1951년 1·4후퇴 때다. 6·25전쟁 발발 이후 성산리에서 초도로 피난을 갔지만 그 곳에서도 내몰리게 되었다. 결국 퇴각하는 한국군·유엔군과 함께 해군함정을 타고 황해도를 떠나 인천, 군산 등지를 거쳐 목포에 상륙하게 되었다. 그러나 목포에는 이북에서 온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할 만한 공간이나 시설이 없었다. 이에 임시적으로 유달초등학교에 수용을 했다가 세대를 분리하여 신안군의 각 섬으로 떠나보냈다. 박창세의 가족은 신안군에 속한 팔금도로 가게 되었다. 박창세는 팔금도에서 국민학교를 다녔다. 본래 과수원을 운영하던 박창세의 부친이 낯선 남쪽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마땅히 없었다. 마침 팔금도에 염전이 있어 그곳에서 수차⁰¹⁾를 수리하는 일을 하며 목수일을 배웠다. 모친은 작은 물건들을 머리에 이고 다니며 쌀과 바꾸는 행상을 했다. 그리고 박창세가 10살 무렵에 온 가족이 다시 목포로 나오게 된다.

01) 맨발로 계단을 올라가듯 밟아 돌리는 기계로 바닷물을 염전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한다.

“목포로 나오는 게 다른 계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섬에서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없으니까. 희망이 없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도시로 나와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생기지. 그 섬에서 뭐 하겠어?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이치로 나온 것이지 도시로.”

기회를 찾아 다시 돌아온 곳, 박창세의 부친은 섬에서 배운 목수기술로 지금의 경동성당 부근에 제재소를 차렸다. 가게 이름은 ‘동신제재소’였다. 다행히 제재소의 수입이 좋아 자식들을 가르칠 형편이 되었다. 박창세는 다시 유달국민학교에 입학하여 학교에 다녔다. 목포중학교까지 졸업한 후에 서울양정고등학교로 유학을 갔다. 서울양정고등학교는 당시 서울 소재의 5대 사립 고교 중 하나였다. 제재소가 잘 되어 살림살이가 나아진 덕에 서울로 유학까지 갈 수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각지에 흩어진 이북5도민들의 결속력이 매우 좋았고, 권역별로 모임을 지속하고 있었다. 박창세의 부친도 이러한 모임에서의 얻은 인맥과 정보로 아들을 서울로 올려 보내기로 결심하였다. 친척집에서 하숙을 하며 고등학교를 다녔고, 홍익대학교 건축과에 진학하였다.

박창세가 건축학을 전공으로 택한 이유에는 아버지의 직업도 영향을 미쳤다. 1960~1970년 목포는 흥했다. 일거리를 찾아 도시로 모여든 사람들로 북적였고, 그들에게 목포는 기회의 땅이었고 물자의 중심이었다. 시골에서는 자기 땅이 없으면 서러움을 당하지만 도시에선 달랐다. 선창에서 품팔이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었고 하다못해 남의 집 식모로 들어가도 하루를 끼니걱정 없이 날 수 있었다. 진도와 완도가 연륙이 되기 전이었다. 작은 항구는 새벽이면 생필품이나 배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한 사람들로 시끌벅적했고 밤에는 가게마다 새어나오는 불빛들로 불야성을 이뤘다. 목포에 정착하고자 집을 짓는 사람들도 많았다. 박창세의 부친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타고 집을 만들 때 필요한 목재와 부품을 열심히 판매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박창세가 건축을 전공으로 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대학을 졸업한 1968년, 25세의 박창세는 다시 목포로 돌아왔다. 낯선 서울에 있는 것보다 전공을 살려 아버지의 사업을 도우려는 마음이었다. 더구나 부친의 제재소는 시간이 흐를수록 기반을 더욱 갖춰갔다.

“굉장히 잘 됐지. 옛날에는 제재소가 괜찮았어요. 수입도 좋고. 그리고 공장가지고 사업하는 건 옛날에 정미소, 제재소. 그렇게만 쏘아. 그게 보통 그 정도 수준으로 봐. 이쪽 동네가 정미소도 많았고, 제재소도 많았고 그랬어요. 이 동네가. 그래가지고 돈이 그런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괜찮았지 동네가. 아버님 한 일을 내가 도와줬지. 제재소는 목재를 갖다가 원목을 썰어가지고 목재를 판매하는 거야.”

목포에서 부친의 일을 도우며 교회에도 충실히 나갔다. 박창세의 집안은 황해도에 있을 때부터 기독교를 믿어왔다. 당시 목포 오거리에 있던 중앙교회에 다녔다. 본래는 일본 사찰 법당으로 사용하였으나 박창세가 다니던 시절에는 교회로 변모하였다. 지금은 문화센터로 변모하여 전시와 문화를 위한 시설이 되었다. 박창세는 이 교회의 청년회에 소속되어 총무로 활동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목사님이 좋은 앰프를 가지고 있다며 박창세에게 자랑을 했다. 서울에 있을 때부터 클래식음악 듣기를 매우 즐겨했으나 목포에는 그만한 음악감상실이 없어 아쉬워하던 차였다. 박창세는 곧바로 목사님에게 음악감상회를 열자고 건의를 하였다. 목사님도 이에 찬성하여 중앙교회 내 음악감상회를 열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목포에 살며 클래식음악이나 앰프를 구경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신세계였다. 반응이 좋아 이 다음에는 목포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음악감상회를 열고, 그 수익금을 좋은 곳에 쓰기로 계획을 세웠다. 홍보 포스터 제작을 위해 교회에 다니던 두 명의 미술담당 여교사와 접촉을 했다. 그 중 한명이 바로 박창세의 부인, 김상례였다. 첫 눈에 김상례가 맘에 들었던 박창세는 용기 있게 먼저 접근하였고, 김상례도 이를 받아들여 2년여간 연애를 하였다. 그리고 박창세가 28세 되던 해에 한 살 어린 김상례와 혼인을 하였다.

김상례는 1945년생으로 신안군 팔금도에서 태어났다. 박창세가 목포로 피난 와 3년간 살았던 바로 그 섬이다. 김상례의 부모는 장녀인 김상례를 낳자마자 목포로 이주했다. 섬보다는 도시가 더 나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상례의 부친은 딸 넷을 내리 낳고 마지막으로 얻은 아들이 어렸을 때 사망하자 그 충격으로 매일 술을 먹으며 오랜 시간을 보냈다. 결국 병을 얻어 몸져눕게 되자, 모친이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딸 넷을 모두 대학까지 보냈다. 아픈 남편 때문에 사회에 나와 일을 해야 했던 모친의 바람은 네 딸이 모두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는 것이었다. 장녀였던 김상례는 모친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목포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1년간의 재수 끝에 서울의 수도여자사범대학(현 세종대학교) 응용미술학과에 진학한다. 4년간의 대학생활을 마치고 목포정명여자고등학교 미술교사로 부임하여 교편을 잡게 된다. 그러나 교사생활은 그리 오래 하지 못했다. 박창세와 결혼한 후 아이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렵게 아이를 가졌으나 좋지 못한 몸 상태로 유산이 되어버렸다. 이후 다시 임신을 하자 신체의 안정을 위해 3년여의 짧은 교사생활을 마치고 전업주부가 되었다.

박창세는 결혼 후 제재소 일을 남동생에게 맡기고 별도로 연동에 가게를 차려 나와 한샘 싱크대 대리점을 시작하였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운영하였다. 당시 목포에 있던 집들은 전통 목재가옥으로 입식부엌이 흔하지 않았다. 소위 ‘정개’라 부르는 형태의 낮은 좌식 부엌 형태가 많았다. 박창세는 전공을 살려 목포에 새로 지은 집들을 다니며 설계도까지 그려주며 입식부엌을 홍보했다. 점차 목포에 연립주택과 아파트가 들어섰고, 박창세의 사업은 번창해갔다. 전국에서 손에 꼽을 정도

로 판매량이 높았다. 1970년대는 하당이 생기
기 전이었으므로 남초등학교와 용당동, 목포고
등학교 부근으로 일반 가정집을 많이 지었다.
싱크대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는 달랐던 시절이
었다. 이사를 하면 ‘내가 설치한 싱크대를 뜯어
이사 갈 집에 붙여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싱
크대를 뜯었다, 붙였다, 설치했다, 풀었다 하는
작업을 반복하며 결국 50대에 허리디스크가 왔
다. 사업을 접고 건축 감리단장으로 활동하다
가 그마저도 은퇴를 하고 집에서 일을 쉬게 되
었다. 박창세가 싱크대 대리점을 할 당시 김상

대청 大廳		만두전골	
대청만두국	8,000	냉동만두	6,000
떡만두국	8,000	반대떡	5,000
살은만두	7,000	공기	1,000
		소	24,000
		대	30,000

그림 2 대청의 메뉴판

례는 미술학원을 차려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지금은 사라진 구 연동육교 부근이었다. 박창세가
1층에서 대리점을 운영하고 김상례가 2층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했다.

“한샘 대리점이 아래층에서 하고 2층에다 미술학원을 내 가지고. 지금 연동육교 근처. 2호광장 쪽
으로 가면은 언덕 넘어가면서 호남약국 건너편으로. [70년대면 목포가 건물을 많이 짓고 있을 땐데
요?] 자유시장은 전부 그때 뽕땅에다 한옥을 많이 지었어요. 그때는 하당이 안 생겼을 때니까 그때 땅
이 아까 얘기한 남초등학교 있는 그쪽 그 근처가 집 공사가 많았고, 그 답에 저 용당동. 지금 시청 밑
으로 그쪽으로, 유달중학교, 목고 있는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집을 많이 지었고. 하다가 아파
트가 들어가기 시작했지.”

그러던 중 박창세의 부친이 돌아가셨다. 박창세·김상례 부부가 대의동으로 이사 와 시아버지가 운
영하던 제재소를 정리하였다. 5년 후 시어머니마저 돌아가시면서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작은 여관을
정리하여 가정집으로 고쳐서 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을 방문한 부부의 지인이 “너희 만두 맛
있고 집도 넓은데 만두집이나 한번 해봐라.”고 제안하였다. 사실 김상례의 요리 실력은 수준급이었
다. 교사를 그만두고 취미삼아 음식을 배우러 다녔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북 출신의 시어머니에게 배
운 음식의 비법들이 고스란히 손끝에 베여 있었다. 추진력 있는 박창세가 1층 가정집을 다시 식당으
로 개조하고, 김상례가 메뉴를 고안하여 결국 2001년에 ‘대청’이라는 간판을 걸고 이북식 손만두국
집을 개업하게 된다.

2. 목포에서 이북식 만두를 판다는 것은

가게 문을 열 때까지만 해도 목포 사람들은 이북식 손만두에 익숙하지 않았다. 이북이 고향인 부모님을 둔 박창세는 오히려 이북식 손만두를 파는 곳이 없는 목포가 이상스러웠다고 한다. 유년시절에는 집에서 모친이 만들어 준 만둣국을 먹었고, 서울에서 거주할 때는 서울 소재의 식당에서 떡만둣국을 주로 사 먹었다. 당시 목포에는 분식집에서 파는 만둣국과 찐만두, 물만두가 전부였다. 부부가 만둣국집을 열 당시만 해도 이북식 만두는 ‘이상한 음식’이라는 평판이 더 강했다. 이에 손님이 없어 몇 년간을 힘들게 버텼다.

“나는 본래 떡만둣국을 좋아했거든. 서울서 학교 다닐 때. 이 지방에는 만둣국이 없었는데 서울에는 한일관이라는 데가 그때 잘했거든. 경기도 위에는 만둣국을 잘 먹어요. 지금도, 옛날에도 그렇고. 이 전라도 지방만 만둣국은 없고 찐만두, 군만두 하고 물만두라고 있어. 고 세 가지밖에 없어. 국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게 된대서 여기 와서 만둣국을 만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생소하지. 이상한 음식이다 이 정도가 된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상당히 용감한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겠다는 게.

그때는 메뉴가 만둣국하고 빈대떡하고 공기밥에 없었다니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는데 그거가 만두가 또 황해도 만두는 주먹만해가지고 이 알맹이 먹자는 만두라고, 저런데 만두하고 좀 다르잖아. 그거를 해논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만둣국을 몰라요. 모르는 데서 시작을 해놓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박창세는 주로 설, 추석, 부친의 생신 때 만두를 먹었다. 만드는 과정이 복잡해서 쉽게 해먹을 수는 없는 음식이었다. 부친이 제재소를 운영할 당시 명절이나 기념일이 되면 모친이 밖에서 갈비 한 짝을 사오곤 했다. 그것을 끓여 아침에는 주로 갈비국을 먹었다. 이북에서는 ‘탕’이라는 말보다 ‘국’이라는 말이 더 친숙하다. 갈비뼈에서 살이 쏙쏙 빠질 정도로 국을 푹 끓인다. 갈비국을 해 먹고 남은 국물에 저녁에 만두를 넣어먹는다. 식구들끼리 둘러앉아 주먹만한 만두를 빚었던 기억은 박창세에게 아주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다. 반면 목포에서 나고 자란 김상례는 시어머니의 음식 스타일이 매우 생경했다. 간을 맞추는 법도, 주로 먹는 음식도 달랐기 때문이다. 결혼 후 3년간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며 그때 시어머니의 손맛을 배웠다. 다행히 요리에 소질이 있었던 김상례는 금방 이북식 음식을 배워 남편의 밥상을 차려주었다. 해가 거듭될수록 저녁이면 모두 둘러 앉아 만두를 빚는 일도 점점 익숙해졌다.

가게를 연 후에는 만두에 색다른 시도를 해보기도 했다. 디자인을 전공한 김상례는 음식의 색감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선인장 열매의 붉은색으로 반죽을 하여 피를 만들고, 치자로 노란색 반죽을 빚어 만두에 색을 입혔다. 두 가지 색으로 예쁘게 단장한 만두는 부부의 노력이 만들어 낸 결실이지만, 그 색깔이 이상하다고 하여 먹지 않는 손님들도 있었다. 부부는 기왕 시작한 음식점이기에는 열심히 해보자는 마음에서 다른 지역에 만두가 맛있다는 곳에 찾아가 일부러 만두를 먹어보기도 했다. 몇 년간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가게를 접으려고 할 때쯤, 신기하게도 조금씩 손님이 늘기 시작했다. 꾸준히 노력한 덕에 입소문을 타고 젊은 사람들이 가게를 찾기 시작했다. 가게를 다녀간 손님들이 인터넷 블로그나 SNS에 올린 글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도 많았다.

지금도 박창세·김상례 부부는 새벽 네 시 반이면 기상을 한다. 김상례가 새벽기도를 간 사이 박창세가 육수와 만두피를 준비한다.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면 아침을 먹을 때까지 마주 앉아 만두를 직접 손으로 빚는다. 아침식사 후 간단한 청소를 하면 11시부터 손님들이 몰려온다. 가게는 3시까지만 운영한다. 더 이상은 부부의 몸이 힘들어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손님은 3시까지만 받지만 실제 일은 그때부터 시작이다. 다시 반죽을 만들어 숙성시키고 육수와 다음날 빚을 만두에 들어갈 소를 준비한다. 만두에 들어가는 소는 양파, 대파, 애호박 등을 직접 칼로 썰어 마련한다. 특히 양파는 기계로 다질 경우 물이 흘러나와 만두에 쓸 수가 없다. 만두가게가 잘 되는 것을 보고 배우고 싶다는 사람도 여럿 있지만, 부부의 부지런한 생활을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게 한 칸에 전시된 한지공예도 부부가 합심하여 만든 작품이다. 손님이 없을 때 하나씩 만든 것이 모여 작품이 되었다. 가게의 조경에 한 뿔을 톡톡히 하는 뒷마당도 박창세가 하나하나 가지치기를 하고 흙을 다듬어 나무를 심어놓은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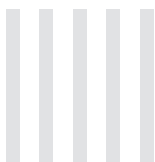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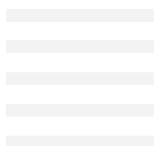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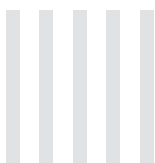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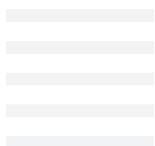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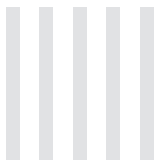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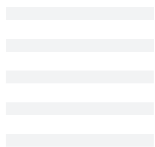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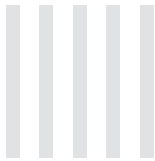
부부는 오늘도 할 일이 있음에 감사하고 하루를 즐거운 마음으로 보낸다. 목포라는 공간은 부부에게 특별한 곳이다. 서로를 만나게 해 준 곳이고 한평생을 함께 살아온 곳이다. 특히 박창세에게는 황해도를 떠나 도착한 목포가 제2의 고향이 된 셈이다. 조용하고, 바다가 있고, 강이 있고, 산이 있는 목포 같은 곳은 전국에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김상례 역시 유년시절의 기억이 묻은 곳에서 남편과 조용히 살아가는 일상이 좋다. 자신이 만든 음식을 먹으며 맛있다는 손님들의 말에 기운이 난다. 부부는 함께 목포의 근·현대를 살아왔다. 목포 유일의 황해도 손만뚝국집이라는 간판 외에도 항상 클래식 음악이 흐르며 고즈넉한 마당 한켠이 꾸며진 가게, 전국 유일무이한 만뚝국집임을 환기하며 오늘도 그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유리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제4편

목포의 희망



제1절 전남 지역 최초의 아동복지시설, 목포공생원
권 효 | 목포장학재단 이사

제2절 목포 지역 영유아 보육에 힘쓴 동민복지재단
정미영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연구보조원

제3절 목포 평생교육의 선구자
정미영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연구보조원

제4절 여성숙의 결핵요양소 운영과 의료선교
박혜영 | 목포대학교 문화와자연유산연구소 박사후연구원

제5절 한국디아코니아자매회의 섬김 활동
박혜영 | 목포대학교 문화와자연유산연구소 박사후연구원

제1장 어둠을 밝게 개척한 사람들

제1절 전남 지역 최초의 아동복지시설, 목포공생원

1928년 10월 15일은 사랑과 봉사의 기독교 정신으로 개인이 설립한 전남 지역 최초의 아동복지시설 ‘공생원(共生園)’이 세워진 날이다.

국경을 초월한 사랑과 믿음,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그들의 전설을 되돌아본다.

1. 복지선교사 윤치호의 아름다운 유산

목포 유달산 아래에 위치한 공생원을 세운 윤치호는 1909년 6월 13일 전남 함평군 대동면 상옥리 옥동마을에서 부친 윤영배와 모친 안동 권씨 사이에 태어나 12세 때 부친을 여의고 가난한 집안의 소년가장이 되었으나 함평옥동교회의 미국인 여선교사 마틴의 도움으로 서울의 피어선성경학원에 입학하여 이후 전남지역 최초의 교회인 목포양동교회의 전도사로 활동하였다.

당시 목포는 부산, 인천과 더불어 조선의 3대 항구로 급격히 발전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수많은 걸인과 고아들이 넘쳐났다. 이 시기에 목포에 온 청년 윤치호는 7명의 부랑아들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라는 의미의 공생원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주민들과의 마찰로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다 1930년 4월에 목포양동교회 성도들과 유지들의 도움으로 대반동에 목조 원사를 신축하여 1932년 12월 15일에 정식으로 설립인가를 받고 이후 1937년 4월 대반동 현 위치에 자리 잡았다. 현재의 숙소는 일제 강점 이후 한국에 배편 것이 별로 없는 일본이지만, 민간 차원에서 사죄와 봉사는 공생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일본항공(JAL) 회장이 증정하여 건축되었다고 한다.



그림 1 윤학자와 윤치호

공생원 설립 10주년이던 1938년 10월 15일 윤치호는 일본인 다우치 치즈코[田内千鶴子, 한국명 윤학자]와 결혼했다. 당시 조선총독부관리의 고명딸로 정명여학교의 음악교사로서 공생원에서 봉사 활동을 하던 중 윤치호의 인품에 반해 백년가약을 맺고 이름까지 한국식으로 고쳐가며 평생을 바쳐 고아 사랑에 헌신했다.

윤치호는 일제 치하의 제2차 세계대전, 광복 그리고 6·25전쟁을 거치는 동안 수많은 연행과 고문으로 친일 반동분자, 공산주의자로 몰리는 등 갖은 고초를 겪었으나 “고아들을 두고 우리만 도망칠 수 없다!”며 공생원을 끝까지 지켰으며, 인민군 치하에선 인민재판에 회부되었다가 마을 사람들의 변호로 풀려났다. 하지만 공생원이 인민위원회 사무실로 쓰였다는 이유로 인해 인민군을 도왔다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 또한 목포양동교회 전도사였던 그는 박연세 담임목사와 뜻을 같이하여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갖은 고초를 겪었는데 박연세 목사는 투옥되어 1944년 2월 대구형무소에서 옥사하여 지금은 독립유공자 묘역에서 영면하고 있다.

윤치호는 자신의 결혼식에 부랑인들을 초청하였는데 그들에게 광복으로 새 옷을 입혔지만 자신의 예복을 맞추는 돈이 없어 친구의 도움으로 국민복을 입고 예식을 치렀다.

1951년 1월 26일 전쟁으로 인한 수많은 고아들의 식량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전남도청에 갔다가 행방불명이 되고 말았다. 그는 신앙의 진리와 민족정신을 지킨 보기 드문 인물로 교육에 힘썼던 선구

자, 평생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기뻐한 전도자, 우리 모두의 아버지로 우리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있다.

2. 윤치호·윤학자 부부의 ‘사랑의 묵시록’

윤치호·윤학자 부부의 큰아들 윤기는 어머니의 일생을 기록한 『어미는 바보야』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원작이 되어 「사랑의 묵시록」이라는 한일합작 영화가 탄생하였다. 윤학자는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편이 사망한 후에도 그 뜻을 따라 한국의 아이들을 돌보아주었고 고아들의 어머니로 칭송을 받았다. 1968년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목포 최초의 시민장으로 영결식을 치렀다. 당시 신문에는 3만 명의 조객이 모였으며 ‘목포가 흐느껴 울었다’고 표현하여 그에 대한 지역민의 존경과 애정을 엿볼 수 있다.

그는 1962년 ‘문화훈장 국민장’, 1965년 제1회 ‘목포시민의 상’을 최초로 수상하였고 1968년에는 일본 황실로부터 ‘남수포장’을 받았다.

영화 같은 현실 「사랑의 묵시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의 조선반도 점령 시 조선총독부 관리의 고명딸인 치즈코는 식민지의 조선 청년과 결혼을 하게 된다. 목포에서 거지대장이라 불리었던 고아들의 아버지 윤치호와의 결혼은 일본인들의 경악과 조선인들의 놀라움으로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치즈코는 그의 아내로서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헌신적으로 고아들을 돌보았으나 해방의 격동 속에서 친일파로 몰린 윤치호를 대신해 윤기와 윤청미를 데리고 일본의 고향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고향의 어머니는 실망했고 그녀를 나무랐지만 그녀의 가슴속에는 목포에 두고 돌아온 공생원 원아들의 모습과 남편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러는 사이 셋째아이를 낳고…… 귀국을 결심한 치즈코는 어머니의 반대도 무릅쓰고 세 아이를 데리고 몇 달을 걸려 목포에 도착한다. 그러나 공생원에는 이미 새로운 보모로 서정선이라는 여인이 들어와 있었고 고뇌에 빠진 치즈코(윤학자)는 사적인 감정을 모두 버리고 자기 자식들마저 여느 고아들처럼 이가 들끓는 원생들의 방에 재우며 “나는 이제 공생원 원아들의 어머니다.”라고 맹세한다. 그녀의 결심에 서정선은 물러나고 공생원은 한층 발전의 기틀을 잡아간다. 그러나 6·25라는 역사의 소용돌이가 닥쳐 윤치호는 인민군과 국군에게 번갈아가며 심문을 당하면서 심한 좌절을 느꼈으며 간신히 목숨을 구한다. 같은 동족끼리의 처절한 싸움에 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윤치호는 몹시 절망하였지만 그대로 있다가는 공생원 원아들이 굶어죽을 지경이었다. 부인 윤학자의 만류를 뿌리치고 전남도청으로 식량을 구하러 떠난 윤치호는 그 뒤로 소식이 끊겨 버리고 윤학자는 수소문 끝에 그의 행방을 더듬었지만 허사였다. 곡절을 겪은 후 윤학자는 술집을 경



그림 2 1995년 김수용 감독 한일합작영화 「사랑의 묵시록」(이시다애리, 길용우, 박노식 주연). 일본의 300여 극장에서 개봉, 300만 명 이상이 관람, 일본후생성 아동복지문화 대상, 일본카톨릭영화상, 일본 영화비평가 대상 등 수상

영하는 서정선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녀 역시 윤치호의 행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때부터 윤학자의 처절한 고생이 시작된다. 여자의 몸으로 또 일본사람으로서 고아들을 돌본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웠다. 그리고 아들 윤기의 반항이 심해지자 윤학자는 더욱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고 윤기는 어머니를 증오하게까지 되어 영양실조와 야맹증이라는 병에 걸리게 된다. 그리고 같은 또래 아이들의 반쪽발이라는 놀림 속에서 점점 혼자만의 어둠속으로 빠져들게 되고…….

세월이 지나 대학교에 합격하여 기쁨에 가득 차 입학수속에 필요한 호적초본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말하자 어머니 윤학자는 그동안 숨겨놓았던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준다. 윤기의 호적은 일본 고찌에 있고 서류상으로 윤기는 분명 일본인이라는 것을. 어머니의 후회어린 설명에도 윤기는 어쩔 수 없는 모멸감과 자기연민에 빠지고 만다. 윤기는 그 충격을 서서히 극복하려 일본유학의 길을 떠났으나 어머니의 병환으로 급히 귀국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머니가 더 이상 회생불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윤기는 그제야 어머니의 모습과 그동안 그에게 드리워졌던 운명을 직시하게 된다. 참으로 오랜만에 어머니와 지내게 된 윤기는 그런 시간이 너무도 행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세는 악화되어 어머니는 유언처럼 한마디를 남기고 절명한다.

“우메보시가 다배파이(매실장아찌가 먹고 싶다).”

윤기는 그 한마디 말에서 어머니가 그동안 살아 온 참모습을 느끼고 흐느껴 운다.

3. 부모님의 뒤를 이은 작은 거인 윤기

윤학자 사후에 공생원을 이어 받은 이가 윤기이다. 그 역시 일본인 여성과 결혼하여 마치 부모의 일생처럼 살아가고 있다. 모친을 기억하며 쓴 그의 수기 『어미는 바보야』에 따르면 그는 늦게 철이 들었고 신장이 유난히 작았다.

신장 크기 순서로 번호가 정해지던 학창시절 윤기는 1961년 목포고등학교 3학년 1반 1번이었다. 그 때 그 시절 원장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생원 원아들과 똑같이 자고 똑같이 먹으며 키워졌다는 사실만 보아도 윤학자의 훌륭한 면모를 느낄 수 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세계 고아의 날’ 제정 행사가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렸는데 그 때 윤기는 실로 달변가였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 닿는 큰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했음을 느낄 수 있었으며 세계적인 고아의 아버지로 부족함이 없었다.

그는 1982년 일본으로 건너갔으니 실로 40년은 목포, 30년은 일본에서 살았다. 그간 그는 많은 일을 했다. 누나, 동생들과 힘을 합쳐 부모가 걸어왔던 공생(共生)의 길을 힘껏 따라 건다보니 허름한 초가에서 출발한 공생원이 보육시설은 물론이고 장애아재활원, 직업훈련학교, 자활센터, 상담소, 양로원 등을 갖춘 사단법인 ‘공생복지재단’으로 탈바꿈하게 됐다.

심지어 일본에서까지 양로원을 하고 있으니 큰 발전을 이룬 것이다. 지금 운영하는 시설만도 17곳이나 된다. 그만큼 빚도 불어났다. 그는 칠순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청에 가서 서류를 떼어 다시 제출해야 하고, 말단 공무원을 찾아가 사정해야 하고, 방방곡곡 발로 뛰며 모금운동을 펼쳐야 하는 팍팍한 현실이지만 사회사업가의 길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한다.

“어머니가 메뚜기를 볶아주면서 공생원 아이들이 100명 정도면 좋겠다, 하셨거든요. 어린 마음에 어머니는 스케일이 작아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100명이면 손수 요리를 해 줄 수 있어 하신 말씀이셨어요.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 제 마음이 한결같아야겠죠. 그리고 그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후배들도 전해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윤기는 “평생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신 길을 쫓아오면서, 국적이 달라도 영혼이 감동하면 못 이룰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며 어머니의 생일이자 기일인 10월 31일을 ‘유엔 세계고아의 날’로 제정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했다. 2012년에 한국과 일본의 ‘윤학자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회’ 참석 인사들



그림 3 고 윤학자여사 ‘한일평화선교’ 대상 수상



그림 4 윤학자와 공생원 원아들



그림 5 윤치호와 윤학자의 기념비

은 30일 전야제 행사에 이어 31일 본 행사에선 ‘유엔 세계 고아의 날 제정’ 청원 결의문을 함께 채택하기도 했다.

4.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전 한국일보 동경특파원인 정훈에 따르면 목포하면 생각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선 김대중 대통령, 김우진, 시인 김지하, 가수 이난영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윤치호 부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이들의 삶이 처절할 정도로 극적이었다면서 평범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마다하고 고난과 역경의 길로 뛰어든 것은 범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다고 두 사람의 삶의 깊이를 높이 평가하였다.

소외된 이들의 친구였던 예수는 가난한 이웃과 고아와 과부를 돕고 사랑하라는 진리를 남긴 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참 신앙인으로 평가받는 윤치호 전도사 부부도 “이 아이들에게 더 이상의 고통을 안겨주어선 안 된다. 나는 길 잃은 어린 양을 위해 이 보금자리인 공생원을 일궈나가는데 전 생애를 바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며 동시에 나의 평생의 사명이다.”라고 하였다. 그 뜻을 이어받아 현재 공생원은 아들 윤기, 손녀 윤록을 거쳐 외손녀 정애라 씨가 3대째 운영하고 있으며 공생재활원은 윤향미 원장이, 무안자립원



그림 6 개관식에서 축사하는 윤기



그림 7 '고향의 집 도쿄' 개관식에 참석한 이들

은 오승민 원장이 그리고 요양원, 예손자립원과 신흥어린이집 등 아동, 장애인, 노인, 정신보건복지 등 다양한 복지를 선도하는 재단으로 굴곡 많은 역사를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이루어가려는 숭고한 삶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5. 재일동포 고령자들의 안식처 '고향의 집 도쿄'

'고향의 집'은 지난 1989년 일본 사카이를 시작으로 오사카, 고베, 교토에 이어 다섯 번째로 일본의 수도인 도쿄 고토구 시오하마에 건축하여 2016년 10월 17일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은 1부 감사예배, 2부 기념강연, 3부 준공식, 4부 음악회 순으로 이어졌다. 준공식에 앞서 김동길 박사의 기념강연이 있었으며,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이준규 주일한국대사, 이수성 전 국무총리, 박홍률 목포시장, 하라겐지 전 총무부 대신, 노나가 히로무 전 관방장관 등 많은 한일 귀빈들의 격려와 축하가 있었다.

이날 준공식에서는 동요 「고향땅」이 불려졌다. 이 노래를 불렀던 아이들은 공생원 아이들이었다고 한다. 목포대교와 오가는 배들을 보며 눈앞에 펼쳐진 목포 앞바다와 함께 그들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기원한다.

제2절 목포 지역 영유아 보육에 힘쓴 동민복지재단

목포는 6·25전쟁 수행과 전후 복구기에 대규모의 고아, 장애인, 전쟁미망인 등이 발생했고, 이들은 심각한 빈곤문제와 주택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체계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임시방편적 구빈행정을 추진하였다. 이 시기 목포 지역은 자연스럽게 민간 사회복지기관이 생겨나는데, 그 중 유·아동을 대상으로 한 동민보육원이 1952년 재단법인 동민보육원으로 설립 등록되어 보육사업(고아원)을 실시하였다. 1950년대에 만들어진 민간 사회복지기관들 중에 현재까지의 명맥을 이어오면서 복지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동민복지재단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이 김명관이다.

김명관은 1936년 무안군 현경면 송정리에서 독립유공자인 아버지 김남철과 어머니 박덕음 사이에서 5녀 2남 중 넷째로 태어났다. 현경초등학교 3학년 초에 목포북교국민학교로 전학하고 목포에서 광복을 맞이한다. 목포중학교에 이어 목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남대학교를 1년 다니다가 5년을 휴학하고 조선대학교 영문과에 편입학한다. 대학교 졸업 후 조대여고에서 교편생활을 했으며, 교편생활 중 1966년도에 아내 장경숙과 결혼하여 슬하에 1남 2녀의 자녀를 두었다.

교사생활은 2년 만에 사직하고 목포 집으로 돌아와 동민보육원을 운영하시던 선친을 도와드리면서 복지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그런데 점차 사회가 안정되어감에 따라서 보육원의 사회 기여도가 약해지자 수용보다는 위탁위주의 탁아사업과 조기교육에 관심이 크던 김명관은 1967년 9월에 이 지역 최초의 동민탁아소의 설립을 인가받는다. 1978년에는 보육원 운영을 중단한다. 그러는 과정에서 탁아소의 명칭이 유아원으로 바뀌고 또 어린이집으로 바뀌면서 내무부 소관에서 사회복지부 소관으로 이관되고 법인 명칭도 재단법인이 사회복지법인으로 바뀐다. 이 지역 효시라는 자긍심을 지니고 동민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던 중, 어린이집을 이전의 보육원 시설로 착각해서인지 밤사이 어린이집 정문 근처에 갇난아기를 버리고 가는 기아행위를 가끔 겪으면서 어린이집 운영만으로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의 소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일종의 자괴감을 느낀다. 고심하던 중에 이 지역에는 3세 미만의 무연고 불우영아를 수용 보육하는 영아원이 없음을 알게 되었고 각고의 노력 끝에 1989년 말에는 정원 50명의 동민영아원 설립인가를 얻어 동민어린이집에서 더부살이 운영을 하다가 2003년에야 신축 이전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다.

김명관은 현재 동민어린이집과 동민영아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동민복지재단의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며 광복회 유족 회원이자 그 대표직을 맡고 있다.

1. 어린 시절

김명관의 고향은 무안군 현경면 송정리이며, 현경국민학교 3학년 때 목포 북만동으로 이사를 온다. 어린 시절 그의 부친인 김남철이 광주학생독립운동에 연루되어 구속과 선고, 징역을 당하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제가 1936년생, 우리 나이로 여든 둘이지요. 현경국민학교 다닐 때 인접 면인 망운면과 현경면에 각각 일제 공군비행장이 있었는데 현경비행장은 전쟁 말기에 생겼지요. 미군 비행기들이 매일같이 폭격을 했어요. 그래서 나만이라도 안전케 한다는 뜻에서 목포로 전학을 시켰어요. 3학년 초에 전학 오자마자 곧 8·15 해방이 됐지요.

아버님은 독립유공자이세요. 광주 농업중학교에 재학 중에 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셨다가 3년여의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최종 선고는 징역 1년이었지만, 일제 법령 하에서이기 때문에 미결수 생활이 길고 해서 당시 독립운동 지사들이 겪는 고통이 컸던가 봐요. 석방 되신 후에도 조용히 농사짓고 사시는데도 형사들이 도리구찌모자에 양복차림으로 나타나서 데리고 가버리면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소위 예비 검속이라고 해서 국가적 중요한 일이 있거나 할 때는 수시로 검거해서 인근 함평이나 심지어는 일로지서 같은 곳에 구금시켜두곤 했지요. 어머니가 위장병으로 평생토록 고생하셨는데, 마을에 모자 쓰고 양복 입은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다고 해요.”

2. 학창시절과 교직생활

김명관은 목포 북교국민학교 5학년이던 1947년에 일어났던 목포형무소 탈옥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목포형무소 탈옥사건은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일어난 제주 4·3사건의 진압 과정에서 검거된 자들을 목포형무소의 수용인원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수용한 결과 일어난 사건이다.

“해방 후에 지금의 중소기업은행 아래 당시 한전이 있었고 거기서 갑자옥모자점까지의 중간쯤에 저의 집이 있었지요. 6·25전쟁도 북만동 그 집에서 겪었어요. 해방되고 북교국민학교 5학년 때에 목포교도소 탈옥사건이 일어났어요. 제주 4·3사건 관련자를 체포해서 목포교도소로 이송했고, 당시 목포교도소의 수감인원이 400명인데 그때에는 1,500명이 수감되어 있었고 그 중 약 1,100여명이 탈옥에 가담했고 거의 전부가 사살된 것으로 기억됩니다. 시내 곳곳에 가마니에 덮인 시체가 즐비했고

내 눈앞에서도 총 맞아 죽기도 했어요. 끔찍했어요. 어렸을 때 일이라도 기억이 생생해요. 특히 잊혀지지 않는 것은 탈옥을 주도한 2명 중의 한사람을 옷통을 벗긴 채 트럭에 태우고 시내돌림을 하는데 트럭 짐칸 뒤쪽 난간에 쭈그리고 앉아서 양손으로 뒤 칸막이를 꼭 잡고 뒤따르는 어린애들을 보던 그 눈, 또 트럭 뒤를 춤추며 따라다니던 돌았다는 그의 어머니 모습 등 지금도 선해요. 끝내는 남교동 공설시장 앞에서 공개 총살됐지요.”

김명관은 1950년 6·25전쟁 당시 목포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었으며, 전쟁 중에도 학교에 등교하여 수업을 받았다고 한다. 공습이 있으면 교실에서 나와 1층에서 2층으로 가는 계단 밑에 숨거나 방공호로 대피하였다고 한다. 인공시절 학생들의 집회나 수업내용들, 인공시절 이후 부역에 참여한 학생들을 처벌하던 모습을 떠올리며 중학생 시기에 겪은 전쟁의 아픔을 회상하는 듯 보였다.

“중학교시절 6·25전쟁 당시에 현경 고향에 백부님이 계셔서 거기로 가족과 함께 피난을 가 있는데, 인공 치하의 학교에서 등교하라는 연락이 왔어요. 거둬지는 연락을 받고 나만 또 목포로 왔어요. 미군 공습을 무릅쓰고 수업을 했어요. 비행기 소리가 나면 손으로 돌리는 수동 싸이렌을 울리고 호루라기를 불곤 했어요. 2층 올라가는 계단 밑 공간에 모래주머니를 쌓아서 임시방공호로 이용했는데 그리로 대피하곤 했지요. 등교생의 수가 적어서 정상적인 수업은 아니어도 러시아어를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했지요. 그도 오전만이지요. 그 시절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용군 모집을 많이 했어요. 난 어려서 해당 안됐지만 선배들 중에서는 지원자도 있곤 했어요. 학교 측에서 집회를 자주 열어서 직간접으로 선동을 했어요. 수복이 되고 난 후 그때 활동했던 선배 간부들 중엔 곤욕을 치른 경우가 많았어요. 학교 뒤편에 철문으로 된 창고가 있었는데 그곳에 가둬두고 그랬어요. 목포에 인민군이 내려오는 데는 한 달이 걸렸지요. 7월 26일에서 27일 경에 와서 7월말에서부터 8월, 9월까지 두 달 가까이 인공시절인 셈이지요.”

김명관은 목포고등학교 재학 중에 6·25전쟁 휴전 반대 운동에 동참한다. 당시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휴전 반대운동이 활발했다고 그는 기억하고 있다.

“본래는 6년제 목포중학교에 입학했으나 전사이던 중 3년 때 학제 개편으로 6년 중학과정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나뉘었던 것이에요. 따라서 목포중학교 3년을 졸업하고 다시 입학시험을 거쳐서 목포고등학교로 진학했지요. 탈락한 학우들도 꽤 있었어요. 그러므로 고등학교 1년은 구 중으로는 4년인 셈이지요. 재학 중에 교과서는 무조건 국정교과서를 배급받았어요. 책값은 납부하고

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리도 강력히 휴전을 반대했는지 회의감이 들기도 하지만, 당시 이승만대통령이 한미방위조약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휴전만 되면, 요즈음 말로 코리아 패싱(한반도 관련 국제 이슈에서 한국을 소외시키는 현상)같은 걸 염려했던 것 같아요. 여하튼 반대 시가행진도 매일 벌이고 더러는 혈서를 쓰기도 했어요.”

김명관은 고등학교 졸업 후 전남대학교로 진학했으나 1년 만에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휴학한다. 5년여의 휴학기간 중에 선친의 복지사업을 돕기도 한다. 주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교회에 산재해 있는 후원자분들께 후원 연계된 보육원 수용아동 개인의 감사편지를 영문으로 번역해서 전해드리는 일이었다.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조선대학교 영문과 2년에 편입해서 1956년 2월에 졸업하고 2년간 조대여고에서 교편생활을 하면서 1966년경 아내 장경숙과 결혼하여 슬하에 1남 2녀의 자녀를 낳는다.

“대학교는 전남대학교를 처음에 1년 다니다가 휴학하고 중간에 조선대로 전편입했지요. 전남대학교 다니다가 5년 쉬면서 목포에서 아버님 일을 좀 도왔지요. 그 당시 내가 한 일은 선명회 같은 데와 연결해서 스폰서들 즉 후원자들과 아이들을 연계해서 5달러씩 지원을 받게 해주는 역할이었어요. 아이들이 영문으로 감사 편지를 못 쓰니까 써 주기도하고, 틈틈이 보육원 관리도 했지요. 5년간 쉬다가 복학하여 대학 졸업하고 영문과를 나와서 조대여고에서 1966년에서 1967년 3월까지 2년간 교편생활을 했지요.”

3. 전쟁고아들을 위한 동민보육원의 탄생

김명관은 1973년부터 1983년까지 10년간 문태중학교와 문태고등학교에서 영어과 교직생활을 한다. 1981년 아버지 김남철 작고 후 문태고등학교를 퇴직하고 1982년 1월에 재단법인 동민보육원 이사장에 취임한다.

김남철은 무안 현경에서 목포로 이전해서 개인 사업을 하다가 동민보육원을 운영하게 된다. 집안 형인 김윤봉과 부인인 이규인 형수가 운영하던 동민보육원을 형이 돌아가시고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직후인 1961년부터 운영을 하게 된 것이다.

6·25전쟁 이후 동민보육원은 고아 200여 명을 수용할 정도였으며, 1952년에는 현경면에 직영농장을 설치하기도 한다. 동민보육원은 1952년 3월 15일 재단법인 동민보육원으로 등록하여 보육사업(고아원)을 개시하고, 1954년 2월 1일 보건사회부로부터 법인 인가를 취득하였다.

“복지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김윤봉 씨라는 집안 형님이 계시는데 일본에서 교육받고 한국에서 결혼을 했어요. 형님이 키도 크고 인정이 많았지요. 한국전쟁이 나니까 이규인 형수가 고아들을 모아서 집에서 돌보았는데 이것이 동민보육원의 기본이 되었어요. 형님내외분께서 집에서 2명에서 3명 돌보다가 20명, 30명 되니까 동민보육원이 생긴 거죠. 그때 당시 복지시설들은 타국의 교회나 외국기관들이 지원해주는 것으로 운영했어요. 그 무렵 나도 형수가 운영하는 동민보육원에 놀러 와서 큰애들과 놀다가기도 했어요. 형님은 갯바위 근처에 방을 얻어 투병하고 계셨는데 주로 누워서 지내셨어요. 오래전 일이어도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 복지시설들은 주로 외국 후원기관들이 교회를 상대로 한국전쟁 고아돕기 모금운동을 해서 지원해주는 후원금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러던 중 1960년 4월 19일 4·19혁명이 나지요. 윤봉 형님은 이삼년 전에 서거하셨고 보육원 운영은 이규인 형수 혼자서 했지요. 저의 부친께서는 사업을 하시다가 4·19혁명으로 이승만정부가 무너지고 민주화 물결이 한창이던 그 해 7월 29일에 치러진 민의원선거에 무안병구로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실의에 젖어 있을 무렵이었나 봐요. 이규인 형수께서 갑자기 미국으로 이민가야 할 사정이 생겨 보육원 운영권을 넘긴 것이 1961년 초반에 시숙부님 격인 저의 아버님께 이양하고 미국으로 떠났지요. 저의 부친께서는 그 이전에는 보육원 운영에는 전연 관련이 없었는데 급작스런 일이기도 했지요.”

6·25전쟁 이후 우리 정부에서는 수많은 전쟁고아들을 해결하지 못하였으며, 기독교 선명회나 세계기독교 아동복지회(C.C.F. 현 한국 어린이재단) 등의 외국 선교기관들의 도움을 받아 아동들의 복지를 해결하고 있었다. 6·25전쟁 이후부터 1970년 초반까지 목포시내에 고아원이 13개소나 있었으며 그 수용인원만 1,500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당시 정부는 이 아동보호시설에 양곡을 보조하고 있었으나 이들 아동에 대한 1일 1인 양곡보조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 아동에 대한 1일 1인 양곡 지급량은 백미 216g과 보리 207g, 부식비 25원씩이었다. 이 시기 건립된 목포 지역 민간사회복지기관은 목포맹아원(현 목포광명원), 경애보육원(현 경애원), 성덕원, 동민보육원(현 동민영아원), 목포농아원, 목포모자원(현 태화모자원)이 있다.

“목포가 한국전쟁 때는 피난 오고 가고가 될 했는데 1·4 후퇴 때 중공군이 밀고 오고 그럴 때 많이들 오고 가고 했죠. 목포가 제주도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피난민들이 거쳐서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전쟁고아들이 많이 생기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고아원이나 그런 시설이 많아요. 광주와 비교해 봐도 육아시설이 더 많아요. 지금도 공생원도 있고,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경애원, 성덕원, 아동원 이렇게 4개나 있어요. 그 당시 정말로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지원해주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이규인 형수와 형님이 보육원 운영할 때 운크라에서 돈이나 물품을 지원해 줬어요. 우리를 도와주는 곳

은 기독교 선명회와 아동복지회 등이 있고, 정기적으로 지원을 해주었고 운크라는 비정기적으로 지원을 해주었어요. 정부에서는 식량지원을 해주는 정도였어요. 타국의 복지기관에서 아동 1인당 5달러에서 10달러씩 지원을 해주었지요. 교회를 통해서 모금을 해서 지원을 한 것이에요. 한국에 있는 동민보육원에 있는 한 아이하고 결연을 해서 매월 이 아이에게 5달러씩 지원을 해준다면 교회를 상대로 후원자를 모집을 해요. 한국의 불쌍한 고아들과 인연을 맺어서 돕겠다면서 아이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돌보는 시설에 줘요. 각 나라의 교회를 상대로 구호단체가 모금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없어요. 그것도 다 똑같이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아동복지회 그런 곳은 상당히 잘해주었고, 선명회는 합창단으로 이름은 널리 알려졌지만 도움은 많이 주진 않았어요.”

4. 동민탁아소(유아원)가 생겨나기까지

동민탁아소(유아원)는 1967년 인가를 받아 김명관의 아내인 장경숙이 운영을 맡는다. 동민탁아소의 시초는 동민보육원의 원아 수가 점차 줄어들자 빈 공간이 생긴 곳에 밖에서 배회하는 어린아이들을 돌보던 윤 모 쌍둥이자매를 본 김명관이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여 강당을 빌려 준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김명관이 운영하던 동민보육원은 1978년 운영을 중단한다.

“동민탁아소는 잠을 재우지는 않고 처음에는 무료로 했었어요. 윤 모라는 쌍둥이자매가 지금 MBC 자리가 예전엔 터미널자리인데 그 즈음인 곳에서 아이들 손을 잡고 놀아주는 것을 여러 번 봤어요. 동네아이들인데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보기에 너무 안타깝워서 양철지붕이긴 하지만 강당이 비어있으니까 자리를 내주었지요. 그렇게 해서 동민탁아소를 시작 한 것이에요. 그뻘 별 의도도 없이 그냥 마음이 쓰여서 했지요. 여기서 놀라고 장소를 제공해주니까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아이들이 한 30명에서 40명이 손잡고 여기서 놀고 노래도 가르치고 무용도 하는 것을 체계화시킨 것이 동민 탁아소예요.

유아원은 조기교육사업으로 맞벌이 부부들이 주로 교육 겸 보육도 함께해서 점심먹이고 퇴근하기까지 데리고 있다가 귀가 시키고 하는 곳입니다. 마침 맞벌이 부부를 위한 조기교육과 보육의 필요성을 느끼던 차에 1967년도에 탁아소에 전망이나 의의를 깨닫고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생각하여 목포에서 제일 크게 시작을 했지요. 동민탁아소를 시작을 한 거죠.”

1967년에 생긴 동민탁아소는 목포에서 처음으로 생긴 탁아소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보

육료를 받고 운영하는 곳이었다. 지금의 동민어린이집은 초창기에는 동민탁아소라고 불렸으나 1978~1991년에 동민유아원이란 이름의 조기교육 전문기관으로 운영하였다. 동민탁아소라는 명칭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유아원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1970~1980년대가 될수록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성장과 더불어 맞벌이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유아원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도 늘어났다. 이에 따라 아이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목포 최초로 유아원 아이들을 위한 통학차량을 운영한다.

“내가 탁아소를 운영할 때 갈 곳이 없어서 배회하는 아이들을 모아서 조기교육과 주간보육을 겸해서 형편이 어려운 경우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다른 유치원에 비하여 부담금을 비교적 최소화시키고, 교사들에게는 최대한 대우해 주자는 신조를 계속 지킨 것에 자부심을 느껴요.

유치원은 조기교육시설이고 어린이집은 조기교육과 주간보육을 겸하는 시설이에요.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이어도 100%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운영비의 일부를 학부모가 부담해요.

동민탁아소 운영 시 이 근방을 비롯한 다른 지역까지의 아이들도 통학할 수 있도록 목포 최초로 12인승 미니버스를 운영했어요. 동민탁아소를 이용한 아이들이 300명이 넘으니까 미니버스 두 대를 이용했지요. 경제성장과 맞물려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탁아소가 인기가 있었죠. 차량 운행은 1960년대 말 정도부터 했어요. 목포에서 유치원으로는 성심유치원과 중앙유치원이 있었고, 동민탁아소가 처음이었지요. 탁아소가 유명해지고 사업이 커지니까 그때 탁아소 선생님들 인건비를 많이 줬어요. 학교 교사 수준에는 못미쳐도 유치원 교사 급여에 맞춰 대폭적으로 지급했지요. 40명에서 50명을 한 선생님이 담당하고 했었으니까요. 직원들도 많이 있었어요. 동민탁아소 말고도 목포에 소망 탁아소도 있긴 있었어요. 나중에는 많이 생겼어요. 처음엔 동민탁아소 밖에 없었어요.”

1982년 김명관은 법인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노후된 목조 본관 건물을 철거 멸실하고 2차에 걸쳐 162평의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2층 건물과 사무실 등을 신축하여 재단에 기증하고 담장 정문 등 환경을 정비한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유아원이 어린이집으로 명칭이 통일됨에 따라 1991년 동민유아원의 명칭이 동민어린이집으로 변경되고, 그와 동시에 보건복지부 소관시설로 전환된다.⁰¹⁾ 동민어린이

01)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일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반일제 그리고 혼합제로도 운영된다. 유치원은 교육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반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국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교육기관으로서보다는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여겨지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약간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취학전 교육의 기능 중 보호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며 저소득층 및 직업을 가진 여성들



그림 1 동민어린이집 정문에서 김명관 이사장



그림 2 이사장 집무실에서 김명관

집은 유아를 위한 교육기관으로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보육하는 시설로서 조기교육을 실현한다.

“내가 문태중·고등학교에서 10년간 근무하면서 연금도 들고 그만둘 때 퇴직금을 받았는데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 당시 700에서 800만 원을 받아서 그것을 투입해가지고 건물을 모두 싹 쓸어버리고 처음에는 단층으로 지었다가 퇴직해서 정부지원 없이 순수하게 2층으로 만들었지요. 동민탁아소 설립인가 받았을 때가 1967년도인데 내가 이사장 될 그 즈음에는 탁아소 건물은 양철지붕 목조건물로 아주 낡았어요. 내가 헐어버리고 1982년도에 양철지붕의 건물을 1층 만들고 2층을 올렸지요. 그러는 즈음 유아원이 동민어린이집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지요.

어린이집은 하루 종일 아이들을 데리고 있어야 해요.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절대 필요한 기관이 어린이집이지요. 이 지역에서 조기교육과 맞벌이 부부의 복지를 위해 앞장서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는 데에 큰 자부심을 가집니다.”

의 자녀를 맡아 보호 및 교육하고 있다.

5. 동민영아원 설립과 운영

동민영아원은 사회복지법인의 목적 사업과 어려운 경제적 사정 및 가정결손 등으로 인해 유기 소외되는 영아들에 대한 배려 차원의 복지 시설이 우리지역에는 없음을 안타깝게 여긴 김명관이 1989년 12월 6일에 설립인가를 취득한다.⁰²⁾ 0~만5세의 국민기초수급자, 미혼부, 모자녀, 요보호 아동 등이 영아원에 들어갈 수 있다. 동민영아원은 100% 국가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그림 3 동민영아원 정문에서 김명관 이사장

“재단법인 동민보육원의 운영을 중단하고 재단법인 동민유아원만을 운영하다가 사회복지법인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유아원 운영만으로는 복지법인의 소명을 다하기 어려움을 느끼고 있던 터에 시설 주변에서 기아, 미아 발생 등을 겪으면서 복지법인으로서의 취지에 맞는 시설을 물색하던 중에 이 지역에는 3세 미만의 무연고 요보호 아동을 수용 보육하는 영아원이 없음을 알게 되었지요. 목포에는 만3세 이상 19세까지의 무연고 아동을 수용하는 양육시설인 고아원은 많아도 영아원은 전남에서 나주 한 곳 밖에 없는 것이예요. 아버님이 운영하시다가 중단한 동민보육원도 고아원이었지만 중단한 지 오래이고 다시 운영할 수도 없었지요. 그래서 각고의 노력 끝에 많은 도움을 받아 사회복지법인 동민영아원의 설립인가를 받아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동민영아원은 기독교정신에 바탕을 두고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요보호 아동을 수용 보육함으로써 사랑과 봉사정신 속에서 건전하게 성장하여 사회와 나라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⁰³⁾ 2002년 아동양육시설 동민영아원 신축공사를 착공하고, 2003년 목포시 용해동 321번지 320-2번지로 영아원을 이전한다. 2003년 6월 5일 어린이집 본관 2층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02) 목포지역사회복지시설연합회, 『사회복지, 그 현장의 소리』, 하마출판, 2004.

03) 같은 책.

2004년 보건복지부 소관이던 어린이집이 여성부 소관으로 이관된다. 2004년 6월 16일 법인 명칭인 사회복지법인 동민보육원을 동민복지재단으로 변경한다.⁰⁴⁾

목포 지역 영·유아 사회복지시설은 각 시설의 현황에 맞추어 보호, 관리할 수 있는 대상연령을 정하여 아이들의 연령에 맞는 보호시설로 이동시켜 보호하자는 암묵적인 약속을 하여 아이들의 편리를 생각하고 있었다.

“동민영아원은 1989년에 인가를 받았어요. 그 시절에 고아원이나 그런 시설들은 사회가 안정되어 갈수록 국가에 대한 기여도가 떨어지지요. 4·19 이후에 사회가 안정되고 국민의 생활이 안정이 되니까 고아원이나 영아원 같은 시설은 인가를 받는데 있어 어려웠어요.

영아원은 원래는 동민어린이집 자리에 병합해서 운영하다가 2002년도에 지금의 자리로 옮긴 거예요. 동민영아원은 정부에서 5억 원을 지원받아서 세웠어요. 실제로 공사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7억 원 정도 들었어요. 동민영아원과 어린이집은 같은 재단으로 복지사업을 기본으로 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되는 영유아 시설이 통합되었지요. 각 시설마다 연령에 걸맞는 설비나 시설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요. 목포 지역 시설끼리 암묵리에 취학 연령인 7세까지의 영유아는 동민영아원에서 양육하고 그 이상 아동은 일반 양육시설(경애원, 성덕원, 공생원, 아동원)에서 보육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6. 목포시에 바라는 마음

“지금 생각하면 저는 목포 지역에서 최초로 동민탁아소를 만들어서 오고 갈 곳 없던 아이들을 보육하는데 힘썼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직원들에게 그만큼의 보상을 해주었던 것이 기억에 남아요. 인건비가 최우선 아닙니까! 저는 운영하는데 거의 모든 비용을 인건비에 투여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져요.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대우받고 살아야지요. 또한 목포 복지부분에서 집행이 잘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에 복지시설이 체계적인 지원으로 더욱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아원 아이들이 건강하게 좋게 살아야지요. 시설에서 살았다는 시각을 버리고 언제라도 활기차게 살아갔으면 하지요.

어린이집 앞에 있던 옛 철도폐선부지가 웰빙공원의 산책길, 자전거 전용도로, 웰빙숲 2차선 차도로 전환되어 눈부시게 발전적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그 중에도 어린이집 앞에서 공원 내 차도까지 약 23m 구간이 도시계획 상으로는 8m 도로로 연결토록 돼 있음에도 집행이 안 되고 병목 현상을 빚

04) 동민영아원 홈페이지(<http://www.dongmin.org>) 안내글 참조.

고 있어서 소방상의 문제나 통학차량 이용이 많은 어린이집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적으로 도로 공사를 하여 통행이 원활하게 된다면 인근 주민 생활에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 기여에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려고 노력하는 어린이집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목포시에서는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여 하루속히 도로공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가 광복회를 만들었고 목포시에선 유족회의 한 사람으로 목포시에서 치르는 3·1절하고 8·15 광복절, 정명학교 4·8만세 사건의 행사에 아직까지는 꾸준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그날의 뜻을 새기고 그날의 의미를 다질 수 있도록 광복회 유족회원이라도 최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풍토가 아쉽습니다.”

김명관은 동민보육원 시절부터 동민탁아소를 운영할 당시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 보육, 직원들의 복지에 힘썼음에 자부심을 느낀다. 또한 동민어린이집과 동민영아원 등 목포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이 더욱 체계적인 지원 아래 안정되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정미영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연구보조원

제3절 목포 평생교육의 선구자

김성복은 1933년 일본 오사카에서 아버지 김재만과 어머니 나일처 사이 외아들로 태어났다. 5살 되던 해에 신안군 지도읍 고향에 돌아와 중앙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목포 문태중학교를 입학한다. 문태중학교 재학 중 6·25전쟁이 일어나 군 입대를 하여 해병대 5기생으로 가리산전투, 양도전투 등을 참전하고 금성충무, 충무은성, 화랑은성무공훈장 등을 받는다. 부상으로 인해 발령대기 중 헌병시험에 합격, 부산 국방부 합동헌병대에 근무한다. 당시 목포헌병대에서 헌병 13명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1953년에 목포헌병대에 지원하여 목포로 돌아온다. 같은 해에 아내 오정례를 만나 결혼하고 슬하에 3남 2녀를 낳는다. 목포 지역 한글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한글학교를 만들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1961년 해병 예비역 준위로 전역한다. 1961년에 정식으로 성심학원 설립인가를 받고, 1963년 목포향토중학원으로 개명한다. 이때 목포경찰서 직업소년학교를 병설 운영한다. 1986년 문교부 지정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인 목포향토중·고등학교를 인가받고, 1987년 목포제일종합중·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지역의 불우한 청소년 및 성인학습자들에게 정보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학교로 거듭난다. 2000년 전라남도 교육감 지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제일정보중·고등학교로 명칭이 변경되고, 2004년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된다. 2006년 김성복은 교육인적자원부 제3회 평생학습대상 수상 성인교육부문을 수상한다. 그는 목포 지역에서 성심학원을 이끌면서 한글교육을 성인 문해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현재까지 실천하고 있으며, 목포 평생교육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 유년시절과 6·25전쟁 참전

김성복의 부모님은 모두 신안 지도 출신으로 군수장비 제작을 위해 일본으로 끌려갔다. 어머니의 병환이 깊어 한국에 돌아온 그는 지도에서 중앙국민학교에 입학한다. 교육자 집안이었던 그의 외가는 어머니가 사망하자 하나뿐인 외손자를 귀히 여겨 항상 관심을 가져주었고 친가와 외가를 왕래하며 지냈다. 졸업 후 친할머니와 함께 목포로 이주하여 문태중학교에 입학한다.

“내가 목포 와서 학교 갈라고 알아보는 참에 목포에 목포사범병설중학교라고 생겼었어요. 목포여자중학교 앞에 양철집으로 해가지고 판잣집처럼 되어 있는 교실을 지었더라면 거기를 나오면 선생을 해. 그런데 그걸 희망해서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다고. 조금 안되어서 사범학교를 안 간다고 했지. 학교가 너무 어렸을 때 생각이지만 모습이 형편없었어. 허름한 교사를 보고 실망했지. 할 수 없이 영흥고등학교 옆에 양동에 문태중학교가 있더라. 그래서 다시 문태중학교 후기 야간반을 모집을 해서

시험 본 것이 합격해서 거길 다녔지.”

김성복이 문태중학교 5학년이 되던 해인 1950년에 6·25전쟁이 일어나 어린 나이이지만 학도병으로 징집된다. 당시 해병대에서는 30명을 뽑는데 지원자가 300명이 넘어 유달산을 돌아 선착순으로 도착한 30명에게 입대자격을 주는 체력시험을 봤다. 그는 30명에 포함되어 함대를 타고 진해에 도착해 해군 간부후보생 4기 훈련을 받았지만 너무 어려 통솔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다시 해병대 5기 사병 자격으로 입대하여 군사 훈련을 받는다. 그는 생애 첫 전투인 가리산전투에서 총상을 입을 당시에도 목포에 돌아가 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하겠다는 신념으로 전쟁에 참여했다고 한다. 그는 양도전투에 참전하고 양도전투 때 입은 총상으로 부산 해군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발령을 기다리고 있던 중 헌병시험에 합격하여 국방부합동헌병대에서 근무한다.

“학교 갈라고 책가방을 들고 목포역전을 지나가는데 경찰관하고 헌병하고 나한테 오라 하더라, 그래서 갔어. 그랬더니 책가방은 뺏어서 파출소에 집어 넣어버리고 역전으로 가라고해서 갔는데 나 말고도 수백 명이 잡혀와 있어. 그때 강제모집 할 때예요. 그 통에 목포여자중학교에서 해병대 모집이 있다고 그래서 몇 명 뽑냐고 물어보니까 30명을 뽑는다고 하더라. 같은 군대 갈 거라면 해병대 가는 것이 나을듯해서 해병대 지원한다고 했지. 수 백 명이 해병대 지원을 했고 팬티만 입혀서 유달산을 돌라고 하는 거야. 목포여자중학교에서 팬티만 입고 한 500에서 600미터 뛰었어. 뛰어서 파출소 가서 도장을 찍고, 남곡동 파출소에서 도장 찍고 저기 뒷개 파출소 가서 도장을 찍고, 용해동 파출소에서 도장을 찍고 그러고는 선착순으로 들어오는 거야. 체력시험을 그렇게 봤어.”

국방부합동헌병대에서 부산지구헌병대로 발령이 나서 근무할 때 목포헌병대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는 목포로 돌아가서 학교를 다니고 싶다는 신념으로 13명을 뽑는 목포헌병대에 지원하여 1953년 목포헌병대 소속으로 목포에 돌아온다. 당시 목포는 70일간의 인민군 치하 때 부역했던 사람들을 처벌하고 있어 민심이 흉흉했다. 학교 복학을 위해 1953년 1월경 문태고등학교를 찾아갔으나 이승만 대통령 담화로 1951년 1월 15일까지 등록한 사람만 복학을 할 수 있다하여 학교를 들어가지 못했다. 같은 해에 아내 오정례를 만나 산정동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인민군들이 헌병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나봐. 우리가 상륙을 해가지고 목포 치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사람이 있어야지. 없지. 인사청을 갔더니. 목포헌병대 창설을 하는데 열 세 사람을 뽑는데 너 갈래 하니 그것이 소원이라고 해서 거기서부터 풀리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지원했

어. 목포해병대로 최초로 발령을 받았어. 목포 사람이 나 하나 있고, 우리 후배인 진도 애가 하나 있어. 열세 사람이 함대를 타고 목포로 왔어. 목포에 왔더니 이훈동씨 집을 나한테 주더라고. 목포극장 앞에 죽동 골목에는 전부가 한국은행 사택들이 40개에서 50개 있는데 그건 해병경비대 애들한테 전부 배당을 해줬고, 우리 헌병대에 나도 집이 없으니까 이훈동이 집을 주더라고. 가보니까 태평양 갈아서 여기서 소리 지르면 저기서 안 들릴 정도로 크나큰 집이야. 일주일은 거기서 살았어. 밤에 잠 잘 때는 무섭기만 하고, 그때는 젊을 때니까 술 먹고 늦게 가고 그랬는데. 안 되겠길래 나중에는 헌병대 뒤에 조그만 집이 있어서 그 집을 해남출신 국회의원 박희배 씨랑 바꿨어.”

2. 목포 지역 한글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다

1950년대 목포는 해방 직후의 정치적 혼란과 6·25전쟁이 가져온 경제적 어려움이 극에 달하여 기존 모든 시설물이 파괴된 것들을 복구하고 재가동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목포 만호동에는 히바리⁰¹⁾ 골목이라 부르는 곳이 있었는데 유곽이었다. 이곳에서 휴가 나온 군인들이 성병에 걸려서 고향에 돌아가 병을 옮기는데 그 파급력이 매우 컸다. 김성복은 휴가군인들이 한글을 몰라 도망병이 되는 모습을 보며 신혼생활을 하고 있던 대성동 집을 휴가군인 휴식소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1954년부터 1961년까지 유지된 휴가군인 휴식소는 1961년에 육군 2군 사령부에서 군용 콘셋(양철로 만든 임시 막사) 2동을 보내줌으로써 중단하게 된다.

“목포가 그렇게 가난했어. 말하면 창피하기도 한 시대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 만호동에 가면 히바리 골목이라고 판자촌으로 되어있는 곳이 있어. 참 부끄러운 자화상이지. 13살 어린아이부터 40에서 50대, 60대까지 여자들 몸 파는 데가 있어. 그 사람들이 500명에서 600명 가까이 있었다고. 같이 근무하는 목포출신 아닌 헌병들에게도 부끄럽기도 하고 자꾸 그런 것이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 당시 헌병대에 군인들이 하루에 수십 명씩 매일 잡혀 들어온다고. 그래서 영창을 다섯 개나 지었어. 이상하다 싶어서 알아보니 세상에 한글도 모르는 남자들이 아무나 강제로 잡아놓고 군대에 보내 논거야. 전쟁하면서도 휴가 날짜를 아나, 소속 군번, 계급, 성명을 아나, 한글을 모르는 거야. 휴가를 주면은 섬에 와가지고 배가 지금처럼 정기적으로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한번 가버

01) 일제 강점기 목포에는 히바리라는 하급 유곽도 존재했다. 목포 사람들은 옛 하급 유곽이 있던 현재의 만호동 항동시장 일대를 지금도 히바리마치, 히바리 골목이라고 부른다. ‘히바리’라는 말은 일본어로 ‘잡아당긴다’라는 말로 호객행위를 뜻한다. 해방 이후 사꾸라마치의 여성들도 이곳으로 옮겨오면서 1970년대까지 히바리 골목은 좌우 20m정도로 길게 성매매 업소들이 늘어섰다. 이 골목은 1970년 초 성매매 업소가 삼학도로 집단 이주하면서 사라졌다(류용철, 『목포 옛길을 찾아서』, 젊은느티나무, 2009).

리면 며칠 만에 오고 하니까 돌아오지를 못하지. 군대 법은 무조건 휴가 날짜 하루만 어겨도 도망법이 되니까. 군대는 기상이면 그런 사정 필요 없이 원칙이 날짜에 맞게 와야 하거든. 용맹(용당 선당)에서 하루 수십 명씩 왔다 갔다 하는 휴가 군인들, 도둑놈 할 것 없이 전부다 통제를 하려면 거기다가 뭘 하나 만들어야 겠지만 그래서 선창에 부두 파견대를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통제를 하기 시작했어. 도망범들이 왜 그렇게 많았냐 하면은 문맹자가 그렇게 많았다고. 섬지역이나 시골 거기에 태반이 문맹자여. 그래서 학교를 만드는 원인이 된 거야.”

목포는 전쟁으로 인해 생겨난 피난민촌도 많았기에 국·공유지에 대한 불법점거를 양해해 주는 사례도 많았다. 그리고 지역의 여건이 풍족하지 못했기에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헌병대 직위를 이용하여 목포 지역과 지역민을 위해 도움을 주었다. 이○○이 버스를 만들면서 내는 소음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대중들에게 양해를 구했고, 이경전이라는 창자가 빠진 구걸소년을 수술시켜 살렸다. 그리고 아동원 삼남매의 재산을 찾아주는가 하면, 유달초등학교 강당 화재 때는 소방관과 함께 진압하고, 목포-제주 간 여객선 경주호 납북 사건⁰²⁾의 책임자로 사건을 마무리 짓기도 했다.

“역전에 전화국자리 그 근처가 전부 다 창고였어. 양철로 된 창고. 창고 옆에는 전부가 요만한 자갈로 돼가지고 거기에 풀이 많이 자란다고. 아침, 저녁으로 보면 50명에서 60명의 아주머니들이 드글드글 와서 서로 싸움을 해 그 풀을 서로 뜯어 갈라고. 왜 그러냐 하고 알아보니 일본놈들이 와가지고 창고에다가 쌀, 보리 이런 것을 전부 쟁여 났다가 일본에 다 가지고 가고 떨어진 것이 오래되니까 이 파리가 돌아서 그놈을 주워다가 죽이라도 써서 먹으려고 한 거지. 한번은 헌병대에 민원이 들어왔어. 동광고등학교라고 지금 홍일고등학교 쪽에서 민원이 들어 온 거야.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아우성치면서 못살겠다는 거여. 알아보니 목포에다 버스회사를 하나 만들려고 한다고 그래. 내 고향 목포에 버스가 있어야 한다. 버스를 만들기 위해서 드림통 사다가 그놈을 두드려 가지고 퍼서 버스를 만든다는데 내가 목포 놈인데. 그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라 했지. 대중이 타고 다니는 버스를 트럭에다가 개조해 가지고 쓸려고 했나봐. 목포시내에 버스가 없을 때라 걸어서 다닐 때 이니까. 내가 알기론 목포에 트럭이 다섯 대인가 있었어. 그러고 택시가 하나 있었어. 한국은행 지점장 자가용 택시 하나가 있

02) 목포 제주 간 여객선 경주호 납북사건은 1960년 12월 15일 밤 100여 명의 승객을 싣고 목포를 출발하여 다음날 제주에 도착할 예정인 경주호 납북 미수 사건으로 19일이 되어서야 사건의 막이 내린다. 일단의 좌익 세력이 경주호를 탈취하였다. 애초 중국으로 향하려던 이들은 항거하는 군인 2명을 살해하는 등 필사적으로 월북을 시도했다. 그 무리 중에는 부녀자, 학생, 어린아이까지 섞여 있었다. 이 사건으로 24명이 구속되었고 처음 1심 판결에서는 5명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3명이 사형 선고되었다. 해방 후에 터진 최대의 해상 납북 사건이었다(김성복·정태영, 『김성복 못다한 이야기』, 뉴스투데이, 2011).

을 때야. 그 당시 목포 역전에 목포에서 광주로 가는 버스가 금성여객하고 광주고속하고 두 개가 있었어. 그것을 보고 착안한 것이 목포 시내버스 있는 것도 좋겠다 싶었지. 사람들이 타고 다닐 것인데 주민들이 조금 시끄러운 것은 양해하면 되고 기왕 군대에서 사온 것이니까. 압수하고 처벌을 해야 하지만 사온 것을 모른 척 해주면 그 드럼통이 버스 뚜껑이 된다 그거야. 권력을 이용해 눈감아 줬지. 그리고 목포역전 주변은 어떻게 생겼냐하면 멜라콩이라는 사람이 역전에서 쓰레기 같은 거 하고 집 나르는 사람인데 그놈이 역전파출소에서 건너려고 하는데 바다라서 건너갈 수 없어 다리를 만든 것이 멜라콩다리여. 그런 모습을 보고 시에다가 강압을 해서 두둑을 덮어서 육지가 되었지. 그런 일을 내가 했지.”

김성복은 1961년 5·16 군사정변 당시 헌병대 근무를 하면서 경찰서장 직무대리를 하게 된다. 당시 지역 인사들을 혁명이란 이름으로 형무소에 들어가게끔 하려는 지시가 내려졌지만 그의 재량으로 봉사활동을 시키고 석방시켜주었다. 그리고 천주교 신자였던 그는 대부이자 경비부사령관이었던 백기조 씨와 함께 경동성당을 설립하는데 일조한다.

“당시 경비부사령관에 백기조 씨라고 그 양반이 성당에서 내 대부이자 천주교 신자였어. 경동성당을 왜 짓게 되었냐하면 천주교 신자 중에 헌병은 나하나 뿐이여. 영세를 받은 사람이. 그러디 트럭이 목포에 다섯 대 밖에 없었어. 차 하나 있는 것은 한국은행 지점장 차 하나 있었고, 나 결혼할 때 그 차를 써먹기도 했지. 계엄령시절이라 헌병대 승인 없으면 차들이 밖을 못나가 아무것도 못하고, 못벌어먹을 때인데. 그 사람은 경동에 사니까 경동성당을 지어야겠는데 거기가 물바다거든 독(돌)으로 메꾸어야 성당을 짓는데 큰일 났다고 그래. 자기네들은 관리를 못해 헌병만 출입을 허가할 수 있었거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한 거야. 목포에 차가 없는데 뽀히 다섯 대 뿐인데 그래서 그 다섯 사람들을 불렀어. 당신들도 벌어먹고 살아야지요. 벌어먹고 살려면 나가야지요. 그러면 짐을 싣고 나가면 돌아올 때 독 하나만 싣고 오소. 동목포라고 거기다가 검문소를 만들어서 차를 내보내면 들어가고 나갈 때 통제가 되는데 나갈 때 허가를 해줬지. 먹고 살게 해준 거야. 나갔다고면 독을 싣고 와서 지금의 경동성당 자리에 놔두고 가고 그랬어. 한 2년에서 3년 했어. 그렇게 경동성당 부지를 매립을 한 거야.”

3. 목포 지역 한글교육의 기초를 다지다

김성복은 1961년 경북포항으로 전출을 갔으나 본인이 없는 한글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느끼고 갈

은 해 9월 28일 해병 예비역 준위로 전역한다. 전역 후 그는 목포시 청년회 청년회장 및 재건국민운동 활동으로 빈민촌 갯벌 매립에 힘쓰고, 한글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한글교육을 청년회와 함께 시도하기 시작한다.

“내가 제대하고 나서 1961년부터 시작한 재건국민운동을 왜 하게 되었냐 하면은 학교가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재건국민운동 같은 데 가보니까 이런 것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재건국민운동 참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동네에 청년회, 부녀회를 조직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했어. 재건국민운동에서 내가 뭘 맡았냐 하면은 목포시 청년회 회장을 맡았어. 청년회장은 목포시에 열 몇 개 동을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한글공부를 시킬 사람이 얼마나 있나 싶어서 각 동마다 부탁을 했어. 명단을 내봐라 하니 전부해서 약 삼천 명이 나와. 파악도 안 돼. 그래서 산정초등학교가 놀랐지. 산정초등학교에 가서 교장이 진도분인데 교장님 나 좀 도와 교실 좀 빌려 주소 해서 교실 세 개를 빌렸지. 발 디딜 틈도 없이 모여 버렸어. 그래서 더욱 한글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청년회 사람들이 고생해서 문맹 퇴치도 하고 우리 학교 한글 가르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경찰 시험보고, 열 몇 명이 합격해서 경찰이 된 사람도 많아. 이 사람들이 다 상록회라고 활동 했어.”

목포 지역 재건국민운동과 더불어 1961년부터 재향군인회 회장을 13년간 하면서 지역의 일꾼으로 지역에서의 한글 공부의 기초를 다지기 시작한다.

“땅을 매립하고 이렇게 봉사를 해야 하는데 목포 시내가 전부가 판자촌이었어. 그런데 박정희가 전부 철거를 하라고 시켰어. 그래서 시장한테 말을 해서 대안을 세우자 했는데 땅을 먼저 만들어서 철거민을 철거를 시켜야지 않겠냐고 했지. 그래서 밀가루를 내놔라 해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면서 시 지원을 받아가지고 산정 3동에 목포고등학교 철도 밑에 거기를 매립하기 시작했지. 일단 땅을 매립해 놓고 여기다가 지어서 살도록 하자 철거를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판자를 뜯어서 짓게끔은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해줘서 상록회 회원들과도 하고, 나 혼자 하고 그랬어. 그것을 삼 개월인가 했어. 매립을 해서 골목 정리해서 구획 정리해서 나눠 준 거지. 그것도 부족해서 난리였지. 원뚝⁰³⁾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그때 철거민 사람들이여. 그래서 나도 여기 학교 있는 데를 온 거지. 여기서부터 내가

03) 연동 원뚝을 가리킨다. 연동 원뚝은 '정병조 원뚝'이라고 하여 1925년에 축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철도기관차 사무소 뒤 산정동 1053-108번지 앞에서부터 용당동의 진성, 산정동 1096번지에 있는 수문까지 쌓은 제방이다. 이 제방은 지금은 도로로 쓰이고 있다. 지대가 낮아 주거지로 개발이 되지 못하고 영세민이 많이 살았다(목포시, 『목포시사(1980~1994)』, 1997).

눈을 뜬 거야. 그리고 전역하고 집에 있는데 재향군인회 회장을 맡으라고 한 거야. 군대 갔다온 사람들의 친목단체인데 구 시청 건물이 무지하게 컸다고. 그 사무실 주면서 재향군인회 회장을 맡아주고 해서 난 학교만 한다고 했는데 억지로 시켜서 한 3개월인가 강제로 했더니 알고 보니 전부 중앙정보부에서 조직적으로 사람 빼서 맡기더라. 그걸 알고 난 사표내고 다 안했어. 근디 인자 또 6·8선거가 다했는데 안기부에서 학교를 하는 나한테 무안 신안이 합쳐져 있는데 내가 해야 한다고 밤·낮 와서 선거를 도와 달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놈들한테 잘못 보이면 안 되잖아 사회라는 게 참 더러운 사회야. 할 수 없이 ‘네 알았습니다.’ 하고 헌디 내가 출마해서 신안군 무안군 양패에서 서로 돈으로 권리싸움을 하는데 그 속에서 표를 받아서 셋 중에 내가 되어서 13년이나 했어.”

4. 목포성심학원 설립을 시작으로 학교를 운영하다

그는 1961년 5월 1일자로 목포성심학원을 설립한다. 한글공부를 가르치면서 점차 늘어나는 학생 수 때문에 지금의 산정 1구의 갯벌을 사들여 교지를 확보하기 위해 매립을 시작한다. 시에서 내려준 콘셋 1동을 가지고 어려움 속에서 학교를 운영하던 중 태풍의 피해로 교실이 유실되자 산정국민학교를 빌려 수업을 계속한다.

“학교 교지 만들라고 1961년 산정 1구 1052-16번지 갯벌을 사들여서 매립을 학생들하고도 하고, 나 혼자하기도 하고 그랬지. 그전에는 집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명칭만 성심학원으로 1961년도에 설립하지. 1962년도에 흙벽돌 건물을 올리고 했지. 그때 주민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수차로 흙을 날라 진입로 만들고 연탄재를 모으기도 하고 목포역전까지 가서 기관차 석탄재를 날라 왔어. 2호 광장 있는 데가 빨독이고, 연동성당 있는데도 전부 빨독이었어. 난 그때 녀마주이 불쌍한 아이들 공부 가르치고 한글 공부 시킨다 해서 저 2호 광장에서 여기까지 길 만들어서 연탄재 나르고 했어. 나중에는 연탄재를 못 매립하게 했어. 석탄재라고 있잖아 곡수라고 있는데, 철도청장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곡수를 목포역전예다가 버렸어. 그러면 그놈을 치우느라고 돈 들어. 그래서 석탄 불 때고 버린 거를 남은 놈을 우리가 구루마로 가져와서 매립을 하고 했지. 산정 2동에서 살다가 그때부터가 매립의 시작이지. 그 아이들만큼 고마운 것이 없고 책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가방 속에 서산동, 온금동에 사는 아이들이 연탄재를 담아가지고 와. 학교를 만드니까 뿌리지. 콘셋 2개 그놈을 하나는 시장한테 지시해서 정식으로 휴가군인 휴게소를 만들어라 말해서 지금 역전에 가면 건널목에 좋게 있지. 거기 있던 콘셋을 할 수 없이 우린 슬라브를 흙벽돌을 해서 짓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거기 있던 콘셋 하나를 일로 줘서 여기다 지어 가지고 공부하라고 해서 매립한 데다가 가져다 놓고 교실로 썼지. 그



그림 1 1962년 학생들과 도로 개설 장면



그림 2 태풍 노라호로 교실 유실 후 수업장면

렇게 바다를 메워서 하꼬방을 지었는데 침수가 되어서 교실이 없어지니까 산정초등학교에서 가서 공부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 그거 하나를 우리 학교를 준거야. 그런데 선생님들은 콘셋 하나밖에 없으니까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공부를 시켰거든. 그러면 선생이 와서 유달중학교 국어선생이 우릴 도와줘서 강의하면 내가 있을 자리가 없잖아 그 추운 겨울에 내가 없으면 안 되잖아 그분이 아이들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사람 교육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렸다가 떨고 있으면 또 다른 선생이 와 그럼 감사하다고 하고 교육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감사하다고 하고 또 보내고 그것이 힘들드만. 그런데 또 태풍이 와서 교실이 없어졌지. 그래가지고 산정초등학교에서 교실 세 칸 빌려서 문맹 퇴치 하려구 초등과정 교육하고 중등과정 교육도 했지.”

성심학원은 1963년 목포경찰서 직업소년학교 병설 목포향토중학원으로 개명을 한다. 같은 해 10월 20일 목포향토중학원은 중학과정 교육을 실시하기에 이른다.

“1963년 직업소년학교는 목포경찰서 직업훈련학교야. 우리 아이들을 성심학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위에서 경찰에다가 아이들을 선도를 하라고 공문이 내려 왔었나봐 근데 돈이 있어야지 될 수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공문으로 도와달라고 보냈어. 우리 학교를 목포경찰서 직업훈련학교로 바꾸고 념마주이 아이들 선도하는 것 등을 도와 줄 터이니 해 주라는 거야. 그래서 1963년도에 목포경찰서 직업소년학교 병설 목포향토중학원이란 이름으로 바꾼 거야. 그걸 병설로 운영한 거지. 기존에 있던 아이들도 함께 교육을 시켰지. 태풍 때문에 산정초등학교 교실을 빌려줘서 교육을 해 줬는데 일반학생들 공부하는 교실이야 근데 우리 아이들은 념마주이 아이들이라 교육을 하려면 중학교 과정이라 잉크를 써야해 근데 초등학생 교실이라 깨끗하게 써야 한디, 볼펜이 안 나올 때라 깨끗하게 안

쓴다고 뭐라 하기도 하고, 유리창이 깨져도 우리 아이들이 한 것도 아닌데 했다고 하면은 유리창 비
용도 물어줘야 하고 그랬어. 우리 아이들이 가지도 않은 곳에서 사고가 났다하면 다 우리 아이들이
했다고 하고 책상 위에 잉크라도 엮어버리면 다 닦아내서 원 색깔 나게 하고 여하튼 그때 생각하면
이렇게 야속한 세상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 동네가 부잡해서 못된 놈들 와서 유리창 깨버리고
난 것도 우리가 물어주고를 한 2~3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산정초등학교에서 했지. 그때도 매립을 서
럽게 한 거야. 그때가 목포향토중학원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야.”

1964년에는 문맹퇴치 운동을 함께하는 선생님들이 늘어나 5개 지역으로 학교 수를 늘렸으나, 경
영상의 문제로 문을 닫는다. 그 시기 학교 운영이 힘들어졌으나 조양운수, 삼양조선소 등 주변 지인
들의 도움으로 학교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는 늦은 나이에 불구하고 공부에 대한 열망에 다시 덕
인고등학교에 들어가 1968년 1월 졸업한다.

“문맹퇴치운동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지. 1964년 정도에 선생님들이 한다고 해서 지원도 해주
고 했더니 다 못하고 문 닫았어. 처음에 이것을 꼭 해야겠구나 하고는 어디 어디 했냐면 호남동, 용당
동, 이로동, 죽교동 그리고 나서 공설시장에 2층에다가 또 하고 해서 다섯 군데인가를 했는데 다 1년
인가 했는데 문 닫아 버렸어. 마지막까진 공설시장 2층에 있었다가 운영난에 극복 못하고 문을 닫아
서 그 아이들을 향토중학원에서 흡수한 거야. 1964년 조양운수주식회사 김운수씨가 정말로 많이 도
와준 분이지. 학교가 어려울 때인데 그 양반이 오셔가지고 정말 진실로 도와주셨어. 우리가 일은
했지만은 금호해수욕장이라고 있었어. 지금 금호동이라고 차타고 가자면 해남 가자면 화원 못가서
있는 금호도 앞에 있었어. 포장마차 같이 집이 10개 정도 지어져 있었어. 그걸 우리에게 맡겨 주셔가
지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우리 학생들 취업도 시켜주시고 거기서 나는 나대로, 집사람은 집사람대로,
낮에는 학교일 하고, 밤에는 거기서 일하고, 시간 나는 데로 가서 일했지. 가짜 여관이 있었어. 거기
에서 심부름도 하고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그걸 해서 학교에 쓰라 그거야. 그때부터 힘이 좀 풀렸지.
그 회사에 학생들이 들어가기도 했지. 삼양조선소라고 있는데 박승복 씨라고, 우리 학생들 취업을 많
이 시켜주었지. 학생들을 공부만 시키는 것이 아니잖아 벌어먹고 살게끔 해줘야 하니까 많이 노력했
지. 1967년도에 국방부 대민사업으로 향토중학원의 교사를 신축하게 돼. 2개를 말야. 그래서 학교가
점차 커지지.⁰⁴⁾ 그런데 1968년도에 갑자기 운동장을 시에서 환수를 한다고 통보를 받았어. 너무 힘

04) 1967년 국방부의 군 대민 지원 사업 계획으로 목포향토중학원의 교사 신축사업이 선정되어 2개 교실이 신축됨으로써 교실 4개, 교무실 1
동, 실습실, 합숙소가 마련되어 학교의 기틀을 다지게 된다(김성복·정태영, 앞의 책).

들었지 각계각층에서 도와줬어 그래서 그 성금으로 학교가 더 커지고 안정되어가지.

딱 이 즈음에 덕인고등학교가 생겼거든. 이복주씨가 오거리에서 항상 만나니까 내가 형님 하는 판인데. 덕인고등학교를 세울라 그런다고 하더라구. 고등학교 인가가 나왔는데, 학교 다닐래 그러더라고. 그럼 다녀야지 학교를 못 들어가서 한이 되어있는데. 그래서 다닌다 했지. 교실 맨 뒷자리에다가 내 자리를 만들어 주었어. 어린것들은 앞에서 까불고 그러는데 나이 먹은 놈은 뒤에 앉아 있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있드만. 선생님 말 듣고 쓰고 있으면 힘드니까 녹음기가 필요하더라고. 녹음기를 두면 선생님이 강의하는 것을 녹음을 해서 집에 가서 딱 듣고 풀이해서 다시 적어놓는 것이 공부야.”

김성복은 불우청소년들이 공부뿐만이 아닌 생업도 함께 해결되어야 함을 인지했다.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던 중 중학교 내에 직업프로그램을 만들고 학교 건물을 담보로 가발공장을 유치하여 운영하였다.

“1968년도에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미용, 이용, 기술은 가발을 했고 1969년에 가발공장을 유치했지. 가발은 우리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집못간 처녀들이 많았지. 판자촌 생활하다보니 먹을 거 입을 거 없고 할 일도 없었지. 심지어는 몸 팔다가 와서 가발공장에서 근무도 하고 했지. 처음에는 잘되더라고 서울에서 잘 받아줬던가. 가발공장을 하려고 학교를 서울에 있는 회사에다가 담보를 했거든. 교육을 시키다보니 배고파서 아이들이 교육을 못 받아 그래서 뭇을 해야 할까 생각을 했지.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이야기해서 옷도 얻어다주고 시에 말해서 밀가루도 얻어다 주고 했지. 매립했던 땅 교실 지은 것까지 담보를 해서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면 포기하겠다고 하고 가발공장을 유치한 거야. 거기서 가발기술자를 내려 보내주라 했어. 여기서 짜면 검사를 해. 수백 명이 일했는데 처음에는 잘되는 듯했는데 가발을 보냈는데 불합격되는 일이 많아지고 하니까 2~3년하고 끝났어. 여기 바로 콘셋 있는 데 가발공장을 교실에다가 만들어서 공부할라고 하니까 처녀들이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천덕꾸러기 같은 처지가 되어버려서 집은 철거당해버려서 거지같은 신세가 되니까 이걸 구제를 해야 한다고 해서 여기다 교실을 만들어서 공부만해서는 안 되니까 벌어먹고 살라고 한 거지. 여자들 오면 가발공장을 하는데 처음에는 잘 통과 돼가지고 잘 벌어먹고 한다. 나중에는 가발이 통과되지 못하고 일본 가서 다시 퇴짜 맞아서 오는 거야. 퇴짜 맞아서 오는 거는 전부 우리가 물어내야 해. 그래가지고 도대체가 안 되겠더라. 그 당시 어머니들, 처녀들 고생 많이 했어. 당시 처녀들이 그렇게 많이 일했지.”

목포향토중학원은 1973년 전라남도교육위원회로부터 불우청소년을 위한 3년제 기술계학원 인가

를 받았지만 학력인정은 되지 않았다. 그는 1975년부터 교도소 교화위원 활동을 하고 1980년대는 민방위 교관, 전라남도 도정 홍보위원으로 위촉된다. 1979년 9월 20일 목포시민의 상 심사위원회 교육부문 시민의 상(장려상)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정부에서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계속 진정을 했는데도 안 먹히는데 대통령도 외면해버려. 내무부장관이 왔다 갔

다 하면서 보니까 너무나 좋은 일인데 그래서 전국 경찰한테 이런 불우한 아이들 선도를 시켜라 하는데 목포는 우리가 먼저 하고 있으니 원래는 내무부에서는 전국 경찰들에게 경찰 직업훈련학교를 만들어라 그런 거야. 근데 돈 들어서 하겠어. 1976년도에 목포경찰서 직업소년학교가 향토중학원으로 완전히 이관되고 운영을 전적으로 떠맡게 되지. 지역에 근로청소년들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야. 아이들이 사고를 쳐서 형무소가면은 한 가지 고마운 것이 있어 목포만 그랬지 다른 데는 안 그랬어. 우리아이들이 사고를 많이 치니까 다 형무소로 보내야 하잖아 소년원으로 광주 소년재판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판사들이 판결을 하면은 전부 소년원에 보내야 할 것을 나에게 보내. 사람 만들라고 하는 거지. 거기다가 또 교도소에서는 중앙 법무부에서는 위촉장을 내려 보내. 교도소 교화위원으로 죄인들 교육을 시켜 주라 해서 학교 하면서 밤낮 저런 일을 하지. 교육부에서 죄수들 선도를 해야 하는데 목포교도소 교화위원으로 1975년부터 한 달에 무조건 두 시간씩 교육을 하는 거야. 전체 죄수들 모아놓고 한 거야. 내가 해야 될 이유가 우리 학교 학생들도 사고내고 들어가 있고 석방돼서 나오면 또 우리 학교를 다시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1979년 10월 1일에 목포시민의 날 때 상을 받았어. 목포시민의 상 교육부문 수상자로 결정되어서 10월 1일 시민의 날 때 수상했지. 그리고 나서 목련회라고 만들어지는데, 수상한 사람들 모임이고 불우이웃도 돕고 사회시설을 돕기도 해.”



그림 3 시민의상 수상 1979년 10월 1일 (왼쪽 두 번째 김성복)

목포향토중학원은 1986년 1월 22일 문교부 지정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목포향토중·고등학교로 인가를 받는다. 무료로 운영되던 학교를 공식적인 학력인정 학교를 만들기 위해선 납부금을 선정하여 수혜자에게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금액 책정부문에서 교육부와 실랑이 끝에 최저가로 선정하여 인가받는다.

“드디어 1986년에 문교부 지정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목포향토(중·고등)학교로 인가되고 학력인정 교육기관으로 인정되었어. 너무 늦게 인정된 것이지. 서울에 한림이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하고 같이 학력인정을 해 줄 터이니 서울이나 부산 같은 곳은 납부금을 현지화시켜서 받는데 120만 원까지 올렸드만. 나는 이미 이때 3,765명의 학생을 무료로 가르쳐서 내보낸 뒤인데 난 돈을 못 받는다 하고,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학력인정을 해달라고 청원을 하기 시작했지. 십 원도 지원은 없었지. 교육부에서는 허가를 해주면서 조건이 있는데 일반학교하고는 똑같아. 출석 며칠이면 퇴학, 선생님은 퇴직금을 줘야한다 봉급을 줘야한다 그런 것이 있어. 근데 나는 책이며 연필이며 공것으로 사서 공부시킨 사람한테 이런 조건을 거는데 정부에서는 너무 고생했거든 내가. 그러니 안기부에서도 내려오고 교육부에서도 내려오고 청와대에서도 내려오고 와서 보니까 고생하고 있는 사람한테 학력인정을 해주라고 하는데 안 해줄 수 없으니까 해줬는데. 서류를 내려고 보니 납부금을 얼마씩 받을 거냐 하는 거야. 아 그때 고민을 했네. 한 겨울을 버티었다고. 나는 어차피 돈을 안 받고 시작했던 사람이니까 돈 안 받는다고 하니 안 된다는 거야 선생님들에게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거야. 그땐 무보수로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했지만은 선생님들을 이제 정기적으로 책임 있는 국어면 국어, 수학이면 수학 해가지고 신원조회 끝내서 경찰서에 가가지고 빨갱인지, 데모꾼인지 조사해서 안 된 사람은 안 되고 확인해서 발령을 내 주더만. 그것 때문에 3개월간 고민을 했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안하자니 고민을 하는데 여기서 죽었다고 3년간 공부한 사람들, 검정시험 봐서 신학대 학 가면 50명, 60명 시험 보러 가면 하나 둘 밖에 못 돼. 고민하던 터에 나중에는 정부에서 전국에 있는 이런 학교를 조사를 한 거야. 우리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학교가 세 군데가 있었어. 그런 학교는 돈 받아서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되었다는 거야. 서울은 120만 원, 부산은 110만 원 이렇게 납부금이 나와 정부지원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하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 나는 죽어도 못한다고 하고 여기까지 왔어. 전남지원청에서는 마지막에 통보를 해 주더만 그래서 얼마를 쓰면 되겠냐 하니 35만 원했지. 다른 학교에서 백 얼마를 책정하는데 어떻게 할라고 그러냐고 하니 그래가지고 퇴직금, 봉급, 전기세, 수도세, 운영비 전부를 그걸로 쓸란다 그랬어. 세 번이나 왔어 인상하라고, 안했지. 교육 사랑 여성회장을 통해서 교육감을 만나서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일들을 말했어. 그랬더니 뭣을 도와주면 좋겠냐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교육감 재량으로 텔레비전이고 뭐고 도와줬어.”

5. 대안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다

1998년 교육부는 12월 26일자로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중 중·고 교육과정 1년 3학기제⁰⁵⁾ 실험 운영을 발표하였다. 고등학교과정에서 목포제일정보고등학교가 지정됨으로써 교육 기회가 없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2000년 2월 23일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로 학교 명칭⁰⁶⁾을 바꾸고 전라남도 교육감 지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되었다. 2004년 7월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전남교육청으로부터 대안교육과정을 승인받아 명실공히 대안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1998년도에 1년에 세 학기를 운영하는 과정을 만들었어. 현재 중학교 과정하고 고등학교 과정을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1년에 3학기제를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교칙⁰⁷⁾도 이것 땀시 바꿨어. 어른들도 수업 받을 수 있게끔 말이야. 2002년에 성인학습자들이 1년 3학기제를 완수하고 최초로 여름에 졸업식을 가졌어. 2000년에 지금의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로 이름을 바꿨어. 이후에 전라남도 교육감 지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도 되었지. 2004년 우리 학교는 전라남도 학생종합교육원, 전라남도 청소년종합상담실과 함께 전남의 대안교육 위탁 3개 기관으로 지정되었어. 이게 나의 교육철학이 애초부터 대안교육이나 평생교육의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실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목포가 평생교육 지정 도시가 되면서 같이 했는데 평생교육은 어른들 모시고 우리가 했지. 처음엔 평생교육이란 말이 없었지. 2005년 평생교육의 프로그램을 하나, 둘 만들어내고 목포시 평생학습도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평생학습문화축제를 개최한 거지. 그래서 우리 학교가 2006년 12월 15일 교육인적자원부 주최로 개최된 평생학습 성인교육자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어.”

김성복은 목포현병대 복무시절부터 어려웠던 목포 지역 사람들의 비참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고민하였다. 그는 휴가 장병들이 문맹이어서 도망병이 되는 모습을 보며 한글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그는 아이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도박이나 도둑질

05) 1년 3학기제의 도입은 시간적, 경제적 제약 등으로 학교 교육 기회를 상실한 근로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을 실시하는 학력인정시설의 학습자에게 단기간에 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끔 기회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김성복·정태영, 앞의 책).

06) 2000년 초반부터 우리나라의 교육은 기존 대학입시 위주의 실력 양성에만 집중하였던 폐해가 나타나면서 새로운 교육철학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매년 학업 중단 청소년이 늘어나기에 전라남도 교육청은 전라남도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하고 대안교육의 기본바탕을 마련하였다(김성복·정태영, 같은 책).

07) 1999년 9월 학교의 학칙을 시대에 맞게 성인학습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1년 3학기제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을 실시하였다(김성복·정태영, 같은 책).

까지 서슴지 않고 시키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는 교육뿐임을 절감하게 된다. 그래서 그의 사재를 털어 성심학원을 설립하고 아이들의 선도교육과 기술교육을 병행하며 가르친다. 성심학원은 이후 향토중학원을 거쳐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목포향토중·고등학교로 인가받는다. 학력 인정 사회교육시설로 인가를 받으면서 중도 탈락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으로 기술교육과 정보화, 특성화 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여 왔다. 2000년에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로 학교 명칭을 바꾸고, 2004년에 평생교육시설로서는 전국 최초로 대안교육과정을 승인받게 된다. 그는 체계적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난 때문에 배우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위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곳을 마련하게 한 것이다. 이처럼 그는 목포 지역 평생교육의 선구자로 목포 지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대안교육을 실현하였고, 배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배우자는 기치 아래 모여든 사람들을 위한 복지교육의 요람을 마련하였다. ‘배움이 없는 곳에 악의 씨가 자라난다.’ 김성복에게 교육은 곧 미래인 것이다.

정미영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연구보조원

그림 4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교장실에서



제4절 여성숙의 결핵요양소 운영과 의료선교⁰¹⁾

여성숙(呂聖淑)은 1918년 11월에 황해도 송화군 진풍면 덕안리에 위치한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났다. 100호 가깝게 사는 마을에는 소학교는 물론 약방도 없어서 아스피린이나 소화제를 사려면 10리를 걸어 나가야 했다. 그녀의 모친은 15살에 시집을 왔다. 여성숙이 네 살 때 30리 떨어진 은율읍으로 세간살이를 옮겼다. 외할아버지가 목수여서 살림은 넉넉한 편이었다. 동네 청년 한 명이 세상구경을 하고 온다고 돌아다니다가 예수를 알게 되어 성경책과 찬송가를 사들고 돌아와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러다녔고, 이후 동네에 드나드는 작은 배에다가 벽돌을 실어 벽돌집을 올려놓은 교회가 초가집들 사이에 세워졌다. 두어 집을 빼고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교회를 다녔다. 농번기에도 온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기 때문에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을 정도여서, 그 마을은 ‘예수 동리’라 불리곤 했다. 유명한 목사님을 초청해서 집회를 자주 열고, 큰 읍내 사람들과 교류가 잦아졌고 학생들도 많아졌으며 자연스럽게 개화가 빨라졌다.

여성숙이 은율읍 교회에 다니던 시절 선몽과 같은 매우 특별한 꿈을 꾸었다. 높은 터를 쌓고 교회를 지은 토방에 그녀가 서 있었고, 사람들이 그 뜰 안에 가득 차 있었다. 그때 아래쪽 문으로 흰 두루마기를 입은 할아버지가 손에 낫함을 들고 들어오시는데 그 함에는 기름이 가득히 담겨 있었다. 이 할아버지는 많은 사람을 헤치고 그녀가 서 있는 높은 토방으로 올라오시더니 가까이 다가와서 들고 오신 기름함에 손을 담갔다가 그 손을 여성숙의 머리에 놓으셨다. 그리고는 ‘이제부터는 죄짓지 말아라’ 하고는 내려가셨다. 마치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것 같았다. 꿈에서 깬 여성숙은 이제부터라는 뜻은 무엇이고 죄짓지 말라는 뜻은 무엇일까,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직 죄지는 것도 없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한참을 고민했다. 그 교회에서 세운 유치원에 다니다가, 사립 소학교 4학년 때 살림이 쪼들려 다시 예전에 살던 마을로 이사를 갔다. 3km나 되는 소학교에 통학을 하던 오빠와 달리 여자아이였던 여성숙은 동생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익히면서 지내게 되었다.

가난한 살림살이를 꾸리느라, 그녀의 부모님은 솜 타는 기계를 토방에 들여놓고 교대로 솜을 땀다. 솜을 타서 고치말이를 만들었는데 고치말이는 수수대의 마디 없는 데를 잘라서 펴놓은 솜 위에 놓는 손으로 비벼 말아야 했다. 고치를 말면 수수대를 뽑아내고 집으로 가져가서 물레질을 해서 무명실을 뽑으면 길쌈을 해서 무명천을 짰다. 10리, 20리 떨어진 곳에서 찾아든 손님들이 빨리 고치말이를 해서 집으로 돌아가야 저녁밥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온종일 일을 했고, 집안일은 대부

01) 한국디아코니아자매회 이영숙 언님과 함께 여성숙 선생의 면담을 진행했으나, 여 선생님의 건강이 좋지 않아 실제 본고의 서술 내용은 회고록(여성숙, 『꿈의 주머니를 별에다 달아매고』, 한산촌, 2000)에 바탕을 두고 정리했다. 구술이 필요한 부분은 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 여성숙의 몫이었다. 어쩌다 학질 같은 병을 앓을 때는 누울 자리도 없어서 애기를 업은 채 그냥 웅크리고 땀다가 숨터미 타놓은 속으로 기어들어가서 땀을 흘리면서 약 한 톨도 못 먹으면서 고열을 참고 견뎌야했다. 어린 마음에 그렇게 곤궁하게 지내다가 시집을 가서 낳은 자식들에게 그런 생활을 대물림 하는 것이 싫었다. 공부를 해서 어떻게든 척박한 상황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다.

하루는 이웃마을 중매쟁이가 찾아와서 그녀의 아버지에게 딸이 반반하게는 생겼지만 몸이 약해서 일을 잘할 것 같지 않다면서 돈 이야기를 꺼내자 그녀의 아버지는 돈이 너무 적으니 더 받아야 한다고 했다. 당시 옆 동네에서도 그런 일이 흔해서, 그렇게 끌려간 농촌 여성들은 노예처럼 살기 일쑤였다. 그녀의 어머니도 열여섯 전에 딸을 시집보낼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 여성숙은 늘 학교에 다닐 궁리만 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신앙감을 선보려 간다는데도 그녀가 들은 척 하지 않자, 이웃마을 전도사에게 부탁해서 그녀를 설득하고자 했다. 여자는 혼기가 되면 시집을 가야하는데, 교회에 놓치기 아까운 혼처가 있으니 그 집 살림도 괜찮고 사람들도 다 좋다며 설득을 했다. 그녀가 제안을 거절하고 학교를 가겠다고 하자, 아버지는 어머니에게도 자식을 잘못 다룬다고 역정을 냈다.

그녀의 모친은 딸이 선교사라도 만나서 도와주면 좋겠다고 고심했고, 어느 날 재령읍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순회 전도사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평양에 선교사가 세운 학교를 소개받고 아버지 모르게 입학원서를 냈다. 후일 입학허가서와 안내장을 받고 아버지의 허락을 구했다. 시골 농사꾼으로 살아온 아버지에게 죽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불호령을 듣고 집을 나서서 17살에 평양으로 떠났다. 재령에서 소개받은 전도사가 평양까지 와서 원장을 만나 알선해주었다. 사감에게 의뢰하여 식모살이를 시작했는데, 겨울에도 내복이나 두루마기 없이 평양 거리를 활보했고, 도시락도 없이 학교를 다녔다. 염치를 차릴 새도 없이 친구들 도시락을 나누어 먹으면서 배고픈 사람을 보면 그 배로 갇겠다고 다짐했다.

평양의 학교를 2년 간 다니고 스무 살이 되어 원산에 있는 마르다윌슨여자신학교로 진학했다. 그녀가 평소 존경해오던 김마리아 선생남도 만났다. 식모살이를 하며 번 돈으로 학교를 다녔다.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들 방을 청소해주고 허드렛일을 하면서 학비를 벌었다. 여름방학 때는 선교사들이 명사십리에 별장을 만들어 놓고 쉬었는데, 그 별장까지 쫓아가서 일을 하곤 해서 하녀가 된 듯한 모멸감을 느낄 때도 있었다. 신학교에서 수학했지만, 신앙은 누가 키워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3년차 되던 해에 일본 릿쿄대학에서 공부하던 선배인 장 선생으로부터 상급 학교 진학이 가능하다는 연락이 왔다. 일본에 있는 기독교 학교인데 교장이 대만 출신 목사라고 했다. 여성숙은 23세에 원산에서 일본 기독교 학교로 진학을 결심했다. 그 사이 집안형편이 나아져서 학비를 지원해줄 수 있다는 서신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일본 여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오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시집이나 가라는 아버지의 불호령에도 여성숙은 고집을 굽히지 않고 일본에 있는 여학교로 진학했다. 일본어를 몰라서 동경에 있는 장 선생 하숙집에 머물렀다. 장 선생과 함께 공애(共愛)여학교(현 일본 군마현 마에바시시 소재 공애학원고등학교)에 가서, 나이도 많고 일본말도 서툰 학생도 받아준다길래 찾아왔다고 말했다. 성의를 대단히 여긴 교장 선생이 곧바로 허락하여 바로 2학년 2학기로 편입을 했다. 교장은 여성숙이 묵을 하숙집을 자력으로 알아봐주었고, 덕분에 집주인으로부터 일본어도 배울 수 있었다. 반 아이들의 평균 나이는 14살이었다. 담임 선생님과 상급생들에게 매일 일본어를 배웠다. 일본어를 몰라 시험답안지를 백지로 내면 인정점수를 주었다. 교장 주재석은 대만에서 소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교토로 와서 도시사중학교에서 공부를 했으며, 선교사의 고별 설교를 듣고 감명 받아 도시사대학에서 신학을 마치고 미국에 유학해 신학교를 졸업하여 목사가 되었다. 대만인이어서 일본에서 교회 담임목사 자리를 맡을 수 없었고, 대신 기독교인들이 사비를 털어 세운 공애학교를 소개받아 교육에 전념했다. 초창기에는 졸업생들에게 모금을 받아 학교를 운영했다. 기숙사에는 저녁 예배시간이 있었는데, 점수보다 교우 관계를 중히 여기라고 설교했다. 성경도 쉽게 풀어서 가르쳤는데 시험은 '사람이 선을 행해야 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으면 죄가 된다'에 대한 답을 쓰는 식이었다. 교장의 설교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충실히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하고, 직업에 귀천이 없음을 배웠다.

여학교를 졸업한 여성숙은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고려대 의대 전신)에 입학했다. 당시 학생 중에는 일본인이 많았는데 8·15 해방이 되자 절반 이상이 떠나갔다. 해방으로 학교는 방학이 되어서 고향에 올라갔더니 얼마 안돼 38선이 막혀버렸다. 식구들은 고생 끝에 월남하여 서울에 정착했다. 용산 신계동의 작은 집을 빌려서 피난민 생활을 시작했다. 배급받은 옥수수쌀로 강냉이밥을 해먹고 다녔고, 느리고 복적이는 전차를 타고 학교 가는 길에 사람들에게 시달리다가 간신히 등교하면 수업은 절반이나 지나가있기 일쑤여서 친구들 노트를 베끼느라 급급했다. 그렇게 여성숙은 5년 만에 졸업하여 의사로서의 인생을 시작했다.

1950년 11월 여성숙은 의무대 대위로 자원입대했다. 당시 중공군이 개입하자 정부는 국민방위군법을 만들어 제2국민병역 해당자인 만 17세 이상 40세 미만의 남자 50여 만 명을 51개 교육연대에 분산 수용해 국민방위군을 편성하고, 우익단체인 대한청년단으로 하여금 통솔케 했다. 병력을 보강한다고 모집된 젊은이들은 온종일 좁쌀밥 두 덩이를 먹고 버텼고, 한겨울에도 지푸라기를 깔고 잤다. 병이 들어도 치료약이 없어서 치료가 불가능했고, 매일같이 젊은이들이 죽어나갔다.⁰²⁾

02) 『한겨레』 2017. 01. 10. 「“다른 재주가 없어서”...‘한국의 슈바이처’ 여성숙 선생의 삶」.

“병력을 보강한다고 젊은이들을 길거리에서 다 잡아다 놓고는 온종일 한 주먹밖에 안 되는 좁쌀밥 두 개만 줬어. 젊은 아이들이 그걸 먹고 어떻게 견뎌. 한겨울인데 덮을 것도 입을 것도 없어 지푸라기를 깔고 잤지. 못 먹고 병들어 죽어가는데 치료할 약 한 톨이 없었어. 의사는 왜 데려다 났는지 몰라. 방에 가보면 젊은이들이 매일 죽어나가고, 옆 사람 발가락 좀 제 입에서 꺼내달라고 해. 그거 꺼낼 힘도 없는 거야. 그렇게 젊은 아이들이 다 죽어가는데, 그곳에서도 윗사람들은 고깃국에다 하얀 쌀밥을 넘치게 먹데.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 나중엔 청년들을 총살했다고 들었어. 전쟁터에서만 죽은 게 아니야. 그렇게 생떼같은 아이들을 많이 죽였어.”⁰³⁾

이후 여성숙은 선교사들이 근무하는 전주 예수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했다. 인턴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그녀는 집 앞에서 울고 있던 한 학생을 만났다. 그 학생은 결핵치료를 광주에서 받고 다시 학업을 시작했더니 병이 재발되어 학업을 중단한 사정이 있었다. 집은 멀고 돌아갈 형편이 안 되어 여성숙은 그 학생이 자립할 때까지만 도움을 주리라 다짐했다. 먼저 광주 제중병원(광주기독병원의 전신)으로 재입원을 시켜 병을 치료했다. 이북에서 의예과를 마치고 남한에 와서 간호학교에 입학한 이력을 살려 다시 그 학생을 전남대 의대에 보결생으로 입학하게 했다. 훗날 그 학생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되었다.

“한센병 환자들 수용소였던 애양원에 가서 한 달간 돌보고 와 결핵환자들을 봤지. 그런데 한센병 환자들은 썩어나간 팔에 호미라도 묶고 호미질도 하며 농사라도 짓더구먼. 피부감염만 안 되면 되니 수용소에 사람들도 드나들었어. 그런데 결핵환자들은 숨이 차서 아무 일도 못했어. 또 공기에 감염되니 가족들조차 쫓아내고 수용소에 아무도 들어가고 싶어도 안 해서 아무도 돌보는 사람도 없고, 치료해주는 사람도 없어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 그러니 그들에게 간 것이지.”⁰⁴⁾

예수병원 인턴과정에는 나병 요양소와 폐결핵 요양소를 한 달씩 거쳐야 했다. 애양원을 다녀온 여성숙은 이어서 광주 결핵전문병원인 제중병원으로 갔다. 이 병원에서 원장인 허버트 카딩턴(Herbert A. Codington)을 만났다. 카딩턴은 미국 코넬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49년 미국 남장로교 한국 의료선교사로 파견되었다. 고허번이라는 한국식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제중병원에 의사는 원장인 카딩턴과 여성숙뿐이었다. 광주 제중병원은 결핵전문병원이어서 전염의 위험이 있어 의사들

03) 『한겨레』 2017. 01. 10. 「“다른 재주가 없어서”...‘한국의 슈바이처’ 여성숙 선생의 삶」.

04) 『한겨레』 2017. 01. 10. 「“다른 재주가 없어서”...‘한국의 슈바이처’ 여성숙 선생의 삶」.

이 근무를 꺼려했기 때문이다.

“카딩턴? 그 사람 아주 멍청한 사람이지요. 말릴 재간도 없었어요. 그분은 무얼 계산하고 사람을 상대하는 분이 아니니 주어도 주어도 끝이 없는 샘물 같은 사람이지요. 사랑의 샘물이랄까? 그 술한 세월을 병원에 공짜 환자가 들이닥쳤습니다. 저는 그리하면 안 된다고 누누이 말리건만 그분은 폐에 구멍이 난 환자들, 전염성 강한 환자들을 버려둘 수 없다며 몇 안 되는 병실을 폐병환자 수용소로 만듭니다. 6·25전쟁 직후부터 먹고사는 일이 힘들어져 광주천변에 폐병환자들이 득실거렸습니다. 당시 전라남도가 ‘호남의 곡창’이라고 하지만 그건 돈 많은 지주들의 몫이고 가난한 민초들은 대개 풀 뿌리로 연명하던 때였으니까요. 카딩턴 의사만 나타났다 하면 환자들이 줄을 지어 카딩턴을 거지 대장 삼아 따라다녔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하루는 화장실에 있던 환자가 갑자기 기도가 막혀 졸도를 한 거예요. 간호사에게 이 소식을 들은 카딩턴은 화장실로 쫓아가 그 환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는 그 환자의 입안에 든 음식 찌꺼기를 자신의 입으로 받아 내는 겁니다. 나 같으면 죽어도 못할 일인데……. 그분에겐 그런 일이 다반사입니다. 참 멍청한 의사지요. 자신이 감염될 가능성이 가장 큰 병인데도요.”⁰⁵⁾

제중병원에서 수련의 과정을 할 때 카딩턴 원장은 여성숙을 불러 결핵을 앓는 농흉환자의 고름 빼는 방법을 가르쳐주었다. 서울에서 광주까지 무료로 결핵을 치료해주는 제중병원으로 피를 토하며 찾아드는 환자도 있었다. 고름을 700cc나 빼내고 나서 환자가 몇 년을 더 살 수 있도록 치료를 하는 것을 보면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환자를 돕는 의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연명치료를 하면서 환자의 삶과 의사로서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핵에 걸려 좌절하고 자살하거나, 모든 것을 자진 포기한 환자들을 수없이 보았다. 이들은 좋은 약도 없이 제대로 누워서 쉴 공간도 구하기 어려운 처지가 대부분이었다. 무엇보다 돈이 문제였다. 살고 싶어서 애를 쓰다가도 접을 수밖에 없는 환자들을 보면 탄식이 절로 나왔다. 시골에서 올라온 환자들은 “예수 믿는 것이 원장이나 전도아주머니처럼 되는 것이라면 나도 예수 믿을라요.”라고 말하면 옆에 있던 사람들도 “그라운요.” 하며 주고받았다.

“기독병원에 있을 때 한 전도부인(여자 전도사)이 있었어. 이름이 전도부인이지, 전도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했어. 환자 방에 성경도 찬송가책도 안 가지고 들어갔어. 환자 얘기를 어떻게 잘 들어줄까.

05) 『월간 조선』 2015. 01. 「바보라 쓰고 정자로 읽는다-‘결핵환자의 아버지 허버트 카딩턴’-」.

환자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만 보고 제일 아픈 사람, 지금 곧 죽어가는 사람만 찾아다녔어. 먹을 것을 몰래 숨겨가지고 먹여주고, 내가 뭐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조차 없었지. 아, 나도 저이처럼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지.”⁰⁶⁾

병원에서 일하던 김정숙 전도아주머니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만 환자들 방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은 없고 환자들을 돌보며 살았다. 어떤 방에 빨랫감이 쌓여있으면 가만히 들고 나와서 깨끗이 빨아 아무 소리도 없이 가만히 침대에 놓아주었다. 중환자들을 찾아가 먹을 것을 챙겨주었고, 밤중이라도 누가 각혈한다는 소리만 들으면 담당간호사보다도 먼저 뛰어나가 처리를 했다. 그때 전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누가 교회에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나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모르면서 자기들끼리 감탄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것이 곧 전도로구나!’하고 생각했다.

인턴과정 후 결핵의사의 길을 결심한 여성숙은 1954년 봄, 광주 제중병원을 근무지로 선택했다. 처음 그녀가 광주 제중병원에서 일할 때는 입원 환자가 60명 정도이고 외래환자가 매일 200명이나 되었다. 카딩턴 원장은 약이고 양곡이고 환자들에게 퍼주었고, 돈도 있는 대로 양복 주머니에서 꺼내 주었다. 여성숙은 이 병원에서 7년반 있다가 목포의원으로 직장을 옮겼다. 당시 목포의 유달산 중턱까지 오두막 같은 집들이 들어서 있었다. 광주에서 온 간호사들이 결핵환자들 집을 방문하고 오면, 환자의 집을 애써 찾을 필요도 없이 가장 가난하고 너절한 집을 찾으면 되더라고 보고할 정도로 도시 빈민이 넘쳐났다. 술한 세월 동안 병원에 공짜 환자가 들이닥쳤지만 여성숙은 이들을 마다하지 않았다.

“원래 이곳은 친구가 운영하던 결핵요양원(목포의원)이었는데, 그것을 인계받아 운영하게 된 거예요. 당시에는 목포와 섬 지역에 결핵환자들이 많아 병원에 환자들이 참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기왕 결핵환자들 돌볼 거라면 환자들이 많은 곳에서 보자’는 심정으로 주저앉은 겁니다. 결핵요양원을 운영할 때 여기 머물렀던 결핵환자들은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어느 날엔가 병상에 환자가 없어져서 알아보니 가족들이 굶고 있고 아이들이 학교에도 못 가는 형편이라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섬에 살고 있는 분이 있었는데 배가 끊겨 보름이고 한 달이고 약도 없이 그 집에 머물다가 결국 가족에게 전염되는 일도 있었어요. 먹고살기 힘든 때라 영양이 부족해서 생긴 병이었습니다.”⁰⁷⁾

1962년 흉곽 내과 의사인 여성숙은 전라남도 도서 지역의 결핵환자들을 위해 외국인 선교사의 집

06) 『한겨레』 2017. 01. 10. 「“다른 재주가 없어서”...‘한국의 슈바이처’ 여성숙 선생의 삶」.

07) 『한겨레』 2017. 01. 10. 「“다른 재주가 없어서”...‘한국의 슈바이처’ 여성숙 선생의 삶」.

이었던 작은 기와집에서 목포의원을 시작하였다. 얼마 후에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무안군 삼향면 왕산리에 약간의 땅을 사들였다. 가난한 결핵환자들을 위한 요양소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요양소를 '한산촌'이라 이름짓고 1965년 문을 열었다.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서둘러 엉성한 집이라도 더 지어서 입원시키고자 했으나 막상 입원문의를 했다가도 형편이 어려워 치료조차 받지 못한 환자들도 여럿이었다.

섬에 살던 환자 중에는 배가 끊겨 보름이고 한 달이고 약도 없이 자기 집에 머물다가 결국 가족에게 전염시킨 이들도 있었고, 병상에 누워있다 굶고 있는 가족들을 돌보느라 몰래 집으로 돌아가는 환자도 있었다. 결핵환자들은 하나 같이 살림이 넉넉지 못하거나 가정이 평안하지 못했다. 생계의 압박으로 결핵을 앓으면서도 돈벌이를 해야 하는 상황에 치료에 전념하기 어려웠다. 환자마다 어려운 사정이 천차만별이었다. 한번은 폐 양쪽에 구멍이 뚫린 환자에게 몸을 심하게 움직이면 폐에 난 구멍이 터져서 피를 토하고 죽기 쉽다고 했더니, 식구들을 굶기지 않으려면 내일도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나가야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또 객담에서 결핵균이 많이 나오는데도 어린아이를 업고 병원을 찾아온 애기엄마도 있었다. 아이를 돌봐줄 가족이나 친척도 없고, 시댁에서도 쫓겨나 친정 근처에서 살지만 끼니도 때우기 어려운 형편이라 약을 사먹을 돈도 거의 없는 환자였다. 결핵을 앓는 열일곱 살 딸을 돌볼 수 없어서 딸아이를 병원에 데려와 하소연하는 보호자도 있었다. 초등학교 6학년을 그만둔 어린 딸의 손에 이끌려 병원을 찾은 환자도 있었다. 똑바로 앉지도 못하는 어머니를 배를 태워 병원을 찾았는데, 환자는 막상 딸을 어디 보낼 데 없는지 도움을 청했다. 환자가 걸을 수 없는 상태여서 진찰 후에 여성숙이 직접 환자를 업고 병원 밖을 나서서 택시를 잡아 부듯가로 보낸 적도 있다.

입원치료를 해도 나아질 것이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된 환자는 냉정히 입원을 거절했지만, 마지막 소원으로 입원하게 해달라며 애절하게 부탁하면 뿌리치지 못했다. 수저를 들 수 없을 정도의 상태로 병원에 실려 오는 환자도 있었다. 주위 사람들의 소개로 알음알이로 여성숙을 찾아오는 이들도 많았다. 회진을 돌면 자신이 죽을지 살지를 묻는 환자들이 대부분이었다. 대개는 좋아질 거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그렇게 물었지만, 의사로서 명확히 대답을 해주기 어려웠다. 한산촌에 머물던 환자들은 신앙인이 되어 사회에 복귀해서도 기독교인으로 살았다. 병에 짓눌려 죽음의 두려움을 안고 사는 환자들에게 신앙이 갖든 요양원은 희망의 의지처가 되어주었다. 환자들 중에 믿음이 없어서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상태를 지켜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을 하는 환자들을 보면 보람되다가도 한편으로 술한 죽음을 보고 살아야 하는 의사로서의 삶에 회의가 들었다. 한산촌에서 치료를 받은 후에 퇴촌을 하고, 이후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하고 가는 경우도 있었다. 완치된 환자들이 지나가다가 입원치료를 해주던 여원장의 소식이 궁금하여 들렀다가, 그녀를 만나 지난 일을 회



그림 1 무의촌 진료를 다니던 여성숙과 디아코니아 자매회



그림 2 진료 상담하는 여성숙



그림 3 엑스선 촬영 결과를 설명하는 여성숙

상하며 인사를 하고 되돌아가는 날도 있었다. 환자 중에 결핵을 이겨낸 이들도 많았고, 훗날 직업을 마련하여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 이들도 많았다. 1985년 한산촌 20주년 기념식에는 한산촌에서 자활에 성공한 이들이 전국에서 200여 명이나 모여들어 여성숙에게 헌시를 올렸다.

여성숙은 여든 살이 되던 1998년 목포의원 전문의로서 활동을 접고 현역에서 은퇴하면서 결핵전문의 국경 박사가 병원을 맡았다. 하지만 의약분업은 만성질환인 결핵을 진료하는 목포의원에 치명적이었다. 검사실을 폐쇄해 진단과 처방에 필수적인 검사를 외부에 맡기고, 엑스선 촬영기사와 간호조무사를 계약직으로 바꾸는 등 구조조정에 들어갔으나 늘어가는 적자 폭을 감당할 수 없었다. 초진 11,500원, 재진 8,400원의 진료비밖에 받을 수 없는 상태였지만 매번 거의 똑같은 약을 받아가는 환자들에게 최소 2주일 분, 인근 섬 등 먼 곳에서 온 환자들에게는 한 달분의 약을 처방해줘야 했다. 1998년 월 평균 1,730만 원이던 의료보험 청구액이 의약분업 이후에는 73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정부가 2001년 7월부터 처방료마저

없애면서 다시 수입은 650만 원으로 줄었다. 줄일 대로 줄인 월 운영비 800여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입으로는 병원을 유지할 방법이 없었다. 결국 2002년 폐업을 결정했다. 환자들은 한때 목포의원에서 진료한 적이 있는 흉곽내과 전문의가 마침 목포에서 개업하고 있어 그곳으로 보내기로 했다. 여성숙은 계속해서 만성결핵환자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전염을 막기 위해 양성 결핵환자를 격리해놓은 상태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끌었다. 여성숙은 전문의로서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목포의원에서 진료 받은 환자 7만여 명의 진료카드와 엑스선 필름을 정리했다.⁰⁸⁾

08) 『한겨레신문』 2002. 10. 21. 「문 달은 '기침병원」.

1990년 목포에 결핵병원인 국립목포병원이 설립되면서 한산촌은 문을 닫았고, 1986년 만성결핵환자들의 자활촌으로 세웠던 ‘한삶의 집’에서 옮겨온 환자들이 생활하고 있다. 지금도 한산촌 결핵요양원에서 치료 받고 나갔던 사람들이 옛날을 추억하면서 일 년에 한 번씩 모인다. 이들은 서로 친구이자 형제처럼 회포를 풀면서 하룻 밤을 지낸다. 이제는 모두 각자 직업이 있다. 목사도 의사도, 국회의



그림 4 목포의원

원도 있지만 생활형편은 중요하지 않고, 친분관계가 우선이다. 아픔을 이겨내고 죽다 살아난 사람들이어서 어떤 이해관계도 없이 각별하다. 모두들 그 자체로 축복이라고 여긴다. 여성숙의 꿈은 조그만 병원선으로 전남 도서 지역을 순회하며 진료를 하는 것이었다.⁰⁹⁾

“진료랄 게 있나요? 내후년쯤 은퇴를 하고나면 섬 지방을 돌아다니며 옛날 치료를 받던 사람들이 얼마나 먼 데서 왔고 그곳 사람들의 생활형편이 어떤지도 보고 얘기도 나누고 싶은 것이지요.”¹⁰⁾

여성숙의 마지막 꿈은 의료장비가 갖춰진 의료선으로 결핵 발생률이 높은 섬 지역을 순회진료하는 것이었으나 이를 이루지 못했다. 현재 그녀는 한산촌 구내에 있는 주택에서 지내며 노환으로 인해 요양생활을 하고 있으며, 디아코니아자매회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

박혜영 | 목포대학교 문화와자연유산연구소 박사후연구원

09) 『경향신문』 1997. 04. 19. 「결핵환자 보듬기 '사랑의 인술' 40년」.

10) 『한겨레신문』 1988. 12. 04. 「병원선 마련 순회 진료가 꿈 제1회 인도주의적 실천의사상 받는 여성숙씨」.

제5절 한국디아코니아자매회의 섬김 활동

현 디아코니아노인요양원의 전신은 바로 결핵요양소이다. 1990년 목포에 결핵병원이 생기면서 한산촌 결핵요양소는 문을 닫게 되었다. 결핵환자들을 위한 요양소이자 자활공동체였던 한산촌과 ‘한삶의 집’을 중심으로 목포의 의료선교가 이루어졌다. 1965년 돌로 지은 입구의 돌기둥에 한산촌이라는 문패가 달렸다.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388-1번지였다. 목포의원 원장 여성숙이 야산을 사들여 한산촌을 꾸리면서, 가난한 결핵환자들이 한 달에 7만~10만원의 값싼 요양비를 내고도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 한산촌을 거쳐 간 환자는 수천 명에 달했다. 환자들이 묵을 수 있는 집이 한두 채씩 늘어나면서 결핵요양소로서 모양새를 갖추었다.

결핵환자들은 대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감염이 심했고, 또 결핵요양원에서 폐조직이 심하게 파손되거나 치료할 수 없는 내성균 환자들도 늘어갔다. 그러나 이 만성결핵환자들은 오갈 곳도 없고 부양가족이 없어 사회로 복귀하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여성숙과 디아코니아자매회는 1986년 11월부터 만성 결핵환자들을 위한 자활공동체를 꾸렸다. 한산촌에서 약 5km 떨어진 돌산에 만성 결핵환자들을 위한 터를 마련하고 ‘한삶의 집’을 지어 공동생활을 하게 되었다. 무의탁 환자들은 자립생활을 위해 염소와 닭, 개도 키우고 텃밭에서 무농약 채소도 키우고 버섯재배, 등공예, 자수 등을 하며 자활의 터전을 일구었다.⁰¹⁾

“저희 자매회가 1980년부터 창립을 했지만 이미 여성숙 선생님이 1965년도부터 여기 목포에서 일을 해 오셨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분이 일을 시작하신 거고, 그분은 목포의원을 운영하시면서 결



그림 1 한산촌 결핵요양소 1



그림 2 한산촌 결핵요양소 2

01) 『한겨레신문』 2002. 10. 21. 「문 달은 ‘기침병원’」.

핵 활동을 해 오셨지만 협력해서 한 것은 1980년도, 저희와 같이 했었고, 그리고 이미 여기 요양원은 그때부터 설립이 되어 있었구요. 그래서 저희가 와서는 바로 요양원 연수를 받았고 그때부터 요양원 활동을 같이 했었죠.⁰²⁾

디아코니아자매회와 결핵전문의 여성숙은 한산촌에서 생활하면서 목포의원에서 외래환자들을 진료했다. 이 한산촌에서 사회적으로 방치된 결핵환자들을 대상으로 신체적으로나 영적인 치료를 병행했다. 디아코니아자매회와 여성숙을 중심으로 신앙공동체이자 나눔과 봉사의 공동체로서 결핵환자들과 선교사, 의료진들의 생활공동체가 꾸려진 것이다. 이들은 공동생활을 하면서 선교활동을 하며, 교회와 사회를 잇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구성하였다. 모임이 꾸러지기까지 민중신학자 안병무⁰³⁾와 여성숙의 역할이 컸다. 여성숙은 1954년 홍곽내과전문의가 되어 광주 제증병원에서 결핵과장으로 일하면서 환자들의 치료는 물론 생계까지 보살핀 경험이 있었다. 여기에 디아코니아자매회의 활동도 기반이 되었다.

1980년 안병무는 독일 유학 후 귀국하여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여성숙은 우연히 서울에 갔다가 신학연구소에서 여자들의 모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모임에 참석한 여성들은 신앙심이 깊고 결혼도 마다하고 하나님께 몸 바쳐 봉사하려는 사람들이었다. 디아코니아자매회는 한국 최초의 개신교 여성수도회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영성생활을 통해 생명 살림 운동을 실천하였다. 자매들은 시작과 함께 자신들의 정체성을 독신 미혼여성들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정신으로 일하는 공동체, 함께 일하고 공유하는 생활 공동체로 실현해나갔다.

“정말 목포가 그때 당시 1980년도는 참 막막하고 그랬잖아요? 저는 환자들 중심으로 여기 원내에서 처음으로 환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결핵환자를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상담하고 또 그 치료하고 또 영적인 관리하고 이러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사람의 가정과 가족 그리고 또 어떻게 사는지 또 돌아봐야 하고 가정방문 그래서 시작한 거구요. 그리고 또 이 분의 자녀는 어떻게 되고 생활형편은 어떤지를 보다보니까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때 이미 어떻게 가정의 아이를 다시 학교에 보낼 수 있을

02) 이영숙 구술.

03) 1970년대 한국의 기독교 세력은 유신체제에 대한 강력한 반대 세력으로 대두하였다. 1974년에 남산부활절 예배사건으로부터 활성화된 기독교 운동은 기독교학생과 소장 목사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교단 차원으로까지 확대되어, 기도회와 대규모 가두시위 등을 감행하였다. 1974년에는 기독교회관에서 민주회복국민회의가 결성되어 민주화 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여기에 서명한 안병무는 경고처분을 받았다. 기독교 민주화운동은 민중운동의 성격을 지닌 민중신학으로 심화되어 갔고, 노동자, 농민들의 생존권 투쟁이 가열되어 갔다. 1978년 10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주장한 당면 과제 중에는 코이노니아 정신의 구현이 포함되어 있다.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 참여와 나눔의 의미를 지니는 사회 참여 과제를 코이노니아 정신으로 삼았다(백용기, 「한국디아코니아자매회의 역사와 영성신학」, 『신학사상』여름 129, 한국신학연구소, 2005, 33~34쪽).

까. 저 아이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서 정말 학교 다니는 아이로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집에 저 할머니 아파서 저렇게 누워계시는데 아드님이 여기에 누워계시니까 어떻게 저 할머니를 도울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이제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이러면서 자연적으로 교회와 또 사회 네트워크들을 이용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일이 자연스럽게 일이 돼서 80년도는 어쨌든 이 속에서 저희 스스로가 영적으로도 또 공동체 생활에 힘을 얻기 위해서 서로가 이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환자들 만나는 것은 이미 그때부터 시작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신앙생활이 주체이고 그것을 또 영적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하니까 기도하게 되고요. 또 그 사람의 문제를 환자의 문제로 안고 기도하다보니까 하루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구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되고 어떻게 할까 의논하게 되고 이제 실행해야 하니까 경제적인 것도 모아야 되고 그때 당시 스스로 우린 다른 게 없었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후원자를 모으게 되고. 처음에는 가족들부터 시작을 했지만 후원자를 모으게 되고 십시일반 교회에 가서 이제 요청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목포시내 모든 교회들이 그때 당시는 교파성. 목포는 교파성이 강해요. 서울보다, 대도시보다 이제 좁아서 그런지. 저희는 또 초교파거든요. 예수교장로회, 기독교장로회, 성결교회가 아니라 어느 교파 하나에 속한 게 아니라 그렇게 속하면 안 되는 것이 저희 정신이기 때문에 다들 기독교장로회, 예수교장로회, 성결교, 복음교 출신이지만 그런 거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좀 헌신해서 살겠습니다. 이제 정말 수도회, 수녀회라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창립을 했는데 그런 정신으로 하려고 보니까 교파들은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전혀 어느 교파에 속하지 않는 어느 한 단체가 내 교회에 어려운 가정에 자녀를 도와주고 있고 그 집안에 가족들을 돌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차츰 마음을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많은 교회들이 협력하게 되고 차츰차츰 협력하게 되고 후원금도 주게 되고 제일 먼저 자원봉사자들이 오기 시작하고 요청. 저희 힘으로 안 되는 건 요청하게 되면 더구나 여기는 이제 결핵환자촌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봉사한다’ 이런 거를 아주 두려워하고 꺼려하고 그랬어요.”⁰⁴⁾

이 자활공동체를 구성하는데 안병무의 민중사상이 구심점이 되었다. 안병무는 민족의 실체를 민(民)에 두면서, 민족의 살림을 밑바닥에서부터 떠받치고 민족문화를 실질적으로 지탱해 온 주체로서 민중을 제창했다. 한반도의 공동체는 새로운 생명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지론으로 삼았다. 국가 자산의 공공성과 그 운영의 공정성을 위해 모든 생산수단을 공(公)의 개념으로 규정할 것을 주장했다. 안병무는 무상교육, 무상의료는 물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하고 산업재해자, 실업자,

04) 이영숙 구술.



그림 3 민중신학자 안병무



그림 4 한산촌 개원 기도

이재민, 고아, 경제적 능력이 없는 과부, 노인에 대한 생활보장을 주장하고, 노사공동결정권, 토지의 공유원칙 등을 내세웠다.⁰⁵⁾ 안병무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선교교육원 원장으로 일하면서 개신교 미혼 여성을 중심으로 한 여성수도공동체를 설립하고자 하였다. 한국적 전통에 배어있는 헌신적인 여성들의 삶의 태도 신앙심을 교단과 사회로 환원시키고자 하는 뜻에서였다. 안병무는 한국교회 여성의 헌신적 신앙이 가부장적 전통과 가족 이기주의에 사장됨을 안타깝게 여겼다.⁰⁶⁾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자 뜻을 세운 미혼 여성들을 모아 자매회를 결성한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였다. 전문의였던 여성숙도 안병무의 소개로 처음 모임에 참가했다. 맨 처음 모인 젊은 여성이 10여 명이었는데, 그 다음에 나갔을 때는 어디다 터를 잡고 집을 마련할지를 정했고, 이후 어디로 정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처음에는 경기도 양평군 갈운리에 터를 잡았다. 옆에 있는 개울에서 돌을 주어다가 돌집을 짓고, 숙소와 기도실 식당 목욕탕 등을 완공 단계까지 마무리했다. 그 즈음 갈운리에 안병무에 대한 흥흥한 소문이 돌았다. 1979년 여름 디아코니아 회원들이 갈운리에 모였을 때, 양평 정보과 경찰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모임은 중단되었고, 정보과에서는 갈운리 집터에 건축한 것을 트집잡았다. 당시 일꾼이던 신씨를 구속했는데 책임자였던 여성숙이 벌금 50만 원을 냈지만, 다시 여주로 보내 감금하고는 벌금 50만 원을 청구했다. 당시 여성숙은 토요일마다 목포에서 양평까지 오가면서 사건을 수습했다. 결국 디아코니아자매회의 양평 모임은 무산되고, 이후 여성숙이 살던 전남 무안에서 모임을 가지고 회의 끝에 다시 터를 잡기로 결정했다.

05) 김진호 외 4인, 『죽은 민중의 시대, 안병무를 다시 본다』, 삼인, 2006, 187쪽.

06) 백용기, 앞의 논문, 38쪽.

한산촌은 우선 조용해서 좋고 돌봐주어야 할 환자들도 있고 이미 세워놓은 집들과 야산 3만 평이 있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양평을 깨끗이 포기하고 한산촌으로 자리를 잡기로 결정한 뒤 먼저 디아코니아 자매들이 살 집을 마련했다. 결핵병동 중에서 여성환자들이 살던 병동을 수리했다. 1980년 5월 1일, 전남 무안군 삼향면 왕산리에 위치한 한산촌 결핵 요양소의 여자병동을 숙소로 만들고, 노영순, 김정란, 한은숙, 이영숙, 최근숙, 진옥렬, 김현례, 신경희 자매들이 한국디아코니아자매회의 창립기념 및 헌신예배를 드렸다.⁰⁷⁾ 이렇게 독신 여성들이 모여 개신교의 자생적인 수녀회, 디아코니아자매회(Diakonies-Schwesterschaft)가 창립되었다.⁰⁸⁾ 디아코니아(Diakonia)는 봉사, 구제, 섬김을 의미하며, 독일어로 디아코네인이라는 동사에서 비롯된 말이다.

자매회는 1982년부터 여성숙 원장을 도와 결핵요양소를 맡아 운영하였다. 자매회 언니들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겠다는 종신서원을 드렸다.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다른 공동체 삶을 꾸려나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가족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유교적 관념이 짙은 한국사회에서 온전히 예수의 제자로 거듭나기 위한 결단이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을 위해 자기를 비우기 위한 여성수도자들의 적극적인 선택이기도 했다. 자매회가 결성되면서 내부의 규율도 마련되었다. 1980년 10월 5일 한국디아코니아자매회 총회가 목포 자매회 모원(母院)에서 회원 전원 참석으로 개최되어 생활세칙 등을 통과시키고 최근숙 언님을 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공식적인 조직을 갖추었다. 자매회 구성원들은 함석헌 선생의 스승 유명모 선생이 여성을 최고로 높여 불렀다는 의미를 본떠 서로를 ‘언님’이라고 호칭했다.⁰⁹⁾ 회원 자격은 기독교 세례인으로서 만 20~30세의 미혼 여성,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학력이 필요했다. 지원자는 모원에서 6개월 이상 지도 언님의 지시를 따라 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예비회원은 제복을 입으며 수련생활의 모든 규칙과 의무를 지키고, 기간회원은 예비회원 3년 기간 이상을 끝내야 가능하도록 정했다. 정회원은 원장이 추천한 회원 중에 전체회의로 결정되는데, 정회원 지원자는 서약을 하기 전에 한 달간 본원에서 기도 기간을 가지는 게 원칙이었다. 정회원에게는 일체의 사유재산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들은 본회에서 결정한 생활규율을 준수하며, 제복을 입고 생활했다. 자매회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며 세 번의 기도회와 십자가의 길 묵상기도, 피정기도, 퇴수회 등의 다양한 방법

07)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이, 병든 이, 눌린 이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내어 줌으로써 이웃의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고난 받는 이들과 함께 고난 받으며 그들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 참 이웃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고통 당하는 이들의 참된 이웃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디아코니아(DIAKONIA)의 삶을 믿습니다. 아멘(한국 디아코니아자매회 ‘우리의 신조’ 중에서).

08) 한국디아코니아자매회의 실제적인 모델은 개신교의 기관사회봉사(Anstaltsdiakonie)의 하나인 여성봉사 수도원 본원(Diakonissenmutterhaus)이다. 19세기에 내방선교의 영향을 받는 여성 사회봉사는 ‘수도원 본원-사회봉사’(Mutterhaus Diakonie)로 등장하였다(백용기, 앞의 논문, 36~37쪽).

09) 『한겨레신문』 1991. 08. 06. 「함께하는 삶(5) 기독교계 초교파 수녀 모임 한국 디아코니아자매회」.

으로 기도생활을 영위했다. 이들은 아침 6시에 하루를 시작해서 샷샷 모양의 40평 크기의 원뿔형 교회 안에서 아침 예배를 마치고 각자 맡은 일을 하면서 보냈다. 기도 외에 학습과 노동도 일과 중에 중요한 과제였다.¹⁰⁾

디아코니아자매회는 한산촌에 보금자리를 틀고 결핵균과 싸우는 환자들의 지친 몸과 마음에 평화를 주기 위해 노력해왔다. 결핵환자들을 위한 이들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자매이자 한 가족을 이루어 밥하고 일하며 살면서 믿음과 사랑, 건강을 회복하는 생명 살림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기도와 신앙지도, 간호와 상담을 병행하면서 환자들이 죽음을 수용하고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한산촌에서는 한 주에 한 번 토요일 오후에 회원들이 모두 모여 가족회의를 열었다. 한 주 동안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민주적인 합의 과정을 거쳐 운영되었다. 정회원 회의와 소위원회 회의(창립 멤버)로 구분되었다. 서로 의견을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각자의 종교적 신념을 실천에 옮겼다. 수도원 전통이 없는 개신교에서 여성 운동의 젖줄이 되기로 결단한 디아코니아자매회는 솔한 교육 과정과 영적 수련을 거쳤다. 이를 통해 내적 평화와 영혼의 충만함을 갈구하는 많은 환자들에게 힘이 되어주었다.

“사회적인 거 의료적인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아니어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영, 육이라는 게 육적으로도 건강하지만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많죠. 편안하지 않고 또 미움이 있고 또 그런 거 있죠. 그것과 병행이 영, 육이 하면 만사가 편안한데 육적으로도 그 사람이 힘들었고 영적으로도 힘들었으니깐 질병이 생기는 거고 질병의 원인은 꼭 여러 가지 조건 가난이 뭐 등등 이런 것만이 아니고도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 있고 억울하고 막 한이 차있고 이러면 병이 나올 수 없고 가정이 평안할 수 없고 그렇죠. 그리고 디아코니아라는 게 그 영적인 관리 영적인, 영적인 게 빠지면 디아코니아가 안돼요. 디아코니아는 꼭 영적인 것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고 의식을 바뀌게 교육하고 보여주고 하게하고 하는 거지. 그것이 빠지면 일반 사회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꼭 우리가 아니어도. 글고 또 하나만 하는 것은 그래서 많은 수도회들은 하나만 해요. 또 어떤 데서는 교육만 하고 어떤 데서는 뭐만 하고 그런데 여성숙 선생님이 저희와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은 의료인이었고 결핵환자들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 요양원을 열악한 조건의 요양원. 저희가 꼭 일부러 그걸 고른 건 아니지만은 성경에 보면 성경에 원복음이라는 게 가난한 이들에게 병든 이들에게 또 소외된 이들에게 이런 메시아가 있다는 모시는 중요한 이유가 그들에게 복음을, 그들에게 평화를, 그들에게 건강을, 그들에게 다시 일으킴을, 그들에게 생명을. 이게 중한 거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

10) 백용기, 앞의 논문, 38쪽.

우리가 삽니다 하는 것은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무슨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 그렇게 해야 또 나중에 아 우리가 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했다 이렇게 할 수 없고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¹¹⁾

한산촌 생활은 환자들이 죽음에 대해 재인식하는 시간이 되었다.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기를 거부하고 평범한 삶을 찾아 떠나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도 있었다. 한산촌의 생활수칙은 엄격해 음주나 흡연 등의 금기를 어긴 환자들은 퇴촌 명령을 받았다. 며칠 동안 목포 주변을 돌아다니다 슬그머니 돌아와 다시는 사고를 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것으로 해결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하루 종일 재래식 화장실의 똥을 치운 끝에 온몸에서 냄새를 풍겨 ‘분(糞)남이’라는 별명을 얻는 것으로 퇴촌 결정이 취소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퇴촌보다는 반성 끝에 생활수칙 엄수하는 것으로 조정되는 것이 관례였다. 자매회원들이 한산촌 생활에서 가장 곤혹스러웠던 것은 결핵으로 모든 것을 잃고 건강회복이 최고의 가치이자 목표인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였다. 민주화와 통일, 사회정의는 의미 없는 명분에 불과했고, 결핵균과 싸우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¹²⁾

한산촌은 한국디아코니아자매회 언넝들이 손수 일군 마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매회는 농촌과 도시 빈민지역의 소외된 이들을 보듬고자 했다. 이들은 마을주민들을 만나면서 농촌의 문제가 다만 의료에 국한되지 않음을 알고 봉사와의 의료지원에서 농촌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자발적으로 활동영역을 넓혀갔다. 이에 따라 자매회에서는 결핵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고 병인을 미리 제거해야 한다는 취지 아래 지역보건의료 활동에 앞장섰다. 1983년 디아코니아자매회로 활동하던 전직 간호사 출신 김정란 등 세 명이 보건소를 설치해 무의촌, 무 약국 지역인 무안군 운남면 성내리 주민들의 건강을 보살폈다. 성내리 바닷가 마을에서 지역사회 의 실태를 조사하기도 했다. 저소득이 곧 빈곤과 병약함을 가져오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집집마다 4백만 원이 넘는 빚, 농번기 때 혼자 노는 어린이들이 즐비했다. 자매회원들은 지역민들이 주체적으로 마을을 일구게 하는 사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았다. 처음에는 건강한 젊은 부인들을 선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 ‘마을건강어머니회’를 조직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마을 단위 보건교육을 실시했다. 마을개발위원회를 조직하게 해 화장실, 목욕탕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십시일반 추렴해 신용협동조합을 만들어 주민들의 자립도를 높여나갔다. 아울러 화장실, 목욕탕을 개량한다든지 마을문고를 만들었다.

낙도와 오지에 있는 결핵환자들에게 무료 또는 실비로 진료하기 위해 가장 우선되었던 것은 경제

11) 이영숙 구술.

12) 『한겨레신문』 1991. 08. 06. 「함께하는 삶(5) 기독교계 초교파 수녀 모임 한국 디아코니아자매회」.

적 자립이었다. 이에 여성숙은 1980년 한산촌 부지 3만평에 이어 1985년 목포의원도 자매회에 기증하였다. 자매회는 이를 사회복지법인으로 인가받아 사유재산 없이 운영하고 있다. 노동과 학습, 방문객을 돌보는 일은 녹록치 않았다. 만성 결핵환자들의 거처가 너무 낡아 보수공사를 할 때도 바자회를 열어 공사비를 일부 충당했다. 농약을 일체 쓰지 않고 가꾸는 소철, 군자란, 동양란, 어성초 등은 디아코니아자매회의 주요 수입원이었다.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서 육체노동을 자처했고, 닭, 꿩, 칠면조, 돼지, 벌 등을 길러보다가 식물을 키워 운영비를 벌었다.¹³⁾ 사회보장 예산이라든지 지역민을 위한 보건복지부 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그다지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지원을 받는 것도 여의치 않았다.

“대개 그 환자들의 기록들을 보면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또 아들 이렇게 해서 전염되어 왔어서 이것을 어떻게 차단할 수 있고 있는지 그것은 여성숙 의사선생님에게 큰 과제였어요. 그 당시는 이제 결핵 의사로서 그 문제를 함께 앓으면서 가만 보면 끝까지 추적해서 치료를 원하시고 하시고 그 가정에 더 이상 전해 전염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당신의 중요한 과제로 있었죠. 그런데 저희들이 오니까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두 사람, 두 사람씩 데리고 각자 이제 각 섬으로 저희가 파견을 갔어요. 각 섬으로 환자를 주소를 가지고 이 환자가 살아있는지 그 때 이 환자가 전염균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그 환자들을 찾아서 ‘한삶의 집’이라고 고 산 너머에 한삶의 집, 터를 사서 거기에 자활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활촌에 그 사람들이 아직도 그 전염병을 앓고 있거나, 가족에게 계속적인 전염을 하고 있거나 왜 더 이상 치료를 받지 못했는지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정말 도와줘야 할 정말 근절시키기 위한 어떤 목적이기도 하고 그들의 삶을 정말 질병에서 좀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또 해왔으니까 그 요양원에 자활촌을 만들어서 그들이 와서 그곳에서 몸도 마음도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집을 한삶의 집을 만들었어요. 이제 그 집으로 이제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치료를 시켰구요. 그래서 뭐 여러 섬들을 저희 이제 다녔죠. 그 주소 가지고 그 목포에서도 그런 환자들 있는지 찾아보고 또 만성 환자를 찾아서 그들을 돕고 그들로 하여금 일상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생활을 벗어나게 해야만이 어떻게 하든지 격리를 시켜야만이 만성 환자는 잘 안 낫잖아요. 해야만이 그 가정이 예, 건강한 가정이 되니까 할아버지, 아들 또 손자 대까지 계속 병원의 차트를 보면 가족력이 있어요. 그런 때가 한 1980년, 1990년 그랬고요.

거의 신안 쪽. 우리는 멀리서도 알고 오지만은 우리 열악한 그야말로 판잣집에 철침대. 군용, 군대

13) 김문음, 「예수 따르미의 길 -한국 디아코니아자매회-」, 『새길이야기』2002년 겨울 7호, 새길, 2002.

에서 여기 산 너머 군인부대에서 쓰는 그 철침대. 그거 두 개 있고 가운데 연탄 보일러. 연탄 그거 하나 있어서 돈 있는 사람은 안와요. 못 오죠. 그리고 정말 열악한 상황이고 뭐 의료시설도 거의 없었고 저희는 약을 주고 세끼 밥 해드리고 또 영적으로 안내해드리고 편안하게 막 이런 공기에서 쉬게 해드리고 그거 외에는 시설하고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국가보조가 없었으니까. 전혀 없었죠. 그렇게 여성숙 선생님은 밖에서 일하시고 목포의원 밑에 일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다 이쪽 야외에 사서 보내시고 먹이시고 그러셨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이 치유를 받고 다시 삶으로 되돌아갔죠. 그제 인제 목포만이 아니라 목포 온금동, 서산동 막 그쪽에 많이 분포돼 있었고. 거기에 제가 볼 때 마을마다 저희는 이제 다니면서 방문하고 만나고 상담하고 거기에 또 자녀들이 많았고요. 참 어려운 가정들이 많았죠. 그 때 당시에 2.2프로였어요. 대한민국의 인구에 예, 그거 저기 결핵협회에서는 안 나와. 나올 수 가 없어. 나오면 안 되니까. 예, 그런 정도였어요. 그리고 17만, 우리가 그때 아는 통계만으로도 17만 5천 됐었고 그 때, 그 때 저희가 아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자료는 유출, 나올 수가 없어. 없죠. 나오면 또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결핵환자는 진짜 많았어요. 그것도 양성환자들. 하여튼 거의 목포에서 신환자가 100명이 넘었으니까요. 저희들이 저희는 계속 보고를 했거든요. 해서 서울에 요청을 했고 시급하게 목포에 결핵원이 있어야 한다라는 걸 계속 저희는 올렸어요. 그래서 됐잖아요. 1990년도에. 목포에 결핵병원이 설치되었죠. 뭐 꼭 그 이유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저희들대로 해야 할 일이었고 시급하게 이 인근 도서지방, 농어촌 지방을 중심으로 이 결핵환자가 계속적으로 일년에 백여 명이 넘어가고 또 신환자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으니까요.”¹⁴⁾

자매회 언님들은 각자의 개성에 맞게 역할분담을 했다. 원장을 맡은 언님은 한산촌의 전체 살림을 돌보았다. 전직 목사 출신 언님들은 신앙교육에 있어 전문성을 살렸다. 결핵환자들을 보살피는데 전직 간호사 출신 언님들의 활약이 컸으며, 달동네에 관심을 기울이는 언님들도 있었다. 그 외에 비닐 하우스에 난을 재배한다든지, 농사철이면 논 8백 평과 밭 1천 평에 모, 수박, 오이, 옥수수, 마늘, 가지 등 일용할 양식을 가꾸었다. 10가마니 정도의 쌀 소출과 채소는 모두 무농약으로 재배했다. 경쟁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소외되어 있는 실업자, 장애인, 노인, 어린이, 여성,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은 녹록치 않았다.

후원자들에게 추렴한 회비로 운영비를 충당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한살의 집 운영에 가장 어려운 점은 약값을 제외하고도 해마다 몇 천만 원씩 드는 운영경비 마련이다. 그나마 결핵환자들에게 돌아가는 영세민 혜택으로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다. 현행 「사회복지법」에는 만성 결핵환자들

14) 이영숙 구술.

을 위해 국고를 지원하는 관계법령이 없기 때문이다.¹⁵⁾ 결핵환자들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불평등한 분배제도의 희생자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디아코니아자매회는 1991년 4월부터 목포 지역 빈민을 대상으로 재가복지사업을 시행했다. 먼저 목포 시내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무허가 주택이 많고 주거공간이 좁은데다 집안의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인해 자녀들의 교육문제가 심각했다. 질병보유율이 높았지만, 전체 인구의 69%가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가구주의 학력과 소득수준이 매우 낮았을 뿐 아니라 열악한 사회적 여건 속에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었다. 지역 내 복지시설,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시설, 독서실, 공부방 등은 물론 탁아나 노인 복지시설도 없었다. 디아코니아자매회는 지역사회 보건상담소를 설립하고 보건사업 뿐만 아니라 무료진료, 병원 간병, 장학사업 그리고 생계비, 의류지원 등을 실시했다. 이밖에도 목포시 전 지역에 거주하는 영세 가정, 환자,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지원과 가정방문, 상담 등을 했다.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은 영세 가정 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이었다. 이 역시 사회, 경제적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해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한 방책이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기 와서 봉사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바자회를 한다거나 하는 것을 아낌없이 해주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가정의 일을 가정방문을 시작하면서 제가 보기에 일이 91년도에 십년 후에 정식으로 이제 목포에 사무실을 냈었구요. 또 그 전에는 시골, 이런 데 시골 중심으로 이제 일을 하다가 무안에 성내리라는 한 곳을 지정을 해서 그곳에서 한 오 년 동안 저희가 지역사회에 보건개발 봉사단가 상업인재 봉사라던가 개발 사업. 하여튼 일종의 보건사업인데 보건진료소를 처음으로 세웠어요. 시골에 진료소 설치해서 이제 농촌 주민들의 건강생활을 위한 이런 일을 하는 데 저희가 협력했죠, 파견 나가서 진료소에 이제 한 사람이 가서 엄청난 일들을 했구요.

그렇게 80년도부터 목포에서 환자들 중심으로 시작해서 가정방문을 하고 85년도에 농촌에 들어가서 보건진료소를 설치해서 그곳에 보건 건강관리 내지는 생활 자세, 교육, 어린이 교육 거기랑 관련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하고 이제 1990년도에 다시 나와서 목포시내로 가서 거기서 이제 재활 복지 사무실에 이제 공식적으로 열고 거기에 설치를 하고 이제 가장 열악한 서산동, 온금동. 이제 거기는 이미 저희 환자들이 아주 딱 분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들은 재활복지에 계산이 되었고요. 그 아이들이 이제 장학생으로 저희 또 장학회를 만들어서 시작을 했구요. 장학회도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환자 가정의 한 아이를 그때는 뭐 장학회라는 게 없었고 그래서 생활비에서 이렇게 해서 아이 갖다주고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고 뭐 이러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그것이 나중에 그렇다보니까

15) 『한겨레신문』 1991. 08. 06. 「함께하는 삶(5) 기독교계 초교파 수녀 모임 한국 디아코니아자매회」.



그림 5 한국디아코니아자매회

이미 장학사업에 됐었고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그 때부터 갖기 시작하고.”¹⁶⁾

1998년 10월부터는 목포역과 선창지역을 배회하는 자들과 영세 가정 및 독거노인을 위한 행복노인복지회관을 운영했다. 매일 점심을 제공하고 밑반찬을 싸주는데, 150~200명 정도의 노인이 모여 든다. 행복노인복지관의 주방 벽에는 당번 표가 붙어 있는데, 기독교의 다양한 교파 교회의 이름들이 적혀 있을 정도로 자원봉사자들이 속한 교파와 교회가 다양하다. 그 교회의 자원봉사자들이 맡은 날 소임을 다하러 온다. 자매회는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여 매일 점심식사를 제공하며, 재가 노인에게도 시락을 지원했다. 영세 가정 노인들과 후원자를 결연해주었고, 현금과 쌀, 밑반찬, 김치, 과일, 라면 등의 생계비와 연탄 등의 난방비, 의류를 지원하였다.¹⁷⁾

디아코니아자매회는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을 위해 물리치료(물리베드, 맥반석 온돌침대, 세라젼 물리치료, 쉐픽스 전위발생기, 벨트마사지 등)나 건강검진(혈액, 소변검사, 청력검사, 심전도, 흉부 엑스선 촬영 등)도 행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이야기 특강, 건강강좌, 한글, 바둑, 서예, 컴퓨터, 노래, 사교댄스 등을 가르치는 교실을 운영하기도 했다. 특별행사로는 어르신과 함께 하는 청소년 캠프, 어르신 문화축제, 생신잔치, 연말 경로잔치 등을 실시했다. 2003년부터 목포시로부터 위탁받아 시작한 하당노인복지관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건강 증진 및 여가활용, 문화체험 프로

16) 이영숙 구술.

17) 백용기, 앞의 논문, 61쪽.

그램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지역사회와 이웃에 봉사하며 주변의 지역복지관과 연계한 희망 연대운동을 전개하여 노인 일거리 창출 및 노인문화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무의탁 만성 환자 자활 사업과 노인 요양시설, 도시 빈민지역의 재가 복지 사업, 노인 복지 사업을 통해 나눔과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다.¹⁸⁾ 지역민의 복지욕구는 날로 증가함에 따라 그 수요에 맞추어 디아코니아자매회의 활동반경도 점차 확장되고 있다.

“사회복지는 1990년도부터는 전문 언어가 재가복지라는 언어가 처음으로 생긴 것 같은데, 우리는 이미 그 일들을 1980년부터 해왔지만 1990년도부터 국가에서 사회복지, 재가복지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시청에서 행복급식소를 저희에게 요청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급식소를 좀 해줄 수 있느냐. 점심을 좀 함께 해달라. 왜냐면 목포에 선창에, 목포역에, 유달산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잖아요. 그리고 실업자들이 막 많아서 그들을 위한 점심을 좀 해줄 수 있느냐고 해서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좋습니다. 어차피 뭐 대상은 가정방문을 하지만 어느 한곳에 모여서 그런 분들에게 가정방문 하다보면 그런 분들까진 못 찾아뵙거든요. 그런데 어 좋습니다. 하고 이제 받아들여서 1998년도에 행복동에 동사무소 자리를 저희에게 주셨어요. 동사무소가 다른 새로 짓고 현 동사무소 자리를 저희에게 주셔서 거기에서 급식소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재밌게 그 일을 했는지 우리가 간판을 ‘행복노인복지회관’으로 딱 걸었어요. 행복노인복지회관으로 걸고 오시는 분들 아주 정성스럽게 점심 제공을 처음에는 했는데 다들 그냥 이렇게 얻어먹는 것처럼 이렇게 와서 드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접을 받으러 오시라고 우리는 여러분들을 대접할 거니까 대접을 받으러 오시라고 얻어먹는 게 아니라고 예전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으셨으니까 이제는 대접을 받으셔야 한다고 하실 때라고 그러면서 이쁜 옷 입고 제일 고운 옷을 입고서고 당당하게 오시라고 그래서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은 모자쓰고 지팡이 짚고 땀넘까지 딱 매고 아주 옷 입고 그 시간쯤 되면 시내 여기저기에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멀리에서 다 걸어오셔야 되니까 그러면서 저희들이 행복노인복지회관하고 여러분들은 대접받으러 오시는 거고 그러다보니까 아침부터 와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점심 드시러 오셨다가 일찍 오시고 또 집에서 할 일 없으니까 길가에 앉아있는 이, 선창가에 앉아있는 이 쪽 오시고 그러다보니까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고 음악, 노래 부르는 거 하다보니까 그림 그리는 거, 장구치는 거, 막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완전히 오후 프로그램까지 오후 5시. 출근도 같이 하고 퇴근도 같이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됐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정신을 변하지 않고 하는 것. 그래서 저희는 그

18) 백용기, 앞의 논문, 61쪽.



그림 6 여성숙과 디아코니아자매회



그림 7 디아코니아자매회의 해외 교류

일을 바로 하고 잘하기 위해서 독일의 디아코니아와 세계 디아코니아에 정식으로 가입을 했어요. 그니까 이 디아코니아라는 게 얼마나, 섬김과 봉사예요. 섬김과 봉사. 아,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구제하고 봉사하고 자신의 그 없이 가지고 있는 걸 나누고 소유하지 않고 이제 이런 정신으로 그 정신을 더 잘 배우고 잘 이용하기 위해서 독일의 디아코니아에 가입을 했고, 그 후 사람들은 뭐 저희처럼 비영린지 뭔지 이런 거랑 상관없지만 어쨌든 그 영적인, 성스러운 그것을 영적인 걸 바탕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치료하고 의료사업하고 또 교육하고 의식화하고 또 운동하고 이러기 때문에 독일의 디아코니아는 저희가 1980년도에 설립을 한 후 바로 1년 후에 가입을 했고 그 다음에 1983년도 그 이듬해에는 세계디아코니아에 가입을 했어요.”¹⁹⁾

디아코니아자매회는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여러 종파와 교파를 아우르며 협력체계를 구축해왔다. 자매회는 교파와 교단의 장벽을 뛰어넘어 국제적인 연대를 추구하였다. 그리하여 자매회는 1982년 독일 카이저스베르트 디아코니아연맹에 가입하고 1983년에는 세계디아

19) 이영숙 구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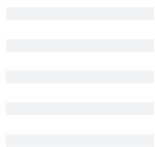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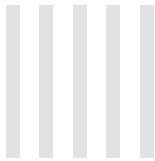
코니아연맹에도 가입했다. 창립 4개월 후인 9월부터 스위스 개신교 여성공동체인 그랑사(Grand champ) 소속의 알버틴(Albertine) 자매가 방문하여 기도와 명상, 공동생활에 대한 경험을 3개월 동안 전해 주었으며, 독일 서남지구 선교부에서도 자매를 보내서 기도와 예배, 침묵, 복종 등의 수도원 생활에 대해서 지도해 주었다.²⁰⁾ 이후 해외 교류를 통해 천주교를 비롯한 종교공동체 방문을 통하여 공동체의 삶과 명상, 기도, 교육 등을 배우면서 성서를 비롯하여 역사, 공동체와 사회, 음악, 철학, 결핵 관련 독서와 학습을 했다. 환자들을 방문하여 상담, 요우들의 기도회 인도, 성경지도, 서신연락, 특별기도, 가정심방 뿐만 아니라 요우들과의 노래와 게임 등의 친교를 나누는 방법도 숙지하였다. 자매회원들이 학습과 훈련을 통해 터득한 영육(靈肉)의 치유 방법은 환자들에게 전파되어 인쇄심과 깨달음, 삶과 죽음을 수용할 수 있는 평화를 안겨주는 원동력이 되었다.

표 1 한국디아코니아자매회 활동내역

1980년 5월 1일	한국디아코니아자매회 창립.
1982~1990년	한산촌 결핵요양소 운영.
1982년 10월	독일 카이저스베르트 디아코니아연맹에 가입.
1983년 7월	세계디아코니아연맹에 가입.
1983~1989년	성내리(전남 무안군) 농촌 보건 의료 및 지역사회 개발사업.
1985년 3월 25일	사회복지법인 한국디아코니아자매회 설립인가.
1987~2017년	공부방 운영(목포시 달성동, 1987~1990년). 재가복지, 장학 사업 등(목포지역 영세 가정, 1991년~ 현재).
1986~2004년	한살의 집(전남 무안군 삼향면 왕산리) 만성결핵환자자활사업 등
1998년~현재	행복노인복지관 운영(목포시 행복동, 1998~2004년). 하당노인복지회관 운영(목포시 하당, 2003~2005년). 한산촌 노인요양원 운영(무안군 삼향읍, 2004~2007년). 디아코니아 노인요양원 운영(무안군 삼향읍, 2007~현재).
1998년 11월 17일	한국디아코니아자매회 모원 및 수련원 이전(충남 천안시 병천면).
1998~2012년	아우내재단 영성과 평화의 집 운영(충남 천안시 병천면).
2003년 5월 4일	디아코니아 가족 공동체 설립.
2016년 6월 27일	한국디아코니아자매회 모원 이전(전남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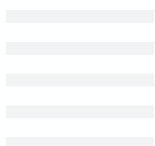
박혜영 | 목포대학교 문화와자연유산연구소 박사후연구원

20) 한국디아코니아자매회의 태동기에 독일 서남지구 선교사 슈바이처(Dorothea Schweizer)는 독일 개신교 수녀원이라는 주제로 수녀원의 공동생활과 수녀교육, 기도생활에 집중하면서 소외된 자들을 위해 일하는 수녀원을 소개하였다('1977년 11월 16일 개신교 수녀원(가칭)을 위한 제1차 모임'의 강연, 독일 개신교 수녀원 자료; 백용기, 앞의 논문,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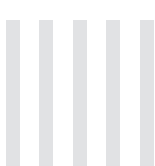
제1절 영산강을 지켜낸 환경운동가

김경완 | 신안문화원 사무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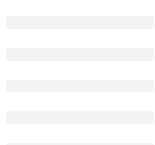
제2절 삼학소주의 흥망성쇠를 지켜본 향토사학자

김경완 | 신안문화원 사무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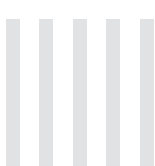
제3절 국어교사에서 방언 연구자로

김경완 | 신안문화원 사무국장



제4절 유달산 자락에서 태어나 자란 목포 토박이

고정서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보조연구원



제5절 목포 구도심을 누비던 청년들

이경아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연구위원



제6절 목포의 역사와 시간을 전하는 사람들

김동규 | 목포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제7절 유달산에서 3호광장까지, 그리고 신도심 주민으로 살아가기

이경아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연구위원

제2장 목포의 희망을 이야기하다

제1절 영산강을 지켜낸 환경운동가

서한태는 1928년 무안군 몽탄면 태생으로 목포중학교 1회 졸업생이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1회로 졸업했으며 목포에서 평생 의사로 근무했지만, 환경운동가로 더 알려져 있다. 1983년 영산강에 대기업의 주정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아낸 후 유달산 케이블카 반대운동, 삼학도 시멘트 싸이로 반대 운동 등을 전개했으며, 녹색연구회 회장, 푸른전남21협의회 의장,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2000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으며,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정책을 제안하고, 지역적으로는 생활실천 운동을 전개해 왔다.⁰¹⁾

1. 목포중학교를 졸업하고 의과대학에 진학

서한태는 1928년 9월 18일 무안군 몽탄면 노송정 마을에서 아버지 서승중(1896~1960)과 어머니 윤옥향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남들보다 한 살 늦은 아홉 살(1936년)에 일로심상소학교에 입학했다. 어린 그는 매일 6km의 등굣길을 걸어 다니면서도 장질부사(수인성전염병의 일종)에 걸려 한번 결석한 것을 제외하고는 6년간 결석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눈이 많이 내려 학교에 가기 어려운 날에도 아버지는 동네 형들을 앞세워 그를 학교에 가도록 독려했다. 1학년이던 어느 날 눈이 많이 내리고 추웠는데, 수업을 마치고 교문 밖으로 나오자 집에서 일하는 머슴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저씨’라고 불리는 그는 등을 내밀며 어린 한태에게 업히라고 했다. 그는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워 도망치듯

01) 서한태는 2018년 3월 타계하였다.

몇 백 미터를 집 방향으로 뛰어갔다. 그리고는 머슴과 함께 마을 어귀까지 걸어왔는데, 마을 앞에서 머슴이 또 업히라고 등을 내미는 것을 보았다. 어린 그는 잠시 고민했다. ‘내가 또 등에 업히지 않으면 아저씨가 아버지에게 혼날 수 있겠구나.’ 그는 하는 수 없이 머슴의 등에 업혀 집에 들어갔다. 어린 나이지만 상대를 배려할 줄도 알고, 나름 눈치껏 행동할 줄 아는 아이였던 셈이다. 중학교는 목포로 진학하게 됐다. 이때가 1942년이였다. 목포중학교와 1년 전에 설립된 문태중학교에 동시에 입학 시험을 치렀다. 다행히 두 곳 모두 합격했지만, 공립인 목포중학교에 입학했다.

“당시 우리가 일로초등학교 다닐 땐 심상소학교, 보통학교라고도 했는데, 우리 때도 6~7명만 중학교에 진학했지. 그렇기 때문에 일로 시골 같은 데는 중학교 교복만 봐도 남이 우러러 보는 그럴 때였어. 또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공부를 제일 잘한 사람은 사범학교에 갔어. 대개 그 다음이 인문계 쪽으로, 목포는 상업학교에 갔제. 나는 처음에 광주서중학교에 지원했다가 안가고, 목포중학교 하고 어쩔란가 모르게 문태중학교 양쪽을 지원했어. 목포중보다 문태중이 1년 전에 있었제. 아 이놈의 발표는 문태중이 먼저 돼 붙었네. 그래서 문태중 입학식까지 내가 갔어요. 근디 그 후로 인자 목포중에 합격했다고 연락이 오길래 목포중으로 가부렀제. 문태중은 사립학교고 목포중은 공립이제. 공립은 단연 최고였지.”

당시 목포중학교는 일본인 50명, 한국인 50명을 입학생으로 선발했다. 한국인 중에는 복교초등학교 출신들이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산정초등학교와 인근 각 시·군에서 공부를 잘해 들어온 학생들이었다. 중학교는 군대식이였다. 초등학교와 달리 일본어로만 말하고 일본어로 책을 읽어야 했다. 시골에서 온 그는 일본어 발음이 서툴러 무척 고생했다. 목포의 작은아버지 집에서 생활하며 중학교에 다녔다. 작은아버지 서채종은 일본중앙대학 출신으로 목포상공회의소 회장과 시의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작은아버지 집은 고향 집과는 달리 엄격해 생활하는데 적응이 필요했다. 혼자 시간을 갖고 싶었던 그는 저녁식사를 한 후 모두가 이야기꽃을 피울 때 서둘러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 일부러 화장실에 다녀온 후 찬물로 세수하고 공부를 시작했다. 그렇게 새벽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매일같이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 어느 날 작은아버지가 한마디 하셨다. “한태는 아침에 세수 안하냐? 어째 한 번도 씻는 것을 본적이 없네.” 이때 서한태는 초등학교 다닐 때와 달리 키도 커지고 체력적으로 강건해지기 시작했다. 체력단련도 열심히 했는데, 주로 역기, 아령, 곤봉운동을 했으며 씨름까지 배워두었다. 해방 후 한동안 유달산에서 씨름대회가 열렸는데, 당시 학생 서한태를 당할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서한태는 1946년 8월 중학교를 졸업하고 1947년 2월 집안의 주선으로 아내 정영순과 결혼했다. 그 후 슬하에 3남 3녀를 두게 된다.



그림 1 목포중학교 1회 졸업생 기념촬영



그림 2 1942년 당시 목포중학교 운동장

“내가 스무 살 때 결혼했어. 의과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결혼을 한 셈이제. 집사람은 19살이고, 처갓집은 광주 화정동이었어. 집안에서 소개했어. 얼굴은 결혼한 날 처음 봤제. 약혼식도 없었어. 그때는 여자집에서 결혼식을 했제. 처가로 장가 갈 때는 대개 남자 분들만 따라가제. 어머니도 안갔어. 그때는 그랬제. 아버지만 따라갔어. 기차타고 갔을 것이네. 결혼식 마치고 자고 바로 내려오고. 부인은 친정에서 살고, ‘땃인다’고 신부가 친정에서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살았어. 결혼하고 같이 안 살았어. 그 이듬해나 나중에 우리 노송정 마을로 시집왔을 것이여. 금방 얼마 안돼서 나는 의과대학에 들어갔어. 부인은 시집에 혼자 있었어. 대학을 다닐 때 나는 혼자 하숙하고 아내는 시골에 있고. 토요일이면 자주 집에 오고 그랬제. 대학 졸업할 때뿐만 아니라 바로 군대 가볼지 않았는가. 군대 가서도 중간에 조금 같이 살았지만 거의 별도로 살았제. 15년 정도나 그렇게 살았제. 허허허. 지금은 상상이 안 될 정도지.”

서한태는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수원농대(현 서울대) 토목과가 적성에 맞을 것 같아 입학시험 준비를 했다. 하지만 당시 유행하던 콜레라를 피해 시골집에 갔다가 시험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마침 그 다음에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생 모집이 있어 별 생각 없이 시험을 치르고 합격했다. 그때만 해도 ‘나중에 다시 수원농대에 입학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의대 입학 후 마음이 바뀌었다. 그는 나중에 당시 의대에 진학한 것을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감사하게 생각했다.

“실은 수원농대를 갈라고 했어. 그것도 토목과를 해볼까 생각을 했거든, 농대 안에 토목과가 있어. 농업토목이제. 그런데 내가 시골에 있다 보니까 시험을 쳐보지도 못하고 갈 길이 없어져 부렸어. 그런데 유일하게 9월 달에 의과대학 모집이 있어서 의과대학에 여차로 들어갔지만, 시기가 오면은 1년

기다렸다가 수원 쪽으로 갈라고 생각했어. 의과대학에 들어가면서도 옮길 생각이었어. 근디 1년쯤 된 게 굳이 뭐 토목과를 갈 것이 아니고 의과대학이 괜찮하드라고. 그래서 의과대학에 주저앉아서 다닌 셈이지. 원래 160명을 모집했는데, 조금 학구적으로 여유 있게 공부하려는 사람들은 예과로 가고, 나이도 들고 빨리 개업을 해야 할 사람들은 전문부로 갔어. 우리는 예과에서 공부했지.”

성실하게 공부하던 습관은 의과대학에 들어가서도 효력을 발휘했다. 많은 학생들이 단순 암기과목인 ‘골학(骨學)’을 어려워했는데, 서한태 만큼은 아침마다 골학 해부 그림을 보면서 외워버렸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재미도 없는 ‘골학’을 등한시 해 찢찢 났을 때 말이다. 어쩌면 이런 우직함이 그를 환경운동가로 만들었는지 모른다.

2. 사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서한태는 1953년 의과대학을 졸업한 직후 육군 중위로 임관되었다. 마산 군의학교에서 2개월간 군사교육을 받았는데, 그의 큰 발에 맞는 군화를 배급받지 못해 마산 시내에서 헌 군화를 사서 해결해야 했다. 이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한창 식욕이 왕성할 때인데 밥 양이 적었던 일이다. 다행히 대학 동기이자 사회에 나와서까지 함께 친구로 지낸 명승표(명소아과 원장)가 밥을 남기기에 가끔 얻어먹으며 힘든 과정을 이겨냈다. 군의관이 되어 처음 환자를 진찰하면서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엑스레이(X선) 필름 판독만큼은 무척 어려웠다. 그는 휴가 중에 대구에 있는 2군사령부 의무부를 방문했다. 마침 교육담당인 이시우 소령을 만나 ‘교육을 시켜달라’는 요청을 해 X선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군의관 생활을 보람 있게 보낼 수 있었고, 제대 후 사회에 나와 ‘X선과’ 의원을 개업하게 된 계기가 됐다.

“37연대에 배속돼서 환자를 불라고 하니까 엉터리같이 적당히 봐지는데 젤로 골치 아픈 것이 엑스레이드라고. 예를 들어 ‘봐달라’고 가져오는데 봐도 안보여. 알 길이 없어. 배운 적이 없으니. 판 것은 거짓말로 적당히 얼버무려 볼 수 있는데 엑스레이는 안 돼. 그래서 ‘엑스레이를 배워야겠구나’ 싶었어. 그래서 휴가 때 대구에 있는 2군사령부 의무감실을 간께 담당소령이 한나 있드라고 ‘이시우’라고. 그래서 내가 따졌어. ‘사람을 가르쳐서 써 먹어야지. 배우지도 않게 하고 내 보내냐?’고 내가 꿀릴 일이 없드라고. 내가 당할 것이 뭐가 있냐. 일선에서 왔는데 더 이상 어디로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북으로 보내지는 않을 거 아니여 하는 배짱이 생기드라고.”

군 생활을 장교로 보냈지만 경제적으로는 무척 궁핍하던 시절이었다. 개인적으로 친구를 만날 때 차값이 없어 빌려야 했고, 연탄 값도 제대로 치르기 어려웠다. 오죽했으면, 제대하기 직전에 소령 계급장을 달고도 생활하기가 어려워 고향 노송정 마을 앞산에 있는 나무 200그루를 베어 팔아다가 생활비로 충당할 정도였다.

그는 논산훈련소 수용연대에 근무하면서 중요한 삶의 철학을 깨닫는 경험을 하게 된다. 훈련병들이 고된 훈련을 마치고 마실 물이 없어 논두렁에 흐르는 물을 마실 정도였다. 그는 군의관으로서 위생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하면서 부대 내에 우물을 팅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심지어 부대장은 연병장에 훈련병들을 모아 놓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먹는 물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있나? 있으면 손들어!”

누구 하나 손들고 시정을 요구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결국 오랫동안 훈련병들은 무더위에 제대로 물도 마시지 못하고 어려운 훈련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가 생각하기에는 수용연대 매점의 음료수 매상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훈련병들에게 갈증을 일으키게 한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이복 출신 치과장교 김낙응 대령이 부임해 우물을 파게 되자, 물을 담는 자루에 물이 넘실거리게 됐다. 이렇게 되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훈련소 환경이 좋아졌다. 부대장 한명이 바뀌자 훈련병들에게 지옥이던 곳이 천당으로 바뀐 셈이다. 결국 지휘자 한명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부대 안에서 이런 필요하고 바람직한 일을 한 김 대령은 얼마 되지 않아 좌천되고 말았다. 당시 논산 훈련소 수용연대는 부정부패의 소굴이었다. 신병을 괴롭혀 돈을 받아 내는 것이 일상이었다. 모든 과정에 지휘관들이 관여되어 잇속을 챙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한태는 군 생활 9년만인 1962년 소령으로 제대했다. 군 복무중인 1953년 제2회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했고, 1961년에는 방사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것이 군생활의 성과였다.

3. 목포 최초로 방사선과의원 개업

서한태는 1962년 6월 21일 엑스레이 병원으로는 목포 최초로 ‘서방사선과의원’을 개업했다. 당시 병원은 현재 복만동 목포환경운동연합이 위치한 그 자리였다. 개업 이후 방사선과를 찾는 환자들은 그가 의사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환자들은 엑스레이를 찍은 후, 필름을 가지고 다른 병원을 방문해 그쪽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다는 것을 한참 후에야 알게 됐다. 그는 환자들에게 자신이 의사고, 엑스레이를 찍을 뿐만 아니라 판독하고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을 매번 알려주어야 했다.

1960년대 목포에서 병원을 운영한다는 것은 얼마 전까지의 군대 생활에 비하면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컸다. 겨울철 난방에 필요한 연탄 정도는 언제든지 돈을 주고 살 수 있었고, 먼 데서 반가



그림 3 서한태의 가족(1976)

운 손님이 찾아오면 부담 없이 음식도 대접할 정도였기 때문이다. 또 다른 차이도 있었다.

“군대에서는 신경을 안 쓰고 살았지. 아무렇게나 하면 되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지 정신적으로는 부담은 안됐지. 심지어 엑스레이를 찍을 때 군에서는 기계는 가만히 고정시켜 놓고 사람을 ‘위로 올라가’, ‘좌로’, ‘우로’……. 이렇게 하는데, 민간에 오면은 사람은 가만히 있고, 기계를 이리 저리 움직이는 거지. 그런 차이가 있드라니까. 일단, 개업을 하면은 정신적으로 훨씬 부담이 되드라고. 책임을 져야 하니까.”

개업 직후에는 병원에 휴일이 없었다. 의사와 간호사, 엑스레이 기사에게 주말 개념이 없어 매일 병원 문을 열고 진료를 했다. 만약 환자가 있는데도 주말이라고 진료를 하지 않으면 금방 소문이 나고 욕먹는 의사가 될 때였다. 환자가 오면 일요일이고 토요일이고 환자를 봐야 한다는 것이 암묵적인 분위기였다. 돈을 번다기 보다는 환자를 위한 의사의 의무였던 셈이다. 당시, 시중 가격의 반도 안 되는 싼값의 부정한 엑스레이 필름이 많이 나돌았다. 저렴하게 구입해 사용하면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부정한 필름을 구입하거나 이용한 적이 없었다. 그는 스스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돈을 많이 모을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고, 소박한 3대 목표를 정했다. 첫째, 먼저 안집을 장만해 가족들이 편하게 생활하게 한다. 둘째, 적정규모의 병원을 짓는다. 셋째, 환자의 건강유무를 예측하는데 필요한 제대로 된 X선 장비를 갖춘다. 그런 후에 여유가 생기면 여생을 즐겁게 살기로 마음먹었다.

“개업 후로도 반 가격 이하로 싼 필름이 들어와요. 그런데 나는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괜히 그것이 문제가 되면 뭘 풀이나 싶어서. 난 안했어.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속보이는 일은 안했어. 근게 그때 개업을 해 가지고도 겨우 살 정도 밖에 안 됐어. 나는 진짜로 환자 입장을 생각했어. 환자들이 다 섬에서 온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거든. 원래 이비인후과 사진은 기본이 4장은 찍을 수가 있어요. 기본이 옆으로 찍고, 앞으로 찍고, 돌려서 찍고. 하지만 나는 가급적 한 장 정도 찍도록 했어요. 네 장 정도 찍으면 가격이 비싸 부러요. 그래서 한 장 찍어서 중요한 것을 봐 줘 부러요. 내가 잘 했는가는 지금도 몰라. 상대방 입장에서 어떻게든 돈이 들지 않게 한 거지.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될 것 같지 않았던 거야.”

그는 다행히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해 병원 근처에 안집을 지었는데 얼마 후 병원이 화재로 불타버리고 말았다. 당시 병원은 목조건물이었는데, 옆집에서 난 불이 옮겨 붙어 전소되었던 것이다. 다행이라면, 병원 근무 중에 화재를 발견해 서둘러 엑스레이 기계와 중요한 물건들을 빼 올 수 있었다. 망연자실한 상황이었지만, 하루라도 병원진료를 쉴 수는 없었다. 마침 안집이 병원 가까이 있어 안집에 엑스레이 기계를 설치하고 다음날부터 환자들을 받았다. 그렇게라도 일에 몰두하며 어려움을 이겨내야겠다는 의지 때문이었다. 이렇게 평범한 의사로 지내던 그에게 작지만 소중한 사건이 있었다. 1979년인데, 둘째 아들이 서강대학교에 다니다가 학생운동과 관련해 무기정학을 당하고 목포 집에 내려와 있을 때였다. 아들이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목포에는 인물이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 같은 분이 지역 유지라고 출입하는 것 보면 말이예요. 도대체, 아버지가 책을 읽는 것을 못 봤어요. 하다못해 젊은 애들도 연애할 때 연애소설을 읽고 나가는데, 아버지는 책도 읽지 않고 어떻게 사회의 귀감이 되려는지 모르겠네요. 제발 딴 거 말고 집에 있는 책 좀 읽으세요.” 그러면서 처음 내 놓은 것이 『이 아이들을 어찌할 것인가』라는 이오덕 선생의 책이었다. 그는 그 책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다. 나름 학교 육성회에서 활동하고, 교육에 관심이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몹시 부끄러웠다. 다음은 이영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를 읽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사회는 자신이 바라보던 사회와는 너무 달랐다. 세상이 뒤집혀 보였다는 말이 적당한 표현이었다. 그는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책읽기에 돌입했다. 당시 진보적인 생각과 실천을 하던 인사들의 책은 그를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오덕, 이영희, 성내운, 김용옥, 한완상, 김지하의 책은 거의 모두 읽었다. 사람이 책을 만들지만, 동시에 책이 사람을 만든다는 것을 절감했다.

“네루의 『세계사편력』을 보면 아! 세상을 우리가 잘못 보고 있구나. 근게 관점의 차이가 있어. 우리가 지내 보면은 상당히 착실하고 책도 많이 읽는 사람이 있어. 근데 아는 것은 많은데 세상을 바르게

보지 못한 경우도 있드라고. 바르게 본다는 것은 민중의 입장에서 본다는 것인데, 지배자의 기득권 입장에서 보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지. 마르크스 직전까지는 전부 지배자의 입장에서 봤는데, 이놈을 꺼꾸로 민중의 입장에서 보는 것은 마르크스가 처음이라고 하든만.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열리는 행사를 봐도 거의 집행부 위주의 행사이지, 청중의 입장에서 대개 보질 않아요. 목포시민의 날 행사를 봐도 옥외행사에서 피약벌에서 시민들을 세워 놓고, 아홉 사람이나 축사를 하고 그런 미친 짓거리들을 해.”

그는 책을 통해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 진심으로 깨닫게 됐다. 그의 나이 50대가 되었을 때였다.

4. 영산강, 삼학도, 유달산 보전운동

서한태는 의과대학을 다닐 때 예방의학 과목을 좋아했다. 서울대학교 심상한 교수가 전남대까지 출장 강의를 하면서 ‘예방의학’을 가르쳤는데, 지금도 뚜렷이 기억되는 말이 있다. 의복이나 건물을 선택할 때 판단 기준은 첫째, 위생성이다. 건물의 경우 채광과 통풍이 잘되는 건물이 위생을 고려한 건물이다. 둘째는 능률성이다. 쓰기 편하고 유용한 것이 중요하다. 셋째가 경제성이다. 자기 경제적 수준에 맞는 선택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이 미관이다. 이것은 어디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그가 보기에 전라남도 신청사는 그런 측면에서 정반대의 경우였다. 미관만 너무 고려한 탓인지 건물이 유리로 되어 냉난방에 매우 불리하기 때문이다. 실제, 여름철 공무원들이 너무 더워 에어컨을 켜야만 업무를 볼 수 있는데, 에어컨 온도를 제한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충이 있다고 들었다. 그가 도지사 집무실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입구가 미로처럼 생겼고, 방에 창문이 제대로 없어 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다. 환기는 서로 맞닿린 창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야지 다 막아두고 환기시설로만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할 뿐더러,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비된다. 이처럼, 오래 전에 배운 것이지만, 예방의학에서 다루는 모든 주제, 즉 공기, 물, 토양은 나중에 환경운동에서 다루는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늘 이렇듯 건강과 환경을 함께 고민했던 그에게 일생일대의 큰 사건이 벌어진다. 1981년 12월 영산호방조제가 준공되었다. 동양 최대의 담수호가 생겼다는 뉴스가 연일 이어졌다. 그동안 목포시민들은 물이 부족해 무척 고통 받고 살아왔던 터라 기대감이 컸다. ‘아, 이제 물은 풍족히 쓸 수 있겠구나’라고 여길 때였다. 그런데 1983년 6월 경찰서 한 형사로부터 영산포에 주정공장이 들어선다는 정보를 듣게 된다.

“1983년도에 중요한 것은 내가 6월 15일 날이라고 기억하는데, 그때 목포경찰서의 박형사가 와서 ‘지금 저 쪽에 진로 주정공장이 요리 옮길라고 한다.’고 귀뜸을 해주드라고. 근디 그때 제주도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쫓겨날 처지인데 요리 와서 자리 잡을라고 한다는 거야. 그때의 분위기로 봐서는 좀 행세한다는 유지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못한다 그 말이어. 괜히 입장이 곤란하니까. 근게 나한테 귀뜸을 해 주드라고. 막아야 쓰지 않겠냐고. 우리로서는 목포가 남달리 물 사정이 좋지 않았거든. 근게 옛날 사람들치고는 우리 무렵에 물지계를 안 지어본 사람이 없어. 수도가 집집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있잖아. 그러면 겨울철 같으면 물통을 대 놓고는 덜덜 떨면서 서있고, 그 고생을 해 갖고 물 한 방울 들고 오고 그랬어. 그런 실정이었어. 그래서 물지계를 안 지어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절적인 것은 고사하더라고 물이라도 풍족하게 먹어봤으면 원이 없겠다 하는 것이 목포시민들의 생각이었거든.”

제보한 형사의 이야기에 의하면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자그마치 하루 2,700t에 이른다고 했다. 그 폐수가 고스란히 목포 시민의 식수로 쓰이는 영산강에 흘러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위기감을 느낀 그는 당장 그날 저녁에 열린 청호라이온스클럽 이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이를 후인 17일에는 국제봉사클럽협의회를 소집하여 여기에서도 투쟁을 결의했다. 다음날 목포상공회의소, 목포개발위원회, 국제봉사클럽, 목포예총으로 구성된 목포지역단체협의회에서 싸울 것을 결의했으며, 정보를 입수한지 열흘도 안 되는 1983년 6월 23일 ‘영산호보존회’라는 환경단체를 탄생시켜 주정공장 반대 투쟁에 들어갔다. 그는 영산강을 지키는 긴 과정을 통해, 과학이나 논리보다 어떤 때는 상식이 훨씬 더 잘 통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목포의 대표들과 함께 환경청을 방문할 때였다.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시민대표 앞에서 전문용어인 ‘BOD, COD’를 운운하며, 공장이 들어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자, 서한태가 책상을 ‘탁’ 치며, 환경청장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서한태: “복잡하게 이야기할 것 없이 공장이 들어선 것이 영산강을 맑게 하요? 없는 것이 맑게 하요?”

환경청장: “그거야……. 아무래도 없는 것이…….”

서한태: “그럼 말 다 했제. 뭘 소리여. 주정공장은 절대로 안돼”

하고 상황을 정리하고 말았다. 또, 진로 주정공장이 큰돈을 들여 중앙지 1면에 광고를 냈는데, 그 내용이 ‘진로공장은 절대로 공해업체가 아니며, 앞으로 깨끗한 폐수만 내 보낸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서한태는 다음과 같이 허를 찌르는 한마디를 던졌다. “야 이놈아 깨끗하게 나오면 뭐 미쳤다고

버리냐. 그대로 도로 쓰면 되제. 그리고 사장이 그 물을 직접 마시는 것을 보면 믿지, 다른 것은 절대 못 믿는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주장이었다. 더불어 시민들의 영산강 보전운동은 더욱 힘차게 진행되었다. 자본과 국가 권력의 비호를 받는 세력은 세계 어디에서도 똑같이 지역의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권리와 인권을 무시한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외국에도 종종 있는 일이다. 일본이 핵폐기장을 미크로네시아의 섬에 만들자고 하면서,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자, 섬 주민들이 반박했다. ‘그렇게 괜찮으면 느그 동경만에다가 하제, 뭐 미쳤다고 여기다 할라고 하나?’고.

대기업을 상대로 시민들이 환경권을 주장하며, 오염시설을 반대하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전례 없는 일이었다. 더군다나 1980년 광주에서 시민들을 향한 군인들의 학살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전두환 대통령의 폭압적인 정치가 유지되고 있을 때였으니, 자칫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 죽거나 곤욕을 당할지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목포 시민들의 염원과 열정은 그러한 두려움마저 이겨냈다. 서한태는 추석을 앞두고 대규모 토론회를 계획하고, 영산호보존회는 유인물을 뿌려 시민들의 토론회 참석을 독려했다. 그때 느닷없이 범택균 목포시장(재임기간 1980년 9월 1일~1983년 12월 26일)이 그를 만나고 싶다고 연락해 왔다.

“추석날 범택균 시장이 저녁이나 하자고 전화가 왔어. 그때 7시였던가 해서 시간에 늦지 않게 5분 전엔가 갔어. 아 근디, 시장하고, 안기부 책임자하고, 지청장도 나오고, 연대장도 나오고, 경찰서장도 나오고 딱 배석하고 있드라고. 즈그들만 먼저 와 있었던 거야. 마치 사전에 모여 대책회의를 한 것 같아. 들어가 본게 안기부 책임자가 먼저 말을 하는 거여. ‘얘기 다 들었다’면서 뭘 하여간 내 기억으로 ‘사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뭐라고 그러는 거여. 사상을……. 그래서 내가 ‘아니, 시민들이 맑은 물을 풍족하게 마시겠는데 이게 뭣이 사상하고 관계가 있냐?’고 말이며. 그랬단 말이며, 근게 그때 지청장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마지막에는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라고 그래. 아니 뭣이? 우리가 해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투쟁을 하자는 것이지. 딴 것이 있겠냐고, 당당하니 내가 큰 소리를 쳤어. 우리가 이렇게 맑은 물을 온 시민이 마시고 싶어 하는데, 잘못된 법은 개정을 해서라도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며. 이렇게 큰 소리를 쳤제. 그런게는 안되겠던지 경찰서장이 ‘아……. 아…….’하고 조정을 하드라고. 그때 범 시장도 그러드라고. ‘지금 어떻게 관을 해 먹을라고 그러냐?’고. 하여간 내가 반드시 막아낸다는 식의 말을 하고 나왔어.”

당시 목포시장을 비롯해 기관장들이 대거 모여 곧 있을 토론회와 쫓겨대회를 무산시켜려고 했던 에피소드다.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안기부 책임자의 말에서 짐작할 수 있다. ‘사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빨갱이, 사상문제로 몰아붙이면 사회적으로 매장할 수 있을 때였

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한태가 꺾이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늘 당당하고 떳떳했기 때문이다. 그때는 불법도청도 쉽게 이루어졌었다. 그는 오히려 이것을 적절하게 이용했다.

“들어오기만 해봐라. 작살을 내붙텐께.”, “이 새끼들 이런 식으로 하면 묵사발을 내 붙겠다.” 등등, 일부러 고약한 말을 하면서 결의를 더 다진 것이다. 이 사건이 있던 당일 오전 서한태는 마침 어머니 산소에 다

녀왔었다. 마치 저녁의 일을 짐작이라도 한 것 같이 결의를 다진 시간이었다.

“어머니,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옳은 일입니까, 그른 일입니까? 옳다면 내게 용기를 주십시오. 여생을 값지게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순간 눈물이 팡 돌았다. 다행히 하늘은 목포 시민의 편이 돼 주었다. 시민들의 집요한 반대 운동으로 진로 주정공장은 자진해서 영산포 이전을 포기하고 반월공단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이때가 1983년 11월 8일이었다. 영산호 보전운동에 참여한 단체와 목포 시민들은 만세를 불렀다.

이 사건은 환경운동의 역사에 유래 없는 성과였다. 환경오염이나 피해가 발생한 후 문제를 제기하거나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전 시민의 투쟁으로 오염시설을 막아낸 것은 세계적인 최초의 사례였다.

3년 후인 1986년 6월 서한태는 쌍용시멘트가 시멘트 싸이로(저장창고) 4,000t짜리 2개와 부대시설을 삼학도 중심에 설립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아름다운 삼학도에 대형 구조물이자 오염시설이 들어서면 것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었다. 하지만 커다란 장애물이 등장했다. 영산호 보전운동 때 막강한 중심 역할을 했던 항운노조가 보상금을 받는 것을 전제로, 쌍용시멘트의 입장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그는 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삼학도 보전운동에 전념했다. 당시 목포기독교인과 예총이 중심이 되어 1986년 9월 9일 ‘삼학도보전회’를 창립하여 의사인 차우균 원장을 회장으로 추대했다. 삼학도보전회는 꾸준히 반대운동을 하며, 시멘트 싸이로 건설을 백지화하는데 이바지했다. 이때, 삼학도보전회는 5가지의 원칙을 제시했는데 첫째, 공원화의 장애요인인 새로운 시설은 일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둘째, 기존의 기관과 시설들도 장기적으로 이전한다. 셋째, 친환경적인 공원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한다. 다섯째, 시장이 바뀌더라도 한 번 결정된 것은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림 4 핵발전소 반대 토론하는 서한태

1987년 3월에는 유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정보가 들려왔다. 모 호텔 사장이 유달산과 호 텔을 연결하는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계획이었다.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 당시 유달방역 대표인 차 남윤 회장을 중심으로 1987년 7월 12일 ‘유달산보전회’를 만들어 함께 대응했다.

“난데없이 유달산에다가 케이블카를 설치한다고 그라드라고. 근디 케이블카 문제는 시민들 다가 설치할 원해. 한번 타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이라도 있어야 경제발전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막연한 생각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도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내가 알고 있는 자료를 보면, 작은 돌산에는 도저히 케이블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 돌산 정상에다가 정류장만 하 드라도 돌을 파내고 만들어야 하고, 바위를 깨서 지지대도 대고, 한 점 수석 같은 유달산 바위를 그렇게 훼손하면 되겠어? 케이블도, 선이라는 것이 보기 싫드라고, 우리도 시골마당에서 사진을 찍을 때 빨래 줄을 치우고 찍지 않혀? 나무도 훼손이 되고, 원래 높지도 않은 산이기 때문에 등쪽에 땀이라도 흘러면서 희열을 느끼면서 올라야지.”

시민들이 막연하게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좋겠다고 기대하고 있는 이상 유달산보전회의 활동은 처음부터 어려움이 있었다. 이때 주먹세계의 차윤식(가명)이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이미 차윤식이 고등 학생 때 그를 선도하기 위해 서한태가 만나 인연을 맺은 적이 있었다. 차윤식과 그 동료들은 서한태 를 찾아와 ‘노는 주먹세계가 여태까지 못된 짓만 많이 했는디, 속죄하는 의미에서 열심히 유달산을 지킬랍니다.’라고 약속했다. 유달산보전회는 주먹세계, 아니 좋게 말해서 ‘체육인’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 반대 성명서도 발표하고 보전운동에 전념했다. 결국, 유달산에 케이블카가 들어서는 것을 막아 냈다. 이렇게 영산강, 삼학도, 유달산 보전운동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자, 대내외적으로는 ‘아이고 서한태 저 사람하고 싸워 가지고 해 볼 사람이 없다’는 인식이 퍼졌다. 그는 1988년 녹색연구회를 만들어 본격적인 생활 속의 환경운동을 시작했다.

5. 목숨을 살리는 의사에서 환경을 살리는 운동가로

그는 평생을 의사로 살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 왔지만, 한 가지 의사들은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의료보험관리공단 발표에 의하면, 현대의 심각한 질병 약 70%가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오는 병이라고 한다. 그것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이야 기인데, 의사들은 여기에 대해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의사들이 의과대학에서 공부할 때부터 ‘영양’에 대해서 조금 배울 뿐, 음식과 약이 근본적으로 같다는 식약동원(食藥同源)의 기본적인 철

학이나 과학적인 사실은 배우지 못했다. 그런 결과가 병원의 환자 식단에 그대로 나타난다. 수술을 마치고 회복해야 할 환자의 식판에 인스턴트 음식이 들어간 것이 대표적이다. 그가 어느 대형병원의 원장에게 ‘이런 것을 주면 되겠냐?’ 의 사들이 먹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개선해야 한다’고 하자, 원장은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고 했단다. 영양사가 모



그림 5 영산강4단계 간척반대 운동을 하며 압해도를 찾은 서한태(1997)

든 것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한 것을, 그는 의사로서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그가 의사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가질 때, 이런 일도 있었다.

“의사회 모임 때 보면 내 말이 별로 호응도가 없어. 한번은 고기를 먹을 때 구워 먹는 것은 안 좋다. 고기를 구울 때 발암물질이 70배나 높기 때문에 고기는 삶아서 먹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했어. 5월 달 모임에서 그랬거든? 그런데 공교롭게도 6월달에도 고기 구워 먹는 집에 가고, 7월달에도 가더니, 8월달에는 쉬었다가, 9월달에도 또 고기 굽는 집으로 가. 그리고 10월, 11월은 판 데로 가더니, 12월 달에도 또 가. 그래서 아파, 나오면서 기분이 나쁘든만. 내 말이 말 같지 않아서 그런가. 명색이 의사가 되어 가지고 말을 할 만큼 했는데. 그런데 그 모임이 그러드라고. 거기는 갈비찜 같은 것은 안 팔아. 다 구워 먹는 것이여. 그래서 그날 가서는 말이여. 나도 몇 점은 먹을 수도 있는데, 내가 맨날 다니면서 그런 것 안 좋다는 이야기 해 놓고, 차마 먹기가 그래서 선지국만 두 그릇 달라고 해서 그놈만 마시고 왔다니까. 허허허.”

서한태가 여러 모임이나 환경강의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고 변화되는 것을 봤는데, 도대체 의사들은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했는지 선배 의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는 푸념이다. 의사들은 스스로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나는 더 좋은 것만 먹고 있어요.’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싶었다.

그는 새만금 간척 반대운동을 하며 시화호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대규모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 큰 걱정을 했다. 이미 유럽에서는 역간척이 진행되는데, 우리만 거꾸로 거슬러 가는 것도 안타까웠다. 여기에는 전문가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자기 잇속만 챙기려는 욕심이 결합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가 2000년 9월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이 되었을 때 일이다. 구성원은 모두 33인이었



그림 6 『쾌적한 환경을 찾아서』를 출판하며 환경운동가들과 함께(2014)

다. 현직 장관이 12명, 청와대 1명, 일반인이 20명인데 모두 서울과 그 인근에 거주하는 교수와 전문가들이었다. 대부분 외국에서 몇 년씩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었는데, 안건을 논의하는 것을 보니 실망스러웠다. 새만금 간척을 중단하자고 제안하고 논의하고 싶은데, 위원들은 별 관심이 없고, 장관들은 각 부처의 이익을 중심으로 발언했다.

“앗따 한양 가면 내 뜻도 펼쳐지겠구나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다섯 가지를 이야기했어. 새만금하고, 경인운하, DMZ, 지리산 댐하고 또 물 관리일원화. 근데 거기에 온 일반 사람들이 거의 무시를 해. 그런 것은 민감한게 안 할라고 해. 거부하드라고. 뭐 그런 일을... 하고는. 또 장관들이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그그 부처의 이익만 따져요. 새만금 같은 것은 이런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자문기구지, 여기가 공부하는 데냐? 공부는 대학에 가서 해. 그렇게 말하고 싶어. 그런데 보니까, 우리 민간단체도 20명 중에서 세상을 똑바로 보는 사람이 몇 안 돼. 최열 씨 같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아부하는 무리데야. 바른 말을 못해. 최열 씨나 나나 몇 사람이 이야기하제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를 못해. 명색이 배웠다는 놈들이 높은 자리에 있으니 세상에 문제가 오드라 이 말이여. 아조 나쁜 놈이라니까. 나라야 망하든 말든지 그그만 먹고 살면 되야?”

그는 환경운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과 교류하며 살아온 것이 행복했다. 이영희, 성내운, 김낙중, 임재경, 백기완, 송기숙, 문병란, 이돈명, 김지하, 최열 등과 가깝게 지냈다. 스스로 출중하거나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닌 소박한 삶을 사는 한 사람으로서 좋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지낸 것이 가장 행복했다.

그의 성과를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88년 목포녹색연구회를 창립했으며, 영산강, 삼학도, 유달산 보존회의 활동성과와 문서들을 정리해 단행본 『내 땅을 지키고자』를 출판했다. 1996년부터 4년간 푸른전남21협회의 이사장을 맡아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환경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의제21의 활성화에 기여했다. 1991년에는 올해의 호남인상을 수상하고, 1998년에는 1회 교보환경문화상 대상을 받았다. 2000년 6월 환경의 날을 맞아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으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했다. 2014년 『쾌적한 환경을 찾아서』를 발간한 후 모든 활동을 접고 자택에서 지내고 있다.

김경완 | 신안문화원 사무국장

제2절 삼학소주의 흥망성쇠를 지켜본 향토사학자

김정섭은 1934년 목포에서 태어나 목포직업자병원, 삼학소주, 한국제분예 근무하며 지역의 기업 문화를 경험하고 상공업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쌓은 바 있다. 퇴직 후에는 탄탄한 일본어 실력을 바탕으로 일본인이 발간한 『목포지』(1914년), 『목포부사』(1930년) 등을 번역하며 선도적인 향토사 연구자로 활동하고 있다.

1. 식민지 목포에서의 어린 시절

김정섭은 1934년 1월 8일 목포 북교동에서 아버지 김진용(1899~1940)과 어머니 박정애(1895~1987) 사이에서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고향인 해남군 계곡면 방춘리에서 결혼해 두 딸을 낳은 후 1920년대 초 목포로 이주했다. 아무래도 큰 도시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였다. 김정섭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은 북교동교회 인근이었다. 아버지가 해남에서 나올 때 몇 백석 규모의 재산을 정리해 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비교적 여유 있게 살았지만, 잘못된 보증으로 재산을 잃은 후로는 대성동과 산정동 셋방을 전전하며 살아야 할 정도로 어려웠다. 김정섭은 목포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본적이자 초등학교 시절을 보낸 해남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았다. 그의 호가 ‘남계(南溪)’인 이유도 해‘남’의 ‘계’곡면에서 따왔을 정도다.

1940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경제적인 상황은 더 어려워졌다. 마침 둘째 누나 김옥순이 경성여자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장흥대화심상소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어 그곳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해 1년간 다녔다. 2학년부서는 다시 목포에 돌아와 산정초등학교를 5학년까지 다녔다. 이때 일제강점기 초등학생들이 겪어야 했던 배고픔과 전쟁을 준비하는 참상을 경험하게 된다. 학교라고 하지만 거의 공부했던 기억은 거의 없고 신사참배를 하거나 농업증산활동 등을 하면서 보냈다.



그림 1 붓글씨로 봉사하는 김정섭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들은 1943년, 1944년도에 지금 송광아파트 있는 데 가면 조면공장(조선면화주식회사)이 있었어. 거기에 근로봉사 나가잖아. 아침에 산정학교에서 걸어가잖아. 가서 멀 하나면 처녀들이 면화를 기계에 넣는디, 그러면 우리가 면화를 뒤에서 갖다가 넣는 자리에 두고, (여공들이) 잠깐 화장실 가면 우리가 대신 기계에다가 넣어주기도 했어.

점심은 없으니까 12시까지 하고 학교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점심시간에 누가 아무도 도시락을 가져갈 수 없으니까. 거기 양지바른 데서 수도에 가서 물을 한모금씩 마시고 앉았다가 1시, 2시에 학교에 가고. 안그러면 거기에서 해산하고 그랬어. 또 증산한다고 산정학교 같은 경우 뒷산에서 흙을 파다가 학교마당에 밭을 만들어요. 운동장 갓으로는 1미터나 2미터 파가지고 나무를 걸쳐 가지고 반공호도 만들고... 공부라는 것이 거의 그런 일로 초등학생들이 시간을 보냈어. 거름한다고 비료증산 한다고 낮이 있어 뭐가 있어. 동부시장 자리가 옛날 갯벌 뽕바탕이거든. 그러면 밀가루차대 같은 것 이런 것 구해가지고 풀(염생식물)이 있으면 연필 깎는 칼로 베어다가 와서 증산하고 그랬어. 그것이 일제시대 초등학생들이 했던 일이며. 중학생들은 그때 망운 비행장 건설할 때 망운공항에 나가서 1주일씩 있고 그랬어.

그때 신사참배가 참 힘들었어. 동명동 일대가 옛날에는 창고였거든. 송도는 큰 산이고. 거기가 굉장히 어두워요. 더구나 전시에 등화관제하고 하나까 불이 없잖아. 그런데 겨울에 아침 6시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학생들이 거기 갈라면 얼마나 힘들겠어. 신사참배를 그렇게 했지. 한 달에 한번씩... 매달 8일날. 1941년 12월 8일이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고 미국에 선전포고 한 날이잖아. 미국으로서는 12월 7일이고. 그래서 그날이 다이쇼호다이비라고 해갖고 대조봉대일(大詔奉戴日). 임금의 큰 뜻을 받드는 날이라 그말이며. 그래서 12월 8일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매달 8일날 신사참배 하는 날이며. 아침 일찍 그렇게 해. 신사참배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학교에 가. 그날 안 오면 나중에 근로봉사를 더 해. 교실에서 공부하는 것은 국어를 하는데 일본어야. 그 내용이 대부분 싱가포르를 함락하네. 남양 어디를 함락하고 점령하네. 자꾸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는 말이었어. 미영귀축(美英鬼畜)이다 해 가지고 타도해야 한다 그러고, 한국청년으로 제1호 지원병 이인석 상등병 이야기 그런 것이 주었지."

김정섭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일본어로 말하고 문자도 일본어만 사용했다. 혹시나 한국인 교사가 있었지만 창씨개명을 통해 모두 일본이름으로 불렸기 때문에 구분할 수 없었다. 그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일본인 교사가 있다. 그를 통해 일본인 중에도 좋은 사람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진정한 인간애를 경험하게 된다. 또, 셋째 누나를 통해서도 일본인에게 경외감을 느끼게 된다. 누나는 산정초등학교 1회 졸업생인데 현재 이리장여인숙 자리로 추정되는 곳에 '가다야마[片山] 양행'이라는 건축자재 가게의 직원으로 근무했었다. 그곳의 가다야마 사장은 여종업원에 불과한 그의 누나를 일본 동경의 명치대학 여자부를 보내주었다. 누나는 해방 후 돌아왔다. 한날 식민지 종업원에 불과한 여성에게 본국의 대학 진학을 지원한 것을 보면서 그는 일본인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게 됐다.

"3학년 때 담임인데 오사키 선생이라고 장기결석 하는 박길수인가 창씨개명도 안한 애기 집을 찾

아가 보자고 하든만. 집이 어디였냐면 용당리에서 2~3키로나 걸어 들어간 텐디... 사쿠라마루라고 짜간한 배를 타고 갔어. 완전히 초가삼간이든만. 사립문도 없는 집인데 집에 아무도 없어. 곧 점심때가 됐지. 그 친구 엄마가 밭에서 들어 오든만... 길수는 산에 나무하러 갔다고 해. 그러면서 밥을 먹고 가라고 해. 순 콩보리밥이여. 거기에다가 된장하고 고추여. 고춧가루도 없이 소금에다가 간한 열무김치여. 오사키 그 사람 고추가 얼큰 하든만 맛있다고 그렇게 잘 먹데... 그 친구 엄마한테 마음 안 쓰게 할라고 그런 것 같애. 그런 선생이 있었어. 그분이 나를 이뻐했어. 시내에 나가야[長屋] 한 칸을 얻어 독신으로 살았어. 한번은 지금 여객선터미널 있는 데가 ‘세관 산바시(棧橋, 잔교)’, ‘해군 산바시’라고 글로 낚시하러 간적이 있어. 거기에 140~150톤 되는 해군군함이 와 있었어. 거기서 군인들과 장어를 낚아 가지고 군함에 올라가니 흰쌀밥에 장어뺨밥을 해 주든만... 그때 우리는 콩깍묵을 배급받아 먹을 때인데 흰쌀밥이 얼마나 맛있어. 그것만도 맛있었을 텐데 거기에 ‘우나다레’라고 장어의 양념장 그것이 얼마나 맛있어. 그런 초등학교 때 기억이 있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담임선생님이 바뀌었어. 아마도 군대 소집영장을 받았는가 보다하고 그랬는데, 이상한 것은 군대 가는 사람들은 역에 나가서 환송하고 일본국기 흔들면서 노래 부르고 그랬거든.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 것도 없이 헤어졌어. 나중의 생각인데 그분은 다른 일본 사람들하고는 대단히 달라. 어느 밤에 그런 이야기를 하드라니까. ‘이 전쟁 어짜피 지는 전쟁인데...’ 그 당시 시국에 대해 부정적이었어. 그래서 끌려간 것이 아닌가 했어.”

1945년 해방 직전에 일본인들은 미군이 상륙하면 안된다고 외부에 연고가 있는 시민들을 소개(疏開)시켰다. 일본은 전쟁을 준비하며 고하도에 굴을 파고, 학생들은 폭격에 대비해 ‘보크스킨’이라고 방공두건과 삼각진, 마스크 등을 상비하고 있었고, 나무막대기로 총검술을 시킬 때였다. 5학년이 된 김정섭은 외가가 있는 해남 마산면으로 소개되어 마산초등학교를 다니게 된다.

2. 해방과 17년만의 귀향

1945년 해방이 되면서 처음으로 한글을 배웠다. 하지만 김정섭은 일본어로 쓰인 문학책을 읽으며 일본어 공부를 계속 했다. 이때 둘째 누나 김옥순은 의사 남편과 결혼해 해남읍에 살고 있었다. 누나와 그 친구들이 일본어 발음을 교정해 주고 지도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마산면의 이웃집에는 경성제국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있어 그분의 배려로 일본어 책을 얼마든지 빌려 읽을 수 있었다. 덕분에 그는 일본어를 정확하게 숙지했고, 요시가와 에이치[吉川英治]가 쓴 『삼국지』라든지, 문학과 역사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섭렵하며 읽을 수 있었다. 이때의 경험이 나중에 목포의 향토지를 번역하고

발간하는데 큰 힘이 된다.

“근래까지도 일본에서 출판된 『문예춘추』를 쭉 읽었어. 일본 월간지인데 광주에 누님이 살아계시는데 누님이 보시고는 그 다음 달 책이 오면은 나한테 보내주셔. 그렇게 지금도 일본어 공부를 해. 아마 초등학교 때도 일본어를 잘했던가 봐. 그러니까 그 해남 마산면 가갖고 파출소 옆에가 면장 아들이 나하고 동창이었는데, 거기 놀러 다니고 그러면 일본순사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았어. 일본어는 ‘탁음’이 어렵잖아? 그란께 관동대지진 때 한국 사람들 구분을 할 때 ‘오십오원오십오전’을 이야기하라고 해갖고 ‘고쥬고엔고쥬고센’ 그 발음을 못하면 한국 사람이라고 대창으로 살해하고 그랬다고 하잖아. 고자이마스 할 때도 일본놈들은 Z발음인데 우리는 J발음으로 해볼거든. 아마 내가 그런 것(발음)이 분명했던가 봐.”

1947년 해남중학교에 진학하면서 마산면소재지 안정리에서 해남읍까지 아침재를 넘어 3년간 학교에 다녔다. 해방 직후 어수선한 분위기에 두류산 일대에는 이념의 갈등으로 좌우의 대립이 치열할 때였다. 마산면 경찰지서가 빨치산들의 방화로 불에 타고 경찰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그런 여파의 영향 때문인지 3학년을 마치던 1950년 3월 해남중학교에 불이 나 학교를 그만두었고, 그의 재학 기록도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6·25전쟁이 터질 때 김정섭은 열일곱 살이 되었다. 친구들 중에 이북의 의용군에 끌려가 장성군 노량, 갈재에서 도망쳐 온 친구도 있었다. 그도 의용군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몸을 사리며 산으로 들로 나무하러 다닌다고 핑계 대며 도망 다니기도 했다. 9·28 수복 후 다행히 면사무소의 나락(벼) 수매인 밑에서 서기로 일을 하면서 겨우 국민방위군 소집을 피할 수 있었다.

이듬해인 1951년 가을 누나가 있는 광주에 올라가 시간을 보냈다. 황금동에 있던 광주YMCA에 다니며 여러 강습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취업하는데 특별한 도움이 되지 않았다. 겨우 직원모집에 응시해 입사를 앞두더라도 입사보증금을 요구해 취직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1954년 공군에 입대하게 됐다. 대전항공병학교(나중에 공군기술교육단으로 바뀜)에서 4년 5개월간 근무하면서 초등학교 때 마지막으로 썼던 붓글씨를 정말 오랜만에 다시 쓰게 됐다. 군복무중인 1957년 휴가를 나와 결혼을 한 후 4남매를 두었다. 1959년 12월 제대했다.

제대 후에도 2년간 특별히 일거리를 찾지 못한 채 광주의 누나 집에서 생활해야 했다. 아내는 여전히 해남의 시택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때 인생을 바꾸는 계기를 만나게 된다. 당시 제대 군인들은 간열점호를 통해 관리되던 시절이었다. 광주에서 첫 번째 간열점호에 갔다가 대전비행장에 함께 근무했던 이증범 군의관을 만났다. 그는 당시 목포적십자

병원장이었는데, 그의 제의로 목포에 내려와 적십자병원에서 근무하게 됐다. 그때가 1962년 2월이었다. 어린 시절 목포를 떠나 실로 17년 만에 돌아온 목포는 예전과 달랐다. 당시 목포의 첫 느낌은 ‘황량함’이었다.

“광주에서 살다가 여기에 오니까... 도시 전체가 약간 황폐하다는 그런 느낌이며. 어렸을 때 그런 것은 못 느꼈는데... 목포가 규모가 큰 도시가 아니었어. 일감도 없고, 굉장히 낙후된 도시였었지. 해방 후로 완전히 쇠락했고 겨우 유지되고 있었어. 보름마다 한 번씩 들어오는 안강망 어선들이 목포의 유일한 돈벌이였었지. 그때 목포에가 조선내화 있었고, 행남사 있었고, 보해, 삼학이 있었지. 보해나 삼학이나 목포에서 매출 비중이 얼마 안됐어. 본사는 둘 다 목포에 있었지. 나중에 안 일이지만은 조선내화나 행남사는 경영이 굉장히 어렵든만. 내가 삼학으로 가서 자금을 담당하면서부터 안 사실이 지만 그때까지도 1965년, 66년도까지도 행남사에 부도가 나서 수표를 못 썼어. 그래서 김준형 사장 부인명으로 된 수표를 썼어. 그라고 조선내화는 그때 수표책 하나가 250원이야. 인지대가. 그 인지대를 20장을 쓰고 5장 남으면 수표책 뒤에 청구서가 들었었어. 그러면 그것하고 다음 장 수표하고 250원 수표를 끊어서 사오고 그랬어. 그렇게 어려웠어.”

목포가 도시라고 인근 섬과 농촌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많은데 일자리가 없는 상황이었다. 오히려 농어촌 지역은 먹고 살 것이 많았다. 영산강 하구가 막히기 전이라 갯벌이 넓게 잘 남아 있는 무안 일로와 삼향지역의 경우 간조 때 한나절만 나가서 낙지나 조개, 게, 짬뽕어, 대갱이 등을 잡아오면 그것을 내다 팔거나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서남해 사람들을 ‘갯땅쇠’라고 부르는 것도 갯땅에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다. 실제, 1981년 12월 영산강 하굿둑이 막히면서 한 2~3년 동안은 일로중학교 교장이 ‘학생들 공과금이 안 들어 온다’고 할 정도였다. 갯벌이 잘 보전되고 유지될 때는 그런 적이 없었다는 뜻이다. 그에 비해 목포는 여전히 먹을 것이 없던 곳이었으니 얼마나 삭막했겠는가.

목포적십자병원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운영하던 송도병원이었다. 해방 후 적산을 인수해 적십자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당시 목포에서 성골롬반병원 다음으로 큰 병원이었다. 진료과목으로 내과,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방사선과, 병리검사실까지 있었고, 병상도 30병상 남짓 있었으니 제법 큰 규모의 병원이었다. 그는 다음해인 1963년 5월까지 16개월간 적십자병원의 서무과에 근무했다. 그는 서무과에 근무하면서 상고 출신이 아닌 탓에 회계나 정산업무가 어렵기만 했다. 하는 수 없이 퇴근 후 2개월 남짓 경리학원에 다니며 공부를 해야 했다. 당시 경리학원은 죽동의 정혜원 앞에 있었고, 원장 양귀현은 나중에 전남대학교 상과대 교수로 간 실력자였다. 경리에 관한 책

도 없던 시절인데, 다행히 광주에서 일본어로 된 『부기통론』을 구해 읽으며 공부했다. 이때 쌓은 경험과 실력은 나중에 삼학소주로 이직했을 때 큰 빛을 발휘하게 된다.

김정섭은 이때 김영동과 병원 서무과장의 도움으로 사진에도 관심을 갖고 목포의 여러 곳을 다니며 기록사진을 찍게 된다. 또 산정초등학교 9회 졸업생 동창모임인 구정회 활동을 하면서 고향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적응하게 됐다.

3. 삼학양조 부도에 대한 오해

1963년 봄 어느 날, 삼학양조의 양민승 전무가 불쑥 병원을 찾아왔다. 이때도 누나의 지인을 통해 연결되었는데, 그를 따라 무작정 짐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게 됐다. 양민승은 곧장 삼학양조 김상두 사장 앞으로 데려가 인사를 시켰다. 김사장은 대뜸 “환경은 열악하지만 우리 회사에서 고생 좀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 아닌가.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진 후 병원에 돌아와 원장에게 상황을 이야기하니 오히려 반



그림 2 1960년대 삼학소주 상호의 잔

색을 했다. “병원에 있어 봐야 서무과장으로 마칠 텐데 잘됐다. 사람은 자고로 큰물에 가서 놀아야 한다.”며 격려해 주었다. 김정섭은 1963년 6월부터 그렇게 갑작스럽게 삼학양조에서 근무하게 됐다. 삼학양조의 전신은 일제강점기인 1929년에 설립된 목포양조주식회사이다. 당시 김상섭 사장, 차남 진 전무이사 등이 설립해 운영했다. 해방 이후 ‘삼학’으로 회사명을 바꿨다.

“지금 교보문고 자리가 옛날 삼학 자리여. 본사와 공장이 같이 있었어. 삼학소주는 희석식 소주에다가 증류식 소주를 섞었기 때문에 술 맛이 좋다고 그랬어. 삼학소주에 가니까 활기가 넘치든만. 종업원이 한 200여명, 사무직 영업직을 합해서 230여명 있었어. 그때 목포에서 200명이면 엄청나게 큰 회사거든. 경리과로 들어갔어. 신입사원이라 은행 심부름을 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당좌대월 신청을 할려면 신청서에 재무제표를 만들어 첨부할 해야 하거든. 내가 그것을 잘했는지 지배인 했던 양희경씨가 해보라고 해서 맡게 됐지. 그런데 회사는 매달 결산하는 것도 아니니까 제출용으로 적당히 맞추는 거야. 이렇게 이익이 나니까 이렇게 상환자금으로 하겠다고. 그것을 하다보니까 내가 자금업무를 맡게 됐어.”

1967년 5월3일 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정희는 6월8일 제7대 국회의원선거를 발표했다. 목포에

서는 공화당 후보로 김병삼이 출마했고, 김대중은 신민당 후보로 출마했다.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지역순방을 이유로 목포를 방문해 자신이 총재로 있는 공화당의 후보 김병삼(육군소장 출신으로 5·16에 참여했고 체신부장관을 역임)을 특별히 지지했다. 이때 김정섭은 삼학소주 김상두 사장의 집에 박정희 대통령이 묵는다는 연락을 받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실제 회사 앞에 경찰관들이 칼빈 소총을 메고 순찰을 돌며 경비를 섰다. 하지만 그날 박정희 대통령이 묵은 곳은 이훈동 조선내화 사장의 자택이었다.

“김대중씨가 1967년도에 여기 국회의원으로 출마했을 때 박정희씨가 목포에 와갖고 삼학소주 김상두 집에 와서 저녁을 먹는다고 그랬었어. 그런데 삼학에 오지 않고 이훈동씨 집에서 저녁을 먹었지. 그래갖고 박정희씨가 와서 식사하면 안에서 만찬장에서 서빙하라고 회사에서 와이셔츠하고 넥타이를 사주드라고. 그런데 양동작전이지. 이쪽예다가 해 놓고 거기서... 그때 그날 저녁이 ‘낙지비상’이 벌어졌어. 밤에 술을 마시면서 낙지를 먹다가 박정희씨가 ‘이것 더 없소?’ 했어. 그래서 난리가 났지. 그때 건너 용당리에 가면 항상 낙지가 있거든. 그런데 쾌속정으로 가면서 사이렌을 켜고 간 거야. 저쪽에 잠을 깨라고 한 것 같아. 통금 지나서 배가 사이렌을 키고 요동을 치니까 저쪽 사람들이 난리가 났을 것 아니여. 그래서 그날 저녁 낙지비상이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일이어.”

박정희 대통령이 삼학소주 김상두 사장 집에서 묵는 것은 의아할 일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이미 서로를 잘 알고 서로 긴밀하게 도와주는 관계였다. 일설에는 박정희가 똑똑한 김상두 사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고 ‘이 사람은 선비다’ 하고 인정을 했다고 한다. 그런 영향 때문에 삼학소주는 여당을 적극 지지했다. 당시 삼학소주 회사는 돼지를 잡아 상동 제1수원지에서 김병삼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야유회를 열기도 했다. 그만큼 삼학소주는 야당 신민당이 아닌 여당 공화당에 가까웠다. 이런 연유로 박정희 대통령은 삼학소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한다.

(1967년 제7대 국회의원선거) 그 시절 목포에서도 잘사는 사람들은 여당 후보를 지지했다. ‘삼학소주’ 집안도 여당 편이었다. “1970년대에 삼학소주가 망했을 때 김대중을 지지해서 보복 당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삼학소주는 박정희의 목포 본거지였다. 박정희는 목포에 내려오면 그 집에서 묵었다.⁰¹⁾

01) 『한겨레』 2015. 07.12. 「길을 찾아서/이희호 평전」.

1967년과 1968년에 걸쳐 큰 가뭄이 들었다. 그런데 삼학소주는 이례적으로 잘 팔렸다. 왜냐하면 가뭄으로 할 일이 줄어들고, 답답한 마음에 술이나 마시자 하는 풍조 때문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술 값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었다. 그만큼 서민들의 삶이 극도로 어려웠다는 뜻이리라. 하지만 회사가 어려워진 데는 내부의 부실경영 탓도 컸다. 당시, 은행의 당좌수표 교환이 돌아오면 이 은행 저 은행에서 잔고도 없는 당좌수표를 넣고 결재한 양 처리하는 ‘편타’(타점권으로 편리를 본다는 뜻)가 횡행했을 정도로 회사 사정이 어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김정섭은 김상두 사장의 호출을 받아 서울에 올라가게 된다. 그곳에서 6개월간 회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1969년 12월 달에 서울에 호출을 당했어. 그때 회사가 굉장히 어려웠었거든. 그런데 박정희 씨가 ‘목포에 삼학 같은 회사가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회사를 정상화시킬 수 있냐?’ 그래서 이쪽에서 20억만 대출해주라 그러면 채무 정리가 되겠다. 그럼 어떤 조건으로 하느냐? 20억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매월 얼마씩 은행에 적립해서 일정기간 안에 갚겠다. 그런데 그 적립하는 기간을 삼학의 김상두 사장은 20년을 해주라고 요구한 거야. 결국 내가 대연각호텔에서 3박4일 동안 경제수석실의 대구 사람 도씨인데 도사무관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서류를 만들었어. 한 달에 얼마씩 해서 몇 %로 신탁을 하면 20년 후에 이렇게 돈이 찬다 하는 서류지. 그것을 청와대 정소영 경제수석과 재무부 정재석(김상두 사장의 생질) 이재국장에게 확인을 받았어. 그것을 가지고 청와대에 들어갔더니 박정희씨가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해라. 내가 집권한지 10년이 됐고, 지금까지 한 것도 욕을 먹고 있는데 앞으로 20년이라고 하면 나는 책임지기 어렵다. 그러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서류를 반려했어.”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 차원에서 삼학양조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언이다. 한편, 산업은행은 삼학양조를 위해 독일의 차관을 빌려주는 계획도 있었다. 차관의 이자는 연 3%에서 5%에 불과한데 당시 한국은행의 예금금리가 20%에 달할 때였다. 차관을 빌려 국내 은행에 예금만 해도 15%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호시절이었다. 하지만 삼학양조 김상두 사장은 마지막까지 상환기간을 20년으로 주장한 탓에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결국 1970년 3월 서울의 삼학산업이 부도났다. 7월에 삼학양조 목포공장이 연쇄적으로 부도나는 것은 당연한 순서였다. 당시, 화폐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있어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했어도 상환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고, 회사도 회생할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다. 김정섭은 삼학양조의 김상두 사장을 ‘참 영리한 사업가’로 평가하지만, 1964년 일본 동경올림픽 즈음 일본에 가서 후두암을 수술하고 온 뒤부터 ‘예전에 없던 욕심이 강해지면서 결국 목포의 대표적인 기업이 몰락했다’고 안타깝게 여겼다.

삼학양조는 부도가 난 뒤로도 3년 정도 영업이 계속되었다. 부도로 은행 거래는 어려워졌지만 공

장을 운영할 수 있는 원재료가 공급되고, 제조된 소주가 소비자들에게 소비되고 수금도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부도가 났기 때문에 직원들이 동요하고 납품업자들이 대금결제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점이었다. 통상 부도가 나면 돈을 떼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삼학은 성의껏 계획을 세워서 그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다.

“삼학소주가 김대중 대통령과 관련해서 없어진 것은 전혀 아니여. 흔히 그렇게 알려졌는데 나는 그래. 김대중씨한테도 좋지 않은 이야기고, 남의 회사 말아먹었다는 것이 뭐 좋은 일이여? 아무튼, 삼학이 부도가 났는데, 부도가 났더라도 장사를 계속 했잖아. 매달 10일마다 지방에서 수금을 해갖고 와. 일단 그 돈을 받아 재료값을 갚아야 할 것 아니여. 그리고 직원 월급을 주고. 그래서 물건 값도 주는 데 5%를 주냐, 10%를 주냐 정하는데. 그게 다 논의를 하고 내부 결재를 통해서 결정되잖아. 돈이 얼마가 들어왔으니까 얼마를 주자 그러는데 회사 직원 중에 친척들이 있었어. 그 사람들에게 당시 텔레비전 수신도 안되는 시절에 흑백텔레비전을 뇌물로 갖다 주고 자기 돈(물품대) 빼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 사람들이 서울에다가 김상두씨 부인한테다 ‘김정섭이 지 돈처럼 저 아는 사람한테만 많이 준다’고 고자질을 했던 모양이여. 나는 어떻게든 유지를 할라고 공평하게 할라고 그 사람들에게 떼먹지는 않을 테니까 계속 납품을 하라고 하고 있는데, 즈그들이 받아먹은 것이 있으니까.. 즈그 뜻대로 안된다고... 결국 김상두 부인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그만 뒤 버렸어. 그때가 아마 부도나고 두달인가 있다가 그랬어.”

그렇게 유지되던 삼학양조는 결정적으로 1973년 서울 삼학산업의 탈세가 탄로 나면서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당시 술 공장이 유지되고 번창할 수 있었던 것은 탈세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술병마다 세금딱지라고 할 수 있는 ‘증지’를 붙이는데, 많은 회사들이 비밀리에 ‘가짜증지’를 만들어 붙여 세금을 덜 냈는데 그것이 들통나고 말았기 때문이다.

1970년 가을 김정섭이 삼학양조를 그만 두었을 때 ‘3신’이란 별명이 붙었다. 병신, 충신, 귀신이란 뜻인데 그가 회사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칭찬이기도 했다. 그는 회한이 남기는 하지만 정직했던 자신을 인정해 주는 그 명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삼학에서 나온 뒤로 3신으로 불렸는데, 첫째가 병신이여. 왜 그러냐면 돈 벌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못 벌었다는 거지. 서울의 삼학산업이 부도가 난 이유 중의 하나가 은행 취급하던 직원이 빼 먹은 것이 많았어... (중략) 난 그러질 못했다고 그래서 병신이여. 둘째는 회사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해줬다고 해서 ‘충신’이고, 나머지 하나는 ‘귀신’이고. 재산상황을 전부 알고 있었으니까. 귀신처럼 알

고 있지. 그래서 나 인제 회사 그만두었다고 하니까 회사와 관계있는 주변사람들이 그러든만. 3신이 라고. 돈도 못 벌고. 일은 열심히 했고... 회계 마감을 해야 하니까 늦게 끝나잖아. 특히나 겨울 같은 때 7시, 8시 되면 직원들 남아 있으면 밥을 사야 할 것 아니여? 그러면 식당에 달아놓고 먹는데, 나중에 퇴직할 때 한 폰도 안주더라고. 그 때 밥값으로 퇴직금을 전부 상계했다는 거야. 그러니 완전 병신 이잖아. 삼학에서 남은 것이라곤 술 공장에 들어가 갖고, 그때 못 마시던 술을 배워서 몸 상한 것 밖에 없어.”

4. 삼학도의 호남제분

김정섭이 삼학양조를 그만두고 있을 때였다. 시내 다방에서 일관 조효석 선생이 호남제분 김재철 지배인과 차를 마시다가 ‘충무담당자를 한명 구한다’는 말을 듣고 김정섭을 추천했다.

조효석 선생은 목포 북교초등학교 출신의 언론인으로, 둘째 누나 김옥순과 동창이었다. 그런 인연으로 김정섭이 목포에 내려온 후 신원보증인에서부터 갖은 도움을 준 분이였다. 조효석은 말년에 동양화를 그렸고, 고희 때는 『서석대』라는 문집을 낼 정도로 다재다능했다. 이런 인연으로 김정섭은 1972년부터 호남제분에 근무하게 됐다.

호남제분은 1956년 군산에서 시작된 업체로 1971년 목포공장이 가동을 시작했다가 2011년 충남 당진으로 이전한 제분공장이다. 처음 설립할 당시에는 호남제분이었는데, 법적으로 설립기한이 30년으로 되어 있어 1986년 새로 등기를 갱신하면서 한국제분으로 회사 명칭이 바뀌었다. 즉, 한국제분과 호남제분은 같은 회사였다.

김정섭이 『호남제분 20년사』(가)를 만들려고 준비할 때 자료를 조사해 보니 목포에서 호남제분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대단했다. 호남제분 회장을 맡은 이용구는 ‘안 쓰는 것이 버는 것이다.’는 철학으로 절약정신이 투철한 기업가였다. 본래 군산의 만월고무에 근무하던 그는 미국 원조로 밀가루가 들어오자 식량을 다루는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군산의 지인들과 협력해 제분공장을 설립했다. 군산제분공장은 금강의 하구에 토사가 쌓여 큰 배가 들어올 수 없는 조건이 되자, 수입화물선이 정박할 수 있는 새로운 항구도시를 물색했다. 여수가 거론되던 시절이었는데, 목포상공회의소가 농림부를 찾아가 유치 청원을 하고, 김판조라는 분은 삼학도 지선을 매립할 수 있도록 각계에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 호남제분은 그러한 노력 끝에 삼학도에 유치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1970년대 호남제분은 조선내화, 행남사, 보해양조와 함께 목포의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춘 건실한 업체였다. 밀가루 만 톤을 싣고 와 하역을 하면 천 만 원이 넘는 경비가 소요되어 목포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고 한다. 호남제분과 경쟁할 만한 제분회사로는 부산의

제일제당과 인천의 동화제분만 있을 정도였다. 이때는 정부에서 혼분식 장려운동이 펼쳐지던 때였다. 1970년대 중반까지 쌀 생산량이 부족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이었다. 이런 결과로 1976년에는 국내 밀 수입량이 연간 170만 톤이나 되었다.

삼학도의 호남제분 공장은 7층까지 있었는데, 각 층마다 부서별로 밀 원료를 저장하고, 로라로 갈고, 체로 거르고, 가루상태를 점검하고, 포대에 밀가루를 담고, 봉합하는 공정 등이 있었다. 완제품이 되어 나온 밀가루포대를 창고에 쌓는 노동자들, 출고할 때 다시 컨베이어 벨트에 싣고, 차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쌓는 사람들로 늘 분주한 곳이었다. 나중에 자동화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인력들이 점차 줄어들기도 했다. 이렇게 목포공장에서 생산된 밀가루는 철도를 통해 전국으로 판매되어 나갔다.

“회사 전경 사진은 그때 내가 있을 때 『호남제분 20년사』를 만든다고 준비를 하면서, 해군제3해역 사령부하고 이야기해서 헬리콥터 타고 회사사진을 찍고 회사에 다 갖다 줬는데... 못 만들었어. 사장 이 할라고 한디 회장이 승인을 안 해서 못했어. 총무부장으로 있을 때 영업부의 내용은 잘 모르는데 영업부장, 계장까지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 왜 그랬는지는 잘 몰라. 그래서 내가 전남지역을 맡은 영업부장이 되고, 신채석이란 사람은 전북지역 영업부장으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거래선들이 부실하든만. 굉장히 외상도 많고. 그런데 광주에 거래선 하나가 부도를 내고 밤늦음을 싸 버렸어(야반도주를 의미). 내가 맡은지 얼마 안됐는데. 그래서 전무하고 내가 인책사임을 했지.”

김정섭은 호남제분에서 10년을 근무한 후 1980년 원치 않은 상태에서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 하지만 새로운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5. 본격적인 지역문화, 향토사 연구

김정섭은 호남제분에 근무하면서부터 여유를 갖고 초등학교 때 배웠던 서예를 다시 시작했다. 그리고 호남제분을 그만 둔 뒤에는 본격적으로 ‘법첩’을 보고 혼자서 임서를 하며 공부했다. 그의 고전 공부에 대한 깊이나 서예 실력은 주위에 널리 알려져 있다. 또, 목포적십자병원에 근무할 때부터 찍었던 사진도 시내 골목길을 다니며 새롭게 찍고 기록으로 남겼다.

그러던 차에 목포문화원의 이성열 사무국장의 제안으로 『목포지』를 번역하게 된다. 이 책은 1914년 일본인이 남긴 기록으로 옛 일본어체로 기록되어 있어 번역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당시 목포 사회상을 새롭게 조명하는데 훌륭한 자료가 되어 지역사, 향토사를 본격적으로 공부하는데 밑바탕이 됐다.



그림 3 고하도를 방문한 해군들을 안내하는 김정섭

“꼭 향토사라고 공부한 것은 아니었고. 골목골목 사진을 찍으러 다니면서 관심을 가졌어. 사진은 1962년 적십자병원에서 시작했어. 캐논카메라. 싸디싼 것 사 가지고... 지금도 아까운 사진. 눈에 선한 사진들이 있는데 사진협회(사협)에 가입해서 회원으로 활동도 했어. 그러던 중 『목포지』 이것 번역 한번 해 달라고 이성열 국장이 부탁하드라고. 이성열 국장은 모임도 같이 했었고 신신문구사 할 때 굉장히 친하게 지낸 처지였지. 그래서 한번 해보자. 현대문이 아니고 고문이 돼갖고 번역이 조금 어렵드라고. 그 책을 번역하면서 ‘아 목포가 이랬었구나’ 하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한 거야. 출판이 된 것은 1991년도야. 그때 원고가 지금도 문화원에 있는데, 번역을 했는데 원고료가 없었어. 왜 이 책이 그렇게 많이 남았냐면 당초 이 책값을 6,500원이라고 적었어. 그래갖고 재경서울향우회에서 200권 주라, 어디서 몇 십 권 주라 해서 금방 없어질 것 같았는데 느닷없이 책값을 25,000원으로 붙였드라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 했더니 목포신보사에서 25,000원에 팔면 문화원에 10,000원 주고, 15,000원은 자기들이 가지고 사옥을 신축한다고 한 거야. 1991년도에 25,000원이면 큰돈이야. 그때 보통 책이 3,000원이었는데 말도 안되게 비싼 거지. 옥편 하나에 12,000원 15,000원 그랬어. 그래서 이 책이 안 팔리고 지금까지 남아있어. 이 책만 보면 불평이 터지는 것이 문화원에서는 나한테 원고료를 상당히 많이 준 것으로 정리를 했던 모양이야. 한 200만원 원고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었나봐. 그런데 난 한 푼도 받은 적이 없거든. 그때 국립대 등록금이 50만원이었어. 그러니 얼마나 큰돈이야. 내가 거액의 원고료를 받았다는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어.”



그림 4 『목포지』를 번역한 원고지 3,781매

그 후에도 일본어로 된 『목포부사』(1930년)를 번역하고, 『한국수산지』(1907~1911년) 신안 편을 번역하는 등의 성과를 남겼다. 그는 목포의 문화유산을 외부에 알리고 보존하는 일에도 애정을 가지고 있다. 특히, 목포근대역사관 뒤편의 ‘봉안고’ 훼손이라든지, 근대 문화유산들이 철거 위기에 처할 때마다 안타까움이 많았다.

“봉안고는 일본 천황 사진을 보관하는 곳이고 천황이 말한 칙어를 보관하는 데여. 신사참배를 날마다 못하니까 애국조회를 하면 칙어를 들고 내려와 읽고, 다시 개서 담아 들여놓고 한 데여. 철근콘크리트로 만들었어. 문도 철문이었어. 일본사람이 이것을 보고 철문이 녹이 슬어 열리지 않으니까 ‘열리지 않은 철문’이란 기행문을 쓴 데여. 일본사람들은 봉안고라고 그래. ‘곳집 고’라고 했어. 한국 사람들이 봉안‘전’이라고 높이 불러줬지. 방공호에 와서 본 일본 사람들이 거기를 유심히 찾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지 물렸어. 나중에 봉안전을 부셔버린 뒤로 일본 대학 교수들이 세 사람이나 왔어요. 마침 내가 문화원에 있어 나가서 이야기를 했지. 그랬더니 그것이 일본제국주의의 흔적인데 북해도의 여학교 정문에 봉안고가 한군데 있고, 한국의 목포에 있다고 해서 확인을 하러 왔다고... 부셔 부렸다고 했더니 대뜸 ‘당신들이 일본의 역사왜곡을 방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하더라고. 이런 것을 없애고 일본사람들이 흑독한 학정을 했다고 뭘로 증명할 수 있냐고 대단히 안 좋게 이야기를 하든만. 그 봉안고가 있을 때는 일본사람들이 깃대를 들고 단체관광을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진 뒤로 거짓말처럼 줄었어.”

김정섭은 이러한 안타까움 때문에 지역의 역사, 문화유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키는데 노력하고 있다. 그는 현재까지도 무안의 마을유래조사, 목포의 골목길 답사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목포문화원 부설 목포향토사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의 문화해설사들을 양성하고 있다.

김경완 | 신안문화원 사무국장

제3절 국어교사에서 방언 연구자로

오홍일은 1932년 무안 일로 출신으로 목포에서 오랫동안 국어를 가르치며 우리고장 방언을 채록하고 향토사에도 관심을 가져 여러 성과를 남겼다. 목포의 지명유래, 목포시사의 연혁, 유달산 표기의 변천, 극포영 문제 등에 대해서도 종래 전해오던 것과 달리하는 본인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뛰어난 기억력과 순수한 감수성을 드러내며 개인사는 물론 서남해지역의 역사 등을 자세히 구술했다.

1. 일로에서 보낸 어린 시절

오홍일은 1932년생으로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에서 태어났다. ‘싯두리’라고 부르고 한자로는 동현(東峴)이라 적는 한적한 동네였다. 이 마을은 현재 목포교도소에 일부가 편입되어 절반만 남았다. 오홍일의 선대는 영광에서 이주해 와 지금의 전남도청이 들어선 남악리에서 살았다. 조부 오용근은 서른일곱의 한창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당시 아내인 할머니가 당신 손가락을 깨서 할아버지 입에 피를 쏟아 넣었다고 한다. 이때가 아버지 오정혁(1905년 생)이 10살 때였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아버지는 외갓집(오홍일의 할머니) 근처 동네로 이주해 살게 됐다. 아버지는 그곳에서 결혼하고 오홍일과 자식들을 낳고 키웠다.



그림 1 오홍일 향토사학자

오홍일의 어머니 한옥금은 아버지보다 두 살 아래였다. 어머니는 3남 4녀를 낳았는데, 오홍일이 태어나기 전에 13살 된 초등학교 5학년 맏아들 세진을 잃고, 둘째 아들 세율도 어려서 잃었다. 맏형은 당시 상당한 수재였기에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오홍일이 유일한 아들로 성장하게 된다. 어머니는 맏아들을 잃고 곧바로 아들을 얻은 탓에 귀하게 키웠다. 누나들이 한번 엿보자고 해도 건네주지 않을 정도였다. 반면,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매우 엄했다. 밥을 굶을 정도로 어렵게 살지는 않았지만, 아버지는 오홍일에게 늘 농사일을 시켰다.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려는 의도였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오홍일은 늘 불만이었다. 오죽 했으면 의붓아버지가 아닐까 생각할 정도였다. 하지만 어느 날 크게 깨닫는 사건이 있었다.

“국민학교 5학년 여름방학 때였어. 아버지가 나가시기 전에 ‘혹시 비가 올라면 명석에 널어 논 곡식을 덮어나라.’하고 당부하셨는데, 집 안보고 먹 감으러 가부렀어. 그란디 소나기가 쏟아졌어, 짝달

비(장대비)가, 어떻게 됐겠어? 아버지가 집에 와서 본께 곡식이 그 지경인데, 화가 안났겠어? 아버지가 얼마나 뿔딱지가 나겠어. 지금도 안 잊어부러. 지계에서 띠꾸리(지계꼬리)라고 삼으로 만든 띠꾸리였을 거야. 물을 묻히면 그것이 굉장히 뻗뻗해지는 것이었어. 저기 절구통에 물이 받아져 있는데, 거기다가 씻으시드라고. 그놈을 갖고 오더니 요쪽 팔을 잡고는 아랫도리를 때리거든. 여기만 안 내놓으면 안 맞아요. 그런게, 막 안 맞을라고 땅바닥에 엉덩이를 대버리면 차마 못 때리는 거야. 그 화가 난 중에도 엉덩이를 못 때리드라고. 그날 입은 바지가 소나기가 온 뒤라 흠이 범벅이 되야 부렸제. 나 중에 이웃집 아주머니가 와서 ‘해도 해도 너무하요. 아들 하나 있는데 그래서 죽여볼라고 그라요.’ 그렇게 말려갖고 겨우 면했지. 그런데 그날 밤, 식구들이 쭉 누워서 자잖아. 아버지 자고, 아버지 옆이 내 자리여. 그리고 누이동생 제일 어린놈부터 시작해서 제일 저쪽 갖이 어머니여. 아버지 옆에서 자는데 어느 쯤 되았을까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밤중에 헛바닥에다가 침을 묻혀가지고 내 다리에다가 문질러 주시는거야. (이때를 회상하며 눈물을 흘림-필자 주) 낮에 맞아노니까 되게 아프드라고, 그래도 모른척하고 있었어. 조금만 그런 것이 아니야.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면서 침이 없으면 한참 있다가 그렇게 하고. 그때 비로소 우리 아버지가 의붓아버지는 아니구나 알았어. 죽어도 아버지 말을 거역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랬어. 그러니 내가 우리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겠어? 나는 아버지를 존경해. 누구보다도.”

아버지는 이처럼 자식들을 사랑하면서도 엄하게 키웠다. 잘못된 아들에게 매를 들었지만, 그날 밤 툭툭 부은 아들 종아리를 밤새 침을 발라가면서 챙겨주시는 자상함도 보이셨다. 아버지는 불쌍한 이웃들에게 자상하고 잘 대접해주는 성품을 가졌다. 일로에는 ‘천사촌’이라는 걸인들의 공동체가 있었다. 그래서 걸인들이 늘 주변에 있었다. 아버지는 걸인들의 이름을 부르며 유대관계를 맺기도 했다. 가령 ‘자근이가 올 때 됐는데 어째 안 오네. 어디 아프까?’라는 말을 그는 기억한다.

걸인들도 나름 예의가 있었다. 아무래도 밥술깨나 얻어먹을만한 집을 찾아다니기 마련인데, 그렇다고 매일처럼 방문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하루나 이틀 만에 찾아갈 때는 ‘올 때 안됐는데, 또 왔소.’라며 미안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하루는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이여. 거지가 왔길래 누나가 ‘받아갖고 갈라, 먹고 갈라?’라고 물어 보드라고. 근데, 그날은 ‘먹고 갈라’ 그라드라고. 그러자 누나가 ‘오매 받아갈 줄 알고 상 안차려 났는데……’ 그라드라고. 셋째 누나가 당번이여. 내 바로 우계 누나가 항상 상 갖고 나갔거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비가 오니까 어디 가서 먹을 데가 없어서 그랬는가 모르제. 그란게 누나가 다시 상을 챙겼어. 얻어먹는 사람이 먹는 숟가락과 젓가락, 밥그릇이 다 있어요. 한쪽에 다 놔둬, 그 사람들 뭇을 깨

끗하게 씻어서 따로 나뉘, 요새같이 우습게 취급 안 해요. 그란디 누님이 쪼깐 퇴불심(짜증)이 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상을 가져와서 사랑방 마루에다가 툭 밀어주다시피 했어. 그런께 밥그릇이 미끄러져서 딱 옆드러져서 떨어져 부러져. 우리는 마루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아버지가 ‘반찬 담고 밥그릇 하나 갖고 온나’ 그러시드라고. 그러고는 당신이 자시던 밥을 위를 덮어가지고 그 밑에 것을 내 주시드라고. 옛날에 밥할 때는 잡곡 깔고 쌀은 위에다 놔요. 그래야 아버지 밥을 덜 때 잡곡이 약간 섞여 있지만 쌀이 많제. 아버지 밥에 전부 쌀밥을 담는 것은 없어. 그것을 옷밥이라고 그래요. 그런께 어쩌다가 아버지가 밥을 남기면 진짜 고소하고 맛있단만. 내 지금도 그것을 안 잊어부러. 그란디 그 맛있는 밥을 거지한테 주다니……. ‘오매 저 밥 맛있는디. 내 밥 주고 그 밥 내가 먹은다고 하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거지한테 옷밥 주냐 이것이제. 근데, 아버지가 그것을 딱 담아서 주라는 거야. 아…… 나중에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이랬어. ‘내 집 거룻(대문 언저리)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든지 우리 집 손님이여. 손님 대접을 잘못하면 그 집은 좋지 못한 것이여. 그 집이 대접을 잘하면 저 사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집이 좋은 것이여. 복이 오는 것이여. 그란디 복 달아날 짓거리를 해? 오늘은 침인께 내가 암말도 안 한다, 이답에 그러면 혼날 줄 알아라.’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주신 큰 가르침이지”

오홍일이 사는 동네는 일로역에서 가까워 어렸을 적 기차를 타고 목포로 통학하는 학생들을 종종 볼 수 있었다. 들판에 나가 일하는 사람들의 저물녘 시계 역할도 하는 열차였다. 당시, 목포상고나 목포중학교, 목포고등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것을 봤는데,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것은 서한태 박사의 학생 시절 모습이었다.

“통학기차가 있었어. 그때는 나주 이하 통학생들이 모두 다녔거든. 목포상고, 목중고생들도 다니고. 우리 마을 앞으로 노송정에서 사시던 서한태 박사도 그 차 탈라고 아침, 저녁으로 다닌 거야. 그러면 놀러먹고 그랬는데... 속으로는 정말 부러우면서도 말이야. 아휴…… 진짜 부럽드라. 나도 저렇게 중학생이 돼야지 하고 말이야. 그때 서 박사는 키도 크고 말이야. 걸음 걷는 것도 말이야. 진짜 다른 사람들하고 달랐어. 옆에도 안 봐. 나도 꼭 중학생이 되서 저렇게 옷 입고 학교 다녀야지 그랬어. 어렸을 때. 얼마나 부러웠다고.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학생복을 입고 다닌 사람은 서한태 박사가 처음이었지.”

어머니는 마흔 즈음 돌아가셨다. 오홍일의 나이 불과 6살 때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년 후 쯤 아버지는 재혼했다. 그는 초등학교 시절 아버지를 따라 목포에 자주 나갔다. 목포어업조합(수협)의 전

신)에 근무하는 작은아버지가 어업조합에서 사용하는 줄, 새끼를 꼬아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것을 끈 다음 목포로 직접 가져가 납품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제승기라는 기계를 집에 가져와 새끼줄을 만들었는데, 기계에서 기름이 튀니까 앞치마를 두르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 앞치마는 어업조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작업복 위에 입는 것이었는데, 앞치마 위에 그려진 ‘돔’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어린 오홍일의 눈에는 당시 목포가 화려하고 부자들만 사는 동네로 보였다.

“기차를 타고 와서 목포역에서 내리면 어린 눈에 비친 목포는 환락의 도시고 부자라고 생각했어. 그때는 역전에서 일호광장 쪽으로 난 한길과 목포역 사이는 또랑이 있었어. 그란게 오거리나 공설시장으로 갈라면 그 사이에 있는 돌다리를 건너야 돼. 우리는 주로 어업조합 있는 데를 주로 다녔고, 공설시장도 다녔고, 물건을 산 기억도 있고, 공설시장 있는 데 부터 선창 온금동 쪽으로 간 기억이 남아 있어. 일본사람들 생활하고 조선사람 생활의 차이가 많다는 것을 은연중에 느꼈어. 온금동에 작은집이 있어서 다녔는데, 작은아버지 집이지. 작은아버지가 그때는 고혈압에 떨어져 가지고 요양 중이었어. 살릴 다 묶어 불고 안 되니까 온금동으로 갔어. 왼쪽을 잘 못쓰셨어. 오른쪽으로 부채질하고 지팡이를 짚고 다녔어……. 채플린이 쓴 모자 있잖아. 그 모자를 쓰고 다니시드라고.”

오홍일은 일로에 사는 다른 친구들과 달리 목포 사정을 잘 알았다. 한번은 동양척식주식회사 앞을 지나가는데 아버지가 ‘여기는 쳐다보지도 마라. 우리 농사지은 것을 여기서 다 훔어간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었다.

일본 아이들만 다니는 유달국민학교를 방문한 적도 있었다. 오홍일이 국민학교 다닐 때 작은아버지의 아들은 목포상고를 다녔다. 교복(당시에는 전투복)을 입은 형이 가니까 누구 하나 막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한국산 호랑이가 박제된 것을 보고 헛바닥이 유독 붉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호랑이도 정말 크게 느껴졌다. 학교 강당도 놀라울 정도로 컸다. 시골 학교에서 판자로 된 건물만 봤기에 강당이란 단어도 처음 들었다. 더군다나 2층짜리 강당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운동장에 있던 풀장이었다. 풀이 뻗인지도 모르는데 운동장 한쪽에 콘크리트로 된 구조물로 수영장이 있었으니 ‘아, 일본놈들은 이렇게 하고 살구나’라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2. 광주사범 졸업 후 1년 만에 교사를 그만두다

오홍일의 국민학교 4학년 때 담임선생은 가와쿠치 도미코[河口富子]였다. 그는 공주사범을 나온 여성으로 나이는 20세 정도로 무척 젊었고 오홍일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었다. 오홍일은 그 선생님

때문에 책을 좋아하게 되었고,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었다. 선생님이 목포에서 일로까지 통근하는데 달마다 월간 어린이 잡지를 사다 주고, 어린 그가 사달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사주신 고마운 분이였다.

6학년 담임선생은 아사토 세이신[安里清信]이었는데, 오키나와 원주민 출신이었다. 오흥일이 나중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인데, 1913년생인 그는 8·15 해방 후 고향인 오키나와에 돌아가 오키나와의 독립과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일생을 바쳤다. 아사토 선생님은 오흥일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정의감을 갖게 해준 장본인이었다. 그에게 광주사범학교에 진학하라고 권유한 선생도 그였다. 오흥일은 그를 절대 잊지 못한다.

광주사범학교는 기숙사가 제공되고 관비가 지급되는 학교였기에 가난하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그러다 보니 광주사범 학생들은 유명한 서중학교 학생들에게도 지지 않을 정도로 똑똑한 친구들이 많았다. 오흥일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에 다녔다.

“대개리로 해서는 한나도 너희들한테는 지지 않는다. 서중생들한테 그랬어. 저기는 전라도 부자들이 다니는 데고…… 내가 가고 싶었던 목포상고는 일제 강점기에 시험을 치는데 지금의 재산세라 할 호별세 등급이 15등급 이상이 되거나, 부모나 형제간에 공무원이거나, 일본인 기관장이나 유력자의 추천을 받는 사람들 밖에 못 갔거든.”

그는 1945년 봄 광주사범학교에 입학해 국어를 가르쳐주시던 김혁 선생을 만난 것도 잊지 못한다. 함경도 북청 출신으로 일본 중앙대학교를 나온 선생님의 문법수업은 아이들에게 너무 어려운 과목이었다. 하지만, 그는 선생님과 단 둘이서 대화로 상호 교감하면서 수업에 참여했다. 그에게 문법 수업은 무척 재미있었고, 오히려 쉬웠다.

“김혁 선생이 오시면 말이여 그렇게 반갑고 좋아. 선생님은 이북에서 월남하신 분이거든. 일본 중앙대학교를 고학해서 나오신 분이야. 다들 김혁 선생님을 얼마나 무서워했는데, 민족정신이 투철하신 분이었지. 내가 하숙집도 못 얻고 어려울 때인데, ‘너 우리 집에 와 있어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 분 덕에서 겨울 여섯 달 동안 신세졌잖아. 사모님은 좋아하시지도 않으시는데, 그만큼 나를 아껴 주셨지. 다른 인연은 전혀 없어. 학교 다닐 때 사제지간으로 아는 것 외에는. 그만큼 내가 국어를 좋아했어. 내가 국어선생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

오흥일은 국어 외에도 음악시간이 즐거웠다. 합창부 활동을 하면서 노래를 즐겨 불렀다. 당시가 8·15 해방 후라 수업 진행이 안 될 때가 종종 있었는데, 그럴 때는 으레 오락시간이 진행됐고, 오흥



그림 2 사범학교 졸업 전 급우 정태훈과 후배 최장현 (앞줄)과 함께



그림 3 1955년 고려대 주최 전국대학생 경제학토론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찍은 사진(왼쪽 아래 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윤수동 교수, 박광순, 양인석, 오홍일, 엄창민)

일도 빠지지 않고 노래를 부르는 재주가 있었다. 「타향살이 몇 해던가」, 「돌아오라 소렌토로」가 주요 레퍼토리였다. 음악을 좋아하던 그는 정명여고에 근무하면서 음악교사 이세춘을 만나 본격적인 클래식 감상을 하게 됐다. 당시 모차르트의 LP판은 모두 다 사 들을 정도였다. 그는 지금도 큰아들이 직접 만든 앰프와 스피커를 통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즐겨 듣고 있다.

그는 재학 중 건강 문제로 한 해 신 적이 있어, 1952년에야 광주사범학교를 졸업했다. 졸업할 당시 남자반 3개, 여자반 1개 중에서 7명에게만 우등상이 주어졌는데, 그 중 하나를 받았으니 우수한 졸업생적이었고, 자부심을 가질 만 했다. 하지만 그가 첫 교사 발령을 받은 곳은 듣도 보도 못한 무안군의 섬에 있는 선치국민학교였다. 발령 문제로 담임선생과 상담할 때 고정흠 선생님이 “너 같은 아이들이 광주 시내에 있는 학교로 발령 안 받으면 누가 가냐?”고 장담한 바가 있었기에 실망감은 더욱 컸다. 하지만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 1952년 부슬부슬 봄비가 내리는 날, 오홍일은 짐을 싸들고 목포항에서 6시간 넘게 여객선을 타고 선도에 도착해 짐을 풀었다. 그날이 4월 15일이었다.

선도에는 4개 마을이 있었는데, 남악이라는 마을에 하숙집을 얻었다. 주인은 박채복이었다. 박채복의 가까운 집안 형 되는 이가 안면이 있는 박기상의 아버지였는데, 일제 강점기 때 경동중학교 출신으로 지역 유지였다. 선도에는 박씨 성의 인물들이 많았다. 박씨가 교사들을 존중해 주니 교사들도 잘 대우해 주었다.

오홍일의 첫 제자들은 1940년 전후 태생의 5학년과 3학년의 합반 학생들이었다. 그 중 5학년 양 동승이 말썽쟁이로 기억되는데 나중에 경관이 되어 통화한 적도 있었다. 해변 모래사장으로 체육수업을 나가면 양동승은 늘 선생님의 반찬거리를 잡는다고 갯벌을 이리 저리 쏘다니며 여러 가지 갯것들을 잡아 왔다. 선도에 살면서 감성돔, 낙지, 민어, 부서, 준치 등 생선을 많이 먹은 기억이 있다. 그는 당시 호열자가 많아 걸핏하면 휴교하는 탓에 수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일로에 있는 집에 자주 다녀갔다. 그는 교사 첫해를 마치는 그해 크리스마스를 맞아 학교를 그만 두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기대에 차지 않는 교사생활이었기 때문이다. 광주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이런 오지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오홍일은 교사를 그만두고 부모님을 설득해 1953년 전남대학교 경제학과에 진학했다. 대학에 진학해서도 국어교양 수업을 가장 좋아했다. 오죽했으면 교양 국어를 가르친 이진모 교수가 “오홍일이 가 누구야?”라고 불러내 어디 학교 출신인지, 누구에게 국어를 배웠는지 물어볼 정도였다. 오홍일의 국어점수가 단연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오홍일은 대학을 졸업하고 목포에 있는 대한통운에 근무했다. 하지만, 회사일이 적성에 맞지 않았다. 경제학과를 나왔기에 전표를 끊거나 관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오홍일은 직장을 그만두고 1957년 7월 15일자로 논산 제2훈련소에 자원입대했다.

광주 상무대에서 후반기 교육을 받을 때 아버지가 편찮다는 전갈을 받고 집에 오게 됐다. 훈련생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 특무대에 당숙이 계셔서 그분을 통해 외박을 얻게 되었다. 아버지 옆에서 하루저녁 자고 그 다음날인 9월 31일이 되자 거짓말처럼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임종을 곁에서 지킨 것이다. 그때 오홍일의 나이가 26세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부대에 연락을 할 방법이 없어 애초 계획대로 그날 오후에 귀대했다. 그리고 중대장의 허가를 받아 다시 집에 돌아와 아버지 출상을 마칠 수 있었다. 아버지의 갑작스런 운명을 목도한 그는 큰 충격을 받았다. 부대에 돌아온 후 오랫동안 시름시름 앓았는데 병세가 악화되어 육군병원 여러 곳을 전전하다 결국 1958년 5월 의병 제대⁰¹⁾를 하게 된다.

그는 아버지가 안 계신 집안을 챙기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다했다. 취업을 알아보다가 목포의 한 전기회사를 알게 됐다. 하지만 정권이 부패하고 경제가 혼란스러운 때여서 그랬는지 상당한 뒷돈을 내야만 입사할 수 있었다. 오홍일은 집에 남은 논을 팔까 싶은 생각으로, 큰아버지를 찾아갔다. 사정을 들은 큰아버지는 냉랭하게 뒤로 돌아앉으면서 한마디를 내뱉으셨다.

01) 현역군인이 업무수행을 계속하기 어려운 병에 걸렸을 때,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 예정보다 일찍 제대하는 일. 이때에는 이미 복무한 기간에 관계없이 남은 복무기간이 면제된다.

“애비 눈 어딤도 안 꺼졌는데 벌써 전답을 팔아 먹을라고 하나?”

오홍일은 큰아버지의 반대로 땅을 팔지 못하고, 결국 전기회사를 포기한 다음 다시 교사의 길을 걷게 된다.

3. 정명여고 교사로 사투리 연구

오홍일은 여러 곡절 끝에 1959년 9월 30일자로 다시 초등학교 교사로 복직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다행히 집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삼향동초등학교에 근무하게 됐다. 1964년에는 모교인 일로초등학교에도 근무했다. 이때 오홍일이 결혼 한 뒤라 장차 아이들 교육문제를 걱정하고 있었다. 결국 도시로 나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마침 1968년 덕인고등학교에 자리가 생겨 옮겨가게 됐다. 오홍일은 경제학과를 나왔기에 처음에는 일반사회 과목을 맡아야 했지만, 국어과목을 좋아해 교원 검정고시를 통과해 국어교사 자격증을 얻었다. 이렇게 약 10년간 사립과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다가 1972년 새학기부터 사립학교인 정명여고에 정착하게 됐다.

오홍일이 정명여고로 옮긴 첫 번째 이유는 건강이 좋지 않아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일반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술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이다. 최소한 기독교 학교인 정명여고에서는 술을 피할 수 있

그림 4 모교인 일로초등학교 교사로 재직시 기념촬영(1966년)



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정명여고에서 들어가 65세 퇴직을 하게 된 1997년 8월까지 만 26년간을 근무하게 된다.

당시 교사들은 표준어를 사용해 수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전라도 사투리를 쓰면 촌스럽다는 평가도 받았지만, 정부정책도 표준어를 강요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오홍일이 첫 수업으로 고 3 여학생 교실에 들어갔다가 망신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학교에서는 사투리 쓰면 아이들이 빙긋이 웃기만 하제. 그란디 여학교 가서 첫 시간에 사투리를 쓴다고 학생들이 웃기 시작하는데, 아조 수업을 망쳐 부렀다고. 그래갖고 오기가 붙어가지고 사투리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야. 내가 어쨌다고 사투리를 파고 들 것이야. 사범학교에서 김혁 선생이라고 그분 댁에서 겨울 동안 있었는데, 속속들이 국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사투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드라고. 최현배 씨 이야기도 그 분을 통해 알았거든.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거든. 언어의 소중함. 왜 지켜야 한가. 철두철미하게 파고 든 거야. 그래서 내가 정명여고에 들어가면서 사투리를 조사한 거야.”

박정희 시대는 실제로 표준어를 안 쓰면 단속하던 때였다. 더군다나 ‘교사가 사투리를 쓰면 교사 자격이 없다’라고 평가받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사투리를 쓴다고 첫 수업에서 여학생들에게 망신을 당했으니 부끄럽다기 보다는 오히려 오기가 발동했다. 그래서 본격적인 사투리 연구를 위해 주말과 방학이면 자전거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무안, 영암, 나주 일대를 돌아다니며 사투리, 방언을 수집하고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오홍일은 40대 때부터 노트와 볼펜 하나만 들고 목포인근의 작은 시골마을들을 찾아다녔다.

한번은 목포 선창에서 영암군 용당으로 넘어가 자전거를 타고 강진 성전까지 갔다. 왕복 2차선의 포장도 되지 않은 도로였는데, 차들도 거의 다니지 않던 시절이었다. 조사를 마치고 돌아올 때 코피가 나기 시작했는데 도대체 멈추질 않아 풀밭에 누워 한참을 쉬었던 적도 있었다. 이렇게 방언을 조사할 때 아무래도 시골마을을 다녀보면 학식이 있고 현대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았다. 가끔씩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은 절대 사투리를 쓰지 않았다. 사투리로 이야기 해달라고 요구해도 안 해 주었다.

그에게 효과적인 사투리 수집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였다. 60세 이상되고, 3대가 불박이로 한 지역에 살고, 가능하면 학식이 낮을수록 좋다. 순수한 사투리를 듣기 위해서는 외부접촉이 적고 덜 개방적인 환경에서 생활한 경우가 사투리 연구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오홍일은 국어교사로 재직하면서 사투리가 등장해 문학작품이 더 유명해지고, 자랑스럽게 읽히는

사례들을 중요하게 여겼다. 사투리로 쓴 말이 표준어가 된 경우도 있다. 문학작품의 힘으로 사투리가 표준어가 된 경우는 정말 이상적이라고 여겼다.

“내가 주안점을 둔 것은 ‘사투리를 쓴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야. 오히려 사투리는 중앙에 없는 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뜬금없다’든지, ‘갯닭기’라든지 ‘꼬막’이란 말. 이희승 사전에는 ‘고막’이라고 나오거든. 전라도 말이 첫음절이 된소리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거든. 힘이 켜다 해야 켜 것 같지. 서울 사람들은 세다고 하잖아. 다습다고 하지 않고 따습다고 하잖아. 다순구미를 따순구미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표준국어사전에 꼬막이라고 나왔거든. 그 경위를 보면 조정래의 『태백산맥』에 꼬막이 나오거든. 별교 이야기 나오면서 많이 나오는데, 출판을 하면서 거기서 꼬막으로 나와 있으니까 논의를 하다가 고막으로 고치는 것이 어쩌냐고 물었다는 거야. 조정래 씨가 화를 내면서 꼬막이 맞다. 서울에서 꼬막이 나냐? 서울 표준어가 고막이라고 고칠 수 있냐 그거야. 그랬더니 책이 안 팔린다고 한 거야. 안 팔려도 좋다 꼬막으로 해야 한다고 그랬데. 나온 데 말대로 쓰는 것이 표준어가 되는 것이지. 서울 표준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는 것이제. 서울에 갯닭기가 있을 턱이 없잖아. 진도 미역이 맛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알아? 조류가 세니까? 미역도 붙어서 안 떨어질라고 살아날라고 하는 사이에 여러 가지 효소가 자기 몸에 나는 탓에 맛있는 거 아니여. 온실보다 야생이 더 맛있고 영양가 있다는 거 아니야.”

방언, 사투리가 잘 드러난 작품은 많다. 박태원의 『천변풍경』, 이문구의 『관촌수필』, 박경리의 『토지』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 독특한 것이 최명희의 『혼불』이다. 그는 최명희 작가에게 경의와 존경의 뜻을 표했다.

오홍일은 시를 쓸 줄을 모르지만 시를 읽을 때마다 감동받고, 포근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박목월의 시 「니 뭐라카노」, 김소월 시는 말할 것도 없고, 김영랑의 시 「오매 단풍들꺾네」는 전라도 사투리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작품이다. 향토적인 냄새가 나는 정지용의 시 「향수」도 빼놓을 수가 없다.

그는 방언조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만큼 많은 것을 배웠다. 이제 누가 말하는 것만 들어도 출신 ‘군’ 정도는 구분 할 수 있다. 완도 사람, 진도 사람인줄 구분할 줄 알고, 목포 시내에서도 ‘아 저 사람은 신안에서 왔구나’하고 확인해보면 틀림없이 맞았다. 그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도 써서는 안 될 말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쟁이’라는 말이 있는데 ‘가라지’라고 일본말을 쓰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무엇보다 가라지가 우리를 스스로 비하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오홍일이 1970년대 서산동에서 60세가 훨씬 넘는 노인을 만났다. 그는 마도로스로 세계를 누볐고, 일본상선학교를 졸업했다고 했다. 그는 분명히 ‘가라지라는 말을 써서는 안 돼’라고 하면서 그 유래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아지는 일본놈 말이고, 고기어 변에 석삼자를 써요. 가진 삼자라고 그래. 청국장은 중국에서 들어 온 물건인 것처럼. 당자가 들어가거나 청자가 들어가면 서양물품이라도 중국을 통해서 들어 온거야. 당나라 ‘당’자 하고 한나라 ‘한’자 있잖아, 이것을 일본 음독으로 읽을 때 ‘가라’라고 읽어. 아지는 아 지하고 써. 그런데, 한국에서 나는 아지라고 해서 ‘가라아지’라고 했어. 일본에서도 동경에서 나는 아 지, 큐슈에서 나는 아지가 따로 있어.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인 거야. 이것을 붙여서 값을 부리기 위한 거야. 우리 쌀은 값을 덜 쳐 주데끼……. 그래 가지고 전쟁이를 포장해 가지고 일본으로 공수했거든. 이뻐서 붙여준 것이 아니라, 그런 뜻으로 붙인 거야.”

4. 목포의 향토사와 문화 연구

사투리를 연구하던 오홍일은 기회가 되는대로 시내의 문화당서점을 찾아가 국어, 사투리 관련 서적을 찾아보았다. 문화당서점이 오거리에 있다가 창평동우체국 근처로 옮길 때였는데, 근처에는 삼일서점도 있었다. 그런데 서점에 갈 때마다 꼭 만나는 사람이 있었다. 목포고를 졸업하고 시청에 근무하며 향토사를 연구하는 이생연이었다. 두 사람은 워낙 자주 얼굴을 보게 되어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이생연이 문학지나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책의 창간호를 모으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홍일이 삼성출판사에서 나온 미술책 창간호를 준 적도 있었다. 물론, 이생연도 오홍일에게 답례로 필요한 책을 주기도 했다.

목포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1세대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이생연의 집념은 대단했다. 무엇보다 지도를 통해 목포를 밝힌 것은 대단한 성과였다.

오홍일은 1992년부터 목포문화원과 관계를 맺으며, 공부하고 자료를 정리했다. 그곳에서 뜻이 맞는 김정섭을 만나 서로 격려하며 배울 수 있었다. 김정섭은 오홍일보다 한 살 어리지만 어학실력이 뛰어났다. 무엇보다 한문에 대한 지식이 많아 향토사를 연구하는데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즉, 근대 개항 이후 목포사를 알려면 일본어를 알아야 하고, 개항 이전의 목포사는 한문에 조예가 있어야 가능했다는 이야기이다. 그는 이렇게 여러 문화연구자들을 만나면서 사투리에서 향토사와 지명 연구 등으로 자연스럽게 외연을 넓혀갔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결정적인 계기도 작용했다.

“사투리 조사하면서 무안 사창역에서 지금은 무안역이지. 거기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이가 많이 자신 분이 ‘나주 목포 사람들은 양반인디, 무안 목포놈들은 도둑놈들’이라고 하더라고. 내가 사는 데를 욕하니 좋을 리가 있어?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그 영감님이 일제 강점기에 미영(목화)을 사러 다닌디, 대저울을 갖고 다녔다고 하더라고, 막대기 저울이여. 이것을 갖고 다니면서 미영을 산

디, 근수를 무안 목포놈들이 후려쳐 분다 그 말이며. 그때는 영산강유역은 전부 미영 재배를 했으니까. 해방 후까지. 시골사람들이 얼마나 당했으면 그러겠어. 그때 나주 목포와 무안 목포를 들으면서 사투리에서 역사와 지명으로 눈을 뜨게 된 것이여. 그 한마디에.”

오홍일은 지명을 연구하면서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고, 나주 목포와 무안 목포를 구분해 알게 되었다. 나주에서 향토사를 연구하는 정윤국의 도움을 받았다. 그는 오홍일과 같은 일로 출신으로 나주에서 국장을 역임하고 책도 출판한 향토사가이다. 당시 나주에 가면 목포와 분위기가 달랐다. 목포에서 왔다고 하면 사람 취급도 안하는 분위기였다. 나주 사람들은 천년 목사골을 주장하면서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다. 광주의 지리학자 김경수 씨의 도움도 컸다.

오홍일이 특히 관심을 가진 시기는 일제 강점기였다. 당시 자료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서 지금 잘못 전해진 목포의 역사와 지명들을 재정립할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 예컨대, 목포의 지명을 보면 조선 초기 『고려사』에 처음 목포라는 지명이 등장한다.

“왕건하고 견훤하고 해전을 한 데가 덕진포구와 목포 사이의 해상이야. 구전을 『고려사』에 기록해 놓은 것이니까. 『고려사』는 조선 초기에 만들어졌잖아. 세종시절이야. 그러면 조선시대 초기부터 목포라고 불렀어. 그런데 지금처럼 나무목 개포라고 불렀는지는 나도 몰라. 목개라고 할 수도 있지. 그런데 일본인이 쓴 『목포부사』를 보면 쓴 사람이 간꾸라 쇼헤이라고 한 사람이 썼어. 『목포부사』가 나오기 전에 1929년에 그 사람이 쓴 『목포사적』이라는 소책자가 있어. 당시 목포부청에서 발행했는데, 거기 보면 『목포부사』와 똑같은 기록이 나와. 한사람이 썼다고 봐야지. 거기에 나오는 소리에 목포는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런 것은 확실한 근거는 없으되 근거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마무리를 했는데, 해방 이후 1970년대 박 모 씨가 이것을 일부만 번역해 신문에 연재하고 출판하게 된 거야. 1400년대에 이미 목포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보다 더 늦은 상황을 인용하면 안 되지.”

5. 사투리 사전을 출판하다

오홍일은 평소 커피나 차를 마시지 않았다. 젊어서부터 장이 나빠 고생을 했기 때문이다. 특히 겨울이면 무척 고통스러웠지만 지병으로 알고 견뎌냈다. 다행히 최근 마늘엑기스와 매실을 마시면서 속이 편해져 다행이다.

2003년 가을 오홍일은 그때까지 정리한 방언 자료 일부를 분량에 알맞게 줄여 전국향토문화공모

전에 「목포·무안 지방의 방언」이란 이름으로 응모하여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무안문화원을 통해 『전남 무안지방의 방언사전』을 출판했다. 하지만 그때 전력을 기울인 탓에 심장에 문제가 생겨 한참동안 고생을 하기도 했다.

목포문화방송과 서울문화방송의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전라도 방언부문의 자문을 하거나 출연해 대답하는 경우도 수없이 많았다. 이럴 때 항상 유념하는 것이 왜곡되지 않은 올바른 전라도 방언을 널리 알리자는 것이었다. 오홍일은 전라도 말을 하려거든, 텔런트 이문식 씨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어설픈 전라도 방언을 들을 때면 그렇게 민망할 수 없었다.

2015년 오홍일은 목포대 이기갑 교수와 함께 『전남 목포·무안 방언사전(ㄱ~ㄷ)』(목포대학교 국어문화원)을 펴냈다. 여력이 된다면 후속작업으로 ㄹ 이하 ㅎ 까지 쓰고 싶지만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그 결과는 미지수이다. 오홍일은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고 다른 곳에 돈쓰는 것도 무척 인색하게 했다. 대신, 책을 사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았다. 음악을 즐겨 들어 음반 사는 데도 제법 돈을 썼다. 한 때 다른 지역에 여행을 가면 제일 먼저 그 고장의 헌책방에 찾아가 책을 한두 권씩 사야지 직성이 풀릴 정도였다. 그런데 심장이 나빠진 이후로 ‘이 책도 나중에는 쓸데없는 종으로 나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기증을 전제로 목포시립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 문의해 보았다. 책 전체를 가져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했는데, 도서관 직원이 하는 말은 너무 서운했다. 본인들이 직접 와서 확인한 후 필요한 것만 일부 가져가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참 불쾌하든만. 내가 정말로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아껴가면서 산 책인데, 그런 책 봤는가 모르지만, 『유충열전』이니 『춘향전』이니 우리 고소설 장바닥에서 팔던 것 그것들을 몇 천 원씩 주고 사 모은 것이여. 그래서 내가 싫다고 했어. 그래 가지고 뵈어나면. 통문관이라고 서울에 고서점이 있어. 이겸노 씨가 경영하던 데야. 내가 사지 못하는 책들을 그쪽에 요구해 산 것들이 있어. 그렇게 이겸노 씨와 내가 서신 교환도 하고 연하장도 보내는 처지가 됐어. 그분의 서찰 같은 것도 어디에 있을 거야. 나로서는 취미라고는 그것 밖에 없었거든. 통문관에서 아들 되는 사람이 전화를 받든만. 그리고 책 목록을 보내주라고 하든만. 그래서 컴퓨터로 썩 보냈어. 딱 보더니 1주일도 안돼서 자기 마누라하고 봉고차 타고 왔드라고. 동국대 나오고 고서에 빠삭하든만.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한테 이야기 들었다고 하드라고. 그래서 하룻저녁 자면서 자기들이 쭉 추렸어. 나한테 폐 안 끼친다고 하면서 봉고차에 썩 깔았는데, 엄청난 양이었지. 더 이상은 못 싣겠다고 하드라고. 그라고는 하룻저녁 자고 그 이튿날 오전까지 봤었으까. 점심을 집에서 먹고 갔어. 그리고 나머지 책을 놔두고, 당장 보는 책만 빼두고, 아무것이라도 가져가라고 했어. 거저 가져가도 좋다고 했어.”

오홍일은 교사시절 교과서에 나오는 「두시언해」를 가르치면서, 교과서와 참고서에 나온 시만 가지고 가르치고 싶지 않아, 고서들을 찾아가며 원본을 찾아 더 알려주었다고 한다. 열 개는 알아야 하나를 가르친다는 자세였다. 그것은 한평생 남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는 다짐의 발로였다. 글을 한 줄 쓰더라도 거짓말을 쓰지 않겠다고 스스로를 경계했다. 오홍일은 지금도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자료를 더 자세히 찾지 못해 남농의 주소를 40번지로 써야 할 것을 39번지로 써 인쇄된 것이라고 할 정도였다. 오홍일은 지금까지도 늘 강직한 성품으로 생활하고 있다.

김경완 | 신안문화원 사무국장

제4절 유달산 자락에서 태어나 자란 목포 토박이

정기조(83세, 남)는 1934년 목포 유달산 달성사(達聖寺) 아래에서 4남 2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 그는 목포서부공립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목포중학교 3년을 수료했으며, 새로 설립된 목포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아버지의 권유로 정치에 뜻을 두고 전남대 정치외교학과를 입학하게 되었지만, 집안 형편상 졸업 후 고향인 목포로 내려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다. 1966년 목포시청 사세직(司稅職) 서기보를 시작으로 1995년 정년까지 약 30년간 목포시, 무안군에서 공직생활을 하였다. 정년 이후 목포문화원 사무국장을 역임하면서 국역 『무안보첩』을 간행하였다. 현재 선교활동을 하면서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대학에서 한문, 중국어 강의 등을 하고 있다.

1. 일제 강점기 학창시절

그는 1941년에 목포서부공립국민학교(현 목포서부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목포서부공립국민학교(이하 서부초등학교)는 그가 입학했을 당시 목포중학교의 교사(校舍) 한 채를 빌려 운영하고 있었다. 서부초등학교는 그가 입학했던 해의 9월 말에서 10월 사이에 현재의 위치인 산정동으로 이사를 했다. 이 당시에는 화물을 운반할 때 말이나 소가 끄는 수레를 주로 이용했다. 서부초등학교가 이사할 때에도 말과 소 수레를 이용했지만 학생들이 직접 책상과 의자를 비롯한 학교의 각종 비품과 교재 등을 옮겼다. 대성동 부근에서 산정동 북항까지 가는 길목은 농사짓는 밭이 대부분이었고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은 띄엄띄엄 있었다. 허허벌판에 면화가 심어져 있어 서부초등학교가 이사했던 가을에는 면화가 피어있었다.

그가 서부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인 1940년대 초는 일본이 태평양전쟁에 주력하던 시기였다. 2학년 때까지 일본인과 조선인의 차별은 소소하게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리 심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4학년 2학기 즈음부터 그가 다니던 서부초등학교에 일본군대가 주둔하게 되었고, 주둔한 군인들은 학교 운동장에 참호와 방공호 등을 만들어 군사훈련을 하였다. 이 때문에 학교 수업은 학교 내에서가 아닌 유달산이나 양을산 등지에서 야외수업을 했다.

“1944년 즈음되니까는 왜놈 군대들이 목포로 대거 내려온 거여. 전국 각지에서 다 내려왔겠쥬.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어렸을 기억에 전부가 만주지역에 있던 관동군이었다고 합니다. 근디 주둔지가 없단 말이여. 없으니까 학교를 점령한 거여. 그래 북교초등학교나 산정초등학교나 할 것 없이, 왜놈들만 다니는 학교만 왜놈들이 안 들어왔지, 우리 조선 사람이 다니는 학교는 전부 왜놈 군



그림 1 목포서부공립국민학교 단체사진

대들이, 내 생각에 일개 대대 이상씩은 다 되는 것 같았어. 그런 대대 이상의 병력들이 뒤 교사(校舍)를 완전히 다 차지했으니까. 와가지고 운동장 가상으로 폭탄이 떨어지면 피하기 위해서 가상에다 구멍을 파. 운동장 가상으로 이렇게 운동장이 네모반듯하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구멍을 파요. 옆에다가 흙을 위로 쌓아. 그렇게 운동장에는 굴을 파고, 경계경보가 내리면은 학생들은 운동장 가에 파놓은 수 십 개의 방공호에 들어가서 두 줄씩 딱 앞드려 귀 막고 눈 가리고, 머리에는 솜을 넣어서 애기들 방한모처럼 감싸는, 머리에 두르고, 어깨에 짚 내려. 어깨까지 덮는 방공 모자라고 봐야 해. 이 모자를 딱 눌러쓰고. 폭격에 대비한다는 것이었어. 아무튼 운동장 가상으로 방공호 파고, 군인들이 야포나 기관총 가지고 나와서 운동장에서 훈련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죠. 아침에 등교는 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날마다 야외로 나갔지. 목포 사범학교 자리, 현 목포대 부지, 이 부근으로 와서 야외수업을 했어요. 4학년 말기에서 5학년 초여름 휴교령 내릴 때까지 밖에서 공부를 했어요. 유달산에 바위 밑에서 공부도 했었고.”

그는 목포서부공립국민학교 4학년 때에 타면공장에서 약 6개월간 근로봉사를 하게 된다. 타면공장은 군수품에 필요한 목화솜을 만드는 곳으로, 당시 목포에는 젊은 남자들이 강제 징병 또는 징용으로 끌려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노동자가 부족하였다. 그래서 일제는 남아 있는 노인과 부녀자, 나이

어린 학생들을 동원시켜 군수품 관련 일을 시켰다. 목포에는 동북면화와 조선면화라는 큰 타면공장이 있었는데 그가 일했던 곳은 동북면화였다.

“회사가 엄청나게 크더라고, 가서 보니까. 야적장에는 면화 원료 더미가 산처럼 쌓여져 있고. 그때 생각에는 이 교실보다도 훨씬 크고, 기계가 양쪽으로 나열되어 있고, 기차칸 같은 데서 기계가 양쪽으로 쭉욱 뻗어있고, 면화를 갖다가 틀에다 넣으면은 그걸 보고 씨앗이통이라 그래. 씨앗이통에다 집어넣으면 씨는 그 밑으로 빠지고 솜은 밖으로 막 쏟아지는 것이지. 기계가 이렇게 엄청 높은 데에 설치해 놓고 사람들은 한 가운데 낮은 통로로 다니면서 솜이 쏟아지면 그것을 모아서 집결지에다 보냈어. 솜은 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 그러니 마스크를 쓰고 작업했었어. 이렇게 모아진 솜을 제품 집결지로 옮겨 포장한 후 수출하더라고. 그것이 군인들의 군복과 담요로 만들어진다고 공장장이 그러더라고. 4학년 2학기 동안 거의 차출되어 일했었으니까. 4~5개월간 오후면 그 일을 했었지. 일을 모두 끝낸 그 이듬해 봄에 수고했다고 학생 1인당 광목을 주는데 선생들 어깨로 재서 여섯 마를, 이를테면 일한 품삯으로 나눠주어 받아온 일도 있었어요. 우리는 일한 동북면화 위치는 부립병원에서 선창 끝까지가 다 공장이었어요. 목포 시내 각 학교에서도 우리들과 함께 와서 일을 했었어요. 전쟁 말기인지라 모든 생활분야에서 총동원령이 내려졌고, 우리가 이렇게 일하면 일본이 승리한다고 믿었을 정도로 일본은 신이 보호해 주는 나라라고 믿게 했으니까”

2. 일제의 수탈과 목포민의 생활상

일제는 부족한 전쟁 물자를 조선에서 조달하였다. 쌀, 보리, 콩 등 곡물을 공출로 수탈해 갖고 심지어 전쟁에 필요한 물품이라면 가정에서 쓰는 낫식기, 화로, 대야까지 빼앗아 갔다. 이런 수탈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일본 사람이 아닌 동네 구장, 반장이라고 부르는 조선 사람들이었다.

“식량이, 먹는 것이 너무 부족했어요. 집에서는 배급으로 산 대두밥, 콩깻묵밥, 나물밥 등도 먹고. 쌀, 콩깻묵, 보리, 이런 것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15일 간격으로 식구 수에 맞춰 주는 배급표에 의해서 돈 주고 사오지요. 옷과 학용품은 제외한 모든 물품이 배급제였던 것 같아요. 특히 고무나 기름, 철 같은 것은 돈을 주고도 사기가 어려웠어요. 소금, 담배도 배급제, 담배 봉지를 갖고 가야 담배를 팔아 줍니다. 올 어머니가 그때 담배를 피우셨는데, 담배값과 담배 봉지를 갖고 가야 그 담배를 줘요. 4학년 말 즈음 되어서는 아주 빼앗아 갔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상에 낫그릇이라고 있어요. 낫대야, 낫화로, 낫식기, 낫대접 이렇게 낫반상기 일체, 결과적으로 이것을 다 뺏기는데, 어떻게 뺏겼냐, 취제

온다네 소문이 나면 그걸 보물처럼 보따리에다 싸가지고, 그때는 주로 등거를 나무 대신 땀으니까. 등거간에다가 집어넣고 덮어놓지요. 한 두 번은 용케 피했지만 잊어볼만 하나까는 갑자기 들이닥쳐 장대나 쇠꼬챙이를 가져와서는 등거간을 찌십니다. 그래 딱 소리가 나면 그걸 꼬집어내 뿔을 가져간다는 말도 없이 가져가버려. 그럼 앞잡이는 누구냐, 일본 놈들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 위에서 시키니까 그렇게 했겠지.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소위 구장들, 반장들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앞잡이들이 되어가지고 한 거여. 꼭 밥 먹을 때 와서는 쌀표를 가지고 온다든지, 설탕 배급표를 갖고 와서는 그 집 형편을 살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습해서 몽땅 빼앗아 간 것이지요. 정말 아까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농기물들을 아주 완전히 뺏겨버렸죠.”

일제 강점기에 형성되었던 시장에서는 조선인과 일본인이 판매했던 상품이 달랐다. 조선인들은 주로 고구마, 채소 장사나 바다에서 잡거나 채취한 해조류 등을 팔았고, 일본인들은 일본 국기, 낚싯대, 종이, 학용품, 책방 등 육체적으로 힘이 덜 드는 생활필수품 등을 취급했다.

“장사를 하면 틀림없이 남는 장사, 누가 안 사갈 수 없는 장사는 일본 사람이 독차지를 하고 우리 조선 사람은 인제 한국 사람들이 쓰는 술장사, 공장에서, 성냥간에서, 지금은 대장간이라고 그러지. 칼 만들어가지고 호미 만들고, 낫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그리고 말 구루마 끌고 그런 사람들은 전부 우리 조선 사람들. 말 구루마, 소 구루마 끌고, 또 손으로 끌고, 형편이 닿는 사람들은 그런 대로 하지마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게를 지었어요. 지게를 지고, 지게에다가 밭을 받쳐가지고 수박 같은 것을 잔뜩 싣고, 참외 같은 것을 잔뜩 싣고, 길가에다 받쳐놓고 팔고 길에서, 남자들이 그렇게 하고, 또 어머니들은 길가에다 껌깍을 놓고 그 위에 각종 채소나 반찬거리는 물론 과일 등을 올려놓고 파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목포부위생사업소에서는 목포 지역 각 가정의 분뇨를 수거했다. 분뇨통을 멘 사람들이 골목길을 ‘똥 푸요, 똥’을 외치고 다니면서 수거를 했는데 수거한 분뇨는 목포부에서 운영하던 저장소에 모아놓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갖다 쓰게 하였다. 그때는 화학비료가 귀했기 때문에 농사짓는 경작지 부근에는 분뇨를 저장해 비료 대신 사용하였다. 현재 북항인 뒷개에 분뇨 저장고가 있었는데, 인근 섬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분뇨를 가져다가 사용하였다.

“목포시(부)위생사업소라 해서 목포 시(부)내가, 지금은 수세식 화장실을 쓰지마는 그때는 전부 다 퍼내는 식 화장실을 유지를 했거든. 만약에 그때 똥이나 오줌 같은 것이 토랑으로 흘렀다 하면, 그것

을 알면 경찰서에서 당장에 잡아가버려. 위생관님은 대단히 잘 지켰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를테면
 똥, 오줌을 걷어내는 사업을 하는 곳이 위생사업소. 근데 지금 (죽교)시장 일대가 위생사업소 자리입
 니다. 목포시내의 분뇨수거를 담당하는 곳이 그곳이에요. 위생사업소에서 분뇨 수거를 맡아, 군인들이
 이 쓰다가 버린 말이나 경찰이 쓰다가 버린 말을 갖다가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가져온
 조랑말이라 해서 우리 한국식 작은 말들이, 목포시에 큰 말, 작은 말들이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해요.
 수거를 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나면은, 북항에 가면 높은 곳이 있었는데, 분뇨수거통이 있어요.
 특별하니 그때는 비료가 없었으니까, 밭에다가 전부 분뇨를 뿌려서 비료를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농
 사짓는, 이를테면 경작지 부근에 가면 전부다 합수저장소가 있어. 합수라는 말이 분뇨저장고입니다.
 분뇨를 거기에 퍼서 개인이 퍼가도 누가 말 안 해. 개인이 퍼가면 돈 안내고 공으로 퍼가져가. 위생사
 업소에 연락해서 가져가면 돈을 줘야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공으로 가져가는 법이 없이 전부
 돈 주고 푸면은 갖다가 밭 가상에다 파서 저장하고, 시가 운영하는 합수저장고에서는, 거기에 해 놓
 으면은 그 인근에, 신안의 압해도, 암태, 안좌, 이 부근의 농사짓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와가지고 그
 분뇨를 받아서 다 배달시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머슴들을 사가지고, 일꾼들 사가지고, 똥지게꾼
 을 사가지고 와가지고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퍼서 가져가기도 하고, 그렇게 모여서 그것이 비료
 로 쓰였습니다. 그때는 비료로 쓰였기 때문에 분뇨의 여독으로 해서 채독이라는 것이 생겼었습니다.
 채소를 생으로 먹거나 깨끗하게 씻지 않고 먹게 되면 감염되어 고생을 하고 그랬습니다. 채독 주의하
 라고 우리 생활 신조였었죠. 그렇게 해서 살았으니까.”

앞선창이라 부르던 지금의 목포항과 뒷개라 부르던 지금의 북항의 분위기는 서로 달랐다. 그의 기
 역에 뒷개는 인근 섬에서 잡은 민어, 부서, 농어 등 해산물과 재배했던 농작물 등 소규모의 물량이 들
 어왔고, 목포에서 나오는 생활필수품들이 배에 실려서 섬으로 나갔다. 앞선창은 주로 여객선 등의 큰
 배들이 드나들었고, 웅기처럼 깨지기 쉬운 물품은 풍선(風船)에 실어 날랐다. 그는 동네 친구들과 함
 께 앞선창에 놀러 다녔는데, 대반동에 있는 해수욕장과 삼학도 부근에 있던 부영잔교가 있는 바닷가
 에서 수영을 했다. 그리고 부근에 있는 청과물도매시장에 가서 과일을 얻어먹기도 하였다.

“앞선창을 어떻게 가냐면, 내가 살기를 달성사 아래에서 살았었으니까, 유달산 오폐대를 지나서,
 바로 이 길(구 일본영사관 옆 골목길)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옛날에는 여기를(구 일본영사관 뒷산) 왜
 정 때는 천기산(天氣山)이라고 했습니다. 측후소가 있는. 이 천기산을 타고 넘어와서, 바로 이 길(현
 유달산 주차장에서 목포근대역사관 1관으로 내려오는 길)을 타고는 이 앞 통로(현 목포근대역사관 1
 관 앞쪽)로 해서 쪽 가면은 청과물도매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린애들 구경 왔다고 저리 가라 하

면서도 하나씩 주고 얻어먹는 재미로 놀러가곤 했습니다. 대반동에 왜정 때부터 해수욕장이 있었지. 어린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깊어봐야 허리만큼 찬 풀장이 있으니까. 작은 풀장이 두 개 있었고, 큰 풀장이 하나 있었다고. 유달산 밑에서 막 내려와 가지고 동명동 부영잔교라고 있어. 물이 들면 차 가지고 잔교가 내려앉고, 간조시 잔교가 떠오르고 그런 식이여. 그 부영잔교에는 우리 조선 사람들 배가 많이 접안했어요. 그런 데서 우리가 수영을 하고 그랬지. 뽕스만 입고 삼학도를 건너갔다고 오고 그랬었어. 그러다가 배를 만나면 배를 잡고 쉬어 가는데 재수 없으면 뽕배를 만나고. 재수 좋으면 수박이나 참외 실은 배를 만나 재미 보았지요. 인분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뽕선배의 거의 절반이 분노를 실어 날렸어요. 그 뽕사람들이 항에 들어오면 유달산 밑에까지 용당동, 산정동까지 집집마다 다니면서 뽕장군에 수거해서 소나 말 구루마에 실어다 배로 날랐지요. 이것을 집결하는데 대성동이면 대성동 나무장터에서. 뒷개 다리목, 또 쌍교장터, 죽동 마인게터(원도십), 연동 터진목, 동명동 어판장 등에서 집결을 하는 거여. 그러면은 소구루마가 기다리고 있어. 뽕 지고 와서 소구루마에 있는 뽕장군에다 옮겨 붓는 거여. 냄새가 나고 그러지마는 그때는 뽕 냄새 난다고 누가 욕한 사람도 없고, 뽕 냄새가 나면 자기가 비켜 가면 되는 것이고. 옮겨 실어갖고 그것을 소가 부듯가로 가면은 즈그들 인력으로 배에다가 그런 걸 옮기는 거여. 이런 뽕배가 많이 왔었어. 동명동 부영잔교로 주로 모이지.”

명절은 정월 대보름과 단오를 크게 지냈다. 정월 대보름에는 북교초등학교에서 강강술래를 했고, 단오에는 삼학도에 있는 난장에서 씨름대회를 열었는데, 씨름뿐 아니라 먹거리도 풍성하여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 음력설도 지내긴 했지만 설빔을 입는 정도였고, 학교에서 빵같은 찹쌀떡을 나눠주기도 했다. 그의 집에서는 음력 9월 9일(중양절)에 음식 장만을 해서 제사를 지내고 고향으로 내려가 성묘를 했다.

“주로 대보름, 5월 단오 이런 때에 가장 재밌게 놀았던 것 같은데, 각 학교운동장이 놀이터였습니다. 북교초등학교 운동장이 가깝고 중심에 있어서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강강술래 판으로 가득 차버리죠. 우리는 주로 구경을 많이 하죠. 부인네들이 와서 노는 것을 보면은 ‘청어 영자 칠산바다에 청어 영자’ 이런 노래와 강강술래, 줄넘기나 줄다리기도 했어요. 남학생들은 정월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연날리기를 주로 했지요. 큰길에서 조금 들어가면 누나들 동생들이 노는 모습을 보는데, 주머니 공기 놀이라든지, 고무줄넘기, 단오 때는 삼학도애가 난장이란 것이 있었어요. 그때는 삼학도가 매립이 안되었던 판이어서, 매립이 된 뒤에도 그랬지만은 대삼학도 중삼학도 사이에 씨름판도 붙이고, 우리가 거기서 씨름 구경도 하고. 거기서 그때 노름들을 많이 하더라고. 그리고 그날만큼은 삼학도에 난장섰다고 구경가자고 해요. 왜정 때부터 일본사람들도 음력설을 쇠요. 개화시키기 위해서 양력설을 권장

했기 때문에 우리 조선 사람들은 설을 두 번을 췌어요. 학교에서는 양력설, 집에서는 음력설 그런 셈이지요. 왜정 때는 일본설을 췌는데 학교에서 설날이면 주먹만한 찹쌀떡을 나눠줘요. 빵같이 만들어서 하나는 빨강고, 하나는 하양고 이렇게 만들어서 각 학교마다 다 췌지요. 음력설이 가까워지면은 여자들이 설빔을 하잖아요. 그런 것이 주로 명절 분위기를 돌아줬던 것 같고. 우리나라의 세시풍속으로 해서는 왜정 때에도 일본 사람들이 막지는 않았어요.”

1943년에 3천 8백t급 푸르트호가 목포항 앞바다에서 연합군 비행기의 폭격을 받아 선체는 불이 났고 결국 침몰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푸르트호는 러시아제로 러일전쟁이 끝나고 일본이 사용하였다. 이 배는 호남지방에서 수탈한 쌀을 일본으로 수송하는 배였다. 침몰한 이 배에 실려 있는 쌀을 사람들은 건져서 먹었다. 그러나 바닷물에 잠기고, 불에 탄 쌀이어서 썩내, 탄내 때문에 밥을 지어도 먹지 못했다. 막걸리로도 담아봤지만 역시 먹지 못했다.

1945년 4월경 그의 둘째 형 정학조에게 징용소집영장이 나왔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장성으로 도피시키려고 했지만, 가던 도중 기차에서 붙잡혀 바로 일본으로 연행되었다. 오사카철도국에 있다는 편지를 받고, 한두 달 후 남쪽으로 옮긴다는 연락을 끝으로 소식이 끊긴 채 현재까지 돌아오지 못했다.

“그때 당시 한국 사람들이 살았던 정황은 나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어느 집안이라도 징용 안당한 집안은 없고, 운수 좋게 징용을 당했어도 목포에서 굴 파고, 고하도에서 굴 파고 유달산 뒤에다가 도우츠카 만들고, 그런 거 등등은 일도 아니었겠지. 그 무렵에 시내를 돌아다녀보면 전부가 전쟁분위기라 그랬는지 젊은 사람들이 가서 일하는 데가 많았어. 여기 뒤에도(일본영사관 방공호) 방공호도 그때 우리 조선 사람들이 강제 동원되어서 췌지요. 고하도 같은 데 가서 보면 구멍이 군데군데 있어요. 거기 가서 우리 형 친구들이 그랬어. 우리 형은 능력이 없어 일본으로 끌려갔지만은 그때 나와 한동네 살았던 우리 형뻘 되거나, 선배들 중에 거기 일했던 선배들이 있었어. 뭘 일을 했습더 물어보니까 그때 그 부대가 아까쓰끼 부대라 그랬제? 거기서 도우츠카 팠어야, 화약 넣고 뽕 터지면은 안에 가서 폭굉이로 찍어서 굵어내고. 그러다 해방 맞이했다 그러더라고. 우리 형이 집을 나서면서 ‘아이 엠 어 코리안 보이, 고국 조선 독립 만세, 일본은 패망한다. 이 말은 절대 비밀이고 누가 알면 우리 식구 다 죽는다.’고 일러줬는데 그때 집을 나가 징용 간 후 아직 소식이 없으니.”

3. 광복 후 목포

1945년 6월 일본은 조선 각 학교에 무기 휴교령을 내린다. 그는 목포에 집단 소개령이 내려졌을 때 아직 휴교령이 내려지지 않았던 외가가 있는 순천 쌍암으로 피난 겸 전학을 갔다. 그러나 7월에 순천 쌍암마저 휴교령이 내려지게 되자 그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놀고만 있어야 했다. 그러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터졌다는 소리가 들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의 패망과 함께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그는 그 길로 혼자서 기차를 타고 순천에서 광주 송정리로, 다시 목포로 돌아왔다. 1945년 9월경에 미군이 목포항을 통해 목포로 들어왔다. 미군은 당시 문태중학교를 징발해서 주둔하였는데 그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미군들의 모습과 행동들이 신기했다.

“9월 초 즈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십 여 대 비행기가 세 바퀴인가 네 바퀴인가 돌았으니까. 그러니 어쨌겠어, 온 하늘이 새카만 비행기로 해서 뒤덮어버린 거지. 전국 각지를 그렇게 돌았었나봐. 이를테면 무력시위지. 그 비행기가 돌아가고 난 뒤에, 목포항을 통해서 미군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LST라고 하는 배, 큰 배에서 자동차가 나오고, 새파란 눈을 가진 미군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야 말로 저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나오는데 정말로 키가 크고 모두가 얼굴들이 하얗고, 물론 까만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무섭다고 느꼈다. 왜정 때 영흥학교가 폐쇄되고 그 자리에 문태학원이 들어왔어. 문태중학교가 생겼었지. 해방이 되니까 미군들이 거기를 접수해가지고 미군 부대가 들어서게 됐어. 각종 화물차가 완전히 행진을 하며 문태중학교로 들어가더라고. 정말 눈이 휘둥그레졌어. 이런 나라를 일본이 어찌 이길 것인가 한탄했지. 그렇게 문태중학교에 미군들이 주둔해 있잖아. 그래서 주로 목중생들, 목포 상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그 사람들하고 지금 생각하면 잘 맞지도 않은 영어를 하는 거여. 그때 10월 말경에 어머니들이 배추를 머리에 이고 가면, 미군들이 그걸 가져오라고 해서 배추 뿌리가 당근만한데 그 배추 끝팅을 미국 사람들이 칼로 딱 잘라서 껍질 벗겨서 그 자리에서 먹고 돈을 주거나 껌을 주거나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미국 놈들이 부자인줄 알았는데 우리도 안 먹는 걸 먹는다 그리 생각했어.”

1945년 11월 화약고대폭발 사건이 일어난다. 이 화약고는 일제가 설치한 것으로 패망 후 그들이 수거해가지 못한 탄약이 남아 있었다. 이때 일어난 폭발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양동 고지대에 있는 집뿐만 아니라 학교, 고층 건물 유리창이 전부 깨졌다.

“1945년에 내가 양동으로 이사를 왔지. 바로 뒤에 문태중학교가 있고. 학교 갔다 와서 미군들 이야

기하는 거 구경하고, 저 소리가 뭘소리인가 바라보고 있지. 그랬는데 어느 날 난데없이 저쪽 북쪽하늘에서 대폭발이 났는데 어찌나 놀랐던지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 우리들을 구경하던 미군들도 깜짝 놀랐어. 왜놈들이 목포근방에서 미군이 진주를 하면 교전을 하려고 저장해 놓았던 폭약, 실탄. 그것에다가 만주서 후퇴하면서 갖고 왔을 폭약들도 거기다 다 놔뒀겠지? 그곳은 지금 목포 북쪽 중앙하이츠 아파트 있죠, 바로 그 뒷산 언덕 너머에 전라남도 도립 도서관이 있어요. 그 언덕과 도서관 사이에 지금 새로난 도로 자리라고 생각되는 곳이었어. 폭발을 했는데 쿵쿵쿵쿵 매화꽃 색깔처럼 화약 연기가 뭉게구름처럼 하늘을 가득 메우더니, 새카만 화약가루가 비오듯이 쏟아졌어요. 그 소리에 양동 고지대에 있는 집 유리창은 전부 깨졌어. 문태중학교 유리창도 전부 박살나버리고. 우리가 그 답달 학교를 갔더니 유리창 성한 것이 하나도 없어.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높은 건물은 2층 건물이었으니까. 서부학교, 목포중학교, 문태중학교, 북교초등학교, 그 부근에서는 이 4개 학교가 큰 건물이었지만 유리창이 모두 박살났고, 초가집이고 단층집이고 간에 그 폭발로 인해 유리창이 모두 깨졌어. 그 후부터 그 부근 마을을 화약골이라 불렀어.”

1949년 9월 15일에 산정동에 위치해 있던 목포형무소를 수형인 약 4백여 명이 탈옥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들은 무안, 함평 방면으로 도주하였는데 경찰과 군은 이들을 추적했으며, 대한청년단과 우익청년, 학생들도 합세했다. 그 결과 85명이 체포되었고 약 300여 명이 사살되었다.

“우리 집 옆으로 탈옥죄수를 붙잡아 끌고 가는 모습이라니. 온 얼굴이 박살난 듯 피투성이인 체 잡혀가는데 너무나 처참해서 지금도 생생하네요. 이때는 시국이 매우 불안하던 때였습니다. 당국에서는 불온분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집 대문에도 빨강색 동그라미나 네모 모양을 칠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집 앞에다 탈옥수들 데려다 놓고 한밤중에 총으로 죽이고 가마니로 덮어 댔어. 아침에 학교가면서 보면은 개가 가면서 (피를) 핥아먹고 그랬어. 목포 탈옥 사건 때 죄수들을 그렇게 죽였어. 그 사람들도 인권이 있는데. 정당하게 사형을 시켰으면 좋았을 걸 그제 뭘니까. 남의 집 앞이나 네거리 길에다가 사람을 죽여 놓았으니. 과도기라서 그랬을까 사람들이 이성적이지 못해 포악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4. 6·25 전쟁 시기 목포

그는 1946년 서부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947년에 목포중학교를 시험 봐서 입학한다. 목포중학교는 일제 강점기에 5년제로 운영이 되었는데 해방 후 6년제로 바뀌었다. 그리고 1950년 목포고등학교

교가 설립되면서 그는 시험에 합격해서 1회 입학생이 된다.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된 것은 이 시기였다.

“1946년에 6학년으로 올라가서 1947년에 중학교를 들어갔어. 목포중학교 시험 봐서 들어갔어. 학교 들어갈 때 기부금제가 있어서, 1차, 2차 시험을 두 번 볼 수가 있어서 목포공업학교하고, 목중하고 두 학교에 입학원서를 냈는데 양쪽 다 합격을 해서 목중학교를 선택을 했지. 그때는 해방직후라서 사회가 혼란했고 학교가 어수선하더라고. 선배 학생들도 나이 많은 학생도 있고, 어른 아버지 같은 사람도 있고, 4, 5학년 선배도 보이더라고. 그때 중학교는 왜정 때는 5년제였고, 해방 후론 6년제로 바뀌었는데. 서울 경성대학교(현 서울대학교)를 국립으로 운영해야한다고 주장하는 학생들 파가 있었고, 사립체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생들 파가 있었고. 우익민주세력은 국대안 쪽으로 분위기를 몰고 갔고. 국대가 되면 안 된다 반대하는 좌익세력이 있었어요. 이 좌익 세력을 동조하는 학생들은 4학년 때 졸업을 시켜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제1회 졸업생이 2회 졸업생하고 똑같은 입학 기수인데, 4학년에 졸업한 사람, 6학년에 졸업한 사람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6·25전쟁이 일어난 그 해에 고등학교 설치령이 새로 생겼어요. 안호상 박사가 문교부장관을 하실 때.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만들었습니다. 1950년 3, 4월경에 우리가 시험을 봐서 6월 22일에 첫 개교를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목중생들과 같이 교복을 입었다가 총회를 거쳐가지고 모표도 만들고 제복도 만들고 하는데 이 건 6·25전쟁 이후에 새로 만들게 됩니다. 목포고등학교 모표와 단추, 문과, 이과 학년별 뱃지는 제가 도안했지요. 그리고 그 이듬해 가을 백낙준 씨가 문교부장관을 하게 되면서 학제가 개편이 되었어요. 구 중학교 4학년생들을 고등학교 1학년으로 편입을 시키는 것인데 우리가 2학년 올라갈 때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구중 5학년생들과 합병을 한 것이지요. 우리는 등록금 4만 8천 원을 내고 들어왔고, 학제가 개편이 되었는데 구중 학생들은 올라올 때는 10원도 안 내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당국에다가 입학 시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던 적도 있었어요. 한 푼도 못 받았지만.”

6·25전쟁이 발발하고 7월 말경에 인민군이 목포를 장악했다. 그는 인민군이 들어오기 전에 친구와 신안군 압해도 송공리로 피난을 갔는데 그곳에서 제트기 두 대가 목포제유소를 폭격하는 장면을 목격한다. 육지는 인민군이 점령하고 있었지만 바다는 대한민국 해군 군함이 장악하고 있었다. 소해정급 군함이 순항하면서 괴뢰군에게 부역하지 말고 조금만 고생하라는 방송을 했다. 그러나 목포를 장악하고 있던 인민군은 ‘학교에 등교하지 않으면 퇴학시킨다’는 벽보를 각처에 게시하였고, 그 상황을 알게 된 그는 어쩔 수 없이 목포로 돌아와 학교에 등록하였다. 인민군 치하의 학교는 민청학생들



그림 2 목포고등학교 공작부 단체사진(1953년 2월 5일)

이 장악하였고 등교한 학생에게 러시아어, 마르크스와 레닌 등 공산주의 사상교육을 실시하였다.

인민군 점령하의 목포에 남아 있던 사람들은 부역을 해야 했다. 당시 그의 아버지와 누나는 불려나가 부역에 앞장서도록 권유받거나 동맹 가입을 권유받았는데 상황을 빠르게 파악한 그의 어머니의 기지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부역 나가는 것까지 피할 수는 없었다. 17세인 그는 몸이 허약한 아버지를 대신해 나가 일을 하였다. 역전에서 유달산까지 빈 가마니를 나르거나, 나무 등을 날랐고, 저녁에는 사상교육을 받았다.

“을 아버지도 까딱했으면 그 사람들한테 부역을 할 뻔 했단니까. 어느 날 시내를 나갔다 오더니 똥 완장을 두르고 왔어. 완장을 지니고 오셨어. 무엇입니까 물으니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끌러서 옆에다 놓으시더라고. 보니까는 공투라고 써있어. 공산당으로 투쟁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겠지. 그걸 누가 주니까 갖고 왔는 모양인데 을 어머니께서 깜짝 놀라 그거 보시고는 이 양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화를 내시더니 완장을 빼앗아 가지고 가서는 부역에 가서 불태워버렸어. 그때는 가마솥에 불

때던 때라. 그리고 당신 앞으로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마라. 시내 나가지 마, 나가면 누가 당신보고 뭐 하라고 하니까 나가지 마라고 호통치니 우리 아버지 암말 못하더라고. 위기를 모면했었어. 그런데 일 하라는 통지서가 오니까 그놈 가지고 내가 저녁에 대신 갔어. 저녁에 가서 보면은 역전에 창고에 쌀 가마니가 있어. 그 전에는 쌀가마니를 고공품이라 해서 벧짚으로 쌀가마니를 만들어 썼어. 짚가마니 라고도 해요. 그 가마니를 어깨에 지고 유달산 뒤에 도우츠카 만드는 데까지 운반해야 했어. 근데 나는 몸이 약하니까 빈 가마니 석장을 짊어지니 못 가겠어. 일어서서 유달산까지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지. 가다가 길에서 늙다가 그런 식으로 겨우 운반했지. 그런 식의 노역은 안 할 수가 없었지. 그런 일을 세 번인가 나갔어. 두 번은 가마니 옮기는 거, 한번은 전봇대 나무를 셋이 하나씩 메고 가라는 거야. 근데 나는 키가 작아 가운데 서면 힘이 별로 안 쓰이고, 뒤에 서면 힘이 많이 들더라고. 교대해 가면서 그 목나무 하나 옮겨놓으면 그날 일은 끝난 것이지. 저녁에는 거기 온 사람들 사상교육 시키고.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까 곧 공화국에서 편안하게 살도록 할 거요. 하지만 이것을 만들어놔야 미국 놈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고. 우리는 그냥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어. 말 잘 듣고 가만히 있었어. 우리 집안은 피해 없이 수복이 됐어.”

그러던 어느 날 인민군은 시국강연장에서의 강연이 끝나고 학생들을 인솔해 산정초등학교로 집결시켰다. 그리고 의용군에 지원하기를 강요하였다. 지원하지 않으면 죽인다는 협박에 학생들은 할 수 없이 가입을 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전후 이야기를 했는데 그의 어머니는 인민군이 절대 미군을 이길 수 없다고 의용군 지원을 반대하였다. 그래서 그를 포함한 친구들은 신체검사지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신체검사 불합격을 받은 후 인민군이 목포에서 퇴각할 때까지 도피 생활을 하였다.

“다음날 새벽에 친구네 집에 4명이 모였던 말이여. 작전은 뭐냐 하면, 하나는 귀가 안 들린 것으로 하자, 너는 한쪽 눈이 나쁘니까 눈이 나쁘다고 하자, 그리고 나는 키가 작으니까 심장과 체중미달로 만들자. 신체검사장의 현장 사정을 잘 모르니만큼 일단 거기 가서 보자. 우리가 맨 뒤에 서서 살펴보면서 대처하기로 했지. 신체검사장에 가서 보니까 각 검사소에 확인자가 없더라고. 누가 조사할 사람이 없으니까 판정관이 학생이여. 그리고 판정관 옆에서 앞사람이 불러주면 받아서 적고 차례차례로 진행되더라고. 됐다, 우리 그렇게 하자. 우리끼리 불러주기로 하자. 체중은 40킬로, 42킬로. 키는 1미터 40 이하로 이런 식으로 하고, 전혀 안 들린 것으로, 한쪽이 전혀 안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신체검사에서 빠져 나왔다니깐.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는 학교를 안 가버렸지. 낮에는 바닷가로, 저녁에는 유달산으로 피했지. 우리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때 공공건물 같은 집, 땅속에, 지하실에서 숨어서 있는 친구들도 있었더라고. 낮에는 나와서 식량 조달하고 무선 통신도 했다고 하더라고.

해군 함정이 그 사람들이 연락해주는 신호에 의해서 함포사격도 하고 그랬다 그래.”

목포에서 인민군이 퇴각한 후 그는 다시 고등학교를 다니기 위해 등록을 했다. 하지만 국군이 수복한 목포 상황은 인민군이 점령했던 당시 부역을 했던 사람들을 색출하기 시작하였고 학교도 마찬가지로였다. 인민군 점령 시기 학교에 등록했던 학생들을 조사하여 무자비한 폭행을 자행하였고, 당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토로하였음에도 폭행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6·25전쟁이 나면서 슬펐던 점은 6·25 때 부역한 사람들 있잖아. 부역한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그런 사람들이 상급생이 되었던 하급생이 되었던 간에 학교에 등록하러 오면 심사를 해가지고 의용군 지원자 등 그 밖의 부역자를 색출해서 폭행을 가하는 거야. 개학을 해놓고 보니까 세 클래스였던 학우들 중 거의 한 클래스 정도의 학생이었어. 없어졌더라고. 6·25 때 희생을 당한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여. 내 친구 중에 자기 아버지가 끌려가서 무참하게 희생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우리와 함께 다니는 학생이었던 말이며. 그 친구는 등록을 할 때 심사대에 앉아 심사를 해. 6·25 때 너는 어디에 있었냐, 뭐 했냐, 그렇게 해가지고 부역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창고에 넣어서는 치고 박고 폭행을 가하는 거야. 상급생한테도 가하고, 후배에게도 가하고. 어떤 의미에서, 6·25를 겪고 나니까 이런 또 큰 어려운 고비가 오는 구나 느낄 정도로 학생들 간의 보복이랄까. 나도 맞았으니까. 의용군을 거기서 안하면 죽여분다고 한디 안해야. 너는 어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거기서 용케 우리가 빠져나왔다, 이것을 높이 세워줘야 한다. 그러니 안돼 느그는 일단 맞아야 해. 그래가지고 목총, 개머리판으로 맞아버렸어. 이 작은 체구에 그렇게 맞았으니 얼마나 억울했을 거여.”

5. 공무원이 되다

그는 목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안 형편이 어렵자 대학을 가지 않고 취직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대학을 나와야 직장이 생길 것이라는 아버지 말씀에 일 년 동안 공부를 해서 전남대학교 문리대 정치학과에 입학하였다. 정치학과에 지원한 것은 아버지의 권유 때문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일제 강점기 억울하게 재산을 날린 경험이 있었고, 사회를 헤쳐 나가는데 있어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건 정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는 정치가 그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소신 없는 상태에서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다. 그러나 가정형편상 정치 입문은 하지 못하고 1958년 대학을 졸업했다. 같은 해 10월 군 입대를 하여 3년간 복무하고 1961년 10월 제대한다. 그는 목포로 돌아와 1962년에

친구 동생인 아내와 결혼하고 죽교동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목포에서 가장 힘든 생활 중 하나가 식수였다. 그의 집에 우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어서 물을 매일 길러 먹어야 했는데 그 담당은 그의 누나였다. 하지만 그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 누나가 시집을 가면서 물 담당은 그가 되었고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물을 길러 날라야 했다. 그가 군대 제대할 때 즈음 집 앞에 공동수도가 개설되었고, 결혼하면서 동네에서 처음으로 가정수도를 놔서 식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었다.

“동생들은 어리고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물을 여덟 지게를 길르기도 했지요. 오후에 학교 파하면 일단 물 기르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산정동교회 산으로, 골롬반병원 있는 고개를 넘어서 연동 철도 건널목을 건너서 산정초등학교 앞 공동수도에서 물을 길러서 다시 되짚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코스였지요. 아무리 못해도 1,000m나 넘었을 거야. 왕복 4~5km 쯤? 물통 4개를 가지고 가는 거야. 한 지게 받아서 앞에다 내려놓고, 또 한 지게 받아서 아까 내려놔던 부분보다 조금 앞으로 가서 내려놓고, 다시 되돌아서 물을 저다가 좀 더 앞으로 내려놓고 이런 식으로 릴레이 하는 거지. 거기 갔다 오는 시간이 지금 생각해보면 가는 데는 그때는 걸음이 빨랐을 때라 15~20분 갔을 거란 말이야. 올 때는 틀림없이 한 시간은 걸렸을 것이야. 그러니까 그때 3학년 졸업반 중요한 시기를 물 기르는데 허비한 셈이었어. 내가 대학 다닐 때 방학하고 오면 동생들 대신 물 길러주고. 우리 집은 그 전부터 장독대가 넓었고 많았던 것 같아요. 하루저녁에 물 여덟 지게를 저봐. 그럼 열여섯 통이여 그 정도는 되어야 항아리 세 개에 물을 채울 수가 있더라고. 지금 생각에 장독대에 큰 항아리가 5~6개는 되었던 것 같아요. 물을 가득 채워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다가 결혼을 했는데 집사람이 물지게를 지고 혼이 났지요. 가정수도를 놓고서야 물 문제는 해결했으니까.”

그는 목포해양소년단에서 1년, 목포영세근로사업에 약 두 달간 일한다. 그리고 1964년 목포시청 국민저축장려사무원과 시유재산 평가보조원을 임시직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당시 한 달 월급은 2천 4백 원이었다. 그때 당시는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기로 국민저축시행령을 내려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각 직장과 학교, 사업체에 저축 장려를 복돋우고 있었다. 그가 하는 일은 목포 시내 각 직장과 초·중·고등학교의 월간 저축현황을 정리하여 통계내는 것이었다. 이렇게 통계된 자료는 전라남도, 중앙에 보고를 하고, 저축이 우수한 기관이나 공무원에게 표창을 주었다. 또한 연초나 연말에는 국민저축 행사를 하고, 저축 잘하는 어린이를 선발해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발표를 시키거나 상금을 주기도 했다. 그는 이러한 저축장려사무원 임시직을 맡으면서 시유재산 평가요원이 되었다. 시유재산 평가요원은 시의 재산 현황을 조사하고, 시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부담시키는 일이었다. 시의 재산은 주로 토지, 건물뿐이어서 토지에 대한 조사 분야가 있고, 건물에 대한 조사 분야가 있었다. 그가 담당

했던 내용은 공유 재산과 공영 재산, 위탁 재산을 구분하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 목포에 대홍수가 나서 연동에 위치한 제방이 무너져 약 20여 만 평 되는 토지가 침수되는 사건이 있었다. 우선 목포시는 제방 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였는데, 심지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을 동원하여 무너진 제방을 막았다. 이때 든 공사비용은 매우 컸다. 그러나 침수된 토지를 복구한 비용을 토지 소유자가 갚지 않자 목포시에서는 구상권을 행사해서 소송을 했고 결국 복구한 토지는 목포시 소유가 되었다. 그는 이렇게 시 소유가 된 토지에 누가 살고 있는지 조사를 하여 그들에게 세금 거두는 일을 하게 되었다.

“아무튼 간에 그렇게 생긴 시의 재산이 기십만 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위에서 사람들이 전부 살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들이 빈 땅 위에 집을 지은 것이 아니고, 왜정 때부터 해방이후로 사람들이 불어나면서, 땅 주인도 승낙을 했겠지만은 그렇게 들어와 살게 된 것을 시가 인수한 것이지요. 땅 주인이 목포시장으로 바뀌었으니 그곳에 땅세를 받으러 가는 겁니다. 이 땅의 몇 번지에 가서 누가 살고 있다는 것을 먼저 전부 조사를 했고, 과거 것은 내비두고, 금년 거만 토지 사용료나 임대료를 내라고 고지서를 내고,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갚다가 시 금고에 납부하면 괜찮은데 안 낸 사람이 더 많단 말이야. 가서 공무원들이 받아내는 수밖에 없어. 그것을 받아내려고 현지 출장가는데, 영수증 철을 가지고 가는데 영수증 철 한 권이 50건을 끊을 수 있는 것이야.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료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주는 절차였어요. 원본, 부분, 은행에 들어갈 것까지 석장이란 말이제. 미농지 밑에 묵사지를 대고 영수증을 써주는 절차로 일을 했지요. 나는 연동을 맡고, 탄 친구는 산정동을 맡고 어느 친구들은 죽교동을 맡고, 이런 식으로 시의 재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서 사용료를 거둬들이는 건데 그 성적은 물어볼 것도 없이 내가 일등이지. 보통 납기가 임박해서 출장 나가면 4, 50건 받는 것은 기본이고 60건, 70건, 80건까지 징수한 적도 있어. 8시 출근 전에 현장에 도착해서 거기서부터 하루 근무가 시작해. 그러면 하루에 많이 받을 때는 8, 90건, 100건 가까이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 눈에 들었고 나한테 중요한 업무를 맡기더라구요. 나중에는 땅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토지를 임대해주거나 사용 승낙해주는 업무를 맡게 되었지요. 근무처가 목포시청 세무과 관재계라는 곳이었습시다.”

그는 1965년 12월 전라남도가 시행하는 사제직 공무원 선발 시험에 합격해서 1966년 4월 1일 사서기보로 발령을 받게 된다. 1967년부터 총무과 시정계 근무를 시작으로 서무계, 감사계 등을 섭렵한 후 총무과에서 보직을 받아서 호적계장이 되었고, 회계과 관세계장에서 시정계장으로 승진한다. 그리고 사무관 보직 자리로 병사계에 있다가 사무관 시험에 합격하게 된다. 이후 민방위과장, 주



그림 3 목포시청 건설과 재직 시

택과장을 거쳐 새마을과장, 산업과장, 재무과장, 회계과장을 하다가 무안군청으로 옮겨 퇴직하게 된다. 그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함으로써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

“내가 주택과장으로 가게된 계기는 주택과가 대민업무가 많아서 민원이 많은 곳이라 백날 놔둬봤자 사고 안 낼 놈, 그럼 사람을 고르다 보니 나 같은 사람이 주택과장이 된 겁니다. 주택과장으로 있으면서 엄청난 유혹도 많았어요. 뭐 봐주라, 이것 좀 봐주라. 집까지 찾아와 금전봉투를 두고 가는 일도 많았습니다만 그때마다 오해 없이 반환했지요. 나는 어떤 방법으로 근무를 했냐면은 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검토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민원인에게 원하는 바를 해결해줄 수 있을까, 그 대신 법의 범위 내에서 처리해주지요. 위법 건물을 단속을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고, 불법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철거할 만한 것은 철거도 합니다만은 벽에 구멍을 낸다든지, 천장에 구멍을 낸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불법으로 지으면 검찰에다 고발을 했지만 아무튼 접수된 건축허가신청서는 가급적이면 해주는 방향으로 했고 직원들도 이런 방침에 잘 순응해주었습니다.”

그는 무안군청 재무과장을 끝으로 1995년 12월 31일 정년을 하였다. 그리고 목포문화원 사무국장

을 역임하면서 국역 『무안보첩』을 발간하게 된다. 『무안보첩』은 1897년(광무 1) 9월 22일부터 1909년(융희 3) 11월 8일까지 무안감리서(務安監理署)와 외부(外部)와의 내왕 공문서를 첩해 놓은 규장각 보관도서이다. 그는 이 책을 직접 편집하면서 목포 역사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다. 한문부터 독학하기 시작하여 직접 충무공 이순신 장군 비문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그의 노력으로 당시 목포대학교 사학과에서 재직 중이던 박찬승 교수의 도움을 받아 『무안보첩』을 2002년 3월에 발간할 수 있었다.

이렇듯 정기조는 대학시절을 제외하고 계속 목포에서 지내온 인물로, 그를 통해 일제 강점기 말부터 목포의 지역민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다. 특히 화약고대폭발사건과 같은 경우 구전으로만 내려올 뿐 어느 기록에도 없는 큰 사고였는데 그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었다. 또한 그는 목포에서의 30년간 공직생활을 통해 목포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직접 경험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는 올곧은 소신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인생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운 지식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고정서 | 목포대학교 도서관화연구원 보조연구원

제5절 목포 구도심을 누비던 청년들

1. 본정통의 골목대장, 권효(남, 1944년생)

권효는 영해동에서 나고 자라서 당시 목포의 중심이었던 이곳 본정통 일대의 해안로와 변화로 골목 곳곳을 살살이 기억하고 있다. 1944년 8월 15일 생으로 1년 뒤 첫돌이 되는 해에 해방을 맞이한다. 부친이 일본인이 운영하던 다다미공장의 직공으로 취직하면서 이곳 본정통에 자리잡게 되었다.

“갑자옥은 영해동 2가 1번지고, 우리집은 영해동 2가 8번지예요. 갑자옥 옆에 있던 우리집도 일본식 집이었는데 본래 목포 다다미집이었어요. 일제 때 다다미를 많이 썼잖아요. 그때는 목포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 때니까 집집마다 다다미를 깔았죠. 지금 이 집이 그 다다미 사장님 집이었어요. 하라구찌 상이라고 그 집에 우리 아버지가 직공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선친 대에는 남악리 오룡촌이라고 지금 도청 앞에 살았거든요. 거기서 4백 년을 살았다고 해요. 우리 큰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두 분이서 일본 사람 밑에 다다미직공으로 들어갔대요. 큰아버지가 권수남(1915년생)이고, 우리 아버지가 권성남(1919년생)인데 두 분이서 목포로 나와서 다다미직공이 된 거죠. 그때만 해도 한국 사람은 직공밖에 못하죠. 1945년 해방이 되니까 그 주인이 두 형제를 불렀대요. 큰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불러가지고 ‘너희가 이 가게를 운영을 해라. 3년 뒤에 다시 오마.’ 그랬는데 지금까지 못 오시고 끝났어요. 그 뒤로 이 집을 아버지가 물려받아서 살고 있는데 67년도에 불이 나서 다시 지었죠. 우리 아버지가 이 집에 직공으로 왔을 때는 새파란 청년이었죠. 큰아버지는 21살, 우리 아버지는 17살 정도 됐을 때죠.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자주 들었어요. 일하면서 지켜보니 생각보다 정직하고 배울 것이 많았대요. 대단한 점이 많은 건 분명해요.”

권효는 중앙국민학교를 다녔지만 화재로 인하여 잠시 유달국민학교에서 수업을 받은 적이 있었고 이 때 학교에 전시된 교육 자료를 보면서 특히 일본인들의 교육열에 대한 강한 집념을 느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조선 호랑이를 구입해 박제로 만들어 목포유달초등학교에 기증하여 일본인 후손들의 생생한 교육 자료로 쓰이도록 했던 일화가 있는데 바로 아버지가 다녔던 다다미공장의 사장인 하라구찌 쇼지로[原口庄次郎, 1878~1955]가 구입한 호랑이었다.⁰¹⁾

01) 1908년 영광 불갑산에서 뗏에 걸린 호랑이로 목포에 살던 다다미 공장주인 하라구찌가 3백50엔에 사서 기증한 것이다. 이 호랑이는 일본에 보내져 2백 엔에 표본을 만들어 이듬해부터 유달초등학교에 전시되었다. 유달초등학교는 구 목포공립심상소학교로 현재 본관은 사라지고 강당시설이 남아 있다. 박제된 호랑이는 1909년 기증되어 100년이 넘게 전시되고 있는 유달초등학교의 상징이자 보물이다.

“제가 일본 사람들이 참 훌륭하다는 점은 그 교육열에서 알아봤어요. 1908년에 영광 불갑산에서 잡힌 호랑이를 히라구찌가 2백 원에 샀대요. 당시 논 50마지기 값이라고 하드만요. 그분이 다시 2백 원을 들여서 동경 최고 박제사에 맡겼답니다. 총 4백 원을 들여서 호랑이를 박제로 만들어서 유달국민학교에 췌어요. 거기가 일제 때 산수국민학교라고 해서 일본 사람들 다니는 학교예요. 산수학교라고 불렸어요. 여기는 완전히 일본 사람들을 위한 일본 학교예요. 유달국민학교에는 이 세상에 나온 모든 동물표본이 다 있었어요. 복도에 짝악 전시가 되어 있고, 호랑이부터 하여튼 코끼리까지는 거짓말이고, 없는 것 없이 박제로 전시해놨어요. 호랑이도 한국산 호랑이로는 유일하죠. 자기 후손들에게 갈치느라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학교에 기증을 해요. 일본사람들 머리가 그래요. 공부하는 자료로서 그 비싼 돈을 들여서 박제를 해서 다 보여줬다는 거죠. 그렇게 교육열이 대단해요. 저는 중앙국민학교를 다녔는데 잠시 유달국민학교로 다닐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가서 직접 보고 깜짝 놀랐어요.”

권효는 화재로 인해 잠시 유달국민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동안 복도에 전시된 다양한 박제품들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 그는 목포중학교로 진학하였는데, 당시 ‘목중’에 입학한다는 것은 마을에서 잔치를 열 정도로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목중’을 거쳐 ‘목고’를 다니면 일명 엘리트코스에 속하는 것으로 자부심이 대단했다. 신안은 물론이고 해남, 완도, 진도 등 목포 인근 지역에서 공부 잘한다는 학생들이 목포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시험을 치르고,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여 합격하게 되면 마을에서는 큰 경사로 치며 잔치를 벌였다. 1970년 중학교 평준화 시책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목포중학교의 위력이 컸으며, 그 명성은 목포고등학교로 이어졌다.

“저는 중앙국민학교를 다녔는데 일학년 때 학교가 불이 나버렸어요. 우리가 1950년에 입학했는데 학교가 불이 나서 뿔뿔이 흩어져서 가을에 유달국민학교로 갔어요. 우리 중앙국민학교가 유달국민학교 건물을 몇 동을 빌렸어요. 그 당시는 전쟁통이라 고아들이 많았어요. 학생 수가 많아지니까 운동장에 천막 쳐놓고 공부를 했어요. 교실이 부족하니까. 공생원 애들도 여기로 왔는데, 공생원 원장의 큰아들이 윤기예요. 윤기가 목중·목고 동창인데, 지금은 공생원 재단 이사장이예요. 윤기가 학교 다닐 때 자기 엄마가 어떻게 키웠냐면, 자기 아들을 고아들 틈에 넣어서 똑같이 키워버렸어요. 아주 궤변이었어요. 그니까 윤기 어머니인 윤학자 여사가 대단한 거죠.

건물을 짓는 동안 유달초에서 3년 반을 다니다가 다시 중앙초로 가서 6학년을 마치고 졸업했죠. 그 당시 목중 1등부터 10등 가운데 아홉 명이 우리 중앙국민학교 출신이라. 이윤철부터해서 홍성량, 이을봉, 우리반 애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옛날에 목중 들어갔다 하면 돼지를 잡아서 동네잔치를 했어요. 화원, 금호, 완도도 가보면 그 때 목중 들어갔다고 하면, 돼지를 잡아서 동네잔치를 할 정도로 유

명한 학교였어요. 이 근방 시골에서는 목중 들어갔다 하든 알아주고 잔치하고 그랬죠.”

권효가 거주했던 영해동 일대는 일명 목포의 본정통(本町通) 거리, 일본인들이 ‘혼마치’라고 불렀던 곳이다. 혼마치는 해방 후 중앙동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혼마치는 일제 강점기 옛 ‘동아부인상회’(화신백화점의 전신)이자 현재 ‘김영자 아트홀’⁰²⁾에서부터 현 농협 해안동 지점까지, 그리고 갑자옥 모자점에서 옛 송촌문구점까지를 말한다. 이 거리에 양품점, 자전거점, 모자점 등 상점들이 들어서 변화가를 이루었다. 권효는 이 도로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전라남도 최초의 신설도로로 ‘일번도로’라 불렸으며, 당시 이 도로를 중심으로 목포를 움직였던 거물급 인사들의 관사와 주요 관청들이 모여 있었으며 금융회사들도 즐비했었다고 말한다.

“그전에 보면 이쪽으로 서울쌀집 자리가 옛날 유달호텔 자리인데, 독립운동 했던 격변기에 조병옥⁰³⁾ 씨도 오면 거기서 잤어. 거기가 목포에서 유일한 호텔이었어요. 유달국민학교 앞에서 시작해서 영란 횃집 앞으로 쪽 와서 유달호텔 모퉁이 이 길을 돌아서 대한통운이었고, 김영자 미술관이라고 옛날 동아부인상회 있던 자리, 그 길이 전라남도에서 제1번으로 아스팔트 포장된 도로예요. 신작로 일번도로예요. 이 길이 전남에서 최초로 아스팔트로 만들었다 해서 ‘일번로’예요. 1915년 무렵에 만들어진 도로죠. 지금은 도로명이 변화로예요.

아까 유달호텔 자리는 일본사람들이 혼마치라고 해서 중앙통, 여기가 가장 변화가였지. 여기가 선창 쪽으로 해안로인데, 나중에 박정희 시대에는 유달호텔이 없어지고 유달국민학교 뒤편에 가면 유림호텔이라고 있었어요. 유림호텔이 지금은 초원아파트(초원샤르망플러스)고, 유림호텔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유숙했어요. 바로 옆이 목포시장 관사죠. 옛날 시청자리가 목포문화원, 박화성문학기념관⁰⁴⁾ 자리였어요. 시청이 근대역사관 이 자리에 있다가 옮겨갔어요. 거기 언덕배기에 김준형 씨라고 행남 사 사장댁이 있었고, 바로 그 뒤에 경찰서장 관사가 있었고, 그 옆에 한국은행장이 살았고, 이훈동 씨 집 있고, 좋은 집들하고 관사들은 지금 현재 근대역사관 언덕에 다 있었어요.

은행들도 여기 다 있었죠. 문익주 씨 인수당 앞에 가면 제일은행, 국민은행, 한일은행, 호남은행,

02) 일제 강점기 동아부인상회 목포지점으로 사용되었던 약 100년 정도 된 건물로 2층 서양식 구조로 지어졌으며 화신백화점, 조선운수목포지점과 대한통운을 거쳐 ‘김영자 아트홀’로 사용되었다. 동아부인상회는 일제 강점기 때 설립했던 주식회사 겸 협동조합으로, 최남이 인수한 후 전국 굴지의 유통점으로 성장시켰으며, 1920년대 말 전남에도 광주를 비롯해 목포, 순천, 여수 등지에 지점들이 문을 열었다. 그러나 1932년 최남이 화신상회(박흥식)와 동일한 동아백화점을 개설했다가, 결국 6개월만에 경영권 일체를 화신상회에 양도하게 되었다.

03) 조병옥(1894~1960)은 일제 강점기 때 활동한 독립운동가 겸 정치가로 한민회·흥사단 등의 단체에 참여하여 독립운동을 했다.

04) 현재 목포근대역사관은 1907년까지 일본영사관으로 사용되었고, 1914년에 목포부청사, 1974년부터 목포시립도서관, 1990년부터는 목포문화원으로 사용되었으며, 2014년 목포근대역사관으로 바뀌었다. 내부에 건립되었던 박화성문학기념관은 현재 목포문학관으로 이관되었다.

한국은행이 있었죠. 세계적으로 바다 속으로 들어가도 안전하다는 금고가 있다는 한국은행도 거기에 있었어요.

여기 쪽 내려가면 유달 앞으로 오면 사거리에 ‘제일아이스캐끼’집이 있어. 거기 주인이 누구냐면 김옥심 씨라고 남편이 허장강이고 아들이 허준호여. 이쪽 카부에는 ‘중앙아이스캐끼’라고 문제호라고 목중 친구집이고요. 문정원의 아버지가 무엇을 했냐면 ‘오거리다방’을 했어요. 그 유명한 오거리 다방. 조금 더 내려오면 이 옆에가 동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살았거든요. 제갈현룡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돌아가셨고 김대중 대통령도 여기 골목에 살았거든요. 김대중 씨가 제갈현룡 씨하고 친척이 돼요. 동광고등학교가 홍일고등학교 전신이거든요. 나는 좀 힘들게 살었지만, 이 근방에 사는 친구들은 나하고 생활수준이 틀려.”

권효의 기억대로 영해동 일대는 목포의 본정통, 즉 중앙통으로서 목포의 중요 관청들과 금융기관, 상업시설들이 즐비하게 자리했으며 당시 목포를 주름잡던 지역 유지들이 모여 살았던 곳으로 유명하다.

“우리 집 옆에 태원여객 이장용 씨라고 살았어요. 이장용 씨가 우리 아버지하고 엄청 친했는데 돌아가셨다니까 제일 슬퍼하더만. 이 옆에 포도당이라고 과자집이 있었고, 그 건너편에 이지양행이 있었어요. 우리 집하고 붙어 있는 집은 오승희라고 유명한 무용가가 살았어요. 목여고 14회 졸업생이고 배재학원 무용과 교수였는데 목여고 최진열 선생님이 무용을 가르쳤죠. 북한은 최승희, 남한은 오승희라고 했어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전국대회에서 우승도 한 유명한 무용가였어요. 그 옆으로 상공회의소 회장이었던 김호남 씨가 살았어요. 그래서 호남이네 어머니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겹나게 친했어요.

목포문화원(구 조흥은행 건물) 건너편에는 ‘서방사선과’라고 있었어요. 서한태 씨는 목포의 상징적인 분이죠. 환경운동에 앞장서신 분이고 목고 출신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때는 배가 많이 아프면 내과를 가는 것이 아니라 엑스레이를 찍으러 갔어요. 아침을 굶고 방사선과로 가요. 요새는 어디가 그런 곳이 있겠어요. 옛날에는 의술이 그랬으니까. 지금 환경병원 자리 있죠. 오거리 그쪽으로 해서 목포에 병원이 많았어요. ‘사안과’라든지 ‘신신치과’, ‘노소아과’도 있었고 유명한 병원들이 다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길을 혼마치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이 중요한 길이 빈집이 겹나 많아요. 서산동 쪽으로는 사쿠라마치라고 하고. 사쿠라마치 쪽은 기생집이나 식당이 있었고, 여기는 요정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노동병원 자리가 술집, 요정이 많았어요. 저쪽으로 쪽 가면 옆으로 목포장유집(장공장)하고 전남석유집이 있었는데, 전남석유에서 10미터도 안가서 유명한 골목이 있어요. 휘파리골목이라고

사람 사고팔던 그런 데였어. 호객을 휘파리라고 하거든. 그 당시 선창가에 아가씨들이 5백 명도 더 있었을 거예요.”

사쿠라마치[櫻町]는 지금의 금화동으로 현재 여객선터미널 뒤편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 일대로 기생집이 많았다면, 혼마치[本町通]라고 불리던 영해동 일대에는 일본인들이 이용하던 요정집이 많았다. 일제 강점기 때 유곽거리로 현해루, 삼교루, 명월루 등 요정들이 여럿 모여 있었다. 지금도 그때 지어진 일본식 가옥들이 일부 남아있다.

권효의 어린 시절 주 무대였던 본정통 일대에는 일제 강점기부터 이어져 온 중요 관청들과 관사들이 위치하고, 목포 지역의 대표기업과 상업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었음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그 자제 및 후손들이 대부분 목포중학교와 목포고등학교, 목포여중과 목포여고를 졸업하고 가업을 이어받고 당시의 목포 도심을 주름잡으며 정치·사회와 경제, 문학과 예술을 논하며 한 시대를 풍미했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은 오거리와 ‘차 없는 거리’에 상가들 빈 곳이 많아요. 오거리하면 전국에서 다 알아줄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 명성이 사라졌죠. 전에는 이 차 없는 거리에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사람들 어깨가 부딪쳐서 못 걸어갈 정도로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신도심이 생기고 구도심이 된 뒤로 북적이던 사람이 다 떠났죠. 월세 내기도 힘들니까. 핸드폰 가게나 옷가게도 전부 하당으로 남악으로 옮겨가버렸어요. 대형마트 생기고, 아울렛까지 생기니 더 어렵죠.”

하당 및 남악 등이 개발되면서 목포의 중심이 신도심 쪽으로 옮겨갔지만 권효는 목포근대역사를 간직한 이곳 원도심을 떠나지 않고 지키려고 한다. 이곳 목포항과 목포역, 그리고 오거리에서 보냈던 아직도 눈에 밝힐 듯 선한 그 시절 친구들과의 젊은 날의 추억들은 목포의 또 다른 역사이자 문화이기 때문이다.

2. 청풍회를 이끄는 문병기(남, 1936년생)

‘청풍회(淸風會)’는 정의롭고 바르게 살자는 목표를 두고 창립을 준비 중인 목포의 시민단체이다. 문병기가 늦은 나이에 시민단체를 꾸리려는 이유는 목포의 미래를 위해서이다. 과거 젊은 시절 운동선수로서 목포의 학생들을 대표했다면, 이제 후배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술선수범하자는 취지에서 단체를 조직하게 되었다. 해



그림 1 청풍회 사무실에서 목포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비전을 소개하는 문병기 회장

방 이후부터 1980년대 민주화운동 바람이 불 때까지 목포의 정치와 주먹세계에 대한 기억을 털어놓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깡패조직과 달리 이들은 정치적 격변 속에서 정의를 위해 앞장섰음을 분명히 밝혔다.

“저는 1936년생이고, 북교국민학교 40회, 목포중학교 6회, 목포고등학교 4회, 전남대학교 상과대학 4회를 졸업했어요. 일제 강점기의 기억은 어렵듯이 기억이 있죠. 그때에 우리 할아버지가 청계면의 대지주였어요. 다행히 해방되고 좌우익 갈등은 크게 없었고 지주집안이긴 했지만 해코지를 당하지는 않았어요. 청계에서 태어나서 목포로 왔어요. 도림리에서 무안 쪽으로 가다보면 삼거리 나와요. 청계국민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3학년까지 다녔어요. 해방되서 목포로 왔어요. 북교국민학교로 전학 왔죠. 그때 북교가 명문학교였어요. 그 당시에 촌에서 목포로 이사오면서 보니까 이층집 하나 뿐입니다. 대성동사무소 옆이네요.

제가 운동을 했어요. 목포시유도협회 회장을 했고, 유도가 공인 6단이에요. 6단이면 호띠⁰⁵⁾라고 해서 빨강고 흰색이 겹친 띠를 차요. 6단부터는 군인으로 말하면 스타예요. 사범에 해당하죠. 82년 유도협회 회장을 내놓고 목포의료보험공단 창립을 추진했어요. 김영호 씨라는 언론계에 있던 원로하고, 서한태 박사하고 추진했죠.

가만히 보면 싸움 잘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결국 거기서 그 주먹생활로 들어가더라고요. 목포가 서

05) 빨간색과 흰색이 20cm 간격으로 번갈아 칠해져 있는 띠로, 이를 전문용어로 용띠(龍-, Dragon Belt)라고 한다.

산파가 있고, 오거리파, 수노아파 있고 또 문명당파, 새마을파 이렇게 있었거든요. 조직 이름은 보통 그 지역 이름을 따요. 그 다방하고 빵집 중심으로 계파들이 모였거든. 오거리, 뒷개, 문명당제과점, 새마을다방 그런 데를 중심으로 끼리끼리 모여서 파를 만들었죠. 서방파도 결국 목포예요. 오거리파가 서방파를 지었고, 서방파가 서울로 가서 주먹세계를 주름잡았죠. 그래서 그때 여기 사람들이 서울로 가서 하숙할라고 하면 주인이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봐서 목포라고 하면 방이 없다고 했습니다. 전설 같은 얘기죠. 목포에는 깡패만 산줄 알고 있다니까요.

내 제자 중에 김진필이라고 있어요. 김영삼이 왔을 때 먹물 뿌렸다는 자가 그자예요.⁰⁶⁾ 김대중하고 김영삼하고 야당 대통령 후보 경합을 할 때 치열했거든요. 김대중이 수세에 몰려있을 때 김영삼이 광주에 유세하러 왔어요. 민주당 후보로. 김영삼 후보가 광주 미조장에서 잠깐 쉬었다가 손 씻고 유세장으로 갈려고 문밖으로 나올 때 김진필이가 먹물을 뿌려버렸어. 김진필이도 목포에서 깡패 주먹세계에 있었는데 원래는 유도를 했던 애거든. 김진필은 키도 크고 잘생기고 팔 척이었어요.”

목포가 개항되면서 일본인에 의해 개발이 되기 시작하자 전국 각지에서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다. 해방과 6·25전쟁 등을 거치며 사회가 어수선한 틈을 타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폭력조직이 기승을 부리게 되었다. 목포항과 목포역을 중심으로 상권을 움직이는 조직들은 운동 선수 출신을 영입하여 세를 불리고 힘을 과시하게 된다.

“1897년에 개항이 돼서 일본 놈들이 들어오면서 호남선 끝자락이지만 목포에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대요. 일제가 목포에 개발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권에 관심을 두고 사람들이 뭉치면서 자연히 깡패조직들이 만들어졌어요. 대표적인 예가 선창에서 짐 나르고 하는 갈매기, 항운노조, 악명이 높았어요. 유명한 쓰리꾼도 있어요. 도둑놈 박가라고 전국적으로 유명하죠. 주먹이나 깡패 조직의 근간이었어요. 목포 이미지가 정말 안 좋았죠. 해남 물감자라고 하고, 풋나락, 촌놈들하고 목포 선창에 오면 이미지가 배려요. 선창에 내리면 길게 휘파리골목이라고 사창가가 있었는데, 삼학도가 개발되면서 사창이 공창으로 바뀌졌어요. 삼학도 큰 섬 언덕배기에 옐로우 하우스 1호부터 20 몇 호까지 쭉 있었어요. 그런 데까지 전부 주먹세계의 조직들이 침투해있었어요. 도둑놈 박가니, 갈매기페니, 사창가니 해서 호남선 끝자락인 목포가 알려졌죠. 그리고 6·25전쟁 때 기차를 타고 호남선 끝으로 와서 목포에다가 고아들을 다 퍼놓고 갔다고 해요. 그래서 목포공생원이

06) 1974년 김영삼 신민당 총재에게 먹물을 던진 혐의로 당시 30세였던 김진필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중앙일보』 1974. 12. 21.).

크게 되었다고 하드만요.”

1930년대 후반 목포의 전설적인 주먹으로 유명한 해학기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목포 출신으로 국제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원래 YMCA에서 복싱을 연마했으며 한때 만주 웰터급 챔피언을 역임했던 복싱 경력을 갖고 있는 관록있는 싸움꾼으로, 웬만한 상대는 주먹 한방에 KO시켰다고 한다. 1930년대 초반부터 YMCA에 들어가 운동을 시작했던 해학기는 강철같은 주먹을 휘두르면서 수많은 경쟁자들을 쓰러뜨리고, YMCA의 학생패 두목으로 우뚝 솟았던 인물이다.

“그전에 더 유명한 전설적인 주먹이 있어요. 해학기라고 국제적으로 어깨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해학기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설적인 주먹이었제. 앉아서 이단옆차기를 하는 그런 기술을 가졌어요. 우리 사촌 형님이 저보다 10살 위인데, 살아계시면 92살이에요. 해학기 씨가 사촌 형보다 대여섯 살 더 위였다고 하더라구요. 그 형님이 해학기 씨를 많이 모셨어요. 말 그대로 주먹세계의 원조라고 할까. 해학기 씨는 목포 주먹의 원조였어요.

해학기가 서울로 일찍 상경해서 YMCA 학생패의 오야봉이었어요. YMCA에서 운동개나 한다는 학생들이 해학기의 강철같은 펀치에 추풍낙엽처럼 쓰러졌거든. 근데 하루는 새로운 도전자가 나타났는데, 신마적이라고 해학기하고 두목자리를 놓고 대혈전이 벌어졌어요. 근데 신마적은 다른 상대들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힘이 좋았거든. 해학기의 강철같은 주먹공격을 한 손바닥으로 막고, 그대로 집어던졌다고 하드만요. 결국 해학기의 강펀치가 졌지.

1955년경에 목포에 소문이 퍼지기를 중국 상해에서 18대 1로 대결한 싸움꾼이 목포에 왔다고 그렸어요. 그 사람은 물기도 하고 박치기도 하고 어깨죽지까지 올라와서 발로 차는데 백전백승이다 그래요. 그 사람이 해학기 씨예요. 북교동 성당 근처가 자기 집이었는데. 원래 고향은 어딘지 몰라도 상해에 있다가 중년 때 목포 와서, 목포에서 돌아가셨어요.

코름방제과 앞에 새마을다방이 있었는데 목포에서 제일 컸죠. 해학기 본거지가 새마을다방이에요. 궁정다방, 용다방 등 주로 다방이 조직들 아지트로 이용됐죠. 목포가 개항되면서 개발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래서 그 아래 조직들이 생겨났죠. 근데 목포는 칼싸움이나 패싸움은 없었어요. 주로 유도, 태권도, 검도, 씨름, 이렇게 운동하는 애들이 조직을 짜서 같이 어울렸어요. 내 경우는 그렸어요. 그래도 옛날의 주먹세계는 정의로웠어요. 이유 없이 주먹을 쓰는 게 아니고, 정의로운 일에 썼죠. 그…….”

목포의 전설적인 주먹이었던 해학기의 만주에서의 활동 등에서도 비록 뒷골목을 주름잡았지만 의

리와 정의로움을 간직했음을 알 수 있다. 문병기는 당시 목포의 시대상과 사회상은 어쩔 수 없이 주먹세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조직의 힘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운동선수 출신들이 주먹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고, 다만 운동선수 출신 이들을 만큼 정의로움을 추구했다.

“저도 운동을 했는데 제가 목포고등학교 4회 축구, 유도 주장이었어요. 그 당시는 체육선생님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제가 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전남대학교 4회 졸업생인데, 3학년인 1958년도에 어전대회라고 해서 각 도별로 경찰국, 유도, 검도, 태권도 3개를 대통령 앞에서 시합을 합니다. 그 때 유도 3단이었어요. 셋덩어리도 꺾을 때죠. 전남대 3학년 때 특채로 경사 발령을 받아요. 경사 신분증 받아서 경찰복장 즉석으로 해서 강력반 소속이 되요. 지금 광주 도청 앞 상무관에서 하루 종일 유도만 해요. 그리고 극장에 가서 점검하고 다니죠. 그 당시 전라남도 경찰국장이 백두산호랑이라고 김정훈 전라남도 경찰국장이었어요. 그때 깡패나, 운동선수나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정식은 아니지만 경사 신분증을 받아놓으니까 잘못된 사람을 지도하고 취조하고 잡는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깡패로 가면 저렇게 되겠구나 해서 그때부터 정신적으로 스스로 마음을 잡아서 지도자 길로 살아야겠다 한 거예요.

지도자 길로 해서 유도를 주로 많이 가르쳤죠. 그 당시에는 내가 유도를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목포에 유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나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3~4단 되어서 학생들하고 일반인들을 많이 가르쳤죠. 그 길을 가면 안되겠다 해서 순수한 스포츠맨으로 돌아서고, 목포고 체육교사로 발령났어요. 유도지도자로 계속 쪽 하고, 훈장, 대통령표창도 받았어요.

우리 청풍회도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정의롭게 사는 것이 목표예요. 크게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건강한 조국이 되려면 정직하고 정의롭고 진실되게 살아야한다는 뜻이죠. 모두가 남에게 피해 안주면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청풍회가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보통 시민운동은 조직이 작거든요. 이 조직은 내가 평생 생각해서 시작한 것이고, 2년 전부터 계획해서 사무실 오픈은 2016년 8월부터 했어요. 길에다 불법주차 하지 말고, 무단횡단이나 고성방가 하지 말고, 학생들은 폭력 쓰지 말고 술, 담배 하지 말고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바르게살기 운동본부라고 있어요. 이것은 관변단체예요. 우리는 정의롭게 사는 게 목표이고, 이것을 목포에서부터 시작하자 그거예요. 정치하고 경제는 손 안덜 겁니다. 철저히 우리끼리 해나가야죠.”

결국 문병기는 후세대 양성을 위해 교육자의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최근 목포 시민운동 활동을 위해 ‘청풍회’를 조직하여 목포 시민들이 바르고 정의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서려고 한다. 목포의 위상을 높이고 과거 6대 도시로서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시민활동을 이끌어 나가고자 계획하고

있다. 1960년대 목포의 구도심을 누비고 뒷골목을 주름잡던 목포의 청년들이 칠순과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이제 목포의 비전과 발전을 위해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경아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연구위원

제6절 목포의 역사와 시간을 전하는 사람들

-목포 문화관광해설사, 조대형(남, 1952년생)-

세계의 열강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열을 올리던 19세기 말인 1897년 10월 1일 개항을 통해 근대도시로 태어난 목포. 시기가 시기였던지라 목포의 개항에 대해 일본에 의해 이루어진 강제적인 개항으로 흔히들 알고 있으나 목포의 개항은 당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던 조선정부에 의한 자주적인 개항이었다. 그러나 목포가 급속한 성장을 통해 전국 3대 항 6대 도시로 발전하는 데는 일본을 위한 수탈기지로 활용되었다는 것에서 기인하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화무십일홍이라 했던가? 광복 이후 정부의 개발정책에서 소외된 목포는 예전의 영화만 남은 조용하고 작은 도시로 남았다. 그러나 돌고 도는 유행처럼, 몇 년 전부터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 인천, 대구, 군산 등 다수의 지자체가 자신들이 보유한 근대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주목을 받으면서 전국의 지자체들이 근대문화유산을 개발하여 관광자원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원도심 지역 자체가 근대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목포 역시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1998년 ‘한국 방문의 해’ 사업 추진이 결정된 이후 2000년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2001년 ‘한국방문의 해’ 사업을 추진하며 ‘문화유산해설사’라는 명칭으로 도입되었고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운영되었다. 당초에는 이벤트 기간에 자원봉사활동을 중심으로 한 제도였으나 2005년 문화유산해설사의 활동영역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면서 ‘문화관광해설사’로 변경되었고 2011년까지 문화관광해설사의 정의와 운영에 대한 법제화 과정을 거쳐 현재와 같은 형태로 정착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2011)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 “해당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 정의할 수 있으며, 관광현장에서 폭넓은 지식정보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터(communicator)인 동시에, 관광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는 에듀테이너(edutainer)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위의 설명에 따르면 문화관광해설사는 기본적인 해설능력 이외에도 관광객과의 소통능력, 유머감각, 거기에 교육자로서의 능력까지 갖춘 해당지역의 전문가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에 따라 관광객의 지역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 호감, 만족도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 관광의 최일선에 있는 홍보대사로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목포에도 유달산 등 지역의 주요관광지와 유적지를 소개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을 추진하면서 ‘골목길 해설사’가 육성되어 활동하는 등 그 영역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목포에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을 하고 있는 조대형(남, 66세)의 인터뷰를 통해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1. 목포와 인연의 시작

조대형은 1952년 전북 남원 출생으로 1977년 목포로 이주하여 올해로 40년째 목포에서 생활하고 있는 평범한 가장으로 2006년부터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남원에서 태어나 목포에 정착하기까지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으나 조대형은 당시 목포에 사는 친척과 고등학교를 다니던 장형의 영향과 더불어 초등학교 시절 즐겨 부르던 「목포의 눈물」이라는 노래에서부터 목포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저희 친족되시는 분이 목포에서 사업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인연으로 목포로 왔던 것이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목포란 도시를 와보지는…… 오기 전에…… 제가 항상 목포란 도시를 마음 한구석에 담아두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은 저희 장형이 목포 여기 저…… 구름다리에서 어…… 목포에서 고등학교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1960년대 초였겠죠? 그때부터 목포라는 도시가 우리 집안하고는 그런 남다른 인연이 있는 도시고 또 제가 그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 어떤 그…… 예술을 좋아하다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목포의 눈물」이라는 노래를 그때 그 내가 습득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유행가라고 해서 못 부르게 했지만은 정말로 구성지게 아조 「목포의 눈물」을 부르고 그 노래가 지금도…… 그래서 야…… 목포가 그래…… 우리 장형이 목포에서 생활을 했고 또 그 뭘니까, 내가 또 목포의 눈물 노래 좋아하고 또 삼학소주란 것도 그때 삼학소주가 한 80프로 차지했거든 점유율이…… 그러니까 그때도 전국적인 브랜드, 목포의 삼학소주 이런 것 때문에 목포를 동경하게 됐다. 그래서 내가 군을 제대하고 서울로 갈 것이냐 목포로 갈 것이냐, 아, 목포란 도시가 뭔가 매력에 끌렸다 해서 목포로 와서 정착하게 됐는데 결론은 아 정말로 매력 있는 도시다.”

어릴 적의 기억이 강렬하게 남았기 때문일까? 조대형은 목포의 매력에 빠져 목포를 소개하는 일에 너무도 보람을 느끼고 만약에 목포가 아닌 다른 곳에 살았더라면 해설사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할 정도로 문화관광해설사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내가 해설사를 하는 것은 내가 먼저 감동을 받았고 목포라고 하는 이 도시의 정체성…… 역사성을 너무나도 자랑할 만한 것을 느꼈기 때문에 나 혼자 이걸 알고 나 혼자 이거 이렇게 막 있기로는 너무나 안타깝다. ‘여러분 목포가 이런 도시요’ 라고 해서 목포를 방문하는 타지 사람들에게 목포를 소위 말하는 PR, 홍보하는 것이 내가 느껴보지 못했다면은 과연 이렇게 내가 홍보가 되겠는가. ‘내가 좋은니까 남도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도 해설사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내 일생에 가장 보람된 일……. 특히 만약에 내가 남원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다른 도시도 해설사가 있는데 거기에 있었다면 내가 해설사가 되었겠는가. 나는 목포란 도시의 매력에 빠졌다.”

삶을 살면서 수없이 마주하는 기로에서 조대형이 목포를 선택하게 만든 매력은 전근대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역사의 흐름 속에 중심지였던 역사적 배경과 아직까지 그 시절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풍경이 많이 남아있어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현장으로서 목포만큼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며 이는 조대형이 관광객들에게 해설을 하는 과정에서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우리가 반만년 민족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36년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일본이 됐지 않느냐~! 다시 되찾았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민족사가 쪽쪽쪽쪽 이어져 나온다. 우리가 또 언제 그런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새롭게…… 역사의식이 희미해져가는 이 세태 속에 역사의식, 새롭게 하는 교육의 장소에 서서 나는 현장에서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목포의 홍보와 더불어서 근대사의 의미와 가치를, 두 마리 토끼를 십어줌으로 해서 나는 의지와 사명……, 이게 보람과 열정으로 다가온다. 요거예요, 지금.”

2. 문화관광해설사를 시작하다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과정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해설사 스스로가 역사에 대해 관심이 많고 끊임없이 연구하며 타인에게 안내하는 일에 대해 재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격적으로 해설사 활동을 시작하기 이전에도 누군가 길을 물으면 하던 일을 멈추고 그곳까지 안내를 하고 그에 대해 상대방이 기쁨을 느끼는 것을 보고 희열을 느꼈다는 조대형은 이미 해설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제가 원래 역사를 좋아하고 문화를 좋아하고 또 한 가지 그 뭐랄까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여행 갔을 때에 안내를 해주는 것이 참 답답할 때가 있었는데 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니까 설명해주

는 것이……, 일례로 해설사하기 전에 목포에 찾아와서 옛날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잖아요. 차들이 목포에 인자 휴가 와가지고 유달산이 어딴니까? 삼학도는? 물어봐요. 하면은 저는 심장이 뛰어요. 거짓말 아니여 지금……. 해서 내 일을, 내가 하는 일을 스톱을 시키고…… 따라 오십쇼~ 예를 들어서 터미널에서 그 사람이 나한테 물었다면 내가 앞장서서 유달산까지 데려다 줘. 이게 유달산이요. 이렇게 안내를 해 줘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그 좋아하는 모습 아, 나로 하여금 저 사람들이 내 길잡이로 하여금 저 사람들에게 기쁨이 다가왔고 저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쉽게 풀렸다면은 이걸 희열이예요 이것은.. 나는 그걸 생각하거든.”

조대형은 단순히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해주고 그것에 보람을 느끼며 생활을 하고 있었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련회를 간다거나 모임에서 여행을 다니는 중에 버스 안에서 사람들과 어우러져 사회를 보는 것을 즐기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당신은 해설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정보도 많지 않았고 해설사에 관심도 없었으나 전남남도에서 문화관광해설사를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지인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해설사로서 활동하는 것이 본인의 운명임을 느끼고 결국 해설사 모집에 지원하여 해설사로 활동하게 되었다.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아 당신이 해설사 안내 역할을 하시면 당신은 적격이다.’라고 주위 사람들이 봐가지고 지금 그 목포 어디서…… 전남도에서…… 해설…… 그때는 해설가예요. 해설가가 있고 해설사가 있고 두 개가 있거든. 해설가를 양성한다고 하더라 당신 하면은 정말로 적성에 맞겠다. 한번 해봐라 라고 주변에서 자꾸 권유가 있었어요. 나는 그런 정보도 없었고 나는 단순히 해설가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없었는데……,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아, 맞다 이게 나의 운명이고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해서 내가 살고 있는 내 고장 목포를 소개할 수 있는 정말로 보다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고 입체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것이…… 단순히 물어보고 단순히 의견을 해 본 사람한테 해 준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목포를 알리면은 얼마만큼 목포의 숨은 매력을 그 사람들이 알아갔을 때에 야.. 목포라고 하는 어떤 브랜드 가치가 뜨지 않겠는가? 그러면 나는 대성공이네?”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해설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문화관광해설사는 몇 번의 제도적 변화를 거쳐 현재와 같은 형태로 정착이 되었지만 해설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은 대략 ‘이론교육→필기평가→시나리오 작성→실기평가’의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곧바로 해설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차례의 실습과정을 거쳐 현장으로 배치되어 활동하게 된다. 보

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해설사가 되기 위한 시험의 문 앞에서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도 많아서 해설사가 되기란 생각처럼 쉽지 않다.

조대형은 해설사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실기평가에서 다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떨리고 부담스러워 하는 가운데도 웬지 모를 자신감에 자청하여 실기평가를 받았는데 아마도 예전부터 목포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누군가 목포에 대해 물어보면 가던 길을 멈추고 안내를 해줄 만큼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평가에서 자신감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목포시에서 합격자를 불러놓고 또 나름대로 대개 인자 목포에 맞게 테스트 하는데……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한 뭐랄까, 참이니까 떨리고 부담스러운디 ‘아 합시다. 나부터 시켜주쇼.’ 나는 자신을 했어. 이상하게 자신이 들더라고. 정말 잘할 거 같애. 그렇게 해서 해설가로 입문이 됐고.”

3. 문화관광해설사의 일상

목포에서 활동하는 해설사는 23명으로 ‘해설사협회’라는 자치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 해설사협회의 회장 임기는 1년이며 임기 종료시점에 맞춰 해설사들이 돌아가면서 회장을 맡는다. 해설사들의 모든 활동은 해설사협회를 통해 이뤄진다고 볼 수 있으며, 주로 해설사들의 근무에 따른 로테이션(rotation) 관리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대표 업무라고 할 수 있는 문화관광해설은 관광객이 시청으로 해설사를 요청하면 시청에서 이를 다시 해설사협회로 전달하고 협회에서 해설사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씨티투어나 관광안내소에서 안내하는 일은 해설사 로테이션을 통해 정해진 시간에 근무한다.

“시에서 막 전화가 올 거 아닙니까. 인천에서 누가 오고 어느 대학에서 교수하고 학생들이 온다. 하문 인자 전화 받아가지고 우리 해설사협회로……. 쉽게 말해서 협회라고 해야겠제~ 우리 모임한테 위임했으니까. 전화가 와.. ‘몇 월 며칠 날 누가 누가 온다 합니다.’하면은 우리 해설사 집행부에서 그 걸 가지고, 우리가 공평하게 해야 되니까 ‘이번에 조 선생님~ 강남에서 30명이 온다 합니다. 미팅장소는 유달산 1시로 가시면 됩니다. 사전에 소통하십시오.’하면 그 전화번호 내가 이렇게 알아가고 성향 파악하고 ‘몇 시에 옵니까?’ 하고 거기하고 시간을 알아가고 딱 만나서 마무리해서 보내주고…….”

대체적으로 관광객을 안내하는 업무는 해설사들의 로테이션으로 운영되나 예외적인 경우로 중요한 인사를 안내를 해야한다거나 관광객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 해설사를 지정해서 운

영하기도 한다.

“VIP가 왔다. 정말 근디…… 우리가 해설사 인증 받았다고 해서 해설사 실력이라 할까? 능력이…… 이렇게 똑같은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차등이 있거든 그러믄은 경험도 없고 별로 인자, 떨어진 사람한테 상당하니 비중 있는 사람 와가고 목포를 잘못 소개해버리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여.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시에서 별도로 ‘아, 이리이러한 팀은 누구한테 시키는 게 낫겠다.’ 그러한 경향이 있고 나머지는 그냥 다 위임해버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의뢰자, 관광객들이 전혀 목포를 침 온 사람은 해설사가 누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해설 잘한 사람 해주십시오~ 그냥 그럴 거 아닙니까. 근디 그 한번 왔다 간 사람들…… 아 목포 갔더니 좋더라. 또 와야겠다. 그때 해설사 김 아무개가 했더니 너무 잘하더라. 시 전화해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 필요없요. 몇 년 전에, 몇 개월 전에 김 아무개란 사람한테 해설을 들었는데 너무 좋으니까 나는 그 사람을 매치를 시켜주십시오 그런 경우가 있어요. 허면은 쉽게 말해서 수요자 원칙. 그 관광객들이 원하는 사람한테 묶어주는 것, 지명했을 때에 그렇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제.”

비록 해설사가 되기 위한 인증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각 해설사별로 지식, 경험 등에서 발생하는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해설사의 능력이 똑같은 수는 없다. 그렇기에 해설사들도 정기적으로 질서와 규정을 정비하고 답사 등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고 해설을 실습하는 모임을 통해 해설사들의 능력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가 2개월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 우리들 자체적으로 질서라든가 규정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하게, 때로는 우리가 어떤 답사를 해가지고 서로 알고 있는 것들을 공유를 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인자 거…… ‘당신은 강사가 되십시오’ 해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다고 백프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도 안 온 사람은 어쩔 수 없고, 뜻 있는 사람은 가가지고, 현장에 가가지고 물어 봤을 때에 이것은 이렇게 됐고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인자 그렇게 했을 때에 다른 사람이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서로 알 수 있는 그런 뭐 그런거…….”

앞서 이야기 했듯이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현장에서 폭넓은 지식정보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터(전달자)인 동시에, 관광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는 에듀테이너(교육과 연예인의 합성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목포 관광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로서 관광객들에게 수준 높은 해설을 하기 위한 해설사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노력도 쉬지 않고 계속된다. 특히 조

대형은 만약에 타 지역에 가더라도 해설할 일이 생기면 해설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답사를 가거나 여행을 갔을 때에 그 지역의 해설사가 하는 이야기들을 메모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메모를 다시 복기하며 자료를 만들고 틈틈이 지난 자료들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내 입에 맞는 것만 한다면, 그건 아니다. 해설사의 기본자세가 아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해봐야 어따 내놔도 통할 수 있는.. 그렇게까지 자질과 내용을 갖춰야 진짜 해설사지. 그거는 못하고 그냥 단순히 목포 몇 군데만 딱딱딱 해 붙면은 이걸 우물 안에 개구리다. 금께 견문을 넓히고 해야 된다 라는 생각에서 에…….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수없이 답사……, 금께 나는 그래요. 나를 강원도에 땡겨 주면은 강원도에서도 해설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답사가면은 그 해설사가 하는 얘기, 말하자면 오죽헌을 한다면은 강릉의 역사 오죽헌을 메모까지 하고, 판 사람은 사진 찍어댄디 나는 가능하면 메모를 해 그래야 외워지니까. 요놈 가지고 와 가꼬 또 정서를 해 집에서……. 그라고 자료를 남겨. 그래야 왜? 나는 강원도에 가서 해설을 할 일은 없지만은 만에 하나 강원도에서 갑자기 해설할 기회가 생긴다면 나는 거까지도 커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 생각을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하루 한시도 공부를 안 하면은 카바를 해 나갈 수가 없고 이머리가 한계가 있어.. 숫자 외우는 것도 그러자나. 숫자가 해양의 역사 숫자, 아니면 자연사의 숫자, 개항도시의 숫자 같은 것이, 또 예를 들어서 1908년에 태어나가지고 1987년에 세상을 떠다. 남농 허건 선생 그러면은 인물이 그 사람 한사람 뿐이었소? 1924년에 태어나가지고 2006년에 죽었던 차범석은 또 어떡하고? 아이 그러믄 막 이런 인물들 연대까지도 외웠어도 또 잊어버리자네요 또, 헛갈려 버리고. 그러니까 한시도 이 관심이 없거나 끈을 느슨하게 했다가는 우리는 해설을 자신 있게 못하겠다. 다른 사람들은 잘한게 할란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 자체가 끊임없이 연마하고 노력하고 공부를 하고, 게을리 해서는 정말로 할 수가 없는 것이 해설사다.”

4. 목포를 알리는 일

문화관광해설사들은 전라남도로부터 인증을 받아 자신의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각 시군별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목포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객들의 신청에 의해 해설을 진행하는 일반투어와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씨티투어 프로그램, 기념관, 박물관 등의 관광안내소에서 안내를 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현장에서 관광객들을 마주하는 해설사들은 목포시에서 운영하는 씨티투어 프로그램을 가장 어려워 한다. 씨티투어는 매주 화~일요일, 9시 30분~15시 40분에 목포 시내의 주요 관광

명소와 주변 볼거리들을 버스를 이용해 관광하며 성인의 경우 5,000원의 이용요금이 있는 프로그램이다. 4~11월까지 운영되는 ‘야경 씨티투어’ 프로그램도 있으며 요금은 주간 씨티투어 프로그램과 동일하다.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씨티투어를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 할 수 있다. 첫째는 관광객들의 성향차이에서 기인한다. 예를 들어 목포의 주요 관광지 중의 하나인 근대역사관을 찾는 관광객들은 처음부터 그 시설물을 볼 생각을 하고 그곳에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해설을 하므로 별다른 어려움은 없지만 목포시에서 운영하는 씨티투어 프로그램은 역사관이나 박물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에 흥미가 없는 관광객들을 참여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관광객들의 요청으로 진행되는 관광해설이나 박물관 등에서 하는 해설은 시에서 해설사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관광객이 부담하는 금액은 없으나 씨티투어 프로그램의 경우 관광객이 이용요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운영이나 해설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에 대한 이중적 태도에 의해 더 두드러지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근대역사관 건물에 대한 내력을 설명하면서 일본의 건축기술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면 ‘일본을 찬양하느냐?’는 식의 항의가 있을 때도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씨티투어가 가장 어려워요. 뭐가 문제냐면은 그 씨티투어 중에서도 계층이 다양하잖아요.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허거든 근게 세대별, 그래서 계층이 다양하고 지역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하니까 씨티투어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해설사들이 어려운데, 대부분 사람들이…… 유형이…… 예를 들어서 근대역사에 어떤 그 현장을 방문하기 위한 어떤 그런 연구라던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오면은 그 분야에 맞게 해줘버리니까 괜찮아요. 그 대신 그런 팀들은 깊이를 알아야 돼 깊게.. 일반 씨티투어에 오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거의 성향이 그냥 유달산에 와서 커피 마시고 쉬었다 가고 놀고 이런 걸 원하더라고 근디 우리 목포는 알다시피 근대역사 1관, 근대역사 2관, 또 노벨기념관 또 해양박물관 우리 씨티투어가 어떤 그 기념관 위주로 하게 되어있거든. 다만 그 외부에 그 자연환경을 말하는 것은 유달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저…… 뭐여 그…… 갯바위, 요게 단 두 가지고 전부 다 어떤 그 기념관에서 거기에 맞게 설명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런데 좀 관심이라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상식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나름대로 역사물을 배우니까 ‘아하 이것도 참 괜찮구나’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목포에 씨티투어 하면은 그냥 막 오동도 같이 바닷바람 쐬고 차 마시고 요런 개념으로 알고 오더라고. 온께 이 사람들은 돈만 아깝고 재미가 없어. 그니까 갑질을 하는거여. 갑질을. ‘우리가 여그 말이여 여그 사람을 이렇게 모아놓고 우리가 역사 공부하는 사람이나고 말이야. 어? 우리가 역사 공부할라고 여기까지 온 줄 아냐고 말이여. 여유 있게 차도

좀 마시고 커피숍에서 있다 가야 되는데…….’ 딱 끝나고 가고, 가고 너무 또 이게 타이트하거든 또 그래갖고 갑질하면은 아이 이게 그냥 참 사람 환장할 노릇이제 전라도 말로 말이제. 그러든 어떻게 하겠어? 그것을……. 하…… 사람이 천태만상이여 천태만상이 그, 사람들을 다…… 그래도 리드해서 끌어가서 해야되는 것이야 그런 것이 어렵다…….”

씨티투어 이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하는 만큼 다양한 일들이 해설현장에서 해설사들을 마주하게 된다. 특히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의 경우 해설사를 만나기 전 들른 식당이나 시장 등에서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불편을 겪고 난 후에는 목포에 대한 인식과 감정이 이미 상해있어 해설을 시작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하는데 이는 해설사뿐만 아니라 목포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문화관광해설사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은 관광객들의 불편한 행동들에 대해서도 목포를 대표한다는 인식하에 참아 넘기고,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서 오는 감정적 피로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최근 사회적으로 갑질문화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광객과 해설사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설사에게 불편한 요구를 일삼는 일부 관광객들의 태도가 바로 그것이다.

“의외로 갑질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정말로 그러면은 이것을 그냥 같이 이렇게 따지면은 결과적으로 목포의 이미지가 흐려지니까 그걸 감수하면서 거 소위 말해서 갑질, 을의 입장에서, 사실 을의 입장도 아닌데, 그걸 감내하고 해야 된다는 게 그런 어려움도 제법 있습니다. 그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아 왜 이렇게 즐거워요?’ 여행오시는 분들이 기분 좋아서 여행오지, 기분 나빠서 성질내면서 여행 온 사람이 있겠느냐~ 설레임 속에서 오니까, 설레임 속에 오는 분들을 대하니까 나도 더불어서 기분이 좋고 그러니까 항상 즐겁소. 인자 이렇게 인자 응수도 하고 이러지만 때로는 이렇게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이와 관련해 조대형이 겪었던 한 가지 일화로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목포를 방문한 관광객들을 안내한 적이 있는데 점심식사 차 들른 식당에서 불친절한 서비스와 바가지요금으로 인해 기분이 상한 사람들을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의 김대중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이 악수를 하고 있는 사진 앞에서 해설을 하던 중에 기념관을 방문한 다른 관람객이 마치 합천사람들 들으라는 듯이 전두환에 대해 좋지 않은 소리를 하는 바람에 합천에서 왔던 사람들이 기분이 상해 일제히 밖으로 나가서 버스에 탑승하고 뒤따른 조대형에게 화풀이를 했으나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목포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심어서 돌려보냈다는 이야기다.

“식당에서,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상추 좀 썰어 넣고 고기 몇 점 놔두고 비빔밥을 12,000원 받아 버렸어. 내가 봐도 비싸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먹을 때에 이분들이 합천 산골짜기에서 왔더라도 생선 안 먹어본 사람들 아니거든. 먹어보고 고개를 가우뚱 가우뚱 하더라고. 비싸다 이거 해가지고. 내가 그 식당을 소개한 건 아니거든. 그리고 인자 막걸리까지 먹었어. 하하 이게 참 묘하드만 비싸게 바가지 써서 기분도 안 좋은데 막걸리까지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더 열을 받아. 여그에 불난 데 기름을 끼얹는 격이 뭐냐면은,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을 갔어요. 거그를 내가 추천해서 간 것도 아니거든 자기들이 짜가지고 왔어. 근데 가야지 안 가졌습니까~ 김대중이란 사람을 우리만큼 좋아하느냐 그건 아니거든. 싫어하거든. 이걸 어떻게 내가 카바를 해야 할 것인가 해서. 경상도하고 우리하고 약간 문화가 다르고. 경상도 사람들이, 또 외지 사람들이 목포하면은 뭘 생각 떠오른 줄 아십니까? 오거리 조폭 생각해요. 이미지가 안 좋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지금, 그분들한테 안 좋은 이미지를 과감히 버려버리고 목포가 이런 곳이거나 심어주는 것이 나는 성공이야~!! 내가 그날 그 어떤 것보다도 그걸 그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목포의 그 애향심이잖아요~ 뭘 의미지 아시겠죠? 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갔고 그래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넘어가고, 간략하게 처리를 해요. 자극하면 안 되니까. 합천이 뭘니까? 전두환 씨 고향이에요. 아니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팀만 있으면 내가 요리해서 가는데, 우리가 해설 현장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들, 그냥 개별적으로 온 사람들이 해설하니까 와서 들어요 같이. 근디 그중에 한 사람이 끼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전두환 대통령하고 악수를 하고 계십니다. 참 보기 좋죠?’ 이렇게 넘어갈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온 사람들은 그 팀이 뭘 팀인가 모르잖아요. ‘와 전두환이 저 나쁜 놈 말이여’ 이렇게 욕을 하니까 합천에서 온 사람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얼굴색이 변해분 거여 지금. ‘워매 어찌까?’ 그러고 있는데 ‘가자. 재미없다.’ 딱 경상도 말 하더니 짹 나가버리는 거야. 내가 인자 뭐가 되요? 그냥 가분다고 바깥으로. 뿔나갔고. 보십쇼. 바가지 찢지, 술 한 잔 먹었지, 즈그들이 높게 생각하는 전두환이 욕했지, 제가 욕한 건 아니지만은……. 이걸 정말로 내가 황당할 노릇이지. 차에 가가지고 어쩐지 아십니까? 이분들이 화풀이 할 데가 어디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저요. 저. 전라도 사람 나라고. 내가 그…… 노벨을 오자고 한 사람이여? 내가 전두환이를 욕한 사람이여? 식당을 소개한 사람이여? 나는 해설을 공짜로 해주니까 즈그들 입장에서 얼마나 내가 감사하요, 안내해주는 입장이니까. 근데 화풀이 하면서 ‘이 전라도 놈들 근성이 이제 나온다. 대구에 가면은 한 상에 3만 원 주면 상다리 부러지게 회를 먹는데 회를 5만 원이나 받아 쳐먹어? 이 도둑놈들 근성. 그리고 김대중이? 당신 이거 누구 돈으로 했어?’ 막 나를 헐박하다시피 이렇게 열이 나가지고~ 난리가 벌어졌다니까~ 아니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내가

거기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속수무책이잖아요. 내가 죄송합니다 허겼소~ 내가 뭘 죄송해? 그러면 어떻게. 에이 까짓 거 너저들 떠들다가 내 잘못 없은께 분탕질 하다 가거라~ 내가 그러겠습니까? 그래도 되는데 그러면 목포의 이미지 전라도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들은 안 온 것만 못 하잖애. 이걸 어떻게 역전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다가 저는요, 다른 해설사보다 강점이 있다면 어느 지역에서 온다고 하면 그 지역을 어느 정도는 짝 알아요. 아 거기는 뭐가 유명하다 거기는 정서가 어떻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이 강하거든. 합천이 옛날에 초계거든 초계.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서울에서 한양에서 4월 2일날 옥에서 풀려나가지고 4월 3일날 백의종군 해가지고 권율의 휘하에 있을 때가 바로 초계였거든 거가. 그래서 초계가 있다가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궤멸되고 패배를 당하니까 선조 임금이 삼도수군통제사로 1597년 정유년 8월 3일날 다시 복직 교지를 내리잖아요. 그게 정개산성. 진주 하동 그 부근에서 손경래 집에서 일어나요. 거기서부터는 조선 수군 재건하러 백의종군해서 끝나고 와가지고 여기 울돌목에서 9월 16일날 명랑해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터뜨린 거여. ‘여러분 초계 아십니까?’ 말이여. ‘초계가 우리 옛날에 합천이 초젠디 당신 뭐여?’ 그러니까 ‘초계가 이런 역사의 땅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초계에서 권율이 휘하에서 백의종군을 끝내고 어디까지 온지 아십니까? 해남까지 오고 울돌목을 전쟁을 끝내고. 명랑을 끝내고 목포에서 107일 동안 있으면서 조선 수군을 재건시킨 역사의 땅이 목포요. 합천에서부터 구례, 순천, 그 다음에 보성으로 해가지고 진도, 해남, 목포까지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서 온 거 아니요?’ 내가 했어. 그러니까 한 분이 어떻게 그걸 아냐고 악수를 청하면서 이만한 책자를 가지고 다니드만 날 주더라고. 우리 작은아버지 집에서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 할 때에 머물러 있었다. 금께 이 사람은 자기 작은아버지, 자기 집안에서 이순신 장군이 머물렀다는 것이 엄청난 그 뭐랄까 자랑이 돼 분 거여. 그러니까 고걸 몇 페이지를 인쇄해가지고 갖고 다닐 정도가 되지. 허니, 아니 초계에서 백의종군하고 둔전을 경영하고 그 앞에 강이 흐른 데서 내가 그걸 설명해부니까 자기 가문의 집에서 이순신 장군이 머물렀다는 것을 내가 홍보해주니까 이 사람 기분이 안 좋아요? 난리가 벌어진 거지. 앞으로 오면서 당신이 어떻게 아냐고. 결론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의 마음을 즐겁게, 그 기분 나빴던 점을 희석을 시키고 해서 목포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서 돌려보내고 나서 나는 식은땀을 흘렸고.”

그렇다면 관광객을 마주하는 현장에서 문화관광해설사가 보람을 느끼는 경우는 언제일까? 해설사마다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도 자신의 해설에 대해 관광객이 호응을 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가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순간일 것이다. 비록 일제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현재 목포에 남아있는 유무형의 근대문화유산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조대형은 본인의 해설을 통해 목포라는 도시에 대한 인식과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가 보

람을 느끼는 순간이며 자신이 제2의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만큼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한 가지 보람을 느낀 것은 이 앞전에도 얘기 했드시피 목포라는 이 매력있는 도시, 거기에 대한 것에다가 목포의 근대사, 우리의 근대사, 치욕의 역사, 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냐 그 하나의 눈물의 역사가 펼쳐진 것이 바로 이 목포 여기요. 이 자리가 바로 그 현장입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까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 우리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나라 잃은 슬픔과 주권 없는 거래의 쓰라림을 느끼면서 이들이 희생의 땀가로 오늘날의 역사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우리의 가치관을 한번 되돌아보고, ‘아…… 대체 그렇습니다. 자유란 것이 국가란 것이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1 세기도 되기 전에 바로 가까운 시일에 우리는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겨서 지구상에 우리 대한제국, 조선, 대한이란 나라는 사라졌는데, 다시 되찾아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칼날 같은 우리의 역사 속에 나도 우리 후손들한테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단순히 먹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어떤 그 애도하는 마음이 이런 생각이 선생님 드네요.’ 박수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랬을 때에 아.. 정말 나는 오늘 내가 이렇게 침을 튀겨가면서 나는 힘들었지만은 이 중에 몇 사람은 제대로 역사인식이 바뀌었다면은 이게 얼마나 큰 값진 이거여. 나는 제2의 독립운동을 한다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가 있거든.”

5. 누구나 할 수 있으면서도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문화관광해설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그렇지만 문화관광해설사로서 활동하는데 시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생각해볼 때 해설사로서 중요한 부분은 해설을 하는 대상에 대한 지식과 해당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언어구사력일 것이다. 거기에 더해 실제 해설현장에서 축적된 경험을 통해 조대형은 문화관광해설사로서 갖춰야할 자격에 대해 지식 습득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자부심, 지역에 대한 애정 이상의 3가지를 꼽는다.

첫 번째 자격요건인 지식 습득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은 문화관광해설사는 우선 많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관광객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많은 정보를 이해하고 갈 수 있도록 해설하는 대상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많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단순히 대흥사 가가지고 해설사들 만나고 보면은, 내 자신이 하더라도, 머리에 안 들어와. 그게 아는 것만큼 보인다 소리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 말은 뭐이냐면은 사전에 그 지식을 대략적이거나 알고 접근하는 것은 엄청난 도움이 되더라. 자 그래서 접근한 사람이 그러고 해설사 입장

에서는 연계성이 있는 지역을 왔을 때에 해남 대흥사는 이리이리 하고 해남 대흥사에 가면은 예, 크게 인자 이거여. 하나는 불교라고 하면은 불교에 대한, 대흥사란 절이란 것, 하나의 종교적인 관점에서 해설을 해야되고 또 하나는 종교의 시설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해설을 해야되고 또 하나는 그 대흥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가치에 대해서 설명해야 된단 말이며. 요 세가지를 해야되는데 거기 대흥사는 다른 절과 달리 하나의 노천 갤러리다. 서예... 수많은 명사들이 작품을 볼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절이니까 그 절 개념이란 생각을 떨쳐버리고 불교신자가 아닌 사람은 대흥사를 뭐하러 가느냐? 이런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걸 해줘야 되지. 그걸 발견해가지고.. 그러면은 거기 가면 무슨 작품 있고, 무슨 작품 있고 무슨 작품 있고..... 이 작품은 추사가 어떻게 해줬다는 일화가 있고, 요건 해 주면은 ‘아하 나는 그건 모르고, 단순히 갔는데 그런 것이 있구나’ 하면 그 사람이 그 관광객이 다시 거기에 대한 집중을 해서 현장 가잖아요. 엄청 공부가 되는 것이지.. 그 터치를 해주는 것이 해설사의 몫이며. 그러면은 대흥사에 대한 이름 석자만 알아가꼬는 그것을 해줄 수 있었어? 못해주잖아. 그니까 연계성.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걸 종합하면은 해설사는 다양한 분야를 많이 알아야 된다. 이거여 이거.”

두 번째, 자부심은 본인이 해설사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관광 해설사의 경우 해설을 진행하고 난 후 시로부터 소액의 활동비를 받는데 해설활동이 매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 많지 않아 돈을 생각하면서는 제대로 해설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해설사는 단순히 내가 이것 벌어서 얼마인지....., 인자 나 같은 경우는 직업이 있으니까 경제적인 도움은 안 돼. 근디 직장과 직업이 없는 사람한테는 하나의 알바여 이것이. 다만 10만 원이 됐건 5만 원이 됐건 간에 오로지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면은 내가 해설을 왜 하는가? 자부심이며. 다시 말해서 그분의, 관광객들의 이해는 지식습득능력, 감상능력이라던지 요런 거.”

세 번째, 지역에 대한 애정은 해설사의 해설을 들은 관광객이 돌아갈 때에는 목포에 대한 좋은 이미지만 가지고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목포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진 관광객은 긍정적 인 이미지를 더 공고히 해서 돌아가고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관광객은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 인식으로 바뀌서 돌아가야 하는데 관광객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해설사 스스로가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를 거쳐 간 수많은 사람, 목포의 가치 설명해주고 목포가 매력있는 도시, 목포가 한때는 이렇게 큰 도시였고, 목포가 이렇게 좋은 도시였고 목포의 장점을 크게, 단점을 최소화 시키고 장점만 거그다가 포장을 좀 입혀가고 싹 이렇게 던져주고 목포가 이렇게 좋은 도시요. 해서 다시 오게끔 만들고 목포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껍데기를 벗겨내는 거. 나는 요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론은 나를 거쳐 간 사람 중에서. 나는 이게 자부심이에요. 그 누가 뭐 말을 하더라도, 목포에 대한 이미지는 좋아져서 가. 그래서 그랬어 어디 가서 메스컴에 목포 나오고 어떻게 하더라도 목포란 말 나오면은 목포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 제가 두 가지로 생각할까요. 하나는 선생님을 생각하고 하나는 목포가 그런 도시가 아니다. 편견이었구나 이 생각을 갖고 사랑할까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아니야 그게 아니야 가봤더니 아니더라 이 말을 내가 분명히 해줄까요.’ 내가 이 소리를 들을 때 가장 가치와 보람을 느껴요.”

이외에도 문화관광해설사로서 갖춰야할 것은 관광객들의 반응에 빠르게 대처하는 순발력, 해설을 듣는 사람들이 집중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경청할 수 있도록 해설하는 중간중간 섞는 유머와 위트 등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갖춰야할 요건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인지 조대형 해설사는 해설사라는 직업에 대해 누구나 할 수 있으면서도 아무나 할 수 없는 특별한 직업이라고 말한다.

1897년 개항을 통해 전국 3대 항 6대 도시라는 영화를 누렸던 목포, 현재의 모습은 예전의 명성만 간직한 작은 도시로 남았고, 그동안 지역의 경기를 부양하던 조선업마저 어려워지면서 목포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목포시는 고하도에서 유달산에 오르는 해상케이블카 설치 등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해 관광도시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다 할 산업시설이 없는 지역 여건 가운데 100년이 넘는 역사와 그 시간만큼 층층이 쌓여있는 목포의 자원들이 시너지를 발현하여 목포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하기를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관광객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고 목포를 알리는 메신저로서 문화관광해설사들은 관광객들이 이야기하는 목포 관광의 아쉬운 부분을 행정에 전달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해설사들이 전달하는 이야기가 실제 현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목포를 아끼고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아쉽다는 이야기를 조대형은 전했다. 물론 제도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목포를 비롯해 관광 활성화를 생각하는 지자체들은 실제 관광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바라보고 관광객을 마주하는 해설사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할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 답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 있다.

수년간 계속된 경기 침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목포의 경기가 다시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다 할 산업시설이 없는 가운데 관광산업은 목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이기도 한다.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최근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목포도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관점에 따라 예전의 아픔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는 풍경들이 이제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풍경이 될 수도 있기에 목포 사람들은 목포가 다시 활성화될 것이란 꿈을 꾸고 있다. 모두의 바람처럼 목포의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어서, 목포, 뼈아픈 역사 위에 꽃피운 근대문화의 금자탑을 소개하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더 많은 이들에게 목포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동규 | 목포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제7절 유달산에서 3호광장까지, 그리고 신도심 주민으로 살아가기

-제2의 고향에서 삶을 꾸려가는 젊은 벤처사업가, 최경원(남, 1973년생)-

목포에 사는 시민 중 실제로 목포 토박이가 많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목포 인근의 지역에서, 그리고 주변 섬에서 이곳 목포로 이주해와 정착한 사람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목포는 항구도시로서 신안은 물론 해남, 완도, 진도 등 서남해 도서 지역 사람들이 육지로 건너가는 관문 역할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해방 후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도서 지역 주민들이 대거 서울, 부산, 광주 등 대도시로 향했음은 물론 교육을 위해, 일자리를 얻기 위해 이곳 목포로 몰려들었다.

따라서 목포에서 만나는 사람과 고향에 대해 얘기를 나눌 때면 대부분 ‘OO도’ 출신이라는 말을 듣거나 무안, 함평, 영암 등에서 ‘어려서 아버지를 따라왔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그만큼 목포는 항구와 부두가 있기에 피난민, 이주민, 상경객 등 많은 사람이 몰리는 도시였던 것이다.

1. 영산포 시골에서 목포 도시로

최경원은 부모를 따라 나주 영산포에서 이주해 온 경우이다.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인해 일가족이 고향을 떠나 일거리를 찾아 목포에 정착하게 되었고, 당시 야반도주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삿짐이 라야 6남매가 보파리 하나씩을 짊어지고 온 게 전부였다. 그렇게 온 가족이 낯선 타향에서 재기를 꿈꾸며 자리를 잡아나갔고, 지금까지 제2의 고향으로 여기며 뿌리내리고 살고 있다.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마칠 무렵에 목포로 이사왔어요. 그때가 겨울이었죠.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영산포에서 목포로 오게 되었어요. 당시 통일호인지 비둘기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기차를 타고 도착한 곳이 목포역이었어요. 우리 6남매 손에는 보자기로 썬 짐을 하나씩 들고요. 그때 생각에 어린 마음에 목포역을 보니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당시 제가 살던 나주역은 목포역에 비하면 무지 작았거든요. 지금도 기억에 또렷해요. ‘다음역은 종착역인 목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 왼쪽입니다. 잊으신 물건 없도록…….’ 열차가 도착할 때 쯤 차장이 방송한 말이 들리더라고요. 아 여기가 목포구나.

목포역에 내려서 각자 짐 꾸러미를 들고, 지금의 오거리 쪽으로 걸어갔어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을 밀치고 밀리고 겨우 어머니 뒤를 따라갔죠. 목포역을 건너, 엄청 큰 약국이 있던 길을 건너서 국민은행 자리 사잇길로 걸어갔어요. 우리 가족이 8명이라 피난행렬 같았죠. ‘야들아, 누나 형아 손 꼭 잡고 따라와라, 금방 길 잊어분다.’ 초행길이라 어머니 생각에 우리가 손을 놓치면 잊어버릴 것 같으셨겠죠. 거기서 신시방제과점 앞을 지나갔는데, 그때 그 빵 냄새를 잊을 수



그림 1 아버지 사업 실패 이전인 영산포에서 찍은 가족사진(1980년대 초)

가 없어요. 다시 조금 더 내려가니 목포극장 길에 있었고, 앞으로 더 내려가니 냉장고를 파는 가게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나중에 알고 보니 삼성가전제품 파는 목포 1호점이었어요.

근데 한쪽 귀퉁이에서 아저씨들이 길을 막고 뭔가 보고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재촉해서 한눈 팔 시간이 없었는데 재빨리 움직여서 아저씨들 허벅지와 엉덩이를 이리저리 비집고 들어가서 봤어요. 빨간 양파망 사이로 굵은 물체가 꿈틀꿈틀하더니 장사꾼처럼 보이는 아저씨가 장갑 낀 손으로 하나를 쓰옥 들어 올려 빼더라고요. 다시 보니 어른 팔뚝만한 두께의 구렁이였어요. 한두 마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아저씨가 날 보더니 ‘애비, 애들은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이 한마디에 쏜살같이 내뺐죠. 그때는 이런 뱀 장사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달산 등구로 올라갔는데, 신작로 길이 나왔어요. 끝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부모님을 따라 목포로 이사 올 당시 최경원은 열 살이었고, 위로 형과 밑으로 동생들이 넷이 더 있었다. 추운 겨울에 도착했던 목포역에서의 첫 기억은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는다고 했다. 목포역의 규모에서 한 번 놀랐고, 많은 인파에서 한 번 더 놀랐던 것 같다. 고향인 나주역이 작은 간이역 정도로 느껴졌으니 말이다. 특히 오거리 일대는 지금은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으로 상가들이 쇠퇴하고 찾는 이들이 줄어들어 상상할 수도 없겠지만 당시 변화가였던 ‘차 안 다니는 거리’를 걸을 때면 어깨와 어깨가 부딪혀 바삐 걸을 수가 없었고 많은 인파 속에 사람 찾기도 힘들었다고 한다. 할 일 없이 오고가는 사람들이 모두 목포 차 안 다니는 거리와 오거리로 몰릴 때였다.

“목포극장 쪽에서 올라가는 길을 ‘유달산 등구길’이라 하고, 그 다음 길은 ‘측후동교회길’로 불렀어요. 유달산 등구길은 좋은 집이 많았죠. 등구길 막바지에 최영철 국회의원 집도 있었고요. 그 길 끝에 커브 길에 ‘영암여인숙’이 있었어요. 조금 더 올라가면 이발소와 약국이 있었고 그 다음 측후동교회

쪽 길과 만나는 곳이 있었죠. 약국하고 이발소를 지나면 기념품가게가 계속 이어지는 두 오르막길이 합해지고 길 왼쪽 편에 슈퍼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양쪽으로 기념품가게가 많았죠. 기념품가게는 별 다른 것이 없었는데, 특이하게 한라봉 같은 과일을 잎사귀 채 묶어서 한 묶음씩 팔더라고요. 고동이나 뽕데기를 연탄화로로 데우면서 팔았고요. 그리고 그 기념품가게들 뒤로 골목길이 있었는데, 그야말로 산동네 집들이 더덕더덕 붙어있었어요. 우리집은 유달산 등구 직전 지금의 노적봉 주차장 길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집 하수구 쪽에 판자를 열기설기 막아놓은 쪽은 바로 낭떠러지였죠. 유달산 등구 건너편에도 내려가는 길이 양쪽인데, 한쪽은 계단으로 쪽 내려가는 길로 지금의 근대역사관 쪽 길이고, 다른 한쪽은 온금동 길로 조선내화 사장집 담이 빨간 벽돌로 쪽 이어졌어요.”

2. 목포에서의 새로운 경험

최경원이 영산포에서 목포로 이주하여 처음 살게 된 집은 유달산 노적봉 주차장 길에 위치했다. 어린 나이에 오게 된 낯선 도시인 목포가 신기해서인지 골목골목과 건물의 위치를 제법 잘 기억하고 있었다. 첫 월세 집이었던 이곳 유달산 주변에서 서너 차례 더 이사를 다녀야했지만 늘 작은 단칸방이었던 것은 마찬가지였다.

“우리 집이 유달산 근처였기 때문에 늦잠 자는 것은 어려웠어요. 새벽 등산객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 ‘야호 야호’ 소리가 항상 내 방까지 들렸으니까요. 그 바람에 잠을 설치고 밖으로 나가면 항시 유달산 등구 쪽부터 한 무더기의 땀복을 입은 형들이 걷기도 힘든 길을 오리걸음을 하고 올라와요. 유도부, 복싱부 등 다양했어요. 그 형들은 유달산 등구 계단 앞에서는 한명씩 목마를 태우고 그 계단을 올라가요. 그리고 다시 교대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내려올 때는 한 명이 서서 뒷다리를 잡으면 손으로 땅을 짚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리고 해양대학교 쪽으로 구보로 가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도 대단해요. 그렇게 매일 운동을 하더라고요.”

오전 9시 이후에는 뽕데기 장사하는 아주머니들이 유달산 앞으로 하나 둘 모여요. 물론 그중 한 분은 우리 어머니였어요. 고무통에 고동과 뽕데기를 한가득 머리에 이고 와서, 유달산 등구 계단 밑에 각자 자리를 잡고 파시는 거죠. 과일을 파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관광버스가 도착하고, 관광객들이 우루루 내려서 그 사람들하고 실갱이를 하죠. ‘와, 목포 좋네, 여기가 유달산이야, 목포의 눈물’, ‘고동사쇼. 맛난 고동 사갖고 갓쇼, 한나 잡쇄봐.’”

1980년대에 유달산은 목포의 대표 관광지였다. 한참 단체관광 붐이 일어 전국의 명산을 찾아다니

는 관광객들이 증가하면서 남쪽을 대표하는 목포 유달산을 찾는 사람도 늘어났다. 도시인들뿐만 아니라 농어민에게도 관광 붐이 퍼지면서 행락객들이 급증했고, 이를 대상으로 유달산 입구에서는 번데기, 고동, 군밤 등 간식거리를 판매하는 장사꾼들이 모여들었다. 최경원의 남매들도 장사를 했던 어머니를 위해 매일 신문으로 번데기 담을 봉투를 접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사업 실패 후 객지로 이사해 와서 변변한 집을 구하지 못했지만, 최경원의 아버지는 교육열만큼은 남달랐다. 최경원을 목포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교대부속’(광주교육대학교 목포부설초등학교)을 보내려 했다. 물론 초등학교는 일반적으로 주소지 기준으로 배정하지만, 교대부속초등학교의 경우 추천제였기 때문에 추천을 통해 선정되어야만 가능했다. 그러나 아쉽게 탈락하여 대신 중앙초등학교로 진학해야 했다. 당시는 학령인구가 많아서 학교마다 교실이 부족해 2부제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었다.

“그때 우리 아버지는 저를 교대부속 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공 추천인가를 잘못하셔서 떨어진 거죠. 저는 아무 데나 상관없었죠. 그래서 인자 중앙초등학교로 형하고 같이 전학시키셨죠. 아버지가 엄청 힘을 써서 목포에서 두 번째로 좋은 학교로 우리를 보냈다고 생색을 내셨는데, 알고 보면 행정 구역상 측후동인 유달산 등구 쪽은 중앙초등학교를 다니는 것이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유달산 등구 쪽에서 체육공원 쪽 아래는 달성초등학교 학군이었고, 유달산 등구길을 넘으면 유달초등학교, 더 넘어서 오르막길인 지금의 서산동 보리마당 쪽은 서산초등학교 학군이었어요. 그때 목포 시내에서 제일 큰 학교는 산정초등학교였고, 그 다음이 유달초등학교가 규모가 컸어요. 심지어 2부제 수업을 했거든요.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뉘서 운영했어요. 우리학교는 유달산 쪽 아이들과 오거리 쪽 아이들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유달산 쪽 아이들은 대부분 가난했고, 부모님 두 분이 다 계신 경우가 드물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분을 잘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았죠. 반면 오거리 쪽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형편이 좋았어요.

그리고 목포 시내 학교마다 야구팀이 있었는데, 산정초등학교가 제일 강했어요. 그때 당시 야구 인기는 대단했거든요. 1982년에 프로야구가 개막하면서 거의 야구가 붐을 일으켰죠. 그때는 서울을 본거지로 하는 MBC청룡, 경상남도 롯데자이언츠, 경상북도의 삼성라이온즈, 충청도의 OB베어즈, 인천과 경기·강원도의 삼미슈퍼스타즈, 그리고 우리 해태타이거즈가 있어서 지역별로 응원전이 대단했거든요. 그러면서 프로 구단들이 리틀야구단이라고 해서 어린이회원을 모집했어요. 회원이 되면 팀 마크가 새겨진 티셔츠와 잠바, 모자 등을 주는데 한마디로 꿈의 선물이었죠. 그것을 입고 학교에 가면 의기양양해지거든요. 다들 부러워했죠.”

1980년대 초중반, 학교 등하교 시간에 야구점퍼와 야구모자 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초등학생

들이 많았다. 바로 ‘보이스카웃’과 함께 1980년대 초등학생 클럽활동의 양대산맥이었던 ‘프로야구 어린이회원’들이었다. 이 어린이회원은 1982년 출범한 프로구단이 ‘미래의 고객’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시작한 멤버십 서비스였다. 대략 가입비 5천 원 정도를 내면 야구점퍼와 야구모자, 팬북, 소속 팀 선수들의 사인볼 등 선물과 함께 야구장 대표소에서 제시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원증을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해태타이거즈의 빨간 티셔츠와 점퍼, 모자 등을 쓰고 야구를 하거나 나들이를 하는 아이들을 종종 마주했던 일은 1980년대의 유소년 문화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학교 등굣길은 목포 변화가 길을 가로 질러가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길거리에 쓰레기가 많았어요. 세무서를 지나 주택은행을 지나면 바로 학교가 나오는데, 그때만 해도 오락실이 아이들 집합소였어요. 그 당시는 일등오락실, 역전오락실이 최고였는데, 신시방제과점 쪽에 일등오락실이 있었고, 국민은행 오른쪽에 역전오락실이 있었어요. 그 때 50원 넣고 갤럭시 게임 한 판 하는 게 재미있죠. 학교 끝나면 책가방을 집어 던져놓고, KBS와 측후소(기상대)가 있던 노적봉을 등에 지고, 유달산 등구 계단을 홈런구역 삼아 게임을 했어요. 예전에 살던 영산포에서는 이 게임을 ‘하루’라고 불렀는데 여기 목포에서는 ‘짬뽕’이라고 하더라구요.”

동네 아이들과 편을 나눠서 하는 게임은 서로 이길 때까지 하게 되므로 끝내기가 쉽지 않은데, 유달산 입구에 관광버스 행렬이 들어오고 나면 하는 수없이 경기를 마친다. 그렇게 유달산을 동네 마당 쯤으로 여기던 이곳 아이들은 먹을 것이 풍족하진 않았지만 맛있는 게 생기면 서로 나눠 먹고 해가지도록 뛰놀아도 하루가 짧기만 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사는 온금동 끝에 있는 단칸방으로 이사를 갔어요. 여러 집이 모여 살았죠. 우리는 부엌 딸린 방이었는데, 방에 큰 바위 하나가 튀어 나와 있었어요. 우리집 오른쪽에 세들어 살던 집은 안방문을 열면 굴이 있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그게 방공호였어요. 그 골목에 우리집 포함 세 집이 있었어요. 우리 집 위로는 해봉사라는 절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유달산에 뱀이 참 많았는데 유달산이 바위산이라 뱀이 많다고 어른들이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그 집에서 6학년까지 다니고, 겨울방학 때 일간지 신문배달을 했어요. 새벽 4시 30분까지 목포역에 도착해서 전단지 끼워 넣는 일명 ‘찌라시 작업’을 해요. 그러면 서울발 첫차 손님들이 들어오죠. 각 일간지마다 어린 배달사원들이 있었는데 모두 쫓그리고 앉아서 그 작업을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잔하네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만 원을 벌어요. 열차 타는 손님들 중에 가끔 천 원씩 주고 가는 손님이 있는데 주변 형들이 엄청 시샘했어요. 결국 목포역 뒷골목으로 끌려가 털리기도 많이 했죠. 내

가 맡은 배달구역은 앞 선창가였는데, 예전 초원관광호텔 건너부터 삼양사까지가 내 구역이었어요.”

얼굴이 곱게 생겼던 최경원에게 열차 손님들이 고생한다며 손에 쥐어주던 용돈은 한 달에 만 원을 버는 최경원에게는 엄청나게 큰돈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같이 몰려다니던 형들이 그냥 보고 지나칠 리 만무했다.

겨울철 새벽 목포 선창가는 을씨년스러웠다. 각종 선구상회, 닳이나 각종 공구를 만드는 공구상들, 빈 공장들이 즐비했다. 어린 소년에게는 공포였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형들을 따라다니며 재미삼아 신문배달이라는 것도 해보았다.

“무서운 개 한 마리를 묶어놓고 지키게 하는 공장에 신문 한 부 갖다 넣는 것이 보통일이 아니었어요. 보통 신문 100부를 넣는데 신문사 총무가 나한테 130부 정도로 넉넉하게 줘요. 많게는 150부까지도 주기도 했구요. 나중에 형들에게 들은 얘기인데, 신문사 본사에서 돈을 많이 타 내려고, 신문구좌를 많이 신고해서 그렇다고 했다는 말도 있고, 본사에서 자기 신문을 많이 보는 것을 자랑하려고 일부러 많이 찍어내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말이 사실인지는 지금도 모르겠지만, 돌리고 남은 신문을 가지고 무작정 저녁에 몇 녀석과 같이 오거리로 나가서 신문을 팔기 시작했어요. 한 부에 백원씩. 처음에는 누가 살까 했는데, 생각보다 잘 팔렸어요. 그 돈으로 측후동교회 근처에서 떡라면을 사먹기도 했어요. 용돈이 따로 없던 시절이라 이래저래 용처 모르게 썼죠. 근데 이 일도 오래는 못했어요. 신문사보급소 소장이 배달사원한테 인자 수금까지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수금을 다 못하면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저는 월급을 줄 때까지 보급소 앞에서 안 가고 서있었어요. 보급소장은 친구들과 화투를 치면서 판청을 피우고, 밀린 수금을 해오라고 악다구리를 치는데 끝까지 안가고 기다렸어요. 어쨌든 그날 저녁 만 원 한 장을 제 손으로 받아내고 그날부로 그만뒀죠. 그러고 보면 저도 오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최경원은 신문배달하고 받은 돈을 어머니한테 드렸고, 어머니는 어린 아들이 기특해서 그날로 도깨비시장에 가서 새 신발을 사주셨다. 목포역 왼쪽에 있는 도깨비시장은 없는 게 없는, 일로나 몽탄에서 열차로 할머니들이 가져온 각종 채소나 나물을 팔던 제법 큰 시장이었다. 지금의 중앙시장보다는 규모가 작았지만 이른 새벽녘부터 오전까지 도깨비시장이 열렸다. 아침에 잠깐 열리고 점심이 채되기 전에 닫히기 때문에 ‘도깨비시장’으로 불렸던 것이다.

“우리 친구들하고는 빈 병을 바꿔서 간식 같은 것은 사먹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빈 병 주우러 다니

는 애들이 많았죠. 근데 하루는 동네 형이 나를 데리고 선창가에 가더니 길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수, 오물들이 흘러 쓸려왔다가는 곳인데, 그 형이 전기선을 모으라고 지시를 했어요. 제법 양이 되더라구요. 그것을 한쪽에 모아 불을 피우고 태웠더니 구리선만 남아요. 그러면 그 구리선을 마대자루에 넣어서 선창가 끝 골목에 고물상이 있었는데 갖다 팔았어요. 천 원짜리 지폐 십여 장이 왔다 갔다 하더라구요. 생각보다 쓸쓸했죠. 그래서 예전 우성학원 앞길 건너에 짜장면 집에서 짜장면 한 그릇씩을 얻어먹은 기억이 나요. 돈을 이렇게도 버는구나 했죠.

학창시절 소풍은 초등학교 때는 주로 양을산으로 갔었고, 중고등학교시절에는 나불도가 생겨 거의 나불도로 갔던 것 같아요. 그때 자전거를 타고 영산호를 건널 때도 있었는데, 그 영산강 둑 비탈길을 타고 가는 스릴이 재미있었어요.”



그림 2 중앙초등학교 졸업앨범 사진(1986년)

서너 번 이사를 다닌 후에 부모님은 영암으로 이사했고, 학교에 다녀야 했던 최경원은 누나와 형과 함께 자취생활을 시작했다. 자취방은 2호광장에서 유달중학교 방면 골목길에 사글세 집을 얻었는데, 빛 한 점 안 들어오는 골방이었다. 여기도 온금동, 서산동 못지않은 빈민촌이었지만, 동부시장이 가깝다는 이점이 있었다.

“중학교시절은 버스와와 전쟁이었죠. 하굣길은 도보도 가능했지만 등굣길은 도저히 시간을 맞추 수 없어 지각을 안 하려면 버스를 타야했어요. 저는 2호광장이라 버스노선이 많았지만 6번, 7번은 그야말로 뒷개 쪽 학교 학생들로 항상 복잡했죠. 등굣길에 앉아서 가는 것은 고사하고, 타고 갈 수만 있어도 감사한 거죠. 그 때 홍일중고, 덕인중고, 혜인여중고, 그 앞 정거장은 학생들로 난장판이었어요.

그리고 시절이 시절인지라 어떤 때는 광장에서 시위하는 대학생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버스가 옛 골롬반병원을 넘어 운행하기도 했었어요. 목포에서 시위현장은 주로 시청, 법원 길을 시작으로 3호광장, 2호광장, 1호광장, 역전 앞이 주된 장소였어요. 광장애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목포에 처

음 이사 왔을 때 2·3호 광장은 로타리 길로 돼있었어요. 특히 3호광장은 꽤 컸는데 가운데에 분수와 동상이 있었거든요. 그 동상은 목포 사람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너무 왜소해 보이고 우울해 보인다고 해서 나중에 철거한 것으로 알아요.”

‘어둠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온 시민들의 내일을 위한 분발과 용기와 희망을 담음’이라는 주제로 사방으로 네 명의 사람을 조각한 이 조형물은 목포의 상징물로서 1989년 10월 1일 목포 시민의 날을 기념해 3호광장 로타리 가운데 세워졌다. 목포의 보통사람의 모습을 한 네 명의 조각상은 얼굴은 굳은 표정으로 국방색의 양복을 입고 있어 싸늘함과 오싹함을 주고 있으며, 주머니에 폭 찢려 넣은 왼손은 경제적으로 시달리는 듯한 느낌을 주는 듯해 작품성보다는 우울해 보인다는 반응이 더 많았다. 1980년대 민주화를 부르짖던 역사를 담아내고 있으며 군사정권 하의 힘없는 지식인, 민중의 모습을 표현했다고는 하지만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많아지자 철거되어 현재는 갯바위 향토문예관 앞으로 옮겨졌다. 국도 1호선을 지나는 3호광장 길목에 세워졌던 조형물은 당시의 시대상과 사회상을 반영한 작품이었지만, 결국 목포의 밝고 희망적인 모습을 기대하던 시민들의 마음을 읽지 못해 그렇게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졌다.

“고등학교 진학 후 목포의료원 쪽으로 자취방을 옮겼어요. 마당 깊은 집이었는데, 말이 좋아 마당 깊은 집이지 큰비가 내리면 하수구가 역류하는 집이었어요. 목포는 큰비가 내리는 장마철에는 연중 행사로 2호광장, 연동, 3호광장 주변은 온통 물바다가 됐어요. 연동육교, 목포상고 앞 진고개, 예전 버스터미널자리 MBC 위쪽 길을 제외하고는 모두 침수되었다고 보면 돼요. MBC근처를 주 무대로 목포 5국전화국(동목포전화국), 동목포역을 지나 통학했거든요. 목포의료원 쪽은 이로서장이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작은 시장이었어요.

의료원 쪽에서 잠깐 살다가 동목포역 쪽으로 이사를 했어요. 아무래도 마고(목포마리아회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학교가기 편했죠. 이 근방에 학교가 많아서 동목포 주변에 학생들이 많이 몰려다녔죠. 저녁에는 불량학생들이 있어서 위험하기도 했어요. 동목포역은 그 시절에는 하루에 두 번만 기차가 멈추는 간이역 상태였어요. 출퇴근길 통근기차만 정차하는 역이었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사람들이 제법 있었는데 그 뒤로 없어졌어요.”

동목포역(목포시 용당동 925-1)은 호남선 상에 있었던 철도역으로 1953년 8월 1일에 배치간이역으로 개역하였다. 지금도 목포시의 영역은 매우 좁지만, 호남선 부설 시절은 더더욱 쓸 만한 땅이 없었기 때문에, 북쪽에는 양을산, 남쪽에는 갯벌을 피해서 사이사이로 철길을 내다보니 목포 시내를 지

나는 철길은 S자 모양이었고 목포역과 임성리역 사이에 이 역이 있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주택가 사이에 놓여있는 작은 역이지만, 도로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임성리, 일로, 명산 등지에서 열차를 타고 오는 통근, 통학 승객들로 붐볐고, 이런 단거리 승객들 덕분에 한때 목포역보다 이용객이 더 많았다고 한다. 이 역의 전성기이던 1970~1980년대 기준으로는 목포고등학교, 목포상업고등학교(현 목상고등학교), 목포마리아회고등학교, 목포여자상업고등학교, 목포대학교(송림캠퍼스) 등이 모두 도보로 접근 가능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기차로 등하교 하는 일은 아주 흔한 광경이었다. 하지만 도로교통의 발달로 철도는 쇠퇴일로를 걷고, 1989년 1월 1일 역 건물이 철거된 후 무배치간이역으로 격하되어, 비둘기호·통일호 열차만 취급하였다.

이후 동목포역은 2003년 12월 9일 부로 호남선 복선화 공사 중 목포 시내 구간이 완공되면서 이 역을 지나지 않고 인근 지역을 지하로 통과하게 되면서 폐지되었고, 한때 동목포역이 있었음을 알리는 표지판만 세워지고 철거되었다. 이곳 철로가 지나던 곳 좌우로는 대부분 주택가이며 인근에는 시청, 법원, 경찰서(2017년 8월 동명로 신청사 이전), KBS 목포 사옥 등이 1980년대 이곳으로 이전해 오면서 목포역과 시내 주변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던 곳이었다. 현재 이곳 철도폐선부지(총 6.3km)는 2002년부터 연동광장에서 임성역까지 전 구간을 동목포·송림·이로·청호 웰빙공원으로 조성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녹색숲, 자전거도로, 웰빙 운동구간, 화훼단지, 야외음악당, 쉼터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진고개에 빵집이 하나 있는데 친구들하고 거기를 자주 갔어요. 목포에는 꽤 유명한 빵집이 많았어요. 목포역 주변으로 석빙고, 신시방, 콜롬방하고, 2호광장의 문명당, 목포상고 앞 진고개 이렇게 빵집이 유명했어요. 아마 콜롬방제과점이 제일 늦게 생겼던 것 같기도 해요. 암튼 학생들은 빵집에서 주로 만나고 그랬어요.

그리고 만남의 장소로 롤러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실외 롤러장은 유달산 우체국 옆 지금 놀이터자리 쪽으로 ‘유달롤러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내에 거주하는 애들은 정명여중고와 목여고 길 끝에 사거리 못 가서 골목 뒤에 실내롤러장이 있었어요. 어둡고 공기도 좋지 않았는데 그 시절 노는 형, 누나들이 참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많이 다녔던 영화관은 세무서 뒤편 시네마극장, 오거리에 있는 목포극장, 목포역 아래 남일극장, 죽교동 쪽에는 시민극장, 2호광장에는 국도극장, 3호광장에는 아카데미극장 이렇게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친구 중에 검문소 앞에 금강아파트에 사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석현동이 목포 끝이었던 것 같아요. 임성리역 주변은 목포와 무안의 경계지역이고, 가는 길에 연탄공장이 있어 항상 도로가 검은 색이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목포대에 입학한 후 지금의 상동터미널 뒤편 주공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아파트가 지어질 무렵만 하더라도 모두 논밭이었거든요. 지금도 상리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목대에 다니려고 아무래도 교통편이 편한 곳으로 옮겼죠. 터미널 앞에 하당이 아직 개발되기 전이었어요. 제 기억에 삼학도 가는 길, 목포과학대에서 선창 쪽 가는 길이 목포 끝이었어요. 그쪽 공장, 상가 너머에는 바닷물이 넘실댔어요.”

3.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이주

지금도 석현동 입구를 ‘구(舊) 검문소’라고 부르듯이 목포 외곽지구가 개발되기 전이라 석현동은 그 시절 목포의 끝지점에 해당되었다. 신시가지 하당지구는 주거지역 기능을 목적으로 입암산과 부흥산을 연결해 간척되면서 본격적인 개발이 진행되었다. 이어 하당의 택지개발은 1차와 2차지구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1991년 비파아파트를 시작으로 주택용지와 함께 상업지구가 들어서면서 생활의 편리성을 찾아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다. 특히 하당지구는 삼호조선과 함께 대불산업공단이 1996년에 건설되면서 이와 관련 이주인구가 증가하였고 중심지역에 유흥가, 전문상가 등이 들어서면서 목포의 상업기능을 담당하는 축으로 성장하였다.

“96년 가을부터 대불공단에서 플랜트공장 PM(생산프로젝트별 담당책임자)생활을 했는데, 그 시절 하당은 그야말로 불야성이었어요. 공장 하도급업체 사무실에서 부영아파트 주변에 다방에서 커피를 시키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왔으니까요. 당시 하당의 식당과 술집들은 삼호중공업과 대불공단에서 먹여살렸죠.

공장에서 주로 대형선박의 블록을 납품했는데 대형트레일러에 싣고 대불공단 중앙로를 통과해 한라중공업으로 납품하거든요. 그러면 며칠 전에 영암경찰서에 도로사용 허가를 받고 밤 12시를 넘어서 좌우 앞뒤로 경광등을 들고 수신호를 해가며 군사작전을 수행하듯 이송했어요. 가다보면 좁은 도로에서는 좌우 가로수를 상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날 경찰서에 가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요. 그런데 97년 말에 IMF사태가 터지면서 한라중공업이 최종 부도가 나는 바람에 공장을 그만뒀죠. 대불공단이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죠.”

한라중공업은 1992~1995년까지 전라남도 영암군에 세계 5대 규모의 조선소 및 산업기계 공장인 삼호조선소를 건설하였으나, 1997년 무리한 자금투자와 한라그룹의 경영악화로 부도가 발생하였

다.⁰¹⁾ 1997년 12월 불어 닥친 외환위기로 경영난에 봉착하면서 당시 한라중공업의 좌절은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왔다. 호황을 구가하던 영암, 목포 상권은 침체의 터널에서 신음했으며, 인근 하당신도시의 밤은 불야성을 이루던 불빛이 꺼지고 을씨년스럽기까지 했다.

그러다 1999년 말 현대중공업이 위탁경영을 하면서 정상화와 고속성장의 전기를 마련한다. 세계 1위 조선사인 현대중공업이 인수하면서 때마침 불어온 조선시장의 활황 등에 힘입어 사세가 급신장한다. 현대삼호중공업의 고속성장의 파급효과는 전남 서남권의 경제 지도를 크게 바꿔놓았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역할은 고용창출인데 초기 3,300여 명이던 근로자수가 1만여 명으로 급증했다. 그 결과 이농현상이 심했던 영암군 삼호는 지난 2003년 면에서 읍으로 승격됐으며, 목포 하당신도시는 다시 대도시의 변화가를 연상할 만큼 호황을 구가하였다. 또한 목포대교 완공과 더불어 영산강 하구둑의 교통대란이 분산되면서 동시에 북항과 백련지구 등이 새로운 신흥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목포권의 지역 경제를 이끄는 유일한 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행히 삼호조선소를 현대가 인수하면서 다시 목포 경기가 살아났죠. 상동주공에서 검문소 뒤편 근화희망타운으로 이사했다가, 2000년 초에 다시 연산동 주공으로 옮겼어요, 전세나 임대로 살다보니 아무래도 2년마다 계약을 하게 돼서 이사를 여러 번 했죠.

그리고 2000년 초에 하당 현대아파트(1차) 앞에서 보습학원을 시작했어요. 당시 하당에 아파트가 엄청 생겼고, 신규 학교들이 개설되면서 학군이 좋아져 젊은 부부들이 이사를 많이 왔죠.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직원들 중에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은 목포로 많이 이사 나왔어요. 한빛초, 하당초, 신흥초, 부영초 등이 들어서면서 학원 수요가 늘어났죠. 초원, 우미, 삼성, 현대, 동아, 우성, 꿈동산, 금호아파트가 있었고, 부영이 1차에서 3차까지 생기니까 학생들이 엄청났죠. 결혼한 후여서 우리 부부가 같이 운영했어요. 아파트 앞 상가를 임대해서 학원을 운영했는데 상당히 학생수가 많았죠. 처음엔 학원강사로 있다가 따로 차려서 독립했어요. 그 뒤로 학원들이 계속 들어섰죠. 영어, 수학 등 과목별 학원에서부터 피아노·미술·태권도학원까지 다 있었죠. 아무래도 유명한 학원이나 과외시설이 몰리다보니 교육열 있는 사람들은 구도심에서 하당으로 많이 넘어왔죠.

하당 후레쉬마트(지금의 롯데슈퍼) 주변은 상가와 학원가가 주로 있었고, 부영아파트 인근으로는 먹거리를 비롯해서 유흥시설이 많은 편이었어요. 당시 삼호조선소 사택으로 불릴 정도였으니까요. 그 일대 상가는 현대중공업 사람들이 다 먹여 살렸다고 했어요.”

01) 1997년 부도가 발생하여 1998년 3월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1999년 10월 상호를 삼호중공업(주)으로 변경하고 현대중공업(주)에서 자산·부채를 인수, 위탁경영하였다. 2002년 현대중공업(주)이 삼호중공업(주)의 주식을 100% 인수함으로써 2년 6개월의 위탁경영을 종료하고 현대중공업그룹에 편입되어 2003년 현대삼호중공업(주)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4. 목포에서 40대 가장으로 살아가기

1차에 이어 2차 하당지구가 개발되고 신규 아파트 조성은 물론 대형 유통업체 등 상업시설과 함께 교육시설이 집중되면서 하당은 30~40대 연령층의 입주 및 이주가 계속 증가하였고, 이는 구시가지의 상업 침체와 주거 공동화 현상을 야기시켰다.

그러나 전남도청이 2005년에 들어서면서 하당의 인구는 다시 새로운 신도시인 남악지구로 이전하게 되었다.

“하당이 교육여건은 좋았지만, 대신 그만큼 유흥시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도청이 이전되고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다시 남악으로 물리기 시작했어요. 기존에 하당에 살던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당 사람들이 남악으로 건너가고, 구도심 사람들이 다시 하당을 채우고, 그렇게 됐다고 보면 되요. 작은 도시다 보니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 개발되니까 새로 목포로 들어온 사람들은 없이 새롭고 좋은 데로 옮겨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도청 들어서고 인구가 늘진 않았어요. 대부분 하당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남악에서 살고 있죠. 저도 2005년 용해동 포미타운에 입주했다가 10년 전에 지금 남악으로 이사했어요. 목포가 커지면서 저도 계속 옮겨 다녔네요.

그리고 보니 목포에서의 제 삶이 목포 인근 개발 사업에 따라 움직인 것처럼 보이네요. 새로 개발된 지역을 따라다니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처음 영산포에서 이사 와서 유년시절은 유달산 주변 죽교동, 측후동 인근에서 살다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이로동과 동목포역 근처로 옮겼다가 상동과 대안동에서 대학시설과 신혼생활을 보냈네요. 그리고 연산동과 용해동을 거쳐 지금은 남악 신도시에서 삽니다. 어릴 때부터 놀면서도 형들 따라다니면서 돈을 벌었고, 대학시절에도 아르바이트를 계속했어요. 전공을 살렸다고보다는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다보니 학원도 해보고 직장도 몇 군데 옮겼고, 지금은 컴퓨터와 전산 관련 기술을 활용해서 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공부해서 자기 기술로 만들면 가능합니다.

저는 경제적으로는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닥쳐도 자신 있어요. 자식들한테도 그런 것을 알려줘야죠.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 개척하는 법을 가르쳐야죠. 70년대에 출생한 40대들이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그런지 대학졸업 당시 IMF를 맞아서 취업도 안 되고 그래서 진짜 다들 힘들었죠. 일찍 들어간 친구들은 그 친구들대로 그 당시 구조 조정된 애들이 많았죠. 그리고 자영업에 뛰어든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 때 창업열풍이 불면서 벤처라는 말이 유행했죠. 성공 가능성은 낮지만 성공할 경우 아주 크게 될 거라는 믿음에서 다들 창업에 뛰어들었죠. 가장이니 뭔가 일은 해서 돈은 벌어야 되고, 일자리는 없고, 자본도 없고, 그래서 유행처럼 창업을 한 거

쥔. 성공한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최경원은 부유했던 유년시절을 보냈지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 목포로 이주하면서 사글세를 전전하며 학창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당시는 모두 ‘못 먹고 못 입던’ 어려운 시절이라 딱히 형편을 비관하지 않았고, 호기심 많고 당찬 성격으로 인해 목포의 뒷골목까지 누비며 다양한 경험을 몸소 체험하며 성장하였다. 대학시절부터 결혼과 직장을 잡기까지 부모님의 손을 빌리지 않았고 집까지 손수 장만하였다. 특히 목포의 주거지역이 확대되면서 거주지도 옮겨 다닌 특징이 있다. 마지막 개인소유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전까지는 사글세와 전세, 그리고 임대아파트를 모두 살아봤다. 부모의 도움 없이 도시에서 집 장만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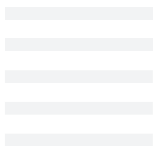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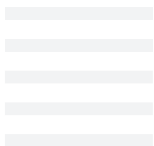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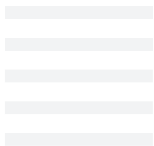
40대의 중반에 들어선 가장들은 대학졸업 후 IMF를 겪은 세대로 대부분 경제적으로 위축되고 전장을 경험한 세대 못지않게 녹록치 않은 삶을 보냈다. 대부분의 동기들이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거나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떠났지만, 최경원은 목포에 남아 스스로 일자리를 찾고 만들었다. 본인은 굳이 거창한 벤처사업자로 불리는 걸 원치 않았지만, 쉬지 않고 공부하며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도전하는 그 열정만큼은 남달랐다. 목포에서 살아가는 40대의 한 가장으로서 최경원의 삶은 평범하지만, 다양한 공간에서의 경험들이 향후 더 큰 삶의 자산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경아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연구위원



제5편

목포의 마을과 땅이름



김정섭 | 목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소장

목포는 무안반도의 남쪽, 영산강의 하구에 있으며 『호구총수(戶口總數)』의 무안군(務安郡) 이로촌면(二老村面) 목보리(木浦里)로 추정되는 곳으로, 1897년 개항되기 이전까지는 수군 만호진이 있었던 곳이다.

무안은 백제 시대에는 물아혜(물아래골)라 하였고, 고려 시대에 무안군이 되었다. 조선 1413년(태종 13) 군현제 개편으로 무안현이 되었고, 1896년에 전라남도 무안군이 되었다. 1906년 월경지의 정리가 이루어지고, 1910년 한국을 병탄한 일제는 무안부를 목포부로 개칭했다. 1949년 시제 실시에 따라 목포시가 되었다.

2005년 전라남도청이 남악 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본격적으로 신도시 개발이 시작되었다. 2006년 용당1동·산정2동을 용당1동으로, 북교동·무안동·남양동을 목원동으로, 유달동·충무동을 유달동으로 통합하여 기존의 행정동 26개를 22개로 통·분합 하였다. 2012년 1월 남악 신도시의 옥암지구 옥암동에서 분리된 부주동이 신설되어 23개 동이 되었다.

이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목포의 역사는 개항과 더불어 시작되는 도시로 알고 있다. 목포가 개항으로 근대도시로 발전했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목포의 역사는 고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고, 조선 1439년(세종 21)에 목포에 수군 만호진이 설치되어 그 유적이 현재까지 남아 있다. 목포 시민의 날을 목포 만호진이 설치된 날로 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도 바로 목포의 역사가 그 만큼 오래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목포는 유달산 기슭에 자리 잡은 항구도시이다. 해발 228m의 유달산은 호남의 개골산이라 불리는 영산이다. 목포의 상징이라 일컬어지는 유달산은 목포의 애환만큼이나 사연도 많은 산이다. 산의 이름은 옛 문헌에는 느릅나무 유(楡), 낫쇠 유(鑹)자를 써 왔으나 언제부터인가 선비 유(儒)자 유달산이 되었다. 그러나 일제는 깨우칠 유(諭)자를 써서 마치 한국인에게 무엇인가를 깨우쳐 이르게 하려

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또한 일제는 일본의 승리를 바위에 조각하고, 그들의 신앙의 대상을 바위에 새겨 산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았었다. 그러나 광복 후 유달산 공원화사업으로 등산로가 정비되고 조각공원, 난공원이 들어섰으며, 둘레길이 조성되어 시민의 공원으로 자리 잡았다.

유달산이 공원화되면서 유달산 중턱에 있던 많은 초가집들이 철거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미로와 같은 골목길이 많이 남아 있다. 그것은 목포가 개항되면서 개항장의 거류지 구역과 한국인 거류지역이 차별적인 개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던 곳은 아직도 옛날의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복 이후 여러 가지 사정으로 3대 향 6대 도시의 면모는 사라지고 쇠퇴의 길을 걷기도 하였으나 이제는 아껴둔 땅으로 개발되어 가고 있다.

1. 목원동

목포의 원도심이라는 의미를 지녔다는 목포의 심장, 근대문화 1번지⁰¹⁾ 목원동은 1997년 목포시조례 제1805호에 의거 행정구역 개편으로 북교동(북교, 달성, 죽교)과 남양동(남교, 양동), 무안동(죽동, 호남동, 무안동)이 통합되어 목원동이 되었다.

○ 북교동

본래 무안군 부내면의 지역으로 개항 이후 쌍교의 북쪽에 있다 하여 북교동이라 하였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죽교3동, 달성동을 병합하여 북교동이라 하였다.

○ 달성동

1966년 죽교4동이 달성동으로 바뀌었다. 죽교동이 1949년 동제 실시에 의하여 죽교동을 5개 동으로 하였다가 1966년 동명 변경에 의하여 죽교4동이 달성동으로, 5동은 대반동으로 바뀌었다.

○ 남교동

남교동은 수문통 거리를 중심으로 쌍교의 남쪽에 있다 하여 남교동이라 하였다.

○ 양동

본래 무안군 부내면의 지역으로 지형이 양 형국으로 된 산 밑이 되어 양리(羊里) 또는 양동(羊洞)이

01) 최성환, 『목원동 이야기』, 목포시, 2016, 6쪽

라 불렸다. 또 양동이 경사가 완만하고 바닷가로 이어진 양지바른 곳이라 하여 별 양(陽)을 써서 양동, 또는 개항과 더불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곳에 터를 잡고 살기 시작하면서 서양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해서 양인골이라고 했고, 양(洋)동이라 불렸다고 한다. 1997년 양동과 남교동을 합동하여 양동으로 칭하다가 1997년 행정동 명칭을 남교동의 '남'과 양동의 '양'자를 따서 남양동으로 고쳐 불렀다.

○ 죽동

본래 목포부 부내면 지역으로 개항 이후 바다를 메워 시가지를 만들기 전에는 지금의 로데오광장까지 배가 드나들었다. 목포가 해벽공사를 하고 부두에 하역인부들이 모여들면서 일꾼들에게 죽을 끓여 팔던 사람들이 있어서 죽거리 또는 죽동이라고 하였다 하고, 현 공용주차장 앞 바다로 돌출된 지점에 대밭이 있어서 죽동이라고 하였다고도 한다.

1907년경 2, 3채의 한국인 가옥이 있었을 뿐이었는데, 지금의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봉수봉 아래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홍종우(洪鍾宇, 상하이에서 김옥균을 암살한 자)가 여기서 살았던 적이 있었다 한다.⁰²⁾ 1914년 남교동의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죽동이라고 하여 목포부에 편입되었다.

○ 호남동

1911년 호남선철도부설공사가 시작되면서 철로를 부설할 곳만 일부 매립공사가 이루어져서 지금의 중앙초등학교 자리는 호수처럼 되어 여기를 신죽호(新竹湖)라고 했다. 질펀한 개펄이라 개펄등이라고도 하였는데 1913년 남교동, 죽동, 산정동의 각 일부를 합병하여 호남정이라 불렀으며 광복 후 호남동으로 고치고 1949년 동제 실시에 의하여 호남, 대안, 창평, 명륜의 4개 동이 호남동회의 관할이 되었다.

대안동은 일제 강점기에 죽교동, 남교동, 신창동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대정정(大正町)이라 하였다가 광복 후 대안동으로 고쳤고, 창평동은 죽동, 남교동, 신창동의 각 일부를 통합하여 창평정(昌平町)이라 하였는데 광복 후 창평동으로 하였고, 명륜동은 죽동, 신창동 각 일부를 합하여 명치정(明治町)이라 하였는데 광복 후 명륜동(明倫洞)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 무안동

무안동이란 이름은 일본인이 각국 거류지에서 무안으로 넘어가는 마루터기(기업은행 앞에서 트윈

02) 목포부, 「여담일숙」, 『목포부사』, 1930, 14쪽.

스타로 넘어가는 고개)를 무안통(務安通)이라 하여 이 근방을 무안통 1정목(丁目)에서 6정목까지 구획하였다가 조선총독부에서 목포 시가지를 조사하여 각국 거류지와 목포부 부내면의 동·정명을 정하면서 ‘무안통’으로 확정하였다.

1948년 무안통을 무안동으로 고치고 1949년 동제 실시에 의하여 무안동회가 되어 무안, 측후, 상락의 3개 동을 관할하였고, 1997년 인접 동인 호남동, 죽동, 무안동을 합하여 행정동명을 무안동이라 하였다.

○ 무안감리서

목포시 북교동 178-1. 지금의 노인요양병원 자리이다. 1897년 목포 개항으로 개항지 내에서 외국 영사관과의 외교사무와 지방행정사무를 관장했던 관아이다. 청사는 처음에는 목포진의 만호청을 수리하여 사용하다가 1901년 이 자리에 신축 이전하였다.

○ 북교동 쌍샘 거리

지금의 북교동성당 부근에 있었던 샘터 거리. 북교동에는 두 개의 샘이 있었는데 그 하나가 쌍샘이다. 북교동성당 앞에서 유달산 일주도로로 나가는 길이 뚫리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현재 북교동 157-1이다.

○ 불난 여학교 자리

목포시 북교동 131번지. 즉 불종대 거리에서 유달산 쪽으로 올라가는 왼쪽 길을 올라가면 문재철의 집 위쪽에 목포공립보통학교(북교초등학교의 전신) 여자부가 있었는데 1927년 12월 화재⁰³⁾로 교사가 타버려 폐교되고 여학교 학생들은 보통학교로 옮겼다. 지금은 부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되어 여러 채의 민가가 들어서 있다.

○ 김장성 집터

목포시 북교동 46번지. 지금의 북교동성당 자리이다. 김장성이란 호칭은 제6대 무안감리를 지낸 초정 김성규가 무안감리로 오기 전에 장성군수로 있었던 연유로 김장성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김성규는 목포지방에서 손꼽히는 대지주로 북교동성당이 들어서 있는 방대한 지대에다 집을 짓고 살았다. 또 여기에는 ‘극작가 김우진(金祐鎭) 문학(文學)의 산실(産室)’ 비가 서있다. 김우진은 김성규의 아

03) 목포문화원, 『목포근현대신문자료집성』 상, 2014, 381쪽.

들로 신문학의 선구적인 인물로서 「사의 찬미」를 불렀던 윤심덕과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관부 연락선(關釜連絡船)에서 대한해협(현해탄)에 투신하였다.

○ 큰 샘 거리

쌍교장터 동남쪽에 있던 마을로 큰 샘이 있어 큰 샘 거리라 했다. 여기에 큰 샘이 있어서 주조장(목포양주)이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 불종대 거리

북교초등학교 아래쪽 북교동성당과 옛 신안군청으로 가는 길목에 북교동과 남교동에 걸쳐서 광장이 있었는데 이곳에 불이 나는지 망을 보는 철탑으로 된 망루가 있어서 이곳을 불종대 거리라 불렀다. 이 거리에서는 날마다 장이 섰는데 이곳을 쌍교 근방에 서는 장이라 하여 쌍교장터 또는 쌍기장터라고도 불렀는데 1970년대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불종대도 철거되었고 장터도 전설로만 남았을 뿐이다. 또 쌍기장터 앞에는 속칭 ‘조동이 도개집[趙贊卿酒造店]’이 있었고, 그 건너에는 ‘보통학교 분교실’이 있었는데 한국 사람만을 위한 중등교육기관인 사설 ‘목포심상중학원’이라고 하였다 한다. 불종대는 2018년 초 원래 자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복원되었다.

○ 고무공장 자리

지금의 목화아파트 자리가 고무공장, 또는 경성고무 자리이다. 1925년에 자본금 30만 원으로 한국인들에 의해서 설립된 동아고무 주식회사의 공장으로 종업원 약 200명이 1년에 40만 켈레의 고무신을 생산하였다.⁰⁴⁾ 광복 후에는 경성고무로 합병되어 ‘만월표’ 고무신으로 이름을 떨쳤으나, 국민생활의 향상으로 고무신의 수요가 줄어 판로를 잃고 문을 닫았다.

○ 목포양주 주식회사(삼학양조 주식회사의 전신)

옛 남교동파출소 뒤편에 1929년에 한국인의 자본으로 세워진 목포양주(주)의 주조장(사장 김상섭, 전무 차남진)이 있었다. 이 회사는 광복 후 삼학양조 주식회사(사장 김상두)에서 승계하여 어려운 시절 우리의 시름을 달래주던 삼학소주의 본산지가 되었다.

04) 목포부, 『목포부사』, 1930, 659~660쪽.

○ 수문통 거리

남교동 트윈스타에서 북교초등학교로 나가는 길을 수문통 거리라고 한다. 이 일대는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으로 1925년경 매립되었는데 매립 전에 제방을 쌓으면서 수문을 만들었다가 매립이 완공되어 시가지가 형성되면서 수문이 있던 자리를 수문통 거리라고 했던 것이다.

○ 청년회관

옛 신안군청 앞에 있는 남교소극장이 옛 청년회관이다. 1925년 건축된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1920년대 중반 이후 목포청년운동의 보급자리로서 시민들의 성금으로 지어진 역사적인 건물이다. 이 청년회관은 박화성의 소설 「혈어진 청년회관」의 소재가 되어 일제의 핍박을 받던 민족의 설움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묘사되기도 하였다.

○ 양동 육거리

양동 높은 언덕에 많은 집들이 들어서면서 여섯 갈래의 길이 생겨서 육거리라 하였는데 소방도로가 생기면서 없어졌으나 지금도 이곳을 육거리라 부른다. 이 육거리에 있었던 가수 이난영 생가터에 이난영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 측후동

목포부 각국 거류지역으로 유달산 등구에서 유달산으로 올라가는 길의 좌우이다. 1913년 목포 각국 거류지 및 목포부 부내면의 동명을 정할 때 무안통의 5, 6정목의 일부를 하정(霞町)이라 하였다. 1948년 4월 1일 왜식 동명을 변경할 때 측후동이라 하였다. 일제 때 하정(측후동)에는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의 지점장 관사를 비롯하여 직원 사택이 있었고 일본인들의 사찰인 정토사와 일본인 자녀들만 다니던 명조유치원 등이 있었다.

○ 상락동

일제 강점기의 상반정(常盤町)을 1948년 상락동으로 고쳐 부르게 된 곳이다. 이곳은 목포의 서남쪽 개펄, 즉 송도(松島, 지금의 동명동 언덕)에서 목포역 쪽으로 매립하여서 생긴 동해안통 일부와 천기산(노적봉 뒤 시민종각이 있는 산)을 깎아서 개펄을 매립하고 조성한 무안통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일본인의 상가가 되어 상반정이라 하였던 곳이다.

○ 마루테기(마루터기, 대장간 마루테기)

현 기업은행 유달출장소 앞에서 트윈스타 쪽으로 가는 고개를 마루테기라 하였다. 마루테기는 각국 거류지와 한국인 마을과의 경계에 있는 고개 마루라 해서 마루테기라 했으며, 일제 강점기에 법원(지금의 목포제일교회 자리) 앞에 대장간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대장간 마루테기라고도 하였다. 이곳은 1919년 4·8 독립만세운동 당시 목포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던 목포의 역사적 터전이기도 하다.

○ 부내면(府內面)

목포의 부내면은 당초 무안군 부내면이었다가 목포부 부내면이 되었다. 개항 이후 형성된 한국인 마을들을 부내면에 편입시켰는데 지금의 죽동, 남교동, 양동, 대성동 등이었다.

○ 난포간, 콩나물 골목

죽동에서 속칭 만복동 고개를 넘어 앞산과 마주 바라보이는 곳 지금의 초원빌라에서 옛 원불교 교당 뒤쪽 동네가 ‘난포간’이라는 동네다. 이곳은 본디 바위산이었던 곳을 다이내마이트(난포)를 발파해서 그 돌로 남교동 트윈스타, 수문통 거리 일대의 간석지를 매립했고 또 양쪽에 축대를 쌓아서 이룩된 동네로 속칭 ‘난포튼다’, 즉 ‘발파한다’는 말로 난포를 터서 이룩된 동네라고 해서 ‘난포간’이 되었다.

이 마을의 골목을 콩나물 골목이라고 하는데 이곳 주민들이 콩나물을 길러서 파는 것을 생업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 옛 목포 죽동교회 자리

옛 원불교 교당 옆 죽동 114번지에 1935년 한국 사람의 자본으로 지은 석조건물인 교회가 있었다. 이 교회는 당초 목포중앙교회가 지었으나 1957년 죽교리교회가 인수하여 죽동교회로 개명했다. 2003년 목포시가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이 교회를 철거하려 해서 목포의 문화연대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철거를 반대하였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소실되고 말았다. 지금은 그 자리에 길이 넓어지고 소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 충순 구종명 영세불망비(總巡具鍾鳴永世不忘碑)

현 죽동 초원빌라의 담벼락에 목포의 개항기에 무안경무서 충순 구종명의 영세불망비가 세워져 있다. 이 비는 무안감리서가 있던 자리(옛 신안군청)에서 100여 m 가량 떨어져 있는데 이곳이 당시의

경무서 자리였으며 일제 강점기에는 법원 관사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 말방골

마인게터 아트샵에서 왼쪽으로 올라가는 골목에 막다른 집이 있는데(죽동 230번지) 그 집터가 옛날 말방(마방) 자리이다. 옛날 통신수단으로 역마를 이용했던 시절 1,300여 평의 부지에 말을 기르던 말방이 있었고 마부들이 생활하던 건물이 두 채나 있었다. 이 골목을 말방이 있었다 하여 말방골이라 한다.

○ 무안우체사, 무안전보사

지금의 노라노미술관 자리에 목포가 개항되던 1897년 12월 당시 한국 정부에서 무안우체사를 개설하였고, 다음해 1898년 2월에는 무안전보사를 병설하였다.

○ 만복동

무안우체사가 있었던 죽동의 언덕배기 일대(앞산 밑)를 만복동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 지명이 언제 없어졌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 송쟁이 담(송영이 담)

옛 소망아동원 밑 돌담을 송쟁이 담이라고 불렀는데 여기는 일본인 송영묘태랑(松永卯太郎)이 집을 짓기 위해 쌓은 석축으로 송영이라는 사람의 집 석축이라 하여 송영이 담이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해서 송쟁이 담으로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 감나무꼴창(감나무꼴창)

송쟁이 담 앞 유달산 쪽의 골짜기를 말한다. 옛날 감나무가 많이 있어서 감나무꼴창이라 했다 한다.

○ 죽동 육거리

로테오광장에서 유달산 쪽으로 큰길을 건너면 여섯 갈래의 길이 죽동 육거리이다. 초원빌라 쪽으로 가는 길, 마인게터 잔등으로 해서 앞산 밑 구름다리를 지나 북교동으로 가는 길, 안저자 거리로 가는 길, 유달산 쪽 큰 샘 거리로 가는 길, 노라노미술관, 말방골로 가는 길, 로테오광장 쪽으로 가는 길 등 여섯 갈래의 길이다.

○ 만인계터(마인계터)

죽동 육거리에 있는 마인계터 예술주차장이 마인계터로 볼 수 있다. 만인계터(목포 사람들은 마인계터라 부른다)는 개항과 더불어 부두에 일자리가 생기고 시가지의 확장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자 만인계라고 하는 무진계를 하였는데 지금의 복권과 비슷한 방법으로 돈을 내서 일정한 금액이 모아지면 추첨을 하여 당첨자에게 많은 상금을 주는 행사였다. 이 행사가 있는 날이면 멀리서까지 사람들이 모여들어 성황을 이루었으나 이로 말미암아 많은 폐해가 생겨 폐지되었다.⁰⁵⁾ 이때 만인계를 하던 곳이라 하여 만인계터라 하였다.

○ 쌍새암 거리

죽교동 397-77번지에 쌍새암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물을 길어다 먹었다 한다. 지금은 소방도로가 생기면서 흔적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 안저자 거리

지금의 태동식당 옆에서 죽동 육거리로 가는 길을 안저자 거리라 하였다. 이 길의 양쪽으로 저자가 늘어서 있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이 거리는 1905년 유곽이 공인되었다가 1913년경 앵정(櫻町, 사꾸라마찌, 지금의 금화동)으로 옮겼고,⁰⁶⁾ 1960년대에는 색주가가 있는 골목으로 유명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장의용품을 파는 가게들이 들어서서 널집골목으로 불린 적도 있었다.

○ 오거리

목포역에서 남쪽으로 와서 목포문화원을 지나 선창으로 가는 길, 기업은행 유달출장소로 가는 길, 유달산 등구로 올라가는 길, 그리고 차 없는 거리로 가는 길 등 다섯 갈래의 길이 나 있다. 여기를 목포 오거리라 한다. 오거리는 목포를 상징하는 문화의 거리였다. 어떤 시인은 ‘오거리를 모르고는 목포를 모른다.’ 고 했을 정도로 오거리는 목포의 애환이 서린 목포의 중심지였다.

○ 상반좌(常盤座) 자리

상반좌는 상락동 옛 녹십자병원 옆 유달까바레 자리에 1908~1929년까지 있었던 극장이다. 1921년 김우진이 관여하던 동경경우회 학생순회연극단이 공연했고 막간에 흥난파와 한기주의 연주, 윤심

05) 목포부, 「여담일숙」, 앞의 책, 9쪽.

06) 같은 책, 988쪽.

덕의 독창이 있었으며, 1923년 6월에는 윤심덕이 육영회가 개최한 음악대회에서 동생 윤성덕, 채동선과 함께 노래를 불렀던 곳이다.⁰⁷⁾

○ 철도배수지와 터진목

산정동 종원하이츠빌라 옆에 철도배수시설이 있었다. 호남동119안전센터 앞에서 올라다 보이는 시설이다. 또 그 언덕 밑을 지나는 길을 터진목이라 하였는데 1호광장에서 산정동으로 넘어가는 길을 내면서 철로 쪽의 바위를 허물지 못하고 가운데만 뚫었기 때문에 여기를 터진목이라 불렀다. 1970년대 광주-목포 간 도로를 확장 개설하면서 철도 쪽의 바위산도 허물어버리고 2호광장 쪽으로 새로운 길이 뚫렸다.

○ 멜라콩다리

남교동 수문통으로 뻗어있던 갯고랑이 한국통신 앞에서 역전광장을 돌아 동명동 앞바다로 들어가는 데 한국통신 앞에서부터 복개가 되지 않아 역으로 가려면 역전파출소 앞에 있는 다리를 건너야 했다. 이 다리는 일제 강점기에 놓인 다리로 소화교(昭和橋)라 하였는데, 1960년대 초에 한국통신 앞에서 역전파출소 앞까지 복개가 되었으나 역전파출소부터 동명동 쪽으로는 복개가 되지 않아 상락동, 동명동 주민들이 목포역에 오려면 많은 불편이 있었다. 역 구내에서 소화물을 운반하던 박길수라는 사람이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옛 철도소하물취급소가 있는 곳에서 맞은편 역전파출소의 뒤편까지 사비와 뜻있는 분들의 도움으로 다리를 놓았는데, 이 다리를 박길수의 별명인 멜라콩이라는 이름을 붙여 ‘멜라콩다리’라 하였다. 박길수는 지체가 부자유스런 장애인으로 어려운 일을 했다 하여 1989년 KBS에서 논픽션 드라마 「멜라콩을 아시나요」를 방영한 적이 있다. 또한 목포역의 담벼락에는 ‘멜라콩다리’라고 새겨진 돌이 박혀 있다.

○ 공설운동장 자리

1930년에 매립된 갯마장(갯벌등)에 11,900여 m^2 (3,600여 평)의 운동장(야구장, 테니스장)을 만들어 관람석과 펜스시설을 하고 관리인을 두어 유료로 운영하였는데 광복 후에는 향도여중, 중앙초등학교로 되었다. 향도여중은 그 후 목포여자고등학교로 바뀌어 목포고등학교 자리로 옮기고 현재 중앙초등학교가 들어서 있다. 호남동 동사무소에서 발간한 『호남동풍정』이라는 책자에 갯마장이라는 곳에서 파밭마를 키우고 조련했던 곳이 아닌가 짐작된다고 적었는데, 중앙초등학교 자리가 광복 후

07) 목포문화원, 앞의 책, 227쪽.

기마경찰대가 있었던 곳이다.

○ 천기산, 오포산

‘새천년 시민의 종(시민종각)’이 있는 곳이다. 1904년 4월 개소한 측후소가 있었던 곳으로 측후소가 천기를 보는(기상관측) 곳이라 하여 천기산이라 하였으며, 노적봉 옆에 정오를 알리는 신호기구가 사용되었던 오포가 설치되어 있어서 오포산이라고도 하였다. 또한 1968년 개국한 라디오 목포(RMB, 현 목포MBC)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 구름다리, 생애골창

마인게터 잔등을 넘어 북교동으로 가는 길, 앞산 밑 골짜기를 가로질러 건너는 육교가 있는데 여기를 죽동구름다리라 부르고, 죽동구름다리 밑을 지나 앞산 밑 골짜기에 상여를 놔두는 움막이 있었다 하여 생애골창(상여골짜기)이라고 하였다.

2. 동명동

본디 무안군의 지역으로 목포항의 동쪽 개펄을 간척할 때 만호진터에서 송도를 연결 매축하여서 생긴 곳이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동해안통 6정목과 송도공원부지를 병합하여 송도정이라 하였으며 1948년 왜식 동명 변경에 따라 동명동이라 하였다.

1949년 동제 실시에 의하여 광동과 호남동 일부, 산정동 일부를 관할하였으며 1997년 행정동 분합으로 산정동 일부를 삼학동으로 분리하였다.

○ 광동

목포항의 남쪽 개펄을 간척하여 일본인의 거류지가 되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서정(曙町)으로 되었다가 1948년 왜식 동명 변경에 따라 광동으로 고치고 1949년 동명동회의 관할이 되었다.

○ 송도신사(松島神社)

목포가 개항이 되어 해안벽을 축조하면서 육지가 된 송도(동섬, 뽕섬, 東島)에 일본인들이 공원을 조성하고, 신사를 지어 한국 사람에게 참배를 강요했던 곳이다. 또한 프랑스공사가 목포주재 프랑스 영사관의 부지로 물색하였다가 포기한 곳이기도 하다. 송도는 개항 후 어떤 일본인이 개항 소식을 듣

고 목포에 투자를 하면 큰 이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송도를 샀는데 신사와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많은 손해를 보고 울고 떠났다는 일화가 전한다.⁰⁸⁾ 동섬에는 옛 신사로 올라가는 계단(동명동 77계단)이 지금도 남아 있다.

3. 유달동

목포의 상징인 유달산의 동남쪽 아래 위치한 동인테 목포의 개항으로 각국 거류지역이 되어 주로 일본인의 거주 지역으로 산수정(山手町)이라 하다가 광복 후 유달동이라 하였다. 1949년 동제 실시에 의하여 유달동, 중앙동, 대의동이 병합하여 유달동이 되었다가 1997년 목포시 행정동 분합에 따라 서산동, 금화동 지역을 통합하였고, 2006년 행정동 분합에 따라 충무동과 통합하여 유달동의 동명을 승계하였다.

○ 유달동의 마을들

- 대의동(大義洞): 일제 강점기 동명 대화정(大和町).
- 중앙동(中央洞): 일제 강점기 동명 본정(本町).
- 서산동(西山洞): 일제 강점기 동명 옥정(旭町).
- 금화동(錦和洞): 일제 강점기 동명 앵정(櫻町).
- 경동(京洞): 일제 강점기 동명 경정(京町).

○ 국도1호선 기점

유달산우체국 옆에 「국도 1·2호선 기점 기념비」가 서 있다. 원래 「국도 1·2호선 기점비」였으나 2013년 국도 1호선 기점이 목포대교 개통으로 고하도로 옮겨지면서 기념비로 바뀌었다.

○ 온금동(다순구미, 따순기미, 따신기미, 다순그미, 다순금)

온금동은 본디 무안군 부내면의 지역으로 목포시의 남서해안 유달산 기슭에 자리한 아늑한 구미(바닷가나 강가의 곳이 길게 뻗고 후미지게 휘어진 곳)로 다순구미라 불렸다. 다순구미가 언제부터 온금동으로 불렸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본이 작성한 개항 당시의 목포지도에 온금동으로 나타나는 데 이때부터 온금동으로 부르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온금동은 연근해어업이 한창일 때 한고장 사람

08) 목포부, 「여담일속」, 앞의 책, 1쪽.

들이 모여 동향촌을 이루고 살았는데 여러 고장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에서 드물게 보는 경우라 할 것이다.

○ 대반동(대만동, 유달산 너메)

대반동은 유달산 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곳으로 1949년 동계 실시에 따라 죽교5구동으로 하였다가 1966년 동명 변경에 의하여 대반동으로 바뀌었다. 대반동을 대만동이라고도 부르는데 공생원이 있는 마을을 이렇게 부른다.

○ 사꾸라마찌 유곽

지금의 금화동. 목포가 개항되면서 인구의 유입이 늘어나자 죽동에 유곽이 생겼다가 주거지역이 늘어나면서 1913년 사꾸라마찌[櫻町, 금화동]로 옮겨졌다.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다.

○ 러시아산, 옥산(旭山)

금화동 뒷산을 통칭 러시아산이라 하였다. 목포가 개항되어 각국 거류지가 확정되자 러시아가 영사관을 짓고 석탄창고를 설치하여 러시아 군함의 기항지를 만들려고 하였으나 러·일 전쟁의 패배로 일반에게 불하하였다. 이에 러시아산이라 불려졌고, 일본인들은 아침 해가 가장 먼저 비치는 곳이라 하여 아침 해 옥(旭)자를 써서 옥산이라고 하였다.

○ 목포도서관 자리

1926년 개항 30주년 기념으로 전라남도 물산공진회에서 영빈관으로 지었던 금청각(金淸閣)을 1928년 대의동 2가 1번지 목포부청 구내로 옮겨 목포도서관으로 썼다. 건물은 일본식 누각으로 지금의 근대역사관 1관의 입구 계단에 세워졌었다.

○ 부립 목포병원 자리

1904년 설립된 목포 일본인 거류민단 위탁병원이 1906년 대의동에 부립 목포병원으로 설립되었다. 부지 1,170평, 건평 130평, 의사 5명, 약사 1명, X선기사 1명, 간호사 6명의 수술실과 X선실, 입원실(35병상)과 5개의 진료과목의 제법 큰 병원이었다.⁰⁹⁾ 광복 후에도 존속하였으나 1984년 지방공사 목포의료원으로 전환되어 신청사를 지어 이전하면서 지금은 주택지로 바뀌어 흔적도 찾아볼 수

09) 목포부, 앞의 책, 915쪽.

없게 되었다.

○ 목포경찰서와 목포소방조

현 초원실버타운 자리에 목포경찰서가 있었다. 1907년 한국의 경찰권을 빼앗아 간 일제는 이 자리에 경찰서를 두고 남교동(옛 원불교당 자리)의 무안경찰서에 분서를 두었다. 1910년 경찰서 동쪽(지금의 초원실버타운 동쪽의 건물자리)에 상설 소방수 대기소를 두고 소방수가 소방기구를 갖추고 밤낮 대기하였다. 소방기구의 격납고는 뒷산을 뚫은 동굴이었고, 철골재 망루가 서 있었다. 경찰서 구 내에는 50평 규모의 ‘상무관’이라는 유도 도장도 있었다.

○ 켜보선창

다순구미 앞바다를 매립하면서 제방을 곧바로 쌓지 않고 ㄷ자 모양으로 꺾어 넣어서 어선 정박처를 만들었는데 바닷가 안벽이 언청이처럼 안쪽으로 들어갔다 하여 언청이의 사투리인 켜보선창이라 하였다. 이 켜보선창은 1981년 제10회 전국소년체전이 광주와 목포에서 열렸는데 유달산 일주도로를 확장 정비하면서 일직선으로 매립하여 없어졌다.

○ 산신당

온금동의 뒷산 양지바른 산중턱에 산신당이 있었다. 1978년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철거되어 터만 남아 있다. 산신당에서는 매년 정월 보름날 동네 제사를 지냈는데 언제부터 동제를 지내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아주 오랜 옛날부터 지내왔다고 한다. 이 산신당의 벽에는 하얀 수염이 난 신선이 호랑이 등에 앉아있는 그림이 있었고 이는 유달산의 산신령이라고 하며 풍어를 빌고 출어의 안전을 기원하였다고 한다.

○ 등산진(올피나루)

목포가 개항되기 전 무안군 이로촌면의 후미(해남 화원반도와 마주보는 나루)를 등산진이라 하였는데 1924년 매립되어 조선내화공장이 들어섰다. 여기로 해서 물에 오르면 말테기를 넘어 무안으로 갔다고 한다.

○ 말테기(마루터기, 온금동 말테기)

옛 조선내화 공장 옆에서 유달초등학교 뒤로 넘어가는 고개가 옛날 올피나루의 길로 추정되며 이 고개를 말테기, 온금동 말테기 고개라 하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 고개가 아리랑고개라 불리는

데 그 연유는 알 수 없다.

○ 제2수원지[玉の池, 龍淵], 제2수원 예비지

1910년 옛 목포제일여자고등학교 뒤편 유달산 기슭에 저수지를 축조하였는데 1912년 제2수원 예비지를 제2수원지의 좌측 위쪽에 증설하였다. 지금은 폐쇄되어 흔적만 남아 있으나 당시는 일본인 거주지역의 중요한 급수원이었으며 이 저수지를 ‘다마노이께[玉の池]’라 하고 주변에 뱃나무를 심어 유원지를 만들어 놓았다. 또한 일제 말기 이 자리에 신사를 이전 신축하려고 저수지와 여과지, 배수지의 중요시설을 모두 파괴 매몰하였는데 광복 후 1955년 파괴되지 않았던 예비지를 복구하고 여과지와 배수지를 신설하여 ‘용연(龍淵)’¹⁰⁾이라 하여 이용하였으나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그 흔적만 남아 있다. 상동에 있는 제1수원지를 축조할 당시 일본인들이 ‘용연’¹¹⁾이라고 불렀는데 이 수원지가 어떻게 용연이라 불리게 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 이 수원지는 1984년까지 이용하였으나 인명사고가 자주 일어나서 1988년 폐쇄되었다.

○ 대반동의 마을들

- 소반동(나승대 골착): 유달해수욕장의 뒤편에 있는 마을.
- 용전동: 해양대학교 옆에 있는 마을.
- 봉후동(최부자 골착): 어민동산 부근의 마을.
- 소새산(소사평, 목가이): 서북쪽으로 뻗어나간 해발 77m의 유달산 이등봉의 줄기.
- 목끝, 목개: 봉후동의 서북쪽에 있는 곳.
- 덕산마을: 소새산 남쪽 기슭에 있는 마을.

○ 충무동

1962년 법률 제1775호 「시·군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63년 무안군 이로면 달리, 놀도리 등 13개 도서가 목포시로 편입되어 충무동이라 하였다.

○ 달리(達里, 달동, 달리도, 월도)

본디 지도군 압해면의 지역으로 달리도 또는 달동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고하도,

10) 이 저수지의 배수지 철문 위에 있는 돌에 ‘용연’이라 새겨져 있다.

11) 목포지편찬회, 『목포지』, 1914, 249~250쪽.

허사도, 외달도, 노하도를 병합하여 무안군 이로면에 편입하여 달리라 하였는데 1963년 목포시에 편입되어 충무동이라 하였다.

○ 외달도(外達島, 발달이, 멩더기, 외월도)

달리도 서쪽에 있는 섬. 달리도 바깥쪽에 있다 하여 ‘발달이’라고 하였다. 1911년에 일제가 발행한 지도에는 월도(月島), 외월도(外月島)로 나타나 있다. 우리말로 달이, 발달이 등을 한자로 달리도(達里島), 외달도(外達島)로 적고 있다. 지금은 해수욕장이 조성되어 있다.

○ 고하도(高下島, 孤霞島, 보화도, 칼섬)

달리 동쪽에 있는 섬이었으나 지금은 신외항과 연륙이 되어 있다. 1597년 충무공 이순신제독이 주둔했던 흔적과 충무공의 공을 기리는 모충각이 있고, 일제에 의하여 육지와의 시험재배에 성공한 곳이기도 하다. 목포와 마주하고 있는 섬의 지형이 용의 형상을 하고 있다 하여 용머리, 또는 병풍바위가 있어서 병풍도라고도 하며 칼섬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고하도에는 성안골(큰 덕골: 칼바위 아래쪽에 있는 골짜기로 충무공이 축성한 성의 안쪽에 있는 골짜기), 선소(전선을 건조했다는 자리), 큰 산, 칼바위, 말바위, 고두루지(섬두루지, 섯드러지), 큰 목, 작은 목, 작은 목개, 포리개미, 탕건바위, 강남기미 등의 지명이 있다.

○ 멩섬(등대섬)

목포등대가 있는 섬. 고하도와 용당리 사이에 있는 섬. 옛날에는 멩섬이라 불렀으며 한자로는 몽하도(夢下島)라고 쓴다. 이 섬에는 목포의 상징새(市鳥)인 학 모양으로 만들어진 등대가 있다.

○ 허사도(許沙島, 허새도, 허새)

목포 신외항 건설로 섬의 흔적은 사라졌으나 영암군 삼호면 가지도에서 구와도를 거쳐 연도교로 신외항으로 연결된다.

○ 놀도(訥島, 육도, 울도)

본래 지도군 압해면의 지역으로 1914년 장좌도를 병합하여 놀도리라 하고 무안군 압해면에 편입되었다가 1963년 목포시에 편입되어 1966년 충무동의 관할이 되었다.

○ 충무동의 섬들

맥도(麥島, 보리섬), 우도(牛島, 소섬), 장좌도(長佐島, 장자도, 장도섬), 별섬(別島, 판 멍더기, 별도섬), 장구섬(長九島, 소두량도(小斗量島, 소두량섬), 노속도(老束島, 노랑섬, 노동도) 등이 있다.

4. 만호동

조선조 세종대에 수군만호가 관장하던 진영이 있었던 곳을 만호진, 목포진이라 했는데 일제 강점기에 만호진이 속해 있는 동해안통 7정목을 목포대라 불렀으며 1948년 동명 변경에 따라 만호동이라 불렸다. 1949년 동제 실시에 따라 중동(仲洞), 만호동(萬戶洞), 수강동(壽康洞), 해안동(海岸洞), 항동(港洞), 유동(柳洞), 금동(錦洞), 경동(京洞)의 8개 동을 관할하였으며, 1997년 행정동 분합에 따라 영해동과 만호동을 통합하여 만호동이라 하였다.

영해동은 영해동을 비롯하여 축복동, 행복동, 보광동, 복만동, 산정동 등 6개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 목포진 유적비

만호동 1의 56번지 목포 만호진의 옛 터에 2015년 1월 준공된 목포진역사공원 안에 목포진 유적비와 옛 수군만호의 선정비 등이 서 있다. 특히 목포진 유적비는 언제 누가 세웠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광복 이후 목포시에서 세웠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목포의 뿌리에 해당하는 목포진 유적이 있었던 곳임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비를 세운 것이 아닌가 한다.

○ 목포대(木浦臺)

해역을 쌓아 시가지를 매립하면서 목포진이 있던 자리를 일제강점기에 ‘목포대’라 불렀다. 역사유적지의 성격보다는 언덕이라는 지형적 의미를 강조한 말이다. ‘목포진’이라고 부르는 것이 올바른 용어이다. 한편 이 일대는 개항 이후 영국영사관 부지로 설정되었는데 실제 영사관 건물이 세워지지는 않았다. 이곳이 대영국기지임을 상징하는 경계석이 세워져 있었는데 당시 사용된 비석이 발견되어 목포근대역사관 1관에 보관되어 있다.

○ 만호동의 마을들

본디 목포부의 지역으로 각국 거류지였는데 1914년부터 일본명의 동명을 쓰다가 광복 후 우리의 이름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 수강동(壽康洞): 일제시기 동명 수정(壽町).
- 해안동(海岸洞): 일제시기 동명 해안통(海岸通).
- 항동(港洞): 일제시기 동명 항정(港町).
- 중동(仲洞): 일제시기 동명 중정(仲町).
- 유동(柳洞): 일제시기 동명 유정(柳町).
- 금동(錦洞): 일제시기 동명 금정(錦町).
- 경동(京洞): 일제시기 동명 경정(京町).
- 영해동(榮海洞): 일제시기 동명 영정(榮町).
- 축복동(祝福洞): 일제시기 동명 축정(祝町).
- 행복동(幸福洞): 일제시기 동명 행정(幸町).
- 보광동(寶光洞): 일제시기 동명 보정(寶町).
- 복만동(福滿洞): 일제시기 동명 복산정(福山町).

·산정동은 연동지선의 개펄이었는데 동명동에서 삼학도와 갯바위가 제방이 쌓여 육지가 되면서 삼학도 일대가 산정동으로 되어 영해동의 관할이었다가 영해동이 만호동으로 되면서 만호동에 편입되었다.

○ 갯고랑, 운하

개항 당시 동쪽 해안(영해동 일대)과 남쪽 해안(해안동 일대)에서 유달산 기슭으로 들어가는 갯고랑이 두 줄기 있었는데 여기를 준설해서 만호진의 북쪽에서(지금의 영란횃집 앞) 접속시켜 운하를 만들면 시내의 교통 등 도시 발전에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유지의 곤란 등을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갯고랑으로 벼 2, 3백 석을 실은 배가 지금의 초원실버타운 앞까지 드나들었다 한다.¹²⁾

○ 부영잔교(富永棧橋, 도미나가 산바시), 조기잔교(朝汽棧橋, 조끼 산바시)

영해동에는 몇 군데의 부잔교(浮棧橋)가 있었는데 일제 강점기에 건설된 것으로 일본인이 운영하던 부영선구점(목포문화원에서 선창 쪽으로 가서 삼거리의 왼편 모퉁이에 있던 선구점) 앞에 있는 부잔교를 도미나가 산바시라 했는데 어떤 곳에서 건조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또 옛 제일은행에서 해안 쪽으로 내려간 부두에는 조끼 산바시라는 부잔교가 있었는데 여기는 조선기선주식회사의 전용잔교였는데 광복 후에도 상당기간 일본명으로 불려오다가 영해잔교, 조양잔교, 대흥잔교 등으로 불렸으

12) 목포지편찬회, 앞의 책, 291쪽.

나 지금은 전부 없어졌다.

○ 목포무선전신국

1910년에 항동 2번지 목포진이 있었던 언덕에 세워졌다. 원래 현 신안군 하의면 옥도에 설치된 시설이 옮겨 온 것으로 『목포부사』에는 한국 최초의 무선전신 시설이라 평가되어 있다. 안테나는 남쪽 언덕(옛 목포지방해난심판원의 뒤쪽)에 180척의 철기둥을 세워 약 60m의 공중선이 설치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겨우 각 등대간의 통신, 해군함정과의 중계, 근해항로의 선박에 대한 경보, 해난구조 등 긴급한 경우나 일기예보 등에 이용되었으나 1925년 제주도에 무선전신국이 설치되면서 목포-제주 간의 전보와 선박통신의 해안기지국의 역할을 하였다.¹³⁾

○ 면화회사 자리

지금의 송광비치아파트 자리이다. 일제가 육지면의 재배에 성공하자 한국인 농가에 재배를 강요하여 실면을 일본으로 실어내다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조면공장을 세워 1차 가공한 조면을 가져갔던 것이다.

○ 제유공장 자리

지금의 수협 신용부가 있는 자리이다. 숨을 뽑아낸 무명의 씨에서 기름을 짜는 공장이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고급 ‘면실유’는 식용으로 썼고, 중급 기름은 비누를 만들었는데 서산동 러시아산 등성이에 살던 가난한 한국인들은 기름을 정제하고 남은 기름찌꺼기를 걷어다가 양잿물과 겨를 섞어서 새까만 비누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똥비누’라 해서 시골로 가지고가서 식량과 바꾸어 몰래 가지고 와서 허기를 면했던 것이다.

○ 핏바리 골목

지금의 항동시장 일대에 있던 사창가 골목이다. 광복이 되면서부터 1970년대 초 부두 정비사업으로 삼학도로 옮기기 전까지 붉은 등, 푸른 등을 쳐놓고 아줌마들이 지나가는 손님들의 옷소매를 끌면서 호객을 했던 곳이다. 핏바리(ひっぱり)는 잡아끈다는 일본말이다.

13) 목포부, 앞의 책, 275~278쪽.

○ 삼학도

삼학도는 유달산과 함께 목포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곳으로 목포항 동남쪽에 자리한 면적 1.12km², 해안선 길이 4.3km, 대삼학도의 가장 높은 곳은 해발 73m이다. 세 개의 섬이었으나 연륙이 되어 그 모습은 사라지고 말았다.

삼학도에는 아름다운 사랑의 전설이 삼학도의 지명의 유래를 말해주고 있는데, 1961~1965년 대삼학도와 갯바위를 잇는 방조제가 쌓이면서 세 개의 섬 사이가 매립되어 섬으로서의 형태를 완전히 잃어버렸고, 부두가 축조되고 공공기관과 공장이 들어서면서 목포의 상징으로서의 삼학도의 면모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한동안 옐로우하우스가 옮겨지는 등 술한 수모를 겪기도 하였으나 뒤늦게 공원화사업으로 다소 정비가 되었고, 지금은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이난영공원이 자리하고 있다.

삼학도의 이름을 따서 붙인 삼학동에는 삼학도가 없고 엉뚱한 만호동의 관할로 되어 있다. 개항 이후 일본인에게 몰래 팔려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더니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만신창이가 되고, 이제는 지명에서마저 소외되었다.

5. 대성동

대성동은 본래 무안군 부내면 지역인데 연치동의 연산배수지 정상에서 남서향으로 부채꼴로 펼쳐진 지역으로 바닷가에 자리 잡고 있다. 개항 후 신작로(광주-목포 간 도로)가 뚫리면서 새로이 번창한다는 뜻에서 번창동으로 불렸다가 다음에 신창동으로 불렸다. 1914년 행정구역의 폐합에 따라 연치동, 신창동, 북교동의 각 일부지역을 병합하여 대성동이라 하여 목포시에 편입되었다. 1945년 광복과 함께 목포시 행정구역 개편으로 전체 25동중 제5동이라 칭하였으며 1953년 지방자치 실시로 대성1구동, 대성2구동으로 나뉘었다. 1969년 내무부 지역개편으로 대성1동, 대성2동으로 개칭하였다가 1997년 대성1·2동이 대성동으로 통합 개편되었다.

○ 목포공립상업학교

1920년 4월 지금의 대의동에 있었던 거류민단사무소에서 한·일인 공학의 고등소학교 졸업자를 입학자격으로 하는 수업연한 3년의 상업전수학교를 설립하였다. 1922년 대성동에 터를 잡아 1,600평의 부지에 145평의 교실을 신축하여 이전하고 목포공립상업학교로 개칭하였다.

1939년 교사를 용당동 현 교사(목상고등학교)로 신축 이전하였고 이 자리에는 1942년 목포중학교(5년제)가 설립되었다. 목포중학교는 목포고등학교로 개편되어 용당동으로 신축 이전하였고 목중고

와 교사환치로 지금은 목포여자고등학교가 들어서 있다.

○ 나무장터(장텃거리, 장터거리, 신창동장터)

목포여자고등학교 앞 교차로 부근(대성동 주민센터와 대성초등학교 쪽으로 가는 삼각지)에 있었던 식료품이나 일용잡화를 파는 시장이었는데, 특히 당시 땀감으로 찢던 장작을 쌓아 놓고 팔아서 나무 장터, 장텃거리 등으로 불렸다.

○ 뽕바탕

대성초등학교 일대와 노인복지회관 서쪽의 개펄땅을 뽕바탕이라 하였다. 특히 목포에는 간석지가 많아 뽕바탕이라 불리는 곳이 여러 곳이 있어서 앞에다 동명을 붙여 ‘대성동뽕바탕’, ‘연동뽕바탕’ 등으로 불렸다. 이 뽕바탕에서는 시금치, 배추 등의 채소를 재배하였다.

○ 솔개재(연치동)

대성동에서 산정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우리의 아름다운 말을 한자로 고쳐 쓰면서 솔개 연(鵞), 언덕 치(峙)자를 써서 마을을 연치동이라 했는데, 옛 대성동우체국에서 연산배수지를 지나 산정동으로 넘어가는 길이다. 지금은 그 길을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다.

○ 일본송배수지(一本松配水池), 연산배수지

무안군 삼향읍 유교리 국사봉 기슭에 있는 수원지에서 오는 송수관이 대성동 일본송배수지(연산배수지의 서쪽 아래)로 들어와 시내로 배수된다 하여 수도방죽이라고도 불렸다. 연산배수지는 일본송 배수지의 위쪽에 있었는데 연산저수장, 솔개재배수지, 솔개재방죽이라 하였다.

○ 신창동(新昌洞)

광주-목포 간 도로가 뚫리면서 생긴 마을을 신창동이라 불렀는데 1914년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대성동으로 흡수되어 마을 이름이 없어졌다.

○ 영덕이네 배추밭

지금의 대성초등학교 일대의 뽕바탕에 있던 배추밭을 영덕이네 배추밭이라 불렀다. 여기는 정병조의 소유지였는데 일본인들이 차지하려는 것을 재판을 통해 되찾은 땅으로, 당시 재판소에 근무하던 구 주사(具主事)라는 사람이 이 재판에 많은 도움을 주어 그 은혜로 그 땅을 구 주사에게 주었는데 구

주사가 같은 친목계원인 김영덕이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이 땅에 배추농사를 지었고 그 배추밭이 규모도 크고 생산량도 많아 ‘영덕이네 배추밭’으로 이름을 떨쳤다.

○ 피병원(避病院)

옛 대성동 목포시노인복지관 자리에 대성원이라는 법정전염병 격리병동이 있었는데 여기를 피병원이라 불렀다. 여기는 1898년 일본인들이 설사환자가 발생하자 환자가 일반인과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무안동의 산기슭에 세웠으나 시가지의 팽창으로 1900년 지금의 서산동 뒷산으로 옮겼다가 부지가 개인에게 불하되자 녹십자병원(지금의 목포문화원 뒤) 부근의 바닷가로 옮겼다. 그러나 여기도 호남선 철도의 목포정거장 부지와 가까이 있어 1912년 연치동(현 대성동)의 서북단 작은 언덕에 세웠다.¹⁴⁾ 이 자리는 1962년 목포아동결핵병원이 설립되었다가 목포시노인복지관이 들어섰고, 복지관은 대성지구 재개발 사업 지구에 포함돼 철거되었다.

○ 산정동 성당

대성동천주교회보다는 산정동성당으로 더 잘 알려진 천주교회가 있었는데 교회 자리는 옛 골롬반병원의 주차장으로 쓰였다. 그 아래 동남쪽으로 하얀 십자가(1913년 건립, 길이 18척, 가로 7척 8촌)가 목포 시내를 내려다보고 세워져 있었다. 이 성당의 서북쪽에 있던 사제관의 운동장 자리에는 1955년에 세워진 골롬반병원이 있었으며, 십자가가 세워졌던 자리에는 산정동성당이 새로 지어졌다. 지금 남아있는 사제관은 1934년에 처음으로 교구가 발족하면서 지어진 것이다.

6. 용당1동

용당동(龍塘洞)은 원래 1789년(정조 13)에 간행된 『호구총수』에 무안군 이로촌면 용당리(龍唐里)로 나오고, 「무안 목포진 지도」(1872년)에는 용당리 자진칠리(自鎭七里)라고 쓰여 있어 목포진까지의 거리가 7리임을 나타내고 있다.

1910년 일본에 병합되어 부내면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 당시 무안군 이로면 용당리로 편입(하당리와 부내면 용당리와 내동, 관해동, 산정리의 각 일부)되었다. 1932년 무안군 이로면 죽교리, 산정리, 용당리의 일부가 목포부로 편입되었고, 무안군 이로면(산정리, 상리, 용당리, 달리, 눌도리)이 목포시 행정구역으로 편입되었다.

14) 목포부, 앞의 책, 922쪽.

1980년 시가지가 확장됨에 따라 용당1동과 용당2동으로 나뉘었는데, 경계는 광주-목포 간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북쪽은 용당1동, 남쪽은 용당2동으로 하였다.

○ 용당(마을)

용당이, 용당이, 원용당이라고도 하는데 지금의 목상고등학교(구 목포상고) 북동쪽 마을(옛 법원 앞길의 건너편)이다.

○ 내동

안테 거리라고도 하였는데 양을촌과 안장동 중간에 있는 마을로 목포대학교 목포캠퍼스 입구 쪽 마을이다.

○ 간새재(고개)

웃 용당이 북쪽에서 산정리로 가는 고갯길(시청 앞에서 동초등학교 사거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 동목포

목상고등학교 북서쪽 마을, 옛 무선전신국 직원 아파트 부근. 동목포에는 1954년 무렵부터 기차 간이역이 있었는데 호남선철도의 복선화가 되면서 없어졌다. 철도 폐선부지는 공원으로 거듭나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 속개

터진목 아래 있는 개. 목상고등학교 서쪽에 있는 개로 목포고등학교 앞에서 청호중학교 서쪽 담을 따라 삼향천으로 흘러가는 갯고랑이다. 그러나 지금은 전부 복개되어 알아보기 힘들다.

○ 당꼬(당꼬, 뽕등)마을

동부시장 주차장 부근, 목상고등학교 남서쪽에 있는 마을.

○ 오장골(들)

용당이 서쪽에 있는 들(지금의 시청 일대). 일본인들이 권업모범장 목포지장 면작시험장으로 육지 면 재배에 관한 시험 연구와 우량종자의 번식 등에 종사하였던 곳이다.

○ 목포면작지장(木浦棉作支場)

1904년 고향도에서 육지면의 시험 재배에 성공한 일제는 용당동에 재배장을 만들어 면화에 관한 시험사업에 착수하였다. 이곳이 현 목포시청을 중심으로 한 용당동 일대이다.

목포면작지장은 1906년 권업모범장 목포출장소로 설립되었다가 1910년 권업모범장 목포지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1929년 농사시험장이 되어 광복 후에도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1980년 무안군 청계면으로 옮겨갔다.

○ 차남진 방죽

KT 동목포지점의 맞은편 철도 건널목 옆에 있었던 방죽. 3호광장 부근의 차남진 농장의 농업용수 유수지였으나 지금은 메워져 없어졌다.

○ 세한루(歲寒樓)

소설가 소영 박화성의 고택. 박화성의 남편인 천독근이 경영하던 비단공장(인조견을 만들던 목포 직물 주식회사였으나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다)의 안집이었다. 세한루 건물은 현재 사라졌고 그 자리에 박화성 소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 목포공립상업학교

용당동 937번지에 자리 잡고 있는 현 목상고등학교이다. 1920년 대성동 40번지에서 개교하였고, 1939년 지금의 자리로 옮겨와 오늘에 이르렀다. 지금은 흔히들 상고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목상이라고 불렀다. 교명이 여러 번 바뀐 탓으로 추측되는데 설립 당시는 목포공립상업학교였으며, 1946년에 목포공립상업중학교(6년제)였고, 1953년에 목포상업고등학교로 바뀌고, 2001년에 전남제일고등학교, 2014년 현 목상고등학교로 바뀌었다.

○ 목포무선전신국

목상고등학교 북동쪽 언덕에 무선전신국이 있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높은 안테나 첩기둥이 세워져 있어서 멀리서도 무선전신국임을 알 수 있었다.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7. 용당2동

○ 당산(堂山)

진섬의 서쪽에 있었던 산. 해발 20.3m.

○ 진섬[長島, 장도]

진섬마을 위쪽에 있는 섬. 일제 말엽 왕자제지회사를 세워 군수공장으로 쓰려다 패전으로 굴뚝만 남아 있었으나 당산이 헐리고 주변이 평지로 되면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 진섬마을

진섬 밑에 있던 마을. 옛날에는 채소농사를 지어 진섬 무(진섬무수, 진섬무시)가 달고 맛이 좋아서 목포 사람들이 많이 즐겨하였다.

○ 터진 목(개)

문턱개 서쪽에 있던 개. 목포경찰서 남서쪽 입암천 수문이 있는 곳. 옛날 왕자회사가 있던 언덕 앞의 개.

○ 일종구지(곳)

용당동 복판에 있던 곳. 목상고등학교 남서쪽 용당2동 주민센터가 있는 부근.

○ 용당제방

일종구지에서 진섬(문고 쪽)으로 조그마한 제방이 있었는데 이 제방이 용당에서 진섬으로 연결하는 구실을 하였다. 제방은 차남진이 축조하였다는 말이 있는데 확인할 수 없었으나, 3호광장 일대가 차남진의 농장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 제방 역시 차남진이 축조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8. 연동

연동은 지금의 산정초등학교 일대에 연못이 있어 그 연못을 나타내는 뜻을 담아 연동이라 하였다. 연동이라는 이름은 쌍교촌, 연치동보다는 늦게 생겼으나 목포에서 제법 오래된 지명이다. 1910년 지방행정구역 명칭을 보면 목포 부내면의 13개 동리 가운데 연동이라는 지명이 있고, 1918년 발행된

지도에도 연동이란 지명이 실려 있다. 산정리가 1932년에 목포부에 편입되었으니 목포에서는 오히려 연동이 산정동보다 먼저 생긴 동으로 여겨진다.

연동이란 동 이름을 낳게 한 연못은 호남철도를 부설하면서 일부가 메워졌고, 1933년 목포제2보통학교(현 산정초교)가 들어서면서 자취를 감추었다.

1965년 남해개발로 간석지가 매립되고 주거지가 늘어나자 1966년 산정동의 일부를 나누어 연동이 되었고, 1997년 산정1동에 다시 통합되었다가 2006년 산정1동을 연동으로 개칭하였다.

○ 연동원뚝

소위 정병조원뚝이라고 하여 1925년경 축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철도기관차사무소(기관고라고도 불렸다) 뒤 산정동 1053-108번지 앞에서 용당동과 경계인 연동 1061번지에 있는 수문까지 쌓은 제방이다. 이 제방은 지금은 도로로 쓰이고 있으나 1948년 무렵 제방이 무너져 큰 재난을 겪었다. 그러나 이 제방을 축조한 정병조가 복구할 능력이 없어 목포시에서 제방관리권을 인수하여 복구하였으나 지대가 낮아 주거지로 개발되지 못하고 영세민이 많이 살았다. 지금은 삼학도가 연륙되고 남해개발지역의 개발로 거의 잊혀져 가는 길이 되었다.

○ 기관고

철도청 목포기관차사무소는 역 부지 안에 있다. 옛날 증기기관차나 디젤기관차를 정비하던 곳이었는데, 흔히들 기관고라 불렸다. 이 기관고 너머 개펄이 6·25 전쟁 당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장소라 한다.

○ 연동별바탕

산정초등학교 앞 광주-목포 간 도로 남쪽과 유달중학교, 동부시장 일대가 모두 개펄이 굳어져 생긴 별판이었다. 연동성당 앞길은 옛날 갯고랑이 있던 곳으로 지금은 복개된 하수로이다.

○ 연동 육거리

옛 연동육교 남쪽으로 약 100m쯤 내려가면 여섯 갈래로 나누어진 길이 있었는데 여기를 연동 육거리라고 하였다. 지금은 새로운 도로가 생기면서 그 모습이 바뀌어 버렸다.

○ 2호광장

목포유달중학교에서 연동초등학교로 가는 도로가 광주-목포 간 도로와 만나는 사거리를 2호광장

이라 한다. 옛날에는 바닷물이 드나드는 수로가 있었고 주변에는 갈대가 자라고 있었던 곳이다.

○ 광주-목포 간 도로

이 도로는 대성동을 거쳐 지금의 일신아파트 앞으로 지나갔으나 호남동 앞(지금의 중앙초등학교 일대)이 매립되면서 산정초등학교 앞으로 뚫렸는데 철도배수지(지금의 종원하이츠빌라) 앞의 바위산을 넓혀서 2호광장으로 곧게 뚫렸다.

9. 산정동

목포 부내면의 지역으로 1914년 용당리와 관해동의 각 일부와 이로면의 연치동, 백련동을 병합하여 산정리라 해서 무안군 이로면에 편입되었다가 1932년 일부 지역이 목포부에 편입되어 연산동이 되고, 1962년 나머지 전 지역이 목포시에 편입되는 동시에 동명 변경에 의하여 산정 1·2·3동으로 분동 되었다.

1966년 산정1동 일부를 연동으로 분동하였고, 1997년 산정1동과 연동이 통합되어 산정1동이 되었다. 2006년 산정1동을 연동으로 분할하였다.

산정동의 본디 자리는 지금의 원산동 주공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원산정 마을이다. 목포에서 무안으로 가려면 쌍교촌(지금의 북교동, 남교동)을 거쳐서 솔개재를 넘어 산정리를 지나서 대연초등학교가 있는 관해동을 거쳐 실내체육관을 지나가는 길이었다. 이는 「무안 목포진 지도」에 나와 있는 마을이 쌍교촌(진으로부터 2리), 산정리(진으로부터 5리), 용당리(진으로부터 7리), 관해동(진으로부터 9리)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위치도 지금의 원산정 일대로 믿어질 만큼 정확히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의 산정동은 산정동의 일부, 용당동 일부, 연산동 일부로 이루어져 있다.

○ 신촌

유달중학교 북쪽에 있는 마을을 신촌이라고 하는데 개펄 위에 야채를 심었던 곳에 집들이 들어서면서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하여 신촌이라고 불려졌다고 하나 언제부터 그런 이름이 붙여졌는지는 확실치 않다.

○ 옛 목포형무소

지금의 일신아파트 자리에 목포형무소가 있었다. 현재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지금은 이름도 목포교도소로 바뀌고 무안군 일로읍으로 옮겨갔다.

목포형무소는 1912년 1월 무안군 이로면 연치동의 해변에 지었으나 지반이 약하여 1913년 9월에 이로면 산정리에 다시 지어 이전하였으며 1923년 5월 목포감옥에서 목포형무소로 이름이 바뀌었다.

목포형무소는 1949년 9월 14일에 일어난 집단 탈옥사건이 있었다. 당시 700여 명의 재소자 가운데 400여 명이 탈출한 사건이다.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사살되고 사회가 몹시 혼란스러웠던 매우 큰 사건이었다.

○ 마파지(맛파지, 막파지)

대성동 주민센터에서 일신아파트로 돌아가는 옛 길목을 마파지라고 했다. 옛날 말구루마(수레)가 겨울에 미끄러져 부서진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 일을 빗대어 말 마(馬) 깨뜨릴 파(破)자를 써서 마파지라고 했다고 하며, 또 광주-목포 간 도로가 뚫리면서 이곳이 겨울에 서북풍이 마주치는 곳으로 매서운 바람이 맞받아치는 곳, 마파람이 부는 곳 등의 뜻으로 마파지라 했다고 한다. 또한 1918년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목포 지도」에는 목포감옥 앞을 지나는 일등도로의 남쪽에 지금의 신촌마을 언저리로 추정되는 곳에 철길 옆으로 길쭉하게 생긴 못이 있는데 여기를 마파지(麻波池)로 적고 있다.

○ 독산[石山, 석산]

황룡기미(화약골 북쪽 후미에 있는 마을) 동남쪽에 있는 산으로 지금의 중앙하이츠아파트가 지어진 산이다. 이 산의 남쪽에서 옛날 목포형무소의 재소자들이 돌을 캐서 건축자재나 견칫돌 등의 석재를 생산하였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돌을 흔히 ‘형무소 돌’이라고 하였는데 이렇게 돌을 떠 내는 산이라 하여 독산(돌산)이라 하였다.

○ 합장비

독산의 서쪽에 목포형무소 합장비가 있다. 이 비는 목포형무소에서 복역 중 사망한 사람들의 합장비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비의 뒷면에 새겨진 합장시기가 1917년(대정 6), 1920년(대정 9), 1927년(소화 2), 1933년(소화 8)이라고 적혀 있어, 여기 묻혀 있는 원혼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시대에 억울하게 복역했거나, 항일독립운동 등의 죄명으로 고생하던 분들도 많을 것으로 추측되나 자세한 기록을 찾지 못하여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

10. 연산동

1932년 목포부의 구획확장에 따라 무안군 이로면의 산정리 일부를 백련동에 편입하여 백련동과

산정리의 이름을 따서 연산동이라 하였다. 1997년 목포시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산정3동에서 분동되었다.

○ 오머리

연산동에는 오머리라는 데가 있었다. 오머리는 강남머리, 둔지머리, 까치머리, 배암머리, 개머리이다.

강남머리는 연산동과 삼향동의 경계인 청청호제방(내화촌 앞에서 삼진 쪽으로 축조되었던 제방) 부근으로 산줄기가 강남 쪽으로 흘렀다고 강남머리라 한다. 둔지머리(둔지머리)는 광산마을 부근으로 산줄기가 마치 두더지가 땅을 뒤흔들고 었드려 있는 형국이라고 해서 둔지머리라 했고, 까치머리는 제방 부근으로 뒷산이 까치모양이라고 하며, 배암머리는 제방 옆의 산줄기 형국이 뱀 같다고 해서 배암머리이고, 개머리(궤머리)는 광산동 염전 부근 해변의 바위가 개머리 같고 그 밑에 사람이 솔을 걸어 놓은 것 같이 밑에 세 개의 받침으로 괴어져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개발로 인하여 위치조차도 확인하기 어렵게 되었다.

○ 백련마을

산정리 동북쪽에 있는 마을. 백련마을 남쪽에는 백련제(白蓮堤)가 있었다. 또 북쪽에는 새골이라는 마을도 있었다.

○ 옥녀봉(수리봉, 유방산)

백련마을 남쪽에 있는 산. 시청의 뒷산으로 산의 지형이 수리가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과 같다 하여 수리봉이라 했으며, 여자의 유방을 닮았다 하여 유방산이라고도 하였다. 그러나 현대아파트 뒤 풍천임씨묘비에 옥녀봉이라는 기록이 있어 옥녀봉으로 불리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삼섬나루(삽진)

보리머리 북쪽에 있었던 나루로 지금은 매립되어 공단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이곳은 옛날부터 압해도 방면 도서 지방으로 다니는 중요한 길목으로서의 나루터였다. 특히 삽진(插津)은 고려 시대에 압해도가 군이었을 때 크게 번창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나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확실하게 알려진 것이 없다. 삽진 나루터에는 삽진농공단지가 들어서고 압해면을 연결하는 다리가 놓여졌다.

○ 연산동의 마을

·광산마을: 백련마을 서쪽에 있는 마을로 광산염전이 있었다.

·둔재마을: 백련동의 서북쪽 바닷가에 있는 마을.

- 까치마을: 보리머리 서남쪽에 있는 마을로 까치머리라고도 불렀다.
- 둔독골: 보리머리 서남쪽에 있는 마을.
- 보리머리: 산정리 북쪽에 있는 마을.
- 수항마을(수랑골, 술항골): 현대아파트 북쪽에 있는 마을.
- 골모실: 산정리 동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 새모실: 산정리 동북쪽에 있는 마을.
- 신동: 백련동 동북쪽에 있는 새로 된 마을.
- 절골: 새모실 동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 황룡기미(황룡그미, 황룡금): 화약골(원산동) 북쪽 후미에 있는 마을.

○ 따붓재(따부재, 다불이)

백련동과 원산정 사이에 있는 고개. 연산동 근화아파트와 현대아파트 사이로 해서 백련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따부재, 다불이라고 한다.

○ 원산정(산정리)

LH의 연산주공아파트 단지 일대가 원산정으로 「무안 목포진 지도」에 나와 있는 산정리이다.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다만 법정동으로서의 기록으로만 남아 있다.

○ 본옥동(버넉골, 버덕골)

산정리 남쪽에 있는 마을. 지금의 여의도순복음교회 부근, 연산로 137번길.

11. 원산동

옛 버덕골, 버넉골, 지금의 본옥동마을의 북쪽 일대와 1932년 공유수면 매립으로 염전과 잡종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1988년 죽산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개발된 지역과 원산정이라는 지명을 가진 마을 부근에 조성된 아파트단지에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지명을 원산동이라 하여 1997년 산정3동에서 분동되었다.

○ 화약골

독산의 서북쪽 바닷가 골짜기로 이곳에 폭약을 저장하는 창고가 있어 이 창고를 화약고라 하였던

데 화약고가 있는 골짜기라 하여 화약골이라 하였다 한다.

○ 정병조¹⁵⁾ 가옥

중앙하이츠아파트에서 서북쪽으로 일제강점기 목포의 부호였던 정병조가 지어서 살았던 석조 2층 집이 있다. 지금도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다.

12. 삼학동

1960년대 삼학도가 육지와 연결되고 삼학도에서 갯바위 사이의 개펄에 제방을 쌓아 매립한 신흥 개발지역으로 1997년 행정동 분합으로 동명동에서 삼학동으로 분동되었다. 삼학동은 삼학도 앞바다를 매립한 지역이라는 의미를 살려 삼학동이라 하였는데 정작 삼학도는 만호동 관할이다.

○ 황도(등근섬)

삼학동이 개발되기 전에 연동원뚝에서 보면 삼학도 쪽으로 조그맣고 등근 섬이 하나 있었다. 옛날에는 이 섬을 백섬, 백섬이라고 하였다. 지금은 삼학하이츠 옆에 있는 도로가 되었다. 섬의 흔적이 있을 때 이 부근에 사는 사람들은 섬 모양이 둥글게 생겼다 하여 등근섬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13. 죽교동

죽교동은 본래 무안군 이로면 쌍교촌이었는데 1914년 쌍교리와 신죽동이 합하여 죽교리가 되어 무안군 이로면에 편입되었다가 1932년 목포부에 편입되었다. 1949년 죽교동을 5개 동으로 나눌 때 쌍교리를 떼어 죽교2동이라 하였다. 1997년 행정동 분합에 따라 죽교2동과 죽교1동의 일부를 병합하여 죽교동이라 하였다.

○ 뒷개 다리독개

북교초등학교 뒤쪽에서 흘러내린 개울이 죽교천으로 흘러들어 가는데 그 개울에 있던 다리가 있던 곳을 뒷개 다리독개라 하였다. 이곳에는 푸성귀 등을 파는 노점상인이 있던 저자거리이기도 하였다.

15) 정병조에 대해서는 본 책의 제6편 '목포의 주요 인물' 참고.

○ 화장터

옛 제일극장 뒤쪽 언덕에는 일본인들의 공동묘지와 화장장이 있었다. 목포가 개항되면서 무안감리서와 교섭하여 공동묘지를 조성하고 화장장을 지어 일본인들의 전용묘지가 되었다.¹⁶⁾ 광복 후 묘지가 철거되고 시가지가 확장되면서 주택가가 되었다. 이 언덕을 옛날에는 별망평(別望坪)이라 불렀다.

14. 북항동

본래 목포부 이로면의 지역인데 1914년 신죽동과 쌍교리를 합쳐서 죽교리라 하여 무안군 이로면에 편입하였다가 1932년 무안군 이로면의 죽교리, 산정리 일부와 용당리의 일부가 목포에 편입되었다. 1949년 동제 실시에 의하여 죽교리를 5개 동으로 분할하였다가 1997년 목포시 행정동 분합에 의하여 죽교1동과 산정동 일부를 합하여 북항동을 신설하였다.

○ 목섬[項島, 항도]

뒷개 나루터 동쪽에 있었던 섬. 북항개발로 목포해양수산복합센터가 들어서 있다.

○ 뒷개

뒷개 나루터 또는 북항선착장이라고 부르던 곳이다. 일명 목끝, 후포라고도 하며 자은, 지도, 임자 등의 섬 지방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였으며 압해도행 철부도선이 다니던 곳이다. 북항의 개발로 옛 모습은 전혀 없고 새로운 항구로 변화였다.

○ 목도(木島)

옛 목포시분뇨종말처리장이 있던 곳이 목도이다. 지금은 개발이 되어 산정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 탄섬, 황룡기미

목포서부초등학교 부근에 있던 섬이다. 또 그 서북쪽에 황룡기미라는 곳이 있었지만 지금은 북항지구의 개발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16) 목포지편찬회, 앞의 책, 260쪽.

15. 용해동

용해동은 본래 무안군 이로면의 관해동리와 용당리였다. 1914년 관해동이 무안군 이로면의 용당리와 산정리로 갈라져 무안군 이로면에 속해 있다가 1932년 목포부에 편입되었으며, 1962년 동명변경으로 용당과 관해동의 이름에서 한 자씩 따서 용해동이라 하여 이로동의 관할이 되었다. 1994년 이로동이 과대 행정동으로 분류되어 용해동명을 갖는 지역을 모두 용해동으로 행정동명을 개정하고, 계속된 인구증가로 1997년 국도1호선을 기점으로 이로동과 분동하였다.

○ 용해동의 마을들

- 관해동: 대연초등학교 동남쪽에 있는 마을.
- 내동(안테 거리): 양을촌과 안장동 중간에 있는 마을로 목포대학교 목포캠퍼스 입구 쪽.
- 양을촌마을: 용해동에서 으뜸되는 마을. 구 목포경찰서 남동쪽에 있다.
- 온남동마을(온남동, 윗남골, 윗나무골): 양을촌 북쪽에 있는 마을. 초원청아파트 부근.
- 산수동(산숫골): 관해동 동북쪽에 있는 마을. 대연초등학교 정문 쪽에 있었다.
- 용산마을(새마을): 양을촌 서북쪽에 있는 마을. 양을산송신소로 올라가는 길목, 용해3단지 주공아파트가 있는 마을. 근래에 생긴 마을이라 하여 새마을이라고도 한다.

○ 비녀바위

양을산 동쪽, 목포대학교 목포캠퍼스 뒤쪽에 비녀모양의 바위가 있다. 이 바위로 흔히 양을산을 비녀산, 잠계산이라고도 한다.

○ 철도수원지

용산마을 북쪽, 청산푸른아파트의 뒤쪽, 양을산 골짜기에 있었던 저수지이다. 이 저수지의 위쪽 골짜기는 1949년 목포형무소 탈옥사건 당시 사살된 죄수들을 매장했다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16. 이로동

무안군 이로면에 속해 있던 지역이다. 1963년 무안군 이로면 산정리, 상리, 달리, 놀도리가 목포로 편입되면서 지금의 목포의료원 일대가 이로동으로, 현재의 용해동, 상동, 하당동, 신흥동이 모두 이로동에 속해 있었다. 1994년 이로동이 용해동과 상동으로 분할, 용해동에 속해 있다가 1997년 행정

동 개편으로 상동, 하당동, 신흥동이 분리되었고, 과대동으로 분류된 용해동을 이로동과 용해동으로 분할하였다.

○ 갯바위 문화의 거리

자연사박물관, 생활도자박물관, 목포문학관, 문화예술회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남농기념관 등이 있는 입암산 남쪽의 거리를 갯바위 문화의 거리라 한다.

○ 성자동

입암산 서북쪽에 있는 마을. 백년로의 개통으로 마을이 둘로 나뉘었다.

○ 안장산

왕장산이라고도 한다. 문태고등학교 뒷산이다. 산이 말안장 모양으로 생겼다 하여 안장산이라고도 하고, 어느 장군의 말이 산으로 뛰어왔다는데 그 말 발자국이 있다 하여 왕장산이라 하기도 한다.

○ 안장동

목포의료원 일대의 마을이다. 안장산 기슭에 있다 해서 안장동이라 했다.

○ 코끼리산

제일중학교 뒷산. 안장산의 남쪽 끝에 있는 바위가 코끼리를 닮았다 하여 코끼리산이라고 부른다.

○ 입암산(갯바위)

자연사박물관 뒤편의 바위산을 칭한다. 봉우리의 모양이 샷갯 모양을 하여 ‘입암(笠巖)’이라 부른다.

○ 중바위(중바우, 갯바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주변 해안가의 기암괴석이다. 중(승려)과 관련된 설화가 있어 중바위라 불렀다. 갯바위는 자연사박물관 뒤편을 칭하는 것이었는데, 근자에는 이곳 중바위를 갯바위로 부르는 것이 보편화 되었다. 그러나 원래 설화는 중바위와 갯바위가 별개였다고 전한다.

17. 상동

본래 목포부의 이로면 지역으로 하당의 위쪽에 있다 하여 상리(上里)라 하였는데 1914년 중화동과 하당리 하신진의 각 일부와 부내면의 내동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상리라 하고 무안군 이로면에 편입되었다가 1962년 동제 실시로 목포시에 편입되어 이로동의 관할이 되었다. 1994년 이로동이 상동과 용해동으로 분동하였고, 1997년 상동을 상동, 하당, 신흥동으로 분할하였다.

○ 상동에 있는 마을들

- 도룡동: 금장아파트가 있는 마을.
- 뒷마을: 도룡동 뒷마을.
- 대항리(큰목):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이 있는 마을.
- 만복동: 제1수원지 부근의 마을.
- 중화동: 상리와 하당 사이에 있는 마을. 버스터미널의 서북쪽.

○ 한골(한골, 한동평)

제1수원지가 있는 골짜기.

○ 대삼재(죽치)

상리 서쪽에서 용해동의 양을촌(온남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 한재(한치)

상리 서북쪽에서 용당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개항기에는 일본인들이 이 고갯길을 십리고개[十里峙]¹⁷⁾라 하였다.

○ 목포 제1수원지(용연)

상리 한동평(汗洞坪)에 1910년 5월에 준공된 저수식 수원지. 목포실내체육관 동남쪽 골짜기에 있다. 이 저수지를 일본인들은 용연(龍淵)이라 불렀다.¹⁸⁾

17) 목포지편찬회, 앞의 책, 28쪽.

18) 같은 책, 250쪽.

18. 하당동

본래 무안군 이로면의 지역으로 1914년 일제에 의한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중화동과 하당리 하신진의 각 일부가 부내면의 내동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상리라 해서 무안군 이로면에 편입되었다가 1962년 목포시에 편입, 이로동의 관할이 되었다. 1994년 이로동에서 상동과 용해동으로 분동되면서 상동에 속하였으며, 1997년 상동이 상동, 하당동, 신흥동으로 분리되었다.

○ 하당(下塘)

목포에서 영산강을 조금 올라간 상동의 동쪽에 있는 마을. 지금의 하당초등학교 부근이다. 고려 말 극포영(極浦營)이 있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으나,¹⁹⁾ 그 기록의 신빙성이 의문이다.²⁰⁾ 하당 지역이 매립되기 전에는 뜰망배 선착장이 있었고, 연중 마르지 않는 샘이 있었는데 수질이 좋아 일본인이 양조장을 세웠고, 광복 후에 삼학양조(주)도 여기서 물을 길어다 썼으며 옷동네(상리), 중화동, 큰목 사람들의 식수원이기도 하였다 한다.

○ 와우봉(臥牛峯)과 일본송(一本松)

상리 중화동에서 바닷가로 흘러내린 언덕이 호남선 철도의 부설로 끊겨 하당에 생긴 언덕을 와우봉이라 했다. 지금은 흔적조차 없어졌으나 이 언덕에는 큰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임성리의 일본송’이라 하여 목포에서 임성리로 갈 때 표지를 삼아 다녔다. 일본(一本)은 일본어로 ‘한 그루’의 의미다.

이 소나무 언덕에는 사연도 많은데 1900년대 초 한국인 근로자들이 악질 일본인 후지끼[藤木弘助]를 집단 구타하여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²¹⁾ 후지끼가 삼향면에 사는 오 아무개를 구타, 살해하여 오씨의 아들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고 후지끼를 살해하여 그 배를 갈라 창자를 꺼내 목에 걸고 이 길을 지나 경무서로 갔다는 것이다.²²⁾ 또한 이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이 소나무에 손을 대면 큰 재앙이 온다는 등 이 나무를 베어내는 데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진다.

19) 무안향교, 『무안군지』 고적조, 1923.

20) 오홍일, 「극포영에 대한 한 고찰」, 『목포의 향토문화 연구』, 목포문화원, 2012.

21) 목포지편찬회, 앞의 책, 646쪽.

22) 박찬승·고석규, 『무안보첩(務安報牒)』, 목포문화원, 2002, 551쪽.

19. 신흥동

본래 무안군 이로면에 속하였으나 1962년 목포시로 편입되어 이로동 관할에 속하였으며 해당 신도시조성계획에 따라 1994년 이로동이 상동과 용해동으로 분동되어 상동에 속하였다가 1997년 상동에서 분리하여 신흥동이라 하였다.

○ 뒷 갯바위

임암산 북쪽 산 너머 갯가에 있던 마을. 지금의 신흥동 주민센터 부근이다.

20. 삼향동

1987년 무안군 삼향면 대양리(산계, 산양, 월산, 대박산, 내화촌, 노득동, 장자곡)와 옥암리(석현동, 신지)가 목포로 편입되어 이로동 일부와 합하여 삼향동이 되었다가, 1997년 삼향동이 삼향동, 옥암동, 부흥동으로 분동되었다.

○ 삼향동의 마을들

- 산계: 지적산 북쪽의 계곡에 있는 산골마을. 근화희망타운아파트의 동쪽에 있는 마을.
- 산양: 대박산 동쪽에 있는 마을.
- 월산: 산계, 산양과 같은 마을이었다. 마을이 구분되면서 월산이라 하였다. 월산방조제가 생기기 전에는 해목이라고 하였다.
- 대박산: 삼향동 주민센터 뒤쪽 마을.
- 석현: 석현 현대아파트 동쪽 마을. 독갯재의 고인돌이 있는 마을.
- 신지: 임성초등학교와 국립목포병원이 있는 마을.
- 내화촌, 노득동, 장자곡: 국제축구센터, 대양산업단지가 들어서 있다.

○ 독갯재

석현마을에서 신지마을로 넘어가는 고개. 독(고인돌)이 길가에 있는 고개라는 의미이다.

○ 구루마잔등

대연초등학교 옆에서 실내체육관으로 넘어가는 고개. 이 길은 국도 1호선으로 내화촌으로 들어가

는 길목에 마부들이 살고 있었고, 이 고갯길이 가팔라서 달구지(구루마)를 끌고 가는데 말이나 소도 힘들고 사람도 힘든 고갯길이었다.

21. 옥암동

본래 무안군 삼향면이었으나 1987년 목포시로 편입되어 삼향동이 되었다가 1997년 삼향동에서 옥암동으로 분동되었다.

○ 옥암마을(玉岩, 옥함)

부주산 동북쪽, 초당산 서남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 초당산(草堂山, 자무동, 좌무동)

옥암마을 동남쪽 초당산 동쪽에 있는 마을. 바닷가 어농 지역으로 바빠서 사철 앓을 틈이 없다 하여 좌무동(座無洞)이라 하였다 한다.

○ 몰무덤(말무덤, 모듈무덤, 말맷등)

초당산에 있는 옛 무덤으로 보이는 곳으로 옛날 싸움에서 양쪽 군인이 많이 죽어서 아군과 적군의 시체를 함께 묻었다 해서 몰무덤이라 했다고 하고, 군마를 묻어 말무덤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 장재동(壯在洞, 장개동, 장자동)

임성역 북쪽에 있는 마을. 일명 장개동이라고도 한다.

○ 선곡(船谷, 仙谷)

임성역 남쪽에 있는 마을. 배가 닿는 골짜기여서 배 선(船)자를 써서 선곡이라 하였다고도 하고, 신선이 살던 골짜기여서 선곡(仙谷)이라고 한다고 한다.

○ 쉼너리(쉼나루, 섬나루, 쉼나리, 신진, 섭눌리)

지금의 하당보건소 부근 「임성시장기념비」가 서있는 수문이 있던 곳. 옛날 섬으로 건너 다녔던 나루터로서 영암에서 뱃감을 많이 싣고 들어와서 쉼나루라 했다 한다.

○ 옥암동의 없어진 마을

도시의 확장 개발로 없어진 마을들.

·당가두(當可頭, 당가머리, 당머리, 땅머리): 부주산과 부흥산 중간에 있었던 마을. 부주두마을 앞 바다 쪽으로 머리처럼 쭉 내밀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또한 발음이 비슷한 당곶으로 말하기도 한다.

·부주두(浮珠頭, 부주머리): 부주산 동쪽 기슭에 있었던 마을.

·덕동(德洞, 언덕굴): 부주두마을 동편의 언덕, 옥암마을로 가는 언덕에 있던 마을.

·이너리(異連里, 이연리): 영산호하굿둑 입구 만남의 폭포 부근에 있던 마을. 한자로 다를 이(異)와 잇닿을 연(連)자를 써서 다른 두 곳이 이어진다는 뜻이 있는데, 하굿둑으로 영암과 이어졌으니 앞 일을 예견한 지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당곶(唐串): 당곶은 땅꼬지, 창꼬지, 또는 창곶이라고 불리던 곳으로 당곶진(唐串鎭). 당곶창(唐串倉)이 있었던 곳이다. 『여지도서(輿地圖書)』에 “당곶진은 현의 남쪽 50리에 있고 만력 25년(1597) 정유의 난에 충무공 이순신 통주사가 명량의 앞바다에서 일본의 적을 크게 무찌르고 나주 고하도에 도청(都廳)을 설치하였다. 순치 4년(1647)에 무안현 당곶으로 옮겼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모군을 소집하여 군량을 비치하고 별장 1명 색리 1명이 있었는데, 통제영에서 곡식의 출납을 관리하도록 보내졌다.”²³⁾고 했고, 지도에 보면 당곶이 지금의 삼향천 동쪽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곶이 삼향천의 동쪽에 있었다면 1918년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25,000:1 지도에 부주산과 부흥산의 중간에 있었던 당가두 앞바다에 하구 쪽으로 뾰족하게 내밀어져 나온 곳이 있는데 이곳이 당곶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그곳도 지금은 매립되고 개발되어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어 어느 지점인지 추측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런데 당곶진의 자리를 용당마을의 일종구지(지금의 용당2동), 당꼬(당꼬, 뽕등, 지금의 용당1동)로 비정하는 견해도 있다.²⁴⁾

22. 부흥동

무안군 삼향면 지역이 1987년 목포시로 편입되어 삼향동이 되었다가 1997년 삼향동에서 부흥동

23) 『여지도서』, 전라도, 무안현, 진보조.

24) 강봉룡·변남주, 「조선시대 호남지역 포구의 사례 조사·연구 -무안반도를 중심으로-」, 『도서문화』28,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6.

으로 분동되었다.

○ 등구섬(등근섬)

부흥동 주민센터 옆에 있는 등근공원이 조성된 곳. 옛날에는 등구섬이라 불렸다.

23. 부주동

2011년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에 따라 옥암동 일부와 부흥동 일부를 합하여 부주동이라 하였다.

○ 현충공원

2007년 부흥산 기슭 16,900여 ㎡의 부지에 20m의 현충탑과 상징조형물, 위패실 등이 조성된 공원이다.

○ 만남의 폭포

2006년에 부흥산의 절개지 경사면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인공폭포.

○ 부흥산(復興山)

이너리 하굿둑 입구의 왼편에 있는 산으로 범산이라고도 한다. “목포항을 개항할 수밖에 없는 조선 어느 시기에 임금의 하명을 받은 중앙정부의 관리가 지관(풍수)과 함께 현지답사로 삼향면의 오룡산에 올라 이쪽저쪽의 지형을 살펴보니 나매기(나뫼기, 남뫼기, 남악리)로부터 범산까지의 땅이 너무나 좋고 기름져서 아까워 외국의 오랑캐의 더러운 발을 내딛게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곳을 숨겨두고 서쪽으로 더 나아가 응등한 바위산(유달산)을 개항지로 정하고 임금님께 아뢰어 목포를 개항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나매기로부터 범산까지는 크게 부흥할 것이라고 하여 범산을 부흥산이라고 했다 한다.”²⁵⁾는 이야기처럼 2005년 전남도청이 남악리로 이전하면서 이 일대가 크게 발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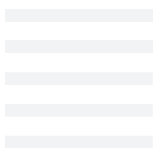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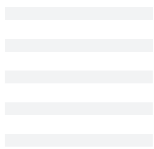
김정섭 | 목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소장

25) 목포문화원, 『목포문화』4, 1991. 238쪽.



제6편

목포의 주요 인물



| 일러두기 |

목포의 주요 인물은 다음의 기준 및 과정을 거쳐 선정·수록하였다.

- 기존의 『목포시사』 및 목포 관련 문헌을 검토하여 1차 선정을 하였다.
- 목포 출생 및 목포 출생은 아닐지라도 목포에서 활동하거나 목포와 관련이 깊은 인물 가운데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 『목포시사』의 서술 하한 시기인 2015년 12월 현재 생존자는 제외하였다.
- 분야별 집필위원 및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95명을 선정하였다.
- 주요 인물이지만 서술할 내용이 미흡한 경우 금번 시사에서는 부득이 제외하였다.
- 수록 순서는 가나다순으로 하였다.
- 원고를 쓴 집필위원은 해당 인물의 원고 끝에 명시하였다.

번호	분야 ⁰¹⁾	주요 인물	번호	분야 ⁰¹⁾	주요 인물
1	역사	강상철(1963~1986)	49	조각	장 덕(1910~1976)
2		강석봉(1890~1956)	50		허 건(1908~1987)
3		고연우(1897~?)	51		손양동(1916~2015)
4		김대중(1924~2009)	52	서예	김정재(1932~1998)
5		김면수(1855~?)	53		서희환(1934~1995)
6		김성규(1863~1936)	54		손재형(1903~1981)
7		김익진(1906~1970)	55		곽종선(1910~1950)
8		김정수(1910~?)	56	사진	김상욱(1917~1977)
9		김철진(1905~1971)	57		이승모(생몰년 미상)
10		문재철(1883~1955)	58		이영원(1919~2011)
11		박상렬(1897~1981)	59		정종기(1924~2010)
12		박승희(1971~1991)	60	체육	강세철(1926~2007)
13		박애순(1896~1969)	61		법 정(1932~2010)
14		박태영(1967~1987)	62	종교	유진벨(1868~1925)
15		배치문(1890~1942)	63		박연세(1883~1944)
16		서병인(1896~1948)	64	교육	김병한(1925~2001)
17		서상봉(1870~1927)	65		이복주(1919~1997)
18		서화일(1881~1936)	66	정치·행정	김영하(1903~1959)
19		안 철(1946~2003)	67		이남규(1901~1976)
20		윤기현(1900~?)	68		임기봉(1905~1982)
21		이기동(1906~?)	69		임종기(1926~2007)
22		이인형(1914~1934)	70		하동현(1903~1969)
23		장병준(1893~1972)	71		김문옥(1897~1966)
24		장병조(1879~1970)	72		김상두(1911~?)
25		조극환(1887~1966)	73		김상섭(1876~1945)
26		조점환(1907~1940)	74	경제·기업	김준형(1914~2008)
27		천귀례(1903~?)	75		나달수(1917~2010)
28	문학	최 섭(1905~2000)	76		손용기(1898~?)
29		김 현(1942~1990)	77		이훈동(1917~2010)
30		김우진(1897~1926)	78		임광행(1919~2002)
31		김진섭(1903~6.25 때 납북)	79		전태홍(1937~2005)
32		박화성(1904~1988)	80		장인영(1920~2006)
33		조희관(1905~1958)	81		차남진(1893~1970)
34		차범석(1924~2006)	82		천득근(1905~1959)
35		차재석(1925~1983)	83		현준호(1889~1950)
36		최하림(1939~2010)	84	언론	홍순기(1929~2012)
37	대중문화	강대진(1935~1987)	85		손수겸(생몰년 미상)
38		문일석(생몰년 미상)	86		조효석(1922~1998)
39		이남영(1916~1965)	87	복지·의료	최병우(1924~1958)
40	무용	조미미(1947~2012)	88		윤치호(1909~1951 실종)
41		이매방(1926~2015)	89		윤학자(1912~1968)
42		최진열(1926~2012)	90		이방호(1914~1993)
43	국악	홍정화(1934~1997)	91		정재현(1906~1998)
44		인항렬(1944~1981)	92		차남수(1903~1990)
45		장월중선(1925~1998)	93		최찬열(1906~2006)
46	미술	김암기(1932~2013)	94	터전	박길수(1928~1994)
47		김영자(1922~2015)	95		이생연(1938~2005)
48		김용구(1933~2015)			

01)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여 특정 분야에 한정짓기 어려운 인물들도 있으나 편의상 구분하였다.

강대진(姜大振, 1935~1987)

영화감독. 1935년 12월 20일 신안군 비금에서 태어났고, 목포에서 성장하였다. 출생 연도는 기록에 따라 차이가 있다. 목포에서 목포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라벌예술대학(중앙대 예술대학의 전신)에 진학하여 연극영화를 전공하였다. 근대 예술문화가 발달한 목포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내며, 예술과 영화에 대한 꿈을 키워갔다. 목포는 1897년 통상항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후 근대적인 문화예술이 타 도시보다 발달해 있었다. 특히 목포극장과 평화관을 중심으로 영화가 상영되면서 극장이 있는 도시로도 명성을 얻었다. 예향 목포에서 성장한 강대진에게 영화라는 장르는 자연스럽게 매우 친숙하면서도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가 영화감독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영화 「파시」를 촬영하러 목포에 온 최인규 감독이 메가폰을 들고 있는 포즈에 반하면서부터였다. 그는 서라벌예술대학을 졸업한 후 신상옥 감독 밑에서 조감독으로 3년간 일하면서 다양한 현장 경험을 쌓았다. 1959년 영화 「부전자전」으로 데뷔하였고, 이후 한국적인 정서를 영화화 하는 데 앞장섰다. 강대진 감독의 대표작이자 한국영화 발전에 가장 공헌한 작품은 1961년 작 「마부」이다. 당시 이 작품에는 김승호, 신영균, 황정순, 조미령, 황해, 엄앵란, 김희갑 등 최고의 배우들이 출연했고, 1961년 제11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은곰상을 수상하였다. 이는 한국영화가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한 최초의 사례이다. 영화 「마부」는 말을 끌며 거리에서 손님의 짐을 실어다 주는 짐꾼 역할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아버지와 네 남매의 고달픈 삶을 통해 6·25전쟁 이후 피폐해진 한국사회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마부」의 베를린영화제 수상은 한국영화가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다는 첫걸음이 되었으며, 가장 한국적인 정서를 담은 작품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1960년대 강대진의 작품들은 주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통사람들의 삶과 평범한 가정을 배경으로 하는 가족드라마의 성격이 강했다. 초기 대표작인 「박서방」(1960), 「마부」(1961), 「어부들」(1961)은 한국의 3대 서민영화로 평가되고 있다. 이후 1970년대 들어서는 「사랑의 원자탄」을 시작으로 종교성이 짙은 작품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 중 「사랑의 뿌리」는 1979년 대중상영화제 각본상을 수상했다. 희귀사례이지만 액션영화를 만든 적도 있다. 1979년 「석양의 10번가」는 당시 개성 강한 액션연기로 인기 몰이를 하던 이대근을 캐스팅하여 만든 액션영화이다. 또한 강대진 감독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 텔레비전 방송국인 동양텔레비전방송(TBC-TV)의 제작위원을 맡기도 했다. 영화감독으로서 강대진의 마지막 작품은 1987년 작 「몽마르트 언덕의 상투」이다. 이 작품을 유작으로 남긴 채 1987년 3월 31일 서울 강남구 방배동 자택에서 고혈압으로 세상을 떠났다. 영결식은 영화진흥공사 후원으로 영화인장으로 진행되었고, 장지는 충남 풍산공원묘지에 마련되었다. 강대진은 30여 년 동안의 감독생활 중 총 48편의 작품을 남겼다. 주로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주인공으로 삼

았으며, 된장국 냄새 진한 가장 한국적인 정서를 스크린에 옮긴 대표적인 영화감독으로 기억되고 있다.(최성환)

[참고자료 : 최성환, 『천사섬 신안 섬사람 이야기』, 크레펜, 201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두산백과사전』; 조인스 인물정보(<http://people.joins.com/>).]

강상철(姜相喆, 1963~1986)

민주열사. 1963년 3월 24일 전남 해남군 산이면에서 태어났다. 해남산이동초등학교, 산이중학교를 거쳐 목포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이후 1985년 목포전문대학(현 목포과학대학) 건축과에 입학했으나 미등락으로 2학년 때 제적되었다.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대학 입학 이후부터이다. 군부독재와 불합리한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던 그는 목포에서 민주화운동을 하던 안철을 만나고 난 뒤 민주화운동에 투신하기로 결심하였다. 이후 안철의 소개로 광재구를 만나게 되었고, 목포사회운동청년연합(이하 목청련) 사무차장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이현희와의 학습을 통해 의식을 일깨우게 되었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그의 열정은 대단해서 내성적인 성격이지만 민주화운동에 관한 일은 사소한 일까지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985년 12월 민주협을 중심으로 '직선제 개헌 1000만 명 서명운동'을 주도하면서 1986년 새해부터 소위 '개헌 정국'이 시작되었다. 목포에서도 민주회복국민회의와 목청련을 중심으로 개헌을 위한 서명운동과 개헌 투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개헌 정국이 한참이던 1986년 3월 강상철은 목청련 사무차장에서 목포민주회복국민회의 청년국 2부 차장으로 옮겨 근무하면서 개헌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독재 타도와 민주화를 위해 '상수도세 지역차별 중지하라' 등의 일상생활의 투쟁부터 민주화운동, 개헌투쟁 등 적극적인 투쟁을 지속하였지만 민주화의 길은 요원하였다. 그는 현 시국의 혼란이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보았으며 그가 물려나는 것만이 군부독재를 청산하고 민주화를 실현하며 궁극적으로 민족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지금의 방법으로는 군사독재 타도와 민주헌법 쟁취를 이룩할 수 없다며 군부독재 타도, 민주화, 민족통일을 알리기 위해서는 결국 죽음을 통해서라는 최후의 투쟁을 결심하였다. 그가 유서로 남긴 안철과 친구들에게 쓴 편지를 보면 5월 초에 이러한 결심을 하였으며, 남들에게는 내색하지 않고 혼자만의 결심을 계속 되뇌어 간 것으로 보인다. 1986년 6월 6일 강상철은 그간의 고민을 실행에 옮겼다. 12시 작은 손가방을 들고 목포역 광장에 도착한 그는 직접 작성한 「양심선언」을 낭독하였다. 자신의 죽음이 '정의의 죽음'이고 '의로운 죽음'이며 '승리의 죽음'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시민들이 동참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경찰들이 에워싸자 온 몸에 석유를 뿌리고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그가 주장한 ‘우리의 주장’을 살펴보면 ‘각 민중, 민주화 단체 탄압을 중지하라’, ‘각 민주인사 사면복권 및 석방하라’, ‘직선제 개헌을 단행하라’, ‘상수도세 지역차별 중지하라’, ‘5·18을 규명하라’, ‘전두환 및 5·18 쿠데타 주동자는 물러가라’, ‘하수도세 폐지하라’ 등이었다. 몸에 불이 붙은 상태에서 민정당사를 향해 50~60m 뛰어가다가 역전육교 밑에서 쓰러졌다. 쓰러진 강상철은 급히 성골롬반 병원으로 옮겨졌다. 전신에 95%의 화상을 입었고 고통 속에서 치료를 이어갔다. 분신 이후 목포의 민주인사들은 강상철구명위원회(위원장 안동해)를 조직하고 강상철의 뜻과 의지를 전국적으로 알리기 시작하였다. 그 사이 경찰의 방해공작도 끊이지 않았는데 경찰들은 6월 19일부터 병실을 통제하고 최소한의 간병마저 봉쇄하였다. 생사를 오가는 극심한 고통이 계속되었으며 6월 25일 오전 4시 37분 강상철은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가 숨을 거두자 경찰은 시신을 탈취하여 몰래 매장하려는 만행을 계획했다. 이에 안철, 김청수 등이 해남군 옥천면까지 추적해 시신을 되찾아 경찰만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장하였다. 후일 그는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묘지번호 355-7)으로 이장되었다. 한편 민주회복국민회의를 비롯한 목포 민주화세력들은 즉각 장례위원회를 구성하고 ‘고 민주열사 강상철 목포민주시민장’을 거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장례식을 거행하기로 한 6월 27일 오후 2시 경찰이 평강교회로 향하는 모든 도로를 원천봉쇄하기 시작했다. 항의의 표시로 도로에서 영결예배를 보기로 했으나 경찰은 최루탄을 발사하는 등 지속적인 방해공작을 계속해 나갔다. 전두환 정권의 폭압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강상철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자 1989년 목포전문대 제12대 총학생회에서는 교정에 추모비를 세웠으며, ‘강상철열사추모사업회’가 결성되어 매년 광주 5·18민족민주열사묘역과 목포과학대 추모비 앞에서 추모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된 열사의 뜻을 기리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아버지 강종학은 ‘호남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였다.(곽재구)

강석봉(姜錫奉, 1890~1956)

애국지사. 목포에서 출생하여 1900년 아버지와 함께 하와이로 이주, 박용만 등이 주도한 국민회에 참여했으며, 귀국하여 광주와 목포 지역에서 교회와 청년들 속에서 활동했다. 장일환 등이 1917년 하와이의 국민회에 호응하며 독립의식을 고취하고 무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결성한 조선국민회에 참여하였다가 1918년 구속되었다. 1919년 3·1운동 당시, 목포의 시위 준비에 참여했다. 서화일(徐化一), 박여성(朴汝成), 곽우영(郭宇英) 등 양동교회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인들과 함께 1919년 4월 8일의 시위를 준비하고 주도했다. 체포되지 않아 궐석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923년 1월 대

구에서 체포되어 목포경찰서로 압송,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아 복역하였다. 1927년 8월에는 조선청년총동맹 중앙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86년 대통령 표창, 17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다.(이기훈)

[참고자료 : 강만길·성대경 엮음,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1996; 김병인, 「1920년대 광주지역 청년운동가 강해석(姜海錫) 연구」, 『호남문화연구』26,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1998; 신주백, 「1925~1928년 시기 전남 지방 사회운동 연구」, 『한국근현대지역운동사-호남편-』, 역사문제연구소, 1993.]

강세철(康世哲, 1926~2007)

권투 선수. 1926년 2월 28일에 평안북도 강계군에서 태어나 1942년 전라남도 목포로 이사했다. 정광중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권투 선수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프로복싱 동양챔피언 타이틀을 가졌다. 1943년 정봉현(鄭鳳鉉)의 복싱 경기를 구경한 뒤 복싱에 빠졌고, 해방 후 정봉현이 목포 권투 구락부를 만들자 나이 18세 때 복싱에 입문했다. 강세철은 이곳에서 권노갑 전 국회의원과 함께 복싱 훈련을 했다. 힘이 넘치는 펀치를 주무기로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까지 정복수(鄭福壽), 박형권(朴炯權), 송방헌(宋芳憲), 김계윤(金桂潤) 등을 모두 꺾고 복싱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하며 무적의 중량급 복서로 활동했고 인기를 얻었다. 1960년 10월 한국 미들급 5대 챔피언에 오른 데 이어 1960년 11월 20일 서울운동장 야구장 야외 특설 링에서 필리핀의 러시 메이온을 5회 1분 52초 만에 KO로 눕히고 당시 신설된 동양복싱연맹(OBF) 주니어 미들급 초대 챔피언에 등극한다. 이 날 경기는 수많은 화제를 뿌렸다. 당일 경기는 오후 2시 30분부터 열렸지만 아침부터 관중이 몰려들었다. 늦가을 쌀쌀한 날씨에도 특등석 1,500환, 일반 1천 환, 중소학생 600환이라는 당시로서는 매우 비싼 요금에도 불구하고 1만여 명의 입장객이 야구장을 가득 메웠다. 또한 이 경기는 한국 프로복싱이 국제무대로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됐다. 1960년대 초반 강세철의 인기는 당대 최고 인기 영화배우 도금봉 씨와의 스캔들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을 정도로 하늘을 찔렀다. 슬하에 장남 강춘수, 차남 강춘식, 삼남 강춘영, 막내 강명희 등 3남 1녀를 두었다. 영어를 구사했던 강세철은 1962년에 『서울신문』 특파원 자격으로 소니 리스틴과 패터슨 간에 열린 세계복싱 헤비급 타이틀전을 취재하기 위해 미국에 가기도 했다. 강세철은 1962년 10월 5일자 『서울신문』에 기행문을 실었다. 은퇴 후에는 1960년대 명동과 서울역 주변에서 복싱체육관을 운영했는데,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일본에서 최고의 인기 복서로 이름을 날린 차남 허버트 강(강춘식)의 매니저로 활약하기도 했다. 한보영 한국권투위원회 부회장은 “강세철은 한국 프로복싱 초창기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다. 그가

있었기에 김기수도 있었고, 세계 챔피언 시대가 열렸다.”며 “복서로서 뿐만 아니라 1960년대 최고의 몇쟁이 스타이기도 했다.”고 회고했다.(전호문)

[참고자료 : 노기창, 『사각 링에 펼친 인생들』, 국민체육진흥공단, 2002; 『경남신문』 2007. 05. 24. 「국내 첫 프로복서 강세철씨 별세」;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

고연우(高蓮宇, 1897~?)

여성운동가. 근우회 목포지회 집행위원장. 경남 밀양 출신으로 숙명여학교 졸업 후 경북 영천에서 보통학교 교사로 3년간 근무하였다고 한다. 1926년 1월 창립한 목포여자청년회 집행위원이었으며 1927년 12월 3일 창립된 근우회 목포지회의 창립 회원이다. 목포청년동맹회관에서 열린 근우회 창립대회에서 교양부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1929년 4월 4일의 집행위원회에서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근우회 목포지회는 창립 당시부터 두 파벌로 나뉘어 대결을 벌였는데, 고연우가 한 파벌의 중심이었다. 1928년 7월 근우회 전국대회에서 목포지회의 파벌 대결이 쟁점이 되었고, 근우회 중앙과 목포지회가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1929년 4월 30일 고연우가 이끄는 근우회 목포지회는 중앙의 해체 명령을 불신임하고 항의문을 발송했으며, 1929년 7월 근우회 제2회 전국대회에서 중요 의안으로 논의되어 양 파벌을 대표하여 고연우와 한국혜가 과거의 잘못을 사과하고 지회를 재조직하기로 했다. 1930년 4월 목포청년동맹회관에서 개최된 근우회 목포지회 제2회 정기대회에서 사회를 보았으나 임석 경관에 의해 임원 개선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은 모두 금지당했다. 1930년 10월 『삼천리』 제9호에 목포지회를 대표하는 인물로 소개되었으며, 1930년 12월 18일 근우회 중앙위원확대회의에서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이기훈)

[참고자료 : 윤선자, 「호남 지역 근우회의 설립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2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2004; 『삼천리』9, 1930. 10.; 『동아일보』 1930. 12. 20.]

곽종선(郭鍾善, 1910~1950)

사진작가. 1920년대 일본 동경미술전문학교에서 미술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목포에서 지물상을 경영하던 부친이 미술공부하는 것을 반대해 ‘부친 위독’이라는 거짓 전보를 보내 불러들이는 바람에 1년 정도 머물다 다시 일본에 건너갔다. 일본 오리엔탈사진전문학원에서 사진 수업을 받았다. 당시 같

이 공부를 하던 친구 임홍수와 함께 만주 하얼빈과 봉천에서 본격적인 사진 공부를 하다가 귀국하여 목포 남교동 백운당약국 2층에 OK사진관을 열었다. 광복 이전에는 일본에서 미술 전문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서양화에 몰두하여 선전에 입선하는 등 미술 보급에도 힘썼으나 사진술을 배운 이후로는 인상사진의 일가를 이루었다. OK사진관을 경영하던 당시에는 항도여학교 앨범사진을 맡았는데 목포의 인쇄술은 앨범을 만들 만한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인쇄하여 제작했다 한다. 그 무렵에는 사진재료가 부족하여 배급제로 구입을 했는데 광종선은 감광 재료를 손수 처방해서 사용하는 등 다방면에 기술이 월등하여 남들의 부러움을 샀다. 일본인 사토[佐藤]가 광종선과 겨루기 위해 인근에 사진관을 개업했으나 결국 광종선을 당하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고 한다. 이름이 알려지자 많은 여자 손님들이 찾아와 사진을 찍었는데 손님들 중에는 카페의 여급이나 기생들이 많았다. 당시 미인선발대회에서 광종선이 찍은 사진으로 김영희가 뽑혔다고 알려졌다. 그때의 미인선발은 지금처럼 무대에서 가리는 것이 아니고 사진으로 선발을 했기 때문에 미모도 중요했지만 광종선이 찍은 사진은 예술적 표현이 월등했다고 전해진다. 광종선은 사진술은 물론 사진예술에 대해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그중 목포에서 사진예술 활동에 공헌했던 정규봉(丁奎奉, 1915~1977), 박종선, 신영세 등이 그 문하에서 공부했다. 정규봉은 1938년 목포극장 앞에서 조광사진관을 경영하다가 무안동 오거리 부근에 천연당이란 사진관 겸 재료점을 운영했는데 목포에서는 유달사우회, 사예클럽 등 사진동호회를 만들어 지도해 온 사람이다. 광종선이 OK사진관을 그만 두고 쉬고 있을 때 만주 봉천 등지에서 사진을 배운 조남기(趙南基, 1920~1991)가 1942년 일본인이 경영했던 오에사진관을 인수하고 광종선을 초빙해 본격적인 영업을 했는데 그 사진관이 목포사진관이다. 해방이 되고 일본인들이 물러간 뒤 목포의 사진계는 세대교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며 발전해 왔는데, 이렇게 목포의 사진 문화가 초창기부터 전국적인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광종선을 비롯한 그의 문하에서 숨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박종길)

김대중(金大中, 1924~2009)

정치가, 제15대 대통령. 전남 무안군(현 신안군) 하의도에서 태어나 하의공립보통학교와 목포제일공립보통학교를 다녔다. 1943년 목포공립상업학교를 졸업하고 전남기선 주식회사에서 근무했다. 해방 직후 목포 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했고 1946년 2월 신민당 목포지부에 입당했으나 탈당하고 해운 사업에 종사했다. 6·25전쟁 중에는 북한군에 체포되었다 탈출했다. 이후 해운 사업을 재개하고 『목포일보』를 운영하다 부산정치파동을 계기로 정계 진출을 결심, 1954년 제3대 민의원 선거에 목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상경하여 한국노동문제연구소 주간 등으로 활동했다. 1956

년 6월 명동성당에서 영세를 받았으며 대부는 장면 박사였다. 9월 민주당에 입당하여 1958년 제4대 민의원 선거에 강원도 인제에서 입후보했으나 자유당의 방해로 등록이 무효화되어 출마하지 못했다. 선거 무효 및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1959년 6월 인제에서 재선거를 실시했으나 낙선했다. 1960년 4월 혁명 이후 7월 실시된 민의원 선거에 인제군에 다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1960년 9월 민주당 대변인으로 임명되어 활동했고, 1961년 5월 13일 인제군 민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되었으나,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 등원조차 하지 못했다. 1963년 2월까지 정치활동 금지 대상자가 되었다. 1963년 민주당 재건에 참여하여 대변인이 되었으며 11월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 목포에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1964년 4월 김종필-오히라 메모를 폭로한 김준연 의원 구속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감행했으며, 1965년 민주당이 창당되자 대변인과 정책심의위원회 의장이 되었다. 1967년 2월 민중당과 신한당이 합당한 신민당의 대변인이 되었다. 6월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부정선거가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는데, 정권은 특히 김대중을 낙선시키는 데 힘을 기울였다.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목포에 내려와 여당 후보 지원 연설을 하고 국무회의까지 개최했지만, 김대중이 승리했다. 1968년 6월 삼선개헌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에 참여하여 전국 각지의 집회에서 개헌 반대 연설을 하고 원내 반대 투쟁에도 참여했다. 1970년 김영삼 등과 40대 기수론을 주장하며 대통령 후보 경쟁에 뛰어 들어 신민당 7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10월 대통령 후보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미·소·중·일 4대국 보장, 비정치적 남북 교류 허용, 평화 통일, 예비군 폐지’ 등을 제창했다. 이후 1971년 2월에는 방미 기자회견에서 3단계 통일 방안을 발표했고, 3월에는 『김대중 씨의 대중 경제 100문 100답』을 출간하여 대중경제론을 제시했다. 1971년 4월 18일의 장충단 공원 등 선거 유세에 많은 청중이 운집하여 정권 교체를 향한 열망을 보여주었다. 4월 27일 선거에서는 박정희 정권의 부정 선거와 지역감정 조장 등으로 100만 표 이내의 차이로 낙선했다.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을 순회하며 야당 후보의 지원 유세를 다니다 5월 24일 의문의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다. 전국구로 8대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7·4 남북 공동 성명 이후인 1972년 7월 13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제안했다. 신병 치료를 위해 일본에 체류 중이던 1972년 10월 17일 유신 쿠데타가 일어나자 반대 성명을 발표한 이후 미국과 일본을 오가며 반 유신 운동을 벌였다. 국제적 명성을 쌓은 만큼 정권의 표적이 되어 1973년 8월 중앙정보부에 의해 도교에서 납치, 수감될 뻔 했으나 생환하여 동교동 자택에 연금되었다. 재야의 반 유신 투쟁에 참여하여 1974년 11월 17일 ‘민주회복국민회의’의 일원이 되었다. 1976년 3월 1일에는 윤보선, 정일형, 함석헌, 문익환 등 재야인사들과 함께 ‘3·1 민주 구국 선언’을 발표하여 구속되었다.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 접견 제한에 항의 단식 투쟁을 전개했으며, 1977년 12월 서울대학병원에서 형 집행 정지로 가석방되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이후 가택 연금에

서 해제되고 1980년 3월 1일 사면 복권되어 정치활동을 재개했다. 1980년 5월 17일 신군부에 의해 연행되어 9월 17일 군사 재판에서 이른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1981년 1월 23일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 사형을 확정했으나 무기형으로 감형되었다. 한국 민주화의 상징적 존재로 인정되어 1981년 11월 수감 중에 ‘브루노 크라이스키 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석방을 위한 국제적 압력이 계속되자 전두환 정권은 1982년 12월 형 집행정지로 석방했다. 미국으로 출국하여 2년여 동안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 운동을 벌였다. 1985년 1월 신민당이 창당되자 2월 8일 전격 귀국했다. 2월 12일 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이 돌풍을 일으키자 3월 6일 정치 활동 규제에서 벗어났다. 1985년 3월 15일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 공동 의장이 되었으며, 1986년 2월 개헌 청원 100만 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1987년에는 김영삼과 같이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6·29선언 이후 1987년 7월 사면·복권되었고, 9월 8일 광주를 방문하여 망월동 묘역을 참배했다. 김영삼과 후보 단일화 논의가 실패로 돌아가자 1987년 11월 평화민주당을 창당하고 총재 겸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12월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했으나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1야당으로 여소 야대 국면을 이끌어 5공 비리 청문회, 광주 학살 청문회 등 성과를 거두었다. 1989년 서경원 의원 밀입북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으며, 1990년 3당 합당으로 거대 민자당이 창당되자 반대 투쟁을 벌였다. 1991년 4월 신민주연합당(신민당)을 창당했으며 10월 이기택 등의 민주당과 통합했다. 1992년 민주당의 14대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 12월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1994년 1월 아시아 태평양 평화재단을 창립했으며 1995년 7월 정계에 복귀하여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했다. 1997년 10월 김종필 총리와 대통령 후보 단일화에 성공했으며, 1997년 12월 제15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IMF 위기에 빠져 있던 국정을 책임지게 되었다. 1998년 2월 제15대 대통령에 취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노총을 합법화하고 의문사진상규명, 민주화운동 보상, 4·3 사건 진상규명 등 민주 개혁법을 제정했다.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으며 12월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2003년 대통령에서 퇴임했으며 2004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많은 평화상과 훈장을 수여받았으며 2009년 8월 서거했다.(이기훈)

[참고자료 : 강원택, 『김대중을 생각한다』, 프레시안, 2011; 김대중, 『김대중 자서전』1·2, 삼인, 2010; 김삼웅, 『김대중 평전』1·2, 시대의 창, 2008.]

김면수(金冕秀, 1855~?)

무안감리서 감리서리. 수필가 김진섭의 아버지이다. 1855년 8월 8일에 태어났고, 본관은 풍산(豊

山) 호는 청산(聽山)이다. 1894년 8월부터 부산항감리서 서기관을, 1895년 8월~1898년 6월 동래관찰부 주사를 지냈다. 1898년 6월~1899년 5월 동래감리서 주사로 근무하면서 동래감리 서리를 겸했다. 1899년 5월 창원감리서 주사에 임명되었다가 다시 동래감리서 주사에 임명되어 1901년 5월까지 근무했다. 이 시기 동래감리 서리와 동래항재판소 판사 서리 업무를 겸했다. 1900년 5월에는 동래감리서 주사로서 울릉도 조사위원으로 활동했다. 1901년 5월부터 목포에 설치된 무안감리서 주사를 지냈으며, 무안감리 서리와 무안항재판소 판사 서리 업무를 겸했다. 1904년 2월에 무안감리서 주사에서 면관되었다. 목포 재직 시 목포부 남교동에 살았으며, 무안감리서를 퇴직한 후에는 1907년 11월부터 목포상업보습학교(木浦商業補習學校) 명예 한문교사를 지내는 등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1908년 12월 무안부 주사로 복직해 1909년 7월까지 무안부에서 근무했다. 1909년 7월 군수로 승진 임명되어 합병되기까지 전라남도 정의군수(제주도)를 지냈으며, 1910년 2월부터는 전라남도 정의공립보통학교 교장을 지냈다. 합병 후, 1910년 10월 전라남도 정의군수에 유임되어 1914년 3월까지 재직했으며, 1912년 8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1914년 2월에 정의공립보통학교에 20원을 기부한 공로로 같은 해 8월 목배(木杯)를 받았다. 1915년 11월 다이쇼 천황 즉위 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았다. 1921년 4~5월경 각 도 참여관과 군수들로 구성된 '내지 시찰단'의 일원으로 일본의 나가사키, 가고시마, 오이타, 도쿄 등지의 관공서와 신사를 시찰했다. 1922년 6월 훈6등 서보장을 받았다. 1923년 3월 문관분한령에 따라 휴직했다가 그해 12월 의원면관 했다. 1928년 11월 쇼와 천황 즉위 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았다. 이러한 일제 강점기 행적으로 인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다.(최성환)

[참고자료 : 국사편찬위원회, 『대한제국관원이력서』, 1972, 145쪽. ; 박찬승·고석규, 『무안보첩(務安報牒)』, 목포문화원, 2002;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친일인명사전』1, 민족문제연구소, 2012, 342쪽.]

김문옥(金文玉, 1897~1966)

기업가, 언론인, 정치인. 본관은 김해, 목포에서 태어났다. 목포공립보통학교와 목포간이상업고등학교(목상의 전신인 목포공립상업학교인지 2년제 목포공립간이상업학교인지 확실하지 않음)를 졸업하고 곡물·정미업으로 성공하였다.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후반까지 목포의 조선인 미곡상 단체인 인접업동지회(靑摺業同志會), 목포 곡물이출상조합, 목포곡물상조합 등에서 활동하였다. 1931년 남교동에 설립한 대성상회 사장과 1938년 광주에 설립된 전남산업(주)의 감사를 지냈다. 1939년 일본인이 세운 전남정미(주)의 대표전무이사를 거쳐 해방 후 사장을 지냈다. 이 같은 경력을

바탕으로 1935년 목포부회 의원, 1938년 목포상공회의소 의원을 지냈다. 해방 후 전남곡물협회를 만들어 회장을 지냈고, 1948년 대한식량공사 전남지사를 맡았다. 1949년 국민회 전라남도본부 결성추진위원이었으며, 1952년 『목포일보』를 인수하였다. 『목포일보』는 1959년 4월 1일부터 타블로이드 배판 4면으로 증면, 발행하였다. 김문옥은 이러한 기업·언론 활동 외에 1955년 민주당 창당 과정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었다. 민주당 전남도당 부위원장과 목포시당 위원장을 거쳐 1960년 7월 29일 치러진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목포구 민의원에 당선되었다. 김문옥이 목포시당 위원장이던 1959년 10월 전남도경 수사과에서 목포일보사의 경리장부 일체를 압수해 가고, 1960년 1월에는 괴한들이 신문사를 습격해 기물을 파손하고 그의 부인을 구타하는 등 당시 야당지로 평가받던 『목포일보』에 대한 탄압이 있었다. 5·16군사정변으로 1962년 공보부에서 전국의 신문사 16곳만 인정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을 때 목포일보는 인정 대상에 포함되었다. 1963년 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중앙위원에 선출된 김문옥은 정치활동 포기를 선언, 사퇴하였다. 정계를 은퇴한 그는 1965년 1월 1일자부터 『목포일보』의 제호를 『호남매일』로 바꾸고 재정난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7월 향년 70세로 타계하였고, 부인 장기순이 호남매일신문사 사장으로 취임했으나 오래지 않아 타인에게 넘어갔다. 김문옥과 관련된 일화로 고하도 이충무공기념비 아래쪽에 있던 조부의 묘지에 일제 강점기에 비석을 세웠다가 해방 후 시민들의 쫓기로 없앴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의 동서가 삼학양조 사장 김상두이고, 아들이 가수 남진이다.(정기영)

[참고자료 : 대한민국 헌정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네이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네이버 뉴스라이브리]

김방한(金芳漢, 1925~2001)

언어학자, 교육자. 전남 목포시 북교동에서 아버지 김우진과 어머니 정점효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 김우진은 널리 알려진 대로 일본 와세다대학 영문과를 졸업한 영문학도로서, 시대의 아픔을 적절히 희곡 속에 투영하여 당시 계몽적 민족주의나 인도주의 내지 감상주의에 머물렀던 기성문단을 훨씬 뛰어넘은 선구적 극작가였으며, 특히 표현주의를 직접 작품으로 실험한 유일한 극작가라는 평을 받았다. 또한, 해박한 식견과 선구적 비평안을 가지고 당대 연극계와 문단에 탁월한 이론을 제시한 평론가이며, 최초로 신극운동을 일으킨 연극운동가로 평가된다. 할아버지 김성규는 한말의 관료로서 25세 때 영국·독일·러시아·프랑스·이탈리아 5개국 전권공사관의 서기관으로 홍콩에서 상당 기간 머무른 적이 있었던 당시로서는 드물게 해외 체류 경력을 갖춘 개화파 관료였다. 장성군수, 무안

감리 등을 역임하였고 이후 목포에 정착하였다. 아버지 김우진의 갑작스러운 타계 후 홀어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자랐으며, 목포 북교초등학교와 광주 서중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문과에 입학하였고 본과 1년을 마친 후 영어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언어학과에 편입하여 졸업하였다. 1956년 서울대학교 전임강사가 된 이후 34년 동안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로서 한국 언어학의 기초를 쌓는 데 기여하였다. 언어학자 김방한은 역사언어학, 비교언어학, 몽골어학, 국어계통론 등의 분야에서 한국언어학의 기초를 닦아 놓은 1세대 학자이다. 이러한 그의 학문적 경향은 유럽 언어학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며, 유럽 가운데서도 특히 프랑스와 독일의 언어학 전통에 많이 의지하였다. 또한 유럽 언어학이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으므로 일본 언어학의 전통이나 학풍에 영향을 받은 바도 크다. 1세대 학자로서 어쩔 수 없는 한계인 탓에 새로운 언어학 이론을 수립하기보다는 주로 유럽 학자들의 이론을 소개하는 일에 이바지하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스위스 언어학자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소쉬르는 19세기의 언어학 전통인 역사언어학을 계승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한 시기의 언어 상태를 가리키는 ‘공시태(synchrony)’의 개념과 공시태 안에서 언어 요소들이 상호 간에 맺고 있는 관계인 ‘구조(structure)’의 개념을 발견하여 ‘구조주의(structuralism)’라는 인문학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천재적인 언어학자였다. 일찍이 소쉬르의 학문에 매료되었고, 생을 다할 때까지 소쉬르 연구에 대한 집념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역사언어학과 비교언어학을 연구하면서 자신의 독창적인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도유럽어족의 연구 성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비교언어학 연구는 우리말과 계통적 관계를 갖고 있는 알타이어에 대한 연구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몽골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방향 전환은 스승인 김선기 교수의 영향을 받은 탓이기도 하였다. 1959년에 미국 하버드대학 옌칭연구소의 초청을 받아 1년 동안 미국에 머무르면서 몽골어 전문학자들의 접촉을 통해 몽골어 연구에 깊이를 더하게 되었다. 알타이어에 대한 연구는 마침내 한국어의 계통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게 되는데, 많은 학자들이 한국어를 몽골어, 통구스어, 터키어 등이 속한 알타이어족의 하나로 간주하였던 점을 반성하면서 알타이어족이 아닌 언어와의 관련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특히 그가 한국어와의 계통적 관련성을 제기한 언어로는 고시베리아어의 하나인 길리야크어를 들 수 있다. 물론 길리야크어에 대해 김방한 교수가 독자적으로 현지조사를 하거나 자료를 채집한 적은 없지만 러시아학자들의 연구들을 통해 한국어 계통의 한 가능성으로서 길리야크어의 존재를 제시하게 된 것이다. 한국어 계통에 대한 김방한 교수의 연구 성과는 『한국어 계통』이라는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서울대학을 퇴임한 후 저술 활동에 몰두하다가 폐암의 발병이라는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된다. 그러나 폐암과의 투병에도 불구하고 역사언어학 개설서인 『언어의 역사』, 자서전인 『한 언어학자의 회상』, 그리고 그의 평생의 관심사였던 『소

쉬르』 등을 집필하면서 생의 마지막 시기를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불사르기도 하였다. 2001년 혹독한 항암 치료에도 불구하고 폐암이 재발하여 삶을 마쳤을 때 그의 나이 76세였다. 중학교 시절에 앓아 2년을 휴학하게 만들었던 ‘폐문임파선염’, 그리고 지독히도 좋아하였던 담배 등이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요인이 아니었을까 짐작한다. 평생 모든 언어학 관련 서적을 생전에 전남대학교 도서관에 기증하였다. 그가 타계한 후 가족들은 전남 무안군 해제면의 가족묘지 한쪽, 자신을 끔찍하게 아꼈던 할아버지 곁에 나란히 묘소를 마련하였다.(이기갑)

[참고자료 : 김방한, 『언어학논고』, 서울대 출판부, 1970; 김방한, 『한국어의 계통』, 민음사, 1983; 김방한, 『일반언어학』, 형설출판사, 1985; 김방한·김현권·신익성, 『언어학개론』, 한국방송통신대 출판부, 1985; 김방한, 『몽골어와 통구스어』, 민음사, 1986; 김방한, 『역사비교언어학』, 민음사, 1988; 김방한, 『어원론』, 민음사, 1990; 김방한, 『언어학의 이해』, 민음사, 1992; 김방한, 『언어와 역사』, 서울대 출판부, 1994; 김방한, 『한 언어학자의 회상』, 민음사, 1996; 김방한, 『소쉬르』, 민음사, 1998.]

김상두(金相斗, 1911~?)

기업가, 삼학양조 사장. 전북 진안 출신, 본관은 경주. 김상두는 전주공립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목포에 와서 정착한 뒤 전일정미소를 경영하였다. 1947년께부터 목포지역 유지들과 함께 목포양주(주) 경영에 참여한다. 목포양주는 1929년 김상섭(사장), 차남진(전무이사) 등이 설립하여 탁주·소주·약주 등을 생산하였다. 남교동에 있던 목포양주를 1950년(혹은 1952년) 김상두가 인수하면서 호남동으로 이전 확장하였고, 이때부터 상표를 ‘삼학’으로 고쳐 소주를 생산했다. ‘삼학’은 삼학도에서 따왔다. 해방 후 목포양주의 소유권 이전 관계는 자세하지 않은데, 김상두와 동서지간인 김문옥 목포일보사 사장도 경영에 참여했던 듯 『목포사감(木浦史鑑)』(1955)에 목포양주 사장은 김문옥, 김상두는 전무로 기재되어 있다. 흔히 목포양주는 차남진, 김철진, 김문옥 등이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김철진은 1935년부터 대주주로서 이사 중 한 명으로 참여했고, 김문옥은 적어도 일제 강점기에는 관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 소주만 생산하던 김상두는 청주도 만들기 시작했고, ‘삼학청주’는 1962년 4월 제3회 전국 주류 품평회에서 청주부문 최고우등상인 재무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해 봄부터 ‘삼학소주’를 병에 넣어 전국 판매를 개시했다. 목포양주의 본사를 호남동에 두고 1957년부터 서울에 진출한 김상두는 1964년 3월 별도의 생산시설을 갖춘 삼학산업(주)을 자매회사로 설립하였고, 여기에서 생산한 술은 서울·경기·강원 지역에 판매되었다. 이때 목포양주를 ‘삼학양조(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데, 목포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은 호남지방에 판매되었다. 1965년 정

부의 양곡관리 정책에 따라 곡물을 이용한 재래의 증류식 소주 제조가 금지되고 주정을 이용한 희석식으로 제조법이 바뀌면서 삼학은 희석식 소주의 선발업체가 되었다. 1966년 3월 삼학양조·삼학산업은 주류심의회에서 특급주로 선정된 삼학청주의 상표명을 현상 모집하여 '대왕표 삼학청주'로 상표를 개칭했다. 이후 삼학의 대왕표 청주는 백화의 수복표, 보해의 김천표와 함께 3대 메이커였다. 1966년 6월 현재 삼학은 목포에 삼학양조, 서울에 삼학산업, 광주에 삼화주조 등 3개의 법인과 대전·대구·전주·광주·순천·부산에 출장소를 두고 있었다. 당시 양조업계는 백화, 진로, 삼학의 3파전이었는데, 소주시장은 삼학의 독무대였다. 1960년대 말까지 전국적인 명성으로 전성기를 누리던 삼학은 양조업계의 지나친 출혈 경쟁과 경제 불황 속에서 허덕이다 1970년 부도가 났다. 정부의 특별융자 지원을 받았으나 경영난을 타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정적으로 1971년 삼학산업의 납세필증 위조로 인한 탈세사건이 터지면서 문을 닫았다. 삼학산업은 1970년 맥주 등 모든 주류를 통틀어 다섯 번째로 많은 주세를 납부한 기업이었으며, 삼학양조는 삼학산업의 절반 규모였다. 한때 법인세 납부 20위를 기록한 대기업체 삼학은 김상두가 1973년 8월 22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확정 판결 받고, 삼학양조·삼학산업은 공매 처분되면서 사라졌다. 김상두의 삼학이 사라진 후 광주의 삼원물산에서 '삼학'상표의 소주를 시판하여 삼학소주의 명맥을 이었다. 삼원물산은 김상두의 사위 박만영이 1972년 4월 설립하여 이듬해 1월 김석두에게 인계한 회사로 1980년까지 운영되었다. 김상두의 몰락을 정치보복과 연관 짓는 말들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정기영)

[참고자료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광주일보』2004. 4. 21.; 『월간조선』2012. 4.]

김상섭(金商燮, 1876~1945)

기업가, 정치인. 전남 완도 출신으로 1926년 목포로 본적을 옮긴다. 1900년 전라남도 관찰부 주사로 관직생활을 시작 경무관, 완도군수, 경북 칠곡군수, 1908년경에는 검사로 광주지방 재판소, 부산지방 재판소, 대구지방 재판소 등에 재직하고 1911년 사직, 이후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다. 1913년경 목포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1914년 목포보호회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이후 기업인으로서는 1919년 목포창고금융 주식회사 전무취체역, 호남은행 발기인 등으로 참여한다. 1925년에는 동아고무공업 주식회사를 경영하며 지역 경제 및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 외 목포양조, 전남신탁의 경영에도 참여한다. 1920년 이전 이미 막대한 부를 축적했으며 1920년 전후 많은 기업에 투자한다. 1923~1928년 목포상업회의소 부회두를 역임한 일제 강점기 목포의 대표적인 조선인 자본가였다.

다. 1910~1920년대 초까지 임명직 부협의회 의원 7명 가운데 조선인 대표로 참가했으며 이후 일제 식민통치가 끝날 때까지 정·재계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 후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거쳐 전라남도 평의원으로 진출하게 된다.(정기영)

김상육(金相六, 1917~1977)

사진작가. 전남 해남 출신으로 목포로 이주해 해방을 맞았으며 해방 직후 남선전기회사(현재의 한국전력공사)에 근무하면서 사진에 몰두하다가 1957년 11월 25일 사진을 좋아하는 직장 동료들과 남전사우회를 창립하고 총무직을 맡았다. 그 뒤 1959년 목포사진예술연구회 회원으로 입회하여 11월 1일부터 회원전에 출품을 한 계기로 1960년 4월 20일~27일 최초의 개인전을 열었는데 작품의 내용은 주로 '백로(白鷺)'를 소재로 한 특별한 주제전으로 관심을 받았다.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진에 대한 인식이 사진관 인상사진으로 알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개인전, 더구나 백로를 주제로 한 전시였기 때문에 놀라워 했다. 같은 해 12월 3일부터는 목포예술동인회 창립전에 참여했는데 목포예술동인회는 시, 사진, 회화, 서예 작가들의 모임으로 각기 다른 장르의 예술인들이 함께 전시를 했다는 것으로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목포사진예술연구회는 후에 목포문화협회가 됐고 다시 한국사진협회로 소속을 바꾼 이후로 김상육이 1967~1968년, 1972년 두 차례 목포지부장직을 맡아 공헌했으며, 당시 남전에 근무한 뒤 1950년대 말 퇴사해서 오거리에 쌍미사(雙美舍)라는 DPE점을 경영하며 작품 활동에 전념했다. 당시의 사진 작품 제작은 오늘날과 같이 현상소에 의뢰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스스로 처방해서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영업을 했던 일은 생활과 작품 제작에 큰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육은 계속 작품 활동을 하면서 개인전을 열었고, 1973년 3월 25일~31일 밀물다방에서 '학(鶴)을 위한 앤솔리지'라는 작품전을 끝으로 오랫동안 전시를 열지 못했다. '학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백로를 좋아해 사진의 소재로 삼았으며 단순한 생태 사진에 그치지 않고 시적(詩的) 정서가 담긴 아름다운 이야기를 창출했는데, 1980년대 자신의 생업을 정리하고 제주도로 떠난 이후 목포의 동호인들과 소식이 끊기고 여생을 제주도에서 보냈으며 타계한 후 한참 만에 목포에 소식이 알려졌다.(박종길)

김성규(金星圭, 1863~1936)

조선 말기와 대한제국기 관료. 호는 초정(草亭), 자(字)는 보형(寶衡),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농업 개혁 정책을 지닌 사상가이자 지방 관료로, 퇴임 후 목포에 자리를 잡고 활동했다. 1863년 충청북도

연풍군 현내리에서 태어났다. 집안은 원래 경북 문경 지역에 세거하다가 조부인 석근(稾根)대에 전라남도 무안군 해전면 석룡리로 이주했다. 아버지 병옥(炳昱)이 현 충북 괴산군에 해당하는 연풍현감을 지낼 당시 김성규가 출생했다. 1887년 광무국(礦務局) 주사(主事)로 관직 생활을 시작했고, 유럽 국가에 대한 전권 공사의 서기관이 되어 홍콩에 가서 체류한 이색적인 경력이 있다. 이후 고창군수, 장성군수, 무안감리를 거쳐 1905년 강원도순찰사의 임무를 마칠 때까지 약 18년간 공직에 종사하였다. 목포와 밀접한 관련을 맺은 것은 1903년 무안감리서 감리로 부임하면서부터이다. 감리서란 개항장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에서 설치한 관청의 이름이다. 무안감리서는 1897년 목포 개항과 함께 개항장 내에서의 외교 및 통상 사무를 위해 설치되었다. 당시까지 목포는 무안에 속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감리서의 명칭이 무안감리서로 붙여지게 되었다. 김성규는 6대 무안감리로 약 1년 정도 재임하였다. 이때 지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다른 관리들이 일본 눈치 보기에 급급했던 상황임에도 주체적 신념을 가지고 조선인의 입장을 옹호하는 정책을 폈다. 이러한 상황이 『무안보첩』 기록에 잘 남아 있다. 특히 1903년 일본 상인들의 횡포에 대한 조선인 부두노동자들의 노동쟁의 시 일본 낭인들이 감리서에 난입하여 갖은 행패를 부린 큰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이때도 일본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단호하게 조선 노동자들 편에 서서 조선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자주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관직에서 물러난 후 목포 지역의 대표적인 유지로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 퇴임 후 김성규는 목포와 장성을 오가면서 후학 양성을 위해 학교를 세우거나 그 시기에 설립된 민족 기업에 투자하여 자본가로 변모하였다. 전남 최초로 생긴 농업은행(1906년)과 현준호가 주축이 된 호남은행(1920년)의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목포에서는 목포창고금융, 동아고무공업, 목포양주 등에 투자하였다. 또한 '상성합명회사(祥星合名會社)'를 직접 설립하였다. 이 회사는 부동산 매입, 농업, 임업, 금전 대부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회사를 기반으로 1934년에는 조정 김씨 종중재단(宗中財團)인 보은사(報恩社)를 창립하였다. 안동 김씨에서 분파해서 조정 김씨의 시조가 된 것이다. 지역 유지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했다. 유달산에 있는 목포시사(木浦詩社)의 전신인 유산시사(儒山詩社)의 건립과 운영에도 적극 가담하였고, 시사장을 맡기도 했다. 또한 1921년 목포청년회 발기 시 고문을 맡는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였다. 김성규는 현 북교동성당 일대에 '성취원(成趣園)'이라는 대저택을 가지고 있었다. 목포 사람들은 이곳을 '김장성 댁'이라고 불렀다. 무안감리를 하기 전에 장성군수를 역임했기 때문이다. 김성규는 슬하에 김우진, 김철진, 김익진 세 아들을 두었다. 김우진은 국내 근대 극작가의 효시이자 가수 윤심덕과 함께 현해탄에 투신한 인물로 유명하다. 둘째인 김철진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공산당, 목포신간회 운동에 참여했으며, 1935년 발간되었던 『호남평론(湖南評論)』의 책임자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후 목포부회, 전남도회 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셋째인 김익진은 자신이 유산으로 받은 전 재산을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고 본

인은 평생을 야인으로 사회봉사를 하며 천주교인의 삶을 살았다. 김성규의 묘는 무안군 해제면 옛 임치진 터에 있고, 그의 유품은 목포문학관 김우진실에 전시되어 있다. 영정을 비롯해서 전권공사관의 서기관, 전라남도 양무감리 임명장, 무안감리 임명장, 무안항 재판소 판사 임명장, 강원도 순찰사 임명장 등과 관복, 관직에 있을 때 사용하던 인장함, 나전칠기 내사장, 홍콩에서 구입한 사물함 등이 있다. 관련 기록으로는 문집인 『초정집』이 남아 있으며, 목포시사에는 김성규가 쓴 ‘유산정(儒山亭)’ 편액이 남아 있다.(최성환)

[참고자료 : 전남대 호남학연구단, 『호남인물 기초자료』, 전남대 출판부, 2006; 최성환 외, 『목포의 역사와 이야기 100선』, 목포시, 2009; 한국생활사박물관편찬위원회, 『한국생활사박물관 11 -조선생활관 3-』, 사계절, 2004; 최성환의 해양문화연구실 사이트(<http://historycontents.net>) 「서해안인물열전 -무안감리 김성규-」.

김암기(金岩基, 1932~2013)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에서 출생하여 목포에서 유치원부터 목포사범학교까지 마쳤다. 1970년대에서 1995년에 이르도록 목포의 모든 예총 행사가 오거리에서 이루어졌던 그 시절, 진정한 오거리의 터줏대감이었다. 목포에서 자라 목포를 지키며 단 한 번도 목포를 떠난 적 없이 오직 화필 하나만 들고 목포의 미술과 문화예술계를 지켜온 최후의 감시원이라고 해서 그 누가 반대할 것인가! 김암기의 존재는 바로 예향 목포의 상징이자 자존심이요, 산증인인데 그 누가 그의 앞에 서서 목포의 미술을 이야기 할 것인가? 아침 배들이 떠나가고 저녁 배가 돌아오는 배경으로 용머리를, 그리고 유달산을 눈부신 빛으로 표현해 온 목포의 대표적인 화가 김암기, 그는 불사초처럼 그 날갯짓을 펴리며 병마와 싸우면서도 혼신의 힘을 다해 그의 예술세계를 정리했다. 필자는 어느 날 유달산 자락에 있는 그의 화실을 방문했다. 흰색과 청회색이 주조를 이룬 환상적 분위기, 독창적인 나이프 기법, 저 밑 바닥에서부터 우러나는 깊이와 무게,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작품소재, 이런 것들이 필자로 하여금 범상치 않은 화격을 느끼게 한다. 샤갈의 그림과 루오의 그림이 합쳐지는 이미지랄까? 유달산의 바위와 달빛, 고향바다, 입춘 무렵, 동화시대의 연작시리즈가 끝나고 이제 그의 그림세계는 깊은 종교적 심성과 맞닿아 가고 있는 듯 보였다. 1959년 목포에서 서양화에 관심 있는 십대들의 모임인 ‘네오나르전’을 창립하여 서양미술을 개척해 왔으며, 1991년에는 한국예총도지회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 예술 발전에 앞장섰다. 서울, 제주, 광주, 목포 등에서 12차례의 개인전을 열었고, 프랑스 르싸롱전 등 국제전 출품을 비롯해 수 많은 단체전 및 초대전에 독창적이고 우수한 작품을 발표하였다. 전남도미술대전 심사위원장, 전국무등미술대전 운영위원, 대한민국미술대전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목

포시민상, 남농예술문화상, 성옥문화대상, 전남예술상, 전남도문화상 등을 수상하였다. 2013년 11월 4일에 타계하였다. 2016년 그의 작품 및 소장품 543점을 목포시에 기증하였다. 「삼학도이야기」, 「유달산초기」, 「N화백과 죽동골목」 등을 비롯한 유화 158점과 크로키 95점을 비롯해 소장품인 도자기, 수석 등 245점이 포함되어 있다.(김병고)

[참고자료 : 목포시·목포백년회, 『목포개항100주년 미술기념전』, 1997; 「목포시민신문」 2013.11.08.]

김영자(金英子, 1922~2015)

무아의 경지도 단숨에 그려내는 영감의 화가, 목포 최초의 여성화가 등 술한 별칭이 뒤따라 붙는 화가이다. 1943년 일본 도쿄 우에노미술대학에 입학하여 서양화를 배웠다. 귀국 후 천경자와 함께 한국 여류화단을 이끌었으며, 크로키 분야에서 독보적인 일가를 이룬 것으로 평가받았다. 젊은 시절에는 나무를 즐겨 그렸고 노년에는 농악과 유달산, 삼학도를 주요 소재로 삼았다. 「농악시리즈」, 「군무」, 「탈춤」 등으로 ‘김영자 화풍’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화 크로키도 독특한 경지를 보여주는 화풍으로 꼽힌다. 서양화지만 작품은 한국적인 풍경과 풍속화를 그려 ‘김영자 화풍’을 이뤘다. 1938년 제17회 선전에서 ‘반찬의 재료’라는 그림으로 입선하면서 주목을 받았으니, 입상 경력으로 본다면 호남 최초의 여성 화가이기도 하다. 그는 자연과의 대화로 고독을 이겨내곤 했다. 유달산과 항구, 시장터 아낙네 등의 모습에서 찾아낸 토속적인 작품들, 향토성이야 말로 붓의 터치와 색채적 실험, 자신의 사상을 담는 새로운 방법 등을 시도하는 가장 적합한 소재였다. 그의 삶에서 눈여겨 봐야 할 또 다른 아름다움은 해방정국, 6·25전쟁 등 현대사의 격랑 속에서 겪어야만 했던 현실 속에서 슬픔을 보고 있었다는 점이다. 1993년부터 목포토박이 모임 ‘예목회’를 운영하며 후진 양성에 힘을 쏟았고, 목포의 예술과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섰다. 1945년에 목포공보관에서 제1회 유화개인전, 서울롯데화랑 오픈 기념전으로 제35회 유화개인전, 1990년에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제55회 유화개인전, 목포MBC 초대로 제65회 개인전을 열었다. 1988년에는 ‘Salon de Paris’ 특별 초대작가전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2015년 1월에 최근 20여 년 동안 작업한 유화 크로키 작품을 선보였는데 생전 마지막 전시로 남게 되었다. 2013년 자신이 아끼던 작품들을 목포시에 기증하였고 이를 토대로 전남여성플라자 내에 ‘김영자미술기념관’을 건립하여 대표 작품을 전시해 놓았다. 목포시민의 상, 전라남도 예술문화상, 한국예술인총연합회 문화예술대상 등을 수상하였다.(김병고)

[참고자료 : 목포시·목포백년회, 『목포개항100주년 미술기념전』, 1997; 김영자미술기념관; 재봉틀의 국어방

김영하(金永廈, 1903~1959)

목포시 초대 시장. 호는 해봉(海峰). 광산 김씨. 김희현의 5남 중 3남으로 태어나 유년기는 서당에서 한학을 배웠다. 1921년 장성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26년 3월 휘문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하였으며, 같은 해 6월 10일 조선 독립 만세 사건으로 종로서에 수감되었다. 1929년 6월 10일 6·10만세운동 3주년 기념 동맹휴학을 주도하여 퇴학당했다가 1932년 3월 복학하여 1933년 연희전문대학 상과 4년을 15회로 졸업하였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1933년 장성군 황룡면 황룡리에 사재를 털어 형설학원을 설립하고 농촌의 무산 아동과 20세 이상 무필자를 대상으로 야학을 실시하였으며 1938년에는 주간 교육도 실시하면서 지역의 문맹퇴치에 앞장섰는데 형설학원은 8년 동안 운영되었다. 1934년 장성금융조합장에 취임하였고 1936년 월평공립보통학교 위원, 1937년 장성산업조합 평의원, 1938년 장성군농회 평의원, 1939년 장성군 황룡면장, 1946년 3월 영광군수, 10월 화순군수, 1947년 2월 해남군수, 5월 전라남도 학무국 사회교육과장, 10월 내무국 공보과장, 1948년 6월 해남군수, 12월 나주군수로 임명되어 재직하다가 1949년 6월에는 목포부윤에 임명되었다. 1949년 8월 15일에는 지방자치법의 제정으로 목포부가 목포시로 개칭되면서 초대 목포시장이 되었다. 목포부에 근무 당시 목포시립도서관을 개관하였고 각 동 회장 회의를 통한 소통 행정을 실시하였다. 목포시 유달산 입구에 있는 해봉사는 그의 호를 따서 설립된 사찰로서 사찰의 편액은 한학에 능한 그가 직접 쓴 것이었는데 2005년 태풍 사라호에 의해 파손되었다. 6·25전쟁을 맞이하여 해군의 구조로 시민들과 부산으로 피난 중이던 1950년 8월 15일 서기관으로 승진되어 제주도 총무과장에 임명되었고, 9월엔 다시 전라남도 내무국장에 임명되었다. 그 후 1951년 충청북도 산업국장, 1954년 전라북도 문교사회국장, 1955년 전라남도 문교사회국장을 역임하였다. 1956년에는 농과계인 황룡고등공민학교를 설립하여 학생들에게 국어, 영어, 수학, 농사 관계 과목을 가르치게 하였다. 학생 수는 100~120명 정도였고 동화, 삼계 등 외지의 학생들도 통학하였다. 그는 농민가를 지어 계몽의식을 고취하였는데 학교에서도 마을 연극 공연 때에는 같이 불렀다. 1959년 6월 장성 황룡에서 지병으로 56세에 생을 마쳤다. 장성군 문화원에서는 행정관료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의 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2014년에 장성군 황룡면 황룡리 원황룡에 기적비를 세웠다.(김병록)

[참고자료 : 동아일보』 1926. 06. 15. 「6월 사건과 6·10만세」; 『동아일보』, 1935. 05. 10. 「형설학원 낙성」; 『전남일보』 1975. 01. 06. 「광복 30년 6·25 동란」.]

김용구(金容九, 1933~2015)

무안군 현경면 출생으로 1947년 목포상업중학교를 거쳐 1958년 광주사범대학교 미술과를 졸업하였다. 2008년 그의 개인전에서 최재환 시인은 “그의 그림은 노적봉, 백양사, 윤림산방, 가거도에 서 보듯이 성실하고 착하다. 그의 그림은 항상 만족하지 않고 불만투성이며, 사물을 단순화 시킨다고 하지만 화면에 너무 욕심이 많다. 남에게 신세를 지면 10분의 1이라도 신세를 갚아야 마음이 홀가분한 심정이다.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니라 눈을 크게 뜨고 견문을 넓혀 명작을 남기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다. 가장 애정을 느끼는 작품과 이유는 1979년작 「정답」이며 국전에 처음 출품하여 첫 입선된 작품으로 인물의 표정, 동작 등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었으며, 그 어느 작품보다 심혈을 기울여 그린 작품으로 정감이 간다. 우리는 그의 인간성부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평소에 겸허하면서도 말이 없고 묵묵히 실천하는 성격의 소유자로 특히 작품 제작에 꾸준한 인간성을 보여 준다. 또한 그는 은유하면서도 내면에 숨어 있는 섬세하게 떨고 있는 감수성이 명석하고 강한 의지력과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인지 그의 작품에서도 진실함과 소박함이 드러나 보이며, 마치 고향의 품에 안긴 듯한 포근하고 따스하며 서정적인 감성을 느끼게 한다.”고 한 바 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 대한민국 미술대전·전라남도 미술대전·전국 남농 미술대전 심사위원 및 한국 미술협회 자문위원, 목포예총 고문, 목포미술협회 고문, 삼목회 고문으로 활동하였다. 1973년 첫 개인전을 개최한 이후 2008년까지 모두 9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1969년부터 2014년까지 오승우미술관 초대전에 120회에 걸쳐 작품을 출품하기도 하였다. 주요 작품으로는 「생업」(1978), 「정답」(1979), 「추석전날」(1980), 「가을의 여심」(1980), 「목화 따는 아가씨들」(2007), 「평화」(2011) 등이 있다. 1983년 송암창작대상, 1996년 남농예술문화상, 2013년 전라남도 예술문화상을 수상하였다. 2015년 10월 3일에 소천하였다.(김병고)

[참고자료 : 박석규 교수 제공 자료; 목포시·목포백년회, 『목포개항100주년 미술기념전』, 1997; 최재환, 「점선과 성실로 독자적 세계를 구축한 화가 -김용구 화백의 『우리들의 고향 사랑전』에 부쳐-」, 2008.]

김우진(金祐鎭, 1897~1926)

한국 근대극의 선구자. 1897년 전남 장성에서 김성규의 장남으로 출생했다. 호는 초성(焦星) 혹은 수산(水山)이다. 1903년 장성 군수였던 아버지가 무안(현 목포) 감리로 발령을 받으면서 목포시 북교동 46번지 성취원(成趣園)으로 이주하였다. 목포공립보통학교(현 목포북교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일본 구마모토농업학교에 입학하였고, 1924년 와세다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였다. 1926년 가정·

사회·애정 문제로 번민하다가 당시 「사의 찬미」로 유명했던 가수 윤심덕(본명 윤수선)과 함께 29세의 젊은 나이로 현해탄에 동방 투신자살했다. 한마디로 그는 전근대와 근대의 해협을 항해하다 침몰한 난파선이자, 불꽃같은 삶을 살다 간 비운의 천재였다. 김우진은 와세다대학교 재학시절부터 본격적인 문학의 길로 접어들었다. 다논치오, 보들레르, 브라우닝, 하이네 등 독일과 프랑스 시인들의 작품을 탐독하며 시작(詩作)을 하였고, 칸트, 헤겔, 쇼펜하우어, 니체, 마르크스 등의 영향을 받아 합리적이고 냉철한 서구적 교양과 인격을 갖추었으며, 본과인 영문과 재학시절에는 종합예술인 연극에 심취했다. 그리하여 1920년 조명희, 홍해성, 고한승, 조춘광 등 유학생들과 함께 ‘극예술협회’를 조직하였고, 1921년에는 ‘동우회순회연극단(同友會巡廻演劇團)’을 조직하여 국내 순회공연을 하기도 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귀향한 김우진은 아버지가 물려준 ‘상성합명회사’의 사장으로 일하는 한편, 1925년 목포 지역 최초의 문학동인회인 ‘Socie Mai(5월회)’를 조직하여 리더로 활동하였다. 그리하여 구마모토농업학교 시절부터 습작활동을 통해 문학을 향한 꿈을 키워오던 그는 대학에 들어간 1920년부터 1926년 8월 사망하기까지 짧은 기간 동안 「정오」, 「이영녀(李永女)」, 「두더지 시인의 환멸」, 「난파」, 「산돼지」 등 희곡 5편을 비롯하여 시 50편, 소설 3편, 번역 3편, 연극 및 문학평론 20편 등 문학 전반에 걸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남겼다. 특히 표현주의에 입각한 희곡 「이영녀」는 당시 유달산 밑 사창가(현 양동 일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유명하다. ‘우리나라의 근대극의 선구자’로 불리는 김우진은 한국 최초의 자유시인 주요한의 「불놀이」(『창조』, 1919)보다 앞서 근대시를 실험했고(미발표 습작시), 체계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당대 비평계의 허구성을 비판했으며, 어느 누구보다 먼저 근대극다운 희곡작품을 썼다. 그리고 서구를 풍미했던 표현주의 문예사조를 받아들여 문단에 소개하고, 그것을 직접 창작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우리 근대문학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표현주의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김우진은 비록 목포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11세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목포에 살면서 일본 유학을 통해 배운 근대사상과 근대문학의 씨앗을 뿌린 ‘목포 최초의 근대 지식인이자 근대 문인’이다. 그로 인해 한반도의 꼬트머리에 자리한 항구도시 목포는 어느 도시보다 일찍 근대도시로 깨어났으며, 훗날 한국 근대문학사의 중심을 차지하는 기라성 같은 문인들을 다수 배출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명실공히 ‘목포 문학의 선구자’라고 할 만하다. 김우진이 살았던 집터이자 상성합명회사가 있었던 방대한 대저택 성취원은 현재 북교동 성당이 들어서 있으며, 입구 쪽에 ‘극작가 김우진 문학의 산실’이라고 새겨진 작은 표지석이 있다. 또한 그의 시신이 없는 초혼묘는 무안군 청계면 월선리 몰피산에 있으며, 목포문학관 ‘김우진관’에는 육필 원고를 비롯한 유품 141점이 보관·전시되어 있다.(김선태)

[참고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두산백과사전』;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 조인스 인물정보

김익진(金益鎭, 1906~1970)

사상가이자 언어학자. 세례명은 프란치스코, 호는 야인(野人)이다. 1906년 유달산 아래 북교동에서 무안감리를 지낸 김성규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김우진, 김철진의 동생이다. 훗날 대구로 이전하여 생을 마쳤기 때문에 목포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김성규의 아들로서 목포 도시 1세대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며, 한국 천주교와 번역 작가계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1918년 3월 25일 목포공립보통학교(9회)를 졸업한 후 대전중학교, 서울중앙고등보통학교를 거쳐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고, 이후 중국 북경대학교에 진학하여 언어학을 전공하였다. 언어에 대한 재능이 특출하여 영어를 비롯해서 6개 언어에 능통했다. 1930년대 초반 중국 북경대 도서관의 사서로 일하던 모택동[마오쩌둥]과 친교를 갖고 공산당에 입당하여 홍군에 가담하였다. 일본 유학 도중 중국으로 건너간 것 자체가 아시아 대륙에서 일제를 몰아내는 혁명대열에 참여한다는 신념이 배경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학생 신분으로 중국 공산당에 입당하고, 모택동의 예하 부대인 홍군에 들어가게 되었다. 여러 전투를 거치면서 목숨을 겨우 연명했는데, 1년 반만에 북경으로 돌아왔다. 아버지 김성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김익진은 강제 귀국하게 되었다. 중국 혁명군에 참여하면서 극심한 사회주의 사상가의 길을 가고 있던 김익진은 한 권의 책을 계기로 천주교에 몰입하게 되었다. 1935년 어느 날 도쿄의 한 서점에서 우연히 접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전기』라는 책을 읽고 천주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후 다시 토마스 데 아퀴노의 『가톨릭과 경제문제』라는 책을 독파하고, 어려운 사회경제문제 해결은 희생이 뒤따르며 기약조차 없는 혁명에 의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 나누어주고 봉사하는 것이 실천할 수 있는 애국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목포로 내려와서 세례를 받고 성직자 프란치스코와 같은 삶을 살겠다는 맹세의 의미로 세례명을 ‘프란치스코’라고 정했다. 그는 광복이 되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다. 목포와 장성 일대의 소작인을 불러다가 “이제 나는 지주 행세하며 토지세 받던 어제의 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소유권을 무상으로 농민들에게 양도해 주었다. 토지는 경작하는 자의 소유라는 사회주의 이념을 천주교를 접하면서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실천한 것이다. 1940년 장성으로 이주하여 신앙생활을 하며 장성성당을 건립하였고, 가산을 정리하여 광주교구에 헌납하였다. 1948년 대구로 이주하여 왜관의 순심중학교 교장, 김천성의중학교 교감을 역임하였고, 6·25전쟁 중에는 『가톨릭 시보』의 편집 동인으로 활동하였다. 전쟁이 끝나고 경주근화여자중학교 교감으로 재직하기도 하였지만, 1955년부터는 문필생활에만 전념하여 여러 번역서와 저술을 남겼다. 그 후 종교인이자 번역 작가로서의 삶은 ‘한국의 성 프란

치스코'로 불리기에 충분한 모습이었다. 딸인 김화영(김익진의 7남매 중 3녀)씨의 증언에 의하면 가족들이 다니던 성당에 교무금을 낼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았다고 한다. 그로 인해 자식들의 불만이 컸으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어머니 덕분에 견딜 수가 있었다. 김익진 인품의 고귀함은 구상 시인의 회고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구상 시인은 6·25전쟁 시 대구로 피난을 갔다가 김익진을 만나게 되었고 이후 지속적인 교류를 나눴다. 구 시인은 김익진과 만남의 시간을 '영혼의 놀이터'라고 표현하였으며, "선생과의 추억들을 생각하면 불과 엇그제같이 내가 몸소 체험한 일인데도 천 년 전 신라시대 고승대덕(高僧大德)들의 일화나 설화를 회상하는 느낌이다. 이렇듯 선생은 각박한 현존에서부터도 초월된 삶을 사시다 가셨다."라고 회고하였다. 김익진은 1970년 1월 6일 고혈압으로 사망하여 대구 범어동 천주교 묘지에 안장되었다. 주요 저서로 『동서저편』(1971), 『민속과 서학』(유고집, 1971)이 있으며, 번역서 『레지오 마리에 직무수첩』(1956), 『동서의 피안(彼岸)』(1961), 『동방문화와 공교(公敎)』(1965), 『내심낙원(內心樂園)』(1966) 등을 남겼다.(최성환)

[참고자료 : 김화영, 「한국의 성 프란치스코 야인 김익진」, 『경향잡지』95-2,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3; 최성환의 해양문화연구실 사이트(<http://historycontents.net>) 「서해안 인물열전 -한국의 성 프란치스코 야인 김익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정수(金正洙, 1910~?)

노동운동가. 전남 해남군 계곡면 출신으로 영암 계림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휘문고등보통학교 4년을 마친 다음 도쿄 와세다대학 고등학원에서 유학했다. 1928년 도쿄에서 1928년 9월 식민지 교육에 반대하는 동맹휴학을 선동하는 인쇄물을 만들어 국내로 보내어 배포하게 하여 구속되었으며 1929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해졌다. 석방된 이후 해남과 목포에서 사회주의 운동자들을 결집하여 노동자, 농민 조직을 건설하고자 했다. 1931년 목포로 이주한 이후 1932년 7월 이기동, 조점환 등과 함께 비밀결사 레닌주의자동맹(이후 공산주의자동맹으로 개칭)을 조직하여 혁명적 노동조합, 농민조합의 결성과 공산주의자 그룹의 통일을 목표로 활동했다. 목포공산주의자동맹은 지역의 사회주의운동을 총괄하는 지도부로 동맹을 조직하고 그 아래 대중단체들을 결성하려 했다. 여러 공장과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을 조직하려 했으며, 1933년에는 산하에 목포노동조합을, 1934년 1월에는 목포적색노동조합결성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목포 지역 학생들로 독서회를 만들었으며 학교마다 조직을 결성했다. 김정수는 해남에서 농민조직의 결성에도 주력했는데, 마을에 야학회, 농민계, 소비조합 등 합법적 조직을 기반으로 비합법 농민조합을 결성하려 했다. 무안군의 여러 섬에서

어민조합을 결성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1934년 해남에서 조직이 탄로나 조직활동을 주도한 김정수를 비롯하여 목포와 해남, 강진, 완도, 영암에서 수십 명의 청년이 체포되었으며 1936년 목포지방법원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이기훈)

[참고자료 : 김영일, 「일제하 목포지방의 노동운동」, 『전남사회운동사연구』,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1992; 「이종률 등 판결문」, 경성지방법원, 1929(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JA0000398).]

김정재(金正財, 1932~1998)

서예가. 1930년 11월 19일 전남 신안군 비금면 도고리에서 태어났다. 1951년 광주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신안교육청 장학사, 영암 용당초등학교 교장, 신안교육청 학무과장, 교육장 직무대리를 거쳐 목포산정초등학교 교장으로 1997년 2월 퇴임하였다. 1998년 전라남도 교육위원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나 불의의 사고로 12월 12일 타계하였다. 교육계에서 올곧은 공직자였고 서예계에서는 작품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진도 출신 소전 손재형의 제자였던 남정 최정균에게 사사받았다. 여러 차례 국전(대한민국미술대전)에 입선(1974~1975, 1977~1978, 1980~1981)과 1978년 제14회 전라남도 미술대전에서 서예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1982년 국전에서 특선을 하여 초대 작가가 된 후 전남도전 운영위원·심사위원과 국전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중앙 서단과 목포 서단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목포와 한국 서예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1979년 개인 서예전에 이어 1986년 6월 목포 황실다방에서 두 번째 개인전을 개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지역 서예미의 아름다움을 보여 많은 찬사를 받았으며 1992년과 1996년 국전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목포 서단에 큰 힘이 되어 주었다. 당시 측후동 자택에서 몇 명의 제자들에게 서법을 지도하였다. 그의 제자들이 청목회라는 서예 모임을 만들어 1991년 목포MBC 전시실에서 첫 전시회를 열었고 이후 격년으로 전시를 개최하였다.(강수남)

김준형(金浚炯, 1914~2008)

기업가. 1942년 목포시 산정동에 부친 김창훈과 함께 행남사(杏南社)란 이름으로 처음 창업, 인간 중심의 경영철학과 꾸준한 기술개발로 거듭되는 성장을 이루었다. 1957년 국내 최초로 본차이나 제품을 자체 개발했고, 1972년에는 제2공장, 1978년에 제3공장을, 1984년에 제4공장, 1985년에 제5공장을 준공하여 눈부신 성장을 경험하였다. 기술적인 면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을 인정받아 전통적인 사기그릇에서 1957년 순수 자체기술로 개발한 본차이나 제조기술과 첨단 울트라 파인 제조 기술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과거 수출 불모의 시절인 1963년, 홍콩에 첫 수출을 시작으로 2006년까지 수출 2억 5천만 불의 실적을 올려 국내 도자기 업계 수출 1위 업체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김준형 창업주는 전남 영광 출신으로 국내 최대 도자기 수출 공로로 1994년 금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1998년까지 경영 일선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다 장남인 김용주에게 경영권을 넘기고 명예회장으로 물러난 이후에도 신소재 개발과 제품 품질관리 개선 등에 힘써왔다. 또한 전남체육회 이사, 대한적십자 중앙위원, 국제라이온스 309-C지구 총재, 목포시자연환경보호협회의회장, 목포 개항100주년사업 범시민추진위원회 준비위원장, 목포백년회 이사장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1970~1980년대에 이르러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식기가 생활 자기로 교체되면서 커피 문화도 자리 잡게 되던 시기에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따라서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기계화된 공장이 많을수록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었다. IMF 위기도 겪었지만 그 후 중국 등지에서 저가의 제품이 공급되면서 경쟁력을 잃게 되었다.(정기영)

김진섭(金晋燮, 1903~ 6·25 때 납북)

한국 수필문학의 비조(鼻祖). 김진섭은 1903년 목포시 남교동(현 죽동) 135번지에서 당시 무안감리서 관리 김락현(경북 안동 출신)의 아들로 태어났다. 호는 청천(聽川)이다. 7세 때 발령을 받은 아버지를 따라 제주 정의(旌義)로 이주하여 정의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졸업 무렵 다시 나주로 이주하였다. 1916년 서울로 이주하여 양정고보(현 양정고등학교)를 1920년에 졸업하였다. 1921년 일본 호세이대학 전문부 법과에 입학하였으나 독문과를 선택, 1927년에 졸업하고 귀국하였다. 8·15 광복 후에는 서울대·성균관대 교수 등을 역임하였으며, 1946년에는 『독일어 교본』을 엮어내기도 했다. 1950년 6·25 때 논문집 『교양의 문학』 원고를 출판사에 남겨놓고 납북되어 지금까지 어떻게 사망했는지 알 수 없다. 애초 김진섭의 문학적 관심은 수필 창작이 아니라 연극 활동을 위한 해외 문학작품 번역에 있었다. 1926년 일본유학시절 손우성, 이하운, 정인섭 등과 ‘해외문학연구회’를 결성하여 1927년 귀국 후 『해외문학』 창간에 참여하였으며, 카프의 프롤레타리아문학과 대결하여 해외문학 소개에 진력하였고, 평론 「표현주의 문학론」을 비롯하여 독일 문학을 번역·소개하였는데, 서항석, 이현구, 유치진 등과 ‘극예술연구회’를 조직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1930년 『중외일보』에 최초의 수필 「인간문학론」을 발표하면서부터 수필가로 방향을 바꾸었다. 이때부터 약 20년 동안 200여 편에 달하는 수필과 평론을 남긴 그는 1947년 첫 수필집 『인생예찬』과 1948년 수필가로서 위치를 굳힌 『생활인의 철학』, 1950년 『교양의 문』을 발간함으로써 한국수필문학의 새 영역을 개척하였다. 김진섭의 수필은 일상의 생활을 철학의 차원까지 끌어올렸으며, 또 그것을 유려하고도 꾸밈없는 문체로 표현

한 점이 특징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그는 신문학 이후 문필인들의 여기(餘技) 정도로나 여겨왔던 수필을 본격적인 문학의 장르로 끌어올림으로써 한국 수필문학의 기틀을 다진 비조로 불린다. 대표작으로는 「백설부」, 「주부송」, 「모송론」, 「교양에 대하여」, 「수필의 문학적 영역」 등이 있는데, 이 중 「수필의 문학적 영역」은 한국 수필의 기틀을 잡는 명문장이자 그의 문학성을 가장 잘 드러낸 글로 꼽힌다. 그러나 김진섭은 출생 사실만 제외하면 목포 출신 문인이라기보다 고향인 안동 출신에 더 가깝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목포에서 태어나기만 했을 뿐 어린 시절의 한때를 조부모의 고향 안동에서 보냈으며, 7살 때 제주도로 이주하여 목포에 관한 기억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는 그 스스로 「없는 고향 생각」이라는 수필에서 “나는 불행히도 고향에 대해서는 극히 산만한 인상 밖에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고향에 두고 온 이야기 역시 기억할 바이없다.”고 한 데서도 드러난다. 안타깝지만 목포에 관한 글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목포에는 김진섭의 문학 기념비가 두 개나 서 있다. 향토문화관(현 목포자연사박물관 문예역사관) 앞뜰(1990, 우리문학기림회)과 갯바위 문화의 거리로 들어가는 도로변 우측 언덕(1998, 한국문인협회)에 세워졌다가 목포문화관 뜰로 옮겨진 것이 그것이다. 거기엔 ‘청천 김진섭 선생의 고향마을’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다. 그러나 이 비문의 명칭은 목포가 그의 출생지일 뿐 고향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적당하다. ‘고향’이란 원래 ‘제 조상이 오래 누려 살던 곳’이라는 뜻이다. 아니면 ‘태어나서 자라난 곳’, 그것도 아니면 ‘늘 마음으로 그리워하거나 정답게 느끼는 곳’이기 때문이다.(김선태)

[참고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다음백과(<http://100.daum.net/>);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 조인스 인물정보(<http://people.join.com/>).]

김철진(金哲鎭, 1905~1971)

사회운동가, 언론인. 1905년 무안감리를 역임한 대지주 김성규의 둘째 아들이며, 극작가 김우진의 동생, 사회주의자 김익진의 형이다. 일본 구마모토 농업학교를 졸업하고 1927년 도시샤(同志社) 대학 정치경제과를 졸업하고 귀국했다(일부 기록에는 중퇴했다고 되어 있으나 『동아일보』 1927년 2월 17일 기사에 의하면 졸업했다). 1927년 6월에는 신간회 목포지회가 설립되자 상무간사가 되었다. 1927년 여름 신간회 하기 강좌, 전남청년연맹의 하기 강좌의 강사로 활약했으며, 8월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에 가입하여 고려공청 목포 책임자로 활동했다. 전남청년연맹, 목포청년연맹 등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다 1928년 조선공산당 조직이 발각되면서 구속되었으며, 1929년 12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출옥한 이후 사회운동에서 손을 떼고 목

포창고금용회사, 동아고무, 목포양주, 호남제탄 등 기업의 임원으로 사업을 벌였고, 1930년 『호남 평론』의 책임자가 되어 지역 현안과 시사, 문예 등이 실린 종합잡지를 계속 발간했으며 1935년에는 주식회사 호남평론을 설립하고 사장이 되었다. 1937년 동아약업회사를 창립하고 사장이 되었으며, 1936년 목포에 고등보통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목포 지역 유지 좌담회’에서 준비위원으로 선출되었고 3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1935년 목포부회 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1936년 1월 무안 지역 전남 도의회 보궐선거에 의원으로 당선되어 연임했다. 해방 직후 『목포신보』를 인수해 『목포일보』로 바꾸고 경영에 참여했으며 1951년에는 목포상과대학 2대 학장에 취임했다.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 1971년 사망했다.(이기훈)

[참고자료 : 강만길·성대경 엮음,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1996; 안종철·김준·정장우·최정기, 『근현대의 형성과 지역사회운동』, 새길, 1995; 『동아일보』 1930. 12. 23.; 『동아일보』 1936. 08. 06.; 『동아일보』 1937. 08. 01.; 『동아일보』 1937. 11. 17.]

김현(金炫, 1942~1990)

불문학자, 문학평론가. 1942년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에서 태어났으며, 본명은 광남(光南)이다. 진도에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같은 해 7월에 목포 북교초등학교로 전학했다. 그의 아버지는 목포 공설시장 앞에서 구세약국(救世藥局)을 열어 양약 도매업을 했는데, 충청 이남의 양약 공급을 장악할 만큼 사업에 성공했다고 한다. 목포중학교를 졸업하고 목포문태고등학교에 입학했으나 곧바로 서울의 경복고등학교로 전학했다. 경복고등학교를 마친 후, 서울대학교 문리대 및 동대학원 불문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대학에서 수학하였다. 1960년대 초반 김지하, 최하림 등과 함께 목포 오거리에서 문학적 감수성을 익혀 나간 김현은 1962년 서울대 불문학과 재학시절에 『자유문학』에 문학평론 「나르시스의 시론 -시와 악의 문제-」를 발표하여 문단에 등단했다. 같은 해 여름 김승옥, 최하림 등과 함께 동인회 ‘산문시대’를 결성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 동인지 『산문시대』를 창간·주도했다. 2호부터 강호무·김산초·김성일·염무웅·김치수·서정인 등이 가세한 이 동인회는 1968년 이른바 4·19 세대가 대거 참여한 동인회 ‘68그룹’ 결성과 1970년 가을 김현·김병익·김치수·김주연 등이 창간한 문학 계간지 『문학과 지성』의 모태가 되었다. 이후 그는 『문학과 지성』(약칭 ‘문지’)의 문학적 이념과 편집·기획을 주도하면서 수많은 평론을 발표해 한국 평론문학의 독보적 존재로 군림하다가, 1990년 6월 48세라는 짧은 나이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김현은 죽은 뒤 “1백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평론가였다.”(시인 황지우)라는 말이 나올 만큼 당대의 한국 문학에 넓

고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는 자신의 또래가 4월 혁명의 이념인 자유와 민주정신을 승계한 적자라고 굳게 믿으며 식민지 언어가 아니라 한글로 사유하고 한글로 글을 쓴 제1세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다. 또한 그는 엄청난 독서량과 섬세하면서도 날카로운 작품 분석, 인문학 전반을 아우르는 드넓은 지적 관심, 그리고 명료하고 아름다운 문체로 비평을 창작에 기생하는 장르가 아니라 독자적인 문학 장르로 끌어올린 최초의 비평가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그의 비평 문체는 이른바 ‘김현체’라고 불릴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비평의 대상이 된 작가들이 즐겨 읽을 만큼 매혹적이었다. 따라서 그는 작품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실제 비평의 영역에 있어서 먼 훗날까지도 뛰어넘기 어려운 봉우리로 남아 있을 것이 틀림없으며, 이 땅에서 가장 독창적인 언어 세계를 보여준 비평가였다. 김현은 살아생전 240여 편에 달하는 문학평론과 저서를 남겼다. 김윤식과 함께 『한국문학사』(1973)를 펴냈으며,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경향들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여 『존재와 언어』(1964)·『한국문학의 위상』(1977)·『분석과 해석』(1988) 등의 저서를 펴냈다. 또한 그는 불문학자로서 좀 더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관점으로 우리 문학을 읽어내고 거기서 의미를 끌어내기 위해 외국문학 연구에도 관심을 보여 『바슐라르 연구』(곽광수와 공저, 1976), 『현대비평의 혁명』(1977), 『문학사회학』(1980), 『미셸 푸코의 문학비평』(1989), 『시칠리아의 암소』(1990) 등을 펴내기도 했다. 그가 죽은 뒤에도 평론집 『말들의 풍경』(1990), 유고일기 『행복한 책 읽기』(1992) 등이 나왔으며, 1993년에는 문학과지성사에서 『김현문학전집』 전 16권이 집대성되었다. 외국문학 논문상(1988), 제1회 팔봉비평문학상(1989) 등을 받았다. 그러나 김현은 목포에서 거주한 기간이 짧은(10년 미만) 데다가, 평소 지방색(전라도 출신)에 대한 콤플렉스로 가급적 전라도에 관한 글을 쓰지 않았고, 전라도 출신 문인들에게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부분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된다. 게다가 ‘김현 문학제’를 주관하는 단체가 고인과는 문학적 성향이 다른 목포작가회의라는 점을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1995년 김현문학비건립위원회가 세운 김현 문학비가 목포문학관에 있으며, 2011년 목포문학관에 ‘김현관’이 들어섰다.(김선태)

[참고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다음백과(<http://100.daum.net/>);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 조인스 인물정보(<http://people.join.com/>).]

나달수(羅達洙, 1917~2010)

기업가. 조선면화주식회사(朝鮮棉花株式會社) 사장 역임. 일제 강점기의 조선면화주식회사가 해방 이후 나달수의 관리 하에 경영되었다. 당시 조선면화의 공장은 나주·이리·목포 세 곳에 농림부 산

하의 조면공장이 있었고, 목포 해안동에는 상공부 관할의 직포공장이 있었다. 공청자본은 2천만 원, 운영자금은 1억 원이었다. 당시 조선면화는 원동기 460마력, 조면기 200대, 직포기 158대를 갖추고 있었다 한다. 1952년 12월 「상공회의소법」이 제정·공포되었고, 1953년 10월 대한상공회의소 및 24개 지방상공회의소가 법인체로 인가받았다. 이후 1954년부터 38개 지방상공회의소가 설립되었으며, 나달수가 목포상공회의소의 초대회장(1954. 1. 20~1957. 11. 9)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정기영)

문일석(文一石, 생몰년 미상)

작사가이자 문인. 1935년 이난영이 불러 국민가요로 지금까지 애창되고 있는 가요 「목포의 눈물」의 작사자이다. 이 노래는 1935년 오케레코드에서 실시한 ‘조선 10대 도시 찬가모집’에 응모된 작품이다. 공모 취지에 맞게 항구도시 목포의 향토성이 잘 표현되어 있다. 특히 ‘삼백년 원한 품은 노적봉 밑에’라는 가사가 주목을 받았다. 3백 년 전 정유재란 때 이순신이 왜적을 물리치면서 활약하던 당시의 상황을 암시하고 있어 이 노래가 우리 민족의 노래로 더 사랑받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사전 검열을 피하기 위해 ‘삼백년 원앙풍’이라는 다소 의미가 모호한 가사로 바뀌서 음반 가사지가 취입되었지만, 실제 부르는 사람은 모두 ‘삼백년 원한 품은 노적봉’으로 불렀다. 구전에 문일석은 이 가사말로 인해 일본 경찰에 끌려가 호된 문초를 받았다고 한다. 그동안 문일석은 「목포의 눈물」을 발표한 후 요절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목포 향토사학자 이생연의 증언에 의하면 문일석은 “이난영의 오빠 이봉룡 씨와는 친구였었다는 기록이 있을 뿐 「목포의 눈물」 이외의 작품이나 행적은 알려진 것이 없고 다만 젊은 나이에 요절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 내용이 목포에 전해오는 일반적인 이야기이다. 그러나 「목포의 눈물」 외에도 문일석이 작사한 대중가요가 꽤 여러 편 남아 있다. 현재 작사자 문일석의 이름이 들어 있는 작품으로 확인된 것은 총 8편이다. 「목포의 눈물」(작곡 손목인, 노래 이난영, 1935년 8월), 「홍등야화」(작곡 태평레코드, 노래 최남용, 1938년 7월), 「사나이 걷는 길」(작곡 김송규, 노래 김해송, 1938년), 「목포의 추억」(작곡 이봉룡, 노래 이난영, 1939년 1월), 「향수의 휘파람」(작곡 이봉룡, 노래 이인권, 1939년 2월), 「뒷골목 청춘」(작곡 이봉룡, 노래 남인수, 1939년 8월), 「그 여자의 눈물」(작곡 이봉룡, 노래 이화자, 1940년), 「가로등 일기」(작곡 이봉룡, 노래 성일, 1941년) 등이 다. 이 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문일석의 작품이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 「목포의 눈물」과 함께 문일석이 만든 목포 관련 대표 노래는 1939년에 발표된 「목포의 추억」이다. 작곡자는 목포 출신이며 이난영의 친오빠인 이봉룡이고, 노래는 이난영이 불렀다. 목포 사람이 작사, 작곡, 노래를 함께한 의미 있는 일제 강점기 대중가요이다. 가사 중에는 ‘고하도’, ‘갯바위’ 등 향토 지명이 등장하며, 마지막 소

절 ‘남쪽의 저 하늘가 고향 목포에 가고파’라는 이난영의 애잔한 목소리가 더욱 구슬프게 들려오는 곡이다. 문일석은 주로 이난영 일가인 김해송(이난영 남편), 이봉룡과 협력하여 대중가요 노랫말을 만들었다. 그는 대중가요 작사 외에 시인으로도 활동했다. 1937년에 발행된 『호남평론』 8월호에 「바닷가에서」라는 시가 ‘일석(一石)’이라는 필명으로 게재되어 있는데, 문일석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목포 출신 수필가인 차재석은 “호남평론의 편집실은 목포문단의 사랑방이었고, …… 「목포의 눈물」을 작사했던 문일석 씨 등이 호남평론의 단골손님이었다.”는 기록을 남긴 바 있다. 아쉽지만 아직까지 문일석의 실체에 접근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목포 문인 박화성이 남긴 단편적인 기록들이 거의 유일하다. 박화성은 자신의 애창곡인 「목포의 눈물」과 관련된 1974년 3월 24일자 한 신문 인터뷰에 “특히 노래의 작사가 문일석 씨와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 집안끼리 아는 분의 아들로 나보다 몇 살 아래인데, 가끔 시를 써서 나한테 보이고 평을 요구하기도 했다. 험잡한 용모에 문재(文才)가 뛰어난 문학청년이었다. 그는 작가로서는 빛을 보지 못한 채 일찌감치 요절하고 말았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 또한 그의 자서전적 작품집인 『눈보라의 운하』에도 “저 유명한 「목포의 눈물」의 노래를 지은 문일석 군은 꽤 영롱한 시를 쓰더니 요절했”라는 표현이 남아 있다. 박화성이 1940년 시기를 언급한 부분에 문일석 요절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그 무렵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4년 목포문화원에서 발행한 향토지(『마파지』)에 문일석의 원래 이름이 ‘윤재희(尹在熙)’라는 글이 소개된 이후 지금까지 문일석의 본명이 ‘윤재희’라는 이야기가 알려져 있다. 원래 ‘해남 윤씨’인데 집안의 반대로 문일석이라는 필명을 사용했다는 것이며, 목포북교초등학교, 전주 고, 일본 와세다대학을 졸업 후 목포에서 살다가 요절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집안 족보에 윤재희가 1920년생으로 되어 있어 나이상으로 활동 시기가 맞지 않고, 목포 북교 졸업생 명부에서도 확인되지 않아 설득력이 없다.(최성환)

[참고자료 : 화성, 「잔인한 구월들」, 『눈보라의 운하』(박화성 문학전집 14), 2004, 223쪽; 차재석, 「세 마리의 학은 아직도 -목포문학의 발자취-」, 『다목동 차재석 유고집』, 세종출판사, 1991, 57쪽; 목포문화원, 「목포의 눈물 노래와 이난영 -‘노래말을 지었던 윤재희’」, 『마파지』(목포향토지 10), 1994, 244쪽.]

문재철(文在喆, 1883~1955)

사업가, 교육자. 본관은 남평. 1883년 12월 24일 무안군 암태면 수곡리에서 문태현의 4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문재철의 집안은 한말~일제 강점기 암태도의 대표적인 지주였다. 암태도에서 염전 경영, 남강나루를 활용한 소금 판매, 암태도 공장도 관리 등을 토대로 재산을 증식하였다. 소작료

인상을 통한 지주 경영으로 그의 토지는 암태, 도초, 자은, 지도 등 현 전남 신안군 일대는 물론 전남 북, 충남북에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되었다. 문재철의 가혹한 소작료로 인해 암태도 소작쟁의를 시초로 1920년대 중반 전남의 여러 섬 지역에서 소작쟁의가 발생했다. 1930년대 들어 문재철은 농업회사나 농장과 같은 상업 자본으로의 전환을 시도했다. 또한 간척지 개간사업을 추진하여 1940년대 조선인을 대표하는 대지주로 성장했다. 목포가 1897년 개항된 이후 상업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문재철은 사업가로서도 여러 분야에서 수완을 발휘했다. 은행, 운수 창고, 인쇄업, 제조 공업, 금융 신탁, 양조업, 상업, 농림업 등에 참여하였다. 상업부문으로 목포창고금융(이사, 1919), 남일운수(사장, 1924), 전남백화점(이사, 1920), 경일상고(사장, 1931), 선일척산(사장, 1935), 목포해운회사(이사, 1940), 금융부문에 호남은행(이사, 1920), 전남신탁(이사, 1929), 산업부문에 동아고무(이사, 1925), 목포양주(이사, 1929), 전남면화(이사, 1933), 남성정미공장(사장, 1939) 등에 투자하였다. 사회 활동도 활발했다. 1920년 목포청년회 창립 시 평의원을 맡았고, 1922년 9월 2일 목포청년회 임시 총회를 통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1923년 4월 목포청년회가 이사제로 개편되면서 회장과 임원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전남도평의회 의원(무안군), 목포부의회 의원, 목포부 학교평의원 등을 지냈다. 지역사회에서 문재철의 최대 공로는 1941년 문태중학교를 설립한 것이다. 그는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재단법인 문태학원을 설립하고, 조선총독부로부터 인가를 받는 데 성공했다. 이에 반해 친일행적도 남아 있다. 그는 흥아보국단 설립준비회 전라남도 도위원(1941), 조선임전보국단 결성식 참가 및 평의원(1941)을 지냈다. 문재철은 1955년 사망했으며, 1993년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교육 유공자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추서받았다. 일제 강점기 신문자료에 목포 인물 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가 문재철이다. 소작쟁의 관련 '악덕지주'라는 표현과 학교 설립 관련 '목포의 자랑'이라는 표현이 공존한다. 그에 따라 문재철에 대한 역사적 평가도 친일지주적 측면과 민족주의자라는 측면이 공존하고 있다.(최성환)

[참고자료 : 박천우, 「한말 일제하 지주제 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박찬승, 「1924년 암태도 소작쟁의 전개과정」, 『한국근현대사연구』54, 한국근현대사학회, 2010; 정병준, 「암태도소작쟁의 주역의 세 가지 길 - 서태석·박복영·문재철-」, 『한국민족운동사연구』51,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7; 장시원, 「일제하 대지주의 존재형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박길수(朴吉洙, 1928~1994)

역무원. 펠라콩 박길수는 1928년 전남 장흥군 대정면 평촌리에서 박권섭의 3남으로 태어났다. 그

는 선천적인 소아마비와 손발이 떨리는 증상, 입이 틀어져 어눌한 말투에다 왜소한 체격 등 중복장애를 타고 났지만 천성이 긍정적이고도 부지런했다. 박길수가 열두 살 때 큰형의 오랜 병환으로 살림이 기울자, 그의 가족은 고향인 장흥을 떠나 목포로 나와 역 앞에서 과일 노점상을 하며 생계를 이어간다. 목포역 대합실에서 노숙하며 틈틈이 부모 일을 돕던 박길수는 자발적으로 역내 청소를 열심히 하는 등 근면성실함을 인정받아 목포역 정모의 조수로 고용된다. 정모는 기차에 실어 온 화물을 대합실의 손님에게 운반해 주는 짐꾼으로, 보통 빨간모자[赤帽]를 쓰고 근무하여 아까보(あかぼう)라고 불렸다. 박길수가 ‘멜라콩’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은 중증 장애에도 불구하고 늘 웃는 모습이 사무라이 영화의 등장인물 멜라콩과 비슷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목포역은 1913년 5월 15일, 호남선의 목포-학교 간으로 개통되었다. 호남선 부설 당시 약 10만 평의 바다를 매립해서 조성된 역사 주변은 복개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물이 차고 빠져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다. 현재 목포 구도심은 간척사업을 통해 조성된 곳으로, 일제 강점기 금융가가 밀집되어 있는 선창을 위시하여 목포역을 중심으로 주요 상권이 형성되었으나 역사 주변에는 하수로와 갯벌이 그대로 있어 안쪽으로 물이 들어왔다. 남교동 수문통으로 뻗어 있던 갯고랑이 한국통신 앞에서 역전 광장을 돌아 동명동 앞바다로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1960년대 초까지도 목포역 옆길(역전파출소에서 우성마트 방향)은 복개되지 않은 넓고 긴 하천이 흐르고 있어 인근 사람들이 목포역으로 가려면 5백여 m가량을 돌아서 가야 했다. 특히 하천 건너편인 동명동 어시장을 이용하는 상인과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해산물을 팔아서 먹고사는 보따리 장수들이 기차를 놓쳐 발을 동동 구르거나, 기차 통학생들은 지각을 빈번히 하게 되고, 목포 앞바다에서 잡은 생선과 직접 기른 농산물을 새벽녘에 나와 팔다, 아침이 되면 파장하는 도깨비시장 상인들의 불편도 뒤따랐다. 이를 보다 못한 박길수는 직접 목포시청을 방문하여 다리를 놓아줄 것을 애원하지만 예산문제로 거절당하면서 정신이상자 취급까지 받게 된다. 이후 그는 직접 다리를 놓기로 결심하고 모금운동에 나선다. 자기 몸도 성치 않은 주제에 꼴값을 떠나는 비웃음과 비난이 뒤따르는 일이었다. 게다가 역사 주변 상인들은 다리가 생기면 사람들이 자기네 상가를 지나치지 않아 영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박길수를 집단 폭행하며 압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길수는 이에 굴하지 않고 사비를 털어 다리 공사에 필요한 철근과 시멘트를 직접 구하러 다녔다. 그의 정성에 감복한 이들이 하나둘씩 합류하기 시작했다. 영화필름 배달 일로 안면이 있는 남일극장 김제형 사장을 비롯해서, 목포역 근처 사창가 아가씨들도 성금을 보냈다. 마침내 그의 나이 36세가 되던 해인 1964년 4월 20일, 다리가 완공된다. 박길수가 자비 60만 원을 털어 만든 다리를 사람들은 ‘멜라콩 다리’라고 불렀다. 통나무를 세우고 구멍 뚫린 철판을 깐 게 전부였지만 지름길로 날듯이 목포역을 드나들게 된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다리였다. 그로부터 한 해에 착한 일을 하나씩 하는, 일년일선(一年一善)을 다짐한 박길수의 선행은 쪽 이어진다. 당시 목포역을 이용

하는 승객들은 화물보관소가 없어 장 보따리와 짐 꾸러미를 들고 우왕좌왕하는 일이 많았다. 박길수는 이들을 위해 사채 4만 원과 기부금 1만 2천 원을 들여, 1965년 3월 31일 무료 화물보관소를 만들고, 1967년에는 20평 규모의 무료 숙박소도 완공한다. 여기에는 박길수의 사비 5천 원도 들어갔다. 목포역의 보안관을 자처한 멜라콩. 평소 그는 역사를 배회하는 떠돌이 소년들이 깡패들에게 구타를 당하면 이들을 데려다 치료해 주고, 무작정 고향을 등지고 나온 섬 처녀들이 인신매매단에게 붙잡히면 필사적으로 구출해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추위에 떨며 대합실에 웅크리고 잠을 청하는 떠돌이 소년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 박길수는 그들을 무료합숙소에 재우며 국수를 삶아 주기도 했다. 심지어 부랑아들이 모닥불을 피우며 놀다 화물을 불태웠을 때도 자기가 화물주에게 대신 변상해 주며 아이들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멜라콩다리 완공과 함께 대통령과 목포시장, 역장, 인권옹호회 등으로부터 많은 상장과 부상을 받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때의 화재로 불타버렸다. 1986년 7월, 박길수는 소화물을 운반하던 중 실수로 다리가 골절돼 기존의 업무를 못하게 되지만 목포역 소화물 취급소 노조원(박영순 분회장 등 32명)들의 배려로 화물포장 등 가벼운 일을 맡게 된다. 평소 그는 몸이 불편해 수입이 적어도 고객에게 팁을 요구하지 않았고, 돈지갑을 발견하면 꼭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40여 년 동안 첫 직장이자 마지막 직장인 목포역을 지켜 온 박길수는 2남 3녀의 자식들을 보란 듯이 잘 키워냈으며, 그의 지난 삶은 목포문화원 추천으로 KBS논픽션 드라마로 제작되었다. 1989년 1월 7일 밤 10시 30분부터 60분간 전국에 방송된 「멜라콩을 아시나요」는 윤홍식 PD가 연출했는데, 그는 이 작품으로 백상예술대상 신인 연출상을 수상했다. 퇴직 후 부인과 함께 노년을 보내던 박길수는 1994년 67세의 일기로 작고했으며, 멜라콩다리는 1970년대 복개되면서 자취를 감췄으나 표지석은 아직 그 자리에 남아있다. ‘목포역 정모 박길수, 멜라콩 다리. 서기 1964년 4월 20일’ 표지석에 새겨진 문구처럼 멜라콩 박길수는 불편함을 넘어선 노동의 신성함을 자부심으로 안고 살다 갔다.(정경진)

[참고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 목포시 보도자료]

박상렬(朴相烈, 1897~1981)

애국지사. 목포 3·1운동 주도자 중의 한 사람이다. 미곡상을 하고 있던 박상렬은 오랫동안 친교가 있던 남궁혁(南宮爌)이 목포에 와서 국제정세의 변화와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논하자, 목포의 청년·학생들을 규합하여 만세 시위를 준비했다. 박상렬의 회고에는 남궁혁이 일본 유학생이라고 했으나, 광주 3·1운동을 주도했던 남궁혁과 동일 인물인 것으로 보인다. 1882년생인 남궁혁은 배재학교를 졸업하고 목포 세관원으로 재직하다 목포 영흥학교 교사를 역임하고 광주 송일학교로 옮겨 재직 중이

었다. 남궁혁은 2·8 독립선언문을 국내에 반입한 김마리아의 큰형부였는데, 김마리아가 도쿄에서 서울로 가기 전 광주를 방문했으며 이 과정에서 선언문을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남궁혁과 박상렬은 동생 박상순, 박상오, 권영례, 오재복, 이금보 등을 규합하여 시위운동을 준비했다. 이들은 양동교회를 중심으로 시위를 준비하던 기독교인들과 협력하여 3월 중순에 거사하기로 했으나 3월 10일 광주의 시위 이후 일본 경찰의 감시가 심해 4월로 늦췄다. 박상렬과 박상오는 태극기와 유인물 등을 인쇄하여 쌀가게에 보관했다. 박상렬은 거사를 위한 준비자금도 조달했고, 4월 7일 독립선언서와 경고문을 목포 시내에 배포했으며, 4월 8일 아침에는 목포상업학교 학생 150여 명과 함께 시위에 참여했다. 박상렬과 상업학교 학생들의 행렬은 남교동 공설시장 앞에서 일제 경찰에 의해 저지되었고, 박상렬도 체포되었다. 대구복심법원에서 1919년 7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언도받았다.(이기훈)

[참고자료 : 목포개항백년사편찬위원회, 『목포개항백년사』, 목포백년회, 1997; 문백란, 「남궁혁의 신학사상 연구 -1930년대 신학 갈등을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권영례 외 판결문」, 대구복심법원, 1919(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JA0000743).]

박승희(朴勝熙, 1971~1991)

민주열사. 전북 전주에서 박심배, 이양순의 1남 2녀 중 차녀로 태어났다. 어릴 적 목포로 이사하여 목포북교초를 다니다가 부모님을 따라 목포와 무안을 오가며 무안초, 무안북중을 졸업했다. 어릴 적부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절대 뜻을 굽히지 않는 고집쟁이였다고 한다. 그녀는 중학교를 다니면서 성당 레지오 활동을 하면서 소외계층과 민주화를 위한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사회의 모순에 눈을 뜨게 되었다. 1987년 목포정명여고에 입학한 후 담임인 구신서 교사를 만나게 되었고, 구신서 교사가 참여하는 목포 지역 고교생 YMCA(이하 고교Y)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다. 고교Y는 풍물강습, 독서토론, 노래 배우기, 시사토론 등을 하는 목포 지역 사회봉사활동 단체였다. 이 활동은 이후 그녀의 활동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창립되었고 고 정부와 학교는 전교조 가입 교사에 대해 부당징계를 내리게 된다. 정명여고에서는 구신서 교사를 비롯해 김대중, 고윤혁 등 10명의 교사가 해직되었으며, 목포 전체로는 총 41명의 교사가 부당하게 해직되었다. 이에 맞서 학생들의 징계철회 투쟁이 확산되었고, 이 과정에서 목포 지역 고등학생들은 학생회 중심의 ‘목포 지역 고등학생 연합’과 ‘자주교육쟁취 고등학생연합’(이하 자고연)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대응하였는데, 그녀는 자고연 지도부로 선출되어 해직교사 복직 운동을 치열하게 전개하였다. 1990년 전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 입학하였고, 교지 『용봉』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편

집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매일 편집실 청소를 도맡아 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또 외국산 커피와 콜라는 마시지도 않고 환경을 오염시킨다며 샴푸와 린스 대신 세탁비누와 식초로 머리를 감는 등 생활 속 운동 실천이 몸에 배어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혼란스러웠던 정치상황은 그녀에게 가혹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게끔 흘러갔다.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김영삼의 분열로 노태우가 제13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6월 항쟁을 이루어 냈던 학생과 시민들은 큰 좌절감에 빠져들었다. 1988년 국회의원 선거로 인한 여소야대의 불안한 정국을 타개하고자 노태우는 공안정국을 조성하였고 전국을 공포감으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1990년 새해 벽두에 놀랄 만한 뉴스가 터져 나왔다. 노태우가 김영삼, 김종필과 손을 잡고 3당 합당을 선언한 것이다. 노태우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1991년 4~6월에 6월 항쟁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가 전개되었으며, 노태우 정권은 이를 무자비한 폭력으로 진압하였다. 1991년 4월 20일 전남대 5·18 광장에서 열린 ‘민중탄압 분쇄와 4·19 계승제’에 참석했던 전남대 학생 최강일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왼쪽 눈을 실명했다. 1991년 4월 26일 명지대 총학생회장의 석방을 위해 시위에 참가했던 명지대 강경대가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하였다. 연이어 일어난 안타까운 소식에 박승희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등교를 할 만큼 큰 슬픔과 충격에 휩싸였다고 한다. 그녀는 시대의 불감증에 무감각한 사람들에게 대한 실망과 사랑도 분노도 느끼지 못하는 군상들에 대해 한탄하며 이것이 우리들의 자화상이어서는 안 된다고 주변인들에게 말하곤 했다고 한다. 또 1987년 목포대학교에서 분신 항거했던 박태영 열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한다. 그녀는 독재에 항거하다 쓰러진 열사들을 보면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녀의 유서에 의하면 4월 27일 분신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느 때와 같은 나날을 보내었다. 1991년 4월 29일 전남대 5·18 광장에서 ‘강경대 살인 만행 규탄 및 살인 정권, 폭력 정권 노태우 정권 퇴진을 위한 결의대회’가 열렸다. 박승희는 이 대회에 참석하여 ‘민족해방가 2’를 불렀다. 이후 자리를 빠져나온 그녀는 100여 m 떨어진 곳에서 몸에 불을 붙였고, 불길에 몸을 감싸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노태우 정권 타도하고 미국 놈들을 몰아내자.”는 구호를 외치며 쓰러졌다. 분신 후 그녀는 곧바로 전남대 병원으로 옮겨졌다. 고통스러운 치료의 과정에서도 ‘노태우 정권 퇴진, 미국 놈들 몰아내자’ 등의 구호를 쓰며 사투를 벌였지만 5월 19일 12시 50분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1991년 5월 25일, 전남도청에서 ‘겨레의 딸 자주의 불꽃 고(故) 박승희 열사 민족국민장’이 거행되고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에 안장되었다. 박승희가 병원에서 사투를 벌이던 이 시기를 이른바 ‘분신 정국’이라 부른다. 강경대의 죽음을 시작으로 박승희, 5월 1일 안동대 김영균, 5월 3일 경원대 천세용, 5월 8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 5월 10일 노동자 윤용하 등이 잇따라 분신하여 이른바 ‘분신 정국’이 조성되었다. 노태우 정권은 분신 정국을 타개하고자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의 유서를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이 대필했다는 이른바 ‘유서대필사건’을 조작하였다. 이 조

작 사건으로 인해 노태우 정권은 운동권에 대한 탄압을 시작하였고, 6월 항쟁 이후 최대의 시위이었던 1992년 5월은 사그라지게 되었다. 1998년 ‘겨레의 딸! 자주의 불꽃 박승희 열사 추모사업회’가 결성되어 활동하다가 2004년 11월 27일 ‘겨레의 딸! 자주의 불꽃 박승희 정신 계승사업회’로 명칭과 정관이 변경되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매년 전남대학교 일원, 광주5·18민족민주열사묘역과 목포정명여고 후문 홍상 앞에서 그녀를 추모하고 있다.(곽재구)

박애순(朴愛順, 1896~1969)

3·1운동 지사. 목포 출신으로 정명여학교를 거쳐 1915년 광주수피아여학교를 1회로 졸업했다. 1회 졸업생은 박애순과 표재금 2명이었다고 한다. 이후 모교 수피아여학교에 교사로 재직했다. 1919년 박애순은 학생들에게 신문 기사를 읽어 주며 독립 사상을 고취했으며 3·1운동이 일어난 이후 광주에서 만세 시위 준비가 진행되는 가운데 김강의 부탁을 받고, 학생들에게 “만국강화회의에서 조선 독립을 승인하여 각지에서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있으니 우리도 참여하여 만세를 불려야 한다.”고 참여를 설득했다. 1919년 3월 10일 오후 독립선언서 문치를 학생들에게 분배하게 하고 양림리부터 광주 작은 시장 집결지, 광주 시내를 누비는 만세 시위에서 학생들을 이끌었다. 체포되어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이기훈)

[참고자료 : 윤선자, 「한말 전남지역 종교단체의 애국계몽운동」, 『역사학연구』21, 전남사학회, 2003; 이기훈, 『일제하 광주 전남의 민족운동』, 광주광역시·전라남도, 2016.]

박연세(朴淵世, 1883~1944)

목사. 1883년 전북 김제시 용지에서 농사군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 군산에서 활동하던 전킨(W. M. Junkin, 전위렴) 선교사에 의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다. 전킨이 있는 군산 영명학교를 졸업한 후, 고향 김제 신명학당에서 후배들을 가르쳤으며 이때 김신애와 결혼하였다. 이후 모교인 영명학교 교사가 되어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복음을 전하였다. 그는 구암교회 교인으로서 그곳에서 1916년 안수집사, 1918년 10월 35세에 장로가 되었다. 1919년 3·1운동 때 군산 지역 거사를 준비하던 중 사전 체포되어 대구형무소에서 2년 6개월 복역하였다. 형기를 마치고 39살이던 1922년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여, 1925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익산에서 첫 목회를 시작하였으며, 1926년 9월 목포양동교회에 10대 목사로 부임하였다. 그의 사역 시기 목포 지역 사회도 근

대화 바람에 팽창·발전하였고, 교회도 성장하며 커지자 지역별로 나뉘어 교회를 분립하였다. 중앙교회, 죽교교회, 연동교회 등 목포의 기독교 역사를 잇고 있는 주요 교회들이 이때 생겨났다. 1927년 19회 전남노회장을 시작으로 이후까지 4회씩이나 전남 노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지도력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강압 통치와 함께 신사참배 강요로 전국적으로 총회와 각 노회들도 배교의 뼈아픈 결정들을 취했으나, 박연세 역시 당시 전남노회장으로서 신사참배를 결의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목포를 대표하는 교회 지도자요 총회 총대로서, 또 전남노회장으로서 책임 있게 처신하지 못했다. 일제의 강압에 마지못해 한 결정이었으나 신앙의 지조를 상실하고 배교를 선택한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과 고통, 또 일부 뜻있는 신자들의 비판으로부터 괴로운 시절을 보냈다. 이후 그는 정신을 차리고 바른 신앙과 투철한 민족주의 사고를 회복하고 일제의 황민화 정책과 천황 숭배 강요를 거부하며 곧은 길을 가려 애썼다. 설교를 통해, 천황을 찬양하라는 부탁에는 오히려 일제를 비난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일본기독교단원이 발족하면서 목포 시내 여러 교회를 통합하라는 지시에는 연동교회 이남규 목사와 함께 반대하였다. 이 일로 두 목사 등 교회 신자 30여 명이 일경에 구속, 불경죄, 보안법 위반 등 죄목으로 재판을 받기도 했다. 박연세는 1년 동안 미결수로 있다 1943년 10월 목포지법에서 1년 형을 선고받고, 대구복심법원으로 넘겨졌으며 판사 앞에서 “예수를 배신하지 않고 천황도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는 대구형무소 차디찬 감방에서 옥고를 겪다 1944년 2월 15일 동사(凍死)하였다. 자녀로는 외동딸 박지영 권사가 있으며 사위는 광주수피아여고 교장을 지낸 김오봉 장로이다. 1990년에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김양호)

박태영(朴泰泳, 1967~1987)

민주열사. 1967년 9월 9일 전남 목포시 용당동에서 박형림, 유수자의 3남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목포대성초등학교, 문태중학교, 덕인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탐구력이 강하고 진취적으로 학습에 임하고 있어”라고 기록되어 있고,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성적이 우수하며 명랑하고 의지력이 강하고 지도력을 겸비한 개성이 뚜렷한 학생”으로 적혀 있다. 생활기록부상의 10대 시절의 박태영은 배움에 대한 의지가 남달랐으며 학생들 사이에서 진취적이고 주도적인 학생이었던 것 같다. 고등학교 때부터 불합리한 현실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고등학교 시절 쓴 일기장엔 당시의 한국 사회를 ‘위선이 가득한 사회’라고 규정하면서 ‘역겹다’라는 말로 자신의 생각을 대신하고 있다.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가고자 하는 대학교에는 합격하지 못한 상황에서 집안의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다. 현실을 직시한 그는 1987년 목포대 경제학과로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다. 목포대 입학 후 사회 참여의 일환으로 목포대 신문에 지원하였다. 그는 신문을 지원하면

서 지원서에 ‘시대의 모순을 극복하는 새로운 대학인의 모습을 정립하는 데 젊은 혼을 불사르길 원한다’고 적었다. 군부독재가 계속되면서 사회 모순이 극단으로 치닫는 현실에서 열기 넘치는 그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했던 것이다. 신문사 수습기자로 활동하면서 권력의 홍보물로 전락해버린 관제 언론을 비판하는가 하면 대학 언론의 사회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가 대학생활을 시작한 1987년은 격동의 시기였다. 1986년 계속되었던 개헌 정국은 12월 야당의 자중지란으로 인해 그 동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1987년 새해 서울대 언어학과 박종철 학생의 고문치사 사건이 터져 나왔고 민주화 세력은 다시금 동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4·13 호헌조치를 통해 정국을 장악하고자 했으나 이어 5월 18일 명동성당에서 박종철 군 고문치사 조작 사건이 폭로되고 6월 항쟁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끊임없는 투쟁의 결과 드디어 시민, 학생들의 손으로 6·29 선언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직선제 쟁취 후 민주화 세력은 다시금 분열의 기미를 보이고 있었다. 김대중과 김영삼을 중심으로 하는 후보단일화 협상은 지지부진하고 있었다. 시민들은 ‘후보 단일화’, ‘비판적 지지’, ‘민중 후보 추대론’으로 각각 분열되어 가고 있었다.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노태우는 각각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면서 ‘3자 필승론’, ‘4자 필승론’ 등 지역주의에 편승하려 하고 있었다. 일련의 분열 과정을 보면서 박태영은 많은 분노를 느꼈을 것이다. 그는 즉각 행동에 들어갔으며, 1987년 10월 29일부터 1인 피켓 시위를 시작하였다. 피켓에는 ‘이 땅의 민족 지성인에겐 행동이 요구됩니다. 우리의 억눌림도, 갈라짐도, 분노도, 저항도, 시행착오도, 피 흘림도, 여기서 끝냅시다. 민주인본(民主人本)’이 적혀 있었다. 이 피켓 시위를 통해 그는 민주화의 달성을 위해 분열은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실상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김영삼 두 후보의 단일화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의 시위는 하루로 끝나지 않았으며, 친구들에게 “민주화가 달성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공언하였다. 등하굣길에는 정문에서, 수업 시간에는 교정에서 시위를 계속하였다. 모든 수업을 거부했으며, 학생들을 향해 “제도교육 철폐하고 민주 교육 실시하라.”, “군부독재 끝장내고 민주정부 수립하자.”, “교련교육 철폐하라.” 등을 외치며 동참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박태영의 목소리가 현실 정치에는 전달되지 못했다. 10월 10일 김영삼이 통일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공식 출마하였다. 이에 항의해 김대중은 10월 18일 통일민주당을 탈당하였고, 11월 12일 평화민주당 창당 후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결국 김대중과 김영삼은 후보 단일화를 하지 못한 채 12월 16일 제13대 대통령 선거만을 남겨놓았다.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던 박태영에게는 큰 상실감이었다. 박태영은 1인 시위를 계속 했으나 민주화 세력은 분열이 확실시되었고, 기말고사와 방학을 앞둔 목포대 학생들의 호응도 크지 않았다. “민주화가 달성될 때까지 투쟁”을 하겠다고 했으나, 이미 투쟁의 동력을 상실한 상황이었다. 아마도 이때 그는 마음의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교정 한쪽에서 일기장, 노트, 사진첩 등을 불태웠다. 12월 9일 목포교 교사였던 박홍근의 집에서 열린 대학생 성경읽기 선교회에 참석한 후인 12시 30분

경 목포대 후문 부근에서 ‘군부독재 타도’, ‘제도교육 철폐’를 외치며 몸에 불을 붙였다. 투쟁에 돌입한지 42일째 되는 날이었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그는 목포시립의료원(현 목포의료원)으로 옮겨졌으며, 화상이 심각해 오후 2시 광주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의 쾌차를 바라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으나, 10일 오후 4시 26분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가 죽은 후 학생과 시민 500여 명은 경찰의 침탈을 막고자 철야 투쟁을 진행하며 분향소를 지켰다. 민주 쟁취 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민주세력은 ‘애국학생 고(故) 박태영 열사 장례위원회’를 결성하고 장례를 ‘애국학생 고 박태영 열사 민주도민장’으로 결정했다. 장례 위원장엔 문정식 목사, 집행 위원장엔 박흥도 목포대 총학생회장이 맡았으며, 장례 위원으로 김영진, 홍남순, 조아라, 조비오, 임기준, 장하원, 윤기석, 정상용, 안철, 배종렬, 박석무, 신기하, 문병란, 장만동, 명노근 등이 참여했다. 12월 12일 광주도청 앞 광장에서 ‘애국학생 고 박태영 열사 민주도민장’이 거행되었으며, 망월동 오월묘역(묘지번호 78)에 안장되었다. 박태영의 뜻을 기리고자 목포대학교 학생들은 교정에 추모비를 세웠으며, 추모 문집 『지난 겨울의 죽창가』를 발간하였다. 또 추모곡 「그대의 영혼을 위하여」가 만들어졌으며, ‘박태영 문학상’이 제정되었다. 매년 12월 10일 망월동 묘역에서는 박태영을 추모하기 위한 추모제가 열리고 있다.(곽재구)

박화성(朴花城, 1904~1988)

소설가. 1904년 목포시 죽동 9번지에서 박운단의 4남매 중 막내딸로 태어났다. 본명은 경순이고, 화성은 아호이자 필명이며, 호는 소영(素影)이다. 10세 때 고등과 3학년에 편입하고 월반을 거듭하여 12세 때 정명여학교(현 목포정명여중)를 졸업하였다. 이듬해 서울숙명여고보(현 숙명여고)를 졸업한 뒤, 1929년 일본여자대학교 영문학부를 수료했다. 1988년 서울 종로구 평창동 179번지 삼호빌라 1동 203호 자택에서 향년 85세로 별세했다. 그녀의 문학적 혈통을 장남 천승준(문학평론가), 차남 천승세(소설가), 3남 천승결(전 서울대 영문과 교수), 만며느리 이계희(소설가)가 잇고 있다. 박화성이 본격적으로 문학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영광중학원 교사 시절 동료교사였던 시조시인 조운에게서 소설을 쓸 것을 권유받으면서부터이다. 그녀는 1923년 21세 때 최초의 단편소설 「팔삭둥」을 『자유예원』에 발표하고, 「추석전야」를 조운이 당시 계룡산에 내려와 요양하던 춘원 이광수에게 보임으로써 『조선문단』에 추천을 받아 1925년 문단에 데뷔하였다. 등단은 1920년대에 했으나 작품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친 시기는 1930년대부터인데, 그 계기가 되었던 작품이 춘원의 재 추천으로 1932년에 발표된 「하수도 공사」이다. 그리고 같은 해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장편소설 『백화』를 6개월 동안 180회에 걸쳐 『동아일보』에 연재하면서 장편 작가로서 역량을 보였다. 1933년에는 중편 『비탈』과 「두 승객과 가방」, 「떠내려가는 유서」를, 1934년에는 「혈어진 청년회관」, 「논 갈 때」를 각각 발표

했다. 계속해서 1935년 자전적 소설인 「북국의 여명」과 「눈 오던 그 밤」, 「홍수전야」, 「중국어날」을, 1936년에 「고향 없는 사람들」, 「춘소」, 「불가사리」를, 1937년에는 「온천장의 봄」을 집중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문단에 확고한 위치를 굳혔다. 1938년 이후엔 일제의 조선어 말살정책과 일본어 사용의 강요가 노골화되자 절필하고 낙향하여 후배양성에 전념했다. 한편, 일본여자대학교 영문학부에 입학한 이듬해인 1927년 그녀는 여성 항일 구국 운동 및 여성 지위향상 운동 단체인 '근우회' 동경지부 창립 대회에서 위원장으로 피선되기도 했다. 살아생전 20여 편의 장편소설과 100여 편의 단편소설, 그리고 500여 편의 수필과 시를 남긴 박화성은 1920년대를 풍미했던 '동반자 작가'로서의 작품 경향과 리얼리즘에 입각하여 현실 문제를 깊이 있게 파헤친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그녀는 초기에 목포를 배경으로 가난한 노동자와 농민들의 고된 삶을 다룬 사회성 강한 소설을 썼는데, 동반자 작가의 경향이 강한 「추석전야」, 「하수도 공사」, 「홍수전야」, 「헐어진 청년회관」이 대표적인 작품으로 손꼽힌다. 이 중 「헐어진 청년회관」은 일제 때 청년운동과 민족운동의 보금자리였던 목포청년회관(현 남교소극장)을 배경으로 한 소설로서 역사의식이 강하게 투영되어 있다. 원래 이 작품은 『조선청년』 창간호에 실으려 하였으나 총독부의 검열로 전문 삭제 당하자 팔봉 김기진이 은밀히 복사해 두었다가 광복이 되자 목포에서 발간한 『예술문화』에 발표함으로써 빛을 보게 되었다. 박화성은 유독 이 땅에서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어 있는 작가로 유명하다. 1925년 목포에 최초로 건립된 방직공장의 여공들을 주인공으로 한 단편 「추석전야」로 문단에 데뷔함으로써 '최초의 여성 소설가'가 되었고, 1932년엔 『백화』를 『동아일보』에 연재하면서 '최초의 장편 여성 작가'가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어린 15세의 나이에 초등학교 선생으로 교단에 섰으며, 일본여자대학교 영문학부에 입학한 최초의 한국 여성이었다. 또한 그녀는 목포에서 출생하여, 상당 기간 동안 목포에서 활동하였고, 주로 목포를 배경으로 한 작품을 많이 남겼다는 점에서 '진정한 목포 출신 문인'이라고 하겠다. 한국여류문학인회 초대 회장을 비롯하여 국제펜클럽 세계연차대회 한국대표, 대한민국 예술원회원을 지낸 바 있는 박화성은 살아생전 뛰어난 문학적 업적과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문화훈장, 한국문학상, 3·1 문화상, 제1회 예술원상, 목포시문화상 등을 수상하였다. 박화성이 장편 『백화』를 비롯한 작품들을 집필하였고, 당시 목포 문인들의 사랑방이었던 용당동의 '세한루'는 헐어져 자취를 감춘 지 오래인데, 최근 목포시에서 인근에 박화성문학공원을 조성했다. 현재 그녀의 모교였던 목포정명여중 교정에 문학비가, 목포문화관 입구에 흉상이 세워져 있다. 또한 목포문화관 '박화성관'에는 육필 원고를 비롯한 많은 유품들이 보관·전시되고 있다.(김선태)

[참고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다음백과(<http://100.daum.net/>);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

조인스 인물정보(<http://people.joins.com/>).]

배치문(裴致文, 1890~1942)

3·1운동 지사, 노동운동가. 경남 김해 출신으로 목포로 이주했다. 목포상업학교를 다녔다고 하며 양동교회를 다녔다. 1919년 4월 8일 목포 3·1 운동에 참여하여 구속되었다. 1923년 상하이에서 열린 국민대표회의에 참석하였다가 의열단에 가입하여 군자금 모집 계획을 세운 혐의로 체포된 배치문도 본적과 연령이 일치하므로 동일 인물인 것으로 보인다. 배치문의 의열단 가입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국민대표회의에 참여했던 것은 확실하다. 이후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하여 1924년 목포 무산청년회에 참여했으며, 1924년 10월에는 보천교성토연설회 연사로 참여했다. 1925년 1월 무목청년연맹 결성을 주도하고 의장이 되었다. 무목청년연맹은 대중 본위의 신사회 건설과 무산 대중 해방운동의 선구가 되자는 강령을 내세웠다. 1925년 8월 서병인, 조극환, 설준식 등과 함께 사상단체인 목포전위동맹을 결성했다. 전위동맹은 목포 지역 노동자의 실상을 조사하고 노동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노동조합 설립운동을 추진하여 목포 지역 노동자의 조직화와 파업 투쟁을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배치문은 무목노동연맹의 교호부장을 맡았고, 목포 면업노동조합의 이사로 참여했다. 1925년 10월 8개 단체와 1,770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목포노동총동맹이 창립되자, 서무부 상임위원이 되었다. 대체로 서울청년회 계열이었으나 1926년 3월 김철수의 보증에 의해 화요회가 주도한 2차 조선공산당에 입당했다. 목포제유공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6월 석방되었으며 1927년 6월 신간회 목포지회에 가입했다. 제2차 조선공산당 가입이 발각되어 1년 6개월간 복역했으며 1929년 3월 서대문형무소에서 출소했다. 이후 신간회 목포지회장이 되었으며 1930년 2월 상하이에서 잠입한 조선공산당 재건설준비위원회 책임비서 김철수와 만나 농민과 노동자의 농민조합과 노동조합을 새로운 당건설의 기본으로 삼는다는 원칙을 전달받았다. 1930년 4월 이후 배치문은 목포 지방열성자대회를 열어 목포노동연맹을 부활시키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으나 김철수가 구속된 후 조직이 탄로나 8월에 다시 구속되다가 1931년 2월 불기소로 석방되었다. 이후에도 목포경찰서에 의해 몇 차례 검속되었으며 『조선일보』 목포지국 기자로 활동하면서 목포기자단에 참여했고, 1933년에는 『동아일보』 목포지국 기자가 되었다. 1937년 12월까지 『호남평론』 기자와 편집장으로 활동했다. 1941년 3월 10일, ‘소위 일본의 대동아전쟁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이니 반드시 망하고 말 것’이라는 발언으로 체포되어 1942년 5월 20일, 53세의 나이로 목포형무소에서 옥사했다. 직계 가족은 그의 사후에 모두 사할린으로 이주하여 소식이 끊겼다.(이기훈)

[참고자료 : 강만길·성대경 엮음,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1996; 안종철·김준·정장우·최정기, 『근현대의 형성과 지역사회운동』, 새길, 1995; 이기훈, 『일제 하 광주 전남의 민족운동』, 광주광역시·전라남

도, 2011: 최성환의 해양문화연구실(<http://blog.naver.com/baguni11>): 『동아일보』 1924. 02. 14.; 『동아일보』 1924. 02. 16.; 『동아일보』 1929. 03. 8.; 『동아일보』 1930. 09. 19.; 『동아일보』 1932. 03. 10.; 1933. 09. 27.; 권도균(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제공 자료.]

법정(法頂, 1932~2010)

승려, 수필가. 속명(본명) 박재철(朴在喆).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에서 태어나 우수영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목포로 유학하여 목포상업중학교(6년제)에서 공부하였다. 이후 전남대 상대에 진학하였으나 3학년에 재학 중이던 1954년 출가를 결심하고 오대산에 가다 서울 종로의 선학원(禪學院)에서 효봉(曉峰) 선사를 만나 그의 문하로 출가하였다. 그 전해에 대학을 휴학하고 목포 정혜원에서 학생회 총무를 맡고 있던 중 그곳에 잠시 머물고 있던 효봉 선사의 제자 일초(一超) 스님(시인 고은)을 만난 것이 계기가 되었다. 1955년 사미계를 받고 통영 미래사, 하동 쌍계사 등에서 효봉 선사를 모시고 생활하였고, 해인사 전문강원에 입학하여 공부하였다. 1959년 3월 15일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비구계를 받고 정식 승려가 되었고, 같은 해 4월 15일 해인사 전문강원을 마쳤다. 이후 산사에서 수행하다 1960년 운허(雲虛) 스님의 요청으로 통도사에 가서 『불교사전』 편찬에 참여하였다. 다음해 『불교사전』이 완성된 뒤에는 운허 스님과 함께 서울 봉은사로 옮겨 불경 번역 사업에 동참하였다. 1967년 운허 스님 주도로 고려대장경의 한글 번역을 추진하는 동국역경원이 설립된 후에는 역경 위원으로 참여하여 초기 경전인 『숫타니파타』와 서산대사의 『선가귀감』 등을 번역하였고, 1974년에는 서경수 교수와 함께 주요 불경을 한글로 번역하여 편집한 『우리말 불교성전』을 간행하였다. 불경 번역과 함께 1970년부터는 조계종 기관지인 『불교신문』의 주필과 논설위원 등을 맡아 불교 언론 활동을 주도하며 불교계의 문제점과 개혁책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들에도 승려의 입장에서 인생과 사회의 문제를 논하는 칼럼을 다수 발표하였다. 1972년 언론에 발표한 글을 모아 『영혼의 모음』을 간행하면서 수필가로서도 명성을 얻게 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와 박정희 정권의 독재가 본격화되자 함석헌, 장준하, 김동길 등과 함께 민주수호국민협회의회를 결성하고 유신헌법 철폐 운동에 참여하였다. 1975년 인혁당 사건과 장준하의 의문사 등을 겪으며 보다 근원적인 사회 변화의 기반과 출가 수행자로서의 삶에 대해 고민하다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효봉 문도들의 본사인 송광사로 돌아와 수행에 매진하였다. 1975년 10월에는 송광사 뒷산에 불일암을 짓고 홀로 생활하며 불교 본래의 집착 없는 삶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다음해 수필집 『무소유』가 간행되면서 그의 소박한 수행자로서의 삶과 결부되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송광사에 머무르는 동안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단기 수련을 주관하는 수련원장과 보조국사 지눌의 사상을 선양하는 보조사상연구원장을

맡은 것 이외에는 일체의 보직을 맡지 않았고 일체의 명예와 영향력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 하였다. 1992년에는 아예 강원도 오대산 외딴 산골로 들어가 화전민이 버리고 간 오두막에서 생활하면서 ‘무소유’의 삶을 실천해 갔다. 동시에 불교 승려로서 불교계가 신자와 일반인들의 신앙만을 강조하는 데서 벗어나 직접 일반인들의 삶에 기여할 수 있게 변화해 갈 것을 주장하였다. 철저한 깨달음을 강조하는 성철 스님의 돈오돈수(頓悟頓修)가 불교계를 풍미할 때에는 승려들의 중생에 대한 보살행의 실천 역시 중요하며 지눌의 돈오점수(頓悟漸修)를 옹호하기도 하였다. 또한 종교와 사상에 대한 집착까지 버리고 다른 종교를 존중하면서 모든 인류와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평화로운 세상의 건설을 추구하였다. 1994년에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모임을 결성하여 스스로의 마음을 청정하게 유지하는 한편 세상과 자연의 평화를 위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자연을 보존·보호하는 활동을 벌였다. 시인 백석(白石)의 연인이었던 김영한이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성북동의 요정을 사찰로 기증하겠다고 요청하였지만 이를 10년 동안 받아들이지 않다 부득이 수용하여 이곳에 ‘맑고 향기롭게’의 근본 도량 길상사를 지어 시민에게 개방하였다. 1997년 12월의 길상사 개원 법회에 천주교의 김수환 추기경이 참석하여 축하하자 다음해 2월의 명동성당 백주년 기념식에 축하 강연을 하여 종교 간 화합의 모범을 보였다. 길상사 창건 이후에도 한 달에 두 차례의 법문을 위해 방문하는 이외에는 줄곧 오대산 오두막에 거주하며 홀로 생활하다 2010년 3월 11일 입적하였다. 2010년 3월까지 180쇄를 간행한 『무소유』를 비롯하여 『산방한담』, 『텃 빈 충만』, 『오두막 편지』 등의 베스트셀러 수필집과 많은 기행문, 번역서를 남겼지만, 이생의 말빛을 다음 생으로 가져가지 않기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간행된 모든 간행물을 절판하라는 유언에 따라 모든 저술들은 2010년 연말까지만 판매되고 모두 절판, 수거되었다.(최연식)

[참고자료 : 백금남, 『맑고 향기로운 사람 법정』, 은행나무, 2010; 장혜민, 『법정스님의 무소유의 행복 -삶으로 가르친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 산호와 진주, 2010.]

서병인(徐炳寅, 1896~1948)

노동운동가, 정치가. 전남 무안 출생. 목포상업학교를 다니다 면화 중개업에 종사했다. 1925년 이후 목포 지역 사회주의 운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목포 전위동맹에 참가하고 목포면업노동조합, 무목노동연맹과 목포노동총동맹 등에서 간부로 활동했다. 1927년 8월 제3차 조선공산당에 참가하였고 1928년 2월에는 조선공산당 전남도책이 되었으나 구속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시기 조국환과 극적인 갈등을 빚어 신간회 목포지회의 내분을 가져오기도 했다. 1932년 전남노동협의

회 사건으로 한때 검속되었으며 1933년 잡지 『신세기』를 발행한 혐의로 목포경찰서에 검거되기도 했다. 해방 이후에는 서울을 근거지로 활동했다. 1945년 11월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 대회에 서울시 대표로 참석했고, 12월 전국농민조합총연맹 결성대회에도 대의원으로 참여했다. 1946년 전농 측 대의원으로 민주주의민족전선 결성대회에 참여하여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민전 서울지부 재정 부장을 역임했다. 사회노동당에 참여했다가 1947년 이후 여운형을 중심으로 하는 근로인민당 결성에 참여하여 1947년 4월 근로인민당 총무부 책임자가 되었으며, 사무차장으로 5월 창당대회의 사회를 보기도 했다. 여운형의 사망 이후에도 근로인민당 중앙상임위원으로 활동하다가 1947년 8월 15일 구속되어 병보석으로 석방되었으나 1948년 9월 사망했다.(이기훈)

[참고자료 : 강만길·성대경 엮음,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1996; 『경향신문』 1947. 04. 15.; 『경향신문』 1947. 05. 25.; 『동아일보』 1947. 05. 28.; 『독립신보』 1948. 09. 08.]

서상봉(徐相鳳, 1870~1927)

3·1운동 지사. 목포의 자산가이며 유진 벨 선교사의 전교로 기독교인이 된 기독교계의 원로로 1898년 양동교회 설립부터 참여한 장로였다. 기견(岐見)이라는 이름도 사용했다. 1907년에는 영흥 학교 후원자 명단에도 올랐다. 1919년 양동교회 신도 곽우영, 서화일, 박여성 그리고 광주와 목포 지역에서 더불어 활동하던 정명여학교 교사 강석봉 등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만세 시위를 준비했다. 남궁혁, 박상렬, 권영례 등 청년 학생들과 연대하여 4월 8일의 시위를 준비했으며 오전 10시 영흥학교, 정명여학교, 목포간이상업학교 등 학생과 기독교인, 시민들의 만세 시위 행렬을 선두에서 이끌었다. 일본 헌병들이 칼을 휘두르며 체포하는 바람에 팔에 부상을 입었고, 수감생활과 고문으로 상처가 악화되어 5개월 후 병보석되었다. 일설에 그 다음해인 1920년에 사망했다고도 하지만 1923년 서기견이 목포양동기독교청년회 총무로 선출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이기훈)

[참고자료 : 목포개항백년사편찬위원회, 『목포개항백년사』, 목포백년회, 1997; 『황성신문』 1907. 08. 03.; 『황성신문』 1908. 08. 19.; 『동아일보』 1923. 04. 16.]

서화일(徐化壹·徐化一, 1881~1936)

애국지사. 목포에서 상업활동에 종사하며 양동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 운동을 벌였다. 박복영의

증언에 의하면 1918년 박복영, 배치문 등과 함께 일심회를 결성했다고 한다. 박여성, 곽우영, 강석봉 등 양동교회 교인들과 서상봉 장로의 집에 모여 만세 운동을 준비하였다. 1919년 목포 시내에서 만세 시위를 벌이다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고, 6월 16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언도받았다. 석방된 후 1923년 목포양동기독교청년회 종교부장을 맡았고, 1925년 정명여학교 동맹휴교 사건으로 학생들이 무기정학 처분을 받자 학부형회의 교섭위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이기훈)

[참고자료 : 목포개항백년사편찬위원회, 『목포개항백년사』, 목포백년회, 1997; 『동아일보』 1923. 04. 16.; 『동아일보』 1925. 09. 14.; 『동아일보』 1972. 06. 17.]

서희환(徐喜煥, 1934~1995)

서예가. 호 평보(平步). 1934년 전남 함평군 엄다면에서 태어났다. 1955년 광주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4월 목포유달국민학교로 발령을 받고 10년 동안 재직하다가 무안군으로 이직하였다. 2년 후 목포중앙국민학교로 발령을 받았다. 당시 서울에 있는 진도 출신 소전 손재형에게 사사를 받았다. 서예에 대한 열정과 재능은 광주사범학교 재학 시절부터 익히 알려졌는데 당시 학교 강당에서 개인전을 열 정도로 서예 실력이 뛰어났다. 어려운 교통 여건 속에서도 서울까지 다니면서 서예 공부에 열중한 결과 국전(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1966년, 1967년 2년 연속 특선하였고 노산 이은상의 시 『조국강산』을 한글 전서체로 쓴 작품이 1968년에 대상을 수상하여 대통령상을 받았다. 그 결과로 1969년 봄, 초등학교 교사였던 그는 수도여자사범대학(현 세종대) 부속고등학교 교사로 영전되었다가 그 후 다시 수도여자사범대학교 교수로 영전되었다. 국전 초대 작가로서 운영위원·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글 서체 연구에 몰두하여 1974년에 첫 번째 작품집을 출간하였고 1982년에 두 번째에 이어 1988년에 세 번째를 출간하였다. 1995년 4월 향년 63세의 나이에 불치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유묵은 영산호 준공 기념비, 유달산 입구 조각공원 표지석, 유달산 충혼탑, 4·19학생의거 기념비 등 곳곳에 남아 있다.(강수남)

[참고자료 : 서희환, 『평보 서희환 서예 작품집』, 일지사, 1975.]

손수겸(孫守兼, 생몰년 미상)

언론인. 출생지 미상. 해방 후 목포에서 맨 처음으로 신문을 발간한 언론인이다. 일제 강점기 말엽 수년 동안 『경성일보』 목포주재 특파원으로 근무했다. 목포에서 해방을 맞아 시류를 관망하던 중 정보에 대한 시민 욕구가 폭발적으로 증대되는 것을 깨닫고 재빨리 언론 동지들을 모아 해방 직후인 1945년 10월 19일에 『목포신보』의 속간호를 발행했다. 그가 새 신문을 창간하지 않고 일제 때 발행된 『목포신보』의 속간호를 내게 된 것은 해방 직후라 신문을 발행할 만큼의 한글 활자와 공무 요원을 구하기가 힘든데다 『목포신보』 사옥이나 시설, 그리고 요원까지도 『목포신보』의 인적 물적 토대를 이용해야 했으므로 요원들 다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목포신보』의 후신인 『목포일보』, 그리고 『목포일보』의 후신인 『호남매일』이 1973년 5월 31일자로 폐간되면서 지령 12,777호를 간직할 수 있었던 것도 해방 직후에 발행된 『목포신보』가 일본어판 『목포신보』의 속간을 자처하면서 지령까지도 계승했던 까닭이다. 손수겸에 의해 발행된 『목포신보』는 활판 인쇄에 타블로이드 4×6판, 내용은 활자 사정 때문에 우리말 기사와 일문 기사를 같이 싣는 형식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면서 한글 활자가 확보되는 대로 차츰 일문 기사를 줄여 나가는 방식을 취했다. 비록 미약하고 열악한 여건이었지만 신문은 발행되면서부터 날개가 돋친 듯 팔려 나갔다. 하지만 손수겸은 목포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1946년 3월 초 강대석, 문재철, 김철진 등이 주축이 되어 구성된 『목포신보』인수팀에게 신문 경영을 맡기고 목포를 떠나 광주로 가 명창순, 고광표 등의 도움으로 『조선중보』를 발간했다. 『조선중보』는 고광표, 명창순이 신문사를 떠나고 『호남신문』과 합병을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아 신순언(申淳彦)을 명예사장으로, 박철웅을 사장으로 영입, 『광주신보』로 새 출발했으나 그 뒤 손수겸의 활동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장용기)

손양동(孫良銅, 1916~2015)

조각가, 건축가. 호는 호당(湖堂).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수림리에서 출생 후 목포로 이주하여 유년시절을 보냈다. 1928년(13세) 석공방에 입문하고, 1934년(19세)에 목포 대성동에서 석공방을 개업하였다. 이후 공방을 운영하면서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1938년 제작한 해태상이 목포(현 문예역사관 뜰)에 남아 있다. 2차 세계대전 말에 일본군에 강제 징용되었고, 해방 이후 가산토건을 설립하여 목포 인근에 많은 석건축물을 축조하였다. 대표적으로 1951년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등록문화재 제239호)이 있다. 그밖에 1951년 완도수산고등학교, 1954년 경동성당(목포시 문화재), 무안성당, 1956년 일로성당, 1958년 북교동성당 등을 축조하였다. 1960~1963년에는 목포성골롬반병원, 산

정동성당 석축기반공사를 하였다. 1960년대부터 작고하기 전까지 남농 허건, 서양화가 김영자, 서양화가 김암기 등 예술인들과 활발히 교류하였다. 90세까지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였고, 이후에는 소조, 한국화, 스케치 작업을 하며 여생을 보냈다. 2013년 7월 8일 목포시 문화유산 제25호 무형문화재 석장으로 지정되었으며, 유작 100여 점이 손창식석조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다.(손창식)

손용기(孫容基, 1898~?)

기업가. 남조선미유 주식회사(南朝鮮美油株式會社)를 경영한 기업가였다. 후에 전남석유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한다. 이 회사는 1946년 4월 손용기, 용상봉(龍相奉) 등이 발기하여 자본금 1천만 원으로 창립하였다. 목포부와 주변 9개 군에 유류(油類)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였으며, 목포 용당리에 유류저장 창고를 설치하고 KOS석유저장회사 출장소를 직할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부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목포 항구로 석유가 들어와 가격을 감하시킬 수 있었다. 손용기는 또한 해방 후 적산이 된 조선내화공업주식회사를 불하받는 데 앞장섰다. 1947년 5월 15일, 조선내화화학공업주식회사로 이름을 바꾸고 대표 이사에 선임됐다. 이러한 기업활동을 바탕으로 제3대(1960년 1월 20일~1961년 8월 11일) 및 제4대(1961년 8월 12일~1964년 8월 11일)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하였다.(정기영)

손재형(孫在馨, 1903~1981)

서예가. 호 소전(素荃). 1903년 음력 4월 28일 진도군 진도읍 교동리에서 옥전 손병익의 손자이며 손영환의 유복자로 태어나 1920년 18세에 서울 양정의숙(현 양정고등학교)에 입학하여 1924년 졸업하였다. 그 해에 조선총독부가 주최한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하였고, 1930년(제9회), 1931년(제10회)에 특선을 하였다. 1932년 처음 개최되는 제1회 조선서도전에서 특선하였으며 중국의 금석학자 나진옥 선생을 찾아가 사사하였다. 제2회 조선서도전에는 심사를 하였고 조선서화협회의 이사와 심사위원을 역임하면서 활발하게 서예활동을 하였다. 1944년 당시 42세였던 그는 2차 세계 대전 중 일본으로부터 추사의 대표작인 세한도(국보 제180호)를 찾아 왔다. 1945년 조선서화동연회를 조직하여 초대 회장, 조선서화협회전 심사위원장을 역임하였고, 1947년 재단법인 진도중학교를 설립하여 이사장에 취임하였으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를 역임하였다. 1949년 대한민국미술대전(국전)이 생기면서 심사위원, 서예 분과 위원장, 심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고문 등을 역임하였다. 소전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충무공벽파진전첩비(진도 벽파진 소재) 비문을 국·한문 전·예로 쓴 것이 1956년이었다. 정치활동을 활발하게 하여 1958년 제4대 민의원에 당선되었고, 1971년에는 제8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예술활동도 활발하여 1961년 예술원 작품상을 수상하였고, 한국예술협회 이사(1962년)를 거쳐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장(제4대, 제5대), 민족문화추진위원회 위원, 사단법인 5·16 민족상 종합심사위원장, 예술원 부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1968년 대한민국 국민훈장 목단장, 1970년 8·15 대한민국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하였다(68세). 1977년 6월 4~15일까지 『동아일보』 주최 회고전을 개최하였다. 1981년 79세로 서울 홍재동 자택에서 영면하였다. 서예는 중국에서는 서법 또는 서사, 일본에서는 서도라 하는데, 해방 이후 한국에서는 서예라 칭하게 된 것은 소전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그 원의는 육예(六藝)의 '예악사어서수(禮樂射御書數)'에서 서(書)자와 예(藝)자를 취한 데 있다. 소전이 '서도' 대신에 '서예'로 한 것은 우선 일제 강점기의 불쾌한 기억을 씻어 보자는 뜻도 있지만, 서를 일종의 수양정심(修養正心)의 도(道)로 보는 일면에 치우친 감이 강하고 본질적인 예술성이 무시된 감도 없지 않다. 그러나 서예라고 하면 동양적 서예관에서 '서즉화 화즉서(書卽畫 畫卽書)'라는 전통적인 의미와 함께 현대의 예술성을 띠고 새로운 서예운동에 적극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런 소전의 새로운 발상과 주장에 대하여 서예인들이 찬동하여 통용하게 되었다. (강수남)

[참고자료 : 국립현대미술관, 『한국현대미술사(韓國現代美術史) -서예(書藝)-』, 1981; 김기승, 「소전 손재형의 서예술」, 『소전 손재형 서화집』, 동아일보사, 1977; 진도균·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진도균지』, 200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안철(安哲, 1946~2003)

민주열사. 1946년 6월 21일 전남 보성에서 안동해, 김병순의 5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 안동해는 약업사로 동아약방을 운영했으며, 후에 한신대를 졸업하고 목포평강교회 목사로 활동하였다. 사회참여도 활발하여 1986년 강상철이 분신했을 때 강상철구명위원회를 조직하고 『구명소식』이라는 기관지를 발행하였다. 안철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버지 안동해라고 말했으며, 그가 기독교를 절실히 믿고 약사를 선택한 것도 아버지 때문이었다. 목포 5·18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수감되었던 1981년 9월 23일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아버님의 글을 대할 때마다 저를 사로잡는 사랑에 감동되어 마음도 몸도 녹아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는 구절을 통해 아버지에게 대한 존경과 감사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다. 목포중앙초등학교, 목포중학교, 목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앙대 약학대학에 입학했으며, 졸업 후 동신제약에서 근무하다 아버지의 동아약방을 물려받아 동아약국을 개업하였다. 회고에 의하면 그는 학창시절부터 매우 총명하고 똑똑

하여 공부를 잘 했다고 한다. 한편으로 대중을 사로잡는 능력이 탁월했으며 내면적으로는 어린 심성을 지닌 사람이었다고 한다. 안철이 청장년을 보낸 시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엄혹했던 박정희, 전두환의 군사독재 시절이었다. 군사독재로 인해 시민들의 권리는 제약되었으며 사회의 부조리는 최악으로 치달아가고 있었다. 한편으로 군사독재 타도,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행동은 크게 타오르고 있었다. 가장 엄혹했던 시기, 안철은 군사독재 타도와 민주화를 위해 평생을 투신하기로 결정하였다. 1970년대 중반 동아약국을 운영하면서 목포 지역 재야인사들과 교류를 시작하였다. 1977년 8월에는 한국기독교장로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에 당선되어 활동했으며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투옥되어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 1979년 10월에는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 목포지부를 만들어 총무로 활동하였다. 그가 운영하던 동아약국은 목포 민주화운동의 본거지였으며, 목포를 넘어 전국의 민주인사들이 찾아와 정보를 교환하고 활동을 모색하던 곳이었다. 심지어 억울한 일을 당한 일반 시민들까지 도움을 요청하러 올 정도였다고 한다. 이로 인해 '민주화운동=동아약국=안철'이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다. 박정희 사후 군사정변을 통해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은 민주화를 열망하던 광주를 총칼로 탄압하였다. 광주 시민 학살에 분노해 일어났던 1980년 목포항쟁에서 안철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시민과 계엄군의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무기의 회수를 제안했으며, 목포의 안정을 위해 민관회의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다. 또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투쟁을 위해 '목포시민민주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장으로서 목포항쟁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결국 목포항쟁은 실패로 끝나게 되고 그는 도망자가 되어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정권모 목사와 함께 27일 오후 4시경 목포를 빠져나와 무안, 영광, 전주를 거쳐 대구 YMCA에 머물렀다. 그러다 다시 부산으로 가서 문헌교회 목사를 찾아가 피신 활동을 계속하였다. 이곳에서 한 달여를 머물다가 7월 3일 목포로 돌아와 자수를 하게 된다. 군법회의의 1심에서 징역 8년,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 교도소 처우 개선 단식투쟁을 하는 등 투쟁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혹독한 고문과 무자비한 구타로 인해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이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몸이 많이 쇠약해졌다. 1981년 3월 대전교도소로 이감되었으며, 그해 12월 25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민주화 투쟁의 과정에서 두 번의 옥살이와 혹독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인해 평생의 지병인 당뇨와 합병증을 얻게 되었다. 석방된 그는 정권의 회유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투쟁을 꾀꿉이 이어갔다. 그가 운영하는 약국 유리창에는 수많은 유인물과 당시 금기시되던 김대중을 언급하며 '김대중 사면·복권하라'를 부착하기도 했다. 또 사재를 털어 유인물을 제작하여 민주 인사, 일반 시민들에게 배포했으며, 민주 인사들이나 시민들은 약을 사는 척하며 그가 제작한 유인물을 통해 정보를 얻어갔다고 한다. 1986년 목포민중회복국민회의를 결성하여 집행위원장을 하던 중 6월 6일 청년국에서 일하던 강상철의 분신 소식을 듣게 된다. 강상철을 살리고 구명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결국 강상철이 죽고 그를 추모하고자

한 영결 예배마저 경찰의 봉쇄로 제대로 치러지지 못하고 끝나자 많이 괴로워했다. 평소 멀리하던 술을 자주 마시면서 죽음도 지키지 못하고 장례도 제대로 치루지 못한 자신의 능력을 탓하면서 ‘미안하다’라는 말을 자주 되뇌었다. 1897년에는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목포지부의 공동의장을 맡아 6월항쟁을 이끌었으며, 6월항쟁이 승리로 끝나고 난 후 공정선거감시단 본부장으로 활동하였다. 6월항쟁의 승리로 인해 정치인들이 해금되었으며, 1987년 7월 9일 김대중 등 공안 및 시국 관련 사범에 대한 대폭적인 특별사면 및 복권조치로 인해 10일 안철도 사면·복권되었다. 민주화된 공간에서 안철은 현실정치에 참여하였으나 1988년, 199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였다. 이후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자연의학에 심취하여 ‘자연의학연구소’를 개설하여 많은 사람들을 치료한다. 한 여성지에서 ‘본지가 발굴한 향토명의’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안철은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금동에서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의학적 체계를 세우는 일에 몰두하던 중에 2003년 6월 20일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여 함평군 나산면 선산에 묻혔다. 2015년 망월동국립묘역(묘지번호8-47)으로 이장하였다.(곽재구)

안향련(安香蓮, 1944~1981)

판소리 명창. 광주시 광산구 송정리에서 태어나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37세의 불꽃같은 인생이었다. 7세 이후로 알려져 있는데 목포국악원 장월중선의 첫 제자가 되어 판소리를 배웠다. 10대에는 아버지 안기선에게 판소리를 배웠다. 10대 후반부터 대략 24세까지 보성에서 정권진, 정응민에게 판소리를 배웠다. 김소희와 연을 맺은 것은 1968년 전국국악경연대회다. 이를 통해서 보면 장월중선/안기선→보성소리(정응민, 정권진)→장영찬→김소희→안향련으로 소리 계보가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제자를 두지 못했기 때문에 안향련의 소리를 잇는 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이후 부산 등지에서 활동하다 서울로 올라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안향련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은 장월중선, 김소희 외 몇 사람의 남성들이 있다. 사이에 아들이 있는 무안의 임씨, 박경식, 판소리 명창 장영찬 그리고 마지막까지 사랑을 나눴던 화가 모씨 등이다. 장영찬에게서 1963~1965년에 소리를 배웠다. 세간에 익히 알려진 안향련의 「심청가」는 장영찬을 통해 배운 소리이면서 보성소리 「심청가」이기도 하고 김소희를 통해서 배운 박동실 바디 「심청가」이기도 하다. 「홍보가」는 김소희의 바디, 즉 만정제 소리다. 1970년~1980년대 온 국악방송을 휩쓸며 국악계의 스타로 군림했다. 1981년 12월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사망하였다. 첫 후원자이기도 했던 임씨가 주검을 모셔와 고향 무안의 임씨 선산에 모셨다. 이후 국악협회 전남지부를 중심으로 국악인들이 뜻을 모아 비석을 세워 지금에 이르고 있다. 안향련에 대해서는 왜곡되거나 미화된 부분이 많다.(이윤선)

유진 벨(Eugene Bell, 1868~1925)

선교사. 한국 이름은 배유지. 미국 캔터키주 스코트에서 태어났다. 센트럴대학교와 루이빌신학대학교를 졸업했다. 1895년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로 조선에 파송되어 목포와 광주 등 전라남도 기독교를 개척했다. 1898년 5월 15일 목포교회(양동교회)를 열고, 1903년 남녀 기독교 학교(영흥, 정명)를 설립했으며, 1904년 12월 광주로 옮겨, 25일 성탄절에 광주교회(금정→광주제일)를 시작했고, 1908년에 광주 남녀 기독교학교(송일, 수피아)를 설립했다. 평양신학교 교수로도 활동하였으며, 1914년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을 맡았다. 1924년 광주 금정교회에서 목회할 때 양림교회를 분립하였으며, 1925년 9월 28일 57세로 사망, 광주 양림동 선교사 묘역에 두 번째 부인 마가렛과 함께 묻혀 있다. 그는 1894년 로티 워더스푼(1867~1901)과 처음 결혼했다. 로티는 미국 명문가 워더스푼가문 출신으로 아버지는 루이빌신학대 총장이었으며, 할아버지는 미국 독립운동을 이끈 존 워더스푼이었다. 로티 벨은 목포교회에서 남편을 도와 주일학교와 여성 사역에 헌신하던 중 1901년 4월 12일 심장병으로 일찍 사망하여 서울 양화진 묘역에 안장되었다. 유진 벨과 로티 사이에는 아들 헨리(1896~?)와 딸 샬롯(인사레, 1899~1974)가 있었다. 첫 부인을 잃고, 1904년 마가렛 휘테커(1873~1919)를 두 번째 아내로 맞아들인다. 그들 사이의 자녀로는 윌리엄 유진(1906~1933), 홀랜드 스코트(1911~1912), 윌리엄 포드(1914~?)가 있었다. 마가렛은 광주 송일, 수피아학교에서 영어와 성경교사로 교육 선교에 주력하다 1919년 3월 26일 서울에 다녀오는 길에 경기도 병점에서 그만 자동차 사고로 숨졌다. 세 번째 부인으로 줄리아(배추니아, 1872~1952)와 1921년 결혼하였다. 그녀는 1872년 미주리주 출신으로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1907년에 조선에 왔다. 전주와 광주에서 독신으로 교육 선교를 하다 49세에 유진 벨(53세)과 결혼,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없다.(김양호)

윤기현(尹基鉉, 1900~?)

노동운동가. 제2차 조선공산당 사건과 관련되어 러시아로 망명하여 모스크바 동방노동자대학을 수료하고 귀국했다. 목포로 들어와 스스로 지게꾼이 되어 노동하며 목포 자유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목포 자유노동조합에서 활동하며 목포 지역 노동자와 청년들을 규합하여 각각 활동 분야를 정하고 목포 지역의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다음, 1932년 8월 지역 노동운동을 조직하기 위한 비밀결사를 만들었다. 윤기현, 김상만, 임종술 등이 지도부를 구성한 이 조직은 목포부청 위생인부들의 동맹파업을 지도, 지원했으며 목포 선하노동조합의 파업도 주도했다. 윤기현은 목포 외에도 보성, 별교는 물론 전남북 일대에 대중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조선공산주의자 열성

자협의회를 조직하려 했으나 목포항 부두 노동자 파업 이후 체포되어 1922년 징역 5년을 언도받았다.(이기훈)

[참고자료 : 김경일, 「일제하 목포지방의 노동운동」, 『전남사회운동사연구』,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1992; 김점숙, 「1930년대 전남지방 조선공산당 재건운동 연구」, 『한국사연구』74, 한국사연구회, 1991.]

윤치호(尹致浩, 1909~1951 실종)

사회사업가. 전남 함평군 대동면 상옥리 옥동마을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부모는 소작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부친의 사망으로 12세에 다섯 식구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정규학교를 다닐 수 없었다. 그러다 옥동교회를 설립한 미국 선교사인 줄리아 마틴 여사와의 만남을 통해 기독교 신앙관을 확립하고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한다. 목포부 호남동 18번지에 나사렛목공소를 차려 선교자금을 충당한다. 하지만 1년 만에 나사렛목공소를 정리하고 1928년 부모 없는 7명의 아이들과 함께 대성동에 ‘함께 산다’는 의미의 공생원을 설립한다. 줄리아 마틴은 그의 신앙을 높이 평가하여 서울피어선고등성경학교(현 평택대) 입학권을 권유한다. 이 당시 그는 종로 YMCA에서 한용운의 강연을 통해 민족의식을 높였고, 특히 선교사와 유대관계가 깊어 일제 경찰의 탄압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1933년 피어선고등성경학교에서 1년 과정을 수료하고, 정식 전도사가 되어 전라남도 최초의 개신교 교회인 목포양동교회의 전도사로 활동한다. 공생원은 1932년 정식으로 인가를 받았으나 용당리에 어렵게 마련한 숙사를 태풍으로 잃고 1937년 4월 3일 유달산 뒤편인 죽교동 473번지 현 공생원 자리로 이전하게 된다. 1951년 6·25전쟁 기간 중 전남도청으로 공생원 아이들에게 필요한 식량지원을 요청하러 광주에 갔다가 행방불명되었다. 그의 좌우명은 ‘사랑이 있는 한 인간의 내일은 걱정이 없다’이다.(최정민)

[참고자료 : 목포지역사회복지시설연합회, 『사회복지, 그 현장의 소리』, 하마출판, 2004, 85~86쪽; 『국민일보』 2017. 02. 24. 「‘거저대장’ 전도사와 총독부 관리 딸 비전 담긴 목포 공생원」.]

윤학자(尹鶴子, 1912~1968)

사회사업가. 일본 시고쿠 고치현 출신. 일본 이름은 다우치 치즈코[田内千鶴子]이다. 1919년 조선 총독부 목포부청 관리인 부친을 따라 여덟 살 때 목포에 온다. 정명여학교에서 음악교사로 재직하다 질환으로 퇴직하고, 정명여학교 선배 교사의 권유로 공생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된다. 공생원에서

설립자인 윤치호를 만나게 되고, 주변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게 된다. 이때 그녀는 남편의 성을 따라 개명하였고, 해방 이후에도 한국에 남아 한국 고아들의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 1951년 공생원의 식량조달을 위해 전남도청으로 간 윤치호가 행방불명되었지만, 그녀는 일본으로 귀국하지 않고 6·25전쟁으로 발생한 전쟁 고아 600여 명의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한다. 1963년 대한민국문 화훈장 국민장과 1965년 제1회 목포시민상을 수상하게 된다. 1967년 일본 황실에서는 그녀에게 남 수포장을 수여하였다. 1968년 56세 나이로 타계하였고, 장례는 목포역 광장에 시민 3만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제1회 시민장으로 치러졌다. 이후 1994년 윤학자의 생애를 조명한 한·일공동영화 「사랑의 묵시록」이 만들어졌고, 1997년 일본 고치현에 그녀의 추모비가 건립되었다. 국경을 초월한 사랑으로 이어 온 공생복지재단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정신보건복지, 일본에 재일동포를 위한 노인 복지 등 다양한 복지를 선도하는 재단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있다.(최정민)

[참고자료 : 목포지역사회복지시설연합회, 『사회복지, 그 현장의 소리』, 하마출판, 2004, 85~86쪽; 『국민일보』 2017. 02. 24. 「『거지대장』 전도사와 총독부 관리 딸 비전 담긴 목포 공생원.」]

이기동(李琪同, 1906~?)

학생운동가, 노동운동가. 추자도 출신으로 중앙고보 4학년 재학 중이던 1927년 동맹 휴교를 주도하고 격문을 살포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졸업 후 목포에서 위탁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다가 해남 출신으로 와세다대학 유학 중에 체포되었다 귀국한 김정수(金正洙), 목포에서 계속 활동 중이던 조점환과 함께 1931년부터 3인 그룹을 결성하여 지하 활동을 시작했다. 전남노동협의회 등 기존 조직이 발각되어 운동 기반이 크게 파괴되었음에 유의하여 전선의 병사와 같은 긴장감을 지니고 생명을 걸고 비밀을 유지할 것 등을 서약했다. 노동자 농민을 혁명적으로 지도할 것을 목적으로 비밀결사를 조직, 8월 하순 명칭을 레닌주의자동맹으로 결정했으며, 1933년 3월 공산주의자동맹으로 개칭했다. 당시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노선에 따라 혁명적 노동조합, 농민조합의 결성, 공산주의자 그룹의 통일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조직부, 선전부, 자금부를 두고 이기동, 김정수, 조점환이 책임자가 되었다. 지식인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을 확대하면서 목포 시내 노동 현황을 조사하고 여기에 근거하여 주요 공장과 직장, 학교 등을 나누어 책임을 맡았다. 노동운동과 반제운동, 연락과 재정을 나누고 이기동이 전체 조직을 총괄하여 운동을 전개했다. 1934년 전남노동협의회 사건의 여파로 조직이 발각되어 체포되었다.(이기훈)

[참고자료 : 김경일, 「일제하 목포지방의 노동운동」, 『전남사회운동사연구』,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1992; 경성종로경찰서, 「京鍾警高秘 제11029호의 2 -중앙고보맹휴생 불온비라 살포자 검거에 관한 건-」, 1927. 11. 20.]

이난영(李蘭影, 1916~1965)

가수. 본명은 옥례(玉禮)로 알려져 있으나 호적에는 옥순(玉順)이라 적혀 있다. 1916년 6월 6일에 목포 양동에서 출생하여 1923년 현 북교초등학교(당시 목포공립여자보통학교)에 입학했다. 1929년 인 4학년 때 학교를 자퇴했는데, 사유는 ‘거주지 이전’이었다. 이때 모친이 있는 제주도로 가서 약 2년 정도 생활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1932년에 태양극장(단)에 입단하여 막간 가수로 무대 활동을 시작했다. 1933년 9월에 태평음반회사에서 「시드는 청춘」과 「지나간 옛 꿈」을 발표했고, 같은 해 10월에 오케음반회사에서 「향수」를 발표했다. 음반회사 사이의 암투 끝에 오케음반회사의 전속 가수로 1943년까지 활동했다. 1935년에 노래한 「목포의 눈물」이 큰 인기를 얻었고 같은 해에 잡지 『삼천리』사에서 주최한 레코드 가수 인기투표에서 여자 가수 부문 3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1936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음악 영화인 「노래 조선」에 출연하는 한편, 일본 테이치쿠음반회사에서 오카 란코(岡蘭子)라는 예명으로 「하루노 칸키[春の歡喜]」(테이치쿠 50287), 「와가래노 후나우타[別れの船歌]」(테이치쿠 50344), 「아리랑노 우타[アリランの唄]」(테이치쿠 50344) 등을 발표했다. 이 노래들은 각각 「봄맞이」, 「목포의 눈물」, 「아리랑」의 일본 음반이다. 이난영은 당시 오케음반에서 가수 겸 작곡자로 활약하던 김해송과 결혼했는데, 호적에는 결혼한 날이 1937년 11월 4일이라 기재되어 있다. 이난영은 1939년에 ‘조선악극단’의 일원으로 일본에서 영화, ‘변덕스런 부인’이란 뜻의 「오모히쓰키 후진[思ひつき夫人]」(조선에서는 「의견 좋은 부인」이란 제목으로 개봉)에 출연해 이화자 등과 함께 「아리랑」등을 불렀다. 일본의 도호[東寶]영화사에서 1939년에 제작한 이 영화에는 ‘조선악극단’의 공연 장면이 들어가 있어 당시 일본 내 조선악극단의 공연 내용과 구성원들을 조금이나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940년경에는 일종의 프로젝트 그룹으로 결성된 ‘저고리시스터’의 일원으로도 활약했다. 오늘날 이른바 ‘결그룹’의 효시로도 볼 수 있는 ‘저고리시스터’에는 이난영을 위시하여 장세정, 이준희, 김능자, 서봉희 등이 참여했고 때때로 홍청자나 박향림 등이 합류하기도 했다. 1941년에는 오케음반회사에서 이난영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한편 기념 공연도 열어 주었다. 그리고 1943년에는 도쿄 영친왕 저택에서 ‘조선악극단’의 단원들과 공연을 했는데, 이때 김정구가 노래한 「낙화삼천」을 듣고 영친왕이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가 전해지기도 한다. 이난영은 1943년에 김해송과 약초가극단으로 이적했고 1944년에는 약초가극단의 일원으로 만주 순회공연을 다녀오기도 했다. 이어서 1945년에는 김해송이 조직한 만타악극대를 거쳐 K.P.K악단에서 주연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1948년에 김해송의 여자 문제에 상심하여 춘천 소양강에서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1950년, 서울 수복 이후에 남편인 김해송이 납북되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해에 어머니 박소아마저 사망했다. 1951년에는 K.P.K악단과 현대가극단 등에 출연하였고, 1952년에는 전옥이 이끌던 백조가극단 공연에 특별 출연하였다. 1953년에는 김해송이 이끌던 K.P.K악단의 후신으로 '이난영 악단'을 창립했다가 1955년에 해산하였다. 이후, 자신의 활동보다는 자녀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주력했다. 이난영은 생전에 12남매를 낳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 7남매가 생존했고 이들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인 김해송에게 음악 교육을 받았다. 이난영은 7남매 중에서 김애자와 김숙자 자매, 그리고 오빠 이봉룡의 딸인 이민자를 '김시스터즈'로 키워냈고, 이들을 미국에 진출시키는 데 성공했다. 김시스터즈는 1958년 12월에 일본 오키나와를 거쳐 1959년 1월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도착해서 공연 활동을 시작했다. 한편 이난영의 아들들은 '김브라더즈'를 결성하기도 했다. 김시스터즈와 김브라더즈를 통해 볼 때, 가수에서 시작한 이난영을 초창기 여성 기획자이자 연출가로서도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녀는 동료가수 고복수의 은퇴 공연이 있던 1957년경부터 동료 가수였던 남인수와 본격적으로 친해져서 1962년에 남인수가 사망할 때까지 그와 함께 생활했다. 1962년에 김시스터즈는 남인수가 사망한 후에 상심에 빠져 있던 어머니를 미국으로 초청했다. 미국에 간 그녀는 김시스터즈와 함께 시카고와 하와이 등에서 공연을 했고, 1963년 6월에는 김시스터즈와 함께 '에드 설리번 쇼(The Ed Sullivan Show)'에 출연하기도 했다. 1963년에 하와이 공연 이후에 그녀는 귀국했다. 1965년에 시공관에서 열린 3·1절 기념 공연에서 「목포의 눈물」을 부른 것이 그녀의 마지막 공연이었다. 1965년 4월 11일 서울 회현동 자택에서 사망했는데, 자살로 추정된다. 그녀의 이야기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1964년에 개봉한 「님은 가시고 노래만 남어」와, 그녀가 타계한 후 1969년에 개봉한 「이 강산 낙화유수」가 대표적이다. 1969년에는 이난영의 팬이자 목포에서 악기점을 운영하던 박주오가 「목포의 눈물」 노래비를 유달산 입구에 건립하였다. 지금까지 이난영은 목포의 가수이자 민족의 가수로 많은 이들이 기억하고 있다. 다만 2016년 현재, 이난영이 광복 이전에 노래한 군국가요 두세 편이 발굴되어 앞으로 이에 대한 정리와 해석, 그리고 평가 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이난영이 광복 이전에 발표한 노래는 200곡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표적인 작품은 다음과 같다. 「불사조」(1933), 「봄맞이」(1934), 「신아리랑」(1934), 「오대강타령」(1934), 「목포의 눈물」(1935), 「봄 아가씨」(1935), 「호이타령」(1935), 「아버지는 어데로」(1936), 「명량한 젊은 날」(1936), 「알아 달라우요」(1936), 「고향은 부른다」(1937), 「아 글썸 어찌면」(1937), 「해조곡」(1937), 「님 전상서」(1938), 「미소의 코스」(1938), 「산호빛 하소연」(1938), 「신접살이 풍경」(1938), 「목포의 추억」(1939), 「달 없는 항로」(1939), 「남행열차」(1939), 「다방의 푸른 꿈」(1939), 「울어라 문풍지」(1940), 「흘겨 본 과거몽」(1940), 「고향」(1941), 「열일곱 낭낭(낭낭제)」(1941), 「진달래 시첩」(1941), 「희망」(1941), 「목포는

항구』(1942), 「목화를 따며」(1942), 「인생가두」(1943).(장유정)

[참고자료 : 장유정, 「행(幸)과 불행(不幸)으로 보는 가수 이난영의 삶과 노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33,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6.]

이남규(李南圭, 1901~1976)

목사, 정치가, 교육자. 1901년 전라남도 무안군에서 태어났다. 한문을 수학하다 광주 숭일학교 보통과, 서울 중등학교 중등과를 다녔으며, 평양신학교 졸업 후 한국기독교장로회 목사가 되었다. 일제 강점기에 백칼리 선교사의 조사로 무안의 지도와 복길교회에서 시무했다. 또한 일제 강점기에 연동교회 초대 목사로 신사참배 거부운동에 참여했으며, 1942년 일제의 목포 시내 모든 교회의 통폐합 지시에 반대하다 투옥되기도 했다. 8·15 광복 후 건국준비위원회 목포지부 위원장,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목포지부 명예회장단·전남지부 총회장 등을 역임했고, 특히 1946년 12월 12일 개원한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에서 민선의원(한독당)으로 활동했으며, 반탁결의안 대표 제안자로 나서기도 했다. 1948년 제헌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한독립촉성국민회 후보로 목포부 선거구에 출마하여 제헌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1948년 10월 관선 전라남도지사에 임명되어 의원직을 사퇴하고, 1년 7개월(1948년 10월 18일~1950년 4월 21일) 동안 초대 전라남도지사로 재임했다. 1950년 4월 21일 제2회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직을 사임하고, 목포시 선거구에 국민회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대한노동총연맹 임기봉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이후 1960년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라남도 참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1962년 목포영흥중고등학교 교장으로 취임하였으며, 한국신학대학, 연세대 이사 등을 지내기도 했다. 또한 기독교장로회 전남노회장을 5회에 걸쳐 역임한 것을 비롯해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한국기독교협의회 회장으로도 활동했다. 1976년 목포 양동에서 별세했다.(김영태)

[참고자료 : 국회의원총람발간위원회, 『대한민국 의정총람』, 199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매방(李梅芳, 1926~2015)

한국전통무용가, 인간문화재. 호는 우봉(宇峰). 본명은 규태(圭泰). 1926년 부친 이경률과 모친 조병림 사이에서 3남 2녀 중 막내로 목포시 대성동에서 출생했다. 1935년 중국 다롄정포소학교를 입

학하고 1939년 목포북교소학교로 전학을 하여 다음 해 1940년 2월 졸업했으며 1943년 목포공업학교를 졸업했다. 어려서부터 목포의 권변에서 진도 조도 출신의 예기(藝妓) 함국향을 통해 춤과 가락을 접하고 1935~1948년 이대조, 박영구, 이창조 등 당대의 예인들로부터 승무, 검무, 살풀이춤 등 전통 무용을 사사받았다. 집안 어른이기도 했던 이대조 문하에서 승무를 배웠는데, 당시 이대조는 유명했던 예인으로 미남인데다 허우대도 좋고, 춤과 소리에 뛰어난 스승이었다. 이후 춤을 배우기 위해 광주 권변, 전주 권변, 목포 권변을 돌아다녔다. 광주 권변에서는 화순 능주 출신의 박영구에게 북을 배우고, 어깨너머로 이창조에게 검무도 배웠다고 한다. ‘매방’이란 이름은, 초등학교 때 스승이었던 중국 경극 배우 매란방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그의 스승 매란방과의 인연은 초등학교 2학년 때, 누나가 살던 중국 만주 다렌의 정포소학교로 전학했을 때였다. 이매방은 매란방의 학원에서 춤을 배웠다. 당시 매란방은 중국 최고의 경극 배우였으며, 그에게서 장검무, 등불을 물지게처럼 어깨에 메고 추는 춤, 평 털을 튕기며 추는 춤 등 다양한 춤의 일면을 접하게 됐다. 5학년 때 이매방은 다시 목포로 이사하고 목포공업학교에 다녔으며, 방학 때는 서울로 올라가 서울조선성악연구회에서 공부했다. 이 때 스승은 한성준이었으며, 안비취, 한산월, 한영숙, 강선영, 강산월 등과 동문수학했다.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보유자로 1987년 지정되었으며,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보유자로 1990년 지정됐다. 한국무용협회고문과 한국국악협회 고문을 지냈으며 용인대학교 무용학과 대우교수로 1996~2000년 역임했다. 1941년 목포에서 열린 ‘명인명창대회’에서 「승무」공연으로 데뷔를 해 권변에서 춤 지도와 공연, 임춘앵 여성국악단 무용지도, 대구에서 군예대 활동, 군산에 무용연구소 개설 활동을 거쳐 1953년 광주에서 문하생들과 첫 발표회를 가졌다. 당시는 6·25 전란기였지만 전쟁에 지친 군인들을 위문하기 위해 군예대를 조직하고 공연활동을 하였으며 이것이 발판이 되어 1955년 ‘이매방 무용발표회’를 광주극장에서 했다. 1957년 ‘이매방 승무발표회’를 부산 대영극장에서, 1959년에는 ‘이매방 무용발표회’ 「원각사」를, 1967년에는 ‘이매방 무용발표회’ 「꽃신 짚신」을 명동 국립극장에서 공연했다. 그 후 1970년대 ‘3·1절 기념 국악대공연 아아! 그 날의 함성!’ 「승무」(왕자극장) 출연부터 1980년 7월 ‘한일친선 무용공연’(일본 아야미 공원), ‘전 일본 총리대신을 위한 축하공연’(청와대 영빈관) 등 33여 차례의 활발한 공연활동을 펼쳤으며, 1981년 4월 ‘이매방 전통무용의 밤’(한국 유네스코) 미국 워싱턴 케네디센터 「승무」 공연과 1983년 7월 이태리, 영국, 스위스, 서독, 네덜란드, 프랑스 등 유럽 6개국 순회공연, 1985년 ‘미국 한국문화센터 개관 기념공연’(미국 LA), 1986년 ‘86 아시안게임 축전 공연’ 참가, 1988년 ‘88 올림픽 문화예술축전’ 참가, 1990년 ‘북경아시안게임 문화예술축전’ 공연 참가(북경) 등 무수히 많은 공연과 활동으로 무용계의 대부다운 활동을 보였다. 1991년 대한민국 국제연합(UN) 가입 기념 미국 LA 슈라인 오디토리엄, 뉴욕 카네기홀 등 공연, 1992년 ‘UN 가입 기념공연’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순회공연, 1994년 6월 ‘이매방 춤 인생 60년 북소리 4’ 공연, 1998년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 한국 주간 참가공연, 29회 ‘중요무형문화재 발표공연’, 2000년 ‘우봉 이매방 춤인생 65년 기념 대공연’ (국립극장 대극장), ‘새천년맞이 무용대공연’(세종문화회관 대극장)등 쉼 없는 공연과 제자 양성, 활동 등이 계속되었다. 2001년 8월 ‘명인명창 대제전 살풀이춤 출연’(운현궁), 9월 ‘중요무형문화재 우봉 이매방 전통무용 대공연 2001’(목포문화예술회관), 2002년 ‘한국천년의 소리’(일본 교토), ‘이매방 지성자의 세계’(일본 동경 스파이라루홀), 2004년 ‘점 하나로 여는 새해 「승무」’(국립국악원 예약당), 2005년 ‘우봉 이매방춤 전수관 개관 기념공연’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 2008년 ‘우봉 이매방선생과 함께하는 목포아리랑’(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 2010년 12월 ‘외길인생 우봉 이매방 전통춤 대공연’(국립국악원 예약당) 외 많은 국내 공연과 국외에서의 무수한 공연 활동이 가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무용가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이매방은 현대화의 시류 속에서도 전통춤을 지키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던 인물이다. 그의 춤은 거칠고, 굵으며 우격다짐 같은 육담과 패설을 담아 삶의 매듭을 풀어왔다. 그의 승무는 힘이 있고, 선이 굵어 시원스럽다는 평을 받는다. 삼현승무·보현승무, 살풀이, 검무, 산조 등 다양한 방면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주요 상훈으로는 1977년 부산시 놀원문화상, 1981년 예술대상(한국전총무도예술협회), 1984년 육관문화훈장(대통령), 1992년 예술문화대상(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장), 1995년 성옥문화상, 1998년 프랑스 예술문화훈장, 2001년 제1회 세종국악대상, 2002년 무용대상(한국무용협회), 2004년 임방울국악상, 2008년 한민족 문화예술대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2015년 은관문화훈장을 수여받았다.(이숙진)

이방호(李方浩, 1914~1993)

사회사업가. 목포 출생.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성장한 그는 농업과 축산업에 종사하면서, 1945년 8월 목포산정교회를 설립하고, 1950년 4월 25일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포산정교회 장로를 임직하였다. 1950~1960년대에는 춘궁기(보릿고개)에 사재를 털어 지역민의 식량, 치료비를 지원하던 중 1961년 11월 25일 기독교적 사랑과 봉사정신에 기반하여 노인, 고아, 장애인, 부랑인 등을 위해 애증원을 설립한다. 애증원이 위치한 목포시 연산동은 당시 섬이었던 관계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이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자신의 집으로 시설을 이주하고 시설을 확장하기까지 10여 년간 수용자와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였다. 1963~1978년에 새마을지도자로서 축산과 영농을 통해 지역민의 소득 증대에 노력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영농과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애중어린이집(현 셋별유아원)을 설립하고, 무료로 지역 주민들의 아이들을 보육하였다. 그리고 신영마을 청년회와 4H를 조직하여, 청소년들이 자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원조했다. 이러한 헌신적인 활동

이 인정되어 1972년 목포시민의 상을 수상하고 국무총리, 보사부장관, 전남도지사, 목포시장 등의 표창을 받았다.(최정민)

[참고자료 : 목포지역사회복지시설연합회, 『사회복지, 그 현장의 소리』, 하마출판, 2004.]

이복주(李福柱, 1919~1997)

사회사업가, 교육자. 목포시 북교동 24번지에서 출생하였다. 1933년 목포북교초등학교 졸업 후 1936년 목포상업전수학교를 거쳐 일본 오사가 약제학교와 일본대학교 상학부를 졸업(1943년), 1948년 덕인학원을 설립하였다. 1954년 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았고, 1964년 다시 학교법인 덕인학원으로 변경하였다. 3대 이사장(1970.6.25~1988.11.18)과 덕인학원 산하 목포덕인중·고등학교, 목포혜인여자중·고등학교의 초대 교장을 지냈다. 1962년 목포시 초대 시의원을 지냈고, 육아사업 재단법인 성덕원을 설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66년 목포 순성교회 초대 장로를 시작으로 목포 YMCA 회장에 8선하였고 목포시 변영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이러한 공로로 1969년 목포시민의 상과 1982년 사학육성공로장 봉황상, 국민훈장 동백장 등을 수상하였다. 1997년 11월 5일 별세 후 선영에 안장되었다.(권효)

이생연(李生淵, 1938~2005)

시인, 향토사가. 전남 무안군 현경면 마산리에서 출생했다. 1950년 현경북초등학교, 1953년 목포중학교, 1956년 목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66년 무안군 지방공무원에 공채 임용돼 1998년 목포 시청 지역경제국장을 마지막으로 명예퇴직했다. 1991년 『문학세계』 신인상으로 문단에 등단하였고, 한국문인협회 회원, 흑조시인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그가 활동했던 흑조시인회에서 1982년 발간한 『흑조(黑潮)』 제8집 육필 시지에는 특집으로 이생연 근작 시초가 실렸는데, 여기에 실린 9편의 시 가운데 하나인 「청호(靑湖)의 아침」은 시작 노트에서 그가 밝힌 대로 처음으로 써 본 일종의 서사시이며, 그의 향토애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이 시는 1890년대 개항 이전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목포 사회의 변화상을 담담히 그려내고 있는데, 관해동, 산정, 쌍거리, 샘거리, 비녀산 등 목포의 정겨운 지명이 등장하고 있다. 향토에 대한 이러한 관심과 애정이 나중에 그를 향토사가가 되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또한 향토사 연구의 1세대로, 광주·전남사료조사연구회 감사,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목포문화원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서울대 규장각과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목포

관련 자료들을 발굴해 목포에 소개하여 향토사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하였다. 실제로 그는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1987년 11월 11일 초판 발행된 『목포시사(木浦市史) -인문편-』의 감수(監修)로 이름을 올렸고, 제2편 역사 중 제3장 「고지도로 본 목포」를 직접 집필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등장하는 목포관련 고지도는 20여 장에 이르는데, 향토사 연구에 대한 열정과 집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1990년 12월 28일 발행된 『목포시사 -사회·산업편-』의 편집을 담당하였는데, 스스로를 ‘향토사 연구인’이라 하였다. 1997년 12월 20일 발행된 『목포시사 Ⅲ(1980~1994)』에서는 ‘향토사가’란 직함으로 감수·장정·편집·교정을 맡았고, 역사편의 ‘목포의 땅이름’, ‘목포문화원사’를 집필하였다. 특히 당시 동별로 정리한 ‘목포의 땅이름’은 목포문화원이 2003년 발간한 『목포의 땅이름』의 토대가 되었다. 그는 또한 중앙과 지방에서 발간된 잡지의 창간호를 수집했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저서로는 공저로 흑조시인회 동인시지 24권, 『목포시사』 1, 2, 3차분, 보정편 외 여러 권이 있으며, 2회의 도지사상, 4회의 장관상을 수상하였다.(조상현)

이승모(李承模, 생몰년 미상)

사진작가.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6·25전쟁으로 인한 사회 혼란기에도 증명사진을 비롯한 인상 사진은 늘 존재해 왔다. 사진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명함판 사진으로 각인돼 있을 때 소형 카메라 한 대 들고 다니면서 자유로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람들은 멋쟁이로 평가 받던 시대에 이승모는 목포에서 사진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규합해서 1953년 4월 5일 ‘목포사진예술 연구회(현 한국사진작가협회 목포지부)’를 만들고 초대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당시는 사회적으로 사진예술이라는 단어조차 익숙하지 않았을 때인데 1954년 7월 5~7일 ‘이승모 사진전’이라는 최초의 개인전을 열었다. 목포에서는 최초의 개인전이란 점에서 큰 관심을 받았으며 목포사진예술연구회의 회원전을 개최했을 때도 지역의 사진계는 물론 문화계에 큰 방향을 일으켰다. 이승모는 당시 토건업을 하면서 유달산 노적봉 뒤 한옥에서 살았으나 1957년 이리(현 익산시)로 옮겼다. 이리철도청 광성회(현 흥익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리사우회(현 익산사진협회)를 창립해서 사진 보급에 힘썼으며 여러 차례 개인전을 열어 익산 지역의 사진예술 분야에 이정표를 제시하였다.(박종길)

이영원(李永院, 1919~2011)

사진작가. 신안군 안좌 출신으로 고창고등보통학교를 나왔다. 당시 고창고보는 목포공립상업학교(현 목상고등학교)와 함께 호남의 명문으로 알려졌다. 일제 강점기 일본에서 미술전문학교를 다녔다

고는 하지만 학교 이름은 알 수 없으며, 1946년 목포시 측후동 2번지(일제 강점기 흥간지 절터) 적산 가옥을 불하받아 일본에서 미술공부를 한 사람들의 모임인 ‘목포미술원’을 창립하였다. 일본에서 미술공부를 하면서 익혔다는 사진술에 심취해 해방 이후 사진 활동을 많이 했다. 사진 활동을 하는 한편 무안동 오거리 부근에 모던사진관을 개업하고 후에 예식장까지 겸하며 영업을 했다. 1953년 창립한 목포사진예술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1955년 10월 23~25일 미네르바다방에서 최초의 개인전을 열었고, 1956년과 1958년, 1959년 잇따라 개인전을 열었다. 특히 네 번째 개인전은 1959년 11월 20~27일 길다방에서 열렸는데 전시가 끝나는 날 목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사진 등 문화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영원 사진작품에 대한 합평회(合評會)를 열었다. 합평회는 서로 다른 분야의 작가들이 모여 이영원의 작품 시각에 대해 객관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었다. 자기 분야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작품을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앉아 의견을 나누는 가장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다방가에서 많은 화제가 되었다. 작품은 사회 저변의 생활과 환경을 표현한 사진이 많았는데 전시 도중 경찰서에 불려갔다는 뒷이야기가 있다. 밝고 행복한 면을 표현하지 않고 판자촌이나 어두운 생활면이 표현된 작품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듯 추궁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일 때문에 작가의 자유적 표현이 아닌 위정자들의 입맛에 맞게 촬영을 해야 하는지 오랫동안 성토되었다고 전해진다. 그 뒤 광주로 이주를 했고 사진작품 활동에 대한 소문도 없었지만, 초창기 목포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사진예술이 어두웠던 당시의 상황 속에서 열정적으로 창의적인 활동을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다.(박종길)

이인형(李麟炯, 1914~1934)

학생운동가, 노동운동가. 담양 출신으로 1929년 목포상업학교 3학년 재학 중에 독서회에 참여했다. 1929년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11월 9일 독서회의 대표로 5학년 최창호와 함께 진상 파악을 위해 광주로 파견되었다. 사태를 파악하고 장재성과 면담을 마친 후 학교로 돌아와 독서회원을 소집, 목포상업학교의 모든 한국인 학생을 규합하여 구속 학생 석방 등을 요구하는 동조 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이인형은 「이천만 피압박 민중 제군이여」 등 세 종류의 격문을 기초했고 독서회 학생들은 약 1,500매를 인쇄했다. 11월 19일 이인형은 등교한 학생들에게 오후 12시 30분부터 광주학생운동 검거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였고, 1~4학년 학생 50여 명이 정명여학교 앞에 집결했다. 이인형은 박종식, 임춘성, 박상준 등과 함께 대열 선두에서 “피감금 학생 즉시 탈환, 총독부 폭압통치 절대 반대, 피착취 민중은 일제히 시위운동을 하자, 피압박 민중 해방 만세,

무산계급 단결 만세.” 등 구호를 적은 큰 붉은 깃발들을 선두에 내세우고 각자 붉은 깃발을 흔들고 노래를 부르며 목포역까지 행진하며 격문을 배포했다. 1930년 만기 출옥한 이후 부산으로 가서 노동운동에 종사했다. 1931년 박귀선, 강갑영과 함께 부산에서 혁명적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적색노동조합 전국협의회, 부산최고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했다. 「노동자」라는 제목의 격문을 인쇄하여 배포하다 발각, 체포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이기훈)

[참고자료 : 김성민, 『1929년 광주학생운동』, 역사공간, 2015; 광주지방법원, 「이인형 등 판결문」, 1930(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JA0001987); 대구복심법원, 「박귀선 등 판결문」, 1932(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JA0000844); 『동아일보』 1931. 11. 15.]

이훈동(李勳東, 1917~2010)

기업가. 조선내화와 『전남일보』 명예회장. 전남 해남군 황산면 외입리에서 이영률과 이백임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1932년 16세에 일본 전기공업이 운영하던 해남군 황산면 성산의 쇼와광업소 견습사원으로 특채됐다. 이는 나중에 이훈동이 내화물 사업가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1946년 성산광산을 불하받은 그는 노화도의 광산까지 인수해 납석과 고령토, 점토 등을 조선내화화학공업주식회사에 납품하였다. 그러던 중 회사측의 권유에 따라 상무로 경영에 참여하였고, 1953년 조선내화를 인수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조선내화의 전신은 1938년 일본인 사토가 설립한 조선내화공업주식회사로, 1947년 손용기 등이 미군정청으로부터 불하받아 새 이름으로 출발한 회사였다. 이훈동은 조선내화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포항 1, 2공장을 준공한 데 이어 1986년 광양공장을 세워 국내 제철산업 발전에 이바지했다. 또한 조선내화 중국 합자회사를 세워 국내외에 19개 공장을 둔 세계적인 내화물 전문기업으로 성장시켰다. 1967년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취임한 후 21년간 7선을 역임하며 대불공단 조성, 목포공항 유치, 유달산 공원화 추진 등 갖가지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 앞장섰다. 1978년에는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과 인재육성을 위해 목포 최초의 법인 문화재단인 ‘성옥문화재단’을 설립해 성옥문화상과 성옥장학금을 시상하고 있다. 1987년에는 차남인 이정일(제16·17대 국회의원)과 함께 『전남일보』사를 설립했다. 2003년에는 이훈동의 88세 미수를 기리기 위해 자녀들이 ‘성옥기념관’을 지어 그가 평생 모은 개인 소장품을 전시하고 있다. 유달동 4-2번지에 위치한 성옥기념관은 안쪽의 ‘이훈동 정원’과 함께 목포의 대표적인 관광코스가 되었다. 기업가로서 언론과 교육·문화 사업에도 앞장섰던 그는 은탑산업훈장(1982)과 국민훈장 모란장(1984)에 이어 2008년 제22회 인촌상 특별상을 수상하였다.(정기영)

임광행(林廣幸, 1919~2002)

기업가. 전라남도 무안 출생. 양조산업에 투신하여 호남에 기반을 둔 보해양조(주) 대표이사 회장에 올랐으며, 주류업계 1세대로 소주와 매취순 등을 생산하였다. 1935년 목포의 잡화도매점인 야마모토 상사의 견습사원으로 입사, 24세 때 독립, 목포시 대안동 15번지에 10여 평 규모로 ‘광림상회’를 창립하였다. 광림상회는 자신의 성과 이름 첫 글자를 뒤집어 작명한 것이다. 이 광림상회는 각종 건어물, 소금, 김 등을 취급했다. 임광행은 일본인들이 김을 즐겨 먹는 것에 착안하여 품질 좋은 김만을 취급하였다. 광복 후 1950년 청주와 탁주를 생산하는 양조장을 인수하여 ‘광림주조장’이라고 명명했는데 현재 보해양조의 전신이다. 1956년 4월 광림주조장을 법인체로 변경하였다. 법인 설립 자본금은 1200만 원으로 목포시 대안동 15번지에 공장 대지 4,628.12㎡, 건평 3,169.93㎡의 건물을 갖추었다. 1955년 9월 삼화양조 주식회사, 12월 보화양조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1956년 12월 31일 보화양조는 상호를 보해양조 주식회사로 변경했다. 1967년 연간 순 매출액 7억 6천만 원의 실적을 거두어 국내 주류업계 3대 메이커의 위치를 확보하였으나 1968년 3월 부도가 났고 법정 관리에 들어간다. 1976년 12월 정리 계획에 의거 모든 채무를 상환함에 따라 은행관리에서 벗어나 경영 정상화를 이루었다. 그리고 1978년 3월 연간 7,500ℓ 생산 규모의 매실주 공장을 설립했고 원료의 적기 공급으로 창립 30주년인 1982년 매실주 ‘매취(梅翠)’를 생산, 판매했다.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남지부 부의장, 목포대 기성회장 등을 역임했다.(정기영)

임기봉(林基奉, 1905~1982)

목사, 정치가, 사회운동가. 1905년 전라남도 해남에서 태어났다. 목포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신문사에 재직하다 일본인과의 차별 대우에 저항, 노동운동을 하다 일본으로 도피했다. 일본에서는 칸사이학원(關西學院)과 도시사대학(同志社大學)에서 신학을 수학하였다. 기독교 사회주의자인 카가와 도요히코[賀川豊彦]로부터 세례를 받고 전도인으로 활동했다. 귀국 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평양 영유읍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로 해남으로 낙향하였다. 해방 후 목포에서 교회 재건운동을 펼쳤으며, 1946년 제주도 성내교회 위임 목사로 활동하다가, 1949년 목포 산정리교회의 초빙을 받고 목포로 왔다. 목포에서는 목회활동을 하면서 해상 선원과 부두 노동자들을 조직하여 대한노동총연맹 목포지부를 결성하고 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대한노동총연맹 목포해상위원장, 대

한노총중앙본부 부위원장, 자유당 목포시당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1950년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노동총연맹 후보로 출마하여 목포 제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제2대 국회에서 1953년 「노동조합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쟁의조정법」, 「근로기준법」 등 대한민국 최초의 노동관계법을 공동 발의했으며, 조선방직쟁의 때 전진한 당시 사회부 장관 등과 함께 대한노동총연맹 조방쟁의대책위원회에 합류하여 이승만 권력에 대항하기도 하였다. 1954년 목포에서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민주국민당의 정중섭 후보에게 패해 낙선했다. 이후 1956년 창당한 진보당 중앙당 노동부장과 전남도당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또한 1960년 창당준비위원으로 사회대중당 창당에 참여했고, 사회대중당 공천으로 1960년 목포 5대 국회의원(민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목포공생원, 목포덕인중학교, 노동병원 등을 설립하였으며, 『노동신문』도 창간하였다. 1982년 9월 26일 서울 자택에서 별세했다.(김영태)

[참고자료 : 국회의원총람발간위원회, 『대한민국 의정총람』, 1994; 임송자,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보수적 기원』, 선인, 200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기독교대백과사전』.]

임종기(林鍾基, 1926~2007)

정치가. 1926년 전라남도 무안군에서 태어났다. 목포제일보통학교를 다닌 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동기동창으로 목포상업고등학교(현 목상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일본으로 유학하려 했으나 형편상 이를 접고 1943년 만주 여순고등학교 유학을 위해 만주에 머물다 낙방하여 목포로 귀향했다. 해방 직후 경성경제전문학교(서울대 상대)에 입학하여 1950년 5월 졸업하였다. 부산에서 제4회 행정과에 1차 합격하여 도청국장과 국회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1971년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라남도 무안군 선거구에 신민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1973년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된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신안군 선거구에 신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1978년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 후보로 재출마하여 재선에 성공했다. 낙선 당시 최고 하루 1천 장, 매달 3~4천 장의 엽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1981년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에 민주한국당 후보로 출마하여 3선 의원이 되었으며, 1982년 민주한국당 원내총무로 임명되었다.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4선에 성공한 직후, 민주한국당을 탈당하여 신한민주당에 입당했다. 그러나 1986년 신한민주당의 '계파 정치'와 '당내 독재'를 비난하며 창립된 당내 신보수회의 고문을 맡았으며, 신보수회 회장 유한열 의원 등과 탈당하여 민중민주당을 창당하고 고문으로 추대되었다. 1987년 민중민주당이 신한민주당에 흡수 통합되어 신한민주당으로 당적이 바뀌었다. 신한민주당에서 정무위원으로 활동

했으며, 1987년에는 민정당과 당대당 개헌 협상을 위한 4인 정치회담에 신한민주당 측 협상 대표로 참여하기도 했다. 1988년 3월 21일 신한민주당을 탈당하여 평화민주당에 입당하였으나, 1988년 제 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평화민주당 공천에 탈락하자 정계를 떠났다. 서울고미술경매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회장을 맡았으며, 1995년 12월 고미술 연구 및 감정 기구인 사단법인 동산문화재진흥원의 창립 멤버로 참여, 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임종기는 이철승 의원의 숙부인 제헌국회의원 이석주의 사위(부인 이경숙)로, 2007년 11월 2일 지병으로 별세했다.(김영태)

[참고자료 : 『매일경제』 1991. 02. 03.; 『매일경제』 1995. 12. 01.; 『동아일보』 1983. 07. 22.; 『동아일보』 1987. 08. 04.; 『동아일보』 1990. 12. 28.; 『동아일보』 2007. 11. 03.]

장덕(張德, 1910~1976)

초명은 장운봉(張雲峰)이고 해방 후에 장덕으로 개명하였다. 매화와 비파를 좋아하던 동양화가로 1920년대 후반 이당 김은호의 화숙인 낙청헌(洛淸軒)에서 그림을 배웠다. 1935년 낙청헌 제자들이 조직한 후소회의 창립회원으로 활동하였다. 1936년 태평로 조선실업구락부에서 열린 제1회 후소회전을 시작으로 1941년까지 참여하였다. 제9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야포(野圃)」로 입선하였는데, 김용준은 1930년 『중외일보(中外日報)』에 쓴 「제9회 미전과 조선화단」에서 “예민한 감각을 가진 필치다. 바위돌을 실패하지 않았던들 훌륭한 작품이 될 걸 그랬다.”라고 평하였다. 이후 일본에 유학하여 귀국한 후 1936년 선전에 「교외만추(郊外晩秋)」로 입선하였다. 한편 1931년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휘문고보 강당에서 열린 제11회 서화협회전에서 「어린 양」으로 특선을 차지했다. 1930년대 후반 전남 목포로 이주하였다. 해방 후에는 호분을 쓰는 공필 채색화를 버리고 수묵을 사용한 화훼나 기명절지, 화조화를 주로 그렸다. 1957년에 백양회 창립회원으로 활동하였으며, 1962년 5월 23일에 동화백화점 내에 있는 동화화랑(東和畫廊)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1966년 1월부터 1968년 12월까지 제2대 목포예총 지부장을 역임하였다. 1960년에 전남문화상을 수상하였고, 1972년에 목포시민의상을 수상하였다. 다목동 차재석은 동양화가 취당 장덕편에서 “취당 선생은 음풍영월(吟風詠月)의 동양화가라기보다 모던한 양화가의 인상을 주지만 실상은 음풍을 그리는 동양화가다. 맑고 차디찬 열굴에 무엇인지 울분이 흐르는 듯한 눈을 가진 달콤한 고독보다는 가을 하늘의 고독을 지킨다.”라고 기술했다. 남농과 쌍벽을 이룰 정도였지만 목포예총 초대 회장 남농의 명성과 위세에 가려 목포에서는 늘 2인자 위치에 머물러야 했다. 1976년 4월 21일 타계하였는데 향년 67세였다.(김병고)

[참고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장운봉(張雲峰)」]

장병준(張炳俊, 1893~1972)

민족운동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의원, 정치인. 아나키스트이며 제헌국회의원인 장홍엽의 형이다. 장산도에서 태어나 보성전문학교를 거쳐 니혼대학 법학과를 다니다 1917년 고향으로 돌아왔다. 1919년 3월 18일 장산도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했으며 상경하여 국민대표회의 조직과 한성정부 결성 과정에 참여했다. 상하이로 망명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전라도 대표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이후 국내와 만주, 상하이 등지를 오가며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지하 조직의 결성과 연락을 담당하여 1919년 여름에는 서울에서 이동욱, 박기영 등과 함께 대한국민회를 조직했고, 1920년 서울과 대전, 대구, 마산, 목포에서 3·1운동 1주년 기념 투쟁을 시도했다. 장병준은 표성천, 서태석 등을 통해 목포에서 태극기를 게양하고 전단을 살포하도록 했다. 이후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1922년까지 수감되었다. 1927년 6월 신간회 목포지회가 결성되자 조사부 총 간사로 참여했으며, 목포지회의 내분을 수습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1928년 목포지회 총무 간사가 되었으며 1929년에는 신간회 북대표대회에 목포구 대표로 참가했다. 1930년 신간회 목포지회 집행위원이 되었다. 해방 이후 한민당 광주지부장과 전라남도당 위원장을 맡았으며 반탁운동에도 참여했다. 이승만 정권하에서 1959년 민주당 전라남도당 위원장에 선임되었고 1960년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를 이끌었으며 4월혁명 이후 참의원 선거에 나섰으나 낙선했다. 1972년 사망하자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렀다.(이기훈)

[참고자료 : 안종철·김준·정장우·최정기, 『근현대의 형성과 지역사회운동』, 새길, 1995; 이기훈, 「장병준의 생애와 민족운동」, 『도서문화』42,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 2013.]

장월중선(張月重先, 1925~1998)

국악인, 판소리 명창. 본명이 장순애다. 전남 곡성군 오곡면 묘천리 출생이다. 전통 예인 집안 출신으로 판소리, 가야금, 가야금병창, 거문고, 아쟁, 전통무 등에 두루 뛰어난 만능 예인이었다. 조부 장석중은 판소리 명창이자 거문고 명인으로 순릉참봉의 직첩을 받았고, 부친 장도순은 이름난 소리꾼으로 경성구파배우조합의 일원이었다. 큰아버지 장판개는 어전에서 소리하여 혜릉참봉의 직첩을 받은 동편제 명창이고, 고모 장수향도 기악과 무용의 명인이었다. 이러한 예인의 피를 물려받은 장월중선은 일찍부터 재능을 발휘하여 일제 강점기부터 임방울 협률사를 비롯하여 국극사, 조선창극단 등

창극단체와 여성국극협회, 임춘앵과 그 일행 등 여성국극단체에서 배우로 출연하는 한편 여러 작품을 작곡하고 안무를 맡아 예술적 기량을 발휘했다.

장월중선은 24세 때 단체생활을 청산하고 시택이 있는 목포로 내려왔다. 목포에서 한갑득에게 1개월간 거문고 산조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까지 배웠다. 한갑득과 조선창극단에서 같이 수행했다. 이때 약 1년여쯤 산조를 재수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또 경기도 화성 출신 이동안(李東安, 1906~1995)을 목포로 모셔왔다. 「진쇠춤», 「승전무», 「심불로», 「한량무», 「태평무», 「신칼대신무」 등 여러 가지 춤을 여기서 배웠다. 이동안은 장월중선이 신숙과 함께 자신에게 잡가를 배우기도 했다고 말한다. 장월중선이 광주와 전국 유랑에서 돌아와 목포에 정착하게 된 것은 남편 정우성이 목포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52년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된다. 슬하에 정순임(1942~)과 정경호, 정경옥을 둔 처지라 살림이 막막했던 장월중선은 그간의 명성을 살려 국악 강습을 해보고자 찾아간 곳이 산정동 노인당이었다. 이때가 1952년이다. 노인당 방 한 칸을 빌려 그간 연마해 왔던 다방면의 국악을 가르치게 된다. 장월중선의 첫 제자가 당시 7세였던 안향련이었다. 이후 진도의 신영희, 오비연, 안애란, 오지오, 박계향, 박소연, 백인영 등 많은 제자들에게 판소리, 무용, 가야금, 아쟁, 연극, 농악 등을 가르쳤다. 정순임은 장월중선의 딸로 목포가 낳은 소리꾼이지만 목포에서의 활동이 없어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명절에는 제자들과 목포양조장이나 옥천양조장 등을 돌며 걸립 농악을 했다. 여기서 쌀과 돈을 얻어와 악기와 의상을 마련했다. 손수 재단과 바느질을 하여 제자들에게 의상을 만들어 주기도 했다. 창극 「춘향전」 등을 목포 평화극장 무대에 올렸다. 목포국악원을 4~5년 운영하다가 노인당으로부터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목포 시내 다른 장소에 유달국악원(목포시립국악원의 전신)을 세웠다. 장월중선은 1952년부터 1962년까지 10여 년 목포 생활을 했다. 이후 목포를 떠나 광주, 곡성, 전주 등지를 돌아 대구, 최종적으로 경주에 자리를 잡고 제자 양성과 국악 공연에 헌신하였다.(이윤선)

장종기(張宗基, 1924~2010)

사진작가. 전라북도 장수 출신으로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으며 잠시 광주시청에 재직했다. 목포에서 사진관을 경영하고 있었던 친구를 만나 그 친구의 사진관에서 사진관 일을 도와주다가 결국 그 사진관(연우사진관)을 인수한 후 동보사로 상호를 바꾸어 사진 영업을 하였다. 1961년 목포사진예술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는데 목포사진예술연구회가 사단법인 한국사진협회 목포지부로 바뀐 후 부지부장직을 맡아 열심히 활동하였다. 1963년부터 1986년까지 회원전에 출품을 했는데 1970년대 말 서울로 이주한 후에도 목포지부에 소속을 두면서 회원전에 출품했다. 1972년부터 1974년까

지 사진협회 목포지부장을 수행하면서 유달산, 홍도 전국사진촬영대회를 종래의 사진촬영대회가 아닌 1박 2일의 대규모로 개최했다. 해군함정까지 동원된 대 행사로 대한민국 건국 이래 해군함정으로 촬영대회를 한 예는 없었던 일로 그 능력을 인정받아 후에 1988년부터 1998년까지 10년간 한국 사진작가협회 본부 부이사장직을 맡아 많은 활동을 했다. 1986년 11월 15~20일에 사진작가의 모태가 된 목포에서 초대전을 개최하여 이 고장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었으며 전국의 수많은 공모전 등에 심사를 다니며 사진예술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우리: 강산과 황산(黃山)의 영(影)'이라는 작품전을 위해 여러 차례 중국에 갔는데 심장쇼크로 인한 위험한 고비를 넘기며 촬영을 완성하기도 했다.(박종길)

전태홍(全泰洪, 1937~2005)

기업가, 제35대 목포시장. 1937년 2월 20일 전남 영암군 서호면 장천리에서 부 전규성, 모 최귀물의 5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슬하에 1남 4녀로 아들 전훈 장로는 치과병원을 운영한다. 그의 초등학교 시절은 부친의 선박사업과 정미소 운영으로 부유한 환경이었지만 문태중학교 2학년 때 6·25 전쟁으로 재산몰수와 부친을 잃는 불행으로 어려운 소년시절을 시작했다. 그의 성장기 롤모델이었던 숙부 전규택은 14세의 어린 나이에 전태홍의 할아버지를 따라 도일하여 일본 컨트리클럽 이사장에 오른 일본 굴지의 대기업가로 성공한 일본 경제계의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전태홍은 『전남매일신문』 기자로 일하던 1961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자 광주 YMCA에서 민족자주통일연맹 통일 선언문을 낭독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광주교도소에 수감, 조선대 학장을 역임한 오지호 화백과 같은 방에서 시국에 대한 많은 대화를 나눴다. 광주교도소 내에서도 급식 상태가 형편없어 급식 개선을 요구하는 단식투쟁으로 급식 형편을 개선하게 하는 등 교도소 내의 부조리 척결에 목소리를 높이다 오지호 화백과 함께 서대문구치소로 이감된다. 출감 후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완도, 진도 등으로 스테인레스 식기, 방한복 등을 판매하는 행상을 시작으로 가마니 수집 판매상, 염업상 등을 통해 겸손, 정직, 신뢰로 사업영역을 넓혔다. 그러다가 한국운수주식회사(대한통운) 목포연안하급소 소장으로 부임하면서 면화, 쌀, 소금, 제주 밀감 등 물류 운송사업을 확장시켰고 남경자동차운전학원, 남경자동차경매장, 남경기아판매점, 남경예식장 등을 운영하게 된다. 지역사회 운동가로서의 역할도 돋보인다. 법무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목포지역협의회 초대 회장이던 1999년 『중앙일보』 시행 범죄예방봉사상 본상을 수상, 상금 전액을 협의회 내의 장학금으로 기탁하는 등 청소년 선도활동, 부정부패 추방운동, 봉사정신으로의 재무장 운동에 앞장섰다. 1979년 운곡장학회를 설립, 어려운 학생들에게 많은 장학금을 지원하여 후학 양성에 힘썼다. 전남화물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전남도정 자문위원 6년,

자동차운전학원을 경영하면서 전국학원연합회 초대 회장·부회장 역임, 목포개발위원회(위원장 최향춘) 부회장 12년, 목포체육회 부회장 2회, 목포YMCA 이사장, 제17대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할머니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아 신앙생활을 중단했던 그는 목포YMCA 이사장을 역임한 성산교회 하대희 장로의 권면으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여 김해동 목사가 시무하는 중앙교회에 정착, 1984년 장로임직을 받았다. 본격적인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신행합일(信行合一)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목포 극동방송 설립에 앞장서는 등 지역 복음 전파를 위해 앞장섰고 아내 김정자 권사와 공동으로 집필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여는 기도』 등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예찬했다. 1995년 제1대 목포연합장로회 회장, 1997년 기독교장로회 전남장로회 회장을 역임했다. 추운 겨울이면 거택 보호자들에게 연탄과 성경책 전달, 수재민 위로, 여름 복날이면 남경문화회관에 양로원 노인들을 초청하여 위로와 접대를 아끼지 않은 정성은 신앙심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었다. 200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목포 시민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 민선 3기 제35대 목포시장에 취임하여 ‘희망과 번영의 큰 목포 건설’이라는 시정목표로 시정을 펼쳤다. 시장 재임 시의 주요 업적으로는 해수풀장과 한옥숙박시설을 갖춘 ‘외달도 사랑의 섬’ 개발, 목포국제축구센터 유치, 노적봉예술공원 조성, 부주산 체육공원 조성, 호남선 폐선부지의 도로 녹지공간화, 중앙식료시장·동명어시장·동부시장 환경개선사업, 목포대교 건설 가시화, 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 목포농수산물유통센터 개장, 자연사박물관·시민문화체육센터·무형문화재전수관 완공,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반찬 줄이기·자기 그릇 사용하기 운동 전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동, 대성지구 등 18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등이다. 2005년 1월 12일 아침 과로로 순직, 수많은 조문객들이 참석하여 목포시장(木浦市葬)으로 영결식을 치렀다. 국민훈장 황조근정훈장 추서.(박병욱)

[참고자료 : 전태홍, 『내가 변하면 세상도 변한다』, 은혜기획, 2000.; 전태홍 가족 구술; 네이버 인물검색(<http://people.search.naver.com/>).]

정병조(鄭炳朝, 1879~1970)

사업가. 일제 강점기 목포부협의회 의원, 목포학교평의회원, 목포양주, 목포제빙냉장 주식회사 취체역(이사), 동양물산 사주 등을 역임했다. 1929년 발간된 『전남사정지』에 따르면 본적은 경성부 중학동 107번지이고, 당시 거주지는 호남정 12번지였다. 원래 부산에서 생활하다 목포가 개항되자 18세의 나이에 일거리를 찾아 이주해 왔다. 주로 간척사업을 통해 많은 재산을 증식하였다. 그 과정에서 숭한 일화를 남겨 목포의 기인(奇人) 중의 한명으로 회자되고 있다. “자기 이름을 새긴 말목을 세

워 목포 유달산을 일본인에게 팔아먹었다.”, “조선총독부에 금 명함을 뿌리며 마음대로 출입하였다.” 등 여러 가지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정병조는 유달산에 올라 목포의 광활한 갯벌 지역을 막아서 간척을 하면 많은 땅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당시에 모리다상점 점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주인에게 간척사업 아이디어를 말하고 투자금을 얻어 처음 간척사업에 손을 대었다. 그 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간척사업을 도와줄 인맥과 자금줄을 찾아 나섰다. 이때 정병조는 나주 공삼면의 농민들을 악용하였다. 나주 공삼면 농민들은 잃어버린 농토를 되찾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었는데, 정병조가 이 사건을 자신이 해결해 주겠다고 나섰다. 나주 농민들은 정병조의 감언이설에 속아 일본으로 가는 여비를 지원해 주었으나 그는 사건의 해결보다는 일본의 고위층을 만나 인맥을 쌓는 데 활용했다. 이때 이토 히로부미의 수양딸인 배정자를 만나 의남매를 맺었고, 이후 배정자를 자기 사업의 뒷배경으로 최대한 활용하였다. 정병조는 하의도의 농지를 일본인에게 팔아먹은 경력도 가지고 있다. 하의도 농민들은 300여 년에 걸쳐서 농지 탈환운동을 전개해 왔고, 구한말에 겨우 그 문제가 해결 될 조짐이 보였는데 정병조에 의해서 그 토지가 일본인의 손에 넘어가 버렸다. 1949년 3월 20일자 『호남신문』에는 정병조가 하의도 땅을 일본인들에게 팔아먹었던 내용이 톱기사로 실려 있다. 정병조는 일본 기업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목포에서 대규모 간척사업을 전개했다. 연동과 뒷개쪽에 제방을 쌓아 약 80만 평의 토지를 조성했다. 1930년대 중반에는 이른바 ‘정병조 사기사건’으로 목포가 떠들썩했다. 정병조는 사문서 위조, 「조선공유수면령」 위반, 횡령 등 복잡한 죄목으로 기소되어 목포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처음에 5년 형이 내려졌다가 나중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백 원을 언도받았다. 증인만 300명에 이르렀던 희대의 대사기 사건이었다. 광복 후 정병조는 반민특위에 체포된 기록이 있다. 이 때 죄목은 목포에 주소를 둔 부호로 친일 사기 혐의였다. 반면 지역유지로서의 활동 내력도 남아 있다. 목포 지역의 학교 설립 운동, 피병원 설립 등에 기부자로 참여하였고, 고아원인 공생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광복 이후에는 자신의 땅과 재산을 교육사업에 투자하였다. 신익희가 국민대학을 설립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정병조는 1970년 2월 17일 9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현 산정동 중앙하이츠 인근에 정병조가 살았던 석조 2층으로 된 근대식 건축물이 남아 있고, 정원의 한쪽 모서리에는 「거산(巨山) 처사(處士) 정병조 씨(鄭柄朝氏)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라고 새겨진 비가 세워져 있다.(최성환)

[참고자료 : 경인문화사, 『전남사정지』, 2000; 『전남매일신문』 ‘목포 정병조’연재기사; 『동아일보』 1949. 03. 11.

「정병조 등 체포」]

정인영(鄭仁永, 1920~2006)

기업가. 한라그룹 명예회장. 본관은 하동, 1920년 강원도 통천군 송전면 아산마을에서 6남 2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현대그룹 명예회장인 정주영이 형이다. 정인영은 1977년 현대그룹에서 독립한 뒤 인천조선, 한라시멘트(주), 한라자원(주) 등을 설립하여 한라그룹의 기틀을 닦고 1988년 한라그룹 회장에 올랐다. 한라그룹은 1990년 계열사인 인천조선의 이름을 한라중공업으로 바꾸고, 1992년 한라중공업의 본사를 인천에서 전남 영암군 삼호읍으로 옮겼다. 1996년 한라중공업 삼호조선소에서는 첫 호선 2척을 건조하였다. 그러나 1997년 한라그룹이 최종 부도 처리되면서 한라중공업도 부도가 났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라중공업은 현대중공업이 위탁경영하였고, 1999년 한라중공업을 삼호중공업으로 상호 변경한 후 2002년 현대중공업 그룹사로 인수하였다. 이듬해인 2003년 삼호중공업은 회사 이름을 현대삼호중공업으로 바꿨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삼호읍 일대 330만m²(약 100만 평)의 부지에 세계 4위의 선박 생산능력을 보유한 조선 전문기업으로 목포 지역 경제에 커다란 비중을 점하고 있다. 정인영은 1997년 1월 명예회장으로 물러난 뒤 한라그룹이 부도를 내고 해체되자 재기를 도모하였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2006년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 경기도 양평 선영에 묻혔다.(정기영)

[참고자료 : 네이버 기관단체사전(현대삼호중공업); 두산백과(정인영); 현대삼호중공업 홈페이지]

정재현(鄭宰賢, 1906~1998)

사회사업가. 경상북도 낙동군 낙동면 낙동리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부친을 일찍 여의고 형 정도현의 도움으로 보성전문학교 법과를 졸업하였다. 당시 민족사상이 팽배해 있을 때였고, 적성에 맞질 않았지만, 형의 요청으로 보성전문학교를 졸업하자 경찰관이 되었다. 그는 목포경찰서 경부로 부임하면서 당시 부랑인에게 숙식을 제공하였다. 특히 결혼이 부랑인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 이들의 결혼을 주선하였다. 이후 형이 사망하자 그날로 경찰관을 사직하고, 본격적인 자선 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자선활동으로 인해 일제는 그의 사상을 의심하게 되고 정신이상자라는 소문까지 돌기도 했다. 특히 목포 사람들은 그를 ‘거지대장’이라 하였고, ‘각설이 타령’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그는 부랑인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후원회를 조직하였고 법조인, 기업인 등의 독지가를 찾아 모금한 돈으로 구례도(九禮島, 당시 목포 관할 섬, 약 2만 평)를 매입하고, 사재로 이웃한 섬 용출도(龍出島, 약 3만 평)를 매입하였다. 매입한 섬에서 구도재생원을 건립하였다. 이곳에서 임

야 개간, 벽돌 공장, 염전을 건설하여 부랑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원조하였다.(최정민)

[참고자료 : 목포지역사회복지시설연합회, 『사회복지, 그 현장의 소리』, 하마출판, 2004.]

조극환(趙克煥, 1887~1966)

청년운동가, 노동운동가. 전남 영암 출신으로 한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1908년부터 영암보통학교에서 교사생활을 했다. 호남학회 회원으로 계몽활동을 벌였으며 1919년에는 영암 지역의 만세운동을 주도하여 구속되었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921년 출옥한 이후 영암청년회, 영암노동야학회 등 영암 지역의 청년운동을 주도했으며 이 무렵 송내호가 주도한 항일결사 수의위친계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1924년 목포로 이주할 즈음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하고 청년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목포청년회에 가입했고 목포무산청년회를 창립하여 집행위원이 되었고, 전남청년대회 준비위원이 되었다. 1925년 1월 무목청년연맹을 결성하고 중앙집행위원이 되었고, 8월 목포청년회의 사회주의적 방향전환을 주도했다. 서병인 등과 함께 사상단체 전위동맹을 결성하고 지역 노동운동을 적극적으로 지도, 후원했다. 무목노동연맹, 자유노동조합, 목포노동총동맹의 집행위원, 대표 등으로 활약했으며 무안농민연맹의 집행위원이기도 했다. 목포항운노조의 결성과 1926년 1월 목포제유노조 파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제3차 조선공산당이 결성되자 1927년 7월 가입하여 목포 지역 조직의 책임자가 되었다. 1927년 6월 신간회 목포지회가 결성되자 상무간사를 맡았으나 김영식, 서병인 등과 회원 자격을 놓고 대립하여, 목포 사회운동 전체에 심각한 갈등을 일으켰다. 1928년 목포노동연맹 집행위원이 되었으나 조선공산당 사건이 발각되어 구속되었고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932년 출옥한 이후 1934~1937년에 동아일보 진도지국을 운영했으며 이후 영암군 군서면으로 이주했다. 해방이 되자 건국준비위원회 영암지부를 조직,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건준이 인민위원회로 개편되자 영암인민위원장을 맡았다. 미군이 진주하자 충돌하여 1946년 1월 조극환을 비롯한 인민위원회 간부들이 모두 구속되어 약 1년간 수감생활을 한 후 출옥했다. 이후 은거하다 1960년 4월혁명 이후 혁신운동에 참여하여 11월 사회대중당 전남도당과 1961년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전남 지부 결성에 관여했다.(이기훈)

[참고자료 : 강만길·성대경 엮음,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1996; 김경일, 「일제하 목포지방의 노동운동」, 『전남사회운동사연구』,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1992; 안종철·김준·정장우·최정기, 『근현대의 형성과 지역사회운동』, 새길, 1995.]

조미미(曹美美, 1947~2012)

가수. 본명이 조미자(曹美子)인 조미미는 1947년 1월 17일에 전라남도 목포에서 출생하였고, 전라남도 영광에서 잠시 유년기를 보냈다고 한다. 그녀는 1964년에 『동아일보』에서 주최한 제1회 '전국 남녀가요콩쿠르대회'에서 1등하여 가수의 길로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공식 데뷔곡은 1965년에 발표한 「떠나온 목포항」으로 알려져 있다. 1969년 발표한 「여자의 꿈」이 인기를 얻었는데, 이후에 「바다가 육지라면」, 「선생님」, 「먼 데서 오신 손님」 등이 대중의 호응을 받았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활발한 활동을 했는데, 당시에 그녀는 '민요 가수' 내지는 '뽕짝조의 가수'로 동시에 불렸다. 주로 오아시스레코드의 전속으로 있으면서 많은 음반을 냈다. 1967년에는 작곡자 손목인을 단장으로 하여 신카나리아, 오정심, 양석천 등과 함께 파월장병 위문공연을 했다. 파월장병 위문공연에 동행했던 오정심은 그녀가 수줍음이 많은 순진한 여성이었다고 말했다. 1970년에 조미미는 일본에 진출하여 1970년 2월 15일부터 약 두 달 동안 그곳에서 교포 위문공연 등을 하고 돌아왔다. 1971년에 조미미는 나훈아, 남진, 이상열, 김상진, 최희준, 이미자, 김상희, 하춘하, 펄시스터즈와 함께 MBC 10대 가수에 올랐고, 1972년에는 김상희, 문주란, 정훈희, 하춘화 등과 더불어 MBC 10대 가수상 여자 부문에 선정되었다. 그녀는 1973년에 재일동포 실업가와 결혼하여 서울에 살면서 가수 활동을 하지 않다가 1974년 6월 16일에 딸을 낳았다. 그해에 그녀는 「진부령아가씨」와 「생각나는 사랑」을 대표곡으로 한 독집 음반을 발표했다. 『매일경제』 1974년 11월 15일자에는 그녀의 신보에 대해, “통기타 부대에 식상한 사람들에게 들려 줄 전형적인 가요로 알맞은 시기에 생산되었다는 점과, 첫 딸을 얻은 후 더욱 기교와 목소리가 좋아진 조미미의 신곡이라고 해서 벌써부터 히트가 예상된다.”라고 소개했다. 조용필이 노래한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1977년에 다시 불러 본인의 인기를 새삼 확인한 그녀는 1978년에 「참사랑」을 발표하고 활동을 재개했다. 『동아일보』 1978년 12월 16일자에 의하면, 3대 음반 제작사가 올해 가장 많이 팔린 음반 2개씩을 선정했는데, 조미미가 부른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산울림의 「아니 벌써」, 전영의 「서울 야곡」, 김미성의 「먼 훗날」, 정종숙의 「달구지」, 산울림의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와 더불어 가장 많이 팔린 음반에 올랐다. 1979년에는 오랫동안 전속으로 있던 오아시스레코드를 떠나 박춘석과 함께 작업하여 기존의 히트곡과 「떠나가지 말아요」와 「여객선」 등의 새 곡을 합쳐 12곡이 담긴 독집 음반을 발표하기도 했다. 1985년에 조미미는 트로트인 「타인의 정」을 비롯해서 「한산섬」, 「사랑과 추억」 등의 새 노래와 기존에 유행했던 「실버들」, 「앵두」, 「오동잎」 등을 함께 실은 새 앨범을 발표했다. 그리고 1986년에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담은 「임진각에서」를 발표했다. 이미자, 하춘화 등과 더불어 1960년대와 1970년대 트로트의 계보를 이어갔던 조미미는 애수 어린 음색으로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었다는 평을 받았다. 그녀는 2012년 9월 9일 서

울시 구로구 오류동의 자택에서 간암으로 별세하였는데, 당시에 유족으로는 두 딸인 안애경과 안애리가 있었다. 현재 경주 나정해수욕장에 「바다가 육지라면」의 노래비가, 서산 왕산포구에는 「서산 갯마을」 노래비가, 제주도 서귀포시에는 「서귀포를 아시나요」의 노래비가 세워져 있다. 아울러 그의 막내 동생인 조미정도 1986년 작사에 참여한 노래 「거울 속의 소녀」와 「사랑했던 당신」 등이 수록된 음반으로 데뷔하였다. 이어서 1990년에는 신봉승 극본, 최인현 감독의 영화 「친구야 친구야」에 출연하기도 했다. 전영록이 주연과 음악을 맡은 이 영화에서 극중 무명가수로 등장한 조미정은 영화 주제가인 「바람인줄 알았지」와 「사랑의 단풍」 등을 직접 부르기도 했다. 한편 얼마 전에는 배우 김수현의 이복동생인 가수 김주나가 조미미의 조카라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조미미의 대표곡으로는 「떠나온 목포항」, 「여자의 꿈」, 「바다가 육지라면」, 「서귀포를 아시나요」, 「동창생」, 「이별의 김포공항」, 「남해바다 내 고향」, 「선생님」, 「먼 데서 온 손님」, 「약혼녀」, 「임진각에서」 등을 들 수 있다.(장유정)

조점환(趙點煥·趙占煥·趙松熙, 1907~1940)

노동운동가. 목포 출신으로 1928년 목포상업학교를 졸업하고 니혼대학 경제과에 입학했으나 중퇴하고 목포로 돌아와 1929년 10월부터 목포상업학교 독서회를 지도했다. 1929년 11월 목포상업학교 독서회가 광주학생운동 동조 시위를 일으킨 이후 조점환도 체포되어 「치안유지법」으로 기소되었다. 절망한 어머니가 1930년 3월 우물에 투신자살했다. 출옥한 이후 목포청년동맹, 목포노련 등에서 활동했으며, 1931년 김정수가 목포로 이주하자 김정수, 이기동과 함께 사회주의운동 방향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1932년 노동자, 농민을 혁명적으로 지도할 사회주의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레닌주의자 동맹'(이후 '공산주의자 동맹'으로 개칭)이라 했다. 조점환은 자금부의 책임을 맡아 1932년 10월 경성에서 양복점과 칠기상을 경영하며 조직의 자금을 조달했다. 공산주의자동맹은 1934년에는 자금조달 중심의 운동을 청산하고 직접 노동자, 농민의 투쟁을 조직하는 직접적 실천운동을 추진하기로 결의했으나, 곧 조직이 발각되어 대규모 구속사태가 벌어졌다. 조점환은 1934년 검거를 피해 간도로 도주, 간판업을 하다 1935년 8월 체포되어 징역형을 언도받았다.(이기훈)

[참고자료 : 김경일, 「일제하 목포지방의 노동운동」, 『전남사회운동사연구』,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1992; 『동아일보』 1930. 03. 04.; 『동아일보』 1930. 03. 10.; 『동아일보』 1931. 09. 17.; 『동아일보』 1932. 09. 25.]

조효석(趙孝錫, 1922~1998)

언론인. 1922년 7월 29일 목포시 죽동 44번지에서 아버지 조규진(趙圭珍), 어머니 유광매(柳光妹)의 8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본관은 옥천이고 자는 효훈(孝勳), 아호는 일관(一觀)이다. 8세 되던 1929년 4월에 목포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가 1935년 3월 같은 학교 제26회로 졸업하였다. 그는 6년 동안을 우등생으로 학업 성적이 뛰어났으나 집안이 어려워 더 이상의 진학은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독학으로 실력을 쌓아 변호사 예비시험과 고등고시 예비고시(제3회)합격,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연수 과정을 수료한 바 있다. 일제 강점기 말에는 목포부청 촉탁 직원으로 채용되어 지금의 민방위 분야에서 종사한 적도 있었다. 1946년 광주 소재 동광신문사 기자로 언론계에 진출하였고 1948년 여순사건 당시에는 호남지구 전투사령부 종군기자로 활약했으며, 1950년 6·25전쟁 기간 중에는 부산으로 피난, 국방부 정훈국에서 선무공작대 전남담당 정보부장을, 그리고 9·28 수복 후에는 『전남일보』와 『호남일보』에서 편집부장과 주필을 각각 역임 한 후 1957년에 『목포일보』 주필 겸 편집국장으로 추대되어 11년 만에 환향하였다. 그 뒤 목포신문사의 부사장 겸 주필과 전남언론인협회 부회장을 역임하다 4·19 혁명이 일어나자 특별검찰부 전라남도 반민주행위자조사위원으로 피선되어 3·15 부정선거 관여자 색출 기소에 나섰다. 5·16 군사정변이 일어난 후 군부는 그를 전남북지구 제엄사령부 상임고문으로 추대하면서 협조를 부탁했었다. 그러나 인권 옹호 측면에서 일할 것을 선약하고 응낙했었기 때문에 남에게 원망 사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1973년 5월 31일 『목포일보』의 자진 폐간과 더불어 현역 언론계에서 물러났으나 『전남일보』 상임 논설 고문으로 추대되어 타계하던 날까지 예리한 필봉을 멈추지 않는 등 목포가 낳은 영원한 기자로 불리고 있다. 그의 저서로는 1992년 7월 6일 고회기념으로 펴낸 『서석대(瑞石臺)』가 유일하게 남아 있다. 30여 년간 언론생활 중 중요 기사와 논설 그리고 라디오 드라마 내용 등 목포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장용기)

조희관(曹喜灌, 1905~1958)

수필가. 1905년 전남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172번지에서 태어났다. 호는 소청(少靑)이다. 1920년 경성의 배재고보(현 배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희전문학교(현 연세대학교) 2년을 중퇴하였으며, 1927년 중국 북경호스돈대학교에 유학하였다. 1935년 귀향하여 유치원 원장과 동아일보 영광지국장으로 일하면서 교육과 언론에 관심을 기울였다. 1946년 목포상업학교 교감으로 부임하면서 근거지를 목포로 옮긴 후 목포항도여자중학교 교장, 조선대학교 강사 등을 역임했다. 1958년 53세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목포로 이주하면서부터 수필을 쓰기 시작한 조희관은 등단 과정 없

이 문학에 입문한 자족적인 향토 문인의 전형이었다. 살아생전 『철없는 사람』, 『다도해의 달』, 『새날이 올 때』 같은 수필집을 출간했다. 그의 수필의 특징은 한글과 순우리말로 이루어진 유려한 문장에 있다. 영광에서부터 각별한 문우였던 박화성에 따르면 그는 ‘주옥같은 문장을 누에가 비단실 토해내듯이 뽑아내던 뛰어난 수필가’였다. 김지하는 자서전 『모로 누운 돌부처』에서 “우리의 토박이말과 미묘한 전라도 사투리의 매력을 처음 깨달은 것도 조희관 선생의 그 무렵의 수필집 ‘철없는 사람’에서였다.”고 술회하고 있다. 그러나 문학적으로 널리 인정을 받지 못했고, 가난으로 인해 일찍 유명을 달리했다는 점에서 그는 ‘불행한 문학인’으로 기억되고 있다. 또한 조희관은 한글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지닌 교육가였다. 그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향도여중 교장으로 전임하면서 빛을 발휘했다. 부임과 동시에 한자로 된 학교 간판을 한글로 고치고 “한 송이 들꽃을 보라 / 남을 시새워 하지 아니하고 / 힘껏 제 빛을 나타내나니.”라는 교훈을 손수 지어 걸은 일은 아직도 목포 지역 교육계에서 일화로 회자되고 있다. 목포여고, 목포유달중, 목포해양고등학교(현 목포해양대학교) 등의 교가를 한글로 작성했으며, 학생들에게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특이함을 일상용어에서 찾아내고 어원을 밝혀 나가는 작업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리고 「부용산 오리길」을 작사한 박기동과 작곡한 안성현 같은 유능한 예술인을 길러내는 데도 힘썼다. 이렇듯 조희관은 유능한 수필가요, 교육가였지만, 그보다 더 훌륭한 점은 그가 전후 황폐한 목포의 예술 문화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산파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6·25 직후에 향도여중 교장직을 그만 둔 그는 차재석과 함께 향도출판사 사장을 맡아 당시 목포의 출판문화를 주도했고, 문예지 『전우』, 『갈매기』 등의 주간을 맡아 목포 문인들의 다양한 작품 활동을 지원하였다. 이렇듯 당시 향도출판사는 목포문화의 산실과 같은 구실을 한 바, 대부분의 목포 출신 문학도들이 이곳을 드나들며 예술적 자양분을 얻었다. 1956년에는 미네르바다방에서 박화성의 소설집 『고개를 넘으면』의 출판기념회를 주선하기도 했다. 전라남도문화상과 제1회 목포시 문화상을 수상했으며, 1983년 작고한 조희관을 기리는 ‘소청문학상’이 제정됐다. 그러나 1994년 제12회 시상을 끝으로 중단됐다. 2009년 목포예총에서 세운 추모비가 목포문학관 앞에 있다.(김선태)

[참고자료 : 김병고, 『목포예술인의 빛과 그림자』, 뉴스투데이, 2008; 최성환의 해양문화연구실 사이트(<http://historycontents.net/>) 「서해안인물열전 31-남도의 숨은 별 조희관-」.]

차남수(車南守, 1903~1990)

의사. 우리나라 외과 전문의 면허 제1호이다. 무안군 삼향면 용포리에서 차성술(車成述)의 4남 5녀 중 3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가족들은 개항 이후 상업도시로 성장한 목포로 거주지를 옮겼다. 목포공

립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일본에 건너가 도쿄에 있는 게이카중학교에 진학했다. 이때 도쿄의 호남 출신으로 구성된 호남다화회(湖南茶話會)에 참여하면서 민족문제에 관심을 보였다. 이후 야마구치현에 있는 야마구치고등학교를 다니며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다. 큐슈제국대학 의학부에 진학하였으며, 1930년에 졸업하여 의사가 되었다. 큐슈제국대학 의학부에 근무하다가 귀국하여 대구의학전문학교에 교수로 근무하면서 부속병원에 무료 병실을 개설하였고, 의료 사각지대인 제주도에 도립제주의원이 개설되자 제주도로 일터를 옮겨 1936~1937년 근무하였다. 1938년에는 경북 안동에 있던 도립안동의원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국립소록도병원, 국립부산재활원 등에서 일하다 1941년 목포시 대안동 12번지에서 ‘차남수외과의원’을 차리고 고향 목포에서 의료활동을 전개하였다. 광복 후 목포에 있던 일본 의료기관이 모두 문을 닫게 되어 의사로서의 임무는 더욱 중요해졌다. 목포중, 문태중, 목포여중, 정명여중 등 여러 학교의 교의(校醫)로 봉사활동을 하였다. 1947년 8월 19일자 『중앙신문』에 ‘축 해방(祝解放)’ 광고를 게재한 기록도 남아 있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던 차남수는 병원을 돈을 버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고, 자신이 가진 의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곳으로 여겼다. ‘의술은 인술이어야 한다’는 신념 아래 환자들을 정성으로 치료해 준 존경받는 의사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 유학 시절 결혼한 부인 김사라와 함께 신앙 전파에도 힘을 쏟았다. 광복이 된 후 1945년 남부교회를 설립했다. 이후 목포제일교회 장로로 활동했으며, 1955년에는 목포복음교회를 설립하였다. 정부로부터 1957년 목포해항검역소장, 1961년 국립재활원장으로 임명된 신문기사가 남아 있다. 지역에서 목포시의사회장, 적십자사 전남상임위원, 전라남도교육위원 등을 맡아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였으며, 1990년 8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손으로 고별인사 편지를 남겼다. 그의 편지 마지막에는 “본인의 간절하고도 마지막 기도와 소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고향 목포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실 것을 바라는 마음이요, 또 한 가지는 의사님들이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꼭 지켜 주시라는 간곡한 소망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목포를 사랑하는 마음과 의사로서의 신념을 엿볼 수 있다.(최정환)

[참고자료 : 목포문화원, 『마파지』(목포향토지 10), 1994, 249~250쪽;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직원록』;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한국근현대인물자료; 「차남수 장로의 고별사」; 『동아일보』 1930. 03. 26. 「금년 졸업하는 일본 유학생」; 『한국장로신문』 2011. 07. 30. 「목포복음교회를 창립했던 차남수 장로」.]

차남진(車南鎭, 1893~1970)

기업가. 전라남도 무안 출생. 1917년 일본 메이지대 법과를 졸업했다. 1919년 해동물산 주식회사 감사를 시작으로 1920년 목포소비조합 발기인, 설립위원 그리고 목포청년회 총무를 지냈다. 특히 김상섭이 경영했던 회사들의 취체역과 호남은행 이사를 거쳤으며 1941년부터 해방될 때까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역임했다. 구체적 이력은 목포창고금융 감사(1922~1931), 호남은행 이사 및 감사(1920~1939), 동아고무공업 이사(1935), 목포양주 사장과 전무이사(1929~1942), 전남신탁 이사(1929~1931), 전남백화점 이사(1933), 목포곡자(麴子, 누룩)합동주식회사 이사(1933~1941), 동아약업 이사(1937~1942), 호남제탄 사장과 호남정미 사장(1938~1941), 목포해운 이사(1940~1942) 등을 역임했다. 1926년 7월 28일과 8월 27일 조선총독부로부터 무안군 일대 간석지 개간을 허가받는 특혜를 얻기도 했으며, 목포부회 의원, 전라남도회 의원, 목포상공회의소 부회두 등을 역임했다. 외과의사 차남수의 큰형이자 극작가 차범석의 부친이기도 하다.(정기영)

차범석(車凡錫, 1924~2006)

극작가, 연출가. 1924년 목포시 북교동 184번지에서 차남진의 3남 3녀 중 둘째아들로 태어났다. 광주고등보통학교와 광주서중학교를 거쳐 1944년 광주사범학교를 졸업했다. 1945년 목포북교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6월 일본군에 소집당해 복무 중 해방을 맞았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목포로 피난하여 5년간 목포중학교 교사로 근무했다. 1966년 연희전문학교(현 연세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했으며, 2006년 천수(82세)를 누린 후 타계했다. 195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밀주」가 가작, 195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귀향」이 당선되어 극작가로 등단한 차범석은 2003년 「옥단어」에 이르기까지 70여 편의 희곡 작품을 발표한 다산 작가로 유명하다. 20대에는 6·25전쟁을 겪은 전후문학 세대로서 사회현실에 대한 풍자와 비판의식이 강한 작품을 주로 발표했다. 특히 전쟁의 상처로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인간상을 그린 「불모지」(1957)와 이념의 허구성과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사실적으로 그려낸 「산불」(1962)은 6·25의 비극을 부각시키고 반전의식을 일깨운 전후문학의 대표작으로 평가된다. 대표 희곡집으로 『껍질이 깨지는 아픔 없이는』(1961), 『대리인』(1969), 『환상여행』(1975), 『학이여 사랑일레라』(1982), 『식민지의 아침』(1991), 『통곡의 땅』(2000), 『옥단어』 등과 연극 이론서 『동시대의 연극인식』(1987)이 있다. 이밖에 수필집 『거부하는 몸짓으로 사랑했노라』(1984), 『예술가의 삶』(1993), 『목포행 완행열차의 추억』(1994)과 자서전 『떠도는 산하』(1998)가 있다. 이들 중 『학이여 사랑일레라』와 『옥단어』는 목포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특히 『옥단어』는 일제 강점기 말에서 해방 정국에 이르는 시기에 목포의 4대 명물 중 하나였던 ‘옥단’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급박한 근대사를 살아갔던 민초들의 애환을 소개한 그의 마지막 작품이다. 차범석은 극작가로서의 작품 활동 외에도 1956년 김경옥·최창봉·오사랑 등과 ‘제작극회’를 창단해 소극장 운동을 주도했으며, MBC 창립에 참여해 방송극 창작에도 관여했다. 1963년에는 김유성·임희재 등과 극단 ‘산하’를 창단하고 대표(1963~1983)로 활동함으로써 한국의 현대극을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다. 또 1951년 처녀작 「별은 밤마다」를 비롯하여 「사형인」(1956), 「말팔랑이 길들이기」(1964), 「세일즈맨의 죽음」(1975), 「도미부인」(1984), 「고려애사」(1990) 등의 공연을 맡아 연출가로도 활동했다. 1983년 「옛날 옛적 휘이 휘이」의 작업을 끝으로 그는 20여 년간 리얼리즘 중심의 창작극과 다양한 번역극을 소개하며 중견 극단으로 성장한 ‘산하’의 막을 스스로 내리기로 결정해 당시 연극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했다. 전후작가로 분류되는 극작가이면서도 전쟁이라는 주제에 고착하지 않고 철저한 사실주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제를 통해 현대적 서민 심리를 추구한 작품을 써 온 차범석은 이해랑·유치진의 뒤를 잇는 한국 사실주의 연극을 완성한 대표적인 작가이자 연출가로 평가된다. 또한 김우진의 대를 이어 목포의 근대극을 활짝 꽃피운 문인이기도 하다. 차범석은 1981년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1984년 청주대학교 예술대학장, 1989년 서울예술전문대학 극작과 교수로 활동했고, 1998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2002년 대한민국예술원장 등을 역임했다. 대한민국문화예술상(1970), 성육연구비(1980), 대한민국연극제회극상(1981), 대한민국예술원상(1982), 동랑연극상(1984), 대한민국문학상(1991), 이해랑연극상(1993), 금호예술상(1996), 서울시문화상(1998), 한림문학상(1998), 삼성문학상(2000) 등을 수상했다. 2007년 ‘차범석 희곡상’이 제정되었으며, 현재 목포문학관에 ‘차범석관’이 들어서 있다.(김선태)

[참고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다음백과(<http://100.daum.net/>);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 조인스 인물정보(<http://people.join.com/>)]

차재석(車載錫, 1925~1983)

수필가. 1926년 목포시 북교동 184번지에서 차남진의 셋째아들로 태어났다. 호는 다목동(茶木童)이며 극작가 차범석의 동생이다. 어린 시절부터 앓은 관절염 증세로 일정한 직업 없이 평생토록 불편한 삶을 살았던 그는 1983년 57세라는 이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차재석은 「삼학도 가는 길」, 「악인의 매력」 등을 쓴 수필가이지만, 문학 창작보다는 평생을 목포의 문화예술을 소개하고, 귀찮은 일을 도맡아 하며, 문학인들을 지원하는 후원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목포의 예술인들은 그를

서슴없이 ‘목포예총의 터줏대감’으로 부른다. 그의 삶은 ‘예향 목포의 산파’였던 선배 수필가 조희관과 겹친다. 그만큼 두 사람은 명콤비였다. 소설가 백두성은 ‘소청 조희관 선생과 다목동 차재석 선생이 서로 만났기에 더욱 목포 문학예술에 빛을 남기게 된 것’이라고 술회하였다. 그는 6·25 직후 서울에서 귀향하여 향도출판사를 차리고, 조희관을 사장으로 모시면서 자신은 편집장을 맡았다. 목포 여중 앞에 있었던 향도출판사는 시설은 비록 허름하였지만 목포 문학예술의 산실이였다. 목포의 모든 문예지와 단행본을 도맡아 출판했다. 당시 대부분의 문학 지망생들이 이곳을 거쳐 나갔다. 월간지 『갈매기』, 주간지 『전우』 등을 통해 목포 문인들의 다양한 작품 활동을 지원하고 문예 활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1956년 어려운 살림살이를 쪼개 서정주, 이동주 등과 함께 시 전문 문예지 『시정신』 창간을 주도한 것은 차재석의 가장 빛나는 업적으로 평가된다. 수화 김환기의 표지화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화려한 필진의 글을 실어 전후 황폐화된 이 땅의 시문학을 꽃피우는 데 크게 공헌한 이 문예지는 1964년 5집을 끝으로 폐간됐다가 1986년 서정주에 의해 잠깐 복간되기도 했으나 곧 사라졌다. 1958년에 남농 허건 등과 함께 목포문화협회(현 목포예총) 창립을 주도했으며, 1960년 『목포문학』(현 목포문인협회 기관지) 창간을 발간·주도했고, 1969년 제3대 한국예총 목포지부장을 역임했다. 한편, 차재석은 문학 창작보다 외적 활동에 주력했지만, 종종 ‘예총 무용론’을 후배 문인들에게 펴며 “진정한 예술가라면 언젠가는 협회에 소속됨이 없이 홀로 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달산 유선각 앞에 시비와 예술의 거리 언덕에 목포예총이 세운 문학비가 있다.(김선태)

[참고자료 : 김병고, 『목포예술인의 빛과 그림자』, 뉴스투데이, 2008.]

천귀례(千貴禮, 1903~?)

여성운동가, 근우회 집행위원. 전남 해남군 출신으로 정명여학교 재학 중이던 1921년 11월 13일 기숙사에서 학생들과 함께 종이와 대나무로 태극기 수십 장을 제작하여 학생 10여 명과 함께 14일 수업이 끝난 후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남교동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학교에 남아 있던 학생들이 합류하여 행진하다 11명이 구속되었다. 재판 과정을 보도한 신문 기사에 의하면 천귀례는 재판정에서 만세 시위를 통해 1921년 개최 중이던 태평양회의(워싱턴 군축회의)에 독립을 청원하고자 했으며, 실력을 양성하면 독립은 자연히 될 줄 믿는다고 당당히 밝혔다.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학교를 졸업하고 암태사립학교(일제 기록에는 암태보통학교라고 되어 있으나 암태공립보통학교가 아닌 암태사립학교일 것이다.) 교사로 근무하며 사회운동에 참여했다. 1924년 무안청년회가 주관하는 여자 야학의 강사로 활동했다. 1925년 10월 전남 완도부인회에

서 ‘여자 해방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으며, 1927년 11월 근우회 목포지회 설립준비위원으로 선출되었고, 1927년 12월 3일 창립 총회에서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1928년 1월 목포사회운동 분규의 조사위원이 되었으며 신간회와 연합위원회 대표위원이 되었다.(이기훈)

[참고자료 : 윤선자, 「호남 지역 근우회의 설립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2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2004; 『매일신보』1922. 03. 02.; 『시대일보』 1924. 11. 19.; 『동아일보』 1925. 10. 22.]

천독근(千篤根, 1905~1959)

기업가. 전라남도 무안 출생. 일본 도쿄공대를 졸업하고 1934년 목포직물회사를 창업한 목포의 대표적인 기업인이었다. 유학 시기에는 신간회 동경지회 재정부 간부를 역임, 1930년 졸업 후 귀국한다. 1930년대 만주사변 이후 이른바 만주 특수 경기와 함께 전국에서 우후죽순 격으로 일어나던 방직공업에 발맞추어 1934년 목포직물회사를 창업한다. 당시 천철호, 천길호 등과 함께 창업한다. 연동에 자리잡은 이 회사의 공장은 해방 이후 남한에서 5대 견직 공장의 대열에 들어 있었다. 부지 2,800평으로 건물이 독특하며 당시 최신의 직조기를 설치하였다. 노동자는 80명, 직기는 80대, 생산 능력은 하루 2천 마 정도였다. 또한 목포부회와 전남도회 의원으로도 활동한다. 1937년 박화성과 결혼한다. 박화성은 1926년 동경 유학 당시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복 후 북한에서 들어오던 원료가 끊겨 가동율은 20%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한다. 1955년에는 대한해운조합연합회 전무 등을 역임한다.(정기영)

최병우(崔秉宇, 1924~1958)

언론인. 당시 호남은행 목포지점장을 하던 최건홍(崔健洪)과 어머니 허길도(許吉道)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목포북교보통학교 4학년 때 부모를 따라 서울로 이사하였으며, 교동보통학교에 전학하고, 1937년에는 제일고등보통학교(지금의 경기고)에 수석 합격하였다. 1942년 일본으로 유학, 시코쿠고치고등학교[四國高知高等學校]에 입학하고 1944년에 도호쿠제국대학[東北帝國大學] 법학부에 입학했으며, 이듬해인 1945년 6월에는 일본군에 징병당하였다. 1945년 9월 광복으로 귀국한 그는 미군정청 외무처에 들어갔고, 1947년에는 외무처 도쿄 공관의 섭외담당관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주일 대표부 서기관으로 봉직하였다. 1950년 5월 재일교포 김남희(金南姬, 경북 고령 출신, 재일교포, 도쿄여자고등사범학교 졸업)와 결혼한다. 결혼 후 주일대표

부 생활을 그만두고 1950년 당시 한국은행 조사부장이던 장기영을 도와 한국은행 도쿄지점 개설에 공헌하였으며, 장기영이 『조선일보』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그를 외신부장으로 기용하게 되는데 최병우의 뛰어난 영어 실력을 높이 평가하였기 때문이라 한다. 그러나 그는 본사에서 외신의 정리나 편집에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중군기자를 지원하여 전선 취재에 열중하였다. 1954년 6월 장기영이 『한국일보』를 창간하자 다시 『한국일보』 외신부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1955년에는 편집부국장으로 승진한 후 1956년 6월에는 영자(英字)지 『코리아타임즈』 편집국장으로 발탁되었다. 1957년 1월 11일 평소에 젊은 기자들과 함께 추진해 오던 한국 언론의 권위 있는 친목·연구 단체인 관훈클럽을 발족하고 신문 주간을 창설해 그 행사의 주체로 같은 해 4월 7일 한국신문편집인협회를 탄생시키고 이날을 ‘신문의 날’로 정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편집국장(『코리아타임즈』)이면서도 일선 취재를 희망하여 1958년 7월에는 인도네시아 내란을 취재하고 곧이어 9월 11일에는 중국과 대만(당시 자유중국)간에 전쟁이 한창이던 때, 대만 해협(金門島)에 중군하여 취재 중 차량 사고로 중상을 입었다. 동월 16일 치료 중이던 부상의 몸으로 다시 진먼섬에 상륙하려다가 조난당해 35세의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했다. 그가 6·25전쟁 기간 중 일선 중군기자로 활약하던 때 남북 간에 휴전회담 성립과 휴전협정 체결 과정을 취재하였으며, 휴전협정이 한국 대표의 참여 없이 조인된 사실에 서글픔과 울분 섞인 논조로 기사를 썼던 사실은 너무나도 유명하다. 평소에 “독자의 지식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독자의 정보를 과대평가하지 말라.”라는 신조 아래 꼼꼼하면서도 왕성한 패기와 열정으로 역량부약하는 언론정신을 보여 주었으며 그래서 그는 동료 언론인들 사이에 최고위원으로 불렸다 한다. 그가 남긴 불멸의 업적인 관훈클럽과 신문의 날이 존재하는 날까지 최병우는 모범 기자로서, 또 목포 출신 한국 최초의 순직 중군기자로서 기억될 것이다.(장용기)

최섭(崔燮, 1905~2000)

의사, 미군정기 목포부윤, 교육자. 1937년 11월 17일자 『동아일보』에 ‘행림계(杏林界)에 거성(巨星)’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어 있다. 행림계는 의원 사회를 뜻한다. 목포시 죽동 49번지에 거주했으며, 세브란스의전(醫專)을 졸업한 후 목포에서 의사로 활동했다. 의술과 인격을 갖춘 의사로 지역민들의 신뢰를 얻었으며, 목포 개항 이후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세운 ‘부란취(富蘭翠)병원’ 원장을 역임했다. 부란취병원은 목포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미남장로교회의 의료활동에 의해 시작되었다. 1899년 봄 오웬(C. C. Owen, 한국명 오원 또는 오기원)에 의해 현대식 의료가 처음 목포에 보급되고, 10년 후인 1909년 건평 191평의 규모를 갖춘 번듯한 석조 양옥의 병원이 만들어졌다. 이 병원은 미국인 의학박사 윌리 해밀톤 포사이드가 ‘프렌치 메모리얼’의 기부를 받아 만들었다. 그 때문에 ‘부

란취'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양인에 의해 시작된 부란취병원은 이후 조선인에 의해 운영되었고, 그 중심에 의사 최섭이 있었다. 후에 제중의원으로 이어졌다. 일제 강점기 목포부립병원이었었는데 일본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개항장 지역에 설치되었고, 일본인 의사들이 진료를 했다. 그에 반해 부란취병원은 조선인을 위한 병원이었다. 매년 7~8천 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최섭은 미군정기 목포부윤(木浦府尹)을 역임했다. 목포에 진주한 미군 제55군정중대는 의사 출신이자 양동교회 장로로 사회적 덕망이 높은 최섭을 부윤으로 지명하였다. 1947년 3월 25일 목포방송국 존폐문제와 관련 협회장을 맡아 방송 청취자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1948년에는 목포지구 선거위원장을 맡았다. 최섭은 또한 교육계에 몸담아 정명여자중학교 교장을 지냈다. 일제 강점기 신사 참배 강요를 거부하고 자진 폐교된 정명여학교가 1947년에 복교되자 제10대 교장으로 취임하였다.(최성환)

[참고자료 : 대한연감사, 『대한연감』1955년판, 1957; 목포개항백년사편찬위원회, 『목포개항백년사』, 목포백년회, 1997; 『동아일보』 1937. 11. 17.; 『동광신문』 1947. 07. 01.; 『동광신문』 1948. 05. 16.; 목포정명여자고등학교 홈페이지(<http://mpjm.hs.jne.kr/>) 「학교연혁」.]

최진열(崔振烈, 1926~2012)

현대무용가. 전남 목포 출신. 호는 백주. 전남 목포시 죽교동에서 출생하여 평생을 목포에서 살았다. 1948년 목포사범학교를 졸업하고 1950년 서울사범학교 체육학과 3학년을 중퇴하였다. 1950년 11월 목포사범학교 준교사로 부임해 근무하다가 1958년 사임하였다. 1957년 목포무용협회를 창립하여 초대 회장으로 추대되어 25년간 회장을 역임하면서 목포 무용의 기반을 닦았으며, 개인 발표회를 수회 열었을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1957년 5월 9일 제1회 '최진열 무용발표회'를 가졌으며 이후에도 수년 동안 꾸준히 '최진열 무용발표회'를 개최하였다. 1958년 목포문화협회(예총 목포지부 전신) 창립 멤버로 오랫동안 목포예총을 위해 헌신하였다. 1960년에는 제자들을 이화여대 주최 '제6회 전국 여자중·고등학생 무용콩쿨'에 참가시켜 안무자로서의 면모도 보여주어 '제7회 전국 여자중·고등학생 무용콩쿨'에서 안무공로 및 지도교사상을 수상했다. 1983년 목포예총 부회장을 역임하였고 1992년 목포예총 정기총회에서 제10대 회장으로 피선되어 지역 예술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으며, 무용협회 목포지부 고문으로 활동했다. 1993년 목포예총 부설 '주부대학'을 설립하여 '주부예술대강장'으로 목포 지역민들의 예술 대중화에 힘썼다. 최진열은 춤뿐만 아니라 서예와 그림까지 섭렵했던 예술인이었다. 전시 등을 통하여 작품 발표회를 열었으며 예술에 대한 다양한 '끼'를 보여주었다. 목포에서 무용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많은 무용인들을 길렀으며, 대표적인 제자로는 오랫동안 목포 지역

무용교육을 담당해 온 전충자, 한국 현대무용의 대모로 불리는 세종대학교 교수 최청자, 목포시립무용단 초대 단장으로서 목포 무용예술 발전에 기여한 정영례 등이 있다. 그의 무대는 시대를 앞선 내용으로 충격을 주기도 했으며,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현대무용 「박테리아」 등이 있다. 남농예술문화상, 대한민국사회교육문화상 금상 등을 수상했다.(이숙진)

[참고자료 : 김미숙, 『광주 근·현대 무용사』, (사)한국무용협회 광주광역시지회, 2013.]

최찬열(崔燦悅, 1906~2006)

여성운동가, 사회사업가. 강원도 영양군 영양읍 임천리에서 출생하였다. 서울배화여고, 1958년에 서울중앙신학교 사회사업학과 본과를 졸업하였다. 1932년 결혼 후 강진군 작천면에 야간학교를 운영하면서 사회사업활동을 하였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 야간학교가 반일운동의 일환으로 몰리면서 목포로 이주하게 된다. 1945년 광복이 되자 조국의 발전을 위해 여성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목포부인회를 조직하여 회장에 취임하였다. 부인회의 첫 사업은 목포 시내 6개 교회에 야간학교를 개설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한글교실 등의 운영이었다. 이외에도 목포여자청년단(1946), 목포YWCA(1947)를 창립하였고, 20년 동안 목포YWCA 회장을 지냈다. 특히, 목포 지역 여성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여성회관 건립에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였고, 자금을 모금하여 여성회관을 준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목포시장의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후 1947년 목포십자원(현 목포아동원)을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시작한다. 40대에는 전라남도 공보과 부녀계장, 미국공보원 목포지원 문화과장, 대한적십자사 목포지사 부지사장 등의 공직에 종사하였다. 그 외에도 인권옹호위원, 목포시정 자문위원, 방위협회 위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가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66년 제3회 용신봉사상 본상, 1967년 동아일보사(『신동아』)가 선정한 ‘한국의 사회사업가 11인’의 한 사람이 되었고, 1979년 전남매일신문사가 수여하는 지역대응상(복지부문)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였다.(최정민)

[참고자료 : 목포지역사회복지시설연합회, 『사회복지, 그 현장의 소리』, 하마출판, 2004.]

최하림(崔夏林, 1939~2010)

시인. 1939년 신안군 팔금면 원산리에서 태어나 목포에서 성장했다. 아버지를 일찍 여윈 그의 집안은 수업료를 내지 못해 학교를 다닐 수 없을 만큼 가난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드러난 학력이 없

다. 6세에서 11세까지 수화 김환기의 고향 신안군 안좌면 기좌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다시 목포로 나와 오거리 일대를 중심으로 문학 청년기를 보냈다. 1962년 김현, 김승옥 등과 함께 산문시대 동인을 결성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 동인지 『산문시대』를 5집까지 발간하는 데 기여했다. 박석규·원동석·김소남·양계탁 등과 「고도를 기다리며」를 무대에 올리는 등 연극에도 관심을 보였으며, 나중에 『문학과 지성』 창간에 관여하기도 했다. 1965년 이후 약 30년 동안 서울 생활을 하다가 1988년 광주로 내려와 10년 동안 『전남일보』 논설위원으로 재직했다. 은퇴한 후에는 충북 영동과 경기도 양수리를 전전하다가 2010년에 질병으로 타계했다. 산문시대 동인으로 활동하던 1964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시 「빈약한 울폐의 회상」이 당선되어 시단에 나온 최하림은 우리 시단의 균형주의자 혹은 중간주의자로 잘 알려진 시인이다. 그는 목포에서의 문학청년 시절을 회상하면서 “김현이 아폴로였다면 김지하는 디오니소스였다.”고 술회한 바 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 두 사람을 합친 이미지에 가깝다고 말하고 있다. 그의 시 세계는 초기 모더니즘에서 중기에 리얼리즘으로 바뀌었다가 후기에 다시 이를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시적 사유도 서양적인 것과 동양적인 것이 적당히 혼용되어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색깔로 말하면 회색에 가깝다. 그래서인지 문단의 주목을 크게 끌지는 못했다. 최하림의 시에 나타난 목포는 첫 시집 『우리들을 위하여』에 집중되어 있다. 그는 문학청년 시절 프랑스의 상징주의 시인 보들레르, 말라르메, 발레리 등에 경도되어 있었다. 특히 발레리의 시집 『해변의 묘지』는 불박이 텍스트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의 첫 시집에는 지중해의 몽환적 이미지가 넘실거린다. 「황혼」 등 초기 시의 주요 무대는 목포의 해안통과 대반동 바닷가이다. 그는 학교를 가지 않은 날이면 늘 혼자서 해안통을 거닐었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목포 해안통과 대반동 일대는 그의 초기 시가 태어난 산실인 셈이다. 그러나 그의 바다와 관련된 시편들은 구체적인 삶이 살아있는 건강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둠·불안·공포에 휩싸인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색채를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집으로 『우리들을 위하여』(1976), 『작은 마을에서』(1982), 『겨울꽃』(1985), 『겨울 깊은 물소리』(1987), 『속이 보이는 심연으로』(1991), 『굴참나무숲으로 아이들이 온다』(1998), 『풍경 뒤의 풍경』(2001), 『때로는 네가 보이지 않는다』(2005) 등 8권과 2010년 작고 직전에 발간한 『최하림 시 전집』이 있으며, 시선집 『사랑의 변주곡』, 미술 에세이 『한국인의 멋』, 김수영 평전 『자유인의 초상』, 산문집 『멀리 보이는 마을』 등을 펴냈다. 조연현문학상, 이산문학상, 올해의 예술상 문학부문 최우수상(2005)을 수상했다. 최하림은 김지하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목포 출신 시인이 분명하지만, 안타깝게도 고향 목포로 돌아오지 못했으며, 현재 그를 기념하는 문학비도 전무하다.(김선태)

[참고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다음백과(<http://100.daum.net/>);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

하동현(河東鉉, 1903~1969)

제5대(관선), 제7대(민선 간선 2대), 제8대(민선 직선 초대) 목포시장. 진주 하씨. 전남 강진 병영에서 출생. 부 하도일(河道一)의 3남 1녀 중 장남. 1918년 목포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목포공립간이상업학교를 입학하여 1920년 졸업하여 1922년 목포공립보통학교 교원으로 임명되었다. 1928년 교원을 그만두고 1929년 목포부 학교비사무원에 임명되었고 1932년 목포부 재무과 서기, 1941년 재무과 징수계주임, 1943년 재무과 부과계장, 1945년 총무과 내무계장, 1946년 총무과 비서계장, 12월에 목포부 재무과장, 1948년 목포부 산업과장을 하다가 1950년 4월 목포부시장에 임명되었다. 그해 11월에 순천시장에 임명되었고 1952년 4월에는 제5대 목포시장으로 임명되었다. 1952년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목포시의회에서 초대 민선시장이자 제6대 목포시장으로 박재우 시장이 선출됨에 따라 해직되었다가 박 시장이 사임하면서 1952년 10월 24일 목포시의회에서 제2대 민선 목포시장이자 제7대 목포시장으로 선출되었다. 1956년 7월에 임기를 마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직선 선거에 출마하여 1956년 8월 8일 당선됨으로써 직선에 의한 민선 초대 목포시장이자 제8대 목포시장이 되었다. 1961년 4월부터 약 3개월간 목포시 교육감을 역임하였으며, 1962년 12월에는 재건국민운동 전라남도 무안군지부장에 임명되어 약 20개월 근무하였다. 행정관료로서의 오랜 경력과 능력으로 1963년 목포시행정자문위원회, 1964년 무안군행정자문위원회, 1964년 영산강유역간척추진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기여하였다. 하동현 시장은 재임 중에 약 30여 년을 두고 식수에 시달린 목포 13만 시민들의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주 황룡강으로부터 송수해오는 상수도공사를 1957년 5월 11일 착공하였다. 이 공사는 미국의 원조를 받아 실시되었는데,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같은 수원을 쓰는 나주시와의 갈등이 심해지자 나주읍을 방문하여 읍의원과 자유·민주 양당 책임자 및 읍의회 의장 등을 설득하여 가능하게 되었다. 목포근대역사관 1관 앞에는 하 시장 공적비가 세워져 있는데 “전 시장 하동현 선생은 인의로 십년 시정을 펴고 장장 삼백 리 영산강수를 이끌어 들이니 물이 넘치는 곳에 덕이 흐르고 만인이 어진 이의 뜻을 노래하여 이비를 세우다.”라고 새겨 식수 문제 해결의 공적을 기리고 있다. 미국 국무장관의 초청으로 1957년 7월 29일~9월 17일, 약 50일간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외국(미국) 지방행정시찰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서 그는 행정책임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책임으로 하여 지나친 우월감이나 집행부의 독단을 막는 제도의 연구,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공채발행제도의 사용, 사무 간소화를 통한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학계와의 교류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하 시장은 평소 서예에 조예가 깊

고 한시에 능하여 목포시장 재임기간에 ‘목포 8경’을 명명하고 편액의 한자를 친필로 썼으며, 1965년에 발간된 『목포 풍아집(木浦風雅集)』에 한시 작품을 싣기도 하였다.(김병록)

[참고자료 : 고석규, 『근대도시 목포의 역사·공간·문화』, 서울대 출판부, 2004.; 하동현 「외국(미국) 지방행정시찰보고서」, 지방행정, 1957; 『전일신문』 1956. 07. 13. 「하 목포시장 사표 본격화 될 선거운동」.]

허건(許健, 1908~1987)

한국화가. 본관은 양천(陽川), 호가 남농(南農)이다. 허선문(許宣文)의 33세손으로, 남농의 가계는 조선 중기에 진도로 낙향하였다. 남농의 조부 소치 허련(小癡 許鍊, 1808~1893) 대에 이르러서는 일반 서민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영락한 형편이었다. 하지만 소치 허련이 후에 사귀게 되는 경향의 내로라하는 인사들과 어깨를 겨루는 데 손색이 없을 만큼 시(詩)·서(書)에도 능했을 뿐만 아니라 폭넓은 인문 교양을 두루 갖추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비록 집안 형편은 보잘것없이 되었지만 그 저류에 흐르고 있던 선비 가문으로서의 뼈대와 가통은 면면히 이어오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우리 회화사에 커다란 자취를 남긴 소치는 진도에 윤림산방(雲林山房)을 개창하였다. 그 뒤를 이은 미산(米山) 허형(許潁, 1862~1938) 또한 아버지 소치에 버금가는 서화가로서의 재능을 타고나, 한말에서 일제 강점기에 걸쳐 남종화(南宗畵)의 태두로 추앙받았다. 목포 최초의 전업화가이기도 하다. 그의 호남 남종화단에서의 위상을 가리켜 평자는 “추사(秋史) 없는 소치를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미산 없는 의재(毅齋)나 남농을 생각할 수가 없다.”고 말하곤 한다. 남농은 1908년 음력 6월 12일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209번지 소허암(小許庵)에서 미산의 5남 중 4남으로 태어났다. 이후 9살 때까지 이곳에서 자랐다. 1916년 미산이 참척(慘慼)의 아픔으로 심화를 이기지 못해 방랑길에 오르자 그런 아버지를 찾아 남농은 어머니와 함께 부친이 우거(寓居)하는 강진군 병영면 성동리 40번지로 이거한다. 이후 서당에 다니며 한문을 익히다 1920년 강진군 병영면 세류공립보통학교(현 병영초등학교) 1년에 입학했다. 1923년, 보통학교 4학년 때 목포시 북교동 232번지로 이사해서 이듬해인 1924년 목포공립보통학교 4학년으로 전입학했다. 5학년 때 조선총독부 학무국 주최 전국 초등학교 서화작품전에 「상림(霜林)의 풍경」으로 2등상에 입상,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상을 수상하였으며, 이때부터 회화 수업에 정진하였다. 무정(茂亭) 정만조(鄭萬朝)가 농부가 곡식을 가꾸듯 남종화를 부지런히 가꾸라는 뜻으로 남종화의 ‘남’과 농부의 ‘농’을 따서 호를 ‘남농(南農)’이라 지어주었다. 6학년 때는 목포 개항 기념 전라남도물산공진회에 남화풍의 산수화 2폭을 출품하여 2등상에 입상하였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진학을 단념했다가 1928년(21세), 중학 3년 과정의 목포중학원(후에 목포상공학원이란 명칭을 거쳐

목포상업전수학원으로 개칭)에 입학하였다. 2년간 목포중학원에서 수학 후 가세가 어려워 학교를 중퇴하였고, 1930년 5월에는 제9회 선전(鮮展)에 출품하여 처음으로 입선하였다. 작품은 「산고수장(山高水長)」과 「추(秋)」이다. 1934년(27세)을 전후하여 목포시 죽교동 138번지로 이사했다. 1935년 제14회 선전에는 신병으로 출품하지 못했는데, 이해부터 골습(骨濕)이 발병하여 심한 통증과 함께 보행에도 불편을 가져오게 되었다. 1938년 부친이 타계하였고, 1942년에는 동생 임인(林人) 허림(許林)이 26세로 영면하는 아픔을 겪었다. 1942년 9월, 일본 대동남중원(大東南宗院) 공모전에 「잔설(殘雪)」을 출품하여 입선하였고, 1년 뒤에는 「만일암(挽日庵)」으로 남중원전에서 입선하였다. 1943년 10월 「운문암(雲門庵)」을 생애 처음으로 일본 문전(文展)에 출품하여 입선하였다. 1944년(37세) 일제 마지막 선전이 된 제23회 선전에 출품하여 특선하여 최고상인 조선총독상을 수상하였다. 작품은 「목포의 일우(一隅)」이다. 12월 29일에는 그동안 차츰 도를 더해 가던 골습이 더욱 악화하여 서울 육병원(현 연세대 의료원)에서 왼쪽 하지 부위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1946년 5월, 후진 양성을 목적으로 화실인 죽동장에 남화연구원(南畵研究院)을 개설, 이후 약 30년 동안 문하생을 가르쳤다. 남화연구원을 거친 이름 있는 화가로는 아산(雅山) 조방원(趙邦元), 도촌(稻邨) 신영복(辛永卜), 우남(又南) 이옥성(李沃城), 청당(靑堂) 김명제(金明濟), 백포(白浦) 곽남배(郭南培), 전정(田丁) 박항환(朴亢煥) 등이 있다. 1950년 9월에 5년 전부터 틈틈이 써 오던 『남종회화사(南宗繪畫史)』를 탈고하였고, 이 원고는 1994년에야 후손에 의해 서문당에서 출간되었다. 1953년(46세) 2월, 죽교동에서 모친을 여윈 후 죽동 250번지로 이사했다. 10월에는 제2회 국전에 국전 추천(推薦)작가로 출품하였다. 1954년 9월 국전 초대(招待)작가로 위촉되어 작품 「성지(城址)」(국전 제3회)를 출품했다. 이후 국전 초대작가 또는 추천작가로 1978년 제27회 국전까지 연속 출품했다. 1957년 6월, 한국화의 새로운 방향 모색과 후진 양성을 위해 설립한 백양회(白陽會) 창립회원(김기창, 이유태, 이남호, 장덕, 박내현, 김영기, 김정현, 천경자, 허건)이 되어 백양회 공모전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고, 이후 1977년 제26회 백양회 회원전까지 계속 출품하였다. 1960년 9월 제9회 국전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고, 이후 1965년(제14회), 1966년(제15회), 1970년(제19회) 국전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 1982년(75세) 4월 3일 진도 윤림산방을 복원 준공하였고, 10월 20일 대한민국 문화훈장(은관)을 수훈하였다. 1983년 2월 2일, 대한민국 예술원 원로회원이 되었다. 7월 1일, 목포시에 윤림산방 3대(소치, 미산, 남농)의 회화 작품, 목물(木物), 도자기와 2,000여 점의 수석(壽石)을 기증하였다. 1985년 10월 남농기념관을 준공 개관하고 작품 제작실을 죽동장에서 남농기념관으로 옮겼다. 1987년 11월 5일, 80세로 타계하였다. 장례는 11월 9일 목포시민장으로 치러졌고, 전남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봉수산 남록에 안장되었다.(오홍일)

[참고자료 : 허건, 도미자 옮김, 『남종회화사』, 서울당, 1994; 허희경 편, 「남농 허건화백 개인기록 카드」, 남농기념관 소장 자료; 허씨종친회, 『허씨대종보 십권지팔 양천허씨편』, 1980; 목포부, 『목포부사』, 1930; 예총목포지부 편, 『목포예총소사』2, 1985; 목포문화원, 『목포문화』창간호, 1988; 목포북교초등학교 총동문회, 『북교백년사』, 1997; 박찬승 편, 『목포근현대신문자료집성』상, 목포문화원, 2002; 남농기념관, 『남농기념관소장품선』, 삼성 이데아, 1998; 남농기념관 소장 『남종회화사 원고』, 2002; 문순태, 『소치일가사대화집』, 양우당, 1990; 남농 화백의 장남 허경(許頌)의 증언; 강진군 병영면 성동리 39번지 거주 김정식의 증언.]

현준호(玄俊鎬, 1889~1950)

기업가. 전남 영암에서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현기봉의 아들로 태어났다. 본관은 성산(星山), 호는 무송(撫松)이다. 현준호는 중추원의 참의를 지내는 등 일제에 적극 협력한 지역 유지로, 그의 집안은 호남 지방에서 유명한 거부 가문이었다. 9세에 아버지를 따라 목포로 이주해 담양군 창평의 영학숙(英學塾)에서 수학하고 일본 메이지대학에서 공부했다. 1917년 귀국하여 1919년 7월 주식회사 호남은행의 발기인이 되어 은행 창립에 힘썼다. 1920년 8월 광주에 호남은행을 설립하고 취체역 겸 전무취체역에 취임했다. 이와 함께 주식회사 동아일보가 설립되자 이 신문사의 감사에 위촉되었다. 1924년 4월 전라남도 도평의회원에 임명되었다. 1926년 5월 전라도시제사(全南道是製絲) 주식회사 취체역, 조선생명보험 주식회사 감사에 취임하였다. 1930년 1월 호남은행 두취(은행장)에 취임했다. 호남은행은 일본의 식민자본 이식에 맞서 광주와 목포를 기반으로 한 지주자본과 상업자본의 규합으로 설립된 순수 민족계 은행이었다. 처음에는 광주에 본점, 목포에 지점을 두고 발족했으나 전남 각지와 경상남도 지역까지 지점이 설치되어 대은행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일제가 민족계 금융기관에 대한 일본인 자본의 지배를 강화하고자 1942년 4월 강제로 호남은행을 동일은행에 매각시켜 버렸다. 현준호는 광주·목포·영암 등지에서 금융인·기업인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한 것 못지않게 친일 행위도 많았다. 1949년 반민특위의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6·25전쟁의 와중에 광주에서 인민군에게 희생당하였다.(정기영)

[참고자료 : 네이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홍순기(洪舜基, 1929~2012)

기업가, 교육자. 1929년 목포에서 출생, 목포 중·고등학교와 서울대 상과대를 졸업하고 1954년

어망제조회사인 남양을 설립했다. 남양은 어망 단일 품목으로는 국내 최초로 수출 100만 달러를 돌파했다. 남양을 세계 최대의 어망제조회사로 키우며 1966년 대한어망공업협회 이사장, 1967년 한국무역협회 이사를 역임했다. 어망제품에 대한 연구개발과 기술투자로 어구자재의 국산화에 앞장섰으며 편상기, 해태 건조기 등 각종 기계류 제품 등도 개발해 왔다. 1990년 이후 중국투자 실패와 원양어업의 쇠퇴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해서 1994년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2003년 법정관리에서 벗어났으나 2004년 상장 폐지된다. 1980년 영흥중·고등학교를 인수하고 자신의 아호를 딴 유집(裕集)학원을 설립하면서 2008년까지 영흥중·고등학교 이사장을 맡았다. 이사장으로 재직 중에도 전남수영연맹 회장,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상임위원, 전남발전연구원 이사장 등을 두루 거쳤다. 생전에 새마을훈장 근면장과 금탑산업훈장, 국민훈장 모란장 등을 수상했다.(정기영)

홍정희(洪禎禧, 1934~1997)

무용가. 전남 목포 출신. 아버지 홍주표와 어머니 김이순의 3남 3녀 중 셋째 딸로 태어났다. 초등학교 때부터 무용을 시작, 목포여자중학교 무용교사 정춘혜에게 본격적으로 무용지도를 받았다. 1953년 이화여자대학교 최우수 장학생으로 무용과에 입학하여 박외선에게 사사했으며, 1956년 이화여자대학교 우수졸업생으로 특출한 두뇌와 춤 재능을 발휘하였다. 1958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여 무용 「사슴호의 전설」로 석사학위를 받아 최초의 석사 무용가가 되었다. 그해 제1회 무용발표회를 이화여대 강당에서 갖게 되었고 「사슴호의 전설」, 「승무」, 「탈춤」, 「월요일의 기도」 등의 작품으로 무용계에 커다란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1959년 9월 이화여자대학교 체육학과 교수로 첫 부임하여 1991년까지 재직하였다. 한국 발레 개화기 개척자 중 한 사람으로, 한국 무용계의 대모라고도 불렸다. 그의 발레는 민족적 정체성과 시적 감수성이 두드러지게 눈에 띈다. 데뷔작 「사슴호의 전설」이나 「코리아 환상곡」 등에서 민족적 정체성을, 「신시」에서 그의 시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1970년 제3회 무용발표회에서 애달픈 그리움의 존재인 어머니의 죽음을 표현한 「조용한 대답 '70」을 국립극장에서 발표하였다. 1971~1974년에는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지방 순회공연, 1981년에는 지체 부자유자를 위한 자선공연 등을 통하여 개척자로서의 발레 보급과 저변 확대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1971년 제4회 무용발표회 '코리아환상곡'(국립극장)을 창작 발레화하였으며, 한국적인 발레를 향한 뜨거운 집념이 그의 예술세계에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 선구자 역할과 더불어 후진들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대표작으로는 「조용한 대답 '70」·「코리아환상곡 '71」·「청물 '74」·「아가 '78」·「어떤 쾌적 '82」·「원화 '83」·「십자 '84」·「50흔적 '85」·「신시 '88」·「장생도 '88」·「녹색의 불길 '90」 등이 있다. 1984년 한국발레연구회를 창립하여 국립극장에서 창단 기념 공연을 가졌고 이사장으로

서 한국 발레의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1985년부터 한국발레연구회지 발간을, 1987년부터 학술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학문적인 이론 정립에도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 1988년 『무용역사를 통해 본 그의 예술성과 교육적 기능』을 번역 발간하였으며, 1988년 2월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이학박사를 취득하여 「백조의 호수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다. 1988년까지 15회의 개인 발표회를 가졌으며, 1994년 국립극장에서 그의 제자들로 구성된 실행위원이 마련한 '홍정희 발레 35주년 기념' 공연에서 「코리아 환상곡」에 출연하여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였다. 1977년 외국 무용부 공로상과 1984년 프랑스 깔까손시장 문화메달, 1984년 11월 제33회 서울특별시 문화상, 1985년 대한민국 문화예술상(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이숙진)

[참고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네이버 지식백과(<http://terms.naver.com>) 「홍정희」.]

다섯 마당 목포시사

4권 터전 목포

집필위원 (가나다순)

강 수 남 (사)한국미술협회 이사
고 정 서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연구보조원
곽 유 석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연구위원
곽 재 구 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권 효 목포장학재단 이사
김 경 완 신안문화원 사무국장
김 동 규 목포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김 병 고 (사)한국예총 목포신안지회 고문
김 병 록 목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 선 태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 정 섭 목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소장
김 양 호 목포기독교역사연구소 대표

김 영 태 목포대학교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박 병 옥 목포상공회의소 사무처장
박 종 길 세한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
박 혜 영 목포대학교 문화와자연유산연구소 박사후연구원
손 창 식 손창식 석조전시관 관장
오 홍 일 목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이 경 아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연구위원
이 기 갑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 기 훈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부교수
이 숙 진 (사)한국무용협회 목포지부장
이 유 리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이 윤 선 남도민속학회 회장

장 용 기 목포MBC 편성제작부 부국장
장 유 정 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 교양학부 교수
전 호 문 목포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정 경 진 KBS목포방송국 작가
정 기 영 세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정 미 영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연구보조원
정 태 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연구원
조 상 현 목포문화원 사무국장
최 성 환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교수
최 연 식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최 정 민 목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다섯 마당 목포시사

4권 터전 목포

발행처	목포시·목포시사편찬위원회
편저	목포시사편찬위원회(각유석 외 34명)
총괄	목포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고석규
기획·편집	고석규, 나선휘, 조미은
교정·교열	나선휘, 조미은
행정지원	임진택, 정혜림
발행일	2017. 12. 31

디자인·편집·인쇄 이문

전남 나주시 북망문길 20 / 061-333-9913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422 / 062-225-9913

다섯 마당 목포시사 ISBN 979-11-87136-00-2(전5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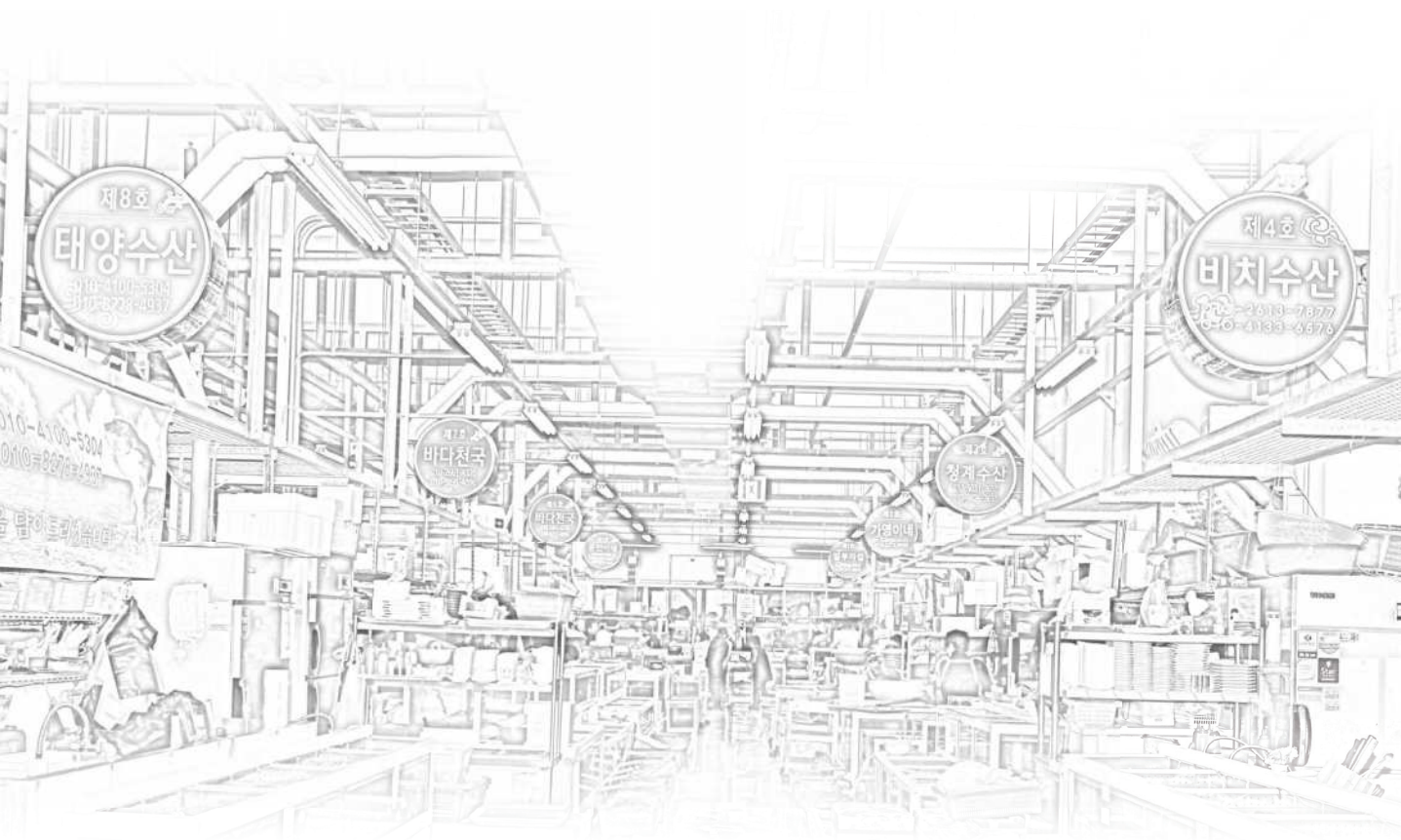
4권 터전 목포 ISBN 979-11-87136-04-0

〈비매품〉

다섯 마당 목포시사 전5권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므로 무단복제 및 전재를 금합니다. 이 책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재사용하려면 저작권자인 목포시와 목포시사편찬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木浦市史

- 제1권 항도 목포
- 제2권 예향 목포
- 제3권 일등 목포
- 제4권 터전 목포
- 제5권 기록 목포



9 791187 136040

ISBN 979-11-87136-04-0

ISBN 979-11-87136-00-2 (세트)